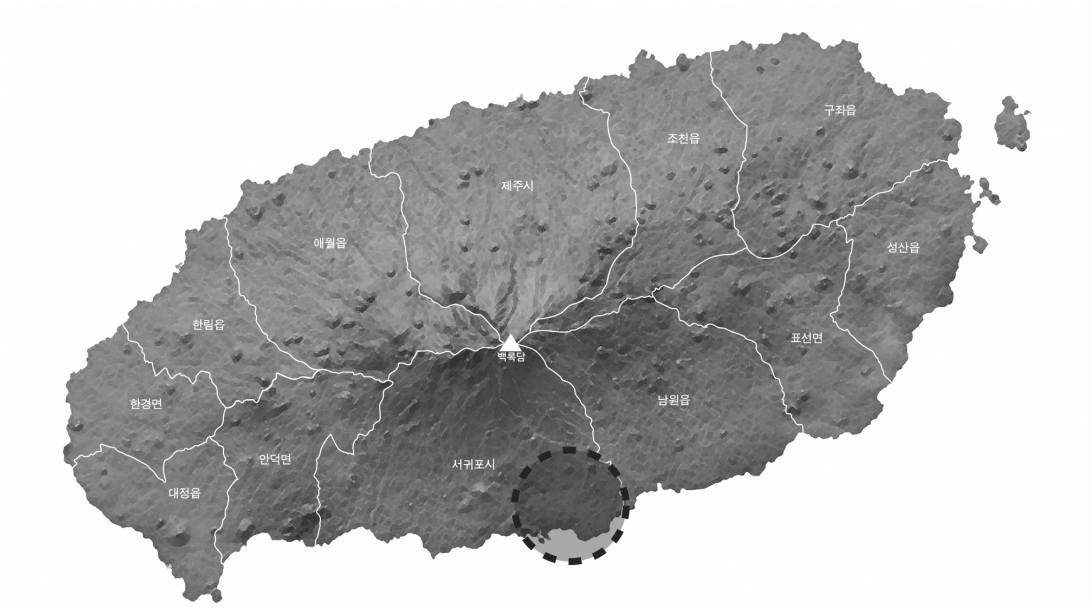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415-01

2017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7
-서귀포시 보목동

구술: 강진우 김금전 양정상 이정선 현원후 한승옥
전사·표준어 대역: 최연미



Jeju 제주특별자치도
JRI 제주학연구센터

2017년 제주어구술자료집(1-10)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기관 대행 사업을 수탁한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가 작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7

-서귀포시 보목동

목 차

Ⅰ. 사업개요

Ⅰ. 사업개요 ····· 5
1. 사업 목적 ····· 5
2. 사업 기간 ····· 5
3. 사업 참여자 ····· 5
4. 조사 지점과 제보자 ····· 6
5. 사업 추진 과정 ····· 7
6. 표준어 대역 ····· 8
7. 주석 ····· 8

Ⅱ. 구술 자료

1. 조사 마을 ····· 9
2. 제보자 일생 ····· 24
3. 밭일 ····· 62
4. 들일 ····· 95
5. 바다일 ····· 119
6. 의생활 ····· 141
7. 식생활 ····· 179
8. 주생활 ····· 223
9. 신앙 ····· 277
10. 세시풍속 ····· 281
11. 놀이 ····· 300
12. 민간요법 ····· 329
13. 경험담, 속담, 금기어 듣기 ····· 361

Ⅰ.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2017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 종료에 따른 구술 자료를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게 제주어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는 데 목적이 있다.

3개년에 걸친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1~36)는 현장에서 조사된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은 물론 어휘적 특색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보고서는 제주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서 보고서 활용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용의 제한을 극복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려면 제주어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다는 작업이 불가결한 일이다.

나아가 이 표준어 대역하고 주석을 달아 만든 ≪제주어구술자료집≫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12조에도 부합한 일로, 소멸 위기의 제주어의 보전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에도 기여를 할 것이다.

2. 사업 기간

2017년 3월 ~ 2017년 12월 31일

3. 사업 참여자

이 ‘2017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연구자는 2014년부터 시작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에 참여했던 연구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 담당자를 동일하게 배당함으로써 표준어 대역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리라는 판단에서다.

이렇게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을 동일인으로 담당하게 함으로써 조사할 때의 발화 상황은 물론 조사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서 원만한 표준어 대역 작업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다.

또 현지 조사자와 표준어 대역을 동일인으로 함으로써 조사할 때 미흡했던 내용이나 부족하거나 불충분한 부분을 보강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더불어 추가 조사의 편이성도 아울러 고려하였다.

사업 참여자의 소속과 전공, 연구 역할은 다음과 같다.

이름	소속과 전공	분야	참여 구분
박찬식	제주학연구센터	역사학	연구 책임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국어학(제주도방언)	교열 및 감수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총괄, 제주시 도련1동 표선면 표선리
김미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조천읍 선흘1리
김선희	제주대학교 강사	고전문학(제주무속)	구좌읍 송당리
김승연	박사과정 수료	한국학(제주무속)	성산읍 고성리
허영선	제주대학교 강사	한국학(제주역사)	표선면 표선리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남원읍 남원리
최연미	돋을양지책드르	국문학	서귀포시 보목동
김성용	귀일중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안덕면 동광리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한경면 고산리
안민희	민요패 소리왓	한국학(제주민요)	한림읍 월령리
현혜림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	국어국문학	연구보조

4. 조사 지점과 제보자

‘2017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의 조사 지점과 구술 제보자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번호	조사 지점	구술 제보자	비고(담당자)
1	제주시 도련1동	양상수 이술생 이영숙 김옥순 이성칠	김순자
2	조천읍 선흘1리	조수용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수생 김민순	김선희
4	성산읍 고산리	김두하 정계춘	김승연
5	표선면 표선리	고옥년 송봉휴	허영선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고영주 정갑선	김보향
7	서귀포시 보목동	강진우 김금전 양정상 이정선 현원후 한승옥	최연미
8	안덕면 동광리	홍춘호 신원홍 고희정	김성용
9	한경면 고산리	김인세 이영형 이술색	신우봉
10	한림읍 월령리	강춘랑 고상춘 양창부 문국자	안민희

5. 사업 추진 과정

‘2017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총 9개월이 소요되었다. 본래 현지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부족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추가 채록을 실시하고 조사된 내용을 전사하도록 하였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모든 사업 참여자들이 모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의견을 모아 통일하였다. 매달 모임은 가급적 오류를 줄이고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회의를 거치며 통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한다.

-개인정보는 숨김표로 표시하고, 청취불능인 경우는 음절수만큼 꽃표(**)를 사용한다.

-필요하지 않은 잡담은 삭제하기로 한다.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와 표준어의 띄어쓰기를 같게 한다.

-문장부호 가운데 마침표와 쉼표는 휴지(休止)와 문맥에 따라 표시한다.

-‘하다’의 경우 ‘ᄒᆞ다’가 아닌 경우는 ‘허다’로 하고, ‘허는구나, 헷구나’ 등 ‘ㅓ’로 통일한다. 분명하게 ‘하다’로 발음한 경우에는 ‘하다’도 허용한다.

-표준발음과 달리 제보자의 발음이 된소리로 나는 경우는 원형을 밝히어 적되, 발음기호인 [ ] 속에 표기한다.

-보고서의 번호는 그대로 유지한다. 구술자료의 @는 조사사, #은 구술자라는 표시이다. 제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1, #2, #3 …처럼 표시하였다.

-활자 크기는 11포인트로 하며, 첫 줄은 ‘들여쓰기’ 하기로 한다.

-장 구분을 할 때는 enter를 2회 치기로 한다.

한편 월별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추가 채록										
추가 전사										
표준어 대역										
자료집 편집·교열, 감수										
자료집 발간										

6. 표준어 대역

표준어 대역의 근거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두었으며, 몇 가지 원칙을 정하여 통일을 기하려고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사된 모든 구술 자료는 표준어 대역을 한다.
- 조사된 내용에 따라 표준어 대역을 한다. 곧 조사자와 제보자를 번갈아 가며 조사했기 때문에 표준어 대역 또한 이에 따른다.
- 표준어 대역은 ( ) 속에 넣는다.
- 표준어 대역은 직역을 원칙으로 한다. 문맥에 맞게 의역한 경우는 주석에 그 내용을 밝힌다.
-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경우는 제주어를 그대로 옮겨 ‘ ’로 표시하고, 주석으로 그 내용을 밝힌다.
- ‘에, 으’ 따위의 담화 표지에 해당하는 것은 가급적 그대로 둔다.
- 외래어인 경우는 번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외래어를 그대로 둔다.

7. 주석

주석은 원칙적으로 표준어로 바꿀 수 없는 경우,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쓰인 경우, 지명 등 부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모아진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주석은 각주로 하되, 제주어에 주 번호를 부여한다.
- 주석은 주어-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 주석의 대상은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경우, 본래의 뜻과 달리 쓰인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경우로 한다.
- 지명인 경우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석을 간단하게 처리한다.
- 조사 과정의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한 경우에도 주석으로 처리한다.
- 동일한 내용이 주석으로 처리할 때는 면수(3~4면 간격)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Ⅱ. 구술 자료

(@: 최연미, #1: 강진우, #2: 김금전, #3: 양정상, #5: 이정선, #6: 현원후, #7: 한승옥)

1. 조사 마을

101001 @ 이 마을의 형성에 대해 얘기 헤주십서.(이 마을의 형성에 대해 얘기 해주십시오.)

101001 #1 보목리는 약 한 사백년 전이라고 하는데.(보목리는 약 한 사백년 전이라고 하는데.)

101001 @ 예.(예)

101001 #1 그 지금 현재 여기 그 우리 마을이 형성뒌 여기가 아니고.(그 지금 현재 여기 그 우리 마을이 형성된 여기가 아니고.)

101001 @ 예.(예.)

101001 #1 저쪽 동북쪽으로 저 ᄀᆞ막곶[1]이라 헤. 여기 이 지형이.(저쪽 동북쪽으로 저 'ᄀᆞ막곶'이라 해. 여기 이 지형이.)

101001 @ 예.(예)

101001 #1 거기서 살다가.(거기서 살다가.)

101001 @ 예.(예.)

101001 #1 거기서 뭐 처음 거주하다가, 그 이쪽 보는 제지기오름[2]이라고 잇어.(거기서 뭐 처음 거주하다가, 그 이쪽 보는 '제지기오름'이라고 있어.)

101001 @ 제지기오름예?('제지기오름'요?)

101001 #1 오름에서 물 내리는 것이 뭐야 그 풍수지리에 의헤서.(오름에서 물 내리는 것이 뭐야 그 풍수지리에 의해서.)

101001 @ 예.(예)

101001 #1 환자가 발생헤서 사름이 많이 죽어가니까.(환자가 발생해서 사람이 많이 죽어가니까.)

101001 @ 예, 예.(예, 예.)

101001 #1 이걸 안 뒈겟다고 헤서 이쪽으로 옮겻답니다. 구전이.(이걸 안 되겠다고 해서 이쪽으로 옮겼답니다. 구전이.)

---

1) 'ᄀᆞ막곶'은 보목동 193 · 176-1~ 2 · 177 · 148번지 일대를 끼고 북쪽으로 구불구불하고 울퉁불퉁한 길이 나 있다. 요철을 깔아놓은 듯한 암반지대이다. 1648년 경 보목마을의 설촌 세대인 조씨와 백씨가 오막살이를 지어 살던 곳이라 하여 'ᄀᆞ막곶'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2) '제지기오름'은 보목동 동쪽 끝 해안가에 있는 오름이다. 제보자에 따라서 '제제기오름'이라고도 한다.

101001 @ 예.(예.)

101001 #1 그 이쪽으로 옮겨서 내, 다리 잇는디, 내 동쪽에 처음에 헤서, 그쪽은 보목리라 헷고.(그 이쪽으로 옮겨서 내, 다리 있는데, 내 동쪽에 처음에 해서, 그쪽은 보목리라 했고.)

101001 @ 예.(예.)

101001 #1 서쪽은 사름이 점점 많아가니까 서쪽은 남포리라고 헤낫어요.(서쪽은 사람이 점점 많아가니까 서쪽은 '남포리'라고 했었어요.)

101001 @ 예.

101001 #1 남포리라 하다가 나중에 그 보목리로 확정젓는데 그 볼목리라는 이름이 에, 처음 이런 그 구전에 의헤 헌 것 때문에, 여기 저 보리수나무.(남포리라 하다가 나중에 그 보목리로 확정졌는데 그 보목리라는 이름이 에, 처음 이런 그 구전에 의해 한 것 때문에, 여기 저 보리장나무.)

101001 @ 아, 게난 그런 것들 잇잖아예?(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있잖아요?)

101001 #1 어.(어.)

101001 @ 보리수를 볼레낭[3]이라고 하잖아예?(보리장나무를 '볼레낭'이라고 하잖아요?)

101001 #1 어.(어)

101001 @ 그러면 지금 구전뒈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도 표준어로 하지마시고예, 그냥 이 볼목리 말로 골아 줍서.(그러면 지금 구전돼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도 표준어로 하지마시고요, 그냥 이 보목리 말로 말해 주십시오.)

101001 #1 어, 에, 볼레낭들이 하 놓니까.(어, 에, 보리장나무들이 많아 놓으니까.)

101001 @ 예.(예.)

101001 #1 볼레낭덜이 하놓니까 볼레낭이라, 보통은 옛날 어른들은 볼레낭이렌 헙주게.(보리장나무들이 많아놓으니까 볼레낭이라, 보통은 옛날 어른들은 볼레낭이라 합지요.)

101001 @ 예.(예.)

101001 #1 볼레낭개[4], 볼레낭개, 볼목리보고.('볼레낭개', '볼레낭개', 보목리보고.)

101001 @ 예.(예.)

101001 #1 저쪽 동쪽 성산포 쪽에 가도, 볼목리란 건 모르고.(저쪽 동쪽 성산포 쪽에 가도, 보목리란 건 모르고.)

101001 @ 예.(예.)

101001 #1 볼레낭개라면 알아요.('볼레낭개'라면 알아요.)

101001 @ 예, 예.(예, 예.)

---

3) '볼레낭'은 보리장나무를 말한다.

4) '볼레낭개'는 보리장나무가 많은 포구를 뜻한다. '볼레낭'은 보리장나무, '개'는 작을 포구를 나타내는 제주어다.

101001 #1 볼레낭은 그 보리순데 게난 그 많다고 헤서 볼레낭개라고 헷다고 허는데.('볼레낭'은 그 보리장나문데 그러니까 그 많다고 해서 '볼레낭개'라고 했다고 하는데.)

101001 @ 예.(예.)

101001 #1 그 중간에 어른들이 말하는 거 보면은 그 볼레낭이 많아서 보목리라 헌 것이 아니고.(그 중간에 어른들이 말하는 거 보면 그 보리장나무가 많아서 보목리라 한 것이 아니고.)

101001 @ 예.(예.)

101001 #1 풍수지리에 의해서 저쪽 산에서 보면 앞에 숩섬이 섭섬이라고 허는데.(풍수지리에 의해서 저쪽 산에서 보면 앞에 '숲섬'이 '섶섬'이라고 하는데.)

101001 @ 예.(예.)

101001 #1 섬이 이서서 거기선 화체라고 헤서 불이 솟는 형체다 이겁니다. 화체, 화체는 나무는 아, 저 불은 나무가 상대해야 헤서 보목리 지형은 나무 형체고 앞에는 섬은 불 형체다 이겁주. 게서 불에는 나무가 상대해야 뭰다 헤서 그래서 보목리라 처음에 이름 지었다는 그런, 그 완전 그 학술지나 그런 말허는 건 믿을 만한 말인데 이제 그거는 그걸 이해하는 사름은 업고, 무지 그 볼레낭이 많으니까 볼레낭개 처음 헷다 이렇게 헷는데 뭐 그런 식으로 볼목리 저, 마을 이름이 지어젓다 재는 것입주.(섬이 있어서 거기선 화체라고 해서 불이 솟는 형체다 이겁니다. 화체, 화체는 나무는 아, 저 불은 나무가 상대해야 해서 보목리 지형은 나무 형체고 앞에는 섬은 불 형체다 이거지요. 게서 불에는 나무가 상대해야 된다 해서 그래서 보목리라 처음에 이름 지었다는 그런, 그 완전 그 학술지나 그런 말하는 건 믿을 만한 말인데 이제 그거는 그걸 이해하는 사람은 없고, 무지 그 보리장나무가 많으니까 '볼레낭개' 처음 했다 이렇게 했는데 뭐 그런 식으로 보목리 저, 마을 이름이 지어졌다 재는 것이지요.)

101002 @예, 알앗수다. 그러면예, 그다음엔예, 볼목리 마을은 주로 그 성씨들이 어떻게 구성뒈엇수과?(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요 그다음에는요, 보목리 마을은 주로 그 성씨들이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101002 #1 성씨?(성씨?)

101002 @ 예.(예.)

101002 #1 성씨는 처음에 우리가 어느 성씨가 처음 들어왓는지 것도 잘 모르고.(성씨는 처음에 우리가 어느 성씨가 처음 들어왔는지 것도 잘 모르고.)

101002 @ 예.(예.)

101002 #1 여기 제일 한씨가 하니까. 한씨가 젤 먼저 들어온 걸로 하자 잠정적으로 자치에서.(여기 제일 한씨가 많으니까. 한씨가 젤 먼저 들어온 걸로 하자, 잠정적으로 자치에서.)

101002 @ 예.(예.)

101002 #1 한씨, 그다음엔 강씨, 이씨, 양씨.(한씨, 그다음엔 강씨, 이씨, 양씨.)

101002 @ 예.(예.)

101002 #1 게서 한씨가 제일 많고, 한씨는 삼십 프로.(그래서 한씨가 제일 많고, 한씨는 삼십 프로.)

101002 @ 예.(예.)

101002 #1 그다음엔 강씨가 많고, 펜안 강.(그다음엔 강씨가 많고, 편안 강.)

101002 @ 예.(예.)

101002 #1 그다음엔 이씨와 양씨가 비등합니다. 그 자기네끼리는 이씨가 많다 또 뭐 양씨가 많다 허는데 비등허고.(그다음엔 이씨와 양씨가 비등합니다. 그 자기네끼리는 이씨가 많다 또 뭐 양씨가 많다 하는데 비등하고.)

101002 @ 예.(예.)

101002 #1 대충 성씨는 그 큰 성은 네 개 성으로 지금 이루고 잇주. 경 뒈엇주.(대충 성씨는 그 큰 성은 네 개 성으로 지금 이루고 있지. 그렇게 되었지.)

101003 @ 경 뒛구나예. 어, 옛날부터 주로 볼목리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멍 살앗수과?(그렇게 됐군요. 어, 옛날부터 주로 보목리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101003 #1 보목리 주업은 농사하고 어업이주.(보목리 주업은 농사하고 어업이지.)

101003 @ 농사짓고 바당에서 에, 허고예?(농사짓고 바다에서 에, 하고요?)

101003 #1 바당에.(바다에.)

101003 @ 그 농사를 지엇덴 허민 어떤 농사를 지어신고예?(그 농사를 지었다고 하면 어떤 농사를 지었는가요?)

101003 #1 옛날에는 조, 보리, 감저, 대충 주 농작물이 이겁주.(옛날에는 조, 보리, 고구마, 대충 주 농작물이 이겁지요.)

101003 @ 예. 바당에서는?(예. 바다에서는?)

101003 #1 바당에서는 거 저, 베헤서 고기 잡고 또 잠수덜토 소라 미역허고.(바다에서는 거 저, 배해서 고기 잡고 또 잠수들도 소라 미역하고.)

101003 @ 음.(음.)

101003 @ 잠깐만예, 어, 그 예를 든다면 지금 저가 하는 가장 큰 문제는, 하고자하는 거는 제주어 채록이라예. 그렇게 헷을 때, 하하하하.(잠깐만요, 어, 그 예를 든다면 지금 저가 하는 가장 큰 문제는, 하고자하는 거는 제주어 채록이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하하하.)

101003 #1 사람 말 즐기라.(사람 말 즐기라.)

101004 @ 이런 식으로 얘기를 헤 주어야만 저희들이, 웨냐면 소라영 이렇게 하면 기왕이면은 녹화뒈고 녹음뒌 거는 사실 이거 다 기록으로 남길 거거든마씨. 경헤부난예 기왕이면 저가 글을 쓰는 거 하고.(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어야만 저희들이, 왜냐면 소라하고 이렇게 하면, 기왕이면은 녹화되고 녹음된 거는 사실 이거 다 기록으로 남길 거거든요. 그래버려서요 기왕이면 저가 글을 쓰는 거 하고.)

101004 #1 음.(음.)

101004 @ 말씀헤주시는 거하고 ᄀᆞ타사 그 저기 좋아마씨게.(말씀해주시는 거하고 같아야 그 저기 좋아요.)

101003 #1 옛날 말로?(옛날 말로?)

101003 @ 예. 옛날 우리말로 헤주면 참 좋으쿠다.(예. 옛날 우리말로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101003 #1 음.(음.)

101003 @ 그냥 이야기하듯이 헤 주십서예.(그냥 이야기하듯이 해 주십시오.)

101004 @ 그리고 볼목리 주변에는 오름이랑 내, 바위, 굴, 이런 것들이 잇잖아예?(그리고 보목리 주변에는 오름이랑 내, 바위, 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101004 #1 예.(예.)

101004 @ 어떤 것들이 잇는지 한번 ᄀᆞᆯ아줍서.(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해주십시오.)

101004 #1 이 앞에는 저 섭섬이라고 하는데 섭섬이라고 하고.(이 앞에는 저 섶섬이라고 하는데 '섶섬'이라고 하고.)

101004 @ 예.(예.)

101004 #1 여기는 제지기오름.(여기는 '제지기오름'.)

101004 @ 예.(예.)

101004 #1 제제기오름[5]이라고 하고, 또 여기 보면은 본향당[6]이 이십주게, 본향당.('제제기오름'이라고 하고, 또 여기 보면 '본향당'이 있습죠, 본향당).

101004 @ 예, 예.(예, 예.)

101004 #1 일 년에 한 번 부인들이 저, 정월 음력 정월 열사흘 날.(일 년에 한 번 부인들이 저, 정월 음력정월 열사흘 날.)

101004 @ 예.(예.)

101004 #1 그믄 거의 다 이 저, 볼목리 여자분들 막, 제물, 거의 다 가다시피.(그러면 거의 다 이 저, 보목리 여자분들 막, 제물, 거의 다 가다시피.)

101004 @ 예.(예.)

101004 #1 일 년에 한 번.(일 년에 한 번.)

101004 @ 예. 본향당을 한번 저희들하고 같이 가주십서예?(예. '본향당'을 한번 저희들하고 같이 가주십시오?)

101004 #1 에.(예.)

101004 @ 사진 좀 찍어 놓게예. 그 다음엔 어, 본향당은 어떵 굴로 뒈어 잇수과?(사진 좀 찍어 놓게요. 그 다음엔 어, '본향당'은 어떻게 굴로 되어 있습니까?)

101004 #1 네. 굴로 뒈어잇주.(네. 굴로 되어있지.)

---

5) '제제기오름' 보목동 동쪽 끝 해안가에 있는 오름이다. 공식 명칭은 제지기오름이다. 제보자에 따라 '제제기오름'이라고도 한다.

6) '본향당'은 보목동에 있는 '조노궤당'을 말한다. 명칭의 유래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조노궤당'은 생산과 물고物故, 호적, 육아를 담당하는 '당신'을 모신 곳이다.

101004 @ 아, 기구나.(아, 그렇구나)

101004 @ 내창 같은 건 엇수과? 내.(내 같은 건 없습니까? 내.)

101004 #1 어, 여기 볼목리 중심으로 가운디는 내가, 보통 재단에는 한 마을을 내 때문 두 개로 내 갈라지는 디는 멧 군데 안 뒙주게.(어, 여기 보목리 중심으로 가운데는 내가, 보통 재단에는 한 마을을 내 때문 두 개로 내 갈라지는 데는 몇 군데 안 됩지요.)

101004 @ 예.(예.)

101004 #1 볼목리는 유독 이거 가운딜로 헤서 부락이 양쪽으로 형성이 뒈십주. 똑 중앙에 내가 이서.(보목리는 유독 이거 가운데로 해서 부락이 양쪽으로 형성이 됐지요. 똑 중앙에 내가 있어.)

101004 @ 혹시 저 그 축항에 가는데?(혹시 저 그 축항에 가는데?)

101004 #1 예.(예.)

101004 @ 거기 얘기허는거꽈?(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101004 #1 예. 그 내.(예. 그 내.)

101004 @ 그 내꽈? 거기 내 이름은 뭐꽈?(그 내입니까? 거기 내 이름은 뭡니까?)

101004 #1 정술내[7].('정술내'.)

101004 @ 정술내예?(정술내요?)

101004 #1 에.(예.)

101004 @ 정술내, 제가 지나당 보난에 막 그거 옛날에 내창모습이 아니라 그거 막 공사헤가지고 막 헴선게만, 그런 거에 대헤서는 마을회에서 뭐렌 안 헤마씸?(정술내, 제가 지나다가 보니까 막 그거 옛날에 내 모습이 아니라 그거 막 공사해가지고 막 하고 있더니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마을회에서 뭐라고 안 합니까?)

101004 #1 마을회에서 그건, 관에서는 뭐 하천 정비라 헤서 지금 내를 정비하는 건데, 옛날에는 거기 보목리 주민들이 반은 그 우물을 먹어십주게.(마을회에서 그건, 관에서는 뭐 하천 정비라 해서 지금 내를 정비하는 건데, 옛날에는 거기 보목리 주민들이 반은 그 우물을 먹었습지요.)

101004 @ 예.(예.)

101004 #1 우물을 먹단 그 츰 그 하천 정리하면서 우물이 엇어저불엇서.(우물을 먹다가 그 참 그 하천 정리하면서 우물이 없어져버렸어.)

101004 @ 아, 그믄 그 우물 이름이 혹시.(아, 그러면 그 우물 이름이 혹시.)

101004 #1 그것이 이제 정술.(그것이 이제 정술.)

101004 @ 정술, 아 그렇게 할 때 마을에서는 그냥 우물을 메꿔 불 때는 뭐렌 안 골안마씸?(정술, 아 그렇게 할 때 마을에서는 그냥 우물을 메꿔 버릴 때는 뭐라고 안 말했나요?)

101004 #1 그 당시는 그런 그 개발할 때는 좋은 거난.(그 당시는 그런 그 개발

7) '정술내'는 보목동 중심을 흐르는 내로 보목동 1121~3번지에서 보목동 571번지까지를 말한다.

할 때는 좋은 거니까.)

101004 @ 기지예? 언제쯤 경헷수과?(그렇죠? 언제쯤 그렇게 했습니까?)

101004 #1 그 여튼 흔 칠십 년 대쯤 됏주.(그 하여튼 한 칠십 년대쯤 됐지.)

101004 @ 칠십 년대쯤? 새마을운동 할 때구나예?(칠십 년대쯤? 새마을운동 할 때군요?)

101004 #1 예.(예.)

101005 @ 그믄 혹시 볼목리는 어떤 기관 같은 거 엇수과?(그러면 혹시 보목리는 어떤 기관 같은 거 없습니까?)

101005 #1 기관?(기관?)

101005 @ 예를 든다면 무신 방송국이라든가 그런 것들 잇잖아예, 그런 거 엇수과?(예를 든다면 무슨 방송국이라든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까?)

101005 #1 보목리 지경에는 지금 없고.(보목리 지경에는 지금 없고.)

101005 @ 예.(예.)

101005 #1 보목리 지경에는 뭐 제주대학교 수련원인가?(보목리 지경에는 뭐 제주대학교 수련원인가?)

101005 @ 예, 수련원.(예. 수련원.)

101005 #1 그것도 관이렌 곧는데 교육기관이렌 헌 건 그것 하나뿐.(그것도 관이라고 말하는데 교육기관이라고 한 건 그것 하나뿐.)

101005 @ 아, 그거 하나꽈? 저쪽에 잇는 게 방송국, 볼목리 아니고 하효에 속하는 거꽈?(아, 그거 하나입니까? 저쪽에 있는 게 방송국, 보목리 아니고 하효에 속하는 겁니까?)

101005 #1 방송국?(방송국?)

101005 @ 예.(예.)

101005 #1 방송국, 하요.(방송국, 하효.)

101005 @ 하효에 속헴구나예?(하효에 속하고 있군요?)

101005 #1 여기 또 하수종말처리장 잇지. 도에서 하는 거 수자원.(여기 또 하수종말처리장 있지. 도에서 하는 거 수자원.)

101005 @ 아, 맞다 거기도 볼목리지예?(아, 맞다 거기도 보목리지요?)

101005 #1 예.(예.)

101005 @ 볼목리구나예, 맞아예? 그전에도 혹시나 볼목리 마을에 이 마을에 옛날에 관 같은 거 안 들어와낫수과?(보목리군요, 맞군요? 그전에도 혹시나 보목리 마을에 이 마을에 옛날에 관 같은 거 안 들어왔었습니까?)

101005 #1 관?(관?)

101005 @ 예.(예)

101005 #1 관 같은 거 들어와나지 안헷어.(관 같은 거 들어왔었지 않아.)

101006 @ 그다음엔예? 이 마을엔 계들이 잇엇잖아예? 계.(그다음에는요? 이 마을엔 계들이 있었잖아요? 계.)

101006 #1 예.(예.)
101006 @ 어떤 어떤 계들이 이섯수과?(어떤 어떤 계들이 있었습니까?)
101006 #1 계, 계? 젤 많은 거는 동갑계.(계, 계? 젤 많은 거는 동갑계.)
101006 @ 동합계마씨?(동합계요?)
101006 #1 동갑계, 갑장들이 하는 동갑계.(동갑계, 갑장들이 하는 동갑계.)
101006 @ 동갑계, 동갑계 말고 또 뭐가 잇수과?(동갑계, 동갑계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101006 #1 예?(예?)
101006 @ 동갑계 말고 다른 거 엇엇수과?(동갑계 말고 다른 거 없었습니까?)
101006 #1 다른 계는 뭐 저, 영림계라고.(다른 계는 뭐 저, 영림계라고.)
101006 @ 영림계? 건 무슨 계꽈?(영림계? 건 무슨 곕니까?)
101006 #1 산림계라고도 하고 소나무 키와서 땔감으로 옛날에 쓰고. 거 그런 계가 잇어나서.(산림계라고도 하고 소나무 키워서 땔감으로 옛날에 쓰고. 거 그런 계가 있었어.)
101006 @ 이거는 옛날에는 불 낭 때근에 헐 때 이섯던 거구나예?(이거는 옛날에는 불 나무 때어서 할 때 있었던 거군요?)
101006 #1 어, 예. 나무는 소나무 심어서.(어, 예. 나무는 소나무 심어서.)
101006 @ 예.(예.)
101006 #1 간벌허고 헤서 땔감으로도 계원들이 나눠서 사용하고 헷어.(간벌하고 헤서 땔감으로도 계원들이 나눠서 사용하고 했어.)
101006 @ 그거 말고 혹시 그 저 ᄆᆞᆯᄀᆞ레 같은 거 이서근에.(그거 말고 혹시 그 저 연자매 같은 거 있어서.)
101006 #1 어, ᄆᆞᆯᄀᆞ레도 이섯어.(어, 연자매도 있었어.)
101006 @ 계 만들엉 그런 건 엇엇수과?(계 만들어서 그런 건 없었습니까?)
101006 #1 그거 이서십주. 보목리도 ᄒᆞᆫ 여섯 군덴가 ᄆᆞᆯᄀᆞ랑.(그거 있었습죠. 보목리도 한 여섯 군덴가 연자매.)
101006 @ 예.(예.)
101006 #1 ᄆᆞᆯᄀᆞ랑, 계원들만 그거 이용허고.(연자매, 계원들만 그거 이용하고.)
101006 @ 예.(예.)
101006 #1 다른 사람들은 사정헤서 빌어서 허고.(다른 사람들은 사정해서 빌어서 하고.)
101006 @ 예, 이거를 혹시 계이름 ᄆᆞᆯᄀᆞ랑계 이름을 따로 셍각나는 거 엇수과?(예, 이거를 혹시 계이름 연자매계 이름을 따로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101006 #1 다른 건 엇어. 보통 뭐 ᄆᆞᆯᄀᆞ랑계라고 하는데 ᄆᆞᆯᄀᆞ랑계.(다른 건 없어. 보통 뭐 연자매계라고 하는데 연자매계.)
101006 @ ᄆᆞᆯᄀᆞ랑계예? ᄆᆞᆯᄀᆞ랑계가 여섯 군데가 이섯구나예? 혹시 여자분 들이 헷던 건 엇인가마씸? 계가.(연자매계예? 여자매계가 여섯 군데가 있었군요? 혹시

여자분 들이 했던 건 없는가요? 계가.)

101006 #1 여자 분들이 허는 거는 주로 해녀벳긴.(여자 분들이 하는 거는 주로 해녀밖에는.)

101006 @ 해녀들도 무신 계가 이서나지 않아시카예?(해녀들도 무신 계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101006 #1 해녀는 지금 어촌계나 마찬가지 옛날에 진흥회라고 헤서 진흥회.(해녀는 지금 어촌계나 마찬가지 옛날에 진흥회라고 해서 진흥회.)

101006 @ 진흥회.(진흥회.)

101006 #1 예.(예.)

101006 @ 이거는 언제부터 진흥회라는 말을 사용헤신고예?(이거는 언제부터 진흥회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101006 #1 진흥회는 해방 직후에 진흥회라고 헷엇던 거 ᄀᆞ타요.(진흥회는 해방 직후에 진흥회라고 했었던 거 같아요.)

101006 @ 해방 직후예?(해방 직후요?)

101006 #1 예.(예.)

101006 @ 진흥회? 무사 진흥회라고 헤신고예?(진흥회? 왜 진흥회라고 했을까요?)

101006 #1 그건 나도 확실히.....(그건 나도 확실히.....)

101006 @ 혹시 진흥회가 진응이꽈 아니믄?(혹시 진흥회가 진응이꽈 아니면?)

101006 #1 진흥.(진흥.)

101006 @ 진흥이지예? 진흥회.(진흥이지요? 진흥회.)

101006 #1 진흥회, 농촌진흥회.(진흥회, 농촌진흥회.)

101007 @ 볼목리는 어떤 풍습들이 이서낫수과?(보목리는 어떤 풍습들이 있었습니까?)

101007 #1 풍습? 풍습은 뭐 거 또 우리 마을 자치 셍각은.(풍습? 풍습은 뭐 거 또 우리 마을 자치 생각은.)

101007 @ 예.(예.)

101007 #1 그렇게 단합이 뭰 걸로 보진 않은데.(그렇게 단합이 된 걸로 보진 않은데.)

101007 @ 예.(예.)

101007 #1 다른 부락 사람들은 여길 보기를 제일 단합이 잘 뭰다.(다른 부락 사람들은 여길 보기를 제일 단합이 잘 된다.)

101007 @ 예.(예.)

101007 #1 이제 그런 얘기덜 많이 헙주게.(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합지요.)

101007 @ 예.(예.)

101007 @ 주로 단합대회 같은 걸 헷엇을 거 아니꽈예? 어떤 종류에 어떤 놀이들을 헤낫신고예?(주로 단합대회 같은 걸 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종류에 어떤

놀이들을 해났을까요?)

101007 #1 실제는 여기 그 저 보목리가 제일 그 교육자가 젤 많아.(실제는 여기 그 저 보목리가 제일 그 교육자가 젤 많아.)

101007 @ 예.(예.)

101007 #1 지금은 많지 않은데 옛날에는 교육자가 제일 많고.(지금은 많지 않은데 옛날에는 교육자가 제일 많고.)

101007 @ 예.(예.)

101007 #1 공무원이 제일 많고 제주도내에서는.(공무원이 제일 많고 제주도내에서는.)

101007 @ 예.(예.)

101007 #1 그분들이 앞장서서 모든 거를 끌고 가는 셍각을 헙주게.(그분들이 앞장서서 모든 거를 끌고 가는 생각을 합지요.)

101007 @ 예.(예.)

101007 #1 사름들이 웃어른들이 겅 하믄 자연히 따르게 마련인디, 사람들이 순해지고.(사람들이 웃어른들이 그렇게 하면 자연히 따르게 마련인데, 사람들이 순해지고.)

101007 @ 예.(예.)

101007 #1 게서 자꾸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니깐 마을이 화합도 잘 뒈고 그 당시는.(그래서 자꾸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니깐 마을이 화합도 잘 되고 그 당시는.)

101007 @ 예.(예.)

101007 #1 요즘은 공무원도 많지 않지마는.(요즘은 공무원도 많지 않지만.)

101007 @ 그므는 뭐하멍 화합을 헷수과? 예를 들면 어떤 행사를 하면서.(그러면 뭐하면서 화합을 했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행사를 하면서.)

101007 #1 행사를 하는 건 뚜렷헌 뭐는 없어요. 옛날 뭐 초가집 지을 땐 동네에서 다 ᄀᆞ치 모다들엉 집도 ᄀᆞ치 지어주고.(행사를 하는 건 뚜렷한 뭐는 없어요. 옛날 뭐 초가집 지을 땐 동네에서 다 같이 모여들어 집도 같이 지어주고.)

101007 @ 집 지어주고, 그다음엔 거 집 지어주는 것도 잇고, 또 하나 다른 거, 집 지을 때 초가집 하게 뒈면은.(집 지어주고, 그다음엔 거 집 지어주는 것도 있고, 또 하나 다른 거, 집 지을 때 초가집 하게 되면.)

101007 @ 예.(예.)

101007 #1 또 화재 나서 이재민 나민 또 가서 지어주고.(또 화재 나서 이재민 나면 또 가서 지어주고.)

101007 #1 초가집 하면은 흑질도 가서 헤주고, 집 일 때 ᄀᆞ찌헤주고.(초가집 하면 흙질도 가서 해주고, 집 일 때 같이해주고.)

101007 @ 예.(예.)

101007 #1 또 장 나면 동네에서 다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부조로 가서 다, 특기나 그 당시 물이 음료수가 여기 아까 그 정술물[8]을 부인들은 그 물 길어다 주는

것이 부조에요.(또 장 나면 동네에서 다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부조로 가서 다, 특기나 그 당시 물이 음료수가 여기 아까 그 '정술물'을 부인들은 그 물 길어다 주는 것이 부조에요.)

101007 @ 아, 큰일이 생기면은예?(아, 큰일이 생기면요?)

101007 #1 큰일이 낫다면 물이 많이 필요하니깐 그래서 여기서 보목리 반은 아까 그 물을 지엉 허벅으로 날랑 물로서 부조하는 거지.(큰일이 났다면 물이 많이 필요하니깐 그래서 여기서 보목리 반은 아까 그 물을 지어 허벅으로 날랑 물로서 부조하는 거지.)

101007 @ 그믄 정술내, 반은 그 물을 헷덴 하믄 나머지 반은 어디서 나서 헷수과?(그러면 정술내, 반은 그 물을 했다고 하면 나머지 반은 어디서 나서 했습니까?)

101007 #1 나머지 반은 족은개[9]라고 해서 섭섬 앞에.(나머지 반은 '족은개'라고 해서 섶섬 앞에.)

101007 @ 예.(예.)

101007 #1 조근개물[10].('조근갯물'.)

101007 @ 아, 조근개물.(아, '조근갯물'.)

101007 #1 예.(예.)

101007 @ 족은개물은 바당에서 나는 거꽈?('족은갯물'은 바다에서 나는 거꽈?)

101007 #1 예. 바당, 바로 바당 거기서 저.(예. 바다, 바로 바다 거기서 저.)

101007 @ 솟아나는 거마씸?(솟아나는 거요?)

101007 #1 예.(예.)

101007 @ 섭섬 앞에예?(섶섬 앞에요?)

101007 #1 음.(음.)

101007 @ 그렇게 마을을 전체 잔치로 헷을 때, 형태가 잔치 형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저신고예?(그렇게 마을을 전체 잔치로 했을 때, 형태가 잔치 형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을까요?)

101007 #1 옛날엔 그런 거 부락 전체가 단합대회가 없엇던 걸로 보고.(옛날엔 그런 거 부락 전체가 단합대회가 없었던 걸로 보고.)

101007 @ 예.(예.)

101007 #1 근래에 와서 몇 십 년 동안 일 년에 한 번 사월 삼일 날 보목 동민 단합대회를 계속하고 이십주게.(근래에 와서 몇 십 년 동안 일 년에 한 번 사월 삼일 날 보목 동민 단합대회를 계속하고 있습지요.)

101007 @ 예.(예.)

101007 @ 그 여자 분들이 물 질어다 가지고 큰일을 할 수 잇게시리 계속 ᄀᆞ치

8) '정술물'은 보목동 정술내에서 솟는 용천수를 말한다. '정술내'는 보목동 마을 가운데에 있는 내를 말한다.

9) '족은개'는 보목동 '큰개' 서쪽 바닷가로 길게 뻗어진 동산 끝 작은 포구를 말한다. '족은'은 작은, '개'는 작은 포구를 말한다.

10) '족은갯물'은 족은개에서 나는 용천수를 말한다.

들 헷다는 거잖아예? 아까 뭐꽈? 새해 들면 연 초에 아까 그 어디꽈 본향당[11] 가 가지고.(그 여자 분들이 물 길어다 가지고 큰일을 할 수 있게끔 계속 같이 했다는 거잖아요? 아까 뭡니까? 새해 들면 연 초에 아까 그 어디죠, '본향당' 가가지고.)

101007 #1 에.(예.)

101007 @ 뭘 헷덴 헨게, 그 본향당 이름은 혹시 따로 엇수과?(뭘 했다고 했는데, 그 '본향당' 이름은 혹시 따로 없습니까?)

101007 #1 조노기, 조노기당[12]이라고 지으니 바로 조노기주 조노기.(조노궤, '조노궤당'이라고 지으니 바로 조노궤주 조노궤.)

101007 @ 조노기?(조노궤?)

101007 #1 어, 조노기당이라 허기도 허곡, 보통 조노기당이라고 허는디 본향입주 본향당.(어, '조노기당'이라 하기도 하고, 보통 '조노궤당'이라고 하는데 본향입주 '본향당'.)

101007 #1 당은 두 군데 잇는데 그거는 본향당이고 또 하나는 신남밑주, 신남밑.(당은 두 군데 있는데 그거는 본향당이고 또하나는 신남밑죠, 신남밑.)

101007 @ 신남밑당[13]이렌 헌디도 이수과?('신남밑당'이라고 한데도 있습니까?)

101007 #1 에, 신남밑당이라고 헤서 거긴 뭐 환자가 생기면은 가서 좀 뭐 낫게 헤달라고 기원하는 곳이 신남밑당.(예, '신남밑당'이라고 해서 거긴 뭐 환자가 생기면 가서 좀 뭐 낫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곳이 '신남밑당'.)

101007 @ 신남밑당예?('신남밑당'요?)

101007 #1 예.(예.)

101007 @ 신남밑당은 어디 잇수과?('신남밑당'은 어디 있습니까?)

101007 #1 요 포구 가는 내 옆에.(요 포구 가는 내 옆에.)

101007 @ 지금도 잇수과?(지금도 있습니까?)

101007 #1 예.(예.)

101007 @ 그곳도 흔 번 ᄀᆞ찌 강 찍게예.(그곳도 한 번 같이 가서 찍게요.)

101007 #1 예.(예.)

101008 @ 볼목리에 특산물로는 어떤, 어떤 것들이 잇수과?(보목리에 특산물로는 어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1008 #1 특산물은 감귤은 딴 데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해산물 채취 옥돔 같은 거.(특산물은 감귤은 딴 데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해산물 채취 옥돔 같은 거.)

101008 @ 게난 문제는 아까 옥돔 같은 거라고 헷잖아예? 옥돔이라는 말 자체가 표준어인데 제주도 말이 잇는데 볼목리에서 사용하는 말은 그게 아닌 거잖아예?(그

---

11) '본향당'은 보목동에 있는 '조노궤당'을 말한다. 명칭의 유래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조노궤당'은 생산과 물고(物故), 호적, 육아를 담당하는 '당신'을 모신 곳이다.

12) '조노기당'은 보목동에 있는 알셋도 남쪽에 있는 궤를 '조노궤'라고 하고 그 안에 있는 당을 '조노궤당'을 말한다. 명칭의 유래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조노궤당'은 생산과 물고物故, 호적, 육아를 담당하는 '당신'을 모신 '본향당'이다. 제보자에 따라 '조노기당', '조노잇당'이라고도 칭한다.

13) '신남밑당'은 보목동에 있는 '할망당'이다. 어원은 정확히 알려 있지 않다. 아이들이 병이나 부스럼이 났을 때, 객지로 주로 나갈 때 찾는다. '신남'은 '신나무'를 뜻하는 제주어이다.

러니 문제는 아까 옥돔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옥돔이라는 말 자체가 표준어인데 제주도 말이 있는데 보목리에서 사용하는 말은 그게 아닌 거잖아요?)

101008 #1 에,에.(예, 예.)

101008 @ 게난 그거를 특산물이 어떤, 어떤 것들이 이신디 골아줍서.(그러니 그거를 특산물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해주세요.)

101008 #1 예, 아까 솔라니, 솔라리라고 헤요.(예, 아까 옥돔, 옥돔이라고 해요.)

101008 @ 솔라리예?(옥돔요?)

101008 #1 예. 솔라리. 나머지 조기 ᄀᆞ튼 거. 옛날에도 조기고.(예. 옥돔. 나머지 조기 같은 거. 옛날에도 조기고.)

101008 @ 솔라리, 조기 그다음엔 어떤 것들이 잇수과? 그 동네 어른들이 잡아오는 것들은.(옥돔, 조기 그다음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동네 어른들이 잡아오는 것들은.)

101008 #1 전복이라고 하는데 옛날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셍복이라 허고.(전복이라고 하는데 옛날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복이라 하고.)

101008 @ 예. 또마씸?(예. 또요?)

101008 #1 지금 대중은.(지금 대충은.)

101008 @ 셍복하고 구젱기 같은 거예?(전복하고 소라 같은 거요?)

101008 #1 예.(예.)

101008 @ 구젱기 말고 다른 건 엇수과?(소라 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101008 #1 구젱기, 조개.(소라, 오분자기.)

101008 @ 조개가 뭐꽈?(조개가 뭐죠?)

101008 #1 음?(음?)

101008 @ 조개는 뭐마씸?(조개는 뭔가요?)

101008 #1 오분자기.(오분자기.)

101008 @ 아, 그거를 옛날엔 조개렌 헷수과?(아, 그거를 옛날엔 조개라고 했습니까?)

101008 #1 예.(예.)

101008 @ 기꽈? 음.(그래요? 음.)

101008 #1 물꾸럭.(문어.)

101008 @ 물꾸럭도 잇구나예? 또 성게는 또 뭐렌 헤신디?(문어도 있군요? 또 성게는 또 뭐라고 했는데?)

101008 #1 성게는 귀[14], 솜[15].(성게는 '귀', '말똥성게')

101008 @ 귀, 귀도 잡지예?(귀, 귀도 잡지예?)

101008 #1 예. 귀, 솜.(예. 보라성계, 말똥성게.)

101008 @ 귀하고 솜예?(보라성게하고 말똥성게요?)

---

14) '귀'는 대체로 '보라성게'를 말한다. 알은 식용한다.

15) '솜'은 '말똥성게'를 말한다. 알은 식용한다.

101009 @ 여기 볼목리에 '자랑거리여'라고 생각하는 건 뭐가 이수과? 자랑거리라고 예기하고 싶은 거.(여기 보목리에 '자랑거리야'라고 생각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자랑거리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

101009 #1 볼목리 자랑거리 예기할 거 엇어.(보목리 자랑거리 얘기할 거 없어.)

101009 @ 엇수과?(없습니까?)

101009 #1 옛날에는 이 저, 공무원 많은 거 좀 자랑스럽게 여겻주, 뿌듯헷는데.(옛날에는 이 저, 공무원 많은 거 좀 자랑스럽게 여겼지, 뿌듯했는데.)

101009 @ 아, 공무원들예?(아, 공무원들이요?)

101009 #1 진짜 첨, 볼목리만이 많은 디 엇엇주마씸.(진짜 첨, 보목리만이 많은데 없었지요.)

101009 @ 예.(예.)

101009 #1 교육이나 경찰 행정 ᄀᆞ튼디 주로 이 교육자가 좀 많앗주.(교육이나 경찰 행정 같은데 주로 이 교육자가 좀 많았지.)

101009 @ 아, 예. 공무원, 아.(아, 예. 공무원, 아.)

101009 #1 공무원.(공무원.)

101009 @ 아, 공무원들이 많앗던 거예?(아, 공무원들이 많았던 거요?)

101009 #1 공무원 중에서도 주로 이 저 교육자덜.(공무원 중에서도 주로 이 저 교육자들.)

101009 @ 교육자들예? 예, 맞수다.(교육자들이요? 예, 맞습니다.)

101009 #1 한 사람이 그 끌어주니까 자연히 밑에서 아들딸들도 끌어가던데.(한 사람이 그 끌어주니까 자연히 밑에서 아들딸들도 끌어가던데.)

101009 @ 예.(예.)

101009 #1 옛날도 그 저 대통령 표창 받은 할머니가 잇어. 그 자식덜토 공부를 잘 시켯다고.(옛날도 그 저 대통령 표창 받은 할머니가 있어. 그 자식들도 공부를 잘 시켰다고.)

101009 @ 진짜 자랑거리인데 그분은 돌아가셧겟다예?(진짜 자랑거리인데 그분은 돌아가셨겠네요?)

101009 #1 다 돌아가셧주.(다 돌아가셨지.)

101009 @ 그분의 자제분들은마씸?(그분의 자제분들은요?)

101009 #1 자제분들은 여기 교장으로 잇어요.(자제분들은 여기 교장으로 있어요.)

101009 @ 몇 살쯤 됏수과, 연세가?(몇 살쯤 됐습니까, 연세가?)

101009 #1 팔십 둘.(팔십 둘.)

101009 @ 그때 그분 이름이 뭐렌 헷수과? 아까 교장 출신이라고 한분 이름이?(그때 그분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교장 출신이라고 한분 이름이?)

101009 #1 강정근.(강정근.)

101009 @ 아, 강정근.(아, 강정근.)

101009 #1 교육감출신도 잇고.(교육감출신도 있고.)

101009 @ 교육감출신, 그분은 안 돌아가셧수과?(교육감출신, 그분은 안 돌아가셨습니까?)

101009 #1 강정은 교육감은 지금 살아 잇고.(강정은 교육감은 지금 살아 있고.)

101009 @ 여기 없지예? 여기 안 살지예?(여기 없지요? 여기 안 살지요?)

101009 #1 제주시 살아.(제주시 살아.)

101009 @ 강정근 강정은, 형제꽈?(강정근 강정은, 형젠가요?)

101009 #1 으?(어?)

101009 @ 형제마씸?(형젠가요?)

101009 #1 으, 형제.(어, 형제.)

101009 @ 아.(아.)

101009 #1 강정은 교육감은 형이고 동생은 강정근.(강정은 교육감은 형이고 동생은 강정근.)

101009 @ 아.(아.)

101009 #1 하튼, 그 집안 메느리도 거의 다 선생이라.(하튼, 그 집안 며느리도 거의 다 선생이라.)

101009 @ 음.(음.)

101009 #1 제일 많아.(제일 많아,)

101009 @ 게믄 그 집안도 자랑거린 자랑거리여예?(그러면 그 집안도 자랑거린 자랑거리네요?)

101009 #1 예.(예.)

101009 @ 같은 친척이꽈?(같은 친척입니까?)

101009 #1 예.(예.)

101009 @ 하하하 기구나예? 권당끼리 만나면 멩질 때 ᄀᆞ찌허는 거마씸?(하하하 그렇군요? 친척끼리 만나면 명절 때 같이하는 건가요?)

101009 #1 아니, 이젠 워낙 많아부난 나눠서 허는디.(아니, 이젠 워낙 많아버려서 나눠서 하는데.)

101010 @ 볼목리예, 여기 들어져 잇는 것만 질문 헤신디예? 특별하게 보목리는 이런 마을이다, 헤가지고 뭔가 다시 뭐 곧고 싶은 말 엇수과?(보목리요, 여기 들어져 있는 것만 질문 했는데요? 특별하게 보목리는 이런 마을이다, 해가지고 뭔가 다시 뭐 말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101010 #1 벨로 엇어.(별로 없어.)

101010 @ 좋아예. 여기까지가 마을에 대한 간단한 조사엿수다예.(좋아요. 여기까지가 마을에 대한 간단한 조사였습니다.)

2. 제보자 일생

102001 @ 흑끔 더 헤불게예? 볼목리에서 나고 자랏잖아예? 어떤 부모님 밑에서 언제 나서, 어떻게 자랏는지 그 옛날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말씀해주십서.(조금 더 해버릴게요? 보목리에서 나고 자랐잖아요? 어떤 부모님 밑에서 언제 나서, 어떻게 자랐는지 그 옛날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말씀해주십시오.)

102002 #1 나에 대한 거?(나에 대한 거?)

102002 @ 예, 삼춘 예.(예. 삼촌 예.)

102002 #1 우리 집안은 무신 뭐 자랑할 만 한 건 엇고.(우리 집안은 무슨 뭐 자랑할 만 한 건 없고.)

102002 @ 예.(예.)

102002 #1 우리 할아버지부터 훈장이라고 헤서, 학문적으로.(우리 할아버지부터 훈장이라고 해서, 학문적으로.)

102002 @ 예.(예.)

102002 #1 이 첨, 말이 그게 저 뭐랄까 한문서당 허면서.(이 첨, 말이 그게 저 뭐랄까 한문서당 하면서.)

102002 @ 예.(예)

102002 #1 저 후배들도 많이 가리치고 그렇게 헤오고.(저 후배들도 많이 가르치고 그렇게 해오고.)

10202 @ 예.(예.)

102002 #1 제 부친은 처음에는 선생을 헷는데, 해방 직후에.(제 부친은 처음에는 선생을 했는데, 해방 직후에.)

102002 @ 예.(예.)

102002 #1 일본 가서 신문 배달하면서 일본서 고등학교 나와서.(일본 가서 신문 배달하면서 일본서 고등학교 나와서.)

102002 @ 예.(예.)

102002 #1 이디 와서 처음에는 저 해방 직후에 선생을 하다가, 이 저 나중에는 선생을 그만두고 행정계통에서 면사무소.(이곳에 와서 처음에는 저 해방 직후에 선생을 하다가, 이 저 나중에는 선생을 그만두고 행정계통에서 면사무소.)

102002 @ 예.(예.)

102002 #1 게서 그 남원면사무소에서 근무헷는데, 거기서 아내가, 사삼사건이 일어나니까 이 부락에 돌아와서 그 당시에는 첨, 마을이 사삼사건이 궹장히 위험한 시대니까.(그래서 그 남원면사무소에서 근무했는데, 거기서 아내가, 사삼사건이 일어나니까 이 부락에 돌아와서 그 당시에는 첨, 마을이 사삼사건이 굉장히 위험한 시대니까.)

102002 @ 예.(예.)

102002 #1 첨, 죽느냐 사느냐 헤서 막 그 성 쌓고.(첨, 죽느냐 사느냐 해서 막

그 성 쌓고.)

102002 @ 예.(예.)

102002 #1 그때다가 단장을 헷어요. 대한청년단장.(그때 단장을 했어요. 대한청년단장.)

102002 @ 예.(예.)

102002 #1 그 당시 단장, 단원으로 활동을 많이 헷지만 많이 돌아가기도 헷고, 우리 부락만 피해가 엇는디. 그 당시에는 단장이라는 직책을 맡아서 죽을 고생을 많이 하면서, 우리 마을에는 지금은 뭐 허지마는 폭도라고헤서 한라산에 가서 숨어서 밤에 와서 저 방화도 하고 허는 그 사람도, 결국 그 사업도 막혀서 이제 그 여기서는 그 당시 우리 마을에는 피해본 거는 없서요.(그 당시 단장, 단원으로 활동을 많이 했지만 많이 돌아가기도 했고, 우리 부락만 피해가 없는데. 그 당시에는 단장이라는 직책을 맡아서 죽을 고생을 많이 하면서, 우리 마을에는 지금은 뭐 하지만 폭도라고해서 한라산에 가서 숨어서 밤에 와서 저 방화도 하고 하는 그 사람도, 결국 그 사업도 막혀서 이제 그 여기서는 그 당시 우리 마을에는 피해본 거는 없어요.)

102002 @ 예.(예.)

102002 #1 피해는 없고 헤서 여기서 사상적으로 틀려서 희생당한 분은 에, 선생허던 분 흔 분.(피해는 없고 해서 여기서 사상적으로 틀려서 희생당한 분은 에, 선생 하던 분 한 분.)

102002 @ 예.(예.)

102002 #1 일본 가서 공부 베워신디, 사상이 틀렷던 모양이고, 희생자는 두 사람.(일본 가서 공부 배웠는데, 사상이 틀렸던 모양이고, 희생자는 두 사람.)

102002 @ 예.(예.)

102002 #1 일절, 이 재산에 대한 피해는 우리 아버지가 첨 너무 그 강력히 나갓기 때문에 한 사람도 산에 폭도로 올라가지도 않고.(일절, 이 재산에 대한 피해는 우리 아버지가 첨 너무 그 강력히 나갔기 때문에 한 사람도 산에 폭도로 올라가지도 않고.)

102002 @ 예.(예.)

102002 #1 게서 우리 부친이,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막, 그 첨, 리민장, 부락 사람들이 장례를 헤 주엇어.(그래서 우리 부친이,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막, 그 첨, 리민장, 부락 사람들이 장례를 헤 주었어.)

102002 @ 음.(음.)

102002 #1 에, 그렇게 헌 것이 첨, 우리 집안에 자랑으로 생각하고.(에, 그렇게 한 것이 첨, 우리 집안에 자랑으로 생각하고.)

102005 @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신 거잖아예?(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신 거잖아요?)

102005 #1 예?(예?)

102005 @ 일제 때 태어나신 거잖아예?(일제 때 태어나신 거잖아요?)

102005 #1 내가?(내가?)

102005 @ 예, 삼춘이.(예, 삼촌이.)

102005 #1 에.(예.)

102005 @ 그때 태어날 때 그때 이야기도 좀 골아줍서.(그때 태어날 때 그때 이야기도 좀 말해주세요.)

102005 #1 그때 이야기?(그때 이야기?)

102005 @ 예.(예.)

102005 #1 일본시대에도 삼학년 때 해방됀니까 우리 남원리 위귀리[16] 살 때니까 남원국민학교에 다니다가 서귀국민학교로 전학을 왓는데.(일본시대에도 삼학년 때 해방되니까 우리 남원리 위귀리[17] 살 때니까 남원국민학교에 다니다가 서귀국민학교로 전학을 왔는데.)

102005 @ 예.(예.)

102005 #1 그 당시는 일본시대니까 저 우리 한국말도 못쓰게 허고.(그 당시는 일본시대니까 저 우리 한국말도 못쓰게 하고)

102005 @ 예.(예.)

102005 #1 표를 줘요, 표.(표를 줘요, 표.)

102005 @ 예.(예.)

102005 #1 표를 ᄒᆞ루에 ᄒᆞᆫ 장씩, 일주일에 일곱 장씩 주민은.(표를 하루에 한 장씩, 일주일에 일곱 장씩 주면.)

102005 @ 예.(예.)

102005 #1 사근에, 아무리 친한 친구도 가다가 한국말 허면은 표 하나 달라고 하면 표를 뺏겨.(사근에, 아무리 친한 친구도 가다가 한국말 하면 표 하나 달라고 하면 표를 뺏겨.)

102005 @ 예.(예.)

102005 #1 일주일에 ᄒᆞᆫ 번씩 이 저 애국반이라고 학셍덜.(일주일에 한 번씩 이 저 애국반이라고 학생들.)

102005 @ 예.(예.)

102005 #1 자체 조직인데 우리 부모님이 볼목리서 학셍들이 토요일날 모여서 그 표 없는 사람은 직사하게 저, 구타당하고.(자체 조직인데 우리 부모님이 보목리서 학생들이 토요일날 모여서 그 표 없는 사람은 직사하게 저, 구타당하고.)

102005 @ 음.(음,)

102005 #1 한국말 썻다고.(한국말 썼다고.)

102005 @ 음.(음.)

102005 #1 게서 뭐 한국말을 못 쓰게 헌 거주.(그래서 뭐 한국말을 못 쓰게 한

16) 위귀리 ; 남원읍 '의귀리'를 말한다.
17) 위귀리 ; 남원읍 '의귀리'를 말한다.

거지.)

102005 @ 음.(음.)

102005 #1 아무리 친구도 가찌 가면서 너하고 나는 한국말하면서 가자.(아무리 친구도 같이 가면서 너하고 나는 한국말하면서 가자.)

102005 @ 음.(음.)

102005 #1 게서 좋다, 허면허고. 첨, 한국말 허다가는 아무런 친구도 업서요. 표 달라고 허면 표 많이 뻿긴 사람이 매 맞는 거주.(그래서 좋다, 하면하고. 첨, 한국말 하다가는 아무런 친구도 없어요. 표 달라고 하면 표 많이 뺐긴 사람이 매 맞는 거지.

102005 @ 아.(아.)

102005 #1 경허고, 뭐 첨, 어린 때주마는 국민학교 삼 학년 때주마는, 이 저 미국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죽창으로 헤서 죽창도 이제 훈련도 시기고, 어릴 때부터 일본시대는 첨, 굉장히 지독헷서요.(그렇게 하고, 뭐 첨, 어린 때지만 국민학교 삼 학년 때지만, 이 저 미국사람들이 들어오면 죽창으로 해서 죽창도 이제 훈련도 시키고, 어릴 때부터 일본시대는 첨, 굉장히 지독했어요.)

102005 @ 그면 그때 당시 아버지가 선생 헷다는 거잖아예?(그러면 그때 당시 아버지가 선생 했다는 거잖아요?)

102005 #1 에.(예.)

102005 @ 그면 아버지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집에 와가지고 자식들안틔도 일본말 헷수과?(그러면 아버지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집에 와가지고 자식들에게도 일본말 했습니까?)

102005 #1 아년, 그러진 아년.(않았지, 그러진 않았지.)

102005 @ 경은 아녀고예?(그렇게는 않았고요?)

102005 #1 어. 아니 그 우리 아버지 네는 해방 훈데 그때는 선생 그만둔 때고.(어. 아니 그 우리 아버지는 해방 훈데 그때는 선생 그만둔 때고.)

102005 @ 음.(음.)

102005 #1 하튼 젤 우리는 삼 학년 때 그 삼 학년 때 해방뒈니까 거의 해방뒐 무렵에가 우리가 젤 느낄 때니까 그 당시에는.(하여튼 젤 우리는 삼 학년 때 그 삼 학년 때 해방되니까 거의 해방될 무렵에가 우리가 젤 느낄 때니까 그 당시에는.)

102005 @ 예, 예.(예, 예.)

102005 #1 아, 일본사람들이 우리가 싫어허게 허고 잇구나허고 알 정도지.(아, 일본사람들이 우리가 싫어하게 하고 있구나하고 알 정도지.)

102005 @ 예.(예.)

102005 #1 뭐 대한민국이 어디 잇고, 우린 그 몰랏단 말이여.(뭐 대한민국이 어디 있고, 우린 그 몰랐단 말이야.)

102005 @ 예.(예.)

102005 #1 해방 뒈서 애국가도, 애국가도 몰랏단 말이여. 또 애국가도 그 나이

많은 사람덜이 이제 애국가 음이 아니라.(해방 돼서 애국가도, 애국가도 몰랐단 말이야. 또 애국가도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국가 음이 아니라.)

102005 @ 음.(음.)

102005 #1 옛날 그 저 일본말로 일본 음을 따서 애국가를 가르치는 호다르노 히카리[18] 일본노래 헤서 그 애국가를 가르치멍 헷어.(옛날 그 저 일본말로 일본 음을 따서 애국가를 가르치는 '호다르노 히카리' 일본노래 해서 그 애국가를 가르치면서 했어.)

102005 @ 음.(음.)

102005 #1 어, 애국가가 잇엇는줄 몰르고 또 우리가 일본 사람인 줄 알앗지. 이 저 뭐 한국 사람이라고 따로 잇는 걸 몰랏다 말이어.(어, 애국가가 있었는지 모르고 또 우리가 일본 사람인 줄 알았지. 이 저 뭐 한국 사람이라고 따로 있는 걸 몰랐다 말이야.)

102005 @ 아, 기지예? 그러면 아버지가 그런 걸 집에 와서 자식들한테 한국 사람이다, 라는 어떤 것에 대해서 막 교육을 시키거나.(아, 그렇지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런 걸 집에 와서 자식들한테 한국 사람이다, 라는 어떤 것에 대해서 막 교육을 시키거나.)

102005 #1 그런 것도 엇고, 우리 집안에도 저쪽 딴 집안에서 우리 집안에도 저 교장들이 좀 많아요.(그런 것도 없고, 우리 집안에도 저쪽 딴 집안에서 우리 집안에도 저 교장들이 좀 많아요.)

102005 @ 음.(음.)

102005 #1 어, 거난 그분들도 또 멩질 때도 돌아오면은 해방 뒈니까 그땐 애국가를 가르쳇주마는 일본시대에는 그런 게 일체.(어, 그러니깐 그분들도 또 명절 때도 돌아오면 해방 되니까 그땐 애국가를 가르쳤지만 일제강점기에는 그런 게 일체.)

102005 @ 가족 끼리도예?(가족 끼리도요?)

102005 #1 에, 에.(예, 예.)

102003 @ 음. 어머니 고향은 어딧꽈?(음. 어머니 고향은 어딥니까?)

102003 #1 어머니? 여기여, 여기.(어머니? 여기여, 여기.)

102003 @ 어머니도예?(어머니도요?)

102003 #1 에.(예.)

102004 @ 어릴 때 그때는 일제 시대구나예? 어릴 땐 어떤 놀이 허멍 지넷수과? 놀이? 자치기 같은 거 그런 거 잇잖아예?(어릴 때 그때는 일제강점기 때군요? 어릴 땐 어떤 놀이 하면서 지냈습니까? 놀이? 자치기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102004 #1 놀이는 옛날에나 이제나 축구.(놀이는 옛날에나 이제나 축구.)

102004 @ 축구?(축구?)

102004 #1 에. 축구 같은 거 영 헤영.(예. 축구 같은 거 이렇게 해서.)

---

18)'호다르노 히카리'는 '반딧불이의 빛'이라는 뜻이다. 일제강점기 때 졸업식이나 작별의 노래로 불려졌던 스코틀랜드 민요 'Auld Lang Syne'에 애국가의 가사를 붙여서 불렀다고 한다.

102004 @ 축구헐 때 공은 잇언마씸?(축구할 때 공은 잇언마씸?)

102004 #1 공은 엇고, 이제 뭐 뒈지 방울 ᄀᆞ튼 거 ᄇᆞ름 집어 놧고.(공은 없고, 이제 뭐 돼지 방울 같은 거 바람 집어 놓았고.)

102004 @ 음.(음.)

102004 #1 또 새끼 꼬아서 글로 공처럼 만들아서.(또 새끼 꼬아서 걸로 공처럼 만들어서.)

102004 @ 음.(음.)

102004 #1 운동장도 없으니까 저 조쿠루라고 헤서, 조 갈아나믄 뿌리, 뿌리 뽑아두고 거기 운동장으로 헤서, 거기서 축구도 허고.(운동장도 없으니까 저 조 밑동이라고 해서, 조 갈아나면 뿌리, 뿌리 뽑아두고 거기 운동장으로 해서, 거기서 축구도 하고.)

102004 @ 아까 그 공처럼 새끼를 꼬앗덴 헤신디 옛날에 우리는 그걸 새끼라고 하지 안헷잖아예? 그걸 뭐렌 ᄀᆞᆯ앗수과?(아까 그 공처럼 새끼를 꼬았다고 했는데 옛날에 우리는 그걸 새끼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102004 #1 노꼿, 노꼿.(노끈, 노끈.)

102004 @ 노꼿을 어떵혠마씸?(노끈을 어떻게 했나요?)

102004 #1 노꼿을 꽈서.(노끈을 꽈서.)

102004 @ 노꼿을 꽈가지고예?(노끈을 꽈가지고요?)

102004 #1 에.(예.)

102004 @ 노꼿은 뭘로 만든 거마씸?(노끈은 뭘로 만든 건가요?)

102004 #1 나룩찍으로.(볏짚으로.)

102004 @ 나룩? 옛날엔 나룩찍이 어디 이섯수과?(벼? 옛날엔 볏짚이 어디 있었습니까?)

102004 #1 어?(어?)

102004 @ 나룩찍이 어디 이섯수과?(볏짚이 어디 있었습니까?)

102004 #1 아이, 여기 우리 마을 옆에 논이 잇으니까.(아이, 여기 우리 마을 옆에 논이 있으니까.)

102004 @ 게난 나룩도 헷잖아예? 앞에 이제 보리라든가 나룩도 이서난 거잖아예?(그러니까 벼도 했잖아요? 앞에 이제 보리라든가 벼도 있어난 거잖아요?)

102004 @ 그다음엔 축구라든가 나룩찍 한 거 말고는 또 다른 거 엇엇수과?(그다음엔 축구라든가 볏짚 한 거 말고는 또 다른 거 없었습니까?)

102004 #1 옛날에 자치기라고.(옛날에 자치기라고.)

102004 @ 자치기도 이섯고.(자치기도 있었고.)

102004 #1 주로 자치기 많이 허고 축구, 주로 그거 두 가지덜 어릴 때는.(주로 자치기 많이 하고 축구, 주로 그거 두 가지들 어릴 때는.)

102004 @ 남자들은예?(남자들은요?)

102004 #1 에.(예.)

102004 @ 음.(음.)

102004 #1 여ᄌᆞ들은 옛날도 마찬가지, 거때는 이 저.(여자들은 옛날도 마찬가지, 그때는 이 저.)

102004 @ 베뛸락?(줄넘기?)

102004 #1 음, 베뛸락 허고 베뛸락이주.(음, 줄넘기 하고 줄넘기지.)

102004 @ 그 베뛸락이나 이렇게 헐 때 막 거 남자들이 여자아이들 이런 거헐 때 할 때 방해허고 겅은 안헤낫수과?(그 줄넘기나 이렇게 할 때 막 거 남자들이 여자아이들 이런 거할 때, 할 때 방해하고 그렇게는 안 했습니까?)

102004 #1 장난헤서 베뛸락 뺏아서 다 도망 가버리고 못살게 굴엇지.(장난해서 줄넘기 뺏어서 다 도망 가버리고 못살게 굴었지.)

102004 @ 그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충분히 들어볼 게예?(그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충분히 들어볼 게요?)

102005 @ 그다음에는 일제 시대 때 농사를 짓거나 바당에서 뭐 잡아오고 헷을 때 어떤 식으로 공출 같은 거 어떤 식으로 헷는지 기억나는 거 잇수과?(그다음에는 일제강점기 때 농사를 짓거나 바다에서 뭐 잡아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공출 같은 거 어떤 식으로 했는지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102005 #1 공출 ᄀᆞ뜬 건 이제 셍각허면은 만약에 보리허면은 보리, 미깡이면 미깡, 활당헤서 헌 거 기억이 나고.(공출 같은 건 이제 생각하면은 만약에 보리하면은 보리, 귤이면 귤, 할당해서 한 거 기억이 나고.)

102005 @ 어느 정도 활당헤신지 기억남수과?(어느 정도 할당했는지 기억납니까?)

102005 #1 어, 그거는 잘, 소득이란 멧 푼 자세히 잘 모르고.(어, 그거는 잘, 소득이란 몇 푼 자세히 잘 모르고.)

102005 @ 그럼 어머니 아버지가 공출하는 것에 대해 뭐라고 얘기해본적도 없고마씸?(그럼 어머니 아버지가 공출하는 것에 대해 뭐라고 얘기해본적도 없고요?)

102005 #1 뭐라고 헐 수도 엇고, 그 당시에는 헐 수가 엇지. 일본사람들은 딱 허믄 원[19], 면에서 와서 그 주로 이제 그 주재소.(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당시에는 할 수가 없지. 일본사람들은 딱 하면 '원', 면에서 와서 그 주로 이제 그 주재소.)

102005 @ 예.(예.)

102005 #1 이제말로 허민 경찰.(이제말로 하면 경찰.)

102005 @ 경찰, 그때는 뭐렌 골앗수과? 주재소 허민.(경찰, 그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재소 하면.)

102005 #1 주재소.(주재소.)

102005 @ 그냥 주재소렌 헷수과?(그냥 주재소라고 했습니까?)

102005 #1 에. 주재소에서 왓다면은 일본순경들이 칼 차서 칼 소리 다글락 다글

19) '원'은 뜻밖의 일에나 놀라울 때, 언짢을 때 따위에 느꺼워 하는 말이다.

락 하믄 겁나서 피허고.(예. 주재소에서 왔다면 일본순경들이 칼 차서 칼 소리 다글락 다글락 하면 겁나서 피하고.)

102005 @ 음. 옛날엔 순경이렌 안허고 다른 말로 골아낫지예?(음. 옛날엔 순경이라 안하고 다른 말로 말해났지요?)

102005 #1 순ᄉᆞ.(순사.)

102005 @ 순ᄉᆞ렌 아 예, 순ᄉᆞ렌 헷수광?(순사라고 아 예, 순사라고 했습니까?)

102005 #1 어, 겨고 그 또 제기 제기, 제ᄉᆞ 지낼 때 쓰는 그릇.(어, 그렇게 하고 그 또 제기 제기,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릇.)

102005 @ 예, 예.(예, 예.)

102005 #1 놋그릇.(놋그릇.)

102005 @ 예, 예.(예, 예.)

102005 #1 이런 거 거의 다 이 옛날에는 그 놋그릇을 제ᄉᆞ에 다 썻는데 전부 그것덜 다 뺏아가 버렷어.(이런 거 거의 다 이 옛날에는 그 놋그릇을 제사에 다 썼는데 전부 그것 들 다 빼어가 버렸어.)

102005 @ 뺏아가 부런예? 음.(빼어가 버렸죠? 음.)

102005 #1 지금 현재 잇는 디가 멧 곤데 엇어.(지금 현재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어.)

102005 @ 음. 그리고 그 옛날에 집집마다 큰ᄆᆞ레 족은ᄆᆞ레렌 헤가지고 잇엇는데 콩 ᄆᆞ튼 거 골멍 헤나신디.(음. 그리고 그 옛날에 집집마다 큰 맷돌 작은 맷돌이라고 해가지고 있었는데 콩 같은 거 갈면서 했었는데.)

102005 #1 어.(어.)

102005 @ 혹시 삼춘네 집에도 그게 이서낫수과?(혹시 삼촌네 집에도 그게 있었습니까?)

102005 #1 에.(예.)

102005 @ 게, 이젠 엇수과?(그러니까, 이젠 없습니까?)

102005 #1 아 거 잇어. 저 돌 두 개, 정ᄆᆞ레.(아 거 있어. 저 돌 두 개, 풀맷돌.)

102005 @ 예.(예.)

102005 #1 정ᄆᆞ레에 또 방에.(풀맷돌에 또 방아.)

102005 @ 예.(예.)

102005 #1 에, 그건 잇어.(예, 그건 있어.)

102005 @ 지금도 잇수과?(지금도 있습니까?)

102005 #1 에, 방에혹만 잇고, 돌로 헌 거.(예, 방아확만 잇고, 돌로 한 거.)

102005 @ 예.(예.)

102005 #1 그 나무로 헌거는 엇어.(그 나무로 한 거는 없어.)

102005 @ 엇어저부런?(없어져버렸나요?)

102005 #1 에. 물ᄆᆞ렛돌도 잇어, 물ᄆᆞ렛돌.(에. 연자맷돌도 있어, 연자맷돌.)

102005 @ 물ᄆᆞ렛돌도 잇어마씸?(연자맷돌도 있나요?)

102005 #1 ᄆᆞᆯ고렛돌 큰 거, ᄆᆞᆯᄀᆞ랑헤서 보리도 ᄀᆞᆯ고.(연자맷돌 큰 거, 연자방아 해서 보리도 갈고.)

102005 @ 예. 맞수다예. 그다음엔 공출할 땐 예를 든다면 감자나 이런 것들도 다 공출에 들어갓수과?(예. 맞습니다. 그다음엔 공출할 땐 예를 든다면 감자나 이런 것들도 다 공출에 들어갔습니까?)

102005 #1 감저 ᄀᆞ튼 건 잘 셍각 안 나고. 보리 ᄀᆞ튼 거 주로 헌 것 ᄀᆞ트고.(고구마 같은 건 잘 생각 안 나고. 보리 같은 거 주로 한 것 같고.)

102005 @ 음.

102005 #1 또 감저 ᄆᆞᆯ랴근에, 저 감저뼛데기라고 허는디.(또 고구마 말려서, 절간고구마라고 하는데.)

102005 @ 뼛데기.(절간고구마.)

102005 #1 어. 뼛데기 ᄀᆞ튼 것들은 공출이 아니고 저 흔곤데 다 풀도록 헷어. 그런 것덜은.(어. 절간고구마 같은 것들은 공출이 아니고 저 한군데 다 팔도록 했어. 그런 것들은.)

102005 @ 예.(예.)

102005 #1 건데 지금 말하면 농협 ᄀᆞ튼 그런 것 ᄀᆞ타요. 그런 건 공출이 아닌 것 ᄀᆞ트고.(그런데 지금 말하면 농협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건 공출이 아닌 것 같고.)

102005 @ 음.(음.)

102005 #1 주로 이거 저 보리 ᄀᆞ뜬 거 주로.(주로 이거 저 보리 같은 거 주로.)

102005 @ 예.(예.)

102005 #1 주로 생산헌 것이 보리가 주로 생산헷기 때문에.(주로 생산한 것이 보리가 주로 생산했기 때문에.)

102005 @ 바당에서 나는 해산물 ᄀᆞ튼 건 안 가저간마씸?(바다에서 나는 해산물 같은 건 안 가져갔나요?)

102005 #1 해산물 ᄀᆞ튼 거는 건 자세히 모르는디 메역, 여기서 젤 많이 나는 거는 메역이랏는디.(해산물 같은 거는 건 자세히 모르는데 미역, 여기서 젤 많이 나는 거는 미역이었는데.)

102005 @ 예.(예.)

102005 #1 메역 말려서 풀면은 제깝을 못 받앗던 거는 기억나요.(미역 말려서 팔면은 제값을 못 받았던 거는 기억나요.)

102005 @ 일본에서 산 간 거마씸?(일본에서 산 간 거요?)

102005 #1 에. 그 당시에는 그 일본 조합에 마른 메역을 팔면은 제라헌 까격을 안줘서 착취한 것 ᄀᆞ타요.(예. 그 당시에는 그 일본 조합에 마른 미역을 팔면은 온전한 가격을 안줘서 착취한 것 같아요.)

102005 @ 예. 그렇구나예.(예. 그렇군요.)

102005 #1 제 셍각이. 불만덜이 많앗이니까.(제 생각이. 불만들이 많았으니까.)

102005 @ 다른 뭐 셍복이나 구젱기 ᄀᆞ튼 거는 안 가저가고마씸?(다른 뭐 전복이나 소라 같은 거는 안 가져갔고요?)

102005 #1 그런 거는 여기도 옛날에는 지금도 잡주만은 전복도 그렇게 한 것 ᄀᆞ타요.(그런 거는 여기도 옛날에는 지금도 잡지만 전복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102005 @ 어머니는 물질 안 헤낫수과?(어머니는 물질 안 했습니까?)

102005 #1 옛날에 헤낫어.(옛날에 해났어.)

102005 @ 옛날에 헷낫지예?(옛날에 해났지요?)

102005 #1 에.(예.)

102005 @ 하기야 옛날 어른들은 자식들에게는 이런 저런 얘기 막 안 헤줫잖아예?(하기야 옛날 어른들은 자식들에게는 이런 저런 얘기 막 안 해줬잖아요?)

102005 #1 예.(예.)

102005 @ 어머니가 물에 들멍 젤 뭔가 고달프다 라던가 뭐 이제 일제 시대에 자기가 물질헤 온 거를 뭐 뭔가 가져가버렷다든가 이런 거는 들어본 적은 엇수과?(어머니가 물에 들면서 젤 뭔가 고달프다 라던가 뭐 이제 일제강점기에 자기가 물질해 온 거를 뭐 뭔가 가져가버렸다든가 이런 거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102005 #1 우리 어머니는 아주 저 전업으로 안 허고.(우리 어머니는 아주 저 전업으로 안 하고.)

102005 @ 예.(예.)

102005 #1 지금 여기서는 저 구제기허고 전복 잡는 사람은 메일 가다시피 작업을 허는데.(지금 여기서는 저 소라하고 전복 잡는 사람은 매일 가다시피 작업을 하는데.)

102005 @ 예.(예.)

102005 #1 여기는 거 메역, 메역을 딱 금헷다가 일정 기간 날짜를 정헤서 공동으로 미역을 채취하는데.(여기는 거 미역, 미역을 딱 금했다가 일정 기간 날짜를 정해서 공동으로 미역을 채취하는데.)

102005 @ 예.(예.)

102005 #1 그날은 전업이 아닌 사람도 전부 가서 메역을 헷어요.(그날은 전업이 아닌 사람도 전부 가서 미역을 했어요.)

102005 @ 메역을 켓지예?(미역을 캤지요?)

102005 에. 요즘은 뭐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가지 못허지마는 그 당시에는 부락 총동원헤서 남자들은 다 가서 뭐 메역 채취하면 거 다 운반하고.(에. 요즘은 뭐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가지 못하지만 그 당시에는 부락 총동원해서 남자들은 다 가서 뭐 미역 채취하면 거 다 운반하고.)

102005 @ 음.(음.)

102005 #1 바로 뭐 멧 백 명 모여, 그런 행사 때.(바로 뭐 몇 백 명 모여, 그런 행사 때.)

102005 @ 음.(음.)

102005 #1 행사 이시민.(행사 있으면.)

102005 @ 음.(음.)

102005 #1 그날은 첨, 메역헤채[20]헌다면은 우리 저 학교 다닐 때는 안허는디 저 동쪽 사름덜 보면은 메역헤채허면 남자덜토 메역허레 학교 공부허당도 조퉤헤서 가난.(그날은 첨, '미역허채'한다면 우리 저 학교 다닐 때는 안하는데 저 동쪽 사람들 보면 미역허채하면 남자들도 미역하러 학교 공부하다가도 조퇴해서 갔었어.)

102005 @ 예. 그럼 그 메역헤채를 허민 볼목리도, 맞아 미역이렌 헷수과?(예. 그럼 그 미역허채를 하면 보목리도, 맞아 미역이렌 했습니까?)

102005 #1 미역.(미역.)

102005 @ 미역? 메역?(미역? 메역?)

102005 #1 메역.(메역.)

102005 @ 메역헤채 헐 때 그러면 다 아이들도 학교 공부허당 가면, 조퉤헹 가면 그 돈은 어떵 헤마씨? 자기가 헌 거만큼 받아낫수과? 아니면 똑같이?('미역허채' 할 때 그러면 다 아이들도 학교 공부하다가 가면, 조퇴해서 가면 그 돈은 어떻게 했나요? 자기가 한 거만큼 받았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102005 #1 아니, 자기 한 거만큼.

102005 @ 한 것만큼 받아낫수과?(한 것만큼 받았습니까?)

102005 #1 어.(어.)

102005 @ 아, 그날은 마음 놓고 헤도 뒈게끔 헤가지고마씸?(아, 그날은 마음 놓고 해도 되게끔 해가지고요?)

102005 #1 에.(예.)

102005 @ 아, 경 헤낫구나예. 아, 그리고 공출에 대해서는 보리나 이런 거벳긔 안한 걸로 기억난다고 하고예? 나룩 ᄀᆞ튼 거는 사람들 많이 안헷수과?(아, 그렇게 해났군요. 아, 그리고 공출에 대해서는 보리나 이런 거밖에 안한 걸로 기억난다고 하고요? 벼 같은 거는 사람들 많이 안 했습니까?)

102005 #1 나룩은 여기서 흔 그 이십 명 정도밖에 논이 없엇어요.(벼는 여기서 한 그 이십 명 정도밖에 논이 없었어요.)

102005 @ 삼춘네도 헤낫수과?(삼촌네도 했습니까?)

102005 #1 우리는 그 당시엔 없엇고.(우리는 그 당시엔 없었고.)

102005 @ 나룩밭에 가서 일헷던 기억도 없고마씸?(논에 가서 일했던 기억도 없고요?)

102005 #1 에, 나룩 일헌 거?(에, 벼 일한 거?)

102005 @ 예.(예.)

102005 #1 일은 남의 일이든 일은 놈의 것도 헤주고.(일은 남의 일이든 일은 남

20) '메역허채'는 메역은 미역, 허채는 대ᄌᆞ문'을 말한다. 해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채취를 금하였다가 합의된 날짜에 그 금지를 풀고 해산물을 캐기 시작하는 일을 말한다. '헤체'는 발화자가 잘못 발음한 듯하다. = 헤경

의 것도 해주고.)

102005 @ 예. 나룩밧디 헤준 건 기억남수과?(예. 논에 해준 건 기억납니까?)

102005 #1 음, 나무도 심고. 학교 일에는 거 고등학교 때는 농고니까 나무도 심고 학교 농장에서.(음, 나무도 심고. 학교 일에는 거 고등학교 때는 농고니까 나무도 심고 학교 농장에서.)

102006 @ 아까 그 나고 자란 과정 이야기를 헐 때 잠깐 사삼에 대해서 저기 얘기헤 줘신디예. 어, 사삼 때 삼춘이 봣거나 아니면 겨꼇거나 실질적으로 들은 거 말고예? 겪엇던 그 이야기를 좀 들려줍서.(아까 그 나고 자란 과정 이야기를 할 때 잠깐 사삼에 대해서 저기 얘기해 줬는데요. 어, 사삼 때 삼촌이 봤거나 아니면 겪었거나 실질적으로 들은 거 말고요? 겪었던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102006 #1 우리가 그때 중학꾼데 사삼사건 때 학생덜토 동원해서 성을 쌓는데, 그 산에서 폭도 못 들어오게.(우리가 그때 중학꾼데 사삼사건 때 학생들도 동원해서 성을 쌓는데, 그 산에서 폭도 못 들어오게.)

102006 @ 예.(예.)

102006 #1 성을 쌓는데 성 지금 그 성이 흔적이 흔군데 잇어요.(성을 쌓는데 성 지금 그 성이 흔적이 한군데 있어요.)

102006 @ 예.(예.)

102006 #1 지금 멧 십 메타 흔적이 남아 잇는데.(지금 몇 십 미터 흔적이 남아 있는데.)

102006 @ 예.(예.)

102006 #1 전부 이제 성은 없어저불고 지금 흔곤데 잇는디. 그거 할 때가 우리가 중학교 이 학년 삼 학년 때인데, 그 찍으로 볏찍으로 만든 등테 헤가지고 돌을.(전부 이제 성은 없어져버리고 지금 한군데 있는데. 그거 할 때가 우리가 중학교 이 학년 삼 학년 때인데, 그 짚으로 볏짚으로 만든 등태 해가지고 돌을.)

102006 @ 예.(예.)

102006 #1 성담[21]을 날르면서 어른들하고 ᄀᆞ찌들 헷어.('성담'을 나르면서 어른들하고 같이 했어.)

102006 @ 예.(예.)

102006 #1 학생이고 뭐의고 없엇어. 부역이고 뭐의고 흔 집에 흔 사름이 아니고 흔, 사름이 잇는 그대로.(학생이고 뭐고 없었어. 부역이고 뭐고 한 집에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 있는 그대로.)

102006 @ 예.(예.)

102006 #1 다슷 사름이민 다슷 사름 경 나가서 그때는 죽기 아니민 살기로 첨 설자리가 경헌 거지.(다섯 사람이면 다섯 사람 그렇게 나가서 그때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첨 설자리가 그러한 거지.)

102006 @ 음.(음.)

---

21) '성담'은 성을 쌓아올린 돌담을 말한다.

102006 #1 성을 쌓고 밤에는 또 우리가 어른들과 헤서 우리 마을엔 성문이 한 ᄋᆞ슷 군데가 잇는디 거기다가 밤이 뒈면 보초 사는디.(성을 쌓고 밤에는 또 우리가 어른들과 해서 우리 마을엔 성문이 한 ᄋᆞ슷 군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밤이 되면 보초 사는데.)

102006 @ 예.(예.)

102006 #1 그 우리가 학생 때도 어른들하고 ᄀᆞ치 가근엥 붉도록 저 보초사고.(그 우리가 학생 때도 어른들하고 같이 가서 밝도록 저 보초사고.)

102006 @ 예.(예.)

102006 #1 또 폭도들이 와서 뭐 그 창으로 찌를까 봐서, 저 뚜꺼운 이제로 말ᄒᆞ민 뚜꺼운 방어복식으로 솜 놔서.(또 폭도들이 와서 뭐 그 창으로 찌를까 봐서, 저 두꺼운 이제로 말하면 두꺼운 방어복식으로 솜 놔서.)

102006 @ 예.(예.)

102006 #1 창 안 들어가게시리 그거 어른들이 만들어 주민 그걸 다 입어서 보초를 사고.(창 안 들어가게끔 그거 어른들이 만들어 주면 그걸 다 입어서 보초를 사고.)

102006 @ 예.(예.)

102006 #1 그때사 첨 뭐 학생들은 공부할 셍각은 엇엇던 거주. 그 당시는.(그때야 첨 뭐 학생들은 공부할 생각은 없었던 거지. 그 당시는.)

102006 @ 예.(예.)

102006 #1 참 죽느냐 사느냐 이거여.(참 죽느냐 사느냐 이거야.)

102006 @ 그때 당시에 중학교를 다녀시민 어느 중학교에 다녓수과?(그때 당시에 중학교를 다녔으면 어느 중학교에 다녔습니까?)

102006 #1 서귀중학교.(서귀중학교.)

102006 @ 서귀중학교를 다닐 때 그 동창생이나 ᄀᆞ튼 반 그 벗들이 혹시나 사삼 때 죽음을 당하거나 이런 경우는 엇언마씸?(서귀중학교를 다닐 때 그 동창생이나 같은 반 그 벗들이 혹시나 사삼 때 죽음을 당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나요?)

102006 #1 죽은 뭐는 엇엇주. 건 엇고. 게서 하다가 중학교 때 삼학년 때가 육이오 전쟁 나니까 그때 또 지원헤서 혈서덜 쓰면서 막 군대에 간 친구들은 잇고.(죽은 뭐는 없었지. 그건 없고. 그래서 하다가 중학교 때 삼학년 때가 육이오 전쟁 나니까 그때 또 지원해서 혈서들 쓰면서 막 군대에 간 친구들은 있고.)

102006 @ 예.(예.)

102006 #1 사삼사건 때 우리 동창이나 희생당한 건 엇엇주. 그땐 막 어린 때니까.(4.3사건 때 우리 동창이나 희생당한 건 없었지. 그땐 막 어린 때니까.)

102006 @ 음.(음.)

102006 #1 그 육이오 터지니까 막 그 혈서, 학교 끝나니까 막 가서 이제루 말ᄒᆞ민 이제 시청에 가서 막 혈서 손을 짤라서 막 군에 가겟다고.(그 육이오 터지니까 막 그 혈서, 학교 끝나니까 막 가서 이제로 말하면 이제 시청에 가서 막 혈서 손을

잘라서 막 군에 가겠다고.)

102006 @ 무사 그추룩 헤신고예?(왜 그렇게 했을까요?)

102006 #1 북한, 중국에서 막 처들어오니까 싸와야 뭰다고 헤서 학생들이 공부를 허다가 포기헤서 군인 가서 쌉겟다는 거여. 나라를 지키겟다고.(북한, 중국에서 막 쳐들어오니까 싸와야 된다고 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포기해서 군인 가서 싸우겠다는 거야. 나라를 지키겠다고.)

102006 @ 단순히 나라를 지키겟다고 헹 싸와시카예? 아니면 사삼 때 어떤 그.(단순히 나라를 지키겠다고 해서 싸웠을까요? 아니면 사삼 때 어떤 그.)

102006 #1 그런 영향이.(그런 영향이.)

102006 @ 막 뭔가 국가에 충성ᄒᆞ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민 혹시나 또 이제 빨갱이로.(막 뭔가 국가에 충성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혹시나 또 이제 빨갱이로.)

102006 #1 그런 거는 아닐 거 ᄀᆞ트고.(그런 거는 아닐 거 같고.)

102006 @ 음.(음.)

102006 #1 여기는 지금 폭도, 산에 올라간 사름이 우린 공산당으로 셍각헷단 말이지.(여기는 지금 폭도, 산에 올라간 사람이 우린 공산당으로 생각했단 말이지.)

102006 @ 음.(음.)

102006 #1 이젠 그런 사름덜도 사삼 유가족으로 다 보상도 받고 허는디, 우린 사상 관계는 몰르고 그런 사삼사건 때 막 그런 그 어려운 일 다 겪어나니까 이건 공산당 ᄒᆞ고 쌉는 정신이 잇겟지요.(이젠 그런 사람들도 사삼 유가족으로 다 보상도 받고 하는데, 우린 사상 관계는 모르고 그런 사삼사건 때 막 그런 그 어려운 일 다 겪어나니까 이건 공산당 하고 싸우는 정신이 있겠지요.)

102006 @ 음.(음.)

102006 #1 학생 때 지원헤 간다는 것이 혈서 쓰면서.(학생 때 지원해 간다는 것이 혈서 쓰면서.)

102006 @ 그때 삼춘도 군대 갓수과?(그때 삼촌도 군대 갔습니까?)

102006 #1 아, 그때 난 안 가고.(아, 그때 난 안 가고.)

102006 @ 그때가 몇 살 쯤 뒛수과? 오십년 전쟁 때가.(그때가 몇 살 쯤 됐습니까? 오십년 전쟁 때가.)

102006 #1 그때가 뭐 ᄒᆞᆫ 열 멧 살 때, 아직 쑤무 살도 안 뒐 때.(그때가 뭐 한 열 몇 살 때, 아직 스무 살도 안 될 때.)

102006 @ 예. 아까 그 말씀 중에 사삼 때 선생 한 사람 죽엇젠 헷잖아예?(예. 아까 그 말씀 중에 사삼 때 선생 한 사람 죽었다고 했잖아요?)

102006 #1 에, 에.(예, 예.)

102006 @ 그 사람은 볼목리 사람이엇수과?(그 사람은 보목리 사람이었습니까?)

102006 #1 에. 볼목리 사람.(예. 보목리 사람.)

102006 @ 원래 보목리 사람마씸?(원래 보목리 사람이요?)

102006 #1 원래 여기 볼목리가 고향인디 일본 가서 공부해 온 사람인디.(원래

여기 보목리가 고향인데 일본 가서 공부해 온 사람인데.)

102006 @ 공부헤 온 사람예?(공부해 온 사람이요?)

102006 #1 공부할 때 이 사상 그런 계통에 뭔가 이섯 헨디, 여기 와서도 선생 허면서도 우리 담임선생ᄁᆞ지 헷는데.(공부할 때 이 사상 그런 계통에 뭔가 있어서 했는데, 여기 와서도 선생 하면서도 우리 담임선생까지 했는데.)

102006 @ 예, 예.(예, 예.)

102006 #1 우린 그런 거 사상 ᄀᆞ튼 거 몰랏단 말이여. 어린 때고.(우린 그런 거 사상 같은 거 몰랐단 말이야. 어린 때고.)

102006 @ 예, 예.(예, 예.)

102006 #1 여기 그 당시 사삼 때 사상, 그 책임자 뒈다시피 헌 사름이 여기 서귀 정방폭포에 살앗어요.(여기 그 당시 사삼 때 사상, 그 책임자 되다시피 한 사람이 여기 서귀 정방폭포에 살았어요.)

10206 @ 예.(예.)

102006 #1 이 뭐 그 사람이 가끔 보민 그디만 간단 말이여.(이 뭐 그 사람이 가끔 보민 거기만 간단 말이여.)

102006 @ 음.(음.)

102006 #1 보고도 우린 몰란에. 그자 우리 담임선생이고 여기 사람이고 하니까 사상은 몰르고 보면 자꾸 그 어른 네 집에 가서 영 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알안 보니까 그 분도 돌아갓는데 죽엇는데.(보고도 우린 몰라서. 그자 우리 담임선생이고 여기 사람이고 하니까 사상은 모르고 보면 자꾸 그 어른 네 집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분도 돌아갔는데 죽었는데.)

102006 @ 그 분은 누구꽈? 아까 정방폭포 동네 잇덴 헌 사람.(그 분은 누굽니까? 아까 정방폭포 동네 있다고 한 사람.)

102006 #1 여기 잇는 사람?(여기 있는 사람?)

102006 @ 예.(예.)

102006 #1 000라고.(000라고.)

102006 @ 그 000 선생님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수업 때 아이들에게 사상교육을 시켯다던가?(그 000 선생님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수업 때 아이들에게 사상교육을 시켰다던가?)

102006 #1 아니 그런 거 엇서.(아니 그런 거 없어.)

102006 @ 아니면 행동에 뭐 막 나쁜 짓을 한다든가.(아니면 행동에 뭐 막 나쁜 짓을 한다든가.)

102006 #1 아니 그런 거 없고, 우린 그런 것도 일체 몰랏고.(아니 그런 거 없고, 우린 그런 것도 일체 몰랐고.)

102006 @ 경헤신디 그냥 단순히 사상이 안 좋텐 헤가지고?(그렇게 했는데 그냥 단순히 사상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102006 #1 그런데서 ᄀᆞ찌 어울려서 그런 뭐헌 거지. 학교 안에다 우리 뭐. 얘기

헤도 그 당시 뭐 어려 놓니까 사상이 뭔지 뭐 몰랏을지 모르고.(그런데서 같이 어울려서 그런 뭐한 거지. 학교 안에다 우리 뭐. 얘기해도 그 당시 뭐 어려 놓으니까 사상이 뭔지 뭐 몰랐을지 모르고.)

102006 @ 음.(음.)

102006 #1 특별하게 나 기억나는 건 엇고, 건디 학교생활 말고는, 보통 보면은 그 그런 계통으로만 댕기면서 같이 어울려 다녓던 가테.(특별하게 나 기억나는 건 없고, 그런데 학교생활 말고는, 보통 보면 그 그런 계통으로만 다니면서 같이 어울려 다녔던 같아.)

102006 @ 그 분은 뭐 장가가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엇수과?(그 분은 뭐 장가가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102006 #1 아니, 지금 여기 부인은 살아 이십주.(아니, 지금 여기 부인은 살아 있습죠.)

102006 @ 자식은마씨?(자식은요?)

102006 #1 자식은 아들 ᄒᆞ나 잇다가 아들 죽어 불고 홀로 할머니 혼자 사는디.(자식은 아들 하나 있다가 아들 죽어 버리고 홀로 할머니 혼자 사는데.)

102006 @ 혼자 사는디, 지금 연세가 잘도 많으키여예?(혼자 사는데, 지금 연세가 잘도 많겠네요?)

102006 #1 지금 할머니가? 지금 ᄒᆞᆫ 팔십다섯인가 아니 구십다섯인가? 구십 ᄒᆞᆫ 너댓 뒈어십주.(지금 할머니가? 지금 한 팔십다섯인가 아니 구십다섯인가? 구십 한 너댓 되었습죠.)

102006 @ 지금 사람들 하고 말을 주고받을 수 잇수과?(지금 사람들 하고 말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

102006 #1 그 할머니?(그 할머니?)

102006 @ 예.(예.)

102006 #1 예, 할 수 이십주.(예, 할 수 있습죠.)

102006 @ 그 분 저기 성함을 좀 가르쳐 주십서.(그 분 저기 성함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102006 #1 양정삼.(양정삼.)

102006 @ 이 분, 양정삼 할머니는 뭐 하멍 살멘마씨?(이 분, 양정삼 할머니는 뭐 하면서 사나요?)

102006 #1 얼마 전 까지는 좀수 헷주 좀수.(얼마 전 까지는 잠수 했지 잠수.)

102006 @ 아이들은 몃 명 이서낫수과?(아이들은 몇 명 있었습니까?)

102006 #1 아이, 아덜 ᄒᆞ나 이서낫신디 교통사고 낭 옛날에 죽어부니까. 이 할무니도 남편이 어떻게 죽엇는디 모를 꺼여.(아이, 아들 하나 있어났는데 교통사고 나서 옛날에 죽어버리니까. 이 할머니도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모를 거야.)

102006 @ 아이고 세상, 교통사고 나근에 손지도 안 넹경 그냥 죽어부런마씸?(아이고 세상, 교통사고 나서 손자도 안 남겨서 그냥 죽어버렸다고요?)

102006 #1 에.(예.)

102006 @ 어릴 때?(어릴 때?)

102006 #1 총각 때.(총각 때.)

102006 @ 아이고, 총각 때. 잘도 잘도 힘들어시키여예? 경 헹 재혼도 안 헹 계속 혼자 살고예?(아이고, 총각 때. 잘도 잘도 힘들었겠네요? 그렇게 해서 재혼도 안 해서 계속 혼자 살고요?)

102006 #1 에.(예.)

102006 @ 게, 지금은 먹고 사는 거 어떵 해결헤마씸?(그래, 지금은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해결해요?)

102006 #1 먹고 사는 거는 밧이 이섯는디 아직 그 밑으로 양제, 양제는 결정이 안 뒌 것 같고.(먹고 사는 거는 밭이 있었는데 아직 그 밑으로 양자, 양자는 결정이 안 된 것 같고.)

102006 @ 예.(예.)

102006 #1 밧 ᄒᆞ나 족은 거 이서나신디 지금은 풀앗는지 어떤지 몰라도.(밭 하나 작은 거 있어났는데 지금은 팔았는지 어떤지 몰라도.)

102006 @ 물질허멍예?(물질하면서요?)

102006 #1 지금이야 요즘 물질 안 ᄒᆞ주마는 주로 물질혯어.(지금이야 요즘 물질 안 하지만 주로 물질했어.)

102006 @ 오늘 작업 끗낭 갈 때 집만 좀 ᄀᆞ르켜 줍서, 집 만예?(오늘 작업 끝내고 갈 때 집만 좀 가르쳐 주세요, 집 만요?)

102007 @ 그리고 여자삼춘이랑 결혼 할 때 중매결혼 헷수과 연애결혼 헷수과? 할머니가 키웟덴 헷지예? 삼춘네 할머니가예?(그리고 여자삼촌이랑 결혼 할 때 중매결혼 했습니까, 연애결혼 했습니까? 할머니가 키웠다고 했지요? 삼촌네 할머니가요?)

102007 #1 음?(음?)

102007 @ 여자삼춘이랑 결혼 헐 때. 연애결혼 헷수과? 중매결혼 헷수과?(여자삼촌이랑 결혼 할 때. 연애결혼 했습니까? 중매결혼 했습니까?)

102007 #1 건 몰르겟는데. 우리 결혼 헐 때?(그건 모르겠는데. 우리 결혼 할 때?)

102007 @ 예, 예.(예, 예.)

102007 #1 연애라고도 할 수 잇고 중매라고도 볼 수 잇주. 연애라고 할 수 잇지. 나도 그 당시 교회 뎅길 때니까.(연애라고도 할 수 있고 중매라고도 볼 수 있지. 연애라고 할 수 있지. 나도 그 당시 교회 다닐 때니까.)

102007 @ 무사 교회 안 다념숫과?(왜 교회 안다니고 있습니까?)

102007 #1 중학교 때부터 총각 때까지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군대 다니멍 결혼 헷는디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제사 관계 때문에.(중학교 때부터 총각 때까지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군대 다니면서 결혼 했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제사 관계 때문

에.)

102007 @ 아, 맞아. 교횐 제사 허지말렌 허지예?(아, 맞아. 교횐 제사 하지마라고 하지요?)

102007 #1 우리 형님이 육군사관학교 나왓어요. 그 당시 그 노태우대통령 일 년 후밴디 십삼 기.(우리 형님이 육군사관학교 나왔어요. 그 당시 그 노태우대통령 일 년 후밴데 십삼 기.)

102007 @ 음.(음.)

102007 #1 우리형님은 육사 나오니까 죽도록 군대생활헐 거니까 나보고 제주도로 가서, 군대생활 나도 제주시에서 헷어요. 삼년 동안 제주시에서.(우리형님은 육사 나오니까 죽도록 군대생활할 거니까 나보고 제주도로 가서, 군대생활 나도 제주시에서 했어요. 삼년 동안 제주시에서.)

102007 @ 아, 아.(아, 아.)

102007 #1 여기 제주도로 가서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제ᄉᆞ ᄀᆞ튼 거 알아서허라고.(여기 제주도로 가서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제사 같은 거 알아서하라고.)

102007 @ 예.(예.)

102007 #1 우리 집 사름만 죽도록 헤야 뒈니까 그래서 제ᄉᆞ 때만 뒈면 딱 걸리더라고.(우리 집 사람만 죽도록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사 때만 되면 딱 걸리더라고.)

102007 @ 예.(예.)

102007 #1 게서 우리 집 사름은 계속 다니고 나는 도중하차하고.(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계속 다니고 나는 도중하차하고.)

102007 @ 그문 지금 제산 하잖아예?(그러면 지금 제사는 하잖아요?)

102007 #1 음.(음.)

102007 @ 그믄 제사 헐 때 여자 삼춘이 제사음식 안 만들어마씸?(그러면 제사 할 때 여자 삼촌이 제사음식 안 만들어요?)

102007 #1 아니, ᄀᆞ찌 거둘어주지. 메누리가 다 허는 디.(아니, 같이 거들어주지. 며느리가 다 하는데.)

102007 @ 게민 절도 안 허고마씸?(그러면 절도 안 하고요?)

102007 #1 어? 절?(어? 절?)

102007 @ 예.(예.)

102007 #1 절? 메누리가?(절? 며느리가?)

102007 @ 예. 그니까 여자삼춘이 제ᄉᆞᆺ상에 절 안 헤마씸?(예. 그니까 여자삼촌이 제사상에 절 안 해요?)

102007 #1 아니 여자들은 제ᄉᆞᆺ상에 절도 안 허고, 무시거.(아니 여자들은 제사상에 절도 안 하고, 뭐.)

102007 @ 아, 보목리는 여자가 절 안 헤마씸?(아, 보목리는 여자가 절 안 해요?)

102007 #1 안 헤.(안 해.)

102007 @ 아, 기꽈?(아, 그래요?)

102007 #1 어. 메누리가 제ᄉᆞ 마탕 허는 디가 엇어. 거들어 주기는 허는디.(어. 메누리가 제사 맡아서 하는 데가 엇어. 거들어 주기는 하는데.)

102008 @ 사주는 봐근에 결혼 헷수과?(사주는 봐서 결혼 했습니까?)

102008 #1 어?(어?)

102008 @ 사주.(사주.)

102008 #1 사주? 우린 그런 거는 안 보고, 사주도 안 보고 날도 안 보고.(사주? 우린 그런 거는 안 보고, 사주도 안 보고 날도 안 보고.)

102009 @ 경헷구나예? 거문 그때당시에 결혼 헐 때 혼수품이나 예물 같은 건 이섯수과?(그렇게 했군요? 그러면 그때당시에 결혼 할 때 혼수품이나 예물 같은 건 있었습니까?)

102009 #1 예물? 예물이 없엇던 거 ᄀᆞ테, 없어.(예물? 예물이 없었던 거 같아, 없어.)

102009 @ 반지 같은 것도 주고받지 안헷마씨?(반지 같은 것도 주고받지 안했나요?)

102009 #1 아니, 반지도 아년 거 닮아.(아니, 반지도 안한 거 닮아.)

102009 @ 그, 고아처럼 커서 삼춘 할머니가 여자삼춘을 키웟덴 헷잖아예? 그므는 자랄 때부터 계속 봣겟구나예? 애기 때부터예? 옆에서.(그, 고아처럼 커서 삼촌 할머니가 여자삼촌을 키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랄 때부터 계속 봤겠네요? 애기 때부터요? 옆에서.)

102009 #1 누가? 나가?(누가? 나가?)

102009 @ 예.(예.)

102009 #1 우리 집사름을?(우리 집사람을?)

102009 @ 예.(예.)

102009 #1 어린 때는 고아, 여기서 살지 않앗어요. 웨삼춘이 서귀포 장사 허니까 그 고무신 장사.(어린 때는 고아, 여기서 살지 않았어요. 외삼촌이 서귀포 장사 하니까 그 고무신 장사.)

102009 @ 예.(예.)

102009 #1 저 이모부가.(저, 이모부가.)

102009 @ 예.(예.)

102009 #1 저, 이모부 네가 고무신 장사 허니까 그기 가서 어린 때부터 신부름 하면서 살앗서.(저, 이모부 네가 고무신 장사 하니까 거기 가서 어린 때부터 심부름 하면서 살았어.)

102009 @ 음.(음.)

102009 #1 거난 거기 겅허다가 여기 바로 욮의가 웨할머니 집인디. 주로 웨할머니가 키와줫어.(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하다가 여기 바로 옆이 외할머니 집인데. 주

로 외할머니가 키워줬어.)

102009 @ 아, 웨할머니가. 할머니가 아니고 웨할머니가.(아, 외할머니가. 할머니가 아니고 외할머니가.)

102009 #1 어.(어.)

102009 @ 겅헷구나게. 게도 올 때 혼수품으로 이불은 헹 와실 거 아니꽈?(그렇게 했구나. 그래도 올 때 혼수품으로 이불은 해서 왔을 거 아닌가요?)

102009 #1 아, 이불 ᄒᆞ나허고 궤 ᄒᆞ나 헷어.(아, 이불 하나하고 궤 하나 했어.)

102009 @ 궤예?(궤요?)

102009 #1 어.(어.)

102009 @ 그 궤는 아직도 잇수과?(그 궤는 아직도 있습니까?)

102009 #1 예. 옛날에 뭐 보통 거 뭐 잘허민 이불 두 개고, 잘 안허민 이불 ᄒᆞ나에 궤ᄒᆞ나.(예. 옛날에 뭐 보통 거 뭐 잘하면 이불 두 개고, 잘 안하면 이불 하나에 궤하나.)

102009 @ 음. 이따가 얘기 끗나민 궤 사진 좀 찍우쿠다예?(음. 이따가 얘기 끝나면 궤 사진 좀 찍을 게요?)

102009 #1 으.(응.)

102010 @ 결혼식은 어디서 헷수과?(결혼식은 어디서 했습니까?)

102010 #1 옛날 마을회관. 지금도 잇는디.(옛날 마을회관. 지금도 있는데.)

102010 @ 사진도 찍엇수과?(사진도 찍었습니까?)

102010 #1 에.(예.)

102010 @ 그것도 잇수과?(그것도 있습니까?)

102010 #1 에.(예.)

102010 @ 이따가 사진도 찍게예?(이따가 사진도 찍을 게요?)

102011 @ 그러면 결혼 헌 다음에 신혼살림은 어디서 헷수과?(그러면 결혼 한 다음에 신혼살림은 어디서 했습니까?)

102011 #1 그 당신 여기가 아니고 저쪽 어머니 아버지 살던 밖그레, 안팟그레 낫는디 그 당신 밖그레, ᄀᆞ치 살아서.(그 당시엔 여기가 아니고 저쪽 어머니 아버지 살던 바깥채, 안팎채였는데 그 당시엔 바깥채, 같이 살았어.)

102011 @ 밖그레예?(바깥채요?)

102011 #1 에.(예.)

102011 @ 이 집은 지은 지 오렌마씸?(이 집은 지은 지 오랜가요?)

102011 # 이거 칠십육 년도.(이거 칠십육 년도.)

102011 @ 이 집 지으멍 여기로 이사 오신거꽈?(이 집 지으면서 여기로 이사 오신건가요?)

102011 #1 예.(예.)

102011 @ 그믄 그때부터 이제까지 산거마씸?(그러면 그때부터 이제까지 산건가요?)

102011 #1 예.(예.)

102011 @ 그때부턴 이 집 지엉오멍 어머니 아부지하고 떨어정 살게 뒌 거꽈?(그때부턴 이 집 지어서오며 어머니 아버지하고 떨어져 살게 된 건가요?)

102011 # 예.(예.)

102012 @ 아이들은 멧 남 멧 녀꽈?(아이들은 몇 남 몇 녑니까?)

102012 #1 이남 삼녀.(이남 삼녀.)

102012 @ 이남삼녀? 뚤이 젤 맏이꽈?(이남삼녀? 딸이 젤 맏입니까?)

102012 #1 위로부터 뚤 세 개.(위로부터 딸 세 개.)

102012 @ 아, 경헹 아들 둘.(아, 그렇게 해서 아들 둘.)

102012 #1 밑으로 아들 둘.(밑으로 아들 둘.)

102012 @ 아이고, 어머닌 잘도 걱정 헤시키여예. 옛날이라부난예.(아이고, 어머닌 잘도 걱정 했겠네요. 옛날이라 버려서.)

102012 #1 에, 예 하하.(예, 예 하하.)

102013 @ 결혼생활을 하면서 특별하게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가 메누리 막 구박허거나 이런 건 엇섯수과?(결혼생활을 하면서 특별하게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가 며느리 막 구박하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102013 #1 그런 건 엇어.(그런 건 없어.)

102013 @ 엇엇수과?(없었습니까?)

102013 #1 다, 다, 그 고아출신이라는 걸 알아노니까 구박 헐 수가 엇섯지.(다, 다, 그 고아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구박 할 수가 없었지.)

102013 @ 고아 출신인데도 그추륵 선뜻 결혼해야지라고 셍각헷던 건 몇 년 정도 사귀난 그런 셍각이 듭디가?(고아 출신인데도 그렇게나 선뜻 결혼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건 몇 년 정도 사귀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나요?)

102013 #1 몇 년 뭐 흔 1년 정도도 안 뒈실 거여. 제대해 와서 얼마 어성 결혼헷시난.(몇 년 뭐 한 일 년 정도도 안 됐을 거야. 제대해 와서 얼마 없어 결혼 했으니까.)

102013 @ 처녀 때 막 고와난 거 닮아예. 지금은 얼굴에 막 뭐 낫주마는.(처녀 때 막 고와난 거 닮아요. 지금은 얼굴에 막 뭐 낫지만.)

102013 #1 고와서 헌 게 아니여.(고와서 한 게 아니야.)

102013 @ 하하하 동네난 헷수과?(하하하 동네니까 했습니까?)

102014 @ 지금 그 삼녀이남 다섯 다 결혼 헷수과?(지금 그 삼녀이남 다섯 다 결혼 했습니까?)

102014 #1 이남삼녀 다 결혼 헷어요.(이남삼녀 다 결혼 했어요.)

102014 @ 딸들 하나 둘 셋, 다음 아들 둘이잖아예?(딸들 하나 둘 셋, 다음 아들 둘이잖아요?)

102014 #1 음.(음.)

102014 @ 그나저나 삼녀 이남이렌 골아신디예?(그나저나 삼녀 이남이라고 말했

는데요?)

102014 #1 음.(음.)

102014 @ 첫 뚤은 몇 살이고 막내는 몇 살쯤 됏수과?(첫 딸은 몇 살이고 막내는 몇 살쯤 됐습니까?)

102014 #1 쉰네 술인가? 육십년 생이면. 큰 뚤이.(쉰네 살인가? 육십년 생이면. 큰 딸이.)

102014 @ 육십년 생예?(육십 년생이요?)

102014 #1 육공년 생.(육십년 생.)

102014 @ 쉰 넷이고, 막내는마씸?(쉰 넷이고, 막내는요?)

102014 #1 마흔 멧 술이난 칠십년 생.(마흔 몇 살이니까 칠십년 생.)

102014 @ 칠십년 생이면 마흔다섯이다예?(칠십년 생이면 마흔다섯이네요?)

102014 #1 음.(음.)

102014 @ 십년 사이에 다섯을 나시난 계속 두 살 터울로 낫구나.(십년 사이에 다섯을 났으니까 계속 두 살 터울로 났구나.)

102014 #1 예.(예.)

102014 @ 삼춘네는 형제가 멧 잇엇수과?(삼촌네는 형제가 몇 있었습니까?)

102014 #1 우린 ᄉᆞ 남 이녀. ᄉᆞ 녀 이남.(우린 사 남 이 녀. 사 녀 이 남.)

102014 @ ᄉᆞ 녀 이 남예?(사 녀 이 남요?)

102014 #1 에.(예.)

102014 @ 그 중에서 막내가 아들이엇구나예?(그 중에서 막내가 아들이었군요?)

102014 #1 에.(예.)

102014 @ 다 지금 살아 계션마씸? 형제들?(다 지금 살아 계신가요? 형제들?)

102014 #1 아니 지금은 누이동생 ᄒᆞ나 잇고 나ᄒᆞ고 둘이가.(아니 지금은 누이동생 하나 있고 나하고 둘.)

102015 @ 지금 며느리가 둘, 사위가 셋인데 명절 땐 다 잘 모입니까?

102015 #1 예?

102015 @ 메누리 둘, 사위가 셋이잖아예? 멩질 때 다 모여마씸?(며느리 둘, 사위가 셋이잖아요? 명절 때 다 모이나요?)

101015 #1 에.(예.)

102015 @ 어디 제주도 살암숫과, 육지 살암숫과?(어디 제주도 살고 있습니까, 육지 살고 있습니까?)

102015 #1 다 이거 우리 마을에 뚤들은 우리 마을에 둘이.(다 이거 우리 마을에 딸들은 우리 마을에 둘이.)

102015 @ 예.(예.)

102015 #1 큰 뚤은 도순[22]이, 여기 가까운데 다 이서.(큰 딸은 '도순'이, 여기 가까운데 다 있어.)

---

22) '도순'은 서귀포시 '도순'마을을 말한다.

102015 @ 아유, 다행이다예? 아들들은마씸?(아유, 다행이네요? 아들들은요?)

102015 #1 아들허고 며누리는 여기 하효, 하효 메누리. 가까운디 둘이 살고.(아들하고 며느리는 여기 하효[23], 하효 며느리. 가까운데 둘이 살고.)

102015 @ 며누리허고 사위들은 별 문제없이 잘 헤마씸?(며느리하고 사위들은 별 문제없이 잘 하나요?)

102015 #1 예.(예.)

102015 @ 다행인게예. 게민 손지는 다헹 멧잇꽈?(다행이네요. 그러면 손자는 다해서 몇인가요?)

102015 #1 웨손지ᄁᆞ지 허민 딱 열 사름.(외손자까지 하면 딱 열 사람.)

102015 @ 웨손지 성 손지 까지 다 합처근에예?(외손자 성 손자까지 다 합쳐서요?)

102015 #1 예.(예.)

102015 @ 어, 부모님에 대한 어떤 셍각이나,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헤서 막 특별한 셍각이 나거나 그립거나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엇수과?(어, 부모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헤서 막 특별한 생각이 나거나 그립거나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102015 #1 거 무신, 옛날에 우리 부친이 궹장히 엄헤 노니까, 지금ᄀᆞ찌 저 말도 못헷어요. 무서와서.(그 무엇, 옛날에 우리 부친이 굉장히 엄해 노니까, 지금같이 저 말도 못했어요. 무서워서.)

102015 @ 어머닌마씨?(어머니는요?)

102015 #1 어머닌 뭐 진짜 깔끔허고, 뭐 마찬가지. 철저허고.(어머닌 뭐 진짜 깔끔하고, 뭐 마찬가지. 철저하고.)

102015 @ 어머닌 멧 살쯤 돌아가셧수과? 삼춘 멧 살 때?(어머닌 몇 살쯤 돌아가셨습니까? 삼촌 몇 살 때?)

102015 #1 팔십삼 세에.(팔십삼 세에.)

102015 @ 그면은 삼춘이 한 쉰이나 예순 뒐 때 돌아가셧수과?(그러면 삼촌이 한 쉰이나 예순 될 때 돌아가셨습니까?)

102015 #1 예.(예.)

102016 @ 특별나게 메누리안틔 뭔가 하고 싶은 말은 엇어마씸?(특별나게 며느리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은 없나요?)

102016#1 뭐 잘허니까 뭐, 특별하게 뭐 할 말 엇어. 잘허니까.(뭐 잘하니까 뭐, 특별하게 뭐 할 말 없어. 잘하니까.)

102016 @ 다행이우다예.(다행이네요.)

102016 #1 돈 없어서 못사는 게 문제지 마음만 들면 되지 뭐.(돈 없어서 못사는 게 문제지 마음만 들면 되지 뭐.)

102016 @ 알앗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게예?. 오전 시간은예.(알았습니다.

23) '하효'는 서귀포시 '효돈동' 서쪽 지역을 말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게요? 오전 시간은요.)

2. 제보자 일생

102001 @ 지금부터, 아까 물어봤던 것처럼 삼춘 부모님은 누구고 어디서 태어나신지 골아줍서.(지금부터, 아까 물어봤던 것처럼 삼촌 부모님은 누구고 어디서 태어났는지 말해주세요.)

102001 #3 태어남사 섯동네서게.(태어나기야 서쪽동네서지.)

102001 @ 볼목리 섯동네서예?(보목리 서쪽동네요?)

102001 #3 응. 볼목리 섯동네서 이디 시집을 왓주게. 동카름으로.(응. 보목리 서쪽동네서 이곳에 시집을 왔지. 동쪽동네로.)

102001 @ 동카름으로예. 멧 남 남 멧 녀 중에 뭐렌헷수과?(동쪽 동네로요. 몇 남 몇 녀 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102001 #3 팔남매에서 막내.(팔남매에서 막내.)

102001 @ 팔남매 막내에서 아들은?(팔남매 막내에서 아들은?)

102001 #3 아들 셋.(아들 셋.)

102001 @ 아들 셋에, 뚤 넷마씨?(아들 셋에, 딸 넷요?)

102001 #3 다섯 아니라.(다섯 아니라.)

102002 @ 아 맞다예. 그중에서 막내예? 그 당시에 부모님은 뭐헷수과?(아 맞네요. 그중에서 막내요? 그 당시에 부모님은 뭐했습니까?)

102002 #3 아 노동밖에 더 헤게. 촌에사.(아 노동밖에 더 하나. 촌에서.)

102002 @ 노동예? 어떤 어떤 농사지언마씨?(노동요? 어떤 어떤 농사지었나요?)

102002 #3 조, 보리 그때사 조, 보리 막 헐 때주.(조, 보리 그때야 조, 보리 막 할 때지.)

102002 @ 베는 헷수과?(배는 했습니까?)

102002 #3 바당에 베?(바다에 배?)

102002 @ 예.(예.)

102002 #3 안 허고게. 섯동네는 바당에 베 헌 사람이 벼랑 드물주게. 일루 내려강 이레 강 바당에 강 하주.(안 하고. 서쪽동네는 바다에 배 한 사람이 별로 드물지. 이리로 내려가서 이리로가 바다에 가서 하지.)

102004 @ 아버지는 원래 볼목리렌 하셧지예? 어머니는 법환리[24]고예?(아버지는 원래 보목리라고 하셨지요? 어머니는 '법환리'고요?)

102004 #3 응.(응.)

102004 @ 그면 혹시 삼춘 어릴 때 기억 뒈살려봅서. 어렷을 때 뭐하멍 놀앗수과? 동네에서 아이들하고 놀이 종류.(그러면 혹시 삼촌 어릴 때 기억 되살려보세요.

24) '법환리'는 서귀포시에 있는 바닷가 마을이름이다.

어렸을 때 뭐하면서 놀았습니까? 동네에서 아이들하고 놀이 종류.)

102004 #3 종류사 엿날엔 흑자파리도 허고게 경헤낫주게 그거밧긔 무시거. 바당에도 가고 그거.(종류야 옛날엔 흙장난도 하고 그렇게 해났지. 그거밖에 뭐. 바다에도 가고 그거.)

102004 @ 흑자파리 할 땐 어떤 식으로 놀앗수과?(흙장난 할 땐 어떤 식으로 놀았습니까?)

102004 #3 흑자파리 두린 땐 이, 막 흑 모양 헤근에 물 놔근에 요런 폴꿈치로 똑허게 지르민 동글랑 허지이? 그민 솟이렌 허멍, 아주 엿날엔 경허멍 믄.(흙장난 어린 땐, 막 흙 모양 해서 물 놔서 요런 팔꿈치로 똑 하게 누르면 둥글게 하지? 그러면 솥이라고 하면서, 아주 옛날엔 그렇게 하면서 모두.)

102004 @ 솟 헹 뭐헷수과?(솥 해서 뭐했습니까?)

102004 #3 뭐헤서게, 그자 방디가 그거주 두린 때.(뭐해, 그저 장난감이 그거지 어린 때.)

102004 @ 그 솟에 경헹 뭐 숣아먹으멍?(그 솥에 그렇게 해서 뭐 삶아먹으면서?)

102004 #3 숣아먹으멍 헤서게, 기자 허는 추룩 흑으로 요런 폴꿈치로 꼭 눌르멍 솟이여 솟이여 헤놧주게. 그거 무신 들러근에 어떵 자파리 헤나서게.(삶아먹으면서 했었나, 그저 하는 것처럼 흙으로 요런 팔꿈치로 꼭 누르면서 솥이여, 솥이여 해났지. 그거 무슨 들어서 어떻게 장난 해났나.)

102004 @ 그런 거 말곤 다른 건 엇수과?(그런 거 말곤 다른 건 없습니까?)

102004 #3 다른 거 무시거게? 바당에 이제 ᄒᆞ끔 뎅기단에, 기자 바당일도 난 잘못헤여.(다른 거 뭐? 바다에 이제 조금 다니다가, 그저 바다일도 난 잘못해.)

102004 @ 기지예? 그리고.(그지요? 그리고.)

102004 #3 바당에 뎅기멍 저 섬에도 가고 물질허레 거기도 가고 이디 섬도 휘어가고 휘어오고.(바다에 다니며 저 섬에도 가고 물질하러 거기도 가고 여기 섬도 헤엄쳐가고 헤엄쳐오고.)

102004 @ 물 쌀 때마씨? 들 때마씨?(물 날 때요? 들 때요?)

102004 #3 물 싸고 들고.(물 나고 들고.)

102004 @ 물 쌀 때도 들 때도 상관어시 그 섬까지 갓수과?(물 날 때도 들 때도 상관없이 그 섬까지 갔습니까?)

102004 #3 오게, 휘영 테왁[25] 지프민게. 옛날엔 낭도 어성 섭섬에 강, 낭 헤당 이ᄁᆞ지 요 목에ᄁᆞ지 끄서오주 휘어근엥.(그래, 헤엄쳐서 '테왁' 짚으면. 옛날엔 나무도 없어 섶섬에 가서, 나무 해다가 여기까지 요 목에까지 끌어오지 헤엄쳐서.)

102004 @ 그 혹시 섭섬에는 어떵 낭들 이서신지 기억남수과?(그 혹시 섶섬에는 어떤 나무들 있었는지 기억납니까?)

---

25) '테왁'은 박의 씨통을 파내고 구멍을 막아서 해녀들이 작업할 때 바다에 가지고 가서 타는 물건을 말한다.

102004 #3 하간 낭들 하주게. 대랑 무신 낭이랑 이디 시는 낭이랑 하.(여러 가지 모든 나무들 많지. 대나무랑 무슨 나무랑 여기 있는 나무랑 많아.)

102005 @ 그때가 일제시대 때지예?(그때가 일제강점기 때지요?)

102005 #3 우리 저 할 때? 일제 시대멍 말멍, 이제 엿날에사 낭도 엇어근엥 고지 강 저당 헷주게, 저 한락산에 강 저당, 지게로.(우리 저 할 때? 일제강점기면서 말면서, 이제 옛날에야 나무도 없어서 고지 가서 져다가 했지, 저 한라산에 가서 져다가, 지게로.)

102005 @ 맞수다게.(맞습니다.)

102005 #3 지게로 지레 멧 번사 가와신디.(지게로 지러 몇 번이나 가왔는지.)

102005 @ 아, 지게로 갓다 왓수과?(아, 지게로 갔다 왔습니까?)

102005 #3 오게, 지게로 영 헹.(오, 지게로 이렇게 해서.)

102005 @ 지게말고 또 영 지는 그걸 뭐렌 골읍니까? 진진 헌 그거.(지게말고 또 이렇게 지는 그걸 뭐라 말합니까? 긴긴 한 그거.)

102005 #3 지게벳긘 더 셔? 등으로 엿날에사.(지게밖에 더 있어? 등으로 옛날에야.)

102005 @ 등으로, 영 무꺼근에 짐 지는 거.(등으로, 이렇게 묶어서 짐 지는 거.)

102005 #3 게메, 지게로 낭헤영 무꺼근에, 이뤠 놩, 지게로 저근엥 움직이고.(글쎄, 지게로 나무해서 묶어서, 이리 놔서, 지게로 져서 움직이고.)

102005 @ 아, 지게로 헷구나예? 질빵이 뭐꽈? 무시거?(아, 지게로 했군요? '질빵'이 뭡니까? 뭐?.)

102005 #3 그 배? 배로도 지주게.(그 바? 바로도 지지.)

102005 @ 배로도 젓지예?(바로도 졌지요?)

102005 #3 응, 배로도 지고, 지게로도 지고.(응, 바로도 지고, 지게로도 지고.)

102005 @ 그때 일제 시대에 물에도 들고 영 허면, 소라나 셍복 ᄀᆞ튼 거 잡으면 그 일본사람들이 몇 개는 가져가고 이런 건 엇엇수과?(그때 일제강점기에 물에도 들고 이렇게 하면, 소라나 전복 같은 거 잡으면 그 일본사람들이 몇 개는 가져가고 이런 건 없었습니까?)

102005 #3 기자 받아 가주게. 바당 강들 구젱기영.(그저 받아 가지. 바다 가서들 소라하고.)

102005 @ 그걸 일본사람들이 받앙 가마씨?(그걸 일본사람들이 받아서 가요?)

102005 #3 기자 이디 사름이 문 받는 사름이 받아근에 아저가주게. 제국시대엔 경 안헨디, 이젠 막 경헴저.(그저 여기 사람이 모두 받는 사람이 받아서 가져가지. 제국시대엔 그렇게 안했는데, 이젠 막 그렇게 하지.)

102005 @ 아, 게민 제국시대엔 어떵 헷수과?(아, 그러면 제국시대엔 어떻게 했나요?)

102005 #3 엿날엔 구제기 경 안헤서 나만 몰라도. 우리 물에 들기 전인.(옛날엔 소라 그렇게 안했어. 나만 몰라도. 우리 물에 들기 전엔.)

102005 @ 해방뒐 때가 몇 살쯤 뒛수과? 해방뒐 때.(해방될 때가 몇 살쯤 됐습니까? 해방될 때.)

102005 #3 해방뒐 때 알아지크라. 해방사 팔월에 뒛주마는 이?(해방될 때 알아지겠나. 해방사 팔월에 됐지만?)

102005 @ 그때가 시집간 때꽈? 시집 갓수과?(그때가 시집간 땐가요? 시집갔습니까?)

102005 #3 그때 시집 갈 때주게. 시집가근에게, 일본서 미국 비형기오라근에 막 헹, ᄂᆞ랑가불민.(그때 시집 갈 때지. 시집가서는, 일본서 미국 비행기와서 막 해서, 날아가 버리면.)

102005 @ 예.(예.)

102005 #3 또 요만썩 한 거, 전깃다마 꼭 전깃다마 닮은 거, 푹! 허게 알르레 떨어지민, 기자 세멘집이고 아무집도 얼랑얼랑 불 부터근에, 놀레영, 그때 우리 오라비엇주. 8월에, 정월 초신에 오난에, 불, 노레영 죽어지카부덴 팡팡 헤가난,(또 요만씩 한 거, 전구 꼭 전구 닮은 거, 푹! 하게 아래로 떨어지면, 그저 시멘트집이고 아무집도 활활 불 붙어서, 놀라서, 그때 우리 와버렸지. 팔월에, 정월 초에 오니까. 불, 놀라서 죽어질까봐 팡팡 해가니까.)

102005 @ 예.(예.)

102005 #3 게난에게 자꾸 사흘돌리로 그거 떨어지민 놀레영, ᄉᆞ뭇 벨 집이여도 다 카고 허난, 노레영 정월에 오난, 팔월드레 나난 십일(그러니까 자꾸 사흘돌리로 그거 떨어지면 놀래서, 사뭇 별 집이어도 다 타고 하니까, 놀래서 정월에 오니까, 팔월드레 나니까 십일)

102005 @ 광복 뒈엇구나예?(광복 되었군요?)

102005 #3 광복절 뒈어네.(광복절 되어서.)

102007 @ 그때는 아이 낳을 때꽈?(그때는 아이 낳을 땝니까?)

102007 #3 뚤, 베에서 나서, 베에서.(딸, 배에서 났어, 배에서.)

102007 @ 아, 베에서 낫수과?(아, 배에서 낳습니까?)

102007 #3 베도 일본가는 베, 군대완. 뚤도 나고, 다른 사람, 아들도 나고, 베에 오멍 노레엉들 죽어지카부덴 일본서 오단 보난 아기뻬 맞추는 걸게.(배도 일본가는 배, 군함. 딸도 나고, 다른 사람, 아들도 나고, 배에 오면서 놀라서 죽어질까봐 일본서 오다가 보니까 진통하는 거야.)

102007 @ 아 베에서 낫수과?(아 배에서 났습니까?)

102007 #3 응.(응.)

102012 @ 아이고, 그럼 그 뚤은 어떵 뒛수과?(아이고, 그럼 그 딸은 어떻게 됐습니까?)

102012 #3 죽어빗주게.(죽어버렸지.)

102012 @ 몇 살에 때마씨?(몇 살에 때요?)

102012 #3 세 설 땐가? 우리 아방이 학교 선생이라낫주게.(세 살 땐가? 우리 남

편이 학교 선생 이라났지.)

102012 @ 예.(예.)

102012 #3 일본 간에, 문 밧풀앙 강 공부헹 오랑, 엿날이라도 이디 오라동 서귀포국민학교 부떤 한 오년 더 허나마나 헤실 거라.(일본 가서 모두 밭팔아서 가서 공부해서 와서, 옛날이라도 여기 와서는 서귀포국민학교에 붙어서 한 오년 더 하나마나 했을 거야.)

102012 @ 음.(음.)

102012 #3 난 흔 스물셋에 나신디, 그거 뚤 ᄒᆞ나 난에. 학교선생질 허난 아기도 그때 그 막 무시거헨에, 저 학교 선생이난에 그 육학년 마트주게.(난 한 스물셋에 났는데, 그거 딸 하나 나서. 학교선생질 하니까 아기도 그때 그 막 뭐해서, 저 학교 선생이이니까 그 육학년 맡았지.)

102012 @ 예.(예.)

102012 #3 육학년 마탄에 하간 거 먹을 거, ᄉᆞ뭇 졸입ᄒᆞ난 학생들게 무신거 사단먹으멍, 선셍들 대접허젠 문 사오란, 먹는 가운데 어떵헨에 밥헹 주젠, 반찬이영 막 헨에 어떵어떵 허단 보난에 아이는 어떵헨에 그때 체시[26]난ᄀᆞ라 데영, 데영. 그땐 약도 엇엇주.(육학년 맡아서 여러 가지 먹을 거, 사뭇 졸업하니 학생들이 무엇 사다먹으면서, 선생들 대접하려고 모두 사와서, 먹는 가운데 어떻게 해서 밥해서 주려고, 반찬이영 막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보니까 아이는 어떻게 해서, 그때 '체시'났는지 데어서, 데어서. 그땐 약도 없었지.)

102012 @ 아, 뜨거운 물에마씸?(아, 뜨거운 물에요?)

102012 #3 응.(응.)

102012 @ 아, 물 엎어불엇구나.(아, 물 엎어버렸구나.)

102012 #3 반찬 영 헹 놓는디 응. 상알르레 논디, 어떵허난 그 고냥에사 들어가신디.(반찬 이렇게 해서 놓는데 응. 상알에 놨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고망에 들어갔는지.)

102012 @ 아.(아.)

102012 #3 돌아뎅길 때지.(돌아다닐 때지.)

102012 @ 아이고, 아이가 막 돌아뎅길 때라부난예?(아이고, 아이가 막 돌아다닐 때여서요?)

102012 #3 응, 그땐 약도 엇어 엿날에난, 아주 엿날에나넨게.(응, 그땐 약도 없어 옛날이니까, 아주 옛날이니까.)

102012 @ 아이고, 잘도 속상헤시켜예?(아이고, 잘도 속상했겠네요?)

102012 #3 약 어시난에게, 이제시민 그까짓 거 살지마는 약이 어신 때라.(약 없으니까, 이제였으면 그까짓 거 살지만 약이 없는 때라.)

102012 @ 게민 그다음에는 아이를 또 언제 낫수과?(그러면 그다음에는 아이를 또 언제 낳습니까?)

---

26) '체시'는 저승사자(使者)를 말한다.

102012 #3 언제사 나신지 그거 기억혜점서?(언제야 낳는지 그거 기억해지나?)

102012 @ 게난 그 딸아이가 다쳐 사고 나서 죽어버렷잖아예? 그다음에 아들 난 거우꽈?(그러니까 그 딸아이가 다쳐 사고 나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다음에 아들 난 겁니까?)

102012 #3 응.(응.)

102012 @ 아니면 그때 이미 작은 애기가 이섯수과?(아니면 그때 이미 작은 애기가 있었습니까?)

102012 #3 아들 나긴 낫주게.(아들 나긴 낳지.)

102012 @ 그다음에마씨?(그다음에요?)

102012 #3 응, 아들도 낫단에 흔 쑤무남은 뒈난에, 돈도 엇고 공부도 ᄒᆞ구적 허고, 학교도 허지 못허곡 허난 지냥으로 아판에 죽어빗주게.(응, 아들도 낳다가 한 스무 살 되니까, 돈도 없고 공부도 하고 싶기도 하고 학교도 하지 못하고 하니까 자기대로 아파서 죽어버렸지.)

102012 @ 아이고, 잘도 속상헤시쿠다예?(아이고, 잘도 속상하셨겠네요?)

102012 #3 응.(응.)

102012 @ 속상헤시쿠다예? 그면은 그때 아들아이 날 때는 선생님은 살아계실 때? 아니믄 돌아가실 때마씨?(속상하셨겠네요. 그러면 그때 아들아이 날 때는 선생님은 살아계실 때? 아니면 돌아가실 땝니까?)

102012 #3 산 때주게.(산 때지.)

102012 @ 산 때 나긴 낫수과?(산 때 낳기는 낳습니까?)

102012 #3 응.(응.)

102012 @ 게민 물애기 때 돌아가셧수과?(그러면 갓난아이 때 돌아가셨습니까?)

102012 #3 흔 서너 설에.(한 서너 살에.)

102012 @ 서너 설에?(서너 살에?)

102012 #3 두 술 아니문 세 술일 거라. 자글자글 걸을 때난에.(두 살 아니면 세 살일 거라. 자글자글 걸을 때니까.)

102012 @ 걸을 때? 아이고.(걸을 때? 아이고.)

102012 #3 응, 걸을 때난에. 두 술 쯤 세 술.(응, 걸을 때니까. 두 살 쯤 세 살.)

102012 @ 아이고, 그 두린 거 네부러동 떠나젠 허난 잘도 속상헤시키여예?(아이고, 그 어린 거 내버려두고 떠나려 하니까 잘도 속상하셨겠네요?)

102012 #3 나 어디 간 오란 보난에 막 감지 놀 때랑게.(나 어디 갔다가 와보니까 막 고구마 놀 때던데.)

102012 @ 예.(예.)

102012 #3 오월 달에.(오월 달에.)

102012 #3 오월 달인가 유월 달에. 감지 노난에 에비 아덜이 놀단, 놀렌 헤동간 보난 오란 보난 ᄃᆞ라가부난.(오월 달인가 유월 달에. 고구마 놓으려니까 에비 아들이 놀다가, 놀라고 해놓고 가서 보니까 와서 보니까 데려가 버리니까.)

102012 @ 애긴 혼자 여기 잇고?(애긴 혼자 여기 있고?)

102012 #3 애기 어디 머처돈.(애기 어디 맡겨놓고.)

102012 @ 머처돈에?(맡겨놓고?)

102012 #3 씨집이 시난.(시집이 있으니까.)

102012 @ 게난 마지막 얼굴, 말도 못헤봣구나예?(그러니깐 마지막 얼굴, 말도 못해봤군요?)

102012 #3 말도 안 헤봣주게, 기자.(말도 안 해봤지, 그저.)

102012 @ 바로 그날로 저기 베 테웡 가부러신가마씨?(바로 그날로 저기 배 태워서 가버렸을까요?)

102012 #3 아니 갓다네 오란, 아무 쥐도 어신 걸로 헨에, 어디 간에 혼 멧 달 살당 오란 이.(아니 갔다가 왔어, 아무 죄도 없는 걸로 해서, 어디 가서 한 몇 달 살다가 와서.)

102012 @ 예.(예.)

102012 #3 오란에 이디 사노렌 허난, 막 하간듸 막 이레 전쟁 일어나가난게.(와서 여기 사노라고 하니까, 막 여기저기 여러 곳에 막 여기에 전쟁 일어나가니까.)

102012 @ 예.(예.)

102012 #3 그때는 ᄃᆞ라 간 거주게. 다 경헌 사람들이주.(그때는 데려 간 거지. 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지.)

102012 @ 음.

102012 #3 우리광 ᄀᆞ찌 간 사름[27]은 아무 쥐도 엇이 간 살단 오란, 이 집 지성 살단.(우리하고 같이 간 사람은 아무 죄도 없이 간 살다가 온, 이 집 지어서 살다가.)

102012 @ 예.(예.)

102012 #3 사노렌 ᄒᆞ난.(사노라고 하니까.)

102012 @ 예.(예.)

102012 #3 사노렌 ᄒᆞ난 막 ᄉᆞ뭇.(사노라고 하니까 막 사뭇.)

102006 @ 아, 한국 전쟁 때마씨? 육이오전쟁 때?(아, 한국 전쟁 때요? 육이오전쟁 때?)

102006 #3 응? 한국게, 이게.(응? 한국, 이것이.)

102006 @ 육이오전쟁 때예?(육이오전쟁 때요?)

102016 #3 응.(응.)

102016 @ 경헷구나게. 아이고, 그다음엔 경헹 어떵헹 삽디가?(그랬구나. 아이고, 그다음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살았나요?)

102006 #3 어떵헹 살아게. 그럭저럭 헹 살앗주게, 하하하하.(어떻게 해서 살아. 그럭저럭 해서 살았지, 하하하하.)

102006 @ 맞수다게.(맞습니다.)

---

27) '우리광 ᄀᆞ찌 간 사름'은 우리하고 같이 간사람 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화자의 남편을 말한다.

102006 #3 그럭저럭 헹 이제도록 살앗주게.(그럭저럭 해서 이제껏 살았지.)

102006 @ 이제도록 살앗지예? 경허니까예?(이제껏 살았지요? 그러니까요?)

102006 #3 그때사 무시거 줴 신 사름 무신 사름 헤서게? 아무, 춤, 무신거 원, 학교뎅기는 나도 원 눈치도 나타나지 아녀곡, 원 판찍 헌 사름. 온 볼목리 흔 사름 그 ᄒᆞ는, 하효 사름덜토 이 사름광 동창이나 벗이나 헌 건 원 경ᄒᆞ난 심어 간.(그때야 뭐 죄 있는 사람 무슨 사람 했어? 아무, 참, 무슨 원, 학교 다니는 나도 원, 눈치도 나타나지 안하고 원, 전혀 한 사람. 온 보목리 한 사람 그 하는, 하효 사람들도 이 사람과 동창이나 벗이나 한 건 원, 그러니까 잡아간.)

102006 @ 심어간에, 다?(잡아가서, 다?)

102006 #3 응, 니네 벗은 누게넨 ᄒᆞ난, ᄒᆞ므로 이치가 경 헌 거주게.(응, 너의 벗은 누구냐고 하니, 하므로 이치가 그렇게 한 거지.)

102006 @ 맞수다예. 진짜 옛날엔. 그때난, 게난 경찰들이 데려갓수과 군인들이 데려갓수과, 아니믄 서청들이 데려갓수과?(맞습니다. 진짜 옛날엔. 그때여서, 그러니까 경찰들이 데려갔습니까? 군인들이 데려갔습니까? 아니면 서청들이 데려 갔습니까?)

102006 #3 겡찰사 겡찰덜이 데려가지 안헤서게? 나사 봐서게? 심어가는 거.(경찰이야 경찰들이 데려가지 안했나? 나야 봤나? 잡아가는 거.)

102006 @ 동네사람들이 뭐렌 ᄀᆞᆯ아주지 않읍디가?(동네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주지 않았나요?)

102006 #3 동네사름덜이 뭐 경 쉽게시리 여의 쉽게 ᄃᆞ라가느냐게? ᄀᆞ만잇다근에 오랏당은에 그런 사름덜 어떵사 헤신지 난 일허레 가부난 뭐 몰르주.(동네사람들이 뭐 경 쉽게끔 여히 쉽게 데려가겠니? 가만있다가 왔다가 그런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난 일하러 가버려서 뭐 모르지.)

102009 @ 그때 당시에는 게믄 시집갈 때, 지난번에 말씀혜 줫잖아예? 이불 두 채 헹 왓덴예?(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시집갈 때, 지난번에 말씀해 줬잖아요? 이불 두 채 해서 왔다고요?

102009 #3 응, 나가 볼목리서 두 채 헹 강.(응, 나가 보목리서 두 채 해서 갔지.)

102009 @ 이불 말고 다른 거 헌 건 엇엇수과?(이불 말고 다른 거 한 건 없었습니까?)

102009 #3 다른 것들사 그때 엿날이난게 무시거 헹가게?(다른 것들이야 그때 옛날이니까 뭘 해서 가?)

102009 @ 맞수다예.(맞습니다.)

102009 #3 이불벳긘. 이불 더끌 것들벳긘.(이불밖에. 이불 덮을 것들밖에.)

102012 @ 경허면 아이고, 선생도 돌아가시고 아들하나 키우면서 뭘 헤근에 먹고 살앗수과?(그러면 아이고, 선생도 돌아가시고 아들하나 키우면서 뭘 해서 먹고 살았습니까?)

102012 #3 뭘 먹고 살아서게, 일도 ᄒᆞ곡 기자 바당에두 물질두 잇당 ᄒᆞ곡, 헤근엥 물질은 잘 크겐 못허주게. 경허멍 어떵어떵 살다보난 이거매기주.(뭘 먹고 살아, 일도 하고 그저 바다에도 물질도 있다가 하고, 해서 물질은 잘 크겐 못하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어떻게 살다보니까 이거뿐이지)

102016 @ 물에 몇 살까지 물에 들어집디가? 물에 든 건?(물에 몇 살까지 물에 들었나요? 물에 든 건?)

102016 #3 ᄒᆞᆫ 칠십ᄁᆞ지 들어저실 거라게.(한 칠십까지 들어졌을 거야.)

102016 @ 아.(아.)

102016 #3 칠십 멧 ᄁᆞ지.(칠십 몇 까지.)

102016 @ 음. 아이고, 알앗수다. 일단 그런 게 중요혜가지고예?(음. 아이고, 알았습니다. 일단 그런 게 중요해가지고요?)

102016 #3 하하하.(하하하.)

102016 @ 웨냐면 볼목리에서 계속 살면서 사람들하고 어떻게 살앗는지, 살면서 우리 제줏말은 어떻게 썻는지 이런 것들이 진짜 알고 싶엇거든마씨?(왜냐면 보목리에서 계속 살면서 사람들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살면서 우리 제줏말은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것들이 진짜 알고 싶었거든요?)

102016 #3 이런 건 말 담는 거라?(이런 건 말 담는 거라?)

102016 @ 예. 말 담는 거마씨.(예. 말 담는 거요.)

102016 #3 문 담앗구나.(모두 담았구나.)

102016 @ 예.(예.)

102016 #3 곧싸 ᄀᆞᆯ은 거? 그런 건 곧지 말걸.(금방 말한 거? 그런 건 말하지 말걸.)

102016 @ 무사 담아시냐허면예? 집에 강 글을 쓰젠 허면 저가 잊어버리잖아예?(왜 담았느냐면 요? 집에 가서 글을 쓰려고 하면 저가 잊어버리잖아요?)

102016 #3 어.(어.)

102016 @ 이걸 들으멍 글 써야 헐 거부난.(이걸 들으면서 글 써야 할 거여서.)

102016 #3 잘못 곤 거사 빠불동 허주.(잘못 말한 거야 빼버리고 하지.)

102016 @ 예게. 경 헙니다게.(예. 그렇게 합니다.)

102016 #3 잘못 ᄀᆞᆯ은 건. 잘 써사.(잘못 말한 건. 잘 써야.)

2. 제보자 일생(@: 최연미 #2: 김금전)

102002 @ 언제 태어나고예?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사람들이엇수과?(언제 태어나고요?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102002 #2 아버지는 본 고향이 공천폰[28]디.(아버지는 본 고향이 '공천폰'데.)

102002 @ 예.(예.)

102002 #2 거기 살면서 해녀들을 물질 시키젠 육지로 모집헤근에 물질 다닌 디, 우리 어머니가 큰 어멍 이신디, 나 ᄒᆞ나 난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닐 너믜 뭐 헨에, 첨 육지 강 살멍.(거기 살면서 해녀들을 물질시키려고 육지로 모집해서 물질 다녔는데, 우리 어머니가 큰어머니 있는데 나 하나 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닐 너무 뭐해서 첨, 육지 가서 살면서.)

102002 @ 예.(예.)

102002 #2 나 ᄒᆞ나 저 뭐 헨 네부난, 이디 웨할머니영 살멍.(나 하나 저 뭐 해서 내버리니까, 여기 외할머니하고 살면서.)

102002 @ 예.(예.)

102002 #2 세 살로부터 열 네 살 까지 학교도 못 다니고.(세 살로부터 열 네 살까지 학교도 못 다니고.)

102002 @ 예.

102002 #1 아이고, 울어점저. 외할머니영 살멍.(아이고, 울어지네. 외할머니하고 살면서.)

102002 @ 예.(예.)

102002 #2 이모네 여기서 농사하단. 서귀포 나갈 때 이모가 가치 나간에 그때는 이모부가 옛날 ᄂᆞ물씨 장사.(이모네 여기서 농사하다가. 서귀포 나갈 때 이모가 같이 나가서 그때는 이모부가 옛날 나물씨 장사.)

102002 @ 음.

102002 #2 그 거 하면서 육지로 가니까, 아버지가 대전에 가서 종묘사를 허니까, 이젠 거기 길을 알아가지고 저 애기 아부지도 ᄒᆞᆫ 번 ᄂᆞ물씨를 헨, 우리 친정아버지한틔 보네수다게.(그 거 하면서 육지로 가니까, 아버지가 대전에 가서 종묘사를 하니까, 이젠 거기 길을 알아가지고 저 애기 아버지도 한 번 나물씨를 해서, 우리 친정아버지한테 보냈습니다.)

102002 @ 음.

102002 #1 게 보네난 그 ᄂᆞ물씨 값도 못 받고.(그래, 보내니까 그 나물씨 값도 못 받고.)

102002 @ 음.(음.)

102002 #2 아부지가 풀아네 안 줜. 게난, 이젠 결혼 헐 때도 아버진 아뇨고, 큰어멍에 오빠가 첨, 와네. 이 외할머니네 집에서 결혼 허니까, 이모도 도와주고, 오라방도 큰어멍도 이서네 도와주고 헨에, 큰어멍네 이불 ᄒᆞᆫ 채 헤주고.(아버지가 팔아서 안 주언. 그러니, 이젠 결혼 할 때도 아버진 안오고, 큰어머니의 오빠가 첨, 와서. 이 외할머니네 집에서 결혼 하니까, 이모도 도와주고, 오라버니도 큰어머니도 있어서 도와주고 해서, 큰어머니네 이불 한 채 해주고.)

102002 @ 음.(음.)

---

28) '공천포'는 남원읍 '신례2리'를 말한다.

102002 #1 할머니도 흔 채 헤주고, 이불 두 채 그땐 헷주마는, 어젠 흔 채로 헨 어젠 사진 찍어 갓구나양? 게난?(할머니도 한 채 해주고, 이불 두 채 그땐 했지만, 어젠 한 채로 해서 어젠 사진 찍어 갔군요? 그러니까?)

102002 @ 이불은 못 찍고예.(이불은 못 찍고요.)

102002 #2 응.(응.)

102002 @ 이불은 어디신지 몰란 궤만 찍엉 가수다.(이불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궤만 찍어서 갔습니다.)

102002 #2 이불도 그 밖그레 그 단수에 기냥 솜이불이난 다시 태완에 만들어단 단수에 그냥 잇주게.(이불도 그 바깥채 그 장롱에 그냥 솜이불이이니까 다시 태워 만들어다가 장롱에 그냥 있지.)

102002 @ 아, 거 잇수과? 나중엔 다시 한 번 찍게예.(아, 거 있습니까? 나중엔 다시 한 번 찍게요.)

102001 #2 게난에 그런 정도로 생활 허단에 열으슷 술 때 우리 이모부가 부산에 가서 고무신, 고무신을, 이제는 ᄀᆞ만이 아장 불르민 오는디, 그땐 본인이 가근에.(그러니 그런 정도로 생활 하다가 열여섯 살 때 우리 이모부가 부산에 가서 고무신, 고무신을,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부르면 오는데, 그땐 본인이 가서.)

102002 @ 예.(예.)

102002 #2 몬수를 차근차근 멧 문짜리 멧 문짜리, 이제는 뭐 미리로 나오주마는, 그 땐 백오십오 몽 백칠십 몽, 그런 식으로 나오난, 그걸 가근에 몽도 제대로 안헹 그자 무조건 가마수에 담앙 오민, 서귀포 판자집이서.(신발치수를 차근차근 몇 치수짜리 몇 치수짜리, 이제는 뭐 미리로 나오지만, 그 땐 백오십오 치수 백칠십 치수,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걸 가서 치수도 제대로 안 해서 그저 무조건 가마니에 담아서 오면, 서귀포 판잣집에서.)

102002 @ 음.(음.)

102002 #2 낮에는 여기 왕 밧농사 허곡, 열으슷 술 때부터 밤에는 강 촛불 켜근에, 전기도 어신 판자창고 요메니 헌 디서,(낮에는 여기 와서 밭농사 하고, 열여섯 살 때부터 밤에는 강 촛불 켜서, 전기도 없는 판자창고 요만큼 한 데서.)

102002 @ 음.(음.)

102002 #2 겨민 그걸 진열도 못헹 가마수, 온통 열 가마수 이상 갖다 놓민, 멧 문 도렌허민 그걸 가마수에 걸 다 꺼네봐사 어느 문수가 이 가마수에 들어신가? 헤영, 그 거 풀멍 헨에, 열아홉 술 뒈난에, 나냥으로 이모부 부산 고무신 떼레 안 가도, 나냥으로 부산도 멧 번 가 오고.(그러면 그걸 진열도 못해서 가마니, 온통 열 가마니 이상 갖다 놓으면, 몇 치수 달라고 하면 그걸 가마니에 걸 다 꺼내봐야 어느 치수가 이 가마니에 들었는가? 해서, 그 거 팔면서 해서, 열아홉 살 되니까, 나대로 이모부 부산 고무신 떼러 안 가도, 나대로 부산도 몇 번 가 오고.)

102002 @ 음.(음.)

102002 #2 고무신 그 서면 쪽에 고무신공장 이시난 그디 가 오고, 또 그 고무신

풀멍 서귀포 장날 허고, 남원 중문 장날은 ᄀᆞ튼 날이고, 서귀포는 틀린 날이난, 남원일 나가 가민 이모분 중문이 가고, 나가 중문이 가민 이모부가 남원이 가고.

경헨 강 고무신을 풀민, 이모분 강 막걸리 먹당 보민 고무신 수입을 못 방 오고, 나는 얼마 풀앙 오민.

이모부는 참 좋은 어른이라수다. 다 돌아가 부러수다마는. 이거 영 헤근에 조케가 하영 풀아 와시난 멧 할 돈 떼영, 이제추룩 적금 통장 잇고 양, 어디 저금 허는 디 이시민, 나 돈 하영 모얏주마는. 기자, 나 무사 거 아심니깡 허영, 기냥 ᄀᆞ찌 허곡, 돈 계산도 나대로 다 허곡, 부산 갈 때도 나대로 돈 얼마 챙경 가곡 허멍 헨에.

이젠 혼 스물두 설은 나난에, 이제 공천포 우리 오라방이이 이섯수다. 그 오라방이 이제 시집 가렌 허멍, 이젠 열아홉살 나사 오라방네도 날 춪아 와십디다게. 아버지안틔 들어네, 이제, 볼목리 이만저만헨, 누이동생 잇젠, 춪아 가보렌 헨, 우리 오라방네도 아덜만 큰어멍넨 아덜만 네 개난.(고무신 그 서면 쪽에 고무신공장 있으니까 거기 가 오고, 또 그 고무신 팔면서 서귀포 장날 하고, 남원 중문 장날은 같은 날이고, 서귀포는 틀린 날이니까, 남원엘 나가 가면 이모분 중문에 가고, 나가 중문에 가면 이모부가 남원에 가고.

그렇게 해서 가서 고무신을 팔면, 이모분 가서 막걸리 먹다가 보면 고무신 수입을 못 봐서 오고, 나는 얼마 팔아서 오면.

이모부는 참 좋은 어른이었습니다.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만. 이거 이렇게 해서 조카가 하영 팔아 왔으니까 몇 할 돈 떼서, 지금처럼 적금 통장 있고요, 어디 저금 하는 곳 있으면, 나 돈 많이 모았겠지만. 그저, 나 왜 거 가집니까? 하면서, 그냥 같이 하고, 돈 계산도 나대로 다 하고, 부산 갈 때도 나대로 돈 얼마 챙겨 가고 하면서 했네.

이젠 한 스물두 살은 나니까, 이제 공천포 우리 오라버니 있었습니다. 그 오라버니 이제 시집가라고 하면서, 이젠 열아홉 살 나야 오라버니 네도 날 찾아 왔더라고요. 아버지에게 들어서. 이제, 보목리 이만저만해서, 누이동생 있다고, 찾아 가보라고 해서, 우리 오라버니 네도 아들만 큰어머니 네는 아들만 넷이니까.)

102002 @ 음.(음.)

102002 #2 뚤이 어시난에 나 춪아 온거라마씀.(딸이 없으니까 나 찾아 온 거에요.)

102002 @ 예.(예.)

102002 #2 경헨에, 허난 나 그때 열아홉 뒈사 나 춪아 와시난, 나가 남저라시민, 학교도 못 가고 군대 갈 정도민, 호도 엇어낫수다. 경ᄒᆞ난에, 호는 그때 물질 간 때에 ᄀᆞ찌, 저 토산 어른 김 씨난에, 그 알로 기자 호적을 올련에 이서난ᄀᆞ라.(그렇게 해서, 하니까 나 그때 열아홉 되어야 나 찾아 왔으니까, 나가 남자라면, 학교도 못 가고 군대 갈 정도면, 호도 엇어낫수다. 그렇게 하니까, 호는 그때 물질 간 때에 같이, 저 토산 어른 김 씨니까, 그 아래로 그저 호적을 올려 있었는지.)

102002 @ 음.(음.)

102002 #2 어머니 돌아가부난 이젠 그디서가, 그 집안은 뚤만 이신 집이난, 그 집안 환경이 또 양제 둘젠 허난에, 나가 호적에 잇어부난, 호적을 이제 떼여 가렌 헨에, 이제 볼목리 촛아 와시난, 나 쑤물세 설 넘언에 흔 쑤물다섯도 넘은 때에, 경 허난, 난 호적 어시난에, 첨, 이 아방[29]이영 결혼헨에, 큰 아이 나난에 양, 올리젠 허난에 호 어시난 호를 기냥 호를 만들어 놔비십주게.(어머니 돌아가 버리니까 이젠 거기서가, 그 집안은 딸만 있는 집이니까, 그 집안 환경이 또 양제 데리려 하니까, 나가 호적에 있어버려서, 호적을 이제 떼어 가라고 해서, 이제 보목리 찾아 왔기에, 나 스물세 살 넘어서 한 스물다섯도 넘은 때에, 그러니까 난 호적 없으니까, 참, 이 '아버지'하고 결혼해서, 큰 아이 나니까요, 올리려 하니까 호 없으니까 호를 그냥 호를 만들어 내버렸습지요.)

102007 @ 멧 살 때 결혼 헷수과?(몇 살 때 결혼 했습니까?)

102007 #2 쑤물세 설 때.(스물세 살 때.)

102012 @ 큰 아인 멧 살 때 난마씸?(큰 아인 몇 살 때 낳았나요?)

102001 #2 쑤물세 설에 난에. 게난, 그 땐 헐 수 엇이, 난 호, 남저라시민 벵력도 뭐헐꺼고, 무신 소리 헴시닌 헨에, 그 호 관계로 헨에, 토산서 와시난 막 싸와 낫수다게.(스물세 살에 낳아서. 그러니, 그 땐 할 수 없이, 난 호, 남자였으면 병력도 뭐할 거고, 무슨 소리 하느냐 해서, 그 호 관계로 해서, 토산서 왔으니까 막 싸워 났습니다.)

102001 @ 예.(예.)

102001 #2 경헨에 이젠 헌디, 그 볼목리 뚤 잇젠 아버지한틔 들은 그 나, 촛이레 온 그 오라방도 막 젊은 때 돌아가불고.(그렇게 해서 이젠 했는데, 그 보목리 딸 있다고 아버지에게 들은 그, 나 찾으러 온 그 오라버니도 막 젊은 때 돌아가 버리고.)

102001 음.(음.)

102001 #2 암으로 또 그때 경헨 허난, 나만 그자 웨롭게시리 오라방덜 이서도 일본도 살고 공천포도 살멍 서울도 살고 헤도 뭐헨에 헌디. 그자 그럭저럭 허단 이디서 시집은 경헨 가난, 씨어머니허고 우리 큰어멍[30]이 애기가 어십디다게. 큰 동세.(암으로. 또 그때 그렇게 해서 하니까, 나만 그저 외롭게 오라버니들이 있어도 일본도 살고 공천포도 살면서 서울도 살고 해도 뭐해서 했는데. 그저 그럭저럭 하다가 여기서 시집은 그렇게 해서 가니까, 시어머니하고 우리 '큰어머니' 애기가 없었어요. 큰 동서.)

102001 @ 음.(음.)

102001 #2 원, 아덜은 이디 집이 아방[31]허고 아주버니 허고 둘이 뿐인디, 애기엇이난 그 어른이 이젠, 서울 장교로 육사 나완에 장교로 이시멍 기자 이디 어머니영 아버지영 모셩살라 허는 식으로 헨, 이디서 모셩 사난에. 걸름 밧 헐 때도 나가

29) '아방'은 아버지를 말한다. 여기서는 화자의 남편을 칭한다.
30) '큰어멍'은 '어멍'은 어머니를 말한다. 여기서 '큰어멍'은 손 위 동서를 말한다.
31) '아방'은 아버지를 말한다. 여기서는 화자의 남편을 칭한다.

들어사, 씨집은 간보난에 밧은 이서도 농사 허젱도 아녀곡, 기자 씨누이덜 두 개 이십디다. 씨집 안 간 시누이 두 개 이시난, 그 씨누이 이젠 ᄒᆞ민, 걸름 밧 허젠ᄒᆞ민 새벡이 일어낭, 도통에 도새기 질왕, 그 걸름 내영, 새벡이. 보리씨 헤영, 보리 갈젠ᄒᆞ민 그 보리씨를 걸름 우이 막 삐영 불려마씀.(원, 아들은 여기 집의 아버지하고 아주버니하고 둘 뿐인데, 애기 없어서 그 어른이 이제는, 서울 장교로 육사 나와서 장교로 있으면서 그저 여기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모셔서 살라하는 식으로 해서, 여기서 모시고 사니까. 거름 밭 할 때도 나가 들어야, 시집은 가서보니까 밭은 있어도 농사 하려고도 안하고, 그저 시누이들 두 개 있습디다. 시집 안 간 시누이 두 개 있으니까, 그 시누이 이제는 하면, 거름 밭 하려고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돼지우리에 돼지 키워서, 그 거름 내어서, 새벽에. 보리씨 해서, 보리 갈려하면 그 보리씨를 거름 위에 막 뿌려서 밟지요.)

102001 @ 예.(예.)

102001 #2 땅에 걸름 떠다놩, 게민 저 아방[32]은 ᄀᆞ찌 헤줘도 씨누이덜은 원 그런 걸 생각을 안 헹ᄒᆞ민, 우리 씨어머니가 성질이 바빵양, 막 무시거허멍 헤도 씨어머니한티 구중 ᄒᆞᆫ 번 안 들어봣수다.

큰어멍은 첨, 애기 못나난에 경, 애기 못나는 거엔 꾸중 들언에 ᄉᆞ뭇 무신거엔 헤낫수다마는.(땅에 거름 떠다놔서, 그러면 저 '아버지'는 같이 해줘도 시누이들은 원 그런 걸 생각을 안 해서하면, 우리 시어머니가 성질이 바빠요, 막 뭐하면서 해도 시어머니에게 꾸중 한 번 안 들어봤습니다.

큰어머니는 첨, 애기 못나니까 그렇게, 애기 못 나는 거라고 꾸중 들어서 사뭇 뭐라고 했습니다만.)

102001 @ 예.(예.)

102001 #1 영 그럭저럭 헨 살멍 그자 아방 첨, 처음 연애 헐 땐 원, 사름이 닮아 붸나 안 닮아 붸나 말이 어십니다게. 경허민 이 제주벵사구에 이서근에, 군인 첨, 휴가 와근에, 여름에 쯤은 저녁 때 왓당 아침 갈 때는, 난 또, 아침은 이제 아방이 휴가 와근에 ᄒᆞ루라도 시에레 넘어 가젠 걸엉 다닐 때우다게, 욜로 묵은 길.(이렇게 그럭저럭 해서 살면서 그저 '아버지' 참, 처음 연애 할 땐 원, 사람이 닮아 보이나 안 닮아 보이나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제주병사부대에 있어서, 군인 첨, 휴가 와서, 여름에 쯤은 저녁 때 왔다가 아침 갈 때는, 난 또, 아침은 이제 '아버지'가 휴가 와서 하루라도 시로 넘어 가려고 걸어서 다닐 땝니다, 요리로 묵은 길.)

102001 @ 맞수다.(맞수다.)

102001 #2 걸엉 다닐 때난, 걸어근에 저레 넘어 가곡, 난 또 고무신 밤이 강 풀아근에 이레 왕 이모네 밧농사, 밧농사 ᄀᆞ찌 허젠, 이젠 또 저 이레 걸엉 오곡 허민, 경헤도 말 ᄒᆞᆫ마디 안허곡 기자. 무신 전화가 잇수과 무시거가 잇수과?

강, 이제 또 다음 주에 경 만나민 기자, 밤이 인칙이나 헤영 만나지민 ᄒᆞ쏠 아장 말도 ᄀᆞᆫ곡 놀곡 양. 경허멍 어떵어떵 ᄎᆞᆷ, 이루어전에, 결혼은 헤집디다마는, 그런식

32) '아방'은 아버지를 말한다. 여기서는 화자의 남편을 칭한다.

으로 츰 나 산 거.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 이서시민 나가 공부라도 헐 뭔디, 이 보목국민학교 그 땐 국민학교렌 허지 안헷수과?(걸어서 다닐 때니까, 걸어서 저쪽으로 넘어 가고, 난 또 고무신 밤에 가서 팔아서 이쪽으로 와서 이모네 밭농사, 밭농사 같이 하려고, 이제는 또 저 이쪽으로 걸어오고 하면, 그렇게 해도 말 한마디 안하고 그저. 무슨 전화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가서, 이제 또 다음 주에 그렇게 만나면 그저, 밤이 일찍이 해서 만나지면 조금 앉아서 말도 말하고 놀고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어떻게 참, 이루어져서, 결혼은 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참, 나 산 거.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 있었으면 나가 공부라도 할 뭔데, 이 보목국민학교 그 땐 국민학교라고 하지 안했습니까?)

102001 @ 예, 예게.(예, 예.)

102001 #2 보목국민학교엔 헨에 바로 이 터우다. 우리 서녁밧디. 그디 헐 때에 이디 ᄒᆞ민, 이모네 애길 나민 이제 애길 업어근에 학굘 갑주게 나가, 이제 웨할무니넨 이디고, 웨할무니네 집에 살멍. 이모네 이제 애기 나근에 허민 이디 업엉 가민, 담임은 이제 저 강읍장, 00읍장이라수다. 엿날에.(보목국민학교엔 해서 바로 이 터입니다. 우리 서녘 밭. 그 곳 할 때에 여기 하면, 이모네 애길 나면 이제 애길 업어서 학굘 가지요 나가, 이제 외할머니 네는 여기고, 외할머니네 집에 살면서. 이모네 이제 애기나면 여기 업어서 가면, 담임은 이제 저 강읍장, 00읍장이었습니다. 옛날에.)

102001 @ 음.(음.)

102001 #2 그 어른이 허민 날ᄀᆞ라 '애기 집에 들여 놔ᄃᆞᆼ 와!' 허민 양? 모수왕기냥 와불고, ᄒᆞᆫ 번은 또 애기 업엉 갓다네, 하도 가렌 헤가관데 애기 울지 아녀민 나 공부 ᄒᆞ끔 허쿠덴 영 헤연 책 봐가난 책 확 빼여돈 '집이 가!' 허난 완에양.(그 어른이 하면 날보고 '애기 집에 들여 놔두고 와!' 하면요? 무서워 그냥 와버리고, 한 번은 또 애기 업어서 갔다가, 하도 가라고 해가니까 '애기 울지 않으면 나 공부 조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 봐가니까 책 확 빼고는 '집에 가!' 하니까 왔어요.)

102001 @ 무사 경헤신고예?(왜 그렇게 했을까요?)

102001 #2 애기 ᄃᆞᆯ앙 갓젠마씸게. 다른 학생들안틔 이제 다른 뭐를 모범 베와주지 말렌 허멍, 기추룩 헨에 이젠 학교도 못 다니고 헤언에 첨 허는디 피난민덜 온 때에 제일 먼저 첨, 오십일 년도에양. 피난민덜 오난에 저 밑에 이제 묵은 교회 이서수다. 우리 손으로 짓언에.(애기 데려서 갔다고요. 다른 학생들에게 이제 다른 뭐를 모범 배워주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학교도 못 다니고 해서 참, 하는데 피난민들 온 때에 제일 먼저 참, 오십일 년도에요. 피난민들 오니까 저 밑에 이제 묵은 교회 있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지었어.)

102001 @ 음.(음.)

102001 #2 ᄒᆞ단에 이레 첨 뭐헌디, 이거 교회 뭐헌지도 육십사 년이우다게. 올리ᄁᆞ지 ᄒᆞ민 육십사 년 됏수다게. 게난 그 육십사 년 동안 기자 뭐 허젠, 교회 막

다니젠 허난, 다니멍 헌디, 그 교회를 짓언에 어떵어떵 허는 것이 첨, 교회도 나가지고, 경헨 저 아방도 교회도 막 다니단에, 군대 갓다 오난 안 다닙디다게.

군대 갓다 와네 ᄒᆞ낌 다니단, 나영 결혼 허난, 할망네가 큰메누리 서울 이시난, 우리ᄀᆞ라 식개 멩질 허렌 허멍 양, 헤가난 나 자신도 양, 교회 다니멍 시부모 허는 거 거절허지 못헨에, 기냥 식게 멩질 허멍 첨, 이때 꼬지 살멍 헤언에 헷수다만은.

책을 멘들젠 허민 나가 조근조근 다 ᄀᆞᆯ아사 책을 멘들건 디, 아피 헌 것도 ᄀᆞᆫ곡 뒤에 헌 것도 ᄀᆞᆫ곡 헤점수다.(하다가 이쪽으로 첨, 뭐한데, 이거 교회 뭐한지도 육십사 년 입니다. 올해까지 하면 육십사 년 됐습니다. 그러니 그 육십사 년 동안 그 저 뭐 하려고, 교회 막 다니려고 하니까, 다니면서 하는데, 그 교회를 지어서 어떻게어떻게 하는 것이 첨, 교회도 다녀지고, 그렇게 해서 저 애기아버지도 교회도 막 다니다가, 군대 갔다 오니까 안 다니더군요.

군대 갔다 와서 조금 다니다가, 나하고 결혼 하니까, 할머니 네가 큰며느리 서울 있으니까, 우리에게 제사 명절 하라고 하면서요, 해가니까 나 자신도요, 교회 다니면서 시부모 하는 거 거절하지 못해서, 그냥 제사 명절 하면서 첨, 이때 까지 살면서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책을 만들려고 하면 나가 조곤조곤 다 말해야 책을 만들 건데, 앞에 헌 것도 말하고 뒤에 한 것도 말하고 해지고 있습니다.)

102013 @ 괜찮수다. 일단 경헤근에예, 그믄 시집살이 헷던 것에 대헤서는 일단 이야기를 넘어가기로 하게예.(괜찮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요, 그러면 시집살이 했던 것에 대해서는 일단 이야기를 넘어가기로 할게요.)

3. 밭일

보리농사

103002 @ 보리농사, 아까 보리를 지엇덴 헨게마는 보리농사 짓젠허민 처음에 어떤 무신걸 준비헤사 뒙디가?(보리농사, 아까 보리를 지었다고 하던데 보리농사 지으려하면 처음에 어떤 무엇을 준비해야 됐나요?)

103002 #2 보리농사 ᄒᆞ젱헹은 금년에 헌 보리를.(보리농사 하려고 하면 금년에 한 보리를.)

103002 @ 예.(예.)

103002 #2 네년에 갈젱 ᄒᆞ민.(네년에 갈려고 하면.)

103002 @ 예.(예.)

103002 #2 보리씨를 밧이 멧 펭이민 밧이 백오십 펭이 ᄒᆞᆫ 말지기민.(보리씨를 밭이 몇 평이면 밭이 백오십 평이 한 마지기면.)

103002 @ 예.(예.)

103002 #2 ᄒᆞᆫ 말지기에 보리씨를 얼마 놔두느냐.(한 마지기에 보리씨를 얼마 놔

두느냐.)

103002 @ 예.(예.)

103002 #2 이런 식으로 신경 써근에 보리씨를 흔말지기에 멧 말 드는 거, 이런 식으로 허민, 백오십 펭이민 흔 말지기난, 흔 말지기엔 ᄒᆞ민 보리씨도 흔 말 겨민, 새벡이 그 돗걸름을 연날 돗통, 도새기 질루는 디, 그걸 많이 헤근에, 바당에 가근에 ᄆᆞᆯ망도 헤다 놓고.(이런 식으로 신경 써서 보리씨를 한 마지기에 몇 말 드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 백오십 평이면 한 마지기니까, 한 마지기라고 하면 보리씨도 한 말 그러면, 새벽에 그 돼지거름을 옛날 돼지우리, 돼지 기르는 데, 그걸 많이 해서, 바다에 가서 모자반도 해다 놓고.)

103003 @ 예.(예.)

103003 #2 보리 갈아나민 그 보리낭 그걸 돗통에 담아 놓곡.(보리 갈아나면 그 보릿대 그걸 돼지우리에 담아 놓고.)

102003 @ 예.(예.)

103003 #2 바당에 강 고지기엔 헌 ᄆᆞᆯ망.(바다에 가서 고지기모자반이라고 하는 모자반.)

103003 @ 예.(예.)

103003 #2 그거 ᄌᆞ물아당 그 보리낭 우의 놔사 걸름이 하영 뒈어근에.(그거 채취 해다가 그 보릿대 위에 놔야 거름이 많이 되어서.)

103003 @ 예.(예.)

103003 #2 네년에 보리 갈 거라 ᄒᆞ민, 그 걸름을 모이젠 ᄒᆞ민, 걸름밭 ᄒᆞᆯ 때 뒈민 이제 그 걸름을 다, 소시랑 헤근에.(네년에 보리 갈 거라 하면, 그 거름을 모이려고 하면, 거름 밭 할 때 되면 이제 그 거름을 다, 쇠스랑 해서.)

103003 @ 예.(예.)

103003 #2 ᄀᆞᆯ체, 옛날 영 흔 ᄀᆞᆯ체.(삼태기, 옛날 이렇게 한 삼태기.)

103003 @ 예, 예.(예, 예.)

103003 #2 그런 거헤근에 ᄀᆞᆯ체에 담으멍, 지게에 저근에, 올레 벡긔레 펜펜헌디 문딱 저다 놩.(그런 거해서 삼태기에 담으면서, 지게에 져서, 올레 밖으로 편편한데 모두 져다 놓고.)

103003 @ 예.(예.)

103003 #2 그 우의 보리씨 삐여근에.(그 위에 보리씨 뿌려서.)

103003 @ 예.(예.)

103003 #2 또 그땐 무신 비로도 엇곡 무시거난, 보리씨 삐영, 쉐 빌어근에, 막 ᄇᆞᆯ려.(또 그땐 무슨 비료도 없고 무슨 거나, 보리씨 뿌려, 소 빌어서, 막 밟아.)

103003 @ 예.(예.)

103003 #2 ᄇᆞᆯ려근에 그 걸름을 이제 또 영 올려놔근에 막 사름으로 ᄇᆞᆯ라, 저레 밧더레 날라가젠 허민.(밟아서 그 거름을 이제 또 이렇게 올려놔서 막 사람으로 밟아, 저쪽 밭으로 날라 가려고 하면.)

103003 @ 예.(예.)

103003 #2 담지 좋게시리.(담기에 좋게끔.)

103003 @ 예.(예.)

103003 #2 그날 다 못 담앙, 오늘 걸름 네민 헹 놧돵 넬 담앙. 그땐 구루마도 엇곡, 등짐으로, 돗걸름 멩텡이엔 헤근에.(그날 다 못 담아서, 오늘 거름 내면 해서 놔두었다가 낼 담아서. 그땐 수레도 없고, 등짐으로, 돼지거름 망태기라고 해서.)

103003 @ 예.(예.)

103003 #2 요만이 헌 저, 하르방덜, 찍으로 ᄒᆞ여근에 전. 멩텡이엔 헤근에, 돗걸름 멩텡이엔 헤근에 요만헌 거 이서나서. 그런 거헹 담아근에, 밧 먼딘 쉐 헤영 구루마에 메와근에, 엿날 구루마도 그, 엿날 무신 군인덜 완 뭐 헤난, 벵정구루마엔 헤근에, 바퀴 큰 거.(요만큼 한 저, 할아버지들, 짚으로 해서 졌지. 망태기 해서, 돼지거름 망태기라고 해서 요만한 거 있어났어. 그런 거해서 담아서, 밭 먼 데는 소 해서 수레에 매달아서, 옛날 수레도 그, 연날 무슨 군인들 와서 뭐 했던, 병정수레라고 해서, 바퀴 큰 거.)

103003 @ 예.(예.)

103003 #2 구루마엔 잇어난에 그런 걸로 빌멍, 쉐 이시민 그런 것에 싯경 강, 밭이 강 또 사름으로 저네곡.(수레라고 있었는데 그런 걸로 빌면서, 소 있으면 그런 것에 실어서 가서, 밭에 가서 또 사람으로 져내곤.)

103003 @ 예.(예.)

103003 #2 구루마 못 들어가민.(수레 못 들어가면.)

103003 @ 예.(예.)

103003 #2 경허멍 헨. 첨, 보리농사도 ᄒᆞ곡, 기자 그 보리 헤어근에 갈민.(그렇게 하면서 했지. 첨, 보리농사도 하고, 그저 그 보리 해서 갈면.)

103003 @ 예.(예.)

103003 #2 겨울에 이정도로 겨울에 ᄒᆞ민, 그 뭐가 저 보리가 눈 올 때 납작허게 ᄒᆞ젠.(겨울에 이정도로 겨울에 하면, 그 뭐가 저 보리가 눈 올 때 납작하게 하려고.)

103003 @ 예.(예.)

103003 #2 볼라마씀.(밟아요.)

103003 @ 아, 아.(아, 아.)

103003 #2 포기를 ᄒᆞ끔 영영 포기 안게.(포기를 조금 이렇게이렇게 포기 차게.)

103003 @ 아.(아.)

103003 #2 보리를 이추룩 요만큼 자리민, 추운 때 땅이 푹삭헤부난.(보리를 이렇게 요만큼 자리면, 추운 때 땅이 푸석해버려서.)

103003 @ 예.(예.)

103003 #2 그 땅 눌루젠 보리 볼라주어근에 ᄒᆞ민, 보리가 잘 뒈엉.(그 땅 누르려고 보리 밟아줘서 하면, 보리가 잘 되어.)

103003 @ 예.(예.)

103003 #2 ᄒᆞ민 보리밧이 그거 검질 흔 번 메는 체 헤근에, 그걸 헤영 또 이제 오월 장마 때 뒈어가민, 그 보릴 비젱 ᄒᆞ민, 이제 첨, 하영 헤어도 놉 못 빌민, 그 땐 놉도 빌지 안 ᄒᆞ곡, 기자 집 식구 끼리 가근에 보리 ᄒᆞ끔 비다근에 첨, 더우민 와불곡, 헤영 이녁 만씩 작업을 헤영 허는디, 그 보리 헤여근에 오늘 비민 낼 물류 왕 모리 쭘엔 무끄젠 ᄒᆞ민, 비오민 젖어불민 그거 또 무끄지 안 헌 때 비와불민, 영영 또 뒤집어놔근에 뎃사놩, 뎃사놔근에 그걸 ᄒᆞ영 ᄒᆞ끔 물 빠지민 무꺼당, 집이 와근에, 또 그때 저, 보리 클이엔 헤근에.(하면 보리밭이 그거 김 한 번 매는 체 해서, 그걸 해서 또 이제 오월 장마 때 되어가면, 그 보릴 비려고 하면, 이제 첨, 많이 하여도 놉 못 빌면, 그 땐 놉도 빌지 안 하고, 그저 집 식구 끼리 가서 보리 조금 베다가 첨, 더우면 와버리고, 해서 이녁 만씩 작업을 해서 하는데, 그 보리 해서 오늘 베면 낼 말려서 모레쯤엔 묶으려 하면, 비오면 젖어버리면 그거 또 묶지 안 한 때 비 와버리면, 이렇게 이렇게 또 뒤집어놔서 뒤집어놔서, 뒤집어놔서는 그걸 해서 조금 물 빠지면 묶어다가, 집에 와서, 또 그때 저, 보리 틀이라고 해서.)

103003 @ 예.(예.)

103003 #2 영 사근에 영영 홀트는 거 잇어나서, 경헹 홀트는 거헤근에 홀타근에, 도께로 두두리곡 헷주게.(이렇게 서서 이렇게이렇게 홅는 거 있어났어, 그렇게 해서 홅는 거해서 홅어서, 도리깨로 두드리곤 했지.)

103003 @ 예.(예.)

103003 #2 보리농사, 경허단 나중엔 이제 첨, 메탁기덜 그 기게, 운반 허는 거.(보리농사, 그렇게 하다가 나중엔 이제 첨, 탈곡기들 그 기게, 운반 하는 거.)

103003 @ 예.(예.)

103003 #2 그거 나근에, 홀탕 내불민 왕 그거 두두려 주국 헨디, 그 후에는 또 발달이 뭐냐면은, 기자 낭차, 낭차 영영 메기민 또 보리 문딱 홀타지곡, 또 두두려지곡 허는 기계도 나와 나곡.(그거 나서, 홅어 내버리면 와서 그거 두드려 주고 했는데, 그 후에는 또 발달이 뭐냐면, 그저 나무차, 나무차 이렇게 이렇게 먹이면 또 보리 모두 홅어지고, 또 두드려지고 하는 기계도 나와 나고.)

103003 @ 예.(예.)

103003 #2 경 보리농산 그추룩 헨 헤먹엇주게.(그렇게 보리농사는 그처럼 해서 해먹었지.)

103004 @ 보린 게난 언제쯤 보리를 갈앗수과?(보린 그러니까 언제쯤 보리를 갈았습니까?)

103004 #2 보리는 음녁으로 동짓ᄃᆞᆯ.(보리는 음력으로 동짓달.)

103004 @ 예.(예.)

103004 #2 동짓ᄃᆞᆯ에 갈민 오월 달에 보리비곡.(동짓달에 갈면 오월 달에 보리 베고.)

103005 @ 아까 말씀 ᄀᆞ를 때처럼 보리 갈젠 허민 남자 삼춘이 왕 거들어 줘야 뒈는데 혼자만 헷다는 게 아니꽈예? 혼자서.(아까 말씀할 때처럼 보리 갈려고 하면

남자 삼촌이 와서 거들어 줘야 되는데 혼자만 했다는 게 아닌가요? 혼자서.)

103005 #2 아니 하르방[33]도 거들엇주게.(아니 할아버지도 거들었지.)

103005 @ 거들엇지예?(거들었지요?)

103005 #2 경허곡 보리 갈젠 허민 쉐 빌어근에 밧을 갈아야 홀 거난.(그렇게 하고 보리 갈려고 하면 소 빌어서 밭을 갈아야 할 거니까.)

103005 @ 쉐 빌엉 갈 때는 남저삼춘이 헷다는 거 아니꽈예? 보리씨 뿌릴 땐 어떤식으로 뿌렷수과?(소 빌어서 갈 때는 남자삼촌이 했다는 거 아닌가요? 보리씨 뿌릴 땐 어떤 식으로 뿌렸습니까?)

103005 #2 걸름에.(거름에.)

103005 @ 예.(예.)

103005 #2 걸름을 옛날 돗통에서.(거름을 옛날 돼지우리에서.)

103005 @ 아까 걸름 헐 때 아예 씨를 서꺼근에 헷수광?(아까 거름 할 때 아예 씨를 섞어서 했습니까?)

103005 #2 걸름을 돗통엣 거 이추룩 영 ᄀᆞᆯ체에 담앙.(거름을 돼지우리엣 거 이처럼 이렇게 삼태기에 담아서.)

103005 @ 예.(예.)

103005 #2 이추룩 이추룩 흔 짐씩 저당 놓민, ᄌᆞ근ᄌᆞ근.(이처럼 이처럼 한 짐씩 져다가 놓으면, 차근차근.)

103005 @ 예.(예.)

103005 #2 저당 놓민.(져다가 놓으면.)

103005 @ 예.(예.)

103005 #2 이걸 소시랑으로 영영 골루와, 이런디 안 들어간 디, 골라 놔근에 그 우트레 씨 뿌려.(이걸 쇠스랑으로 이렇게 이렇게 골려, 이런데 안 들어간데, 골라 놔서 그 위에 씨 뿌려.)

103005 @ 아, 예.(아, 예.)

103005 #2 씨 뿌려근에 쉐 헤영, 막 ᄇᆞᆯ리당.(씨 뿌려서 소 해서, 막 밟다가.)

103005 @ 예.(예.)

103005 #2 발자국 나게 ᄒᆞ당, 또 어느 정도 ᄒᆞ민 또 이걸 두집어, 두집어 놩 또 ᄇᆞᆯ리주게.(발자국 나게 하다가, 또 어느 정도 하면 또 이걸 뒤집어, 뒤집어 놔서 또 밟지.)

103005 @ 그렇게 하기를 흔 메칠정도 뒈야마씸?(그렇게 하기를 한 며칠정도 돼야하나요?)

103005 #2 그건 저 아침 새벡이 그 걸름을.(그건 저 아침 새벽에 그 거름을.)

103005 @ 허민.(하면.)

103005 #2 아침 일찍 ᄒᆞ민, 빨리 ᄒᆞ는 뭐는 기자, 걸름 하민 ᄒᆞ쏠 멧 시간 걸리곡, 경아녀민 흔 나절에 다 ᄒᆞ주게.(아침 일찍 하면, 빨리 하는 뭐는 그자, 거름 많

33) '하르방'은 할아버지를 말한다. 여기서는 화자의 남편을 칭한다.

으면 조금 몇 시간 걸리고, 그렇게 안하면 한 나절에 다 하지.)

103005 @ 음, 음.(음, 음.)

103005 #2 나절에 헤근에, 가까운 밧덜은 그날 더러 저다 놓곡.(나절에 해서, 가까운 밭들은 그날 더러 져다 놓고.)

103005 @ 예.(예.)

103005 #2 둣날은 쉐 빌어근에 아세 걸름 영영 이런 땅에 놓민.(뒷날은 소 빌어서 아예 거름 이렇게 이렇게 이런 땅에 놓으면.)

103005 @ 예.(예.)

103005 #2 쉐로 영, 판이로 그 걸름을 막아.(소로 이렇게 이랑으로 그 거름을 막아.)

103005 @ 아, 판이 치멍 흑으로 걸름을 영 막아주는 거 아니꽝 예?(아, 이랑 치면서 흙으로 거름을 이렇게 막아주는 거 아닌가요?)

103005 #2 응, 응.(응, 응)

103005 @ 아, 경헷구나.(아, 그렇게 했구나.)

103006 @ 보리 종류는 어떤 것들이 이섯수과?(보리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103006 #2 보리 종륜 술오리엔 헤근에 껍데기 엇인 거 잇고.(보리 종륜 쌀보리라 해서 껍데기 없는 거 있고.)

103006 @ 예.(예.)

103006 #2 줄오리엔 헤근에 그, 공판 허는 거. 맥주보리엔 헤근에.(맥주보리라 해서 그, 공판 하는 거. 맥주보리라 해서.)

103006 @ 그거는 ᄑᆞ는 거예?(그거는 파는 거지요?)

103006 #2 응, ᄑᆞ는 거.(응, 파는 거.)

103006 @ 예.(예.)

103006 #2 맥주보리, 그 줄오리는 풀아도 뒈고, 술오리는 안 풀앙 양식으로 먹곡.(맥주보리, 그 맥주보리는 팔아도 되고, 쌀보리는 안 팔아서 양식으로 먹고.)

103006 @ 음.(음.)

103006 #2 건, 껍데기 어신 거주게 술오리.(건, 껍데기 없는 거지 쌀보리.)

103007 @ 보리 붑을 땐, 혼자 붑앗수과? 아니면?(보리 밟을 땐, 혼자 밟았습니까? 아니면?)

103007 #2 혼자도 블르곡, 둘이도 블르곡, 멧 시간 안 블라.(혼자도 밟고, 둘이도 밟고, 몇 시간 안 밟아.)

103007 @ 아, 기꽈?(아, 그래요?)

103008 @ 검질은 아까 대충 영 멧뎅 헨게만은.(김은 아까 대충 이렇게 맸다고 하더니만.)

103008 #2 검질은 보리밧딘 ᄒᆞᆫ 번 메곡, 또 ᄒᆞᆺ쏠 크민 그, 대우리.(검질은 보리밭에 한 번 매고, 또 조금 크면 그, 가라지.)

103008 @ 예.(예.)

103008 #2 그거 나민 그거 기자 뎅기멍 뽑곡.(그거 나면 그거 그저 다니며 뽑고.)

103008 @ 음.(음.)

103008 #2 그거 보리씨 혹시 이서근에 씨 잘못 헹은.(그거 보리씨 혹시 있어서 씨 잘못 해서는.)

103009 @ 예. 보리밧에 검질들, 아까 대우리라던가 또 어떤 종류의 검질들이 이섯수과?(예. 보리밭에 김들, 아까 가라지라던가 또 어떤 종류의 김들이 있었습니까?)

103009 #2 검질? 보리밧딘, 경 심허게 안 허는디?(김? 보리밭엔, 그렇게 심하게 안 하는데?)

103009 @ 예.(예.)

103009 #2 기자 그 이제 어른들은 진쿨이엔 허주게.(그저 그 이제 어른들은 별꽃이라고 하지.)

103009 @ 예.(예.0

103009 #2 가릿가릿[34]헌 거 보리낭에 올라오는 거.('가릿가릿'한 거 보릿대에 올라오는 거.)

103009 @ 예, 예.(예, 예.)

103009 #2 그런 거 검질 원, 대우리허고 그거.(그런 거 김 원, 가라지하고 그거.)

103009 @ 대우리허고 진쿨 예?(가라지하고 별꽃이요?)

103010 @ 그 다음 보리 수확 헐 때 오월 쯤 보리 벤덴 헷잖아예?(그 다음 보리 수확 할 때 오월 쯤 보리 밴다고 했잖아요?)

103010 #2 예.(예.)

103010 @ 게민 보리 벨 때, 그걸 어떵 베어근에, 어떵 무꺼근에 어떤 식으로 그, 보리씨를 털엇수과?(그러면 보리 밸 때, 그걸 어떻게 베어서, 어떻게 묶어 어떤 식으로 그, 보리씨를 털었습니까?)

103010 #2 보리 비민, 그거 영 영 비어근에, 영영 흔 줌씩 영 영 ᄌᆞ근ᄌᆞ근[35] 놓민.(보리 배면, 그거 이렇게 이렇게 배어서, 이렇게이렇게 한 줌씩 이렇게이렇게 '자근자근' 놓으면.)

103010 @ 예.(예.)

103010 #2 ᄒᆞ루 물류왕 무꺼야 뒐 건디.(하루 말려서 묶어야 될 건데.)

103010 @ 예.(예.)

103010 #2 비나 와불민?(비나 와버리면.)

103010 @ 예.(예.)

---

34) '가릿가릿'은 가늘고 여리다는 것을 표현한 듯하다.

35) 'ᄌᆞ근ᄌᆞ근'은 자근자근을 말한다. 자세하고도 차례가 있게 일하는 모양을 말한다.

103010 #2 또 강, 이추룩 다 뒤집어.(또 가서, 이처럼 다 뒤집어.)

103010 @ 아, 예.(아, 예.)

103010 #2 뒤집엉 물야근에.(뒤집어서 말려서.)

103010 @ 예.(예.)

103010 #2 그걸 이만큼씩 무끄는 사름 뚜루, 이렇게 모아주는 사름 뚜루, 사람 이신 디.(그걸 이만큼씩 묶는 사람 따로, 이렇게 모아주는 사람 따로, 사람 있는 데는.)

103010 @ 어신 딘?(없는 데는?)

103010 #2 어신 딘, 이녁 냥으로 모아놓멍 무끄곡, 경헹 무꺼근에, 집이 앗당.(없는 덴, 이녁 냥으로 모아놓으면서 묶고, 그렇게 해서 묶어서, 집에 가져다가.)

103010 @ 예.(예.)

103010 #2 저다근에 허나, 구루마 이신 집이덜은 싯거오곡, 경헤근에 마당 널른 디민.(져다가 하나, 수레 있는 집들은 실어오고, 그렇게 해서 마당 너른 데면.)

103010 @ 예.(예.)

103010 #2 마당에서 멍석 끌곡 혜영 홀타놓민.(마당에서 멍석 깔고 해서 홅아놓으면.)

103010 @ 예.(예.)

103010 #2 그걸 비나 오민, 그때 진작 도께질혜영 두두리질 못허민 또 더끄곡, 그 보리타작헤근에 헐 때는 식구가 다 나사근에.(그걸 비나 오면, 그때 진작 도리깨질해서 두드리질 못하면 또 덮고, 그 보리타작해서 할 때는 식구가 다 나서서.)

103010 @ 예.(예.)

103010 #2 영 씰어라도 주곡, 도께로 두두리는 사름도 잇곡.(영 쓸기도 하고, 도리깨로 두드리는 사람도 있고.)

103010 @ 보리가 빌 때쯤은 비가 자꾸 올 때잖아예?(보리가 빌 때쯤은 비가 자꾸 올 때잖아요?)

103010 #2 비 자주 올 땐 게민 게난.(비 자주 올 때는 그러면 그러니까.)

103010 @ 게민 메칠 정도 말려사 그걸 거들어저마씸?(그러면 며칠 정도 말려야 그걸 거둬져요?)

103010 #2 거난, 비 자주 와가민, 거 보리 뒤집어근에, 비 맞앙, ᄒᆞ루쯤 이시민 빨리 무꺼당 집에 와근에, 영 동글랑허게 눌 누렁.(그러니까, 비 자주 와 가면, 거 보리 뒤집어서, 비 맞아서, 하루쯤 있으면 빨리 묶어 다가 집에 와서, 이렇게 동그랗게 가리 쌓아서.)

103010 @ 아, 다시.(아, 다시.)

103010 #2 보릿단을 영 영 올려놩 눌 눌엉.(보릿단을 이렇게 이렇게 올려놔서 가리 쌓아.)

103010 @ 예.(예.)

103010 #2 ᄂᆞ람쥐 더껏당 날 좋민 그걸 홀타근에 두두려 부는 거.(이엉 덮었다

가 날 좋으면 그걸 홅아 두드려 버리는 거.)

103010 @ 아, 경헷구나 예?(아, 그렇게 했군요.)

103011 @ 아까 도께질헷덴 헷잖우꽈? 도께질헐 때 그 때면은 ᄒᆞ루에 그걸 다 도께질헤집디가?(아까 도리깨질했다고 했잖아요? 도리깨질할 때 그 때면 하루에 그걸 다 도리깨질했나요?)

103011 #2 ᄒᆞ루에 얼마 못허여. 한 딘.(하루에 얼마 못해. 많은 데는.)

103011 @ 기지 예.(그렇지요?)

103012 @ 도께질 다헌 다음엔 이제 보리쏠을 만들어야 될 거잖아예? 그건 어떵 헷수과?(도리깨질 다한 다음엔 이제 보리쌀을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했나요?)

103012 #2 보리 허민게 그 ᄀᆞ시락, ᄀᆞ시락 ᄇᆞ름에 불령.(보리 하면 그 까끄라기, 까끄라기 바람에 불려서.)

103012 @ 예.(예.)

103012 #2 보리, 베나근에 ᄆᆞᆯ랴사, 물방앗간 엿날에 이서나서, 서귀포.(보리, 배나서 말려야, 물방앗간 옛날에 있었어, 서귀포.)

103012 @ 서귀포까지 갓수과?(서귀포까지 갔습니까?)

103012 #2 응, 서귀포에 정가근에, 물방엣간에 가근에 ᄒᆞ끔 듬강, 그 보리 헤당, 또 멍석에 널엉, 그거 ᄆᆞᆯ루민.(응, 서귀포에 져가서, 물방앗간에 가서 조금 담가서, 그 보리 해다가, 또 멍석에 널어서, 그거 마르면.)

103012 @ 예.(예.)

103012 #2 그디 체, 보리껍데기 그걸 어떵 헤근에, 불려근에 체 걸려동, 또 보리쏠을 이제 ᄀᆞ레에.(거기 보릿겨, 보리껍데기 그걸 어떻게 해서, 불려서 보릿겨를 걸러두고, 또 보리쌀을 이제 맷돌에.)

103012 @ 예.(예.)

103012 #2 ᄀᆞ레에 벌렁, 경헤근에 밥덜 헹 먹어낫주.(맷돌에 쪼개어, 그렇게 해서 밥들 해서 먹어났지.)

103012 @ 서귀포에 그 물방앗간 그걸 옛날에 뭐렌 ᄀᆞᆯ아낫수과?(서귀포에 그 물방앗간 그걸 옛날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103012 #2 옛날 말로? 물방에.(옛날 말로? 물방아.)

103012 @ 거기서는 물을 이용해서 방에를 돌렷수과?(거기서는 물을 이용해서 방아를 돌렸습니까?)

103012 #2 어, 어어.(어, 어어.)

103012 @ 돌린 다음에 와서는?(돌린 다음에 와서는?)

103012 #2 돌린 다음에 이디 오민 멍석에 널어. 널엉 영 영 ᄒᆞᆫ 두어 시간 ᄆᆞᆯ라가민, 껍데기허곡 쏠허곡 구분뒈게시리, ᄇᆞ름에 또 불려.(돌린 다음에 여기 오면 멍석에 널어. 널어서 이렇게 이렇게 한 두어 시간 말라가면, 겨하고 쌀하고 구분되게끔, 바람에 또 불려.)

103012 @ 예.(예.)

103012 #2 불리민, 껍데긴 껍데기대로 쏠은 쏠대로 나오민 이제 그걸 기냥 또 영 돌리는 멧돌에.(불리면, 껍데긴 껍데기대로 쌀은 쌀대로 나오면 이제 그걸 그냥 또 이렇게 돌리는 맷돌에.)

103012 @멧돌을 뭐렌 헷수과?(맷돌을 뭐라고 했습니까?)

103012 #2 ᄆᆞ레.(맷돌.)

103012 @ ᄆᆞ레엔 ᄀᆞᆯ앗수과?(맷돌이라고 말했습니까?)

103012 #2 정ᄆᆞ레.(풀맷돌.)

103012 @ 정ᄆᆞ레마씨? ᄆᆞ레도 보난, 여기 족은 거 잇고, 여기 우녕팟디 큰 것도 잇잖우꽈예?(풀맷돌이요? 맷돌도 보니까, 여기 작은 거 있고, 여기 텃밭에 큰 것도 있잖아요?)

103012 #2 우녕팟디 큰 건 동네에, 동네에 엿날, 보리도 그 것에 혜영 ᄀᆞᆯ곡, 조 나오민 조도 ᄀᆞᆯ곡 헤난 거주. 돌아 가멍덜.(텃밭에 큰 건 동네에, 동네에 옛날, 보리도 그 것에 해서 갈고, 조 나오면 조도 갈고 했던 거지. 돌아 가면서들.)

103012 @ 예.(예.)

103012 #2 경헤난 거, 저거. 저 밑엣거 아방이 ᄒᆞ나 기념으로 이레, 놈덜 다 싯거 가베가난 아지당 논 거고.(그렇게 해난 거, 저거. 저 밑엣 거 애기아버지가 하나 기념으로 여기에, 남들 다 실어가 버려가니까 가져다 놓은 거고.)

103012 @ 저거만으로는 보리를 다, 저 뭘 못헷수과? 물방엣간 까지 안 가근에.(저것만으로는 보리를 다, 저 뭘 못했습니까? 물방앗간까지 안 가서)

103012 #2 엿날에 물방엣간 어실 때 돌려난 거주게.(옛날에 물방앗간 없을 때 돌려난 거주게.)

103012 @ 아, 어실 때. 물방에 갈 때쯤은 언제쯤이꽈? 한꺼번에 ᄀᆞᆯ아올 때가 언제쯤이꽈? 서귀포에 강 ᄀᆞᆯ아올 때가?(아, 없을 때. 물방아 갈 때쯤은 언제쯤인가요? 한꺼번에 갈아올 때가 언제쯤인가요? 서귀포에 가서 갈아올 때가?

103012 #2 ᄀᆞᆯ아올 땐게 시간 나는 대로.(갈아올 때에는 시간 나는 대로.)

103012 @ 시간 나는 대로? 게 언제마씨?(시간 나는 대로? 그게 언제요?)

103012 #2 음력으로 ᄒᆞᆫ 유월 달, 오월 말 이거 보리장만 헤지민.(음력으로 한 유월 달, 오월 말 이거 보리장만 해지면.)

103012 @ 예. 그게 햇수로 박정희 대통령헐 때꽈? 이승만 대통령헐 때꽈?(예. 그게 햇수로 박정희 대통령할 땝니까? 이승만 대통령할 땝니까?)

103012 #2 박정희가, 박정희 헐 때 닮다. 이승만 헐 때도 닮고. 최규하 헐 땐가?(박정희가, 박정희 할 때 닮다. 이승만 할 때도 닮고. 최규하 할 땐가?)

103012 @ 그때 서귀포 물방에 생기기 전에는 저 큰 ᄆᆞ레에 ᄀᆞᆯ아낫잖아예?(그때 서귀포 물방아 생기기 전에는 저 큰 맷돌에 갈아났잖아요?)

103012 #2 응.(응.)

103012 @ 시집 온 다음에도 저기에 ᄀᆞᆯ아낫수과?(시집 온 다음에도 저기에 갈았

습니까?)

103012 #2 응.(응.)

103012 @ 아, 경헷구나게. 족은 방에로는 무신 거 골앗수과?(아, 그렇게 했구나. 작은 맷돌로는 뭘 갈았습니까?)

103012 #2 멧돌? 멧돌론 서귀포 강, 방엣간에 강 헤여오민.(맷돌? 맷돌로는 서귀포 가서, 방앗간에 가서 해서 오면.)

103012 @ 예.(예.)

103012 #2 그걸 아까 곧는 식으로 쏠허고 체허고 ᄇᆞ름에 영 영 속박으로 그거 헤근에.(그걸 아까 말하는 식으로 쌀하고 겉껍질하고 바람에 이렇게 이렇게 작은 바가지로 그거 해서.)

103012 @ 예.(예.)

103012 #2 족은 걸론 그때 보리를 영영 돌리민 저것이 께저. 쏠이.(작은 걸론 그때 보리를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저것이 깨져. 쌀이.)

103012 @ 예.(예.)

103012 #2 겨난 쏠을 께연 먹엇주. 통차론 쏠 통차로는 안 먹엇주게.(그러니깐 쌀을 깨서 먹었지. 통째로는 쌀 통째로는 안 먹었지.)

103012 @ 기지예?(그렇지요?)

103012 #2 경허영 멧돌에 영영 골민, 체 이서이? 체.(그렇게 해서 맷돌에 이렇게이렇게 갈면 체 있지? 체.)

103012 @ 예.(예.)

103012 #2 체도 훌근 거 잇곡, 좀진 거 이시민.(체도 굵은 거 있고, 가는 거 있으면.)

103012 @ 맞수다.(맞습니다.)

103012 #2 경허난 그 체로 문 골령, 아래건 허곡, 우의건 홁으민 또 허곡(그렇게 하니까 그 체로 모두 골라서, 아래건 하고, 위에건 굵으면 또 하고,)

103012 @ 경헷구나예. 저거 멧돌 말고 다른 거 잇어나지 안 헷수과?(그렇게 했군요. 저거 맷돌 말고 다른 거 있었지 안 했습니까?)

103012 #2 멧돌 말곤 무시거 엇어나신디?(맷돌 말곤 뭐 없었는데?)

103013 @ 보리쏠로 밥헹 먹어낫잖아예? 경헐 때 이제 보리쏠에 주로 뭐 서꺼근에 밥 헤먹엇수과?(보리쌀로 밥해서 먹었잖아요? 그렇게 할 때 때 이제 보리쌀에 주로 뭐 섞어서 밥 해먹었습니까?)

103013 #2 엿날 보리쏠헤근에 첨, 뭐영 골아근에 잘헤영 항에 담앙 놧당, 가을나민 조, 좁쏠헤다근에 ᄀᆞ찌, 보리쏠 좁쏠 서껑먹으민 막, 잘사는 집이엔 허곡, 보리쏠 엇시민 감저허곡, 좁쏠 놩 밥헹 그걸로 살앗주게.(옛날 보리쌀해서 첨, 뭐 이렇게 갈아서 잘해서 항아리에 담아놨다가, 가을되면 조, 좁쌀 해다가 같이, 보리쌀 좁쌀 섞어먹으면 막, 잘사는 집이엔 하고, 보리쌀 없으면 고구마하고, 좁쌀 넣어 밥해서 그걸로 살았지.)

103013 @ 혹시 개역은 안 멘들어 먹엇수과?(혹시 미숫가루는 안 만들어 먹었습니까?)

103013 #2 개역도 헤당 먹고, 이디서덜 개역 보까근에.(미숫가루도 해다가 먹고, 여기 서들 미숫가루 볶아서.)

103013 @ 예.(예.)

103013 #2 저 멧돌에 갈앙도 먹곡.(저 맷돌에 갈아도 먹고.)

103013 @ 보리 보까근에?(보리 볶아서?)

103013 #2 응.(응.)

103013 @ 여기서도 기냥 개역이렌 헷수과?(여기서도 그냥 미숫가루라고 했나요?)

103013 #2 응, 개역.(응, 미숫가루.)

103013 @ 그 개역에다가 밥을 영 비벼근에는 안 먹어봣수과?(그 미숫가루에다가 밥을 이렇게 비벼서는 안 먹어봤습니까?)

103013 #2 밥도 비병 먹고, 돌게 먹젠 허민 사까린도 놩 먹고. 개역은 이제도 밥에 부병 먹엄주.(밥도 비벼 먹고, 달게 먹으려고 하면 사카린도 넣어서 먹고. 미숫가루는 이제도 밥에 비벼서 먹고 있지.)

103014 @ 게민예? 아까 그 보리를 물방엣간에 강 갈아근에 오면 막 날리는 거 이서낫잖아예?(그러면요? 아까 그 보리를 물방앗간에 가서 갈아서 오면 막 날리는 거 있었잖아요?)

103014 #2 어, 체.(어, 겨.)

103014 @ 그 체라든가, 그냥 체는 경헤난 다음 데껴부렷수과? 다른 걸로 사용헷수과?(그 겨라든가, 그냥 겨는 그렇게 해난다음 던져버렸습니까? 다른 걸로 사용했습니까?)

103014 #2 보릿체는 쉐덜, 쉐덜 농사짓젠허민 밧갈 때, 것 허는 거.(보릿겨는 소들, 소들 농사지으려하면 밭갈 때, 먹이 하는 거.)

103014 @ 쉐 멕이는 걸로 쓰고예?(소 먹이는 걸로 쓰고요?)

103014 #2 응, 쉐 멕이는 거.(응, 소 먹이는 거.)

103014 @ 보리찍은마씸?(보릿짚은요?)

103014 #2 보리찍은 걸름용.(보릿짚은 거름용.)

103014 @ 아, 아까 돗통에 놔근에 경 헌다는 거예?(아, 아까 돼지우리에 놔서 그렇게 한다는 거요?)

103014 #2 응, 쉐 질루는 딘 그, 쉐막ᄒᆞ민 쉐막 안에도 깔아주어야.(응, 소 기르는 데는 그, 외양간하면 외양간 안에도 깔아주어야.)

103014 @ 아, 맞수다, 맞수다.(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103014 #2 쉐 똥 싸민 것도 걸름.(소 똥 싸면 그것도 거름.)

103014 @ 보리 빈 다음에 물방엣간 가기 전에 보릿고고리에 가시 깍깍 찔러지는.(보리 벤 다음에 물방앗간 가기 전에 보리이삭에 가시 꼭꼭 찔러지는.)

103014 #2 ᄀᆞ시락.(까끄라기.)

103014 @ 예, ᄀᆞ시락 그건 뭐에 썻수꽈?(예, 까끄라기 그건 뭐에 썼습니까?)

103014 #2 그건 기냥 불태와근에, 그것도 불치.(그건 그냥 불태워서, 그것도 재.)

103014 @ 불치로?(재로?)

103014 #2 그걸 걸름용.(그걸 거름용.)

103014 @ 그 불치로는 또 다른 어떤 농사에 사용 헷수과?(그 재로는 또 다른 어떤 농사에 사용 했습니까?)

103014 #2 농사는 불치는 아무 농사에도 썻주게.(농사는 재는 아무 농사에도 썼지.)

103014 @ 맞아예.(맞아요.)

103014 #2 그땐 무신, 비료가 어실 때난.(그땐 무슨, 비료가 없을 때니까.)

103015 @ 보리 농사지으멍 막 특별나게 '잊어불지 안 헤여' 허는, 헐만한 기역 엇수과? 보리농사 지으멍 뭔가 특별난 기역, 추억.(보리 농사지으면서 매우 특별나게 '잊어버리지 안 해' 하는, 할 만한 기억 없습니까? 보리농사 지으면서 뭔가 특별난 기억, 추억.)

103015 #2 보리농사허멍 기역 나는 건 무시거, 처음 돗걸름 낼 때.(보리농사하며 기억나는 건 뭐, 처음 돼지거름 낼 때.)

103015 @ 예.(예.)

103015 #2 아이고, 이걸 어떵헹 허코?(아이고, 이걸 어떻게 할까?)

103015 @ 게난.(그러니깐.)

103015 #2 경헤도 헴시민 다 헤어저근에, 아이고, 다 일 다헷저 헤도, 일을 농사, 보리, 돗걸름 내영 보리 뭐 허민, 촌에서는 초가집 잇이난.(그래도 하다보면 다 해져서, 아이고, 다 일 다 했다 해도, 일을 농사, 보리, 돼지거름 내어서 보리 뭐 하면, 촌에서는 초가집 있으니까.)

103015 @ 예.(예.)

103015 #2 이젠 새, 지붕 우이 일 거.(이젠 띠, 지붕 위에 일 거.)

103015 @ 예.(예.)

103015 #2 새 비레도 뎅기곡, 이제 또 땔감, 낭허레도 뎅기곡.(띠 베러 다니고, 이제 또 땔감, 나무 하러 다니고)

103015 @ 예.(예.)

103015 #2 겨울.(겨울.)

103015 @ 맞수다.(맞습니다.)

103015 #2 경허난 뭐 이제는 경 이제는 미깡만 허난, 뎅기멍 미깡밧 끗나민 농약이나 여름에 흔 으남은 허민 경 신경덜 안 쓰는디, 그땐 일 년 내내, 기자 콩 솜 아근에 장 담젠 나무 지레 뎅기곡, 땔감 엇어근에 보리낭으로 때는 집인 보리낭으로 때어도, 이제 요레 지게 정 나가근에, 그 낭덜 헤당 짇젠허곡, 난 저, 섭섬이도

강, 낭헤 와나고.(그러니까 뭐 이제는 그렇게 이제는 귤만 하니까, 다니면서 귤밧 끝나면 농약이나 여름에 한 열 번 하면 그렇게 신경들 안 쓰는데, 그땐 일 년 내내, 그저 콩 삶아서 장 담그려 나무 지러 다니고, 땔감 없어서 보릿대로 때는 집엔 보릿대로 때어도, 이제 요리로 지게 져 나가서, 그 나무들 해다가 때려하고, 난 저, 섶섬에도 가서, 나무해 왔었고.)

103015 @ 음.(음.)

103015 #2 휘엉가근에 이만큼 무꺼근에, 그 우위 테왁 올려놔동 낭 밀리민 이레 올 수 이서.(헤엄쳐가서 이만큼 묶어서, 그 위에 테왁 올려놔선 나무 밀리면 이쪽으로 올 수 있어.)

103015 @ 하이구, 경헤낫구나예?(하이구, 그렇게 했어났군요?)

조 농사

103016 @ 다음엔 조 농사로 가보게예?(다음엔 조 농사로 가보게요?)

103016 #2 조 농사?(조 농사?)

103016 @ 조 농사헐 때는 아까 보리 농사헐 때처럼, 조 농사헐 때는 어떤 준비기 필요 헤낫수과?(조 농사할 때는 아까 보리 농사할 때처럼, 조 농사할 때는 어떤 준비기 필요 했습니까?)

103016 #2 조 농사헐 땐? 쉐, 이녁 어시민 쉐 빌엉허젠 그 비오는 디 가근에 감저 심글 때고, 조헐 때라도 문 놈의 쉐 빌젠 ᄒᆞ민, 이런 산에 가근에 놈의 새밧디 가근에.(조 농사할 땐? 소, 이녁 없으면 소 빌어서 하려고 그 비오는 데 가서 고구마 심을 때고, 조할 때라도 모두들 남의 소 빌려고 하면, 이런 산에 가서 남의 띠밭에 가서.)

103016 @ 예.(예.)

103016 #2 그 어린 풀덜, 그거 비어당 아까 그 보리체에 헤여근에 쉐 멕일 거, 세벡이 그 쉐 주인덜이 그 촐 비어 간 거영 보리체 갈른 거영 아저가민.(그 어린 풀들, 그거 비어다가 아까 그 보릿겨에 해서 소 먹일 거, 세벽에 그 소 주인들이 그 꼴 비어간 거하고 보릿겨 나눈 거하고 가져가면.)

103016 @ 예.(예.)

103016 #2 그걸 세벡이 일어낭 막 썰엉 버므려근에, 쉐 것을 멕여주어.(그걸 세벽에 일어나서 막 썰어서 버무려, 소 먹이를 먹여주어.)

103016 @ 예.(예.)

103016 #1 게민, 그 쉐 빌어다근에 조 농사헐 땐 기자 저 밧 싹, 곱닥허게 갈아놩.(그러면, 그 소 빌어서 조 농사할 땐 그자 저 밭 싹, 곱게 갈아 놔서.)

103016 @ 예.(예.)

103019 #2 좁쌀 작작 삐영, 좁쌀 그걸 사람 손으로.(좁쌀 작작 뿌려서, 좁쌀 그걸 사람 손으로.)

103017 @ 예. 걸름 준비허기 전에마씸?(예. 거름 준비하기 전에요?)

103017 #2 어? 걸름 엇주게. 조팟딘게.(어? 거름 없지. 조밭에는.)

103017 @ 아니, 아까 그 쉐 먹어난 건가 버린 거 빌어온 것들.(아니, 아까 그 소 먹어난 건가 버린 거 얻어온 것들.)

103017 #2 쉐 먹어난 건, 촐 멕인 거주. 걸름에 대헨게 아니고게.(소 먹어난 건, 꼴 먹인 거지. 거름에 대한 게 아니고.)

103017 @ 아, 아. 조 밧딘 거름 엇이 그냥.(아, 아. 조 밭엔 거름 없이 그냥.)

103017 #2 걸름 엇이헤근에 그 뭐허민 쉐 빌어당 허젠허민 쉐촐허곡 그 보리껍데기, 보리쳴 아저가민 주인이 세벡이 일어나 그 쉐를 멕이는 거라.(거름 없이해서 그 뭐하면 소 빌어다가 하려고하면 소꼴하고 그 보릿겨, 보릿겨를 가져가면 주인이 새벽에 일어나 그 소를 먹이는 거라.)

103017 @ 아, 아.(아,아.)

103017 #2 멕이민 그 쉐를 이꺼다근에 우리가 강 앗다근에 밧 가는 거.(먹이면 그 소를 이끌어다가 우리가 가서 가져다가 밭 가는 거.)

103017 @ 아, 밧 가는 거.(아, 밭 가는 거.)

103019 #2 밧 갈앙 ᄒᆞ민 우리 주인양으로 좁씨를 삐어.(밭 갈아서 하면 우리 주인대로 파종용 좁쌀을 뿌려.)

103019 @ 예.(예.)

103019 #2 쫍씨 삐곡, 콩도 삐곡.(파종용 좁쌀을 뿌리고, 콩도 뿌리고.)

103019 @ 예.(예.)

103019 #2 경헤근에 헤영ᄒᆞ민, 이만큼 헌 설피[36]엔 헤근에 배로 영 뗑기멍 골루로 영 더 퍼지게시리.(그렇게 해서 해서하면, 이만큼 한 '설피'라고 해서 배로 이렇게 당기며 골고루 이렇게 더 퍼지게끔.)

103019 @ 아.

103019 #2 밧을 이렇게 간 거민 이렇게 뎅기멍 그걸로 막아.(밭을 이렇게 간 거면 이렇게 다니며 그걸로 막아.)

103019 @ 예.

103019 #1 게난 그추룩 헤근에 설피 그걸로 헤근에 조 갈곡.(그러니 그처럼 해서 '설피' 그걸로 해서 조 갈고.)

103020 @ 예. 그 조는 언제쯤 갈앗수과? 계절적으로.(예. 그 조는 언제쯤 갈았습니까? 계절적으로.)

103012 #2 계절적으로? 조는 하여튼 유월 전이.(계절적으로? 조는 하여튼 유월 전에.)

103012 @ 유월절 전이마씸?(유월절 전에요?)

103012 #2 어, 유월절 전이 콩 갈 때 ᄀᆞ찌. 감저도 ᄀᆞ찌.(어, 유월절 전에 콩 갈 때 같이. 고구마도 같이.)

---

36) '설피'는 길쭉길쭉한 잎나무를 여러 개 함께 엮어 부채 모양으로 만들고는 뿌린 씨를 묻고 밭이랑을 고르는데 쓰는 농기구를 말한다. = 섬피, 끄서귀, 끄슬퀴, 끄슬피, 섬비.

103020 @ 아, 그때 다 ᄀᆞ찌 헷수과?(아, 그때 다 같이 했습니까?)

103020 #2 어. 유월절 전이.(어. 유월절 전에.)

103020 @ 조밧도 보리처럼 막 봂앗수과?(조밭도 보리처럼 막 밟았습니까?)

103020 #2 아니, 아니. 조밧은 안 불르고.(아니, 아니. 조밭은 안 밟고.)

103021 #2 조밧은 검질을 세 불 메어.(조밭은 김을 세 벌 매.)

103021 @ 아, 조밧은.(아, 조밭은.)

103021 #2 응, 세 불 메민, 세 번차 멜 땐 검질 막 번으로 메엿저 이런 식으로 나오고.(응, 세 벌 매면, 세 번째 맬 땐 김을 막 번으로 매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103020 @ 예. 그 조밧 헐 때 말떼나 남태, 돌태, 이런 말 들어봣수과? 끙게 이런 말?(예. 그 조밭 할 때 말떼나 남태, 돌테,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끙게 이런 말?)

103021 @ 조밧딘 검질 세 번 멘덴 헷지예?(조밭엔 김 세 번 맨다고 했지요?)

103021 #2 응.(응.)

103022 @ 조밧디는 어떤 검질이 나낫수과? 검질이.(조밭에는 어떤 김이 났습니까? 김이.)

103022 #2 검질은 조밧디는 기냥 이디 ᄀᆞ뜨민 옛날 춤비눔이엔 헤근에 그런 것도 나곡.(김은 조밭에는 그냥 여기 같으면 옛날 참비름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나고.)

103022 @ 그건 우리말로 뭐렌 ᄀᆞᆯ앗수과?(그건 우리말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103022 #2 기냥 비듬.(그냥 비름.)

103022 @ 비듬?('비듬'?)

103022 #2 그런 거 나곡, 쒜비늠도 나곡.(그런 거 나고, 쇠비름도 나고.)

103022 @ 쒜비늠은 뭐렌 ᄀᆞᆯ앗수과?(쇠비름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103022 #2 기냥 쒜비늠이엔.(그냥 쇠비름이라고.)

103022 @ 쒜비늠이엔 ᄀᆞᆯ앗수과?(쇠비름이라고 말했습니까?)

103022 #2 경허곡, 또 마지막 멜 때는 고레조, 나쁜 거. 조라도 나쁘게 나오는 거. 고레조.(그리고, 또 마지막 멜 때는 큰 조, 나쁜 거. 조라도 나쁘게 나오는 거. 큰 조.)

103022 @ 고레조렌 헷수과?(큰 조라고 했습니까?)

103022 #2 어. 처음은 좁씨가 골루루 안 가근에, 한 디 잇곡, 족은 디 잇곡 허민 한 디 거 솎아주는 거.(어. 처음은 파종용 좁쌀이 골고루 안 가서, 많은 데 있고, 적은 데 있고 하면 많은 데 거 솎아주는 거.)

103022 @ 아, 아. 검질 멜 때 홈치 솎아주는 거예?(아, 아. 김 맬 때 한꺼번에 솎아주는 거요?)

103022 #2 음.(음.)

103022 @ 솎은 조들은?(솎은 조들은?)

103022 #2 버리는 거.(버리는 거.)

103022 @ 다른 디 안 심엉예? 경헷구나.(다른 데 안 심어서요? 그렇게 했구나.)

103023 @ 조 수확 헐 때, 조 벨 땐 보리허고 달라마씸?(조 수확 할 때, 조 밸 땐 보리하고 달라요?)

103023 #2 보리허곡 달르주게.(보리하고 다르지.)

103023 @ 음, 어떵 벳수과?(음, 어떻게 뱄나요?)

103023 #2 무사니허민, 조 비는 건 아장은 못 비어.(왜냐하면, 조 배는 건 앉아서는 못 배어.)

103023 @ 아, 아.(아, 아.)

103023 #2 낭이 질고 그 조 고고리가 무거와근에.(나무가 길고 그 조 이삭이 무거워서.)

103023 @ 아, 아.(아,아.)

103023 #2 게민 굽엉 비엉 헤영. 보리는 하영 지민 영 단 수로 무끈 거 열닷 단 이상 쑤무 단 끄지 지는디, 조는 하영 저사 석 단벳긔 못 저.(그러면 굽어서 배어서 해서. 보리는 많이 지면 이렇게 단 수로 묶은 거 열다섯 단 이상 스무 단 까지 지는데, 조는 많이 져야 석 단밖에 못 져.)

103023 @ 아, 무거웡마씨?(아, 무거워서요?)

103023 #2 하영 무꺼부는 따문.(많이 묶어버리는 때문.)

103023 @ 아, 하영 무꺼근에?(아, 많이 묶어서?)

103023 #2 어, 경허곡 고고리가 무거워.(그리고 이삭이 무거워.)

103023 @ 게난예?(그러니까요?)

103023 #2 경헤근에 그거 무꺼근에 집에 저오민, 아자근에 나무가 이거곡, 고고리가 이거민, 영 이실 거 아니?(그렇게 해서 그거 묶어서 집에 져오면, 앉아서 나무가 이거고, 이삭이 이거면, 이렇게 있을 거 아니?)

103023 @ 예.(예.)

103023 #2 경허민 호미로 이 고고릴 영영 짤르주게.(그러면 호미로 이 이삭을 이렇게이렇게 자르지.)

103023 @ 아, 아.(아, 아.)

103023 #2 짤라 놔근에 이걸 또 아까 멧돌 저거 큰 거, 저것이 나무로 영 헤근에 지둥 이서난 거주게.(잘라 놔서 이걸 또 아까 맷돌 저거 큰 거, 저것이 나무로 이렇게 해서 기둥 있어난 거지).)

103023 @ 예, 예.(예, 예.)

103023 #2 거난, 저것에 가근에 이런 조 고고리 아정강 놔근에 그거 돌려.(그러니, 저것에 가서 이런 조 이삭 가져가서 놔서 그거 돌려.)

103023 @ 예.(예.)

103023 #2 경ᄒᆞ민 거기서 풀어저. 조 고고리 와작와작 헌 거 길쭉허게 이신 걸 우리 손으로 비병 풀어지듯 저것에 강.(그러면 거기서 풀어져. 조 이삭 와작와작 한

거 길쭉하게 있는 걸, 우리 손으로 비벼서 풀어지듯 저것에 가서.)

103023 @ 예.(예.)

103024 #2 옛날 믈ᄀᆞ레 저거, 믈ᄀᆞ레로 헤근에.(옛날 연자매 저거, 연자매로 해서.)

103024 @ 볼목리도 믈ᄀᆞ레 이서낫지예?(보목리도 연자매 있어났지요?)

103024 #2 하낫주게.(많이 있었지.)

103024 @ 몇 개쯤 이서낫수과?(몇 개쯤 있어났나요?)

103024 #2 처음에 우리 어릴 때엔 ᄒᆞᆫ 아홉 개쯤 이서낫신가?(처음에 우리 어릴 때엔 한 아홉 개쯤 있어났는가?)

103024 @ 믈ᄀᆞ레가예?(연자매가요?)

103024 #2 어.(어.)

103024 @ 거민 그 믈ᄀᆞ레가 주인이 따로 이섯수과? 아니믄?(그러면 그 연자매가 주인이 따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103024 #2 동네별로.(동네별로.)

103024 @ 동네별로 이렇게 계처럼 헤낫수과? 계모임처럼?(동네별로 이렇게 계처럼 했습니까? 계모임처럼?)

103024 #2 계모임도 아녀곡 기자 동네별로 그걸 ᄒᆞ나 헤 놓민.(계모임도 안 하고 그저 동네별로 그걸 하나 해 놓으면.)

103024 @ 예.(예.)

103024 #2 그땐 조고고리라도 영 허젱 ᄒᆞ민 속박[37], 옛날 속박 잇지?(그땐 조이삭이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속박', 옛날 '속박' 있지?)

103024 @ 예.(예.)

103024 #2 그것에 조 고고리 ᄒᆞ나 담아근에 그 ᄀᆞ레창에 강 어프는 거라.(그것에 조 이삭 하나 담아서 그 맷돌바닥에 가서 엎는 거라.)

103024 @ 예.(예.)

103024 #2 자기 ᄎᆞ지허젠. 어프민 또 딴 사름도 아정강 어프국, 겨민 ᄌᆞ근ᄌᆞ근허민 이디 헤나사 이디 허곡, 그땐 그것도 막 순조롭게 잘 뒈나서.(자기 차지하려고. 엎으면 또 딴 사람도 가져가서 엎고, 그러면 자근자근하면 여기 해나야 여기 하고, 그땐 그것도 막 순조롭게 잘 돼났지.)

103024 @ 예.(예.)

103024 #2 이제 ᄀᆞ뜨민 나 앞이 앗다놧저, 니 앞이 앗다놧저 덜 허주마는.(이제 같으면 나 앞에 갖다놓았지, 네 앞에 갖다놓았지 들 하지만.)

103024 @ 맞수다. 날씨도 잇고예?(맞습니다. 날씨도 있고요?)

103024 #2 하하하하.(하하하하.)

103024 @ 조는 보통 믈ᄀᆞ레를 이용헤가지고 아니믄 이 집에 잇는 큰 멧돌 이용

37) '속박'은 나무를 둥그스름하고 납죽하게 파서 만든 작은 바가지 비슷한 그릇을 말한다. = 솔박, 손박, 좀팍, 좀팍세기.

하든가예?(조는 보통 연자매를 이용해가지고 아니면 이 집에 있는 큰 맷돌 이용하든가요?)

103024 #2 물고레가 저거주게. 큰 멧돌.(연자매가 저거지. 큰 맷돌.)

103024 @ 아, 저것꽈?(아, 저겁니까?)

103024 #2 어.(어.)

103024 @ 저 만씩 헌 걸로 물 매달앙 헷수과? 막 큰 게 아니구나?(저 만씩 한 걸로 말 매달아서 했습니까? 막 큰 게 아니구나?)

103024 #2 이 사름으로 양쪽 이렇게 기둥 영 허곡 물ᄀᆞ레 저것이 영 가운디 똥골랑 헌 것이 영 영 돌아가게, 양쪽으로 영 영 사름덜.(이 사람으로 양쪽 이렇게 기둥 이렇게 하고 연자매 저것이 이렇게 가운데 동글게 한 것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게, 양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

103024 @ 사름.(사람.)

103024 #2 이쪽 둘리, 저쪽 둘리 사근에 영 영 돌리주게.(이쪽 둘이, 저쪽 둘이서서 이렇게 이렇게 돌리지.)

103024 @ 저걸로 허민예? ᄒᆞ루에?(저걸로 하면요? 하루에?)

103024 #2 하영 헤여.(많이 해.)

103024 @ 하영헤마씸?(많이 해요?)

103024 #2 하영 허곡, 그 저 뭐헐 땐 도께로도 헤낫일 거라.(많이 하고, 그 저 뭐할 땐 도리깨로도 해났을 거라.)

103024 @ 도께도 허고예? 게 도께론 안 헤봣수과?(도리깨도 하고요? 그래 도리깨로는 안 해봤습니까?)

103024 #2 응, 난 우린 도께론 안 헤봔.(응, 난 우린 도리께론 안 해봤지.)

103024 @ 덩드렁마께론[38]?('덩드렁마께론'?)

103024 #2 그런 걸로도 두두리곡.(그런 걸로도 두드리고.)

103024 @ 그걸 뭐렌 ᄀᆞᆯ아낫수과? 도께 말고 두둘기는 거, 마께 닮은 걸 뭐렌 ᄀᆞᆯ아낫수과?(그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도리깨 말고 두들기는 거, 방망이 닮은 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103024 #2 던드렁마께.('던드렁마께'.)

103024 @ 던드렁마께마씸?('던드렁마께요'?)

103025 @ 그다음, ᄀᆞ레로 근 좁쌀이 껍데기랑 막 ᄀᆞ찌 잇일 거 아니꽈예?(그다음, 맷돌로 간 좁쌀이 겨랑 막 같이 있을 거 아닌가요?)

103025 #2 경헤근에 그걸 뭐 헤근에 ᄒᆞ민 조 ᄀᆞᆯ곡 나룩 ᄀᆞᆯ곡 ᄒᆞ는 옛날 정미소엔 헨에 쪼끌락 뭐 헤영 ᄒᆞ민, 정미소에서 옛날 물방앗간 홀 때 보리 강 ᄀᆞᆯ앙 오듯, 그디 가민.(그렇게 해서 그걸 뭐 해서 하면 조 갈고 벼 갈고 하는 옛날 정미소엔 해서 쪼끄만 뭐 해서 하면, 정미소에서 옛날 물방앗간 할 때 보리 가서 갈아서 오듯, 거기 가면.)

38) '덩드렁마께'란 짚이나 대 따위를 두드리는 방망이를 말한다. = 던드렁마께

103025 @ 예.(예.)

103025 #2 정미소엔 헤근에 그런 것도 골아줘.(정미소라고 해서 그런 것도 갈아줘.)

103025 @ 게민 그 껍데기랑 알이랑 분리시켜줘마씸?(그러면 그 겨랑 쌀이랑 분리시켜줘요?)

103025 #2 어.(어.)

103026 @ 좁쌀로는 주로 뭐 헤먹엇수과? 보리랑 서껑 밥도 헤먹엇덴 허고, 다른 거 뭐헌 거 엇수과?(좁쌀로는 주로 뭐 해먹었습니까? 보리랑 섞어 밥도 해먹었다고 하고, 다른 거 뭐한 거 없습니까?)

103026 #2 좁쌀로 뭐 무시거, 밥 주로 밥헤먹고. 희린좁쏠이엔 헤근에 껌은 거.(좁쌀로 뭐 무엇, 밥 주로 밥해먹고. 차조라고 해서 검은 거.)

103026 @ 예.(예.)

103026 #2 그건 ᄒᆞ민 밥도 헤먹주마는 떡도 헹 먹고.(그건 하면 밥도 해먹지만 떡도 해서 먹고.)

103026 @ 그걸로 감주나 술은 안 담가먹엇수과?(그걸로 감주나 술은 안 담가먹었습니까?)

103026 #2 감주보다는 엿 달련 먹엇주 엿.(감주보다는 엿 달려서 먹었지 엿.)

102026 @ 엿 덜 헤근에예? 엿 헐 땐 어떵 만들앗수과?(엿 들 해서요? 엿 할 땐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03026 #2 엿 헐 땐 그 희린좁쏠헤근에 밥ᄒᆞ곡, 골, 보리로 헤근에 영 집이서 요만큼 나게시리.(엿 만들 땐 그 차조해서 밥하고, 엿기름, 보리로 해서 이렇게 집에서 요만큼 나게끔.)

103026 @ 예.(예.)

103026 #2 골헤근에, 이제도 골 나왐주.(엿기름해서, 이제도 엿기름 나오지.)

103026 @ 보리 골을 뭐렌 골아낫수과?(엿기름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103026 #2 골.(엿기름.)

103026 @ 그냥 골이렌예?(그냥 엿기름이라고요?)

103026 #2 응.(응.)

103026 @ 보리골 만들엉 그걸로?(엿기름 만들어서 그걸로?)

103026 #2 그걸로 밥헤근에 골헤영 ᄒᆞ끔 놔두민 그것이 밥이 다 삭아저. 골 집어놓민.(그걸로 밥해서 엿기름해서 조금 놔두면 그것이 밥이 다 삭아져. 엿기름 집어놓으면.)

103026 @ 예.(예.)

103026 #2 경헹 그거 막 짜근에 거 물 딸리면 엿 뒈어.(그렇게 해서 그거 막 짜서 거 물 달이면 엿 되어.)

103026 @ 아.(아.)

103027 @ 조에도 보리처럼 찝이 나잖아예? 조칩예?(조에도 보리처럼 짚이 나잖

아요? 조 짚요?)

103027 #2 어.(어.)

103027 @ 그 조찝들은 뭘로 사용헷수과?(그 조짚들은 뭐로 사용했습니까?)

103027 #2 조칩은 불 때는 데는 불 때곡. 주로 불 때는 디허곡 저 쉐덜 멕이고.(조 짚은 불 때는 데는 불 때고. 주로 불 때는 데하고 저 소들 먹이고.)

103027 @ 쉐덜 멕이고예?(소들 먹이고요?)

103028 @ 조 농사 지으멍 뭐 특별나게시리 뭐 막 기억나는 거 엇수과?(조 농사 지으면서 뭐 특별나게 뭐 막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103028 #2 조 농사지으멍 특별헌 거 무시거 기자 잘 뒈시민 허는 마음으로 으, 지어근에 ᄒᆞ민 잘 뒘도 ᄒᆞ곡.(조 농사지으면서 특별한 거 무엇 그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으, 지어서하면 잘 되기도 하고.)

103028 @ 그 조를 팔기도 헨마씸?(그 조를 팔기도 했나요?)

103028 #2 안 풀아봐서.(안 팔아봤어.)

103028 @ 다 먹는 걸로예?(다 먹는 걸로요?)

103028 #2 음. 밧, 놈 다 주어돈에 쪼끔씩만 농사 지은난.(음. 밭, 남 다 주어서 쪼끔씩만 농사지으니.)

103028 @ 음. 먹을 걸로예? 경헷구나예?(음. 먹을 걸로요? 그랬군요?)

콩 농사

103029 @ 콩 농사헐 때도 따로 걸름 안 헤도 뒙니까?(콩 농사할 때도 따로 거름 안 해도 됩니까?)

103029 #2 콩 농사나 무시거나 이젠 헤도 그땐 비로가 하나도 엇일 때주게.(콩 농사나 무어나 이젠 해도 그땐 비료가 하나도 없을 때지.)

103029 @ 게난예. 콩 농사 허젠허민 어떤 준비가 필요헷수과?(그러게요. 콩 농사 하려하면 어떤 준비가 필요했습니까?)

103029 #2 콩 농산 콩 씨만 준비허민 뒈는 거. 밧 갈아근에 조 허는 식으로 기자.(콩 농사는 콩 씨만 준비하면 되는 거. 밭 갈아서 조 하는 식으로 그저.)

103029 @ 그 콩 씨도 작년에 나가 갈아난 콩 그거 놔뒀당 콩씨로 헷는지, 아니면 씨앗을 사당 헤신가예?(그 콩 씨도 작년에 내가 갈아난 콩 그거 놔뒀다가 콩 씨로 했는지, 아니면 씨앗을 사다가 했는가요?)

103029 #2 이녁 갈아난 거 놧당.(이녁 갈아난 거 놨다가.)

103029 @ 놧당예?(놨다가요?)

103029 #2 어, 존 거 허민.(어, 좋은 거 하면.)

103029 @ 콩 씨 중에서도 좋은 거마씸?(콩 씨 중에서도 좋은 거요?)

103029 #2 파란 거 존 거.(파란 거 좋은 거.)

103029 @ 파란 거 좋은 거 놔뒀다근에예?(파란 거 좋은 거 놔뒀다가요?)

103029 #2 어.(어.)

103029 @ 그 콩도 보면 콩나물 콩도 갈앗수과? 옛날에?(그 콩도 보면 콩나물 콩도 갈았습니까? 옛날에?)

103029 #2 아년.(안 했지.)

103029 @ 뒌장허는 콩예?(된장 하는 콩요?)

103029 #2 콩을 주로 하영 갈질 아녓주게.(콩을 주로 많이 갈질 안했지.)

103030 @ 콩도 조랑 마찬가지 뿌렷젠 허난 유월절 전에예?(콩도 조랑 마찬가지 뿌렸다고 하니 유월절 전에요?)

103030 #2 응, 그때 ᄀᆞ찌.(응, 그때 같이.)

103031 @ 콩밧에도 거름 안 헷수과?(콩밭에도 거름 안 했습니까?)

103031 #2 콩밧디도 걸름 헌 기억이 엇인디?(콩밭데도 거름 한 기억이 없는데?)

103032 @ 콩 씨 뿌릴 때도 그냥 조 씨 뿌리듯?(콩 씨 뿌릴 때도 그냥 조 씨 뿌리듯?)

103032 #2 좁씨 삐듯이.(조 씨 뿌리듯.)

103032 @ 기냥 막 삐영. 콩도 막 줏이게 나면?(그냥 막 뿌려. 콩도 막 빽빽하게 나면?)

103032 #2 뽑아부러.(뽑아버려.)

103032 @ 검질처럼 뽑아부럿수과? 다시 옮기지 않고예?(김처럼 뽑아버렸습니까? 다시 옮기지 않고요?)

103033 @ 콩밧은 검질 멧 번 멧수과?(콩밭은 김 몇 번 맸습니까?)

103033 #2 콩밧디도 검질 두 번 아니민 세 번이주게.(콩밭에도 김 두 번 아니면 세 번이지.)

103034 @ 콩밧딘 어떤 검질 낫수과?(콩밭엔 어떤 김이 났습니까?)

103034 #2 콩밧디도 여름철이난.(콩밭에도 여름철이어서.)

103034 @ 예.(예.)

103034 #2 검질메는 디가 여름철이난 조팟 검질이나 마찬가지.(김매는 데가 여름철이어서 조밭 김이나 마찬가지.)

103034 @ 마찬가지로예?(마찬가지로요?)

103034 #2 시지그랑[39]헌 거 검질이엔 헤사 쒜비듬 ᄀᆞ튼 거.('시지그랑'한 거 김이라고 해야 쇠비름 같은 거.)

103034 @ 음, 그땐 아이고 막 더운 때 어차피 다 기냥 골갱이로 멧잖아예?(음, 그땐 아이고, 막 더운 때 어차피 다 그냥 호미로 맸잖아요?)

103034 #2 골갱이로 메사.(호미로 매야.)

103035 @ 콩은 어떵 수확헷수과?(콩은 어떻게 수확했습니까?)

103035 #2 콩은 영 비는 것 ᄀᆞ라 콩 꺼끄는 거렌 ᄀᆞᆫ주게.(콩은 이렇게 비는 것 보고 콩 꺾는 거라고 말하지.)

103035 @ 게난예?(그러게요?)

---

39) '시지그랑'은 어지럽다는 뜻이다. 좀 시시하게 어지러운 것을 표현한 것 같다.

103035 #2 호미로 영 꺼껑.(낫으로 이렇게 꺾어서.)

103035 @ 예.(예.)

103035 #2 무꺼근에 그디서 밧디서 못허민 집에 앗당, 도께질 희여.(묶어서 그곳서 밭에서 못하면 집에 가져다가, 도리깨질 해.)

103035 @ 도께질예? 다, 콩은예?(도리깨질요? 다, 콩은요?)

103036 @ 콩은 아까 예기헌대로 메주콩.(콩은 아까 얘기한대로 메주콩.)

103036 #2 메주콩.(메주콩,)

103036 @ 콩은 다 메주로만 사용헷수과? 다른 용도론 사용 안 헷수과?(콩은 다 메주로만 사용했습니까? 다른 용도론 사용 안 했습니까?)

103036 #2 메주로 사용허곡, 그 콩으로 콩ᄂᆞ물도 놩 먹곡.(메주로 사용하고, 그 콩으로 콩나물도 놔서 먹고.)

103036 @ 아, 그 콩도 콩나물 뒈니까?(아, 그 콩도 콩나물 됩니까?)

103036 #2 어. 뒈여.(어. 되어.)

103037 @ 콩 거꺼난 다음에 콩대는 불 땟수과?(콩 꺾어난 다음에 콩대는 불 땠어요?)

103037 #2 불 때여.(불 때어.)

103038 @ 불 때영예? 콩 농사지을 때 다른 보리농사나 조 농사와 달라서 콩 농사지을 때 무슨 특별난 기억 엇수과?(불 땠어요? 콩 농사지을 때 다른 보리농사나 조 농사와 달라서 콩 농사지을 때 무슨 특별난 기억 없습니까?)

103038 #2 콩 농사지을 때는 조밧 헐 때 ᄀᆞ찌ᄒᆞ민 특벨히, 조 헤당 집 헤당 콩만 따로 헹 먹젠ᄒᆞ민 혼쪽 밧엽더레 콩만 쪼끔 영 헷주게.(콩 농사지을 때는 조밭 할 때 같이하면 특별히, 조 해다가 짚 해다가 콩만 따로 해서 먹으려고 하면 한쪽 밭 옆쪽에 콩만 쪼끔 이렇게 했지.)

103038 @ 음.(음.)

103038 #2 게난 경 신경쓰멍 무시거 뭔 헌거 셍각 안남신게.(그러니 그렇게 신경 쓰면서 무엇 뭐한 거 생각 안 난에.)

밭벼 농사

103039 @ 나룩 헷엇덴 헷잖아예?(벼 했었다고 했잖아요?)

103039 #2 음.(음.)

103039 @ 벼할 땐 어떤 준비를 먼저 헷나요?

103039 #2 나룩헐 땐 만약에 논이 벡 펭당 모가 얼마들 거허영, 나룩씨를 이녁 헤난 나룩씨를 멧 말 멧 뒈, 그런 식으로 펭당 멧 펭이민 이 씨가 멧 뒈 모종을 놔야 뒐 건가?(벼할 땐 만약에 논이 백 평당 모가 얼마들 거해서, 볍씨를 이녁 했던 볍씨를 몇 말 몇 되, 그런 식으로 평당 몇 평이면 이 씨가 몇 되 모종을 놔야 될 건가?)

103039 @ 예.(예.)

103039 #2 모종을 놓젠 ᄒᆞ민 논에 가근에 물 대영 논을 막 달롸.(모종을 놓으려고 하면 논에 가서 물 대서 논을 막 다뤄.)

103039 @ 예.(예.)

103039 #2 달롸놔근에 또 그디 폭나무.(다뤄놔서 또 거기 팽나무.)

103039 @ 예.(예.)

103039 #2 폭나무 썹 ᄀᆞ튼 거.(팽나무 잎 같은 거.)

103039 @ 예.(예.)

103039 #2 그걸 논에, 걸름이라.(그걸 논에, 거름이라.)

103039 @ 아.(아.)

103039 #2 그걸 헤다근에 그딜 막 불라. 사름으로 물 진박진박[40]ᄒᆞ게, 그거 ᄒᆞᆫ 다음에 이제 나룩씨를, 가근에 골루로 짝 뿌리민.(그걸 해다가 거길 막 밟아. 사람으로 물 '진박진박'하게, 그거 한 다음에 이제 볍씨를, 가서 골고루 쫙 뿌리면.)

103039 @ 예.(예.)

103039 #2 그 ᄒᆞ민, 논이 요거 전체에 심글 묘를 요만큼 놓주게.(그 하면, 논이 요거 전체에 심을 묘를 요만큼 놓지.)

103039 @ 예.(예.)

103039 #2 경ᄒᆞ민 그거 모 놔근에 이제 ᄒᆞᆫ 오십 일? 잇이민 그 모종을 뽑아.(그러면 그거 묘 놔서 이제 한 오십 일? 있으면 그 모종을 뽑아.)

103039 @ 예.(예.)

103039 #2 뽑아근에, 이 논을 다 달롸근에, 그 물 대여근에, 달룬 다음에 그 모종을 쭉쭉 뽑아근에, 다 심는 거라.(뽑아서, 이 논을 다 다뤄서, 그 물 대여서, 다룬 다음에 그 모종을 쭉쭉 뽑아서, 다 심는 거라.)

103039 @ 예.(예.)

103039 #2 영 모종 심글 땐 줄 영 치와근에 ᄒᆞ민 영영 영영 심어가주게. 그거 심으민 또 크는 사이에 검질, 검질은 메살룸[41]이엔 헤근에, 메를 영 살롸 준다 헤근에 메살룸, 그걸 세 번인가 네 번인가 헤줘.(이렇게 모종 심을 땐 줄 이렇게 쳐서 하면 이렇게이렇게 이렇게이렇게 심어가지. 그거 심으면 또 크는 사이에 김, 김은 '메살룸'라고 해서, 모를 이렇게 살려 준다 해서 '메살룸', 그걸 세 번인가 네 번인가 해줘.)

103039 @ 음.

103039 #2 이렇게 이렇게 굽어근에 나룩 요만큼 도살민 나룩 싱거근에 묘종 싱경 도살민 요런 사이로 영영영영 검질메듯 검질메는 거. 메살룸이엔 헤근에 그거 두 번 세 번 헤야 뭴 거.(이렇게 이렇게 굽어서 벼 요만큼 도사리면 벼 심어서 모종 심어 도사리면 요런 사이로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김매듯 김매는 거. '메살룸'이라고 해서 그거 두 번 세 번 헤야 될 거.)

---

40) '진박진박'은 질퍽하고 진득한 상태를 말하는 듯하다.

41) '메살룸'은 김을 매거나 모를 솎거나, 또는 북을 올리어 모를 살리는 일을 말한다.

103039 @ 아. 경헹 땅이 ᄒᆞ끔 부드럽게마씸?(아, 그렇게 해서 땅이 조금 부드럽게요?)

103039 #2 응.(응.)

103039 @ 아, 경헷구나예?(아, 그렇게 했군요?)

103040 @ 벼 갈 때는 계절이 언제엿수과?(벼 갈 때는 계절이 언제였습니까?)

103040 #2 논? 나룩 갈 때?(논? 벼 갈 때?)

103040 @ 예.(예.)

103040 #2 나룩 갈 때도 마찬가지주게. 유월절 전이 헤근에.(벼 갈 때도 마찬가지지. 유월절 전에 해서.)

103040 @ 그믄 나룩 갈 때나 조 갈 때나 거의 비슷허게?(그러면 벼 갈 때나 조 갈 때나 거의 비슷하게?)

103040 #2 비슷허게.(비슷하게.)

103040 @ 아이고, 게민 잘도 바쁘키여예?(아이고, 그러면 잘도 바쁘겠네요?)

103040 #2 나룩이 ᄒᆞ끔 빨르주.(벼가 조금 빠르지.)

103043 @ 검질은 언제 멥니까? 멧 번이나 메마씸?(김은 언제 맵니까? 몇 번이나 매나요?)

103043 #2 논에?(논에?)

103043 @ 예.(예.)

103043 #2 검질 아까 ᄀᆞᆯ은 거. 메살룸이엔, 긁어근에.(김 아까 말한 거. '메살룸, 긁어서.)

103043 @ 아, 그거 허는 거. 검질도 뽑고 땅도 부드럽게 헤지고.(아, 그거 하는 거. 김도 뽑고 땅도 부드럽게 해지고.)

103044 #2 어, 어. 검질, 물하르방낭이엔 헤근에 나플나플헌 거 연꽃추룩 헌 검질이 나주게, 논엔.(어, 어. 김, 물여뀌라고 해서 나플나플한 거 연꽃처럼 한 김이 나지, 논엔.)

103044 @ 예.(예.)

103043 #2 그걸 요멘썩 날 때에 영 영 허멍 그걸 다 메주는 거.(그걸 요만씩 날 때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걸 다 매주는 거.)

103043 @ 그믄 여기도 계속 이 나룩헐 때도 물을 계속 육지에 논처럼 물을 계속 잇어야 뒈는 거마씸?(그러면 여기도 계속 이 벼할 때도 물을 계속 육지의 논처럼 물을 계속 있어야 되는 건가요?)

103043 #2 물은 계속 잇당 ᄒᆞᆫ 시월 달, 하튼 ᄒᆞᆫ 구월 달쯤 나룩농사를 거둡게 뒈면은 농사 거둡기 ᄒᆞᆫ 이십일 전에는 물 안 대주게.(물은 계속 있다가 한 시월 달, 하여튼 한 구월 달쯤 벼농사를 거두게 되면 농사 거두기 한 이십일 전에는 물 안 대주게.)

103043 @ 게문 마른 밧벼렌 헤도 실질적으로는 논에서 허는 거나 마찬가지여예?(그러면 마른 밭벼라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논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103043 #2 ᄆᆞ른 밧디 허는 건 출나룩이렌 헤근에 석상베[42]엔 허잖아.(마른 밭에 하는 건 찰벼라 해서 '석상베'라 하잖아.)

103043 @ 아, ᄆᆞ른 밧디 허는 거는.(아, 마른 밭에 하는 거는.)

103043 #2 틀려. 석상베엔 헤근에 찹쌀.(틀려. '석상베'라 해서 찹쌀.)

103043 @ 아, 저가 물어보는 건 사실은예? ᄆᆞ른 밧디 나는 그 나룩을 저기.(아, 저가 물어보는 건 사실은요? 마른 밭에 나는 그 벼를 저기.)

103043 #2 석상베엔 헤근에 춥쏠로 나오는 거주 그건.('석상베'라고 해서 찹쌀로 나오는 거주 그건.)

103043 @ 예. 그건 안 헤밧수과?(예. 그건 안 해봤습니까?)

103043 #2 그건 안 헤반.(그건 안 해봤지.)

103043 @ 게민 그냥 저 나룩으로 가게에?(그러면 그냥 저 벼로 가지요?)

103044 @ 검질은 무시거 납니까?(김은 뭐가 납니까?)

103044 #2 검질? 논에는 주로 뭐냐허면 주로 물하르방낭이엔 헤근에.(김? 논에는 주로 뭐냐면 주로 물여뀌라고 해서.)

103044 @ 아까 그거예?(아까 그거요?)

103044 #2 응, 연꽃 비슷헌 나무 요만썩 쪼작쪼작 나고, 또 논에 나는 검질이 고노쿨, 고노쿨이엔 헤근에 논에 잘 나주게.(응, 연꽃 비슷한 나무 요만씩 뾰족뾰족 나고, 또 논에 나는 김이 닭의장풀, 닭의장풀이라고 해서 논에 잘 나지.)

103044 @ 예, 아.(에, 아.)

103044 #2 그런 거.(그런 거.)

103045 @ 나룩을 수확헐 때, 건 어떵 헙니까?(벼를 수확할 때, 그건 어떻게 합니까?)

103045 #2 수확헐 땐 막 쉬워, 나룩은.(수확할 땐 막 쉬워, 벼는.)

103045 @ 아, 예.(아, 예.)

103045 #2 나룩, 만약에 다 익엇다 허민 나룩을, 가근에 비는 것도 막 좋고, 아장 비어도 뒈곡, 굽엉 비어도 뒈곡.(벼, 만약에 다 익었다 하면 벼를, 가서 베는 것도 막 좋고, 아장 베어도 되고, 굽어서 베어도 되고.)

103045 @ 음.(음.)

103045 #2 그걸 막 헤여근에 비어놓민. 오늘 비민 넬, 넬 강 홀타.(그걸 막 해서 베어놓으면 오늘 베면 내일 가서 훑아.)

103045 @ 음.(음.)

103045 #2 사람 손으로. 기계로는 얼마 저, 우린 기계로 헐 때는 흔엇이 뭐 헤밧주만, 손으로 홀타근에, 그거 영영 홀타도 무신 나룩낭뎅이엣 거 떨어진 검질덜이주 무신 ᄀᆞ시락이 이시나 무시건 엇어.(사람 손으로. 기계로는 얼마 저, 우린 기계로 할 때는 한없이 뭐 해봤지만, 손으로 훑아서, 그거 이렇게이렇게 훑아도 무슨 볏대에 거 떨어진 김들이지 무슨 까끄라기 있거나 무슨 건 없어.)

---

42) '석상베'는 찰기가 있는 밭벼의 한 종류를 말한다.

103045 @ 음, 예.(음, 예.)

103045 #2 게민 그거 영영 불령.(그러면 그거 이렇게이렇게 불려서.)

@ 아이고, 오랏수과?(강진우 어른 외출에서 돌아옴)(아이고 오셨습니까?(강진우 어른 외출에서 돌아옴.))

103045 #2 나중에 비어놔근에 ᄒᆞ민 저 뭐니, 여물 안 든 거.(나중에 베어놔서 하면 저 뭐니, 여물 안 든 거.)

103045 @ 아, 예.(아, 예.)

103045 #2 줄레옌 허주게. 줄레를 거 ᄇᆞ름에 불려근에 처내어. 거 네비동 기냥 가마스에 담을 거난.(쭉정이라고 하지. 쭉정이를 거 바람에 불려서 쳐내어. 거 내버려서 그냥 가마니에 담을 거니까.)

103045 @ 예.(예.)

103045 #2 나룩은 장만허기도 쉬운 거.(벼는 장만하기도 쉬운 거.)

103045 @ 완전히 곤쏠로 만들젠 허민?(완전히 흰쌀로 만들려고 하면?)

103045 #2 곤쏠로 만들젠 ᄒᆞ민 왕, 또 방앗간에 가살 거주.(흰쌀로 만들려고 하면 와서, 또 방앗간에 가얄 거지.)

103045 @ 아, 방앗간에 가살 거구나예? 따로 도께질 ᄀᆞ튼 건 안 허고예?(아, 방앗간에 가얄 거군요? 따로 도리깨질 같은 건 안 하고요?

103045 #2 도께질은 아녀고. 그냥 홀타근에.(도리깨질은 안하고. 그냥 홅아서.)

103045 @ 옛날에는 쏠이 막 귀한 때라부난.(옛날에는 쌀이 아주 귀한 때여서.)

103045 #2 음.(음.)

103046 @ 헤근에 이걸 집에서 기냥 밥 헹 먹엇수과?(해서 이걸 집에서 그냥 밥해서 먹었습니까?)

103046 #2 집에서 밥헹 먹는 사름도 잇곡, 한 사름은 폼도 허곡.(집에서 밥해서 먹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은 팔기도 하고.)

103046 @ 음, 주로 어떵 헷수과? 삼춘넨.(음, 주로 어떻게 했습니까? 삼촌넨.)

103046 #2 우린, 우리 먹으난 존 거.(우린, 우리 먹으니까 좋은 거.)

103046 @ 떡 ᄀᆞ튼 거 만들 땐?(떡 같은 거 만들 땐?)

103046 #2 떡 멘들앙 제서 때 허곡.(떡 만들어서 제사 때 하고.)

103047 @ 찍 잇잖아예? 나룩찍. 찍은 뭘로 사용헷수과?(짚 있잖아요? 볏짚. 짚은 무엇으로 사용했습니까?)

103047 #2 찝은 나룩찝이 젤 이용허는 것이 좋앗주게.(짚은 볏짚이 젤 이용하는 것이 좋았지.)

103047 @ 그때도 나룩찝이렌 헷수과?(그때도 볏짚이라고 했습니까?)

103047 #2 나룩찍.(볏짚.)

103047 @ 찍이라고예? 나룩찍?(짚이라고요? 볏짚?)

103047 #2 응, 그거는 기냥 뭐헐 때에, 이 우리가 무끔을 허젠ᄒᆞ민 그 나룩찍 가지고 이렇게 께를 털어근에.(응, 그거는 그냥 뭐할 때에, 이 우리가 묶음을 하려

고하면 그 볏짚 가지고 이렇게 매끼를 꼬아서.)

103047 @ 예.(예.)

103047 #2 털어근에 요만큼씩 무껑놧당 무시거 무끌 거 잇이민 그걸 가저당 무끄곡, 나룩찍이 젤 귀허게 이 저 뭐냐 풍체나 뭐 ᄇᆞ름막이 홀 때도.(꼬아서 요만큼씩 묶어서 놨다가 뭐 묶을 거 있으면 그걸 가져다가 묶으고, 볏짚이 젤 귀하게 이 저 뭐냐 차양이나 뭐 바람막이 할 때도.)

103047 @ 풍체? 풍체가 무시거꽈?(차양? 차양이 무슨 건가요?)

103047 #2 영 ᄇᆞ름막이 홀 때 이서.(이렇게 바람막이 할 때 있어.)

103047 @ 예, 예.(예, 예.)

103047 #2 경ᄒᆞ민 그걸 영 여꺼근에 그걸로 영 둘레헤근에 ᄇᆞ름막이도 ᄒᆞ고, 옛날 어른덜은 미신 항아리에 뭐 담아근에 뭐 영 의지허젠ᄒᆞ민 그거 ᄂᆞ람지 여껑, 영 항아리 둘룸도 ᄒᆞ곡.(그러면 그걸 이렇게 엮어서 그걸로 이렇게 둘레해서 바람막이도 하고, 옛날 어른들은 무슨 항아리에 뭐 담아서 뭐 이렇게 의지하려고하면 그거 이엉 엮어서, 이렇게 항아리 두르기도 하고.)

103047 @ 예. 또 그거?(예. 또 그거?)

103047 #2 그거 헤여근에ᄒᆞ민 하르방덜 이신 땐 그거 깨끗이 처낭 춤, 던드렁마께로 막 뚜두려.(그거 해서하면 할아버지들 이신 땐 그거 깨끗이 친 다음 참, 방망이로 막 뚜드려.)

103047 @ 예.(예.)

103047 #2 그 찍이라고 헤서 뚜두려근에 그걸로 베도 꼬곡.(그 짚이라고 해서 뚜드려서 그걸로 바도 꼬고)

103047 @ 음.(음.)

103047 #2 초신도 삼곡.(짚신도 삼고.)

103047 @ 예.(예.)

103047 #2 멍석도 즛곡.(멍석도 잣고.)

103047 @ 음.(음.)

103047 #2 이런 망텡이, 돗걸름 망텡이엔 그런 것도 줄곡.(이런 망태기, 돼지거름 망태기라고 그런 것도 결고.)

103047 @ 예.(예.)

103047 #2 그런 거 막 나룩찍은 이용을 많이 헤여.(그런 거 막 볏짚은 이용을 많이 해.)

103047 @ 아, 경헷구나예?(아, 그랬군요?)

고구마 농사

103049 @ 이젠 감저 농사에 대한 거 예기하게에? 삼춘도 ᄀᆞ치헤도 좋수다예. ᄀᆞ치예? 감저 농사 지을려면 이건 또 어떤, 어떤 준비가 필요헤 낫수꽈?(이젠 고구마농사에 대한 거 얘기하게요? 삼춘도 같이해도 좋습니다. 같이요? 고구마농사 지

으려면 이건 또 어떤, 어떤 준비가 필요했습니까?)

103049 #2 감저농사는 기냥 보리 비어난디, 감저농사 허젠 허민.(고구마농사는 그냥 보리 베어난데, 고구마농사 하려고 하면.)

103049 @ 예.(예.)

103049 #2 딱! 허게시리 보리농서 헤난 딜 ᄒᆞᆫ 번 갈아.(딱! 하게끔 보리농사 해난 데를 한 번 갈아.)

103049 @ 예.(예.)

103049 #2 쉐로. 헤영 갈아놓민, 그것이 ᄒᆞᆫ 초불 밧 갈앗다 헤근에 감저 심그젠 허민?(소로. 해서 갈아놓으면, 그것이 한 초벌 밭 갈았다 해서 고구마 심으려하면.)

103049 @ 예.(예.)

103049 #2 쉐 빌어근에, 이제 그걸 또 두 불 가는 거라. 갈민 그 우에 감저꿀 끈어당 기냥 꼽으민 뒈는 거.(소 빌어서, 이제 그걸 또 두 벌 가는 거라. 갈면 그 위에 고구마덩굴줄기 끊어다가 그냥 꼽으면 되는 거.)

103050 @ 음. 감저 심기 전에 판이 작업은 어떵 헷수과?(음. 고구마 심기 전에 이랑 작업은 어떻게 했습니까?)

103050 #2 심기 전에 작업을 게메, 보리 헤난 디 옛날 어른덜은 보리 갈아나민 기냥 초불에 갈아근에 심그는 디도 이섯주마는 초불 갈민 감저가 무신 걸름도 아녀 곡 뭐 헌덴허멍 똑 보릿그르[43]를 ᄒᆞᆫ 번 처음 갈아.(심기 전에 작업을 그러게, 보리 했던 데 옛날 어른들은 보리 갈아나면 그냥 초벌에 갈아서 심는 데도 있었지만 초벌 갈면 고구마가 무슨 거름도 안하고 뭐 한다면서 똑 '보릿그르'를 한 번 처음 갈아.)

103050 @ 예.(예.)

103050 #2 갈앙 놧다근에 감저 심그게 뒈민 또 가는 거라.(갈아서 놔두었다가 고구마 심게 되면 또 가는 거라.)

103050 @ 아, 갈민 저절로 이렇게 판이가 뒈는구나.(아, 갈면 저절로 이렇게 이랑이 되는구나.)

103050 #2 응.(응.)

103050 @ 아유, 난 그 셍각 못헤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물어본 거예? 아이고, 아이고, 미안허우다. 알아지쿠다. 이제는.(아유, 난 그 생각 못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물어본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알아지겠네요. 이제는.)

103050 #2 밧을 갈민 판이가 올라오는 거.(밭을 갈면 이랑이 올라오는 거.)

103050 @ 게난. 그걸 제가 몰라난 거예. 콩이나 조 갈 때 유월절 전에 꼭 ᄀᆞ찌 갈고예?(그러니까. 그걸 제가 몰라난 거예요. 콩이나 조 갈 때 유월절 전에 꼭 같이 갈고요?)

103050 #2 응.(응.)

103051 @ 고구마 밧에 걸름은 따로 나중엔 안 주엇수과?(고구마 밭에 거름은

43) '보릿그르'란 보리를 베어 버리고 난 밑동 또는 그 밭을 말한다.

따로 나중엔 안 주었습니까?)

103051 #2 그땐 비로 엇인 때난에 그냥.(그땐 비료 없을 때니까 그냥.)

103052 @ 예, 줄기는 그냥 끊엉 심엇덴 헷고에?(예, 줄기는 그냥 끊어서 심었다고 했고요?)

103052 #2 응.(응.)

103053 @ 감저 밧디 검질은 멧 번 멧수과?(고구마 밭에 김은 몇 번 맸습니까?)

103053 #2 혼 번.(한 번.)

103053 @ 아, 혼 번만 멧수과?(아, 한 번만 맸습니까?)

103053 #2 혼 번 메는 체 허영.(한 번 매는 체 해.)

103053 @ 무사 혼 번만 메는 체 헷수과?(왜 한 번만 매는 체 했습니까?)

103053 #2 혼 번 메곡. 그때는 무사냐허민 감저를 많이 들렌 쉐 빌어근에.(한 번 매고. 그때는 왜냐하면 고구마를 많이 들라고 소 빌어서.)

103053 @ 예.(예.)

103053 #2 영 고랑으로 올리주게. 꿀을 영 번어시민 앞이 고랑 올리는 쉐보단 먼저 앞이서 줄 떼영 올려불민, 이 고랑을 중경中耕[44]이엔 헤근에.(이렇게 고랑으로 올리지. 줄기를 이렇게 뻗었으면 앞이 고랑 올리는 소보다 먼저 앞에서 줄기 떼어서 올려버리면, 이 고랑을 중경이라고 해서.)

103053 @ 예.(예.)

103053 #2 중경, 검질 메는 식으로 경 헤놩, 검질 혼 번 메민 뒈는 거.(중경, 김 매는 식으로 그렇게 해놔서, 김 한 번 매면 되는 거.)

103053 @ 아.(아.)

103053 #2 감저 밧디 경 못 헌 사름은 혼 번도 메곡, 두 번도 메곡. 메영 마는 사름도 잇고.(고구마 밭에 그렇게 못 한 사람은 한 번도 매고, 두 번도 매고. 매고 마는 사람도 있고.)

103054 @ 검질 종류는?(김 종류는?)

103054 #2 검질 종류는 여름이난 무시거 제완지ᄒᆞ곡, 쒜비눔허곡.(김 종류는 여름이니까 뭐 바랭이하고, 쇠비름하고.)

103055 @ 감저 수확은 언제 헷수과? 수확 헌 차례 ᄀᆞᆯ아줍서.(고구마 수확은 언제 했습니까? 수확 한 차례 말해주세요.)

103055 #2 낼 감저 파젠허민, 그땐 전분공장덜 이실 때주게.(낼 고구마 파려고 하면, 그땐 전분공장들 이실 때지.)

103055 @ 예.(예.)

103055 #2 게민, 전분공장에 가근에 마다리나, 그 담아근에 풀 거.(그러면, 전분공장에 가서 마대나, 그 담아서 팔 거.)

103055 @ 예.(예.)

---

44) '중경中耕'은 작물이 자라는 도중에 김을 매어 두둑 사이의 골이나 그 사이의 흙을 부드럽게 하는 일을 말한다.='사이갈이'

103055 #2 경헹 앗다근에 놓곡. 꿀을 걷젱 ᄒᆞ민 낼 풀 거민 오널 강 걷어.(그렇게 해서 가져다가 놓고. 줄기를 걷으려고 하면 낼 팔 거면 오늘 가서 걷어.)

103055 @ 아, 꿀을 먼저.(아, 줄기를 먼저.)

103055 #2 응, 꿀을 먼저 걷어 놩, 꿀 걷어근에 메칠 안 파도 어떵 안 헐 거난, 꿀 걷어근에 파멍 걸 마다리에 담아근에 전분공장 풀멍 헤낫주.(응, 줄기를 먼저 걷어 놔서, 줄기 걷어서 며칠 안파도 어떻게 안 할 거니까 줄기 걷어서 파면서 그걸 마대에 담아서 전분공장 팔면서 해났지.)

103056 @ 그걸 가저근에 뻿데기를 만들거나 그런 건 엇엇수과?(그걸 가져서 절간고구마를 만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103057 #2 먹고 싶은 건 뻿데기 먹을 건 아저오곡 뻿데기로도 풀아낫주게.(먹고 싶은 건 절간고구마 먹을 건 가져오고 절간고구마로도 팔아났지.)

103058 @ 감저꿀들은 나중에 어떵 헷수과?(고구마덩굴줄기들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103058 #2 감저꿀들은 ᄆᆞᆯ랴근에 쉐촐로.(고구마덩굴줄기들은 말려서 소꼴로.)

103058 @ 쉐촐로에?(소꼴로요?)

103058 #2 무사니 ᄒᆞ민 아까 나룩찍 그걸로 이걸 무끄는 고리 만들어 놧당, 감저꿀 무끄는 걸로 나갓주게.(왜냐하면 아까 볏짚 그걸로 이걸 묶는 고리 만들어 놔뒀다가, 고구마 덩굴 묶는 걸로 나갔지.)

103058 @ 예. 경헷구나예?(예. 그랬군요?)

103059 @ 감저 농사지으멍 특별허게 기억 나는 거 엇수과?(고구마 농사지으면서 특별하게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103059 #2 감저 헹 안 들민 에이구, 감저도 안 들엇저 허곡, 하영 나오민 감저 욜로 요레헌 거 잘 들어근에 하영 나왐저, 영 ᄒᆞ곡 허주 무시거.(고구마 해서 안 들면 에이고, 고구마도 안 들었다 하고, 많이 나오면 고구마 요리로 요리한 거 잘 들어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하고 하지 무슨.)

103059 @ 하영 들어실 땐 그걸로 특별난 다른 건 안 헤봔마씨?(많이 들었을 땐 그걸로 특별난 다른 건 안 해봤나요?)

103059 #2 다른 거 무시거? 감저헤근에 공장에 못 풀 땐 날 존 땐, 감저 옛날 기계?(다른 거 무엇? 고구마해서 공장에 못 팔 땐 날 좋은 땐, 고구마 옛날 기계?)

103059 @ 예.(예.)

103059 #2 여영 돌리는 거 헤영 밧디서 뻿데기도 돌려나곡. 겡 헹 뻿데기로도 풀곡 게.(이렇게 돌리는 거해서 밭에서 절간고구마도 돌려나고. 그렇게 해서 절간고구마로도 팔고.)

103059 @ 그 기계 나오기 전에는 칼로 썰어낫수꽈?(그 기계 나오기 전에는 칼로 썰었습니까?)

103059 #2 기계 나오기 전인 우리 농사 아녓주.(기계 나오기 전엔 우리 농사 안 했지.)

103059 2 아, 기꽈?(아, 그래요?)

기타 농사

103060 @ 혹시 수박도 갈아낫수꽈?(혹시 수박도 갈았습니까?)

103060 #2 아니.(아니.)

103060 @ 안 헤봔마씨?(안 해봤나요?)

103061 @ 참웨 농사도 안 헤보고마씨?(참외농사도 안 해보고요?)

103061 #2 안 헤보고.(안 해보고.)

103062 @ 고추는 심어낫지예?(고추는 심어났지요?)

103062 #2 고친 심어도 풀고치 우리 먹을 거, 하르방[45], 멧 개 심것당.(고춘 심어도 풋고추 우리 먹을 거, 하르방, 몇 개 심었다가)

103063 @ 배추 ᄀᆞ튼 건 어느 정도 갈아낫수과?(배추 같은 건 어느 정도 갈았습니까?)

103063 #2 배추, 우리 먹을 건 늘 갈안 먹엇주.(배추, 우리 먹을 건 늘 갈아서 먹었지.)

103063 @ 김장도 그냥 그걸로?(김장도 그냥 그걸로?)

103063 #2 김장도 기자 이녁 먹을 거 쪼끔씩.(김장도 그저 이녁 먹을 거 쪼끔씩)

103063 @ 무우도예?(무도요?)

103064 #2 응.(응.)

103065 @ 지슬은 안 헤낫수꽈?(감자는 안 했습니까?)

103065 #2 지슬도 이녁 먹는 거.(감자도 이녁 먹을 거.)

103065 @ 지슬농사는 감저하고 조금 달랏지예?(감자농사는 고구마하고 조금 달랐지요?)

103065 #2 지슬은 일찍 심어야 뒈고.(감자는 일찍 심어야 되고.)

103065 @ 이건 언제쯤 심엇수꽈?(이건 언제쯤 심었습니까?)

103065 #2 지슬은 정월달에.(감자는 정월에.)

103065 @ 예.(예.)

103065 #2 하튼 양력으로 이월 달에 심어야. 이월 달에 심어근에 유월 달에 파먹고.(하여튼 양력으로 이월 달에 심어야. 이월 달에 심어서 유월 달에 파먹고.)

103065 @ 예.(예.)

103065 #2 또 유월 달에 심엉 십이월 달에 파먹고. 두 번.(또 유월 달에 심어 십이월 달에 파먹고. 두 번.)

103065 @ 아, 지슬은 경 헷구나예?(아, 감자는 그렇게 했군요.)

103066 @ 혹시 피 농사지어낫수꽈?(혹시 피 농사지었습니까?)

103066 #2 그런 것도 아녀보고.(그런 것도 안 해보고.)

---

45) '하르방' 할아버지를 말한다. 여기서는 화자의 남편을 칭한다.

103066 @ 모믈?(메밀?)

103066 #2 모믈도 안 헤보고.(메밀도 안 해보고.)

103066 @ 혹시 이 동네 모믈 헷던 사름 엇수꽈? 이 볼목리에선?(혹시 이 동네 메밀 했던 사람 없습니까? 이 보목리에선?)

103066 #2 오래 뒈부난 알아지크라? 모믈 깔아난 어른덜은 다 죽어부럿주 이젠.(오래 돼버려서 알아지겠나? 메밀 갈아난 어른들은 다 죽어버렸지 이젠.)

103068 @ 담배는 안 헤낫수과?(담배는 안 했습니까?)

103068 #2 담베도 헤난 거 닮은디 뭐가 뭔지 몰르큰게양?(담배도 했던 거 닮은데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103068 @ 담베 헤낫수과?(담배 했습니까?)

103068 #1 담베 재배 헤난.(담배 재배 해난.)

103068 @ 헤낫수과?(했습니까?)

103068 #1 재배헹 풀아난.(재배해서 팔아났지.)

103068 @ 헤난 거 삼춘 기억남수과?(해난 거 기억 삼촌 기억납니까?)

103068 #1 엽 담베로.(옆 담배로.)

103068 @ 예.(예.)

103068 #1 정부에서 여기 적시라고.(정부에서 여기 몫이라고.)

103068 @ 그게 박정희 정권 때마씨? 이승만 정권 때마씨?(그게 박정희 정권 때요? 이승만 정권 때요?)

103068 #1 아니, 그 전에. 해방 후에 정도?(아니, 그 전에. 해방 후에 정도?)

103068 @ 해방 후예마씨?(해방 후요?)

103068 #1 담벨 집집마다 담베헤가지고 거 말려가지고 좀 이서 풀고.(담밸 집집마다 담배해가지고 거 말려가지고 좀 있어 팔고.)

103068 @ 일제 때마씨?(일제 때요?)

103068 #2 일제 땐 넘은 후예.(일제 땐 넘은 후에.)

103068 #1 넘은 후예.(넘은 후에.)

103068 #2 우리 저 ᄀᆞ레 앗다 논 걸로 이 조고고리영 ᄀᆞᆯ 때가 이승만 대통령 때꽈? 박정희 때꽈?(우리 저 맷돌 가져다 놓은 걸로 이 조 이삭이랑 갈 때가 이승만 대통령 땐가요? 박정희 땐가요?)

103068 #1 해방 직후예.(해방 직후에.)

103068 @ 해방 직후예.(해방 직후에.)

103068 @ 오늘 고맙수다. 오늘은 요기까지 허쿠다예.(오늘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4. 들일

소 기르기

104001 @ 소 길러낫수과?(소 길렀습니까?)

104001 # 길러낫주게.(길렀지.)

104001 @1 소 길럿이민 어떤 식으로 길럿인지예? 그리고 또 소를 집으로 데려왓을 때 잇엇던 곳을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옛날엔 소가 아니라.(소 길렀으면 어떤 식으로 길렀는지요? 그리고 또 소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 있었던 곳을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옛날엔 소가 아니라.)

104001 #1 쉐, 쉐.(소, 소.)

104001 @ 쉐라 헤신디, 쉐를 길르는 거에 대헤가지고 시작부터 밧갈이까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쉐는 어떵 길럿수과? 송아지는 어떵 구입헷으며.('쉐'라 했는데, 소를 기르는 것에 대해가지고 시작부터 밭갈이까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는 어떻게 길렀습니까? 송아지는 어떻게 구입했으며.)

104001 #1 송아지는 우리가 그 쉐를 사가지고.(송아지는 우리가 그 소를 사가지고.)

104001 @ 예.(예.)

104001 #1 그 쉐 질루는 집은 쉐왕이라고 헤서 길르고.(그 소 기르는 집은 외양간이라고 해서 기르고.)

104001 @ 쉐왕예?(외양간요?)

104001 #1 또 겨울에는 그 쉐왕에서 풀 멕이고.(또 겨울에는 그 외양간에서 풀 먹이고.)

104001 @ 예.(예.)

104001 #1 여름에는 목장에 올리고.(여름에는 목장에 올리고.)

104001 #2 여름에는 목장에 올령 풀 멕이곡, 겨울에는 집에서 촐이엔 헌 건 조칩, 감저꿀, 또 산에서 팔월 달에 풀 베영 말랴근에.(여름에는 목장에 올려서 풀 먹이고, 겨울에는 집에서 꼴이라고 한 건 조짚, 고구마덩굴줄기, 또 산에서 팔월 달에 풀 베서 말려서.)

104001 @ 게, 그 풀은 뭐꽈?(그래, 그 풀은 뭡니까?)

104001 #2 풀, 기냥 산에 풀은 촐.(풀, 그냥 산에 풀은 꼴.)

104001 #1 기냥 촐이주. 쉐촐.(그냥 꼴이지. 소꼴.)

104001 @ 쉐촐예?(소꼴요?)

104001 #1 응.(응.)

104001 @ 쉐촐이면?(소꼴이면?)

104001 #2 새를 연결헐 때 비는 거주게. 쉐촐이엔 헤근에 ᄒᆞ낌.(띠를 연결할 때 베는 거지. 소꼴이라고 해서 조금.)

104001 @ 억새도 ᄀᆞ찌 비고마씸?(억새도 같이 베고요?)

104001 #1 억새도 비고.(억새도 베고.)
104001 #2 억새도 어릴 때.(억새도 어릴 때.)
104001 @ 그걸 비어다가?(그걸 베어다가?)
104001 #2 비어당 말랴근에, 영 집에다 눌 누렁놧당 겨울에 그거 주고.(베어다가 말려서, 이렇게 집에다 낟가리 쌓아놨다가 겨울에 그거 주고.)
104001 @ 예.(예.)
104001 #2 감저 신거나민 그 감젓줄 그거 무껏당 눌 누럿당 주국.(고구마 심어나면 그 고구마덩굴줄기 그거 묶었다가 낟가리 쌓았다 주고.)
104001 @ 예.(예.)
104001 #2 조 갈아난 거 조낭.(조 갈아난 것 조짚.)
104001 @ 조낭을 옛날에는 뭐렌 골앗수과?(조짚을 옛날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104001 #1 조칙.(조짚.)
104001 @ 조칙 거 쌓아놧당 겨울 동안예?(조짚 거 쌓아놨다가 겨울 동안요?)
104002 @ 키웟던 쉐 종류는 어떤 거 키워낫수과?(키웠던 소 종류는 어떤 거 키웠습니까?)
104002 #1 쉐는게 밧갈쉐[46]고 암쉐고 두 개, 두 가지로 허고.(소는 '밭갈소'고 암소고 두 개, 두 가지로 하고.)
104002 @ 밧갈쉐, 암쉐예?('밭갈소', 암소요?)
104002 #1 어.(어.)
104002 @ 털 색깔은 어떤 거라낫수과?(털 색깔은 어떤 거였습니까?)
104002 #2 노란 거.(노란 거.)
104002 #1 우리 질롸난 거?(우리 길러난 거?)
104002 @ 예.(예.)
104002 #1 우리 질롸난 거? 노란 거, 누린 거.(우리 길러난 거? 노란 거, 누린 거.)
104002 @ 밧갈쉐가?('밭갈소'가?)
104002 #2 밧갈이허는 거, 암쉐가 새끼 나는 거.(밭갈이하는 거, 암소가 새끼 나는 거.)
104002 @ 아까 숫소를 머렌 골앗수과?(아까 수소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104002 #1 밧갈쉐.('밭갈소'.)
104002 @ 밧갈쉐예? 혹시 뿔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그림으로 그려저지쿠과?('밭갈소'요? 혹시 뿔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그림으로 그려지겠습니까?)
104002 #1 우리 질루던 거?(우리 기르던 거?)
104002 @ 예, 예.(예, 예.)
104002 #1 우리 질루던 건 척박도레기[47]라고 이 뿔이 앞으로 안 나서 뒤로 난

46) '밧갈쉐'는 밭을 가는 데 부리는 소를 말한다. '밧'은 '밭', '쉐'는 '소'를 말한다.

거.(우리 기르던 건 '작박도리쉐'라고 이 뿔이 앞으로 안 나서 뒤로 난 거.)

104002 @ 아.(아.)

104002 #1 우리 질롸난 쉐가.(우리 길러난 소가.)

104002 그걸 척박도레기?(그걸 '작박도리쉐'?)

104002 #1 척박도레기, 뿔이 뒤로.('작박도리쉐', 뿔이 뒤로.)

104003 @ 쉐를 이용할 때 암쉐는 어떤데 이용헷고, 밧깔쉐는 어떤데 이용헷수과?(소를 이용할 때 암소는 어떤데 이용했고, '밭갈소'는 어떤데 이용했습니까?)

104003 #1 암쉐는 새끼 내우고 조팟 볼릴 때.(암소는 새끼 내우고 조밭 밟을 때.)

104003 @ 아, 조팟 볼릴 때.(아, 조밭 밟을 때.)

104003 #1 돗걸름 볼릴 때도 암쉐 숫쉐 어시 ᄀᆞ찌허고.(돼지거름 밟을 때도 암소 수소 없이 같이하고.)

104003 @ 아, 아.(아, 아.)

104003 #1 걸름 볼르고.(거름 밟고.)

104003 @ 그 다음엔 밧갈쉐를 주로?(그 다음엔 '밭갈소'를 주로?)

104003 #1 밧 갈고.(밭 갈고.)

104003 #1 돗걸름 볼를 때영 구르마 굴릴 때도 밧갈쉐가 허고.(돼지거름 밟을 때와 수레 굴릴 때도 '밭갈소'가 하고.)

104004 @ 그 소를 송아지 때부터 안 키와근에 만약에 쉐를 사오잖아예? 그면 그럴 때 어떵 길들엿수과?(그 소를 송아지 때부터 안 키워서 만약에 소를 사오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길들였습니까?)

104004 #2 거치를 쉐집이 허민. 키우는 사람이 좀 처음엔 심란헤도?(거취를 외양간에 하면. 키우는 사람이 좀 처음엔 심란해도?)

104004 @ 예.(예.)

104004 #2 나중 뒈어 가민 순하게 만들 수 잇주게.(나중 되어 가면 순하게 만들 수 있지.)

104004 @ 게, 어떵 만들앗수과?(그래,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04004 #2 가리키멍. 가리키멍 자기가 촐 줄때도 강 영 달레고.(가리키며. 가리키며 자기가 꼴 줄때도 가서 이렇게 달래고.)

104004 @ 예.(예.)

104004 #2 머리 쓸어주고. 또 만약에 기냥 겨울에는 집에 무껏당 물 멕이레 내에 가주게.(머리 쓸어주고. 또 만약에 그냥 겨울에는 집에 묶어두었다가 물 먹이러 내에 가지.)

104004 @ 예, 예.(예, 예.)

104004 #2 경헐 때 놈의 쉐 만나민 막 찔레[48]부뜨젠도 헤도 그걸 꼭 잡아근에

47) '척박도레기'는 '작박도리쉐'의 발화자의 다른 표현이다. '작박도리쉐'는 뿔이 뒤로 향한 수소를 말한다.

48) '찔레'는 소끼리 뿔로 받으며 싸우는 일을 말한다.

어떵형 강 멕영 왕.(그렇게 할 때 남의 소 만나면 막 '뿔로 받으며' 싸우려고도 해도 그걸 꼭 잡아서 어떻게 해서 가서 먹여서 와.)

104004 @ 예.(예.)

104004 #2 그 쉐막에 강 멜 때도 사름 ᄀᆞ뜨민 알아들으렌 다시는 경허지 말라, 허멍 영.(그 외양간에 가서 맬 때도 사람 같으면 알아들으라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104004 @ 말ᄀᆞᆯ아주고예?(말해주고요?)

104004 #2 응, 머리 쓸어 주멍 애기덜 달레는 식으로 경헤가민 ᄒᆞ끔 풀어지는 소도 잇고. 이 힘 이서 가민 더 건방지게 ᄂᆞᆷ의 쉐 봐지민, 나가 우리 쉐 무끄곡, 하르방[49]이 딴 사람이라, 딴 사람이민 소를 무꺼 가민, 둘이 쌉젠 ᄒᆞ민 우리가 겁나는 거라. 경헤근에 어떵 어떵 헤근에 물멕영 왕 ᄎᆞᆷ, 사름안티 달레듯 말 ᄀᆞᆯ으멍 촐도 주곡.(응, 머리 쓸어 주면서 애기들 달래는 식으로 그렇게 해가면 조금 풀어지는 소도 있고. 이 힘 있어 가면 더 건방지게 남의 소 봐지면, 나가 우리 소 묶고, 할아버지가 딴 사람이라, 딴 사람이면 소를 묶어 가면, 둘이 싸우려고 하면 우리가 겁나는 거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물 먹여서 와서 참, 사람에게 달래듯 말하며 꼴도 주지.)

104004 @ 예.(예.)

104004 #2 경헤근에 어떵 어떵 허당보민 질들여 가민 사람이민 자꾸 뭐 헤가민 풀어지듯이.(그렇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보면 길들여 가면 사람이면 자꾸 뭐 해가면 풀어지듯이.)

104004 @ 예. 그렇구나예? 쉐가 밧갈이할 때 라든가 돗걸름이나 그런 거 붋을 때도 필요헷지만, 필요하지 않은 그 때가 잇잖아예?(예. 그렇군요? 소가 밭갈이할 때라든가 돼지거름이나 그런 거 밟을 때도 필요했지만, 필요하지 않은 그 때가 있잖아요?)

104004 #2 않은 땐 겨울에.(않은 땐 겨울에.)

104004 @ 그럼 겨울에는 그냥 쉐왕에 그냥 내부러낫수과 아니면 들판에다 내부러낫수과?(그럼 겨울에는 그냥 외양간에 그냥 내버렸습니까? 아니면 들판에다 내버렸습니까?)

104004 #2 아니 쉐왕에.(아니, 외양간에.)

104004 #1 겨울에는 쉐왕에.(겨울에는 외양간에.)

104004 @ 그러면 옛날에 막 들판에 쉐 놓앙 키웟잖아예?(그러면 옛날에 막 들판에 소 놓아서 키웠잖아요?)

104004 #2 건, 여름.(건, 여름.)

104004 @ 건, 어떤 쉐꽈?(건, 어떤 솝니까?)

104004 #2 여름엔.(여름엔.)

104004 @ 여름엔 들판에 내불언마씨?(여름엔 들판에 내버려요?))

49) '하르방'은 할아버지를 말한다. 여기서는 남편이 아닌 이웃할아버지를 칭한다.

104004 #1 어.(어.)

104004 @ 들판에 내불 땐 우리 쉐만 그런 게 아니라?(들판에 내버릴 땐 우리 소만 그런 게 아니라?)

104004 #2 딴 사름들도.(딴 사람들도.)

104004 @ 다른 사람들도 다 ᄀᆞ치 갓다놧잖아예?(다름 사람들도 다 같이 갖다놨잖아요?)

104004 #1 어.(어.)

104004 @ 그 쉐를 관리 하는 사람을 뭐렌 골앗수과?(그 소를 관리 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104004 #1 케지기[50]. 목장을 케[51]라고 케 헷주게. 개인 케도 잇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하는 케도 잇고. 거기 관리하는 사름이 아까 케지기라고 헤서.('케지기'. 목장을 '케'라고 '케' 했지. 개인 케도 있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하는 '케'도 있고.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아까 '케지기'라고 했어.)

104004 @ 아, 케지기.(아, 케지기.)

104004 #1 그 사름안틔다가 자기네 쉐를 색깔은 어떤 거 다 예기헤 놓민 그 사람은 다 찍엇다가 누구 쉐가 아팟덴 허민 또 연락헤 주고.(그 사람한테 자기네 소를 색깔은 어떤 거 다 얘기해 놓으면 그 사람은 다 찍었다가 누구 소가 아팠다고 하면 또 연락해 주고.)

104004 @ 우리 제주도에서는 쉐태우리[52]렌 헤가지고 소 멕이레 다니는 사람들 잇섯잖아예? 삼춘네가 어릴 때 쉐테우리 직접해보진 안 헷수과?(우리 제주도에서는 '쉐태우리'라고 해가지고 소 먹이러 다니는 사람들 있었잖아요? 삼춘네가 어릴 때 쉐테우리 직접해보진 안 했습니까?)

104004 #2 헤봔.(해봤어.)

104004 @ 게민 할 때 놈의 소랑 ᄀᆞ치 봐줫수과?(그러면 할 때 남의 소랑 같이 봐줬습니까?)

104004 #2 응.(응.)

104004 @ 목장에 안 강?(목장에 안 가서?)

104004 #2 목장에 안 가근에 동네별로 소를 멧 개 허민.(목장에 안 가서 동네별로 소를 몇 개하면.)

104004 @ 예.(예.)

104004 #2 아침 딱 멧 사람이 조 짜근에 하루에 나가는 사람이 둘이 아니면 서이썩 조 짜근에 나가민.(아침 딱 몇 사람이 조 짜서 하루에 나가는 사람이 둘이 아니면 셋씩 조 짜서 나가면.)

104004 @ 예.(예.)

104004 #2 이 보목리 경우엔 어디 산이 엇주게.(이 보목리 경우엔 어디 산이 없

50) '케지기'는 공동 농경지를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51) '케'는 지역의 공동 농경지로 마을의 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땅을 말한다.
52) '쉐테우리'는 소떼를 돌보거나 키우는 사람을 말한다.

지.)

104004 @ 예.(예.)

104004 #2 게민 내에 강, 쉐 들이 몰아동, 우에 길에들 아잣당, 쉐가 저디까지 올라가민 이레 빠꾸로 몰앙 내비동 놈의 감자도 파먹고 경헤나서.(그러면 내에 가서, 소 들여 몰아넣고, 위에 길에 앉았다가, 소가 저기 까지 올라가면 이리로 뒤로 몰아서 내버려두고 남의 고구마도 파먹고 그렇게 해났어.)

104004 @ 그 내에 쉐들이 먹을 거 이서마씸?(그 내에 소들이 먹을 거 있었나요?)

104004 #2 어. 먹을 거 이서.(어. 먹을 거 있어.)

104004 @ 아, 내창[53] 안에마씸?(아, '내' 안에요?)

104004 #2 어.(어.)

104004 @ 여기선 내렌 헷수과 내창이렌 헷수과?(여기선 내라고 했습니까 '내창'이라고 했습니까?)

104004 #2 내창.('내창'.)

104004 @ 내창이렌 헷수과?('내창'이라고 했습니까?)

104005 @ 쉐는 보통 멧 살쯤 집에 왕 키웟수과, 아니믄 암쉐가 낳은 다음에 새끼부터 키웟수꽈?(소는 보통 몇 살쯤 집에 와서 키웠습니까, 아니면 암소가 낳은 다음에 새끼부터 키웠습니까?)

104004 #2 ᄒᆞ끔 큰 거 사단.(조금 큰 거 사다가.)

104005 @ ᄒᆞ끔 큰 거 사단예?(조금 큰 거 사다가요?)

104005 #2 우리 사오자마자 농사헐 때 썻이난.(우리 사오자마자 농사할 때 썼으니까.)

104005 @ 그때 혹시 멧 술이었던 거 기억 안 남수과? 쉐가 멧 술이엇던 거?(그때 혹시 몇 살이었던 거 기억 안 납니까? 소가 몇 살이었던 거?)

104005 #1 멧 술?(몇 살?)

104005 @ 쉐가 멧 술?(소가 몇 살?)

104005 #1 쉐는 저 세 술 뒈민 사릅이라고 허는디, 세 술은 사릅, 네 술짜리 ᄉᆞ년 뒌 거는 나릅, 보통 사릅부터 나릅ᄁᆞ지가 그 저 농사에 이용허는 거.(소는 저 세 살 되면 사릅이라고 하는데, 세 살은 사릅, 네 살짜리 사년 된 거는 나릅, 보통 사릅부터 나릅까지가 그 저 농사에 이용하는 거.)

104005 @ 아. 옛날에는 한 살도 한 살이렌 안 헤근에 뭐렌 ᄀᆞᆯ앗수과?(아. 옛날에는 한 살도 한 살이라고 안 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104005 #1 두 술 때는 다간, 두 술은 다간, 세 술은 사릅, 네 술은 나릅.(두 살 때는 다간, 두 살은 다간, 세 살은 사릅, 네 살은 나릅.)

104005 @ 그믄 보통 일헷던 게 사릅허고 나릅 때예?(그러면 보통 일했던 게 사릅하고 나릅 때요?)

---

53) '내창'은 내(川)와 냇고랑치를 통틀어서 말한다.

104005 #2 응.(응.)

104005 @ 그면 다섯 술은 머렌 골안마씸?(그러면 다섯 살은 뭐라고 말했나요?)

104005 #1 다섯 술 이상은 몰르고.(다섯 살 이상은 모르고.)

104005 @ 게민 그때 뒈면 다섯 술 뒈면 어떵 헷수과? 일허지 못하면?(그러면 그때 되면 다섯 살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일하지 못하면?)

104005 #1 늙어 가민 풀아불던가.(늙어 가면 팔아버리든가?)

104005 @ 푼다면 저기 고기용으로 풀아부는 거마씸? 다섯 술 뒈면예?(판다면 저기 고기용으로 팔아버리는 거요? 다섯 살 되면요?)

104005 #1 다슷 술 뒈고, 일곱 술도 뒈는디, 그때 보멍 이용 못하면 풀아부는 거고.(다섯 살 되고, 일곱 살도 되는데, 그때 보면서 이용 못하면 팔아버리는 거고.)

104005 @ 그믄 겨우 쉐를 이용헤 먹젠하믄 겨우 이년이나 삼년벳긔 못헹마씸?(그러면 겨우 소를 이용해 먹으려면 겨우 이년이나 삼년밖에 못해요?)

104005 #1 아니, 집이서 일 부릴 수 잇는 건 일곱 술도 뒈고.(아니, 집에서 일 부릴 수 있는 건 일곱 살도 되고.)

104005 @ 아, 게민 보통 일곱 술까진 허긴 헨예?(아, 그러면 보통 일곱 살까진 하긴 했네요?)

104005 #1 어, 어.(어, 어.)

104005 #2 겐디 다슷 술까진 일 실큿허고 ᄋᆞ서일굽 술 그 정도 뒈어 가민은 쉐장시들 와.(그런데 다섯 살까진 일 실컷 하고 예닐곱 살 그 정도 되어 가면 소장수들 와.)

104005 @ 아!(아!)

104005 #2 경허민 그 돈 하영 받아지민 풀앙 또 사곡 헴주게.(그러면 그 돈 많이 받아지면 팔아서 또 사고는 하지.)

104005 @ 아, 아.(아, 아.)

104005 #2 어린 쉐 갖고 왕 늑쉐 바꿔가기도 허고.(어린 소 갖고 와서 늙은 소 바꿔가기도 하고.)

104005 @ 바꿔가기도 허고예? 경 헷구나예? 다섯 술부터는 따로 이름 허는 게 엇고예? 나릅까지벳긔 엇고예?(바꿔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했군요? 다섯 살부터는 따로 이름 하는 게 없고요? 나릅까지밖에 없고요?)

104005 #1 그건 다 잊어부런. 걸 몰르크라.(그건 다 잊어버렸네. 그걸 모르겠어.)

104005 @ 이섯지만 잊어분 거우꽈?(있었지만 잊어버린 건가요?)

104005 #1 어.(어.)

104005 @ 이서나긴 헷수과? 건디 잊어불고예?(있어나긴 했습니까? 그런데 잊어버리고요?)

104005 #1 어. 이서나서. 그 다음부턴 다슷 술 ᄋᆞ슷 술 헤실 거고, 나 셍각엔.(어. 있어났어. 그 다음부턴 다섯 살 여섯 살 했을 거고, 나 생각엔.)

104006 @ 쉐, 쟁기가 이섯잖아예? 쟁기 ᄀᆞ튼 경우 명칭을 머렌 부터낫수과?(소, 쟁기가 있었잖아요? 쟁기 같은 경우 명칭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104006 #1 잠대.(잠대.)

104006 @ 잠대, 옆이 보난 이선게 그게 잠대지예? 사진 찍어 간 거.(쟁기, 옆이 보난 이선게 그게 쟁기지요? 사진 찍어 간 거.)

104006 #2 잠대? 엇어신디?(쟁기? 없었는데?)

104006 @ 요기 무시거산디 이서신디?(요기 무언지 있었는데?)

104006 #2 그 혹?(그 확?)

104006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4006 @ 요기 이시난 사진 찍어 가신디.(요기 있으니까 사진 찍어 갔는데.)

104006 #1 쉐에 대한 건 엇엇고 방엣귀, 방엣귀.(소에 대한 건 없었고 절굿공이, 절굿공이.)

104006 @ 기꽈? 방엣기꽈?(그래요? 절굿공인가요?)

104006 #1 방엣기 허고 왠반[54]. 아니, 건 쉐에 대한 거 아니.(절굿공이하고 '안반'. 아니, 그건 소에 대한 거 아니.)

104006 #2 건 쉐에 대한 건 아니.(건 소에 대한 건 아니.)

104006 @ 거믄예, 잠대 손잡이는 머렌 ᄀᆞᆯ으고 이름들이 다 잇잖아예? 뭐 뭐가 이서낫수과? 그 이름들이.(그러면요, 쟁기 손잡이는 뭐라고 말하고 이름들이 다 있잖아요? 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이름들이.)

104006 #1 보섭, 벳.(보습, 볏.)

104006 @ 벳은 머꽈?('벳'은 뭡니까?)

104006 #1 벳은 흑 묻으면 발로 이렇게 허고, 보섭은 앞에 가는 거고. 쟁기몽콜.(볏은 흙 묻으면 발로 이렇게 하고, 보습은 앞에 가는 거고. 쟁깃술.)

104006 @ 몽콜.(쟁깃술.)

104006 #1 몽콜은 이추룩 구부러진 걸 몽콜이렝 허고.(쟁깃술은은 이처럼 구부러진 걸 쟁깃술이라고 하고.)

104006 @ 예.(예.)

104006 #1 저 길쭉하고 소 뗑기는 거는 설칫[55].(저, 길쭉하고 소 당기는 거는 한마루.)

104006 @ 예.(예.)

104006 #1 이, 이 손잡이가 이신 거는 다 잊어부런.(이, 이 손잡이가 있는 거는 다 잊어버련.)

104006 @ 끗에 땅 갈아지게 뭰 끗에 부분은마씸?(끝에 땅 갈아지게 된 끝의 부분은요?)

104006 #2 땅 갈아지게 허는 게 ᄀᆞ싸 그거.(땅 갈아지게 하는 게 아까 그거.)

54) '왠반'은 떡을 칠 때 쓰는 두껍고 넓은 나무판인 '안반'을 말한다.

55) '설칫'은 한마루를 말한다. '한마루'는 쟁기의 성애와 술을 꿰뚫어 곧게 선 긴 나무를 말한다. = 설짓.

104006 @ 설짓?(한마루?)
104006 #2 아니.(아니.)
104006 #1 버섭.(보습.)
104006 @ 아, 버섭.(아, 보습.)
104006 #1 버섭ᄒᆞ고 벳은 쒜, 쒜.(보습하고 볏은 쇠, 쇠.)
104006 @ 아, 이거 밑에.(아, 이거 밑에.)
104006 #1 어.(어.)
104006 #2 버섭은 땅 갈아지게 젤 앞이 거고. 벳은 이랑 만드는 거. 흑 부뜨민 밧가는 사람이 싹 발로 긁으는 거.(보습은 땅 갈아지게 젤 앞에 거고. 볏은 이랑 만드는 거. 흙 붙으면 밭가는 사람이 싹 발로 긁으는 거.)
104007 @ 몽클은?(쟁깃술은?)
104007 #1 쟁기몽클은 꾸부러지는 거.(쟁깃술은 꾸부러지는 거.)
104007 #2 버섭허고 영 끼와근에 영 허는 거.(보습하고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하는 거.)
104007 @ 설칫은마씸?(한마루는요?)
104007 #2 설칫은 우예 앞이 이거 영 허민.(한마루는 위의 앞에 이거 이렇게 하면.)
104007 #1 쉐 뗑기는 거.(소 당기는 거.)
104007 #2 우의로 또 잇잖아?(위에 또 있잖아?)
104007 @ 예.(예.)
104007 #2 그것 가라 설칫이엔 ᄒᆞ는 거.(그것 가라 한마루라고 하는 거.)
104007 @ 설칫예?(한마루요?)
104007 #2 손잡인 몰루쿠과?(손잡인 모르나요?)
104007 #1 응, 다 잊어부런.(응, 다 잊어버려서.)
104007 @ 길마도 잇지예?(길마도 있지요?)
104007 #1 어?(어?)
104007 @ 길마.(길마.)
104007 #1 길마?(길마?)
104007 @ 길마, 그 쉐 부분에 쟁기가 잇고 길마가 잇고 멍에가 잇고 헌데, 길마는 뭔지 몰르쿠과?(길마, 그 소 부분에 쟁기가 있고 멍에가 있고 하는데, 길마는 뭔지 모르나요?)
104007 #1 길마라는 건 잘 모르컨디.(길마라는 건 잘 모르겠는데.)
104007 #2 길메는 쉐 영영 허는 거 줄인가? 길마엔 ᄒᆞ민 길 고르치는 거 줄 ᄃᆞᆼ겻당 일로 ᄃᆞᆼ겻당 허는 거 아니?(길마는 소 이렇게이렇게 하는 거 줄인가? 길마엔 하면 길 가리키는 거 줄 당겼다가 일로 당겼다가 하는 거 아니?)
104007 #1 아니, 아니. 양쪽 그 방향 조종하는 건 뭐냐면 부림패[56]라고.(아니,

56) '부림패'는 밭을 갈 적에 오른편으로 쇠머리에 씌워진 긴 고삐를 말한다. = 굴배

아니. 양쪽 그 방향 조종하는 건 뭐냐면 '부림패'라고.)

104007 @ 이것이 길마거든마씸.(그림을 보여주며)이거마씨 이거.(이것이 길마거든요.(그림을 보여주며)이거요, 이거.)

104007 #1 아, 쉐질메.(아, 소길마.)

104007 @ 아, 이게 쉐질메꽈?(아, 이게 소길맙니까?)

104007 #1 쉐질메, 짐 시끌 때 쓰는 거.(소길마, 짐 실을 때 쓰는 거.)

104007 @ 예, 예.(예, 예.)

104007 #1 쉐질메.(소길마.)

104007 @ 여기선 길마를 질메렌 헴구나예?(여기선 길마를 질메라고 하는군요?)

104007 #1 쉐질메.(소길마.)

104008 @ 그다음에는 멍에 잇지 예? 멍에는 그냥 멍에렌 헷수과?(그다음에는 멍에 있지요? 멍에는 그냥 멍에라고 했습니까?)

104008 #1 멍에. 목에당 헹 땡기는 거.(멍에. 목에다 해서 당기는 거.)

104008 @ 다른 말 없고예? 멍에도 부분, 부분 이름이 따로 잇지예?(다른 말 없고요? 멍에도 부분, 부분 이름이 따로 있지요?)

104008 #1 멍에?(멍에?)

104008 @ 예.(예.)

104008 #1 모가지 허는 건 접게[57]라 헤서.(모가지 하는 건 '접게'라 했어.)

104008 @ 모가지 감는 건 접게예?(모가지에 감는 건 접게요?)

104008 #1 어.(어.)

104008 @ 그다음엔마씨?(그다음엔?)

104008 #1 줄은 줄대.(줄은 줄대.)

104008 @ 줄대예? 접게가 잇고, 줄대가 잇고.(줄대예? 접게가 있고, 줄대가 있고.)

104009 @ 거민 이제 쉐, 촐 ᄀᆞ튼 걸 먹이젠 하면 개인 목장도 잇고 단체 목장도 잇덴 헷잖아예?(그러면 이제 소, 꼴 같은 걸 먹이려고 하면 개인 목장도 있고 단체 목장도 있다고 하잖아요?)

104009 #1 어.(어.)

104009 @ 그럼 그 목장관리는 아까 예기헌 그 케지기가 다 관리하는 거마씨?(그럼 그 목장관리는 아까 얘기한 그 목장관리사가 다 관리하는 거요?)

104009 #1 목장은 우리가 쉐를 여름에 두 둘 정도 그 사름안티 부탁헤서.(목장은 우리가 소를 여름에 두 달 정도 그 사람에게 부탁해서.)

104009 @ 예.(예.)

104009 #1 그 당시에 보리 닷 말이면 닷 말. 그 삭을 줘서.(그 당시에 보리 닷 말이면 닷 말. 그 삭을 줘서.)

---

57) '접게'는 멍에 양편에 각각 꿰어서 목 아래로 휘어다가 매게 된 나뭇가지를 말한다. = 적괘, 적궤, 즙게, 즙궤, 즙작게 등 발화자나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불린다.

104009 @ 예.(예.)

104009 #1 두 둘 동안 목장에서 그 사름이 관리혜 주는 거.(두 달 동안 목장에서 그 사름이 관리해 주는 거.)

104009 @ 예.(예.)

104009 #1 또 우리는 가끔 그 진드기 약허레 또 열흘에 한 번씩 한라산에 올라가고.(또 우리는 가끔 그 진드기 약하러 또 열흘에 한 번씩 한라산에 올라가고.)

104009 @ 아, 진득이 약? 진득이 약은 그믄 뭘로 헷수과?(아, 진득이 약? 진득이 약은 그러면 뭐로 했습니까?)

104009 #1 저 그때다가 DDT, 그건 근레고.(저 그때다가 DDT, 그건 근래고.)

104009 @ 옛날엔마씸?(옛날에는?)

104009 #1 옛날엔 뭐 보통 비누 ᄀᆞ튼 걸로 헌 거 ᄀᆞ타.(옛날엔 뭐 보통 비누 같은 걸로 헌 거 같아.)

104009 @ 비누로 소를 목욕시켠마씸?(비누로 소를 목욕시켰나요?)

104009 #1 주로 그 목욕 전체 말고 저 밑에만.(주로 그 목욕 전체 말고 저 밑에만.)

104009 @ 예.(예.)

104009 #1 춤, 수소들 ᄀᆞ튼 거는 그 부랄 ᄀᆞ튼 디 이런 디만 진드기만 딱고.(참, 수소들 같은 거는 그 부랄 같은 데 이런 데만 진드기만 닦고.)

104009 @ 아 씻어주는 거구나예?(아 씻어주는 거군요?)

104009 #1 에, 따로.(예, 따로.)

104009 @ 따로 이렇게 막 약을 뿌리거나 그건 아니고예?(따로 이렇게 막 약을 뿌리거나 그건 아니고요?)

104009 #1 어.(어.)

104009 @ 그럼 쉐 한 마리당 보리 닷 말을 갖다 주는 거꽈? 보리 닷 말은 케지기안틔 주는 거마씨?(그럼 소 한 마리당 보리 닷 말을 갖다 주는 거예요? 보리 닷 말은 목장관리인에게 주는 건가요?)

104009 #1 에.(예.)

104009 @ 그믄 쉐 흔머리에 보리 닷 말이꽈? 아니면 소 전부헹 보리 닷 말이꽝?(그러면 소 한 마리에 보리 닷 말이요? 아니면 소 전부해서 보리 닷 말인가요?)

104009 #1 아니 흔 사름이. 여기서 만약에 우리 동네서 헤서 그 여러 군데니까.(아니 한 사람이. 여기서 만약에 우리 동네서 해서 그 여러 군데니까.)

104009 @ 예, 예.(예, 예.)

104009 #1 우리 이 사름안틔 가서 거시기 부탁허자허민은 여기서 이 동니에서 열 사름이 헤서 짜서 가서.(우리 이 사람에게 가서 거시기 부탁하자하면 여기서 이 동네에서 열 사름이 해서 짜서 가서.)

104009 @ 예.(예.)

104009 #1 그 사름허고 계약을 헤서 개인이 닷 말이면 닷 말씩 얼마씩 주기로

약속헤서.(그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개인이 닷 말이면 닷 말씩 얼마씩 주기로 약속해서.)

104009 @ 얼마 주기로.(얼마 주기로.)

104010 @ 그 소를 기르면서예? 어렷을 때 어떤 추억 ᄀᆞ튼 거 ᄀᆞᆯ아줍서. 쉐를 잊어먹어서 혼낫던 이야기라든가.(그 소를 기르면서요? 어렸을 때 어떤 추억 같은 거 말해주세요. 소를 잊어먹어서 혼났던 이야기라든가.)

104010 #1 쉐는 산에 두 달 동안 부탁헤서 관리를 헤 ᄃᆞᆯ라 하면은 한라산으로 도망가서 춧지 못헐 때.(소는 산에 두 달 동안 부탁해서 관리를 해 달라 하면 한라산으로 도망가서 찾지 못할 때.)

104010 @ 예, 예.(예, 예.)

104010 #1 그때 가서 주인한테 연락을 오민은 여기서 친구나 몇 사람씩 한 두 사람 가지곤 안 뒈고, 몇 사람씩 빌어서 가서 막 뒤저서 이실만헌 디.(그때 가서 주인한테 연락을 오면 여기서 친구나 몇 사람씩 한 두 사람 가지곤 안 되고, 몇 사람씩 빌어서 가서 막 뒤져서 있을만한 데.)

104010 @ 예.(예.)

104010 #1 내창 ᄀᆞ튼 디 혹시 물먹으러 갓는가, 그런데다가 잘 셍각헤서 춧이레 가는 거, 젤로 어려운거여.(내 같은데 혹시 물먹으러 갔는가, 그런데다가 잘 생각해서 찾으러가는 거, 제일 어려운거야.)

104010 @ 그럼 춧이레갓던 이야기 좀 들려줍서. 어떵헹 춧앗으며.(그럼 찾으러 갔던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어떻게 해서 찾았으며.)

104010 #1 춧이레 가민 이 저 이렇게 그 산에 올리민은, 여름에 그 뭐 집도 없고 하니깐.(찾으러 가면 이 저 이렇게 그 산에 올리면, 여름에 그 뭐 집도 없고 하니까.)

104010 @ 예.(예.)

104010 #1 비와가면은 나무 잇이민 나무아래서 비를 전디주만은, 목장 ᄀᆞ뜬 딘 나무 없을 때 다 비 맞고, 햇빛 맞고 ᄒᆞ민 그 털색깔이 변헤비어.(비와가면 나무 있으면 나무아래서 비를 견디지만, 목장 같은 데는 나무 없을 때 다 비 맞고, 햇빛 맞고 하면 그 털색깔이 변해버려.)

104010 @ 예.(예.)

104010 #1 이녁네 쉐는 노린색인디 춧당보민 나중엔 하얀 쉐가 뒈버려. 그 저 색깔이 바래서. 게 그런 거 때문에 사고 때문에, 쉐를 넘어가면서도 자기네 쉔줄도 몰라서 헐 때가 많아.(자기네 소는 노란색인데 찾다가보면 나중엔 하얀 소가 돼버려. 그 저 색깔이 바래서. 그래 그런 거 때문에 사고 때문에, 소를 넘어가면서도 자기네 소인 줄도 몰라서 할 때가 많아.)

104010 @ 아.(아.)

104010 #1 게난 그 햇빛 맞고 비 맞고 헤놓니깐 노린쉐가 하얀색으로 변헤버리민 이녁 쉐도 잘 모를 때가 이서.(그러니 그 햇빛 맞고 비 맞고 해놓으니까 노란 소

가 하얀색으로 변해버리면 자기네 소도 잘 모를 때가 이서.)

104010 @ 경헹 어떵 헹 촞앗수과?(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찾았습니까?)

104010 #1 아 그러문 뭐, 자세히 보문 새끼들이영 끼영 쭉 촞당보민, 이거 틀림없다 헤가민 나중에 확인해 보민 그것이 자기네 꺼. 그럴 때가 쉐 잃러부렁 촞일 때가, 막 한라산으로 올라가버리면 그 참 촞아오기 힘들고, 하루 이틀 못 촞일 때 많아요.(아 그러면 뭐, 자세히 보면 새끼들이랑 끼여서 쭉 찾다가보면, 이거 틀림없다 해가면 나중에 확인해 보면 그것이 자기네 거. 그럴 때가 소 잃어버려서 찾을 때가, 막 한라산으로 올라가버리면 그 참 찾아오기 힘들고, 하루 이틀 못 찾을 때 많아요.)

104010 @ 경헹 아예 못 촞아본 적은 엇수과?(그렇게 해서 아예 못 찾아본 적은 없습니까?)

104010 #1 못 촞아 본적은 엇고.(못 찾아 본적은 없고.)

104010 @ 다행이어예. 다 촞안예.(다행이네요. 다 찾아서요.)

104010 #1 경허고 추워가민 쉐는 내려오게 된 거니까.(그리고 추워 가면 소는 내려오게 된 거니까.)

104010 @ 아 자기대로 내려와마씸?(아 자기대로 내려와요?)

104010 #1 아, 집에까진 안 와도.(아, 집에까진 안 와도.)

104010 @ 목장에까지라도?(목장에까지라도?)

104010 #1 목장 관리하는 사름이 다 알게 뒈여.(목장 관리하는 사름이 다 알게 되어.)

104010 @ 혹시나 아예 잊어버린 사름은 엇어난마씨?(혹시나 아예 잊어버린 사름은 없었나요?)

104010 #1 쉐?(소?)

104010 @ 예.(예.)

104010 #1 잃어버리진 안 헤.(잃어버리진 안 해.)

104010 @ 결국은 다 찾고 예?(결국은 다 찾고요?)

104010 #1 잃어먹은 사람은 엇고 그 산에 내창에, 산에는 내창이 깊으니까 물 먹으레 갓다가 잘못헤서 넘어서 죽는 쉐는 가끔 잇어.(잃어먹은 사람은 없고 그 산에 내에, 산에는 내가 깊으니까 물 먹으러 갔다가 잘못해서 넘어져 죽는 소는 가끔 있어.)

104010 @ 아이고 겅 헐 땐 잘도 잘도 속상하켜예? 참, 맞아, 쉐 살 때 처음으로 쉐 삿엇을 때가 두 분 결혼헷을 때꽈? 하기 전에는 삼춘네 집은 쉐 안 사난마씸?(아이고 그렇게 할 땐 잘도 잘도 속상하겠네요? 참, 맞아, 소 살 때 처음으로 소 샀었을 때가 두 분 결혼했을 때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삼촌네 집은 소 안 사났나요?)

104010 #1 그전에는 쉐가 엇엇고. 우리 이제 살 때 농사 짓젠허난 산.(그전에는 소가 없었고. 우리 이제 살 때 농사 지으려하니까 샀어.)

104010 @ 그때 혹시 돈 얼마 줘난 거 몰르쿠과? 쉐 흔 ᄆᆞ리당?(그때 혹시 돈

얼마 줘난 거 모르겠어요? 소 한 마리당?)

104010 #1 그거 기억이, 살 때는 몰르는데 풀 때는 십사만원 기억이 나는디.(그거 기억이, 살 때는 모르는데 팔 때는 십사만원 기억이 나는데.)

104010 @ 십사만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지예?(십사만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지요?)

104010 #2 살 때는 오만원에 사실거우다. 그때양.(살 때는 오만원에 샀을 거예요. 그때요.)

104010 #1 풀 때는 십사만원인 거 확실리 기억나.(팔 때는 십사만원인 거 확실히 기억나.)

104010 #2 오만원에 사난 아이고 송애기 좋은 거 삿덴 허멍.(오만원에 사난 아이고 송아지 좋은 거 샀다고 하며.)

104010 @ 오만원이면 만일에 쌀을 산다면 몇 말쯤 살 수 잇는 거꽈?(오만원이면 만일에 쌀을 산다면 몇 말쯤 살 수 있는 건가요?)

104010 #2 그 때 보리쏠 흔 말에 얼마 헤낫신고?(그 때 보리쌀 한 말에 얼마 해났지?)

104010 @ 주로 보리쏠로 기준 잡아낫수꽈? 군쏠 말고?(주로 보리쌀로 기준 잡았습니까? 흰쌀 말고?)

104010 #1 군쏠로 거래허긴 힘들고, 여긴 주로 보리가 하난.(흰쌀로 거래하긴 힘들고, 여긴 주로 보리가 많으니까.)

104010 @ 오만 원 줭 살 때쯤 뒛을 때 보리쏠 몇 말쯤 갖당 줄 정도로 헷수과?(오만 원 줘서 살 때쯤 됐을 때 보리쌀 몇 말쯤 갖다가 줄 정도로 했습니까?)

104010 #1 보리로 헌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보통 농사를 감저허고 보리니까, 이걸로 헤서 돈을 모은 거지.(보리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보통 농사를 고구마하고 보리니까, 이걸로 해서 돈을 모은 거지.)

104010 @ 멧 년 돈 모앗수과?(몇 년 돈 모았습니까?)

104010 #1 멧 년쯤 모은 거?(몇 년쯤 모은 거?)

104010 @ 예.(예.)

104010 #1 멧 년쯤 모은 거 기억이 나크라?(몇 년쯤 모은 거 기억이 나겠나?)

104010 #2 결혼헨에 흔 육년 정도 잇당 사시난.(결혼해서 한 육년 정도 있다가 샀으니까.)

104010 #1 결혼헤서 십년은 뒈실 거여. 농사지을 때가 쉐가 첨, 농사지을랴면 쉐가 이서야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원이랏단 말이여.(결혼해서 십년은 됐을 거야. 농사지을 때가 소가 첨, 농사지으려면 소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원이었단 말이야.)

104010 @ 아.(아.)

104010 #2 육 년쭘엔 쉔 삿수다게. 결혼 헤근엥.(육 년쯤엔 소는 샀습니다. 결혼해서.)

104010 @ 그때는 저 밧갈쉐만 산마씸?(그때는 저 ‘밭갈소’만 샀나요?)
104010 #1 밧갈쉐, 거 ᄒᆞ나도 제우 구헷주.(‘밭갈소’, 그거 하나도 겨우 구했지.)
104010 @ 게민 암쉐는 언제쯤 구헤집디가?(그러면 암소는 언제쯤 구해졌나요?)
104010 #1 암쉐는 우리는 안 헤봐서.(암소는 우리는 안 해봐서.)
104010 @ 기꽈?(그래요?)
104010 #1 여기는 보통 암쉐들은 잘 안 헤여.(여기는 보통 암소들은 잘 안 해.)
104010 @ 안 헤여.(안 해.)
104010 #1 새끼 내우는 건 아녀고.(새끼 내우는 건 안 하고.)
104010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말 기르기

104011 @ 쉐 기르기는 그 정도 허고예, ᄆᆞᆯ도 길려봣수과?(소 기르기는 그 정도 하고요, 말도 길러봤습니까?)
104011 #1 ᄆᆞᆯ은 안 길려봔.(말은 안 길러봤어.)
104011 @ 혹시 이 동네에서 ᄆᆞᆯ 길렷던 사람 이신가예?(혹시 이 동네에서 말 길렀던 사람 있을까요?)
104011 #1 에. ᄆᆞᆯ길른 사람 많아.(예. 말 기른 사람 많아.)
104011 @ 그분을 저한테 조금만 소개를 헤주십서예?(그분을 저한테 조금만 소개를 해 주십시오?)

땔감

104022 @ 그다음엔 땔감이라예? 지난번에 잠깐 땔감에 대해 들어신디예, 앞에 섭섬에서 헷던거예?(그다음엔 땔감이에요? 지난번에 잠깐 땔감에 대해 들었는데요, 앞에 섶섬에서 했던 거요?)
104022 #2 땔감은 여기는 주로 지들커[58].(땔감은 여기는 주로 ‘지들커’.)
104022 @ 예. 지들커렌 헷지예?(예, ‘지들커’라고 했지요?)
104022 #1 어.(어.)
104022 @ 지들커는 어떵 구헷수과?(‘지들커’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104022 #2 지들커는 이녁 산 이신 사람들토 이녁 산에 강 딱 헤 오질 안 허고, 만약에 겨울에 돗걸름밧.(‘지들커’는 이녁 산 있는 사람들도 이녁 산에 가서 딱 해 오질 안 하고, 만약에 겨울에 돼지거름 밭.)
104022 @ 예.(예.)
104022 #2 걸름내영 돗걸룸 밧 헤지민.(거름내서 돼지거름 밭 해지면.)
104022 @ 예.(예.)
104022 #2 그 지들커 허레.(그 ‘지들커’ 하러.)
104022 @ 예.(예.)

58) ‘지들커’는 장작, 검불 따위의 불을 때는데 쓰는 재료를 말한다. = 짇을커, 지들 것,

104022 #2 저 내에 끗지 가근에, 낭뿔레기엥 헤근에, 그 내에 영 못쓸 낭들 처나민, 뿔레기만 남은 거.(저 내에 까지 가서, 나무뿌리라고 해서, 그 내에 영 못쓸 나무들 쳐나면, 뿌리만 남은 거.)

104022 @ 예.(예.)

104022 #2 그거 나대[59] 아저강 뚜드렁 쩨근에 거 헤당 짓곡, 그거 못 헤오는 사름은 보릿대도 짓곡, 그추룩 저추룩 허당. 저 섭섬에도 그때는 마음대로 다닐 때난 섭섬이도 강 헤당 짓고, 섭섬에는 벨로 멧 사람 안 가주마는. 이 곶[60]이로는 지게저근엥 계속 흔 메칠씩 다니주게. 경ᄒᆞ곡, 우린 하도 어려우나난에 우린 구루마가 이서서이.(그거 '나대' 가져가서 두들겨서 째서 거 해다가 짓고, 그거 못 해오는 사람은 보릿대도 짓고, 그처럼 저처럼 하다. 저 섶섬에도 그때는 마음대로 다닐 때난 섶섬에도 가서 해다가 짓고, 섶섬에는 별로 몇 사람 안 가지만. 이 '곶'이로는 지게져서 계속 한 며칠씩 다니지. 그렇게 하고, 우린 하도 어려우니까 우린 수레가 있었어.)

104022 @예.(예.)

104022 #2 거난 구루마 아전에, 아방이영 나영 저 토평 위 중낭부리[61]엔 헌 내이시난, 그디 간에 낭을 비는디.(게니 수레 가져서, 애기아버지하고 나하고 저 토평 위 '중낭부리'라고 한 내 있어서, 거기 가서 나무를 베는 데.)

104022 @ 예.(예.)

104022 #2 구루마 ᄒᆞ나헨 싯거와나멍 헤신디. 낭은 무신 낭이냐 허면 가스룩낭. 가스룩낭 알아져?(수레 하나해서 실어오며 했는데. 나무는 무슨 나무냐 하면 사스레피나무. 사스레피나무 알아?)

104022 @ 가스룩낭예?(사스레피나무요?)

104022 #2 응, 가스룩낭 알아져?(응, 사스레피나무 알아?)

104022 @ 예게.(예.)

104022 #2 하하하.(하하하.)

104022 @ 그게 가스룩낭이어신디 그걸 표준어로 어 뭐라고 헷는데. 가스룩낭 헹 올 땐 생낭 짤랑 왓수과?(그게 사스레피나무 그걸 표준어로 어 뭐라고 했는데. 사스레피나무 해서 올 땐 생나무 잘라서 왔습니까?)

104022 #2 응.(응.)

104022 @ 아까 참, 나대가 뭐꽈? 나대가.(아까 참, '나대'가 뭔가요? '나대'가.)

104022 #2 나대 게 것도.('나대' 그래 것도.)

104022 #1 칼 다믄 거 이서.(칼 닮은 거 있어.)

104022 @ 톱은 아니니까 이렇게 치멍?(톱은 아니니까 이렇게 치면서?)

104022 #2 어, 어.(어, 어.)

104022 @ 손도끼 비슷한 거꽈?(손도끼 비슷한 거요?)

---

59) '나대'는 찍어서 나무를 자르는 데 쓰는 연장을 말하는 제주어.
60) '곶'은 숲. 산 밑의 숲이 우거진 곳을 말한다. =고지.
61) '중낭부리'는 서귀포시 영천동에 있는 내 이름을 말한다.

104022 #2 어 어. 길쭉허고 손잡이만 뭐 감아근에 하는 거. 손도끼추룩 나무 즈록 헌 건 엇고.(어 어. 길쭉하고 손잡이만 뭐 감아서 하는 거. 손도끼처럼 나무 손잡이 한 건 없고.)

104022 @ 쎙낭 헹 왕 말려가지고 헤낫구나예?(생나무 해서 와서 말려가지고 해났군요?)

104022 #2 쎙낭 헹 와근에 딱 누렁 놔두민 ᄆᆞᆯ라. 눌 누렁 놔두민.(생나무 해서 와서 딱 쌓아서 놓아두면 말라. 가리 쌓아 놓아두면.)

104023 @ 혹시 쉐똥이나 ᄆᆞᆯ똥 헹 왕 몰려가지고는 안 헤낫수과?(혹시 소똥이나 말똥 해서 와서 말려가지고는 안 했습니까?)

104023 #2 ᄆᆞᆯ똥 ᄀᆞ튼 건 주서와도 쉐똥 ᄀᆞ튼 것도, 쉐똥 ᄀᆞ뜬 거 주서와서, 굴묵 때울 때 헤난.(말똥 같은 건 주어와도 소똥 같은 것도, 소똥 같은 거 주어와, 굴뚝 태울 때 해났지.)

103023 #1 쉐똥도 굴묵[62] 땡 하고, ᄆᆞᆯ똥도 ᄆᆞ른 거 주서당허고. 집에 거는 ᄆᆞᆯ랴보지 안 허고. 집에 껀 걸름으로 쓰고.(소똥도 '굴묵' 때서 하고, 말똥도 마른 거 주어다하고. 집에 거는 말려보지 안 허고. 집에 건 거름으로 쓰고.)

104023 @ 쉐똥도 다 거름으로 썬예.(소똥도 다 거름으로 썼다고요.)

104024 @ 솔입도 긁어낫수과?(솔잎도 긁었습니까?)

104024 #1 에.(예.)

104024 @ 솔입 긁을 땐 주로 어디 가근에 긁엇수과?(솔잎 긁을 땐 주로 어디 가서 긁었습니까?)

104024 #2 어. 솔입 긁을 땐 우린 이 가까운디 소낭밧들 이시난.(어. 솔잎 긁을 땐 우린 이 가까운데 소나무 밭들 있으니까.)

104024 @ 예.(예.)

104024 #2 이디 강 혼밧디 긁어 와나민 저디강허고 허단, 젤 하영 긁어 오는 딘 상효[63].(여기 가서 한군데 긁어 와나면 저기 가서하고 하다가, 젤 많이 긁어 오는 데는 '상효'.)

104024 @ 상효마씨?('상효'요?)

104024 #2 그 무시거엔 ᄀᆞᆯ앗수과?(그 뭐라고 말했습니까?)

104024 @ 상효 소낭 밧이 따로 이서낫수과?(상효 소나무 밭이 따로 있었습니까?)

104024 #2 어.(어.)

104024 #2 상효전분공장 옆인디 그, 근찬이네 살단 디가 무시거엔 헴수과?(상효전분공장 옆인데 그, 근찬이네 살단 데가 뭐라고 하나요?)

104024 #1 도라미[64].('도라미'.)

104024 #2 도라미?('도라미'?)

---

62)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밑 그 아궁이 바깥 부분을 말한다.
63) '상효'는 서귀포시 영천동에 있는 마을이름을 말한다.
64) '도라미'는 상효마을에 있는 지명을 말한다.

104024 #1 도라미.(‘도라미’.)

104024 @ 도라미렌 헷수과? 옛날엔 그걸 그냥 솔입 긁으레 간덴 헷수과?(‘도라미’라고 했습니까?? 옛날엔 그걸 그냥 솔잎 긁으러 간다고 했습니까?)

104024 #1 응, 솔입.(응, 솔잎.)

104024 #2 솔입 긁으레, 글겡이 아정강.(솔잎 긁으러. 갈퀴 가져가서.)

104025 @ 아까, 나무는 가가지고 저 가시랑낭 쎙낭 헷덴하고예?(아까, 나무는 가가지고 저 사스레피나무 생나무 했다고 하고요?)

104026 @ 숫 ᄀᆞ튼 거도 구웟수과?(숯 같은 것도 구웠습니까?)

104026 #1 숫도 구워봐서.(숯도 구워봤어.)

104026 @ 숫 구울 땐 어디 가서, 그 구우는 작업을 시작부터 끗ᄁᆡ지 ᄒᆞᆫ 번 ᄀᆞᆯ아줘봅서.(숯 구울 땐 어디 가서, 그 구는 작업을 시작부터 끝까지 한 번 말해 줘보세요.)

104026 #1 숫은 우리 그 살던 집에 옛날 저 고목.(숯은 우리 그 살던 집에 옛날 저 고목.)

104026 @ 예.(예.)

104026 #1 그 옆이다가 폭낭 ᄀᆞ튼 큰 고목 그거 짤라서.(그 옆에다가 팽나무 같은 큰 고목 그거 잘라서.)

104026 @ 예.(예.)

104026 #1 작게 짤라서, 그 우영에 파서, 그 장작처럼 처음에 이 나무를 쭉 세워가지고, 그 불붙이는 구멍, 겅헹 나중에 장작을 쭉 세워 나뒁.(작게 잘라서, 그 텃밭에 파서, 그 장작처럼 처음에 이 나무를 쭉 세워가지고, 그 불붙이는 구멍,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장작을 쭉 세워 놓고.)

104026 @ 예.(예.)

104026 #1 우에다 흑심으로 덮어서, 일로 불 부쩌 가민, ᄒᆞᆫ 일주일정도 ᄒᆞ민은 그 나중에는 흑을 헤싸불민.(위에다 흙덩이로 덮어서, 일로 불 붙여 가면, 한 일주일정도 하면 그 나중에는 흙을 헤치면.)

104026 @ 일주일 정도 불을 떼는 거마씨?(일주일 정도 불을 떼는 거요?)

104026 #1 응.(응.)

104026 @ 아.(아.)

104026 #2 아니 불 부쩡 내불민, 만약에 불 이것이 만약 흑 더끈 낭이다.(아니 불 붙여서 내버리면, 만약에 불 이것이 만약 흙 덮은 낭이다.)

104026 @ 예.(예.)

104026 #2 굴 파근에 이디 나무 세왕 흑을 다 덮엉, 요만이 불부찔 구멍만 넹기민, 일로 불부찌민 일주일도 가곡 열흘도 가곡.(굴 파서 여기 나무 세우고 흙을 다 덮어서, 요만이 불붙일 구멍만 남기면, 일로 불붙이면 일주일도 가고 열흘도 가고.)

104026 @ 예.(예.)

104026 #2 경헹, 흑 내리와동 까맣게 탄 숫 줏어 놧주.(그렇게 해서, 흙 내린 후

까맣게 탄 숯 주어 놨지.)

104026 #1 그 어느 정도 되면 불구멍을 막아버리면 그 이상 타지도 안하고.

104026 @ 예.(예.)

104026 #1 너무 타버리민 숫이 안 뒈고 아주 가루 뒈부니까 그것이 그 당시에는 저 경험 잇는 사람이 허여. 그래서 우리집이서도 우리 부친이 우리가 직접 헤밧어.(너무 타버리면 숫이 안 되고 아주 가루 돼버리니까 그것이 그 당시에는 저 경험 있는 사람이 해.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우리 부친이 우리가 직접 해봤어.)

104026 @ 아, 게민 그냥 그 집 주변에 흑을 판마씸?(아, 그러면 그냥 그 집 주변에 흙을 판나요?)

104026 #1 응, 우영에.(응, 텃밭에.)

104026 @ 막 산에 강 하는 게 아니라 우영에 강 예?(막 산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텃밭에 가서요?)

104026 #1 숫 풀려고 허는 사람은 대대적으로 허고, 가정에선 그런 식으로 헤서 나무도 세우는데 이추룩 흔두 개가 아니고, 이 방에다 세워가지고, 통나무 이정도 세워가지고, 이정도 둘레에서 그다음에 흑으로 짐 올려.(숯 팔려고 하는 사람은 대대적으로 하고, 가정에선 그런 식으로 해서 나무도 세우는데 이처럼 한두 개가 아니고, 이 방에다 세워가지고, 통나무 이정도 세워가지고, 이정도 둘레에서 그다음에 흙으로 짐 올려.)

104026 @ 예.(예.)

104026 #1 구멍은 이만큼 뚤렁 불 부쩡 내불민 멧 시간 어느 정도면 탓겟다싶을 때 불구멍을 막아버려.(구멍은 이만큼 뚫어 불 붙여서 내버리면 몇 시간 어느 정도면 탔겠다싶을 때 불구멍을 막아버려.)

104026 @ 그 숫은 어떤데 사용하젠 숫을 만들엇수과?(그 숯은 어떤데 사용하려고 숯을 만들었습니까?)

104026 #1 보통은 뭐 가정에서는 화로에 불도 살라주고. 이걸 많이 헷지게.(보통은 뭐 가정에서는 화로에 불도 살라주고. 이걸 많이 했지.)

104027 @ 그 땔감을 하러갓을 때 땔낭할 때 혹시나 특별한 기억 같은 거 추억, 그때 땔낭하레갓다가 이런 일 잇엇다할 만한 거 이시민 골아줍서.(그 땔감 하러갔을 때 땔나무할 때 혹시나 특별한 기억 같은 거 추억, 그때 땔나무하러갔다가 이런 일 있었다할 만한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104027 #1 지들커허레 여기서는 산에 만약에 산불이 낫다면은 그 낭들은 전부 죽어부리문은, 요즘은 마음대로 못허지만 그 당시는 그거 가근에 실컷, 타문 타단 나머지를 지고 와서, 나대로 짤라서 지게다 지고 오는데.(땔나무하러 여기서는 산에 만약에 산불이 났다면 그 나무들은 전부 죽어버리면, 요즘은 마음대로 못하지만 그 당시는 그거 가서 실컷, 타면 타던 나머지를 지고 와서, 나대로 잘라서 지게다 지고 오는데.)

104027 @ 예.(예.)

104027 #1 거기서 거리가 멀어놓니까, 거기까지 오젠 허니까, 중간에다가 저 감저라든가 아침 새벽이 가니까?(거기서 거리가 멀어놓으니, 거기까지 오려고 하니까, 중간에다가 저 고구마라든가 아침 새벽에 가니까?)

104027 @ 예.(에.)

104027 #1 혼 뭐 다슷 시 으슷 시 가부니까 베고프민 여기서 마중 가는 사름이 이서야 뒈.(한 뭐 다섯 시 여섯 시 가버리니까 배고프면 여기서 마중 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

104027 @ 예.(예.)

104027 #1 감저 싸 아저근에 간식으로 아정가서 중간에서 만나면은 교대로 헤서 저 오고.(고구마 싸 가져서 간식으로 가져가서 중간에서 만나면 교대로 해서 져 오고.)

104027 @ 예.(예.)

104027 #1 꿩장이, 여기는 저 바닷가 해촌이라부니깐 땔감이 꿩장히 귀헤서.(꽁장히, 여기는 저 바닷가 해촌이라 버리니까 땔감이 꽁장히 귀해서.)

104027 @ 그때 그 추억마씨. 누구랑 지들커 허레가신디 이런 일 잇엇다, 기억 호나만 골아줍서.(그때 그 추억이요. 누구랑 땔감 하러갔는데 이런 일 있었다, 기억 하나만 말해주세요.)

104027 #2 동짓날에 콩 솖젠.(동짓날에 콩 삶으려고.)

104027 @ 예.(예.)

104027 #2 나가 지게지고 우리 춤, 야네 고모 돌아가빗주마는, 헨 ᄀᆞ치 가네, 요 밑에 그 할머니도 돌아가불고. 동지 전에 그 할머니네 나무, 지레 갓다와시난 '다시 갈 때라근에 나 데려 갑써' 경허난, 아침 일찍와네 '조케야 나 낭하레 감쩌' 허멍 ᄀᆞ치 간디, 동지날이난 얼어서 양.(내가 지게지고 우리 참, 아이네 고모 돌아가 버렸지만, 해서 같이 가서, 요 밑에 그 할머니도 돌아가 버리고. 동지 전에 그 할머니네 나무, 지러 갔다 오니까 '다시 갈 때에는 나 데려 가세요' 그러니깐, 아침 일찍 와서 '조케야 나 나무하러 간다.' 하면서 같이 갔는데, 동짓날이어서 얼었어요.)

104027 @ 음.(음.)

104027 #2 내 넘어근에 강. 낭을 헹 올거난 내 넘엉 가네. 낭 헹 정 오는디, 돌 매끈한 거 볼르난, 얼음 얼언에 자빠저부난 폴 거꺼 낫주게.(내 넘어서 가서. 나무를 해서 올 거니 내 넘어서 가서. 나무해서 져서 오는데, 돌 매끈한 거 밟으니까, 얼음 얼어서 자빠져버리니까 팔 꺾어 났지.)

104027 @ 아, 기꽈?(아, 그래요?)

104027 #2 경헹 아방[65]이 마중가도, 마중 올 거렌 헤도, 그 낭을 ᄒᆞ끔도 덜어내지 안헹 악으로 다 정 내려왓주게.(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마중가도, 마중 올 거라 해도, 그 나무를 조금도 덜어내지 안 해서 악으로 다 져서 내려왔지.)

104027 @ 꺼꺼저도? 게난 삼춘은 마중 와십디가?(꺾어져도? 그러니까 삼춘은

65) '아방'은 아버지를 말한다. 여기서는 화자의 남편을 칭한다.

마중 오셨나요?)

104027 #2 마중 간 하하.(마중 갔지. 하하.)

104027 @ 웬만허민 지금이라시민 남자가 헐 건디. 예전엔 여자어른들도 막 낭 허레 다녓구나예?(웬만하면 지금이라면 남자가 할 건데. 예전엔 여자어른들도 막 나무하러 다녔군요?)

104027 #2 여자가 하영 뎅겻주, 낭허레.(여자가 많이 다녔지. 나무하러.)

104027 #1 남저들은 낭허레 안 다녀서.(남자들은 나무하러 안 다녔어.)

104027 @ 콩 솖젠하민 보통 콩은 멧 말 솖앗수과?(콩 삶으려면 보통 콩은 몇 말 삶았습니까?)

104027 #2 콩 서 말도 솜아 나고. 아이들 키울 땐 서말 더 놩 솖아서.(콩 서 말도 삶아나고. 아이들 키울 땐 서 말 더 놔서 삶았어.)

104027 @ 겐, 서 말 솖젠허민 하루 가서 지게 하나 혜 온 걸로 서말 솖아젼마씸?(그러면, 서 말 삶으려면 하루 가서 지게 하나 해 온 걸로 서 말 삶아져요?)

104027 #2 남아.(남아.)

104027 @ 낭이 남아?(나무가 남아?)

104027 #2 어.(어.)

104027 @ 아, 기구나예. 다헹이우다예. 경헤도예.(아,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그래도요.)

사냥

104028 @ 그다음엔 지다리라든가 노루 같은 거 꿩 같은 거 잡을 때 그거 여쭤볼게예? 보통 볼목리에서는 그런 짐승들 잡젠허민 어떤 거 어떤 거 잡아낫수과?(그다음엔 오소리라든가 노루 같은 거 꿩 같은 거 잡을 때 그거 여쭤볼게요? 보통 보목리에서는 그런 짐승들 잡으려하면 어떤 거 어떤 거 잡았습니까?)

104029 #1 여기는 주로 꿩벳긔 엇어. 꿩하고 족제비.(여기는 주로 꿩밖에 없어. 꿩하고 족제비.)

104029 @ ᄒᆞ끔 산에까진 안 가보고마씸?(조금 산에까진 안 가보고요?)

104029 #1 산에 ᄀᆞ지는 안가보고.(산에 까지는 안가보고.)

104029 @ 꿩 잡을 땐 어떤 식으로 잡앗수과?(꿩 잡을 땐 어떤 식으로 잡았습니까?)

104029 #1 여기서는 꿩코 놔가지고.(여기서는 꿩을 잡는 올가미를 놔가지고.)

104029 @ 꿩코예? 꿩 코를 놀 때 그.(꿩 올가미요? 꿩 올가미를 놓을 때 그.)

104029 #1 꿩 코는 어떻게 놓냐하면은 그, 일 메다 정도 노꼿, 끈.(꿩 올가미는 어떻게 놓는가하면 그, 일 미터정도 노끈, 끈.)

104029 @ 노꼿으로마씸?(노끈으로요?)

104029 #1 으.(으.)

104029 @ 끈, 뭘로 만든 끈마씨?(끈? 뭐로 만든 끈이요?)

104029 #1 끈은 마, 이리 저 찍 베, 찍눌 꺾던지. 이쪽에다 딱 고정시기고.(끈은 마, 이리 저 짚 바, 짚가리를 꼬던지. 이쪽에다 딱 고정시키고.)

104029 @ 예.(예.)

104029 #1 중간에다가 이 가는 멩주씰.(중간에다가 이 가는 명주실.)

104029 @ 예. 멩주씰.(예. 명주실.)

104029 #1 멩주씰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멧 개를 만들어.(명주실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몇 개를 만들어.)

104029 @ 예.(예.)

104029 #1 쭉 무꺼서, 열 개민 열 개를 무끄고, 그기다 뭐냐, 조, 조를 거기다가 뿌렁 내부르민은 꿩은 와서 그걸 발로 긁다가, 그 고리에다가 그 코에다가 발 걸리민 둣날에 ᄒᆞ루에 ᄒᆞᆫ 번 돌아보니까.(쭉 묶어서, 열 개민 열 개를 묶고, 거기다 뭐냐, 조, 조를 거기다가 뿌려 내버리면 꿩은 와서 그걸 발로 긁다가, 그 고리에다가 그 올가미에다가 발 걸리면 뒷날에 하루에 한 번 돌아보니까.)

104029 @ 예.(예.)

104029 #1 그런 식으로 잡아먹고, 또 저, 치라고 해서 나무하나 꾸부려서. 소나무 요만은 ᄀᆞ는 거 꾸부려가지고.(그런 식으로 잡아먹고, 또 저, 덫이라고 해서 나무하나 구부려서. 소나무 요만한 가는 거 구부려가지고.)

104029 @ 그 나무 구부린 거 아까 뭐렌 ᄀᆞᆯ앗수과?(그 나무 구부린 거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104029 #2 치, 덧, 치.(치, 덫, 치.)

104029 #1 덧을 치라고 허는디.(덫을 치라고 하는데.)

104029 @ 덧을 치라고에?(덫을 치라고요?)

104029 #1 치라고 헤서 치.(치라고 해서, 치.)

104029 @ 예.(예.)

104029 #1 그기다가 이렇게 헤서 조 코구리 매달아놓민 꿩 와서 톡 ᄒᆞ민은 촥! 하게 모가지 걸려서 나무에 매달리게시리 뒈서.(거기다가 이렇게 헤서 조 이삭 매달아놓으면 꿩 와서 톡 하면 촥! 하게 모가지 걸려서 나무에 매달리게끔 됐어.)

104029 @ 아, 예.(아, 예.)

104029 #1 방법이 딱 두 가지벳긔 엇어.(방법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

104029 #2 하영 잡앙먹읍디가?(많이 잡아먹었나요?)

104029 #1 잡아보진 아녀고.(잡아보진 안하고.)

104029 @ 참새라든가 다른 새 같은 건 안 허고예?(참새라든가 다른 새 같은 건 안 하고요?)

104029 #1 새 같은 건, 아까 ᄀᆞᆯ은 저 족제비, 족제비들을 많이 잡아.(새 같은 건, 아까 말한 저 족제비, 족제비들을 많이 잡아.)

104030 @ 족제비 덧은 어떵 놔낫수과?(족제비 덫은 어떻게 놓았습니까?)

104030 #1 그 저 왕대.(그 저 왕대.)

104030 2 예.(예.)

104030 #1 왕대 가지고 여꺼서 안에다가, 아까 뗑기민은 우에는 저 어제 무시거니, 고렛돌 ᄀᆞ튼 돌.(왕대 가지고 엮어서 안에다가, 아까 당기면 위에는 저 어제 뭐니, 맷돌 같은 돌.)

104030 @ 예, 예.(예, 예.)

104030 #1 돌 묻엉, 족제비가 그 밑에 들어가서 그거 먹을 거를 뗑겻다면, 탁 내려앉이면은 그 돌로 지둘롸서.(돌 묻어서, 족제비가 그 밑에 들어가서 그거 먹을 거를 당겼다면, 탁 내려앉으면 그 돌로 짓눌러서.)

104030 @ 아.(아.)

104030 #1 그래서 왜 족제비를 많이 잡냐면. 족제비를 그 당시 붓. 글 쓰는 용으로 붓.(그래서 왜 족제비를 많이 잡느냐면. 족제비를 그 당시 붓. 글 쓰는 용으로 붓.)

104030 @ 예, 예.(에, 예.)

104030 #1 그 용으로 많이 비싸게 받아가니까. 돈 벌라고 그걸 많이들 헷어.(그 용으로 많이 비싸게 받아가니까. 돈 벌라고 그걸 많이들 했어.)

104030 @ 아, 족제비를 풀 거로?(아, 족제비를 팔 거로?)

104030 #1 족제비를 ᄒᆞ나에 얼마씩 사가니까.(족제비를 하나에 얼마씩 사가니까.)

104030 @ 그거 얼마에 사가난 거 혹시 기억남수과?(그거 얼마에 사가난 거 혹시 기억납니까?)

104030 #1 그것도 기억이 안나. 그걸 잡아서 뭐 먹을라고 흔건 아니고.(그것도 기억이 안나. 그걸 잡아서 뭐 먹으려고 한건 아니고.)

104030 @ 이건 혹시 일제 때꽈, 해방 후과?(이건 혹시 일제 땐가요, 해방 훈가요?)

104030 #1 그 해방 그때부터.(그 해방 그때부터.)

104030 @ 해방 전에는마씸?(해방 전에는 요?)

104030 #1 해방 전에는 어릴 때난 모르고.(해방 전에는 어릴 때난 모르고.)

104030 @ 해방 때가 삼춘이?(해방 때가 삼촌이?)

104030 #1 우리가 삼학년 때가 해방 뒈니까.(우리가 삼학년 때가 해방 되니까.)

104030 @ 고등학교 때마씸?(고등학교 때요?)

104030 #1 국민학교 삼학년.(초등학교 삼학년.)

104030 #2 아홉 술.(아홉 살.)

104030 #1 그전에는 어려난 모르고. 이제 기자 해방 후가 젤 많이 헤서.(그전에는 어려서 모르고. 이제 그저 해방 후가 젤 많이 했어.)

104030 @ 아, 해방 후에예?(아, 해방 후에요?)

104030 #1 어.(어.)

104030 @ 족제비가 이섯고, 꿩 잇고, 노루는 아예 안 헤봣덴 헷고예?(족제비가

있었고, 꿩 있고, 노루는 아예 안 해봤다고 했고요?)

104030 #1 음.(음.)

104031 @ 지다리는 혹시 안 잡아봣수과? 지다리는?(오소리는 혹시 안 잡아봤습니까? 오소리는?)

104031 #1 지다리도 우리가 안 헤봣는데 여기서는 개 길르는 사름은 지다리도 잡고 헤낫어.(오소리도 우리가 안 해봤는데 여기서는 개 기르는 사람은 오소리도 잡고 해났어.)

104031 @ 개로 잡아근에예?(개로 잡아서요?)

104031 #1 어.(어.)

104032 @ 족제비 잡아가지고, 몇 마리쯤 잡앗던 거 기억남수과?(족제비 잡아가지고, 몇 마리쯤 잡았던 거 기억납니까?)

104032 #1 것도 기억이 안 나고 오래 뒈부난 기억이 안 나고.(것도 기억이 안 나고 오래 돼버려서 기억이 안 나고.)

104032 @ 족제비 흔 마리를 팔면 그때는 돈으로 줫수과? 엽전으로 줫수과?(족제비 한 마리를 팔면 그때는 돈으로 줬습니까? 엽전으로 줬습니까?)

104032 #1 어 돈으로.(어. 돈으로.)

104032 @ 그럼 그 돈으로 뭐를 할 수 이섯수과? 그 돈이면, 뭐를 살 수 이섯수과?(그럼 그 돈으로 뭐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 돈이면, 뭐를 살 수 살 수 있었습니까?)

104032 #1 그때는 뭐 사먹을 것도 엇일 때고 주로 뭐 학습장이나 작기장이나 사던지. 그렇게 헤엇던 거 가따.(그때는 뭐 사먹을 것도 없을 때고 주로 뭐 학습장이나 종합장이나 사던지. 그렇게 했었던 거 같아.)

104032 @ 혹시 그걸로 공책정도 하나라도 살 수 잇을 정도마씸? 작기장?(혹시 그걸로 공책정도 하나라도 살 수 있을 정도요?)

104032 #2 작기장 살 정도.(종합장 살 정도.)

104033 @ 혹시 그 족제비 잡을 때 뭐 특별하게 기억나는 거 뭐예? 뭐 어시쿠과?(혹시 그 족제비 잡을 때 뭐 특별하게 기억나는 거 뭐? 뭐 없을까요?)

104033 #1 특별한 기억은 엇고 하튼 그거 그 당시에, 요즘은 족제비도 엇고. 그 당시엔 족제비도 많고, 많이들도 잡고.(특별한 기억은 없고 하여튼 그거 그 당시에, 요즘은 족제비도 없고. 그 당시엔 족제비도 많고, 많이들도 잡고.)

104033 @ 그럼 하루에 한 마리만 잡아마씸?(그럼 하루에 한 마리만 잡아요?)

104033 #1 흔 사름이 혼나잡기도 힘들고. 그래서 받는 사람이 메칠에 흔 번씩 받으레 와. 족제비 사례.(한 사람이 하나잡기도 힘들고. 그래서 받는 사람이 며칠에 한 번씩 받으러 와. 족제비 사러.)

104033 @ 음, 알앗습니다.(음, 알았습니다.)

5. 바다일

105001 @ 바당에선 주로 어떤 일 헴수과?(바다에선 주로 어떤 일 하십니까??)

105001 #5 바당에서 무시거게 엿날에는 감태 헹 ᄌᆞ물앗주마는 이제는 그자 소라, 고동, 구제기.(바다에서 뭐 옛날에는 감태 해서 채취했지만 이제는 그저 소라, 고동, 소라.)

105001 @ 구제기?(소라?)

105001 #5 구제기 잡암수다.(소라 잡습니다.)

105001 @ 구제기 만마씸?(소라 만요?)

105001 #5 아니, 구제기도 잡곡 전복도 잡고.(아니, 소라도 잡고 전복도 잡고.)

105001 @ 전복을 여기서는 전복이렌 안 헹 다른 말이 잇지예?(전복을 여기서는 전복이렌 안 해서 다른 말이 있지요?)

105001 #5 셍복.('생복'.)

105002 @ 셍복이나 구제기 잡암구나예?(전복이나 소라 잡고 있군요?)

105002 #5 엿날, 셍복잡고.(옛날, 전복잡고.)

105002 @ 듬북이나 감태는 이제 아이에 안 케고마씸?(뜸부기나 감태는 이제 아예 안 캐고요?)

105002 #5 이제는 그런 건 엇어저불고.(이제는 그런 건 없어져버리고.)

105002 @ 아예 엇어저부런예?(아예 없어져버리고요?)

105002 #5 응, 엇어저비언.(응, 없어져버렸어.)

105002 @ 바당에서가 아예 엇어저부런예?(바다에서가 아예 없어져버린 거죠?)

105002 #5 바당에서 엇어저비언. 바당에 엇이난 ᄌᆞ물질을 안헤여. 게난 그런 거는 ᄆᆞᆯ망 ᄀᆞ튼 거 감퉤는 이젠 엇어저불고.(바다에서 없어져버렸어. 바다에 없으니까 채취를 안 해. 그러니까 그런 거는 모자반 같은 거 감태는 이젠 없어져버리고.)

105002 @ 음.(음.)

105002 #5 이제 우리 한다는 건 구제기 잡는 거, 이제 셍복.(이제 우리 한다는 건 소라 잡는 거, 이제 전복.)

105002 @ 오분재기 ᄀᆞ튼 것도 엇수과?(오분재기 같은 것도 없습니까?)

105002 #5 오분재기도 엇어저비언.(오분재기도 없어져버렸어.)

105002 @ 옛날 오분재기는 뭐렌 ᄀᆞᆯ앗수과?(옛날 오분재기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105002 #5 조개.(조개.)

105003 @ 것도 엇어저불고예?(것도 없어져버리고요?)

105003 #5 예, 엇어.(예, 없어.)

105003 @ 그믄은 구젱기 잡고, 혹시 게는 안 잡암수과? 겡이.(그러면 소라잡고, 혹시 게는 안 잡습니까? 게.)

105003 # 5 겡이는 물에 들엉은 안 헤도 ᄀᆞᆺ으론 잡암네.(게는 물에 들어서는 안

해도 가에론 잡고 있네.)

105003 @ 곳이렌 허믄?(가라고 하면?)

105003 #5 이레 돌 일러서.(이리 돌 일으켜서.)

105003 @ 볼목리에서는 겡이보고 뭐렌 골읍니까?(보목리에서는 게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105003 #5 겡이, 엿날 겡이. 이제는 게옌 ᄒᆞ주마는 엿날 겡이.(게, 옛날 겡이. 이제는 게엔 하지만 엿날 겡이.)

105003 @ 겡이로예?(게로요?)

105003 #5 응.(응.)

105003 @ 겡이는 안 잡암수과?(게는 안 잡습니까?)

105003 #5 물에 들엉은 잡는 잡을 수가 없는 거고, 우리 보목리에서는.(물에 들어서는 잡는 잡을 수가 없는 거고, 우리 보목리에서는.)

105003 @ 그럼 겡이 잡는 어른도 이서마씸?(그럼 게 잡는 어른도 있나요?)

105003 #5 가끔.(가끔.)

105003 @ 집에서 그냥 먹젠마씸?(집에서 그냥 먹으려고요?)

105003 #5 응, 먹젠 잡는 거.(응, 먹으려고 잡는 거.)

105004 @ 그다음에는예, 구젱기도 어떤 종류가 잇수과?(그다음에는, 소라도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105004 #5 아니 종류는 엇고. 그냥 크고 작은 건 그런 건 잇어도.(아니 종류는 없고. 그냥 크고 작은 건 그런 건 있어도.)

105004 @ ᄀᆞ메기나.(개울타리고둥이나.)

105004 #5 ᄀᆞ메기는 돌 일렁 잡는 거. 이제 물에 들면은 물에 들엉 쉬어근에, 강 주서오는 거. 수두리, 보말, 춤ᄀᆞ메기, 그런 거.(고둥은 돌 일으켜 잡는 거. 이제 물에 들면 물에 들어서 헤엄쳐서, 가서 주어오는 거. 두드럭고둥, 고둥, 개울타리고둥, 그런 거.)

105004 @ 보말, 춤ᄀᆞ메기 또 다른 건 엇수과?(고둥, 개울타리고둥 또 다른 건 없습니까?)

105004 #5 응, 다른 건 엇고.(응, 다른 건 없고.)

105004 #2 굼붓.(군부.)

105004 #5 어, 금붓.(어, 군부.)

105004 @ 굼붓, 또 다른 건 엇수과?(군부, 또 다른 건 없습니까?)

105004 #5 다른 건 엇고. 우리 ᄒᆞ는 건 그거주게.(다른 건 없고. 우리 하는 건 그거지.)

105005 @ 그면은예, 겡이 종류들 알아지쿠과?(그러면요, 게 종류들 알겠어요?)

105005 #5 겡이 종류들 돌켕이[66], 엽겡이[67], 춤게, 그거주게. 겡이 ᄀᆞ튼 건 물

66) '돌켕이'는 '돌켕이'는 등과 배의 딱지가 매우 딴딴한 게를 말한다. =돌겡이, 돌킹이.
67) '엽겡이'는 게의 한 종류를 말한다.

에 들어강 숨 ᄀᆞ튼디 가근에 강 잡는 거는, 이추룩 훌근 거주마는 우리추룩 가에 거 돌 일렁 잡는 거는 돌켕이하고 토켕이[68].(게 종류들 '돌켕이', '엽겡이', 참게, 그거지. 게 같은 건, 물에 들어가서 샘 같은데 가서 가서 잡는 거는, 이처럼 굵은 거지만 우리처럼 가에 거 돌 일으켜서 잡는 거는 '돌켕이'하고 '토켕이'.)

105005 @ 게민 먼 바당 강 베로 잡아오는 거는 뭐렌 ᄀᆞᆯ암수과?(그러면 먼 바다 가서 배로 잡아오는 거는 뭐라고 말합니까?)

105005 #5 그건 엽겡. 근데 그건 이디 제주도엔 엇고.(그건 '엽겡'. 그런데 그건 여기 제주도엔 없고.)

105005 @ 엇고예?(없고요?)

105005 #5 응, 육지에 나는 거주.(응, 육지에 나는 거지.)

105006 @ 혹시예 밤에 횃불을 이용헤가지고 잡는 건 엇수과?(혹시요 밤에 횃불을 이용해가지고 잡는 건 없습니까?)

105006 #5 ᄀᆞ메기.(개울타리고둥.)

105006 @ 아, ᄀᆞ메기도 경헷수과?(아, 개울타리고둥도 그렇게 했습니까?)

105006 #5 음. 춤ᄀᆞ메기.(음. 개울타기고둥.)

105006 @ 아, 기꽈?(아, 그래요?)

105006 #5 횃불, 엿날에는 이런 찝, 그 기신새[69].(횃불, 옛날에는 이런 짚, 그 묵은 띠)

105006 @ 예.(예.)

105006 #5 기신세 영 무껑 가근에 이제 영 들러근에 ᄀᆞ메기를 잡앗주마는 이젠 이디 안경 이선게게. 그런 거 썽 강들 잡암주게.(묵은 띠 이렇게 묶어서 가서 이제 이렇게 들어서 개울타리고둥을 잡았지만 이젠 여기 안경 있지. 그런 거 써서 가서 들 잡고 있지.)

105006 @ 아, 밤에?(아, 밤에?)

105006 #5 응, 밤에. 밤ᄀᆞ메기.(응, 밤에. 밤 개울타리고둥.)

105006 @ 밤ᄀᆞ메기 말곤 횃불 이용헹 잡는 건 엇수과?(밤 개울타리고둥 말고 횃불 이용해서 잡는 건 없습니까?)

105006 #5 게메, 밤ᄀᆞ메기기, 춤ᄀᆞ메기.(그러게, 밤 개울타리고둥, 개울타리고둥.)

105006 @ 다른 건 엇고? 가끔 보민 텔레비전 뉴스에 보면 뭐 김녕[70]엔가 어디서 물꾸럭인가 뭐.(다른 건 없고? 가끔 보면 텔레비전 뉴스에 보면 뭐 '김녕'엔가 어디서 문언가 뭐.)

105006 #5 아, 물꾸럭. 이제는 문어엔 허주마는 옛날엔 물꾸럭.(아, '물꾸럭'. 이제는 문어엔 하지만 옛날엔 '물꾸럭'.)

105006 @ 게난, 물꾸럭은 안 잡아봔마씸?(그러니깐, 문어는 안 잡아봤어요?)

---

68) '토켕이'는 게늬 한 종류를 말한다.
69) '기신새'는 초가지붕을 덮었던 '묵은 띠'를 말한다. = 그슨새
70) '김녕'은 제줏 구좌읍 '김녕리'를 말한다.

105006 #5 그건 난 아니 헤언 뎅겨부난 몰르주마는, 물 쌀 땐 ᄀᆞ메기 주시레 밤이 안경 썽 가민 그 물꾸럭도 나오민 심주마는 남저덜은 강 심넨 헨게.(그건 난 안 해서 다녀버려 모르지만, 물 썰물일 땐 개울타리고둥 주우러 밤에 안경 써서 가면 그 문어도도 나오면 잡지만 남자들은 가서 잡는다고 하지.)

105006 @ 아, 아.(아, 아.)

105006 #5 남저덜은. 우린 바당에 밤인 가보지 아녀난게. 낮에는 이제 이 밀감 다 헤비동, 다 철 거시령[71] 저 멩질이나 넘으면은 이제 가근에 바당에 가근에 그 돌 일렁 춤ᄀᆞ메기도 잡고, 겡이도 잡고.(남자들은. 우린 바다에 밤에는 가보지 안하니까. 낮에는 이제 이 밀감 다 해버리고, 다 철 '거스르고' 저 명절이나 넘으면 이제 가서 바다에 가서 그 돌 일으켜서 남방울타기 고둥도 잡고, 게도 잡고.)

105006 @ 게난 저가 물어보는 것 중에는예, 삼춘이 하는 것도 잇주마는 삼춘 아닌 동네사람들 하는 것도 ᄀᆞᆯ아줘사 뒈마씸게.(그러니까 저가 물어보는 것 중에는요, 삼촌이 하는 것도 있지만 삼촌 아닌 동네사람들 하는 것도 말해줘야 됩니다.)

105006 #5 동네사람 하는 건 뭐 무시거?(동네사람 하는 건 뭐 무슨?)

105006 @ 아까 예를 든다면 불 들렁 강 고메기 잡는 거나, 물꾸럭 잡는 거, 다른 건 또 엇엇수과?(아까 예를 든다면 불 들고 가서 개울타리고둥 잡는 거나, 문어 잡는 거, 다른 건 또 없었습니까?)

105006 #5 해섬도 잡곡게.(해삼도 잡고.)

105006 @ 해섬도 잡고예?(해삼도 잡고요?)

105006 #5 응, 철나면은. 건, 해섬은 아무 때나 엇는 거난. 물꾸럭은 혹시나 뎅기다근에 잡주마는.)(응, 철나면. 건, 해삼은 아무 때나 없는 거니까. 문어는 혹시나 다니다가 잡지만.)

105006 @ 구젱기나 셍복 말고 성게종류 뭐꽈? 그런 건 안헙니까?(소라나 전복 말고 성게종류 뭐죠? 그런 건 안합니까?)

105006 #5 성게?(성게?)

105006 @ 예. 귀.(예, 귀.)

105006 #5 귀는 이제 헐 철이 아니주게.(성게는 이제 할 철이 아니지.)

105006 @ 아 그걸 철 때 잡암수과?(아 그걸 철 때 잡습니까?)

105006 #5 응, 그건 ᄉᆞ월 달 오월 나면은 장마 때.(응, 그건 사월 달 오월 나면 장마 때.)

105006 @ 그건 무시거 무시거 잇수과?(그건 무엇 무엇 있습니까?)

105006 #5 그건 솜. 붉은 귀. 솜. 검은 귀. 그런 거주게.(그건 말똥성게. 붉은 성게. 검은 성게. 그런 거지.)

105006 @ 그축헹 잡는 거예?(그렇게 해서 잡는 거요?)

105006 #5 이제는 성게영 허주만은.(이제는 성게라고 하지만.)

---

71) '거시령'은 기본형은 '거스르다'이다. 원래 의미는 '나무의 발육을 돕기 위하여 나뭇가지를 솎아 베어내다.'이나 여기서는 '밀감 수확을 마치고'의 의미이다.

105007 @ 혹시 볼목리에도 원담 쌓아근에 저 궤기 잡는 거 잇수과?(혹시 보목리에도 원 쌓아서 저 고기 잡는 거 있습니까?)

105007 #5 이젠 엇언게.(이제 없어.)

105007 @ 옛날에는 어떵 헤낫수과? 걸 골아줍서.(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말해주세요.)

105007 #5 옛날에 영, 원 다와근에, 경허민은 물 이제 든 때는 이제 고기들이 그레 나와근에, 그 원안에서 돌당.(옛날에 이렇게, 원 쌓아서, 그러면 물 이제 든 때는 이제 고기들이 거기로 나와서, 그 원안에서 돌다가.)

105007 @ 예.(예.)

105007 #5 이제 물 싸 가면은 그것이 나가질 못헤근에, 그 담에 이 돌고망에 다 접저지는 거주게. 경허민은 사람들이 가근에 그거 영 손 들여몰앙 심곡.(이제 물 빠져 가면 그것이 나가질 못해서, 그 담에 이 돌구멍에 다 접지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그거 이렇게 손 들여놓아 붙잡고.)

105007 @ 그거 헤난 기억남수과?(그거 했던 기억납니까?)

105007 #5 옛날에 헤낫주마는 요즘은 안 헴주게.(옛날에 해났지만 요즘은 안 하지.)

105007 @ 이제 안 헴지예?(이제 안 하지요?)

105007 #5 옛날에는 헷주, 우리도.(옛날에는 했지, 우리도.)

105007 @ 그때는 여기 볼목리도 그거를 원담이렌 헷수과?(그때는 여기 보목리도 그거를 원담이라고 했습니까?)

105007 #5 원담은 이서.(원은 있어.)

105007 @ 아직도 잇수과?(아직도 있습니까?)

105007 #5 여기도 아직도 이서.(여기도 아직도 있어.)

105007 @ 그럼 언제 한 번 그거 사진.(그럼 언제 한 번 그거 사진.)

105007 #5 이젠 거 문 헐어저비서. ᄀᆞ메기들 잡으멍 막 헷싸부난.(이젠 거 전부 허물어져버렸어. 고둥들 잡으면서 막 헤집어버려서.)

105007 @ 게도 그 흔적은?(그래도 흔적은?)

105007 #5 흔적은 이서, 흔적은.(흔적은 있어, 흔적은.)

105007 @ 그럼 나중에 그 흔적은 골아줍써예.(그럼 나중에 그 흔적은 말해주세요.)

105007 #2 사진 찍어가젠?(사진 찍어가려고?)

105007 @ 예.(예.)

105007 #5 흔적은 이서.(흔적은 있어.)

105008 @ 게서 그 원담은 볼목리에서 아예 보수 ᄀᆞ튼 것도 안하고예?(그래서 그 원은 보목리에서 아예 보수 같은 것도 안하고요?)

105008 #5 안 허여.(안 해.)

105008 @ 혹시나 허민 궤기 잡히지 않으카예?(혹시나 하면 고기 잡히지 않을까

요?)

105008 #5 아니. 이젠 궤기 잡힐 그 돌이, ᄀᆞ메기 잡으멍 막 이레저레 햇싸부난에 그거는 엇고게. 혹시 물 든 때는 들어왐주마는 누게 그거 심으레를 안 감주게.(아니. 이젠 고기 잡힐 그 돌이, 고둥 잡으면서 막 이리저리 헤집어버려서 그거는 없고. 혹시 물 든 때는 들어오고 있지만 누가 그거 잡으러 안 가지.)

105008 @ 안 가부난에예?(안 가서요?)

105008 #5 요즘은 막 고기들이 하영 나근에. 막 일로절로 낭 사오는 때문에 돌담고기 지시레는 안 가주게.(요즘은 막 고기들이 많이 나서. 막 일로절로 나서 사오는 때문에 돌담고기 주우러 안 가지.)

105009 @ 혹시 볼목리에도 멜도 들엄수과?(혹시 보목리에도 멸치도 들어오나요?)

105009 #5 멜도 들어.(멸치도 들어.)

105009 @ 거기에서예?(거기에서요?)

105009 #5 어, 멜도 들어.(어, 멸치도 들어.)

105009 @ 지금 혹시 멜 잡으레는 안 감수과?(지금 혹시 멸치 잡으러 안 가나요?)

105009 #5 안 가, 안 가. 것도 멜 드는 철이 이서부난에.(안 가, 안 가. 것도 멸치 드는 철이 있어버려서.)

105009 @ 원담서 멜 들면 그때도 멜도 잡고예?(원에 멸치 들면 그때도 멸치도 잡고요?)

105009 #5 멜도 잡곡.(멸치도 잡고.)

105009 @ 그 멜 말고 혹시나 거기서 잡혓던 궤기들 이름 기억나는 거 잇수과?(그 멸치 말고 혹시나 거기서 잡혔던 고기들 이름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105009 #5 멜 말고 무시거 큰 고기덜은 아니 나고.(멸치 말고 무슨 큰 고기들은 아니 나고.)

105009 @ 안 나고예?(안 나고요?)

105009 #5 어. 무시거 존존헌 고기도 잊어벼젓저, 허허허허.(어. 무슨 잔잔한 고기도 잊어버려졌네, 허허허허.)

105010 @ 낙싯줄 이런 거는 남자들안틔 물어봐야 할 건디, 우리가 낙시를 할 때 혹시 그 낙싯대라든가 이런 것들 볼목리서 따로 하는 말은 엇수과?(낚싯줄 이런 거는 남자들에게 물어봐야 할 건데, 우리가 낚시를 할 때 혹시 그 낚싯대라던가 이런 것들 보목리서 따로 하는 말은 없습니까?)

105010 #5 무사게 저 이제 물 싸민 이제 그 보들락 나끄레 가곡, 또 우럭도 나끄레 가곡.(왜 저 이제 물 빠지면 이제 그 보들락 낚으러 가고, 또 우럭도 낚으러 가곡.)

105010 @ 예.(예.)

105010 #5 촘대 요 대막뎅이, 막 큰 이제 고기 잡는 그 촘대 아니라도 대헤근엥

영 헹, 그것에 줄 졸라메근엥 강, 던저근엥 영 헹 놔두민 보들락도 올라오곡, 골생이도 올라오곡, 우럭도 올라오곡.(낚싯대 요 대막대기, 막 큰 이제 고기 잡는 그 낚싯대 아니라도 대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것에 줄 졸라 묶어서 가서, 던져서 이렇게 해서 놔두면 베드레기도 올라오고, 용치놀래기도 올라오고, 우럭도 올라오고.)

105010 #2 어렝이도 올라오곡.(어렝놀래기도 올라오고.)

105010 #5 어, 경 허주게.(어, 그렇게 하지.)

105011 @ 그믄 그때당시에 대나무로 만들 때 그런 대낭이나 그 낙싯줄로 사용헤낫던 건 뭘로 사용 헤낫수과?(그러면 그때당시에 대나무로 만들 때 그런 대나무나 그 낚싯줄로 사용했었던 건 뭐로 사용 했습니까?)

105011 #2 정술.(낚싯줄.)

105011 @ 정술은 뭘로 만들엇수과?(낚싯줄은 뭐로 만들었습니까?)

105011 #5 노꼿. 엿날엔 노꼿으로 헷주게. 술 저 거시기, 고기 잡는 노꼿.(노끈. 옛날엔 노끈으로 했지. 줄 저 거시기, 고기 잡는 노끈.)

105011 @ 게, 노꼿이 뭘로 만들어저신디 몰루쿠과?(그래, 노끈이 뭐로 만들어졌는지 모르나요?)

105011 #5 그건 면일 거라, 그건. 그건 천식이 아지방이 잘 알주.(그건 면일 거라, 그건. 그건 천식이 아버지가 잘 알지.)

105011 @ 남자 어른들에게 물어바사키여예?(남자 어른들에게 물어봐야겠네요?)

105011 #5 어. 남자어른 천식이.(어. 남자어른 천식이.)

105011 @ 낙시를 또 다른 말로 볼목리 말로 허는 말은 엇수과?(낙시를 또 다른 말로 보목리 말로 허는 말은 없습니까?)

105011 #5 볼목리 엇어. 고기 처음 나끌 때부터 써 나난에.(보목리 없어. 고기 처음 낚을 때부터 써났으니까.)

105011 @ 게민 낙시를 어떵 구헤신고예? 옛날에.(그러면 낚시를 어떻게 구했을까요? 옛날에.)

105011 #5 엿날에는 그건 우린 여자라부난에 어떵 헹 구헌 줄른 몰르고, 이제 그 갈치 나끄레 다니는 낙시도 아니고 요 쭤마난 요만안 헌 거주게.(옛날에는 그건 우린 여자라서 어떻게 해서 구한 줄은 모르고, 이제 그 갈치 낚으러 다니는 낚시도 아니고 요 조그마한 요만한 한 거지.)

105011 @ 예.(예.)

105011 #5 이제 그 바당에 가근에 솔라니 나까오는 입에 영 보민 쩨끌락헌 낙시가 입에 들어이서.(이제 그 바다에 가서 옥돔 낚아오는 입에 이렇게 보면 쪼끄마한 낚시가 입에 들어있어.)

105011 @ 예.(예.)

105011 #5 그런 낙시로 이제 그 고기를 나깟주.(그런 낚시로 이제 그 고기를 낚았지.)

105011 @ 옛날에도 그런 낙시가 이섯수과?(옛날에도 그런 낚시가 있었습니까?)

105011 #5 그런 낚시 이서. 옛날에도 그런 낙시가 이서.(그런 낚시 있어. 옛날에도 그런 낚시가 있어.)

105011 @ 그런 쒜로 뒌 게 이섯수과?(그런 쇠로 된 게 있었습니까?)

105011 #5 쒜로 뒌 거 더 이서.(쇠로 된 거 더 있어.)

105011 @ 아 이서낫구나예.(아, 있어났군요?)

105011 #5 어. 옛날에도 이서.(어. 옛날이도 있어.)

105011 @ 뽕돌은 어떵 만들안마씸?(봉돌은 어떻게 만들었나요?)

105011 #5 뽕돌을 이제 그 뽕돌.(봉돌을 이제 그 봉돌.)

105011 #2 연철, 연철로 뒌 거.(연철, 연철도 된 거.)

105011 #5 연철로 뒌 뽕돌.(연철로 된 봉돌.)

105011 @ 다른 뭐 무슨 나무 열매도 아니고예?(다른 뭐 무슨 나무 열매도 아니고요?)

105011 #5 아니 아니, 그런 건 그 첨대로 헤근에 영 고기 나끌 때는 뽕돌 어시기자 헷주게.(아니 아니, 그런 건 그 낚싯대로 해서 이렇게 고기 낚을 때는 봉돌 없이 그냥 했지.)

105011 @ 아, 뽕돌 어시.(아, 봉돌 없이.)

105011 #5 어. 뽕돌 어시 그 술만 졸라메근에, 낙시 졸라메근에 그것에 느껍 꿰 영 돌고망에 강, 영 요만헌디 사근에 물 싸면은 요디 돌 우의 사근에 영 들이치민 그 느껍 졸라메근에 ᄒᆞ민, 이레 고기가 올라오주게.(어. 봉돌 없이 그 줄만 졸라매서, 낚시 졸라매서 그것에 미끼 꿰어 돌구멍에 가서, 이렇게 요만한데 서서 물 빠지면 요기 돌 위에 서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미끼 졸라매서 하면, 이리로 고기가 올라오지.)

105012 @ 그면은 혹시 저 작살로는 고기 안 잡아밧수과?(그러면 혹시 저 작살로는 고기 안 잡아봤습니까?)

105012 #5 작살로는, 나 고기 잡안.(작살로는, 나 고기 잡았어.)

105012 @ 잡아밧지예?(잡아봤지요?)

105012 #5 응, 소살로.(응, 작살로.)

105012 @ 아, 소살로.(아, 작살로.)

105012 #5 그때는 어떤?(그때는 어떤?)

105012 #5 그때는 소살 그 쒜로 요만 헌 쒜로헤근에, 요기 영 비널을 영 요디 영 내곡, 요디 내곡헤근에 그 삼각형으로 영 거시기헤근에 호민.(그때는 작살 그 쇠로 요만 한 쇠로해서, 요기 이렇게 비늘을 이렇게 요기 이렇게 내고, 요기 내고해서 그 삼각형으로 영 거시기해서 하면.)

105012 #2 들어가민 안 나오게.(들어가면 안 나오게.)

105012 #5 안 나올 정도로.(안 나올 정도로.)

105012 @ 안 나오게.(안 나오게.)

105012 #5 어, 고기를 이제 그 이런 대나무 헤근에 쒜에 영 드리몰앙 놋끗으로

감앙, 잔뜩 감으면은 그 고무 옛날에 고무줄, 눈친[72] 빨간 눈친.(어, 고기를 이제 그 이런 대나무해서 쇠에 이렇게 집어넣어 노끈으로 감아서, 잔뜩 감으면 그 고무 옛날에 고무줄, '눈친' 빨간 눈친.)

105012 @ 예.(예.)

105012 #5 그거헤근에 허민 강 영 늘황 강 탁 쏘으민 쏘아지주. 나도 막 많이 쏘아난.(그거해서 하면 가서 이렇게 늘려서 가서 탁 쏘면 쏘아지지. 나도 아주 많이 쏘아났어.)

105012 @ 주로 무신 궤기 쏘아낫수과?(주로 무신 고기 쏘았습니까?)

105012 #5 논쟁이, 다금바리, 북바리.(아홉동가리, 자바리, 붉바리.)

105012 @ 그냥 보는 건 다?(그냥 보는 건 다?)

105012 #5 응, 시상 보는 건 다.(응, 눈앞에 보는 건 다.)

105012 #2 구릿 ᄀᆞ튼 것도 잘 올라오고.(감성돔 같은 것도 잘 올라오고.)

105012 #5 구릿도 잘 쏘아나고. 나 옛날엔 막 고기 잘 쏘아난.(감성돔도 잘 쏘아나고. 나 옛날엔 막 고기 잘 쏘아났어.)

105012 @ 게, 이젠 무사 안헴수과?(그래, 이젠 무사 안하십니까?)

105012 #5 이젠 아녀.(이젠 안 해.)

105012 @ 무사마씸?(왜요?)

105012 #2 이젠 고기도 엇고.(이젠 고기도 없고.)

105012 #5 궤기도 엇고, 그 작살들 아정뎅기멍 막 휘갈아놓난 이젠 고기가 엇어. 논젱이 ᄀᆞ튼 거나 기자. 헤도 이젠 작살 아정 뎅기기도 실프국.(고기도 없고, 그 작살들 가져다니며 막 휘저어놓으니까 이젠 고기가 없어. 아홉동가리 같은 거나 그저. 해도 이젠 작살 가져다니기도 싫고.)

105012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5012 #5 응, 그 구더밋작살[73]도 이서. 아이덜 아정 뎅겨난 거.(응, 그 '구더밋작살'도 있어. 아이들 가져 다녀난 거.)

105012 @ 그 작살로.(그 작살로.)

105012 #5 소살.(작살.)

105012 @ 소살로 고기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앗수과?(작살로 고기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았습니까?)

105012 #5 영 헤근에 가근에, 탁 허게시리 그 영 이런 엉덕[74]에 들어가민.(이렇게 해서 가서, 탁 하게끔 그 이렇게 이런 '엉덕'에 들어가면.)

105012 @ 예.(예.)

105012 #5 이제 강 영 헹 강 바리민, 쉬엉 강 바리민은 그것이 사름신드레 영

72) '눈친'은 작살에 매진 고무줄로 된 '활'을 말한다.(발화자가 의미 제공.)

73) '구더미작살'은 바닷물 위에서 고기가 보이면 쏘아 잡는 작살을 말한다. 긴 대나무 끝에 쇠로된 촉을 매달아 사용했다. '구더미'는 '구더밋개'즉 보목동 포구 가까이에 있는 '불턱'을 구더밋개라고 했는데 갯가에서 물고기가 보이면 쏘았다고 해서 구더미작살이라고 한다.

74) '엉덕'은 바닷가나 바다 속의 큰 바위를 말한다. = 덕.

바려, 고기가.(이제 가서 이렇게 해서 가서 보면, 헤엄쳐 가서 보면 그것이 사람에게 이렇게 봐, 고기가.)

105012 @ 아.(아.)

105012 #5 그것이 영 바리민 그것이 ᄒᆞ쏠 영 엽지울 때가 싯주게.(그것이 이렇게 보면 그것이 조금 이렇게 옆으로 기울 때가 있지.)

105012 @ 예, 예.(예, 예.)

105012 #5 경허믄게 그 소살로 영 늘려. 고무, 바깟디서 늘리왕 가근에, 그 물속에 들어가근에 기자 탁! 놓민 잡아지주게.(그러면 그 작살로 이렇게 늘려. 고무, 바깥에서 늘려서 가서, 그 물속에 들어가서 그저 탁! 놓으면 잡아지지.)

105012 @ 아 화살로 뭐 쏘으듯이 헤마씸?(아 화살로 뭐 쏘듯이 해요?)

105012 #2 우리 이모 산 때가 잘 헤낫주.(우리 이모 산 때가 잘 해났지.)

105012 #5 응, 쏘으듯이 쏘으민. 게 나도 막 하영 헤어반.(응, 쏘듯이 쏘면. 그래, 나도 막 많이 해봤어.)

105013 @ 이거는 남자 어른이 아니라도 대답헤 질 거 담수다마는, 고깃베 종류는 어떤어떤 거 잇수과? 볼목리에.(이거는 남자 어른이 아니라도 대답해 질 거 닮습니다마는, 고깃배 종류는 어떤어떤 거 있습니까? 보목리에.)

105013 #5 어떤 베? 난 이디 그 동네도 안 살고 허난에 무신.(어떤 배? 난 여기 그 동네도 안 살고 하니까 무슨.)

105013 #2 고깃베 종류는 무시거, 자리 뜨레 뎅기는 베, 또 갈치 나끄레 뎅기는 베, 솔라니 나끄레 뎅기는 베.(고깃배 종류는 뭐, 자리돔 뜨러 다니는 배, 또 갈치 낚으러 다니는 배, 옥돔 낚으러 다니는 배.)

105013 #5 그거주게.(그거지.)

105013 #2 자리 뜨레 뎅기는 베.(자리돔 뜨러 다니는 배.)

105013 #5 뗏마루 강 자리 거리민[75] 싯거오고.(전마선으로 가서 자리돔 '거리면' 실어오고.)

105013 @ 아 지금도 경헙니까?(아,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105013 #5 요즘은 아녀주마는, 이제 봄 나가민 막.(요즘은 안하지만, 이제 봄 나가면 막.)

105013 @ 아니, 그난 뗏마로 강 싯경 오는 건?(아니, 그러니까 전마선으로 가서 실어 오는 건?)

105013 #5 그 자리 그디서 많이 거리민 또 싯거당 가에 왕 퍼도근에 또 가곡 또 가곡 허주게.(그 자리돔 거기서 많이 '거리면' 또 실어다가 가에 와서 퍼놓고는 또 가고 또 가고 하지.)

105013 @ 아, 경헴구나예?(아, 그렇게 하는군요?)

105013 #5 응.(응.)

105013 @ 자릿베나 그 다른 물고기나 솔라니 잡는 베는 베 종류가 달라마씸?

75) '거리다' 자질구레한 물고기 따위를 그물로 잡아 올리는 것을 말한다.

(자리돔 배나 그 다른 물고기나 옥돔 잡는 배는 배 종류가 다른가요?)

105013 #5 아니 아니. 베는 거의 똑 ᄀᆞ뜨고, 베이름만 다르주, 베는 똑 ᄀᆞ따.(아니 아니. 배는 거의 똑 같고, 배이름만 다르지, 배는 똑 같아.)

105014 @ 그 종류들이 아까 해산물 허는 것들은 뭐 셍복이니 구젱기니 이신디. 혹시 미역 말고 또 뭐 잇수과?(그 종류들이 아까 해산물 하는 것들은 뭐 전복이니 소라니 있는데. 혹시 미역 말고 또 뭐 있습니까?)

105014 #5 미역, 미역 말앙은 엇어.(미역, 미역 말고는 없어.)

105014 @ 작년에 우리 친구가 뭐 헤다 줘신디 그 이름이 뭐엿지?(작년에 우리 친구가 뭐 해다 줬는데 그 이름이 뭐였지?)

105014 #5 톨?(톳?)

105014 @ 톨 말고 마씸.(톳 말고요.)

105014 #2 청각.(청각.)

105014 @ 청각은 안 헴수과?(청각은 안 하십니까?)

105014 #5 청각은 그 날 철이 이서부난. 오월 달 나사. 지금은 안헤여.(청각은 그 날 철이 있어버려서. 오월 달 나야. 지금은 안 해.)

105014 @ 아, 기꽈? 청각이 볼목리에 하영 나는셍이라예?(아, 그래요? 청각이 보목리에 많이 나는가보죠?)

105014 #5 응, 하영 나. 하영 날 땐 막 하영 낭. 이 장마가 오래 저나민 막 많이 나근에.(응, 많이 나. 많이 날 땐 매우 많이 나서. 이 장마가 오래 져나면 매우 많이 나서.)

105014 #2 소만 나사 제라허게 청각 나.(소만이 와야 온전하게 청각 나,)

105014 #5 많이 나주게. 메역도 나곡 청각도 나곡.(많이 나지. 미역도 나고 청각도 나고.)

105014 @ 메역도 게민 지금도.(미역도 그러면 지금도.)

105014 #5 아니 지금 ᄒᆞ쏠 쪼곰 이시민은 삼월 달 아니라도 이제 ᄒᆞᆫ, 삼월 달 뒈민은 ᄌᆞ물앙 오주게. 이녁 먹을 거는 많이는 안 헤도.(아니 지금 약간 쪼끔 있으면 삼월 달 아니라도 이제 한, 삼월 달 되면 채취해서 오지. 이녁 먹을 거는 많이는 안 해도.)

105014 @ 이제 바당에 메역은 하영 잇지 안헤마씸?(이제 바다에 미역은 많이 있잖아요?)

105014 #5 아니, 아니. 나질 아녀, 나질 아녀.(아니, 아니. 나지 않아, 나지 않아.)

105014 #2 아직은 안 나.(아직은 안 나와.)

105014 @ 볼목리에서도 미역이렌 안 헤영 메역이렌 헷지예?(보목리에서도 미역이라고 안 해서 '메역'이라고 햇지요?)

105014 #5 응, 메역. 옛날 말이주게. 메역.(응,'메역'. 옛날 말이지, '메역'.)

105015 @저가 듣고 싶은 건 옛날 말이라예.(저가 듣고 싶은 건 옛날 말이에요.)

105015 #5 어. 요즘엔 미역이엔 ᄒᆞ주마는 옛날엔 메역.(어. 요즘엔 미역이라고 하지만 옛날엔 메역.)

105015 @ 그다음엔 물질할 때 필요한 도구 어떤 거 어떤 거 잇수과?(그다음엔 물질할 때 필요한 도구 어떤 거 어떤 거 있습니까?)

105015 #5 테왁[76] 잇고, 빗창[77], 또 영 ᄀᆞᆯ개.('테왁' 있고, '빗창', 또 이렇게 호미.)

105015 @ 예.(예.)

105015 #5 ᄀᆞᆯ개, 쪼만헌 흔 거 그 영 가근에 무시거 물꾸럭이라도 봐지민 심어오곡.(호미, 쪼끄만 한 거 그 이렇게 가면 뭐 문어라도 봐지면 잡아오고.)

105015 @ 또 다른 건 엇수과?(또 다른 건 없습니까?)

105015 #5 다른 건 엇고.(다른 건 없고.)

105015 @ 테왁에 영 그물 비슷한 건 뭐렌헙니까?(테왁에 이렇게 그물 비슷한 건 뭐라고 합니까?)

105015 #5 어움[78]망사리.('어움''망사리[79]'.)

105015 @ 아, 그걸 어움이렌 헙니까?(아, 그걸 '어움'이라고 합니까?)

105015 #5 응, 어움망사리[80].(응, '어움망사리.)

105016 @ 지금은 고무 옷을 입잖아예? 그전에는 어떵 헷수과?(지금은 고무 옷을 입잖아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105016 #5 속곳[81].('속옷'.)

105016 @ 그냥 속옷이렌 헷수과?(그냥 속옷이라고 했습니까?)

105016 #2 소중기.('소중기'.)

105016 @ 아, 소중기?(아, '소중기'?)

105016 #5 소중기, 소종의 소종의.('소중기', '소종의' '소종의'.)

105016 @ 볼목리에서도 소종의렌 헷수과?(보목리에서도 '소종의'렌 했습니까?)

105016 #5 볼목리에서도 우리 소종이렌 헨. 옛날에는 소종의렌 헤난.(보목리에서도 우리 '소종이'렌 했어. 옛날에는 '소종의'렌 했지.)

105016 #2 소종기 위에 하얀 물적삼[82].('소종기' 위에 하얀 '물적삼'.)

105016 #5 아이에 옛날엔 물적삼도 안 입엉 소종이만 입어네 헷주게.(아예 옛날엔 물적삼도 안 입어서 소종이만 입어네 했지.)

105016 @ 헤낫수과?(했었습니까?)

105016 #5 나 헤봔.(아, 해봤지.)

---

76) '테왁'은 박의 씨통을 파내고 구멍을 막아서 해녀들이 작업할 때 바다에 갖고 가서 타는 물건. = 두룽박

77) '빗창'은 해녀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전복을 캐는데 쓰는 길쭉한 쇠붙이로 된 연장. 길이는 30cm 쯤이며 동그랗게 말린 머리에는 손잡이 끈이 달려있다.

78) '어움'은 보리장나무 줄기를 둥글게 꼬아 만든 것을 말한다.

79) '망사리'는 바다에서 해녀가 해산물을 채취하고서 담아 넣는 그물로 엮어 만든 물건을 말한다.

80) '어움망사리'는 '어움'에 그물을 돌아가며 엮은 '망사리'를 말한다.

81) '속곳'은 물질할 때 해녀들이 입는 무면으로 만든 물옷을 말한다. = 소종의, 소중의, 속옷.

82) '물적삼'은 잠녀들이 물에 들 때 입는 적삼을 말한다.

105016 @ 언제부터 고무 옷으로 바꿔젓수과?(언제부터 고무 옷으로 바꿔졌습니까?)

105016 #5 그 멧 년도산지 알아지크라? 막 오래서. 고무 옷 바뀐 디가.(그 몇 년도인지 알아질 거라? 막 오래됐어. 고무 옷 바뀐 지.)

105016 @ 한 멧 솔 쯤 됏던 거 기억 안남수과?(한 몇 살 쯤 됐던 거 기억 안 납니까?)

105016 #5 아이고, 그거 기억 안 나.(아이고, 그거 기억 안 나.)

105016 @ 물질 헐 때 옛날 그 소중이 입어근에 할 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잇수과?(물질 할 때 옛날 그 소중이 입어서 할 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05016 # 5아이고, 막 차이 잇주게.(아이고, 막 차이 있지.)

105016 @ 지금이 훨씬 나아마씸?(지금이 훨씬 나은가요?)

105016 #5 옛날에는 소종이 입엉 헐 때는 강 얼어근에 그 물건도 얼마 아녀근에 기자 나와 불주마는. 요즘덜은 흔 세 시간 썩 네 시간 썩 살아.(옛날에는 소종이 입어서 할 때는 가서 얼어서 그 물건도 얼마 안 해서 그저 나와 버리지만. 요즘들은 한 세 시간씩 네 시간씩 살아.)

105016 @ 훨씬 더 살지요?

105016 #5 음.(음.)

105016 @ 그면은 잡아온 것들도 지금이 옛날보다 더 하영 잡아마씸?(그러면 잡아온 것들도 지금이 옛날보다 더 많이 잡나요?)

105016 #5 하영 잡주게. 요즘은 게, 구젱기가 요즘은 뭐 잘 잡는 사름은 흔 이백 키로썩.(많이 잡지. 요즘은 그래, 소라가 요즘은 뭐 잘 잡는 사람은 한 이백 킬로씩.)

105016 @ 아.(아.)

105016 #5 그때는 혼 십 킬로 삼십 킬로. 그 정도로벳끼 안헤연 옛날엔.(그때는 한 십 킬로 삼십 킬로. 그 정도로밖에 안 했어, 옛날엔.)

105016 @ ᄒᆞ루에 이백 킬로를 잡아마씸?(하루에 이백 킬로를 잡았다고요?)

105016 #5 아니, 아니. ᄒᆞ루에 이백 키롤 잡는 게 아니고, 흔 물기ᄒᆞ민 사흘이나 나흘이나 들면은 이제 잡는 사람들은 흔 이백 키로썩.(아니, 아니. 하루에 이백 킬로그램을 잡는 게 아니고, 한 물기하면 사흘이나 나흘이나 들면 이제 잡는 사람들은 한 이백 킬로씩.)

105016 @ 그럼 돈으로 따지믄?.(그럼 돈으로 따지면?)

105016 #5 돈으로 따지민 요즘은 돈 얼만 안 가.(돈으로 따지면 요즘은 돈 얼만 안 가.)

105016 @ 아 돈 얼마 안 가마씸?(아 돈 얼마 안 가요?)

105016 #5 응, 삼천칠백 원 조합까격에 헷젠 ᄒᆞ난 그것에서 수수료 떼불곡 ᄒᆞ민 저 얼만 아넨게.(응, 삼천칠백 원 조합가격에 했다고 하니까 그것에서 수수료 떼버

리고 하면 저 얼마 안 해.)

105016 @ 한 달에 메칠정도 일헤집니까?(한 달에 며칠정도 일해집니까?)

105016 #5 물질?(물질?)

105016 @ 예.(예.)

105016 #5 흔 둘에 두 번이주게. 흔 물기나 두 물기난에.(한 달에 두 번이지. 한 물기나 두 물기니까.)

105016 @ 메칠? 날짜 수로?(며칠? 날짜 수로?)

105016 #5 날짜는 흔조금에 나흘 들 때도 잇곡, 사흘 들 때도 잇곡.(날짜는 한 조금에 나흘 들 때도 있고, 사흘 들 때도 있고.)

105016 @ 거민 수입은 얼마정도 뒈마씸? 돈으로 따지민.(그러면 수입은 얼마정도 되나요? 돈으로 따지면.)

105016 #5 돈으로 따좡은 게, 우리 나 ᄌᆞ무는 건 돈 얼만 안 헤. 우리정도는 흔 육십 키로 오십 키로 ᄒᆞ민 그거 무신 계산헤바게. 그 뭐 삼천팔백 원이엔 헤도게 그 얼만 안가는 거주게.(돈으로 따져서는 그래, 우리 나 채취하는 건 돈 얼만 안 해. 우리정도는 한 육십 킬로 오십 킬로 하면 그거 무신 계산해봐. 그 뭐 삼천팔백 원이엔 해도 그 얼만 안가는 거지.)

105016 @ 맞수다예.(맞네요.)

105016 #5 게난 그거 잡아근에 옛날치룩, 우리 옛날에는 이제 구제기 잡아근에, 서귀포에 정도 풀레 가나곡, 경 헷주마는 이젠 조합에서 오랑 떠도 그걸로 아이들 공부시키지는 못헤여.(그러니 그거 잡아서 옛날처럼, 우리 옛날에는 이제 소라 잡아서, 서귀포에 지고도 팔러 가나고, 그렇게 했지만 이젠 조합에서 와가지고 떠도 그걸로 아이들 공부시키지는 못해.)

105016 @ 못헤근에예?(못하지요?)

105016 #5 응.(응.)

105017 @ 그 아까 소중이로부터 시작헤가지고 옷이 이제 이렇게 바뀌 갓잖아예? 지금 고무 옷까지 그 옛날서부터 입었던 그 옷 이름들을 차례차례로 ᄀᆞᆯ아지쿠과?(그 아까 소중이로부터 시작해서 옷이 이제 이렇게 바뀌 갔잖아요? 지금 고무 옷까지 그 옛날서부터 입었던 그 옷 이름들을 차례차례로 말할 수 있을까요?)

105017 #5 옛날 입어난 거?(옛날 입어난 거?)

105017 @ 예.(예.)

105017 #5 옛날 입어난 거 뭐 소종이 말앙.(옛날 입어난 거 뭐 소종이 말앙.)

105017 @ 예. 소중이.(예. 소중이.)

105017 #5 소종이, 물수건[83], 눈, 옛날엔 눈이엔 헤서.(소종이, '물수건', 물안경, 옛날엔 눈이엔 했어.)

105017 @ 예.(예.)

---

83) '물수건'은 무자맥질해서 작업할 때 쓰는 하얀 수건. 무자맥질할 때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따스하게 감싸주며, 집과 바닷가 사이를 드나들 때에는 햇볕을 가려준다. 무명이나 광목으로 만들어지며, 대체로 폭 30cm, 길이 80cm이다.

105017 #5 물수건 영 머리에 썽, 눈 이레 써사.(물수건 영 머리에 썽, 눈 이레 써사.)

105017 @ 아, 아.(아, 아.)

105017 #5 물에 들어가는 거, 소종이는 기자 입엇다근에.(물에 들어가는 거, 소종이는 그저 입었다가.)

105017 @ 아, 입엇던 거?(아, 입었던 거?)

105017 #5 응, 그거 그거라.(응, 그거 그거라.)

105017 @ 그다음엔 뭐로 바뀌엇수과?(그다음엔 뭐로 바뀌었습니까?)

105017 #5 그다음엔 뭐 고무 옷으로 바뀌어부난.(그다음엔 뭐 고무 옷으로 바뀌어버려서.)

105017 @ 바로 한꺼번에 바뀌엇수과?(바로 한꺼번에 바뀌었습니까?)

105017 #5 한꺼번에 바끼언.(한꺼번에 바뀌었어.)

105017 #2 물적삼 입엇수궤. 중간에.('물적삼' 입었습지요. 중간에.)

105017 #5 중간에 물적삼은 하얀 물적삼, 소중이 입어근에 하얀 적삼입어근에 물에 들어갓주게.(중간에 '물적삼'은 하얀 '물적삼', '소중이' 입어서 하얀 적삼 입어서 물에 들어갔지.)

105017 @ 음.(음.)

105017 #5 옛날에는 할망덜은 이 젓나오게시리 입어근에, 하하하하.(옛날에는 할머니들은 이 젖나오게끔 입어서, 하하하하.)

105017 @ 물적삼을 하얀색으로 입은 특별한 이유라도 이섯이카예?('물적삼'을 하얀색으로 입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을까요?)

105017 #5 무시거 이유?(뭐 이유?)

105017 @ 원래 물에 들 때 검은 옷이엇잖우꽈예?(원래 물에 들 때 검은 옷이었잖습니까??)

105017 #5 응.(응.)

105017 @ 물적삼 아까 하얀색이렌 헷잖우꽈예? 무사 하얀색으로 입어야 할 특별난 이유가 이섯인가마씸?('물적삼' 아까 하얀색이렌 했잖아요? 왜 하얀색으로 입어야 할 특별난 이유가 있었을까요?)

105017 @5 아니, 아니. 기건 기자.(아니, 아니. 그건 그저.)

105017 #2 이유는 엇어도.(이유는 없어도.)

105017 @ 이유는 엇어도 나타나게시리.(이유는 없어도 나타나게끔.)

105017 #2 바당에 들어가민 하얗게 나타나게시리 ᄒᆞ곡, 우에는 하얀 거 입자 헨에.(바다에 들어가면 하얗게 나타나게끔 하고, 위에는 하얀 거 입자고 해서.)

105017 #5 그때 하얀 걸로 문 바깟주게.(그때 하얀 걸로 모두 바꿨지.)

105017 #2 까만 걸로 물적삼은 안 헤서.(까만 걸로 '물적삼'은 안 했어.)

105017 @ 경허난예.(그러니까요.)

105017 #5 하얀 수건에.(하얀 수건에.)

105017 #2 거난 그 뭐도 허연 걸로 허니까 여기는 지금 그 허연 걸로 헌 것이 무신 특징이 잇어서 허느냐 ᄒᆞ주마는, 그것도 우리가 셍각허기엔 물속에 들어가민은 우의로 바도 하얀 거 보이면은 아 저기가 누가 들어감꾸나 헌걸 짐작헐 수 잇게시리 입은 것도 닮고.(그러니 그 뭐도 하얀 걸로 하니까 여기는 지금 그 하얀 걸로 한 것이 무슨 특징이 있어서 하느냐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기엔 물속에 들어가면 위에서 봐도 하얀 거 보이면 아 저기가 누가 들어가는 구나 한 걸 짐작할 수 있게끔 입은 것도 닮고.)

105017 @ 맞아예.(맞네요.)

105018 @ 톨 잇잖아예? 톨 채취 할 때는 다른 거하고는 좀, 톨 그거 할 때는 달랏잖아예? 지금도 다릅니까?(톳 있잖아요? 톳 채취 할 때는 다른 거하고는 좀, 톳 그거 할 때는 달랐잖아요? 지금도 다릅니까?)

105018 #5 아니 아니. 요즘은 엇주게.(아니 아니. 요즘은 없지.)

105018 @ 아예, 톨이마씸?(아예, 톨이요?)

105018 #5 아이에, 엇어비언.(아예, 없어져버렸어.)

105018 @ 아, 아.(아, 아.)

105018 #5 이 그 무시거니, 불가사리 문 톨 문 가까먹는 따문에, 톨이 아이에 나질 않아.(이 그 뭐니, 불가사리 모두 톨 모두 깎아먹는 때문에, 톳이 아예 나질 않아.)

105018 #2 거, 어신 말랑 곧지 말곡, 옛날 헤난 말 골읍서.(그거, 없는 말은 말하지 말고, 옛날 했던 말 말하세요.)

105018 #5 아, 아 아.(아, 아 아.)

105018 @ 옛날엔 어떵헷수과?

105018 #5 톨 헐 땐게 막 헤채[84]헷주게. 막 헤채헤근에 통벨로 헤근에게 반으로.(톳 할 땐 막 허채했지. 막 허채해서 통별로 해서 반으로.)

105018 @ 음, 음.(음, 음.)

105018 #5 서부, 중부, 동부헤근에 이녁 구역 만썩 헤근에, 어촌계장허곡 해녀회장허곡 헹 책음저근에게, 막 저다근에, 곳에 널엉.(서부, 중부, 동부해서 이녁 구역 만씩 해서, 어촌계장하고 해녀회장하고 해서 책임져서, 막 져다가, 가에 널어.)

105018 @ 음.(음.)

105018 #5 그거 문 이제 그 물리와근에 저다근에, 문 물리왕 이제 그 문 창고에 저다근에 눌엇다근에, 조합에서 오랑 문 마다리에 담으민 떠가고.(그거 모두 이제 그 말려서 져다가, 모두 말려서 이제 그 모두 창고에 져다가 쌓았다가, 조합에서 와서 모두 마대에 담으면 떠가고.)

105018 @ 떠가면 이제 돈이 나올꺼아니꽈 예?(떠가면 이제 돈이 나올 거잖아요?)

---

84) '헤채'는 대ᄌᆞ문을 말한다. 해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채취를 금하였다가 합의된 날짜에 그 금지를 풀고 해산물을 캐기 시작하는 일. 여기서 화자는 '허채許採'를 '헤채'로 잘못 발음한 것 같다.

105018 #5 돈이 다 나와.(돈이 다 나와.)

105018 @ 게민 그 돈을 어떵 갈랏수과?(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갈랐습니까?)

105018 #5 그건.(그건.)

105018 @ 자기가 헌 것만큼?(자기가 한 것만큼?)

105018 #5 아니, 아니. 기자 헌 것만큼 안 갈랑 우리 서부헤민 서부에 얼마씩.(아니, 아니. 그저 한 것만큼 안 갈라서 우리 서부하면 서부에 얼마씩.)

105018 @ 똑같이 영 갈라가지고예?(똑같이 이렇게 갈라가지고요?)

105018 #5 응.(응.)

105018 @ 옛날에는 메역도 경 헤낫수과?(옛날에는 미역도 그렇게 했습니까?)

105018 #5 메역은 옛날에 메역은 이제 그 ᄌᆞ물아다근에 이제 널엉. 귀헤근에, 메역귀 잇잖아? 그걸로 담에 영 착착 널엉, 물뤼민, 이제 그걸 다 곱닥허게 개어근에, 이제 그 영 헹 무꺼, 찍으로 헤근에 영 찍으로 헤근에 귀로, 귀로 이런 딜로 딱 무꺼근에, 이제 그 ᄒᆞᆫ 층에 얼마 받으러 오주게.(미역은 옛날에 미역은 이제 그 채취 해다가 이제 널어서. 귀해서, 미역귀 있잖아? 그걸로 담에 이렇게 착착 널어서 말리면, 이제 그걸 다 곱게 개어서, 이제 그 이렇게 해서 묶어, 짚으로 해서 이렇게 짚으로 해서 귀로, 귀로 이런 데로 딱 묶어서, 이제 그 한 층에 얼마, 받으러 오지)

105018 @ 음.(음.)

105018 #2 ᄒᆞᆫ 층은 백 근이라.(한 층은 백 근이라.)

105018 #5 백 근. ᄒᆞᆫ 층에 얼마 ᄒᆞ민 그건 이녁만 썩.(백 근. 한 층에 얼마 하면 그건 이녁만 씩.)

105018 @ 음.(음.)

105018 #5 하영 ᄌᆞ문 사람덜은 하영 돈 사주마는 못허는 사름은 기자 쪼끔.(많이 채취한 사람들은 많이 돈 받지만 못하는 사람은 그저 쪼금.)

105018 @ 그거 할 땐 같은 날에 헷다는 거구나예?(그거 할 땐 같은 날에 했다는 거군요?)

105018 #5 응, ᄀᆞ튼 날.(응, 같은 날.)

105018 @ 경 허난 메역은 ᄀᆞ치?(그러니까 미역은 같이?)

105018 #5 메역은 ᄌᆞ물 날이 잇주게, ᄌᆞ무는 날이.(미역은 채취할 날이 있지, 채취하는 날이.)

105018 @ ᄌᆞ무는 날이예?(채취하는 날이요?)

105018 #5 음. 메역 ᄌᆞ무는 날이 이서.(음. 미역 채취하는 날이 있어.)

105019 @ 혹시 우미꽈? 뭐렌 헤낫수과? 볼목리에선 우미 보고.(혹시 우뭇가사린가요? 뭐라고 했습니까? 보목리에선 우뭇가사리보고.)

105019 #5 우미.('우미'.)

105019 @ 우미 말곤 다른 말 엇엇수과?('우미' 말곤 다른 말 없었습니까?)

105019 #5 거 무시거니? 도박 담은 거. 아이고 나 이저비언. 이젠 원 못 ᄀᆞᆯ으큰게. 우민 우리 보목리에는 우미가 안 나주게. 게난 우미 헐 철엔 아녀.(거 뭐니? 도

박 닮은 거. 아이고 나 잊어버렸네. 이젠 원 못 말하겠네. 우뭇가사리 우리 보목리에는 우뭇가사리가 안나주게. 그러니까 우뭇가사리 할 철엔 안 해.)

105019 #2 우미, 구두리[85].(우뭇가사리, '구두리'.)

105019 @ 우미를 구두리엔 헷수과?(우뭇가사리를 '구두리'라고 했습니까?)

105019 #5 아니, 아니. 우미가 따로 잇고.(아니, 아니. 우뭇가사리가가 따로 있고.)

105019 @ 구두리는 머꽈?('구두리'는 뭡니까?)

105019 #2 구두리는 방 도비헐 때 풀허는 거.('구두리'는 방 도배할 때 풀하는 거.)

105019 @ 그게 우미 아니꽈?(그게 우뭇가사리 아닌가요?)

105019 #5 가시리.(풀가사리.)

105019 @ 가시리?(풀가사리?)

105019 #2 가시리가 저. 가시리허고 구두리ᄒᆞ곡.(풀가사리가 저. 풀가사리하고 '구두리'하고.)

105019 #5 가시리ᄒᆞ곡 구두리ᄒᆞ곡 솖아근에 풀 뒈주게 그건.(풀가사리하고 '구두리'하고 삶아서 풀 되지 그건.)

105019 @ 그건 그냥 필요헐 때만 헌거마씨?(그건 그냥 필요할 때만 한건가요?)

105019 #2 그건 필요할 때만, 이젠 가시리도 엇어, 돌이 다 ᄀᆞ물아부난.(그건 필요할 때만, 이젠 풀가사리도 없어, 돌이 다 가물어버려서.)

105019 #5 가시리도 구두리도 엇어. 이젠 돌이 다 ᄀᆞ물아부난.(풀가사리도 '구두리'도 없어. 이젠 돌이 다 가물어버려서.)

105019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5019 #2 옛날에 헤난 거만 ᄀᆞ릅서. 어신 거랑 ᄀᆞᆸ지 맙서. 하하하.

105020 @ 그 셍복하고 구젱기는 옛날에도 마찬가지나. 지금도 마찬가지나 전부 다 개인으로 채취헷수과? 혹시 공동으로 채취헤본 적은 엇수과?(그 전복하고 소라는 옛날에도 마찬가지나. 지금도 마찬가지나 전부 다 개인으로 채취했습니까? 혹시 공동으로 채취해본 적은 없습니까?)

105020 #5 아니.(아니.)

105020 @ 다 개인으로마씨?(다 개인으로요?)

105020 #5 응, 구제기 저, 구제긴 공동으로 아년, 개인 만썩.(응, 소라는 저, 소란 공동으로 안 했어, 개인 만씩.)

105020 @ 구제기는예?(소라는요?)

105020 #5 어.(어.)

105020@ 셍복도예?(전복도요?)

105020 #5 어.(어.)

105020 @ 혹시나 그 이제 저 멧 살 때부터 물에 들엇수과?(혹시나 그 이제 저

85) '구두리'는 풀가사리의 한 종류를 말한다. 풀가사리보다 잎이 넓고 두껍다.

몇 살 때부터 물에 들었습니까?)

105020 #5 아이구, 멧 살 때산디. 흔 열으답 술 정도에.(아이구, 몇 살 때인지. 한 열여덟 살 정도에.)

105020 @ 열으답 술이민 아 게믄 해방 후다예?(열여덟 살이면 아 그러면 해방 후네요?)

105020 #5 응, 해방 후에. 배우기는 흔 열다슷? 배우기는 물질 배우기는 흔 열다슷 정도로 배왓주마는.(응, 해방 후에. 배우기는 한 열다섯? 배우기는 물질 배우기는 한 열다섯 정도로 배웠지만.)

105020 @ 음.(음.)

105020 #5 물질 이제 바당에 들어가근에 메역 ᄀᆞ튼 거 헤채헐 ᄌᆞ물 때는 흔 열일굽 뒈어사 ᄌᆞ뭄 시작헷주게.(물질 이제 바당에 들어가서 미역 같은 거 '허채'할 채취 때는 한 열일곱 되어야 채취 시작했지.)

105020 @ 열일곱 살 뒐 때민 그땐 해방뒐 때잖아예?(열일곱 살 될 때면 그땐 해방 될 때잖아요?)

105020 #5 응.(응.)

105020 @ 저가 물어보는 건 만일에 공동으로, 개인으로 이렇게 하긴 헷는데 공동으로 하는 일들이 이서나진 안 헤신가 헤가지고마씸게. 뭔가 뭐 마을에.(저가 물어보는 건 만일에 공동으로, 개인으로 이렇게 하긴 했는데 공동으로 하는 일들이 있어나지는 안 했는지 해가지고요. 뭔가 뭐 마을에.)

105020 #5 감태는.(감태는.)

105020 @ 감태는 공동으로 헤낫수과?(감태는 공동으로 했습니까?)

105020 #5 옛날에 공동으로.(옛날에 공동으로.)

105020 @ (감태는 뭐에 사용해났었나요?)

105020 #5 그건 받아 가불민 우린 사용 안혀난 몰라.(그건 받아 가버리면 우린 사용 안하니 몰라.)

105020 @ 아.(아.)

105020 #5 ᄆᆞᆯ망은 ᄌᆞ물아근에 이제 개인 만썩.(모자반은 채취해서 이제 개인 만씩.)

105020 @ 아, ᄆᆞᆯ망은예?(아, 모자반은요?)

105020 #5 응, 테위로 가근에 ᄌᆞ물던, ᄀᆞᆺ으로 ᄌᆞ물던 헤근에.(응, 테로 가서 채취하던, 가에서 채취하든 해서.)

105020 @ 테위는 뭐고 ᄀᆞᆺ은 뭐꽈?(테는 뭐고 가는 뭔가요?)

105020 #5 테위렌 헨, 줌수 식경 강, 저 바당에 강 줌수 들이처근에, 줌수들이 ᄆᆞᆯ망 강 비어오면은, 테이에 싯거 오라근에 가에 왕 푸주게.(테라고 해서, 잠수 실어 가서, 저 바다에 가서 잠수 들여놓고는, 잠수들이 모자반 가서 베어오면, 테에 실어 와서는 가에 와서 푸지.)

105020 @ 아, 아.(아, 아.)

105020 #5 경ᄒᆞ곡 또 우리대로 ᄒᆞ민은 이제 걸망[86], 망아리 담은 거. 걸망 헤근에, 우리냥으로 ᄌᆞ물멍, 그 망사리에 담아근에 이젠 밀려왕 ᄀᆞᆺ이 왕 퍼근에, 저네영, 우리대로 ᄆᆞᆯ리와.(그리고 또 우리대로 하면 이제 '걸망', 망사리 닮은 거. 망사리 해서, 우리대로 채취하며, 그 망사리에 담아서 이젠 밀려와서 가에 와서 퍼서, 져내서, 우리대로 말려.)

105020 @ 아, 경헷구나.(아, 그랬구나.)

105020 #5 응, 그건 이녁대로 따로 헤나고.(응, 그건 이녁대로 따로 했었고.)

105020 @ 아까 테위렌 한 게 테우지예?(아까 테위렌 한 게 테지요?)

105020 #5 응.(응.)

105022 @ 그 테위에 대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누구에 의헤서 만들어지고 그걸 어떵 운영 뒈신지, 혹시 셍각나는 대로 ᄒᆞᆫ번 이시거랑 ᄀᆞᆯ아줍서.(테에 대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걸 어떻게 운영 됐는지, 혹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있걸랑 말해주세요.)

105022 #5 테위 만드는 건 옛날 하르버지들 만들어버부난 우린 그건 몰르주게.(테 만드는 건 옛날 할아버지들 만들어버려서 우린 그건 모르지.)

105022 @ 음.(음.)

105022 #5 그거 고지 가근에 낭 베여당. 그 옛날에는 고지 강 낭 베다근에, 이제 그 오랑, 그걸 거죽을 다 믄 베껴, 하르버지들이.(그거 고지 가서 나무 베다가. 그 옛날에는 고지 가서 나무 베다가, 이제 그 와서, 그걸 거죽을 다 모두 벗겨, 할아버지들이.)

105022 @ 예.(예.)

105022 #5 베껴근에 이제 그 영 ᄆᆞᆯ리와. 말루면은 이제 그 바다에 ᄀᆞᆺ이 이제 그걸 네리와.(벗겨서 이제 그 이렇게 말려. 마르면 이제 그 바다에 가에 이제 그걸 내려와.)

105022 @ 예.(예.)

105022 #5 테위 낭을.(테 나무를.)

105022 @ 예.(예.)

105022 #5 네리왕 그때는 그 하르방들이 그 테이를 믄 짓어. 경헨에 옛날에 사용헷주게.(내려와서 그때는 그 할아버지들이 그 테이를 모두 지어. 그렇게 해서 옛날에 사용했지.)

105022 @ 테이만들 때 썻던 낭 이름 ᄀᆞ튼 건 ᄆᆞᆯ르쿠과?(테만들 때 썼던 나무이름 같은 건 모르겠어요?)

105022 #5 수기목.(삼나무.)

105022 @ 수기목? 아, 수기목?(삼나무? 아, 삼나무.)

105022 #5 응.(응.)

105022 #2 테이 수기목으로 헷수과? 무사?(테 삼나무로 했나요? 왜?)

---

86) '걸망'은 뱃물질을 하는 동안 따낸 모자반이나 미역 등을 임시 담아 두는 그물주머니를 말한다.

105022 #5 수기목으로 헷져.(삼나무로 했지.)

105022 #2 한라산에 강 서의낭 헤단 헷주.(한라산에 가서 서어나무 해다가 했지.).)

105022 #5 아이 아니, 서의낭 아니. 서의낭은 트지 아년다. 수기목이 트주. 트는 걸로 허젠 ᄒᆞ민.(아이 아니, 서어나무 아니. 서어나무는 뜨지 안한다. 삼나무가 뜨지. 뜨는 걸로 하려고 하면.)

105022 #2 게도 산에 간에 수기목 헤단 ᄒᆞᆫ 말은 아녀.(그래도 산에 가서 삼나무 한 말은 안 해.)

105022 #5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5022 @ 테우를 타서 ᄒᆞ끔 먼 바당으로 가나신디, 그 바당 가게 뒈면 어느정도 가낫수과? 예를 들면 섭섬[87]이 잇다 싶을 때.(테를 타서 조금 먼 바다로 갔었는데, 그 바다에 가게 되면 어느 정도 갔습니까? 예를 들면 '섶섬'이 있다 싶을 때.)

105022 #5 섭섬에 ᄒᆞ민은.('섶섬'에 하면.)

105022 @ 예.(예.)

105022 #5 그 중간도 아니.(그 중간도 아니.)

105022 #2 테위 갓닥 왓닥 허는 건 섭섬 가는디, ᄆᆞᆯ망하는 건 가에서.(테 갔다 왔다 하는 건 '섶섬' 가는데, 모자반하는 건 가에서.)

105022 #5 너무 멀리 나가지 아녀근에. 물질하는 디 보다 쪼끔 우예.(너무 멀리 나가지 안 해서. 물질하는 데 보다 쪼끔 위에.)

105022 @ 물질헐 때는?(물질할 때는?)

105022 #5 물질헐 때는 막 아레 내려가곡.(물질할 때는 막 아래 내려가고.)

105022 #2 물질할 때 테위로 안 가주게.(물질할 때 테로 안 가지.)

105022 @ 아.(아.)

105022 #2 ᄆᆞᆯ망 ᄌᆞ물 때만.(모자반 채취 때만.)

105022 @ 아.(아.)

105022 #5 ᄆᆞᆯ망 ᄌᆞ물 때만 테이로.(모자반 채취 때만 테로.)

105022 @ ᄆᆞᆯ망 ᄌᆞ물 때만.(모자반 채취 때만.)

105022 #5 옛날엔 테이로 우리도 ᄆᆞᆯ망 ᄌᆞ물아 난.(옛날엔 테로 우리도 모자반 채취해 났어.)

105023 @ 그 혹시 저 지금은 기곗베 전에 테위 후에, 돗베들 생겻잖아예? 돗베 셍각남수과?(그 혹시 저 지금은 기계배 전에 테 후에, 돛배들 생겼잖아요? 돛배 생각납니까?)

105023 #5 돗 달아난 베?(돛 달아난 배?)

105023 @ 예. 그 베는 뭐렌 ᄀᆞᆯ아낫수과?(예. 그 배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105023 #2 풍선.(풍선.)

105023 @ 풍선?(풍선?)

87) '섶섬'은 모목동 마을 앞에 위치한 섬을 말한다.

105023 #5 돗 단 베는 풍선.(돛 단 배는 풍선.)

105023 @ 풍선이잖아예? 풍선이 언제부터 셍겨근에 어떤 거에 써낫신고예?(풍선이잖아요? 풍선이 언제부터 생겨서 어떤 거에 썼는지요?)

105023 #5 아이고, 그건 남저덜이 알주. 멧 년도에 ᄒᆞ는 건 그건 우린 몰르고 우린 여자라부난.(아이고, 그건 남자들이 알지. 몇 년도에 하는 건 그건 우린 모르고 우린 여자라 버려서.)

105023 @ 기꽈?(기꽈?)

105023 #5 남저덜이 그건 몃 년도에 테이질 쓴 거, 이제 그 풍선 만들어당.(남지들이 그건 몇 년도에 테 질 쓴 거, 이제 그 돛배 만들어다가.)

105023 #2 테이는 이제도 짓이민 ᄒᆞ민 지섬주마는 풍선 헌 건 멧 년도 헌 건 몰르크라.(테는 이제도 지으면 하면 짓지만 돛배 한 건 몇 년도 한 건 모르겠어.)

105023 @ 멧 년도는 몰라도 그 풍선이 볼목리 축항에 그 풍선들이 고기 잡으러 갈 때?(몇 년도는 몰라도 그 풍선이 보목리 축항에 그 돛배들이 고기 잡으러 갈 때?)

105023 #5 고기 잡으러 이제도 감주마는 이제 그 풍선이 문 기계 돌아근에 다니는 따문에. 풍선도, 조그만헌 풍선, 그것도 이젠 그 풍선이엔 안 헤근에 기계 문 ᄃᆞᆯ앙 뎅겨. 옛날에는 기자 저서네 뎅겻주마는. 테이로 네위로 이축 저서.(고기 잡으러 이제도 가지만 이제 그 돛배가 모두 기계 달아서 다니는 때문에. 돛배도, 조그마한 돛배, 그것도 이젠 그 돛배라고 안 해서 기계 모두 달아 다녀서. 옛날에는 그저 저어서 다녔지만. 테로 노로 이처럼 저어서.)

105023 @ 아 풍선이라도 노 젓긴 저섯구나예?(아 풍선이라도 노 젓긴 저었군요?)

105023 #5 어. 노 저선, 노 저선.(어. 노 저었어, 노 저었어.)

105023 #2 경헹 ᄇᆞ룸 받을 땐.(그렇게 해서 바람 받을 땐.)

105023 #5 ᄇᆞ룸 받을 거 ᄒᆞᆯ 때는 이거 무시거 돗대 돌아근에 영 헹.(바람 받을 거 할 때는 이거 뭐 돛대 달아서 이렇게 해서.)

105023 #2 풍선 ᄃᆞᆯ아근에.(돛 달아서.)

105023 #5 풍선 ᄃᆞᆯ앙 나갈 때 저기 먼 바당에 가면은.(돛 달아서 나갈 때 저기 먼 바다에 가면.)

105023 @ 아, 경헷구나에? 알앗수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쿠다.(아, 그렇게 했군요? 알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05023 #5 예, 예 예.(예, 예 예.)

6. 의생활

명주

106001 @ 우선 오늘은 옷감에 대해서 물어보쿠다예? 게난 아는 대로만 골아줍서예?(우선 오늘은 옷감에 대해서 물어볼 게요? 그러니 아는 대로만 말해주세요?)

106002 @ 옛날엔 명주를 뭐렌 골앗수과?(옛날엔 명주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02 #3 멩지엔 골앗주 무시거엔 골아.(명주라고 말했지 뭐라고 말해?)

106003 @ 멩지예? 그면은 멩지를 만들젠 허믄 씰로 만들젠허믄 어떵 만들엇수과?(명주요? 그러면 명주를 만들려고 하면 실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06003 #3 고추를 물레루 영 영.(고치를 물레로 이렇게 이렇게.)

106003 @ 게, 그거를?(그래, 그거를?)

106003 #3 불 솜아근에 솖으멍.(불 때어서 삶으면서.)

106003 @ 예.(예.)

106003 #3 씰 빠서.(실 뽑아서.)

106003 @ 예.(예.)

106003 #3 씰 빠근에, 영 둘러네 씰 빵.(실 뽑아서, 이렇게 둘러서 실 뽑아.)

106003 @ 예.(예.)

106003 #3 감아근엥 놀아근에 이제 짯주게 짜서.(감아서 놀아서 이제 짰지 짰어.)

106006 @ 예. 그 짤 때 처음에, 뽕입도 어디 강 뜯어 와살 거 아니꽈?(예. 그 짤 때 처음에, 뽕잎도 어디 가서 뜯어 와야 할 거 아닌가요?)

106006 #3 응.(응.)

106006 @ 뽕나무는, 옛날 뽕나무는 뭐렌 골앗수과?(뽕나무는, 옛날 뽕나무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06 #3 심것주게. 뽕나무.(심었지. 뽕나무.)

106006 @ 뽕낭 심것수과?(뽕나무 심었습니까?)

106006 #3 응.(응.)

106006 @ 뽕낭 심거근에 뽕낭에서, 옛날에는 입이렌 안 헤근에 뽕 뭐렌 골앗수과?(뽕나무 심어서 뽕나무에서, 옛날에는 잎이라고 안 해서 뽕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06 #3 뽕나무엔 골앗주 무신.(뽕나무라고 말했지 무슨.)

106006 @ 아니, 잎.(아니, 잎.)

106006 #3 뽕낭 썹.(뽕나무 잎.)

106006 @ 썹, 뽕낭 썹 뜯는 거, 뽕낭 썹 뜯어근에.(잎, 뽕나무 잎 뜯는 거, 뽕나무 잎 뜯어서.)

106006 #3 여름도 잇곡.(열매도 있고.)

106006 @ 그거를.(그거를.)

106006 #3 뽕낭 여름도 잇곡.(뽕나무 열매도 있고.)

106006 @ 예. 뽕낭 썹부터 뜯어다근에? 누에는 어디 강 구헤 왓수과?(예. 뽕나무 잎부터 뜯어다가? 누에는 어디 가서 구해 왔습니까?)

106006 #3 누에는 어디 신청헤근에 ᄒᆞ민 동글랑 동글랑 요만썩 헤근에 ᄒᆞ민 앗다주민 헤난.(누에는 어디 신청해서 하면 동글동글 요만씩 해서 하면 가져다주면 했어.)

106006 @ 예. 그 다음 어떵 헷수과?(예.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106006 #3 경헹 앗다주민 그거 놔두민 메칠 뒈민 그거 나주게. 존존ᄒᆞ게이.(그렇게 해서 가져다주면 그거 놔두면 며칠 되면 그거 나지. 자잘하게.)

106006 @ 예.(예.)

106006 #3 나민게 줌박[88] 이만이 이추룩 네개방작 ᄒᆞ게 큰 줌박, 커 가민.(나면 '잠박' 이만큼 이처럼 네모 반듯 하게 큰 잠박, 커 가면.)

106006 @ 예.(예.)

106006 #3 첫 번엔 차룽에 놧당, 큰 줌박에 영 헤근에 그디 ᄆᆞᆫ 종이 끌아근에, 똥 싸는 거 끌아근에 그디 썹 주멍 키우민 클 거주게.(첫 번엔 채롱에 놨다가, 큰 좀박에 이렇게 해서 거기 모두 종이 깔아서, 똥 싸는 거 깔아서 거기 잎 주면서 키우면 클 거지.)

106006 @ 예.(예.)

106006 #3 경ᄒᆞ민 이치룩 하민은 놓지 못행 이치룩 짓어근에이? 영 헤근에 영 징게짓엉 이런디 놔. 또 징게짓엉 요디 놓곡. 경 ᄒᆞ멍, 이런 그 큰 바드렝이.(그렇게 하면 이처럼 많으면 놓지 못해서 이처럼 지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층지어 이런데 놔. 또 층지어서 요기 놓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그 큰 받침.)

106006 @ 바드렝이에 놔?(받침에 놔?)

106006 #3 대바드렝이, 겡헨에 뽕낭 뭐 주민, 크민게 커 가민 아랑아랑 헤가주게.(대받침, 그렇게 해서 뽕나무 뭐 주면, 크면 커 가면 아랑아랑 해가지.)

106006 @ 예. 게난 그 쪼끌락 헌 그 베렝이를 뭐렌 ᄀᆞᆯ앗수과?(예. 그러니까 그 쪼그마한 그 벌레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06 #3 누에? 누에게. 누에렌 ᄀᆞᆯ앗실 거라. 누엣베렝이.(누에? 누에지. 누에라고 말했을 거야. 누에벌레.)

106006 @ 누엣베렝이가 커 가민, 뽕낭은?(누에벌레가 커 가면, 뽕나무는?)

106006 #3 다 먹어지멘은 먹을만이 살앙 먹어지멘은 그 이젠 들어강 집 짓어 갈 거주게.(다 먹어지면 먹을 만큼 살아서 먹어지면 그 이젠 들어가서 집 지어 갈 거지.)

106006 @ 예.(예.)

106006 #3 경 헹 거미줄ᄀᆞ찌 그레저레 그레저레 짓이민 지깍 ᄒᆞ게시리 다 짓어지민 들이몰앙 그 안에서 죽어부는 거라.(그렇게 해서 거미줄같이 그리저리 그리저

88) '줌박'은 누에 채반을 말한다. 표준어 '잠박'의 제주어다.

리 지으면 빽빽 하게끔 다 지어지면 들이밀어 그 안에서 죽어버리는 거야.)

106006 @ 예.(예.)

106006 #3 죽어불민 그 고치뒈면은 둥굴랑 둥굴랑 고치뒈민, 물에 솖으멍 이제 그 씨를 영영 젓이멍.(죽어버리면 그 고치되면 둥글둥글 고치되면, 물에 삶으면서 이제 그 씨를 이렇게 이렇게 저으면서.)

106003 @ 예.(예.)

106003 #3 젯가락, 큰 낭젯가락 으루 영영 젯이멍 둘루멍, 이런 둘루는 걸로 둘루멍 씰 빠멍 감아갈 거주.(젓가락, 큰 나무젓가락 으로 이렇게 이렇게 저으면서 두르면서, 이런 두루는 걸로 두르면서 실 뽑으면서 감아갈 거지.)

106003 @ 그 둘루는 걸 뭐렌 골앗수과?(그 두르는 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03 #3 물레, 물레.(물레, 물레.)

106003 @ 아, 물레렌 골앗수과?(아, 물레라고 말했습니까?)

106003 #3 물렐 거라.(물렐 거야.)

106003 @ 옛날에도 물레렌 골앗수과? 물레 돌려가멍 씰 뽑으면.(옛날에도 물레라고 말했습니까? 물레 돌려가면서 실 뽑으면.)

106003 #3 ᄒᆞ나씩 감아지며 또 이제 튿어뒁 감곡 또 감곡헤근엥 틀렐 짓일 거주.(하나씩 감아지며 또 이제 뜯어두고 감고 또 감고해서 타래를 지을 거지.)

106003 @ 맞수다.(맞습니다.)

106003 #3 틀레, 씰 엿날에 영 틀레 짓어근에 풀지 아녀게?(타래, 실 옛날에 이렇게 타래지어서 팔지 않아?)

106003 @ 맞수다.(맞습니다.)

106003 #3 그추룩 헤근에 ᄒᆞ민은 또 이젠 무시것에 영 놔근에 그 감는 거.(그처럼 해서 하면 또 이젠 무엇에 이렇게 놔서 그 감는 거.)

106003 @ 예.(예.)

106003 #3 네 귓댄가? 대 네 귀 영 헹 감는 거 이제 맨들아근에.(괴머리 귀둥인가? 대 네 기둥 이렇게 해서 감는 거 이제 만들어서.)

106003 @ 감는 건 뭐렌 골앗수과?(감는 건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03 #3 감는 것이? 몰라, 그거. 감는 거.(감는 것이? 몰라, 그거. 감는 거.)

106003 @ 게, 영영 감앙, 감은 다음에?(그래, 이렇게이렇게 감아서, 감은 다음에?)

106003 #3 감은 다음에 그것이 게, 놀거주 놀아.(감은 다음에 그것이 그래, 날거지 날아.)

106003 @ 예, 예.(예, 예.)

106003 # 놀아근에, 영영 이런 디 못 저, 낭 박아근에, 줄 영영 놀아놔근에 이제 믄 놀아지면 이젠 그거 저 클로 짤 거 아니라?(날아서, 이렇게이렇게 이런 데 못 저, 나무 박아서, 줄 이렇게이렇게 날려놔서 이제 모두 날려지면 이젠 그거 저 틀로 짤 거 아니라?)

106003 @ 예.(예.)

106003 #3 짜근에게 멩지 멘들아.(짜서 명주 만들어.)

106003 @ 아, 클. 클로 짜근에 멩지 만들엉예?(아, 틀. 틀로 짜서 명주 만들고요?)

106003 # 응, 응. 영영 짜멍.(응, 응. 이렇게이렇게 짜면서.)

106003 @ 멩지에는 어떤 어떤 종류가 이섯수과?(명주에는 어떤 어떤 종류가 있었습니까?)

106003 #3 어떤 종류가 이서서게? 멩지가.(어떤 종류가 있었어? 명주가.)

106003 @ 멩지는 혼 종류벳긔 엇엇수과?(명주는 한 종류밖에 없었습니까?)

106003 #3 멩지? 응.(명주? 응.)

106003 @ 혼 종류?(한 종류?)

106003 #3 응, 베ᄀᆞ찌게.(응, 베같이.)

106003 @ 옛날엔 생명주라던가 수와주라던가?(옛날엔 생명주라던가 수와주라던가?)

106003 #3 생멩지는 건 눤 거 ᄒᆞ고 안 눤 것이, 아니 눼메는 생멩지고 눼멘은 뉏멩지.(생명주는 건, 물린 거하고 안 물린 것이, 아니 물리면 생명주고 물리면 물린 명주.)

106003 @ 뉏멩지는 뭐고 생멩지는 뭐꽈?(물린 명주는 뭐고 생명주는 뭡니까?)

106003 #3 눼는 건 옷 ᄒᆞ젠 ᄒᆞ민 버닥ᄒᆞ민 건 눼는 거주게. 물 데와근에.(물리는 건 옷 하려고 하면 뻣뻣하면 건 물리는 거주게. 물 데워서.)

106003 @ 아.(아.)

106003 #3 물 데왕 무신 제나 사분ᄀᆞ루나 ᄒᆞ나.(물 데워서 무슨 재나 비누가루나 허나.)

106003 @ 제마씸 불치?(재요? 재?)

106003 #3 몰라. 무시거 놔근엥 솖을 거라. 솖아근엥 눼여근엥 옷 ᄒᆞ젠 ᄒᆞ민 생멩지.(몰라. 뭐 놔서 삶을 거라. 삶아서 물려서 옷 하려고 하면 생명주.)

106003 @ 생멩지? 그 다음에는 아까 생멩지 말고 무슨 멩지렌 헷수과?생멩지 말고 솖기 전에 멩지.(생명주? 그 다음에는 아까 생명주 말고 무슨 명주라고 했습니까? 생명주 말고 삶기 전의 명주.)

106003 #3 솖기 전에?(삶기 전에?)

106003 @ 예. 솖기 전에가 생멩지꽈?(예. 삶기 전에가 생명준가요?)

106003 #3 응.(응.)

106003 @ 솖아난 다음에마씨?(삶아난 다음에요?)

106003 #3 솖아난 다음에게 그자 뉏멩지엔 허주. ᄂᆞᆫ 거. 눼여, 눼여.(삶아난 다음에 그저 물린 명주라고 하지. 물린 거. 물려, 물려.)

106003 @ 눤다, 눼다 라는 말은 무슨말이꽈?(물린다, 물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106003 #3 버닥ᄒᆞ며[89]는 사그랑[90] ᄒᆞ게시리 버짝ᄒᆞ게 헤근엥 ᄒᆞ민은 그걸 풀지우는 거는 그건 눼는 거. 풀, 풀.(‘버닥하면’ ‘사그랑’ 하게끔 뻣뻣하게 해서 하면, 그걸 풀 빼는 거는 그건 물리는 거. 풀, 풀.)

106003 @ 아!(아!)

106003 #3 풀 놀싹ᄒᆞ게 지왕, 옷 멘들젠 ᄒᆞ민.(풀 나른하게 빼서, 옷 만들려고 하면.)

106003 @ 아. 아이고 알앗수다, 아이구.(아. 아이고 알았습니다, 아이구.)

106003 #3 하하하!(하하하!)

106004 @ 주로 멩지로 무신 옷 만들엇수과?(주로 명주로 무슨 옷 만들었습니까?)

106004 #3 멩지로 게, 이제 우리게 죽으민 입는 것도 멘들곡.(명주로, 이제 우리 죽으면 입는 것도 만들고.)

106004 @ 죽으민 입는 옷을 무시거렌?(죽으면 입는 옷을 뭐라고?)

106004 #3 씨즙 갈 때사 엿날에 비단 엇이민 ᄆᆞᆫ 멩지로 옷 우 알로 헹, 이제도 경 허주게. 이제도 젊은이덜토 씨집 가젠ᄒᆞ민 아세 이젯 어멍들은 알아근에 씨즙 갈 때 ᄒᆞᆫ 벌썩 헤줘. 죽어도 입는 거, 살아도 입는 거라 멩지.(시집 갈 때야 옛날에 비단 없으면 모두 명주로 옷 위 알로 해서, 이제도 그렇게 하지. 이제도 젊은이들도 시집 가려하면 아예 이제 어머니들은 알아서 시집 갈 때 한 벌씩 해줘. 죽어도 입는 거, 살아도 입는 거라 명주.)

106004 @ 맞수다, 예.(맞습니다, 예.)

106004 #3 게난, ᄒᆞᆫ 불썩 헤 주주게. 겡허민 죽엉 입으민 그 것이 존 거랑 혜영 놔두고 허는 거주. 우리두, 엿날에.(그러니, 한 벌씩 해 주지. 그러면 죽어서 입으면 그 것이 좋은 거라 해서 놔두고 하는 거지. 우리도, 옛날에.)

106004 @ 삼춘은 게난 만들어 놧수광?(삼촌은 그러니 만들어 놨습니까?)

106004 #3 아, 엿날 멘들앙 놧주게.(아, 옛날 만들어 놓았지.)

106004 @ 그 죽을 때 입는 멩지를 무시거렌 ᄀᆞᆯ읍니까?(그 죽을 때 입는 멩지를 무시거렌 말합니까?)

106004 #3 무시거엔 ᄀᆞᆯ아? 죽을 때 입는 옷이엔 ᄀᆞᆫ주.(뭐라고 말해? 죽을 때 입는 옷이라고 말하지.)

106004 @ 죽을 때 입는 것을 따로 하는 말 엇수과?(죽을 때 입는 것을 따로 하는 말 없습니까?)

106004 #3 음, 어실 거라. 몰라.(음, 없을 거야. 몰라.)

106004 @ 그냥 사람들은 수의, 수의 허잖아예? 수의 말고 다는 말 엇수과?(그냥 사람들은 수의, 수의 하잖아요? 수의 말고 다는 말 없습니까?)

106004 #3 수의는 육짓말로 수의주게.(수의는 육지말로 수의지.)

---

89) ‘버닥ᄒᆞ다’는 물건의 바탕이 강하여 좀처럼 휘어지지 않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명주를 부드럽게 물리지 않고 생명주였을 때를 말한다. = 버작지다

90) ‘사그랑’은 가볍고 피부에 닿는 느낌이 좋은 천의 감촉을 말한다.

106004 @ 예, 게난마씀. 게민 볼목리 말로는 엇수과?(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보목리 말로는 없습니까?)

106004 #3 우리는 다른 말로 엇주게. 죽엉 갈 때 입는 멩지옷, 기자 경 곧주게.(우리는 다른 말로 없지. 죽어서 갈 때 입는 명주옷, 그저 그렇게 말하지.)

106004 @ 예.(예.)

106004 #3 안 헹 놔둔 디가 엇주게, 요세사.(안 해서 놔둔 데가 없지, 요새야.)

106004 @ 아, 경 헷수과?(아, 그렇게 했습니까?)

106004 #3 젊은이두 씨집갈 때에 아세 부모들이 기자, 멩지로 헤주민 그걸 놧당 입는 거주게.(젊은이도 시집갈 때에 아예 부모들이 그저, 명주로 해주면 그걸 놓았다가 입는 거지.)

106004 @ 맞수다예.(맞습니다.)

106004 #3 우리 조케들도 문딱 헤여.(우리 조카들도 모두 해.)

106004 @ 맞수다.(맞습니다.)

106004 #3 아세기 헷당 내불민. 남제덜토 문 장개 갈 때 그걸로 큰옷 허곡, 문 그거 혼 불썩은 다 남제덜토 헤줫주게, 엿날엔.(아예 일찍이 했다가 내버리면. 남자들도 모두 장가 갈 때 그걸로 큰옷 하고, 모두 그거 한 벌씩은 다 남자들도 해줬지, 옛날엔.)

106004 @ 맞수다.(맞습니다.)

106004 #3 이젠 몰라도.(이젠 몰라도.)

무명

106007 @ 그 무명은 뭐꽈? 무명은?(그 무명은 뭔가요? 무명은?)

106007 #3 무명?(무명?)

106007 @ 예. 무명씰은 뭐꽈? 무명?(예. 무명실은 뭔가요? 무명?)

106007 #3 무명씰이 씰이엔 헌 그거 아니라?(무명실이 실이라고 하는 그거 아니라?)

106007 @ 멩지씰이 무명씰이꽈?(명주실이 무명실인가요?)

106007 #3 난 몰라. 그 비트레 곧는 거주.(난 몰라. 그 비슷하게 말하는 거지.)

106007 @ 광목 닮은 거마씸 광목.(광목 닮은 거지요 광목.)

106007 #3 멩지씰?(명주실?)

106007 @ 아니, 아니. 광목 만드는 거. 광목.(아니, 아니. 광목 만드는 거. 광목.)

106007 #3 멘네?(면화?)

106007 @ 아, 멘네꽈?(아, 면홥니까?)

106007 #3 멘네로 광목 멘들지 안헴서?(면화로 광목 만들지 안하나?)

106007 @ 예.(예.)

106007 @ 혹시 그건 안 헤봣수과?(혹시 그건 안 해봤습니까?)

106007 #3 멘네?(면화?)

106007 @ 예.(예.)

106008 #3 엿날에 멘네 갈앙 이거게 소게 헤영 이불도 허곡. 이거 멘네 소게로 이불 ᄃᆞᆺ게시리 이불 ᄒᆞ는 거주.(옛날에 면화 갈아서 이거를 솜 해서 이불도 하고. 이거 면화 솜으로 이불 따뜻하게 이불 하는 거지.)

106008 @ 거므는 그?(그러면 그?)

106008 #3 멘네도 문 ᄌᆞ사근에게.(면화도 모두 자아서.)

106008 @ 그 멘네로 천은 안 말들아봣수과? 씰이나 천은 안 만들아봣수과?(그 면화로 천은 안 말들어봤습니까? 실이나 천은 안 만들어봤습니까?)

106008 #3 무사 천을 안 만들아?(왜 천을 안 만들어?)

106008 @ 그때?(그때?)

106012 #3 멘네 갈아근엥 씰 문 빠동.(면화 갈아서 씨 모두 빼두고.)

106012 @ 예.(예.)

106012 #3 물레에 영영 돌리멍 씨 문딱 씨 빠동.(물레에 이렇게이렇게 돌리면서 씨 모두 빼두고.)

106012 @ 예.(예.)

106008 #3 이제 어디 가근에 태워다근에.(이제 어디 가서 태워 와서.)

106008 @ 예.(예.)

106008 #3 막 기계로 태워다근에 이제 또 저 요만썩, 기자 소랑소랑 허게시리 요만 썩 문 멘드라근에.(막 기계로 태워다가 이제 또 저 요만씩, 그저 가늘고 길쭉하게끔 요만씩 모두 만들어서.)

106008 @ 예.(예.)

106008 #3 무시걸로 영영 밀어근에. 이런 막뎅이로나 영영 무신, 막뎅이 아니 무신 대죽 그 낭으로 멘들거라.(무슨 걸로 이렇게이렇게 밀어서. 이런 막대기로나 이렇게이렇게 무슨, 막대기 아니 무슨 대나무 그 나무로 만들 거라.)

106008 @ 예.(예.)

106008 #3 대죽낭 요만헌 헌 걸로 영영 소게 태워당 밀어근에게, 이젠 물레에 놩은에 가레기렌 헌 거 잇주게 가레기.(대나무 요만한 한 걸로 이렇게이렇게 솜 태워다가 밀어서, 이젠 물레에 놔서 가락이라고 한 거 있지 가락.)

106008 @ 예.(예.)

106008 #3 영 놔근에 이런 딘 또, 물레 영영 ᄌᆞ시멍게 그거 씨를 멘들 거주.(이렇게 놔서 이런 데 또, 물레 이렇게이렇게 자으면서 그거 실을 만들 거지 .)

106008 @ 아, 경헹 멘드는 거꽈?(아,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겁니까?)

106008 #3 씨를 멘드랑, 씨를 멘들앙 또 이제 영영 감아근에.(실을 만들어, 실을 만들어서 또 이제 이렇게이렇게 감아서.)

106008 @ 예.(예.)

106008 #3 문 꼬리렌 허멍 영영 꼬리로 감아근에 이제 또 문 멧 개 감아지민, 또 놀거주 놀아.(모두 꼬리라고 하며 이렇게이렇게 꼬리로 감아서 이제 또 모두 몇

개 감아지면, 또 날거지 날아.)

106008 @ 예.(예.)

106008 #3 열 개면 열 개 ᄉᆞ뭇 하영 헤근에 놀아근에 심엉, 영영 ᄉᆞ뭇 저디 낭 박고, 이디 낭 박앙, 영영 놀아놔근에 이제 헤놔근에 말쩬 놀만이 놀아지민 이제 그걸 찰 거주게.(열 개면 열 개 사뭇 많이 해서 날려서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사뭇 저기 나무 박고, 여기 나무 박아서, 이렇게이렇게 날려놔서 이제 해 놓아서 나중에는 날만큼 날려지면 이제 그걸 짤 거지.)

106008 @ 차면 이제 천이 뒈는 구나예?(차면 이제 천이 되는 군요?)

106008 #3 응, 천 뒈어.(응, 천이 되어.)

106008 @ 경헌 천을 옛날에 뭐렌 골앗수과?(그렇게 한 천을 옛날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08 #3 미녕, 천은. 미녕이옌도 곧곡, 천 ᄀᆞ라?(무명, 천은. 무명이라고도 말하고, 천 보고?)

106008 @ 예.(예.)

106008 #3 경 곧주.(그렇게 말하지.)

106008 @ 아, 미녕? 미녕, 경 헷구나예? 미녕종류는 뭐 뭐가 이서낫수과?(아, 무명? 무명, 그렇게 했군요? 무명종류는 뭐 뭐가 있었습니까?)

106008 #3 멘눼로?(면화로?)

106008 @ 예. 멘눼로 만든 거.(예. 면화로 만든 거.)

106008 #3 멘눼로 만든 거? 미녕 만들곡. 것도 몰루주게. 육지는 걸로사 광묵사 멘들암신디, 어떵산디. 이디는 이디 식은 미녕 멘들앗지.(면화로 만든 거? 무명 만들고. 것도 모르지. 육지는 그걸로 광목이야 만들고 있는지, 어땠는지. 여기는 여기 식은 무명 만들었지.)

106008 @ 미녕 멘들엉 그 걸로는 무신거?(무명 만들어서 그 걸로는 뭐?)

106008 #3 이불도 ᄒᆞ곡, 소게도 ᄒᆞ고.(이불도 하고, 솜도 하고.)

106008 @ 소게도 허고예?(솜도 하고요?)

106008 #3 어.(어.)

106008 @ 게민 미녕으로 멘든 옷은 어떤 것들이 이섯수과?(그러면 무명으로 만든 옷은 어떤 것들이 있엇습니까?)

106008 #3 미녕으로 멘든 옷은? 올밥이 훅주게.(무명으로 만든 옷은? 실밥이 굵지.)

106008 @ 게난 무신 옷 멘들엇수과?(그러니까 무슨 옷 만들었습니까?)

106008 #3 줌지라사는 디. 아무 거라도 멩글주게. 몸빼도 멘들곡, 엿날엔 엇이민 저구리도 멘들곡, 적삼도 멘들곡.(가늘어야 되는 데는. 아무 거라도 만들지. 일바지도 만들고, 옛날엔 없으면 저고리도 만들고, 적삼도 만들고.)

106008 @ 미녕으로예?(무명으로요?)

106008 #3 미녕으로.(무명으로.)

106008 @ 경 헤시쿠다게.(그렇게 하셨겠네요.)

106008 #3 응, 엿날이사 무신, 엿날이사 무시거 엇어서게, 엇엇주.(응, 옛날에야 무슨, 옛날에야 뭐 없었어, 없었지.)

106008 @ 맞수다게. 게난 미녕도 직접 만들엇수과?(맞습니다. 그러니 무명도 직접 만들었습니까?)

106008 #3 미녕 멘들주게.(무명? 만들지.)

106008 @ 경헷구나예?(그랬군요?)

106008 #3 난 멘드라근에 난 헤봐두 난 허여보진 안헷주. 난 단똘이난. 우리 ᄋᆞ답 오누이 중 막똘로 ᄉᆞ뭇 앗쩌네 키워부난에 난 미녕 ᄌᆞ질 줄도 몰라.(난 만들어서 난 해봐도 난 해보진 안했지. 난 외동딸이어서. 우리 여덟 오누이 중 막내딸로 사뭇 앉혀서 키워버려서 난 무명 잣을 줄도 몰라.)

106008 @ 예.(예.)

106008 #3 기자 봄이나 허주, 안허여.(그저 보기나 하지, 안 해.)

106008 @ 어머니 허는 것은 봐낫수과?(어머니 하는 것은 봤습니까?)

106008 #3 응, 어멍 허는 거 문 보곡, 우리 찌레[91]도 문 헷주마는 난 간세로 안 헷주. 미녕도 ᄌᆞᆺ국 헤낫주게.(응, 어머니 하는 거 모두 보고, 우리 '찌레'도 모두 했지만 난 게으름으로 안 했지. 무명도 잣고 했었지.)

106007 @ 게난 옛날엔 보난 미녕이 토목, 생목, 광목, 닷새무명, 엿새무명.(그러니까 옛날엔 보니까 무명이 토목, 생목, 광목, 닷새무명, 엿새무명.)

106007 #3 닷쉐미녕, 읏쉐미녕이엔 ᄒᆞ지게, 미녕고라.(닷새무명, 엿새무명이라고 하지, 무명보고.)

106007 @ 그게 무신 뜻이꽈? 닷쉐미녕, 읏쉐미녕?(그게 무슨 뜻입니까? 닷새무명, 엿새무명?)

106007 #3 홀 훌근 거 아멩헤도 고냥이 훌게 짜진 거 줄게 짜진 거 담아.(실밥 굵은 거 아무래도 구멍이 큵게 짜진 거 잘게 짜진 거 닮아.)

106007 @ 아, 그믄 훌게 짜진 게 숫자가 높은 거꽈? ᄀᆞ늘게 짜진 게 숫자가 높은 거꽈?(아, 그러면 굵게 짜진 게 숫자가 높은 겁니까? 가늘게 짜진 게 숫자가 높은 겁니까?)

106007 #3 몰라도 지깍ᄒᆞ게 짠 것이게 높으주게.(몰라도 빽빽하게 짠 것이 높지.)

106007 @ 아, 지깍허게 짠 것이 맞수과?(아, 빽빽하게 짠 것이 맞습니까?)

106007 #3 이치가, 하하하.(이치가, 하하하.)

106009 @ 토목은 뭐꽈? 토목?(토목은 뭔가요? 토목.)

106009 #3 토목이 그거주. 것 ᄀᆞ라 토목이엔 허주.

106007 @ 생목은마씸? 생목.(생목은요? 생목.)

106007 #3 어?(어?)

---

91) '찌레'는 서로 함께하는 부류를 뜻한다.

106007 @ 생목.(생목.)

106007 #3 생목은 몰라, 나.(생목은 몰라, 나.)

106007 @ 그냥 광목은 미녕이렌 헤난 거예?(그냥 광목은 무명이라고 했던 거지요?)

106007 #3 엿날엔 세경목[92]이여 무시거여 헤낫주마는.(옛날엔 '세경목'이여 뭐여 했었지만.)

106007 @ 아, 세경목마씨?(아, 세경목요?)

106007 #3 무신 목싼디 원[93].(무슨 목인지 '원'.)

106007 @ 세경목, 예 전체적으로 미녕예?(세경목, 예 전체적으로 무명요?)

106007 #3 것도 좀질게 짜는 거, 훅게 짜는 거 허주게.(것도 잘게 짜는 거, 굵게 짜는 거 하지.)

106007 @ 짜는 게.(짜는 게.)

106007 #3 미녕도 지깍허게 짜는 거 허주게.(무명도 빽빽하게 짜는 거 하지.)

106008 @ 게민, 이불껍데기는 뭐렌 골앗수과?(그러면, 이불껍데기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08 #3 이불껍데기렌 곧주, 뭔렌 골아? 이불껍데기사.(이불껍데기라고 말하지, 뭐라고 말해? 이불껍데기야.)

106008 @ 이불껍데기렌 골앗수과? 이불껍데기 허는 미녕은 훌근 거엿수과? 좀진 거엿수과?(이불껍데기라고 말했습니까? 이불껍데기 하는 무명은 굵은 거였습니까? 가는 거였습니까?)

106008 #3 좀진 것도 허국, 좀진 걸로 헐테주 아멩헤도.(가는 것도 하고, 가는 걸로 할 테지 아무래도.)

106008 @ 이불은예?(이불은요?)

106008 #3 음. 미녕도 엉기게 짠 것도 싯곡, 지깍허게 짠 것도 싯곡 허난게. 좋은 거 구진 거 싯주게이?(음. 무명도 엉기게 짠 것도 있고, 빽빽하게 짠 것도 있고 하니까. 좋은 거 나쁜 거 있지?)

106008 @ 게난 좀질게 짠 게 좋은 거꽈?(그러니 잘게 짠 게 좋은 겁니까?)

106008 #3 좀질게 짠 것이 좋은 거주게. 막 엉기게 짠 것도 잇국.(잘게 짠 것이 좋은 거지. 막 엉기게 짠 것도 있고.)

106010 @ 미녕으로 만든 광목은?(무명으로 만든 광목은?)

106010 #3 광목은 여기서 안 멘들어나고 기계로 멘드는 거난에.(광목은 여기서 안 만들어나고 기계로 만드는 거여서.)

106012 @ 아, 기구나예. 목화농사도 직접 지어낫수과?(아, 그러네요. 목화농사도 직접 지었습니까?)

106012 #3 목화? 목화가 무시거라?(목화? 목화가 뭐지?)

---

92) '세경목'은 올이 가늘고 고운 세백목을 말하는 듯하다.

93) '원'은 뜻밖의 일이나 놀라울 때, 언짢은 때 따위에 느꺼워 하는 말이다.

106012 @ 아까 미녕 만들 때 쓰는 그거. 미녕 만들 때 솜 태우기 전에 꽃 이름 뭐 따근에 헷수과?(아까 무명 만들 때 쓰는 그거. 무명 만들 때 솜 태우기 전에 꽃 이름 뭐 따서 했습니까?)

106012 #3 멘눼?(면화?)

106012 @ 예. 멘눼. 멘눼 농사 지어봣수과?(예. 면화. 면화 농사 지어봤습니까?)

106012 #3 지어봣주게 엿날에.(지어봤지 옛날에.)

106012 @ 멘눼농사 지을 때 어떵 헷수과?(면화농사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106012 #3 어떵 헤여게. 씨 부리민게.(어떻게 해. 씨 뿌리면.)

106012 @ 씨는 어디서 나근에?(씨는 어디서 나서?)

106012 #3 어디서사 나신지 그땐 알아지크라게?(어디에서 났는지 그땐 알 수 있나?)

106012 @ 게난예? 골아줍서. 처음 씨 뿌리는 거부터, 밧은 어떵 헤낫인지, 거름은 뭐 헤근에 씨 뿌려신지 기억나는 대로 골아봅서?(그러게요? 말해주세요. 처음 씨 뿌리는 거부터, 밭은 어떻게 했었는지, 거름은 뭐 해서 씨 뿌렸는지 기억나는 대로 말해보세요?)

106012 #3 걸름사 엿날엔 몰라. 걸름은 흔엇이 안 헤나서. 안 헤진 거 닮아. 멘눼.(거름이야 옛날엔 몰라. 거름은 별로 안 해났어. 안 했던 거 닮아, 면화.)

106012 @ 예, 예.(예, 예.)

106012 #3 갈아보지도 아녀고, 이녁이. 우린 갈아보지도 안헷주게.(갈아보지도 안하고, 이녁이. 우린 갈아보지도 안 했지.)

106012 @ 놈 가는 거라도 골아줍서. 어떵 갑디가? 셍각나는 대로 가르처줍서.(남 가는 거라도 말해주세요. 어떻게 갈았나요? 생각나는 대로 가르쳐주세요.)

106012 #3 어떵 갈아? 그자게 다른 거 갈 듯 갈민은 게, 크민은 게, 동메기 모자근에, 그자 미깡 동메기[94]ᄀᆞ찌 모장.(어떻게 갈아? 그저 다른 거 갈 듯 갈면 그래, 크면 그래, '동메기' 무질러서, 그저 밀감 '동메기'같이 무질러.)

106012 @ 예.(예.)

106012 #3 막 모자근에게 흔 뒈민 케주게 케어. 영영 벌어져.(막 무질러서 때 되면 패지 패어. 이렇게이렇게 벌어져.)

106012 @ 예.(예.)

106012 #3 그걸, 소게 나오라가.(그걸, 솜이 나와가.)

106012 @ 예.(예.)

106012 #3 그거 소게 믄 이녁냥으로 이추룩 믄 뽑아다근에, 그 물레에 또 영영 둘루멍 씨 믄 그 피 물레에 씨가 믄 나오게 판치룽케.(그거 솜 모두 이녁대로 이처럼 모두 뽑아다가, 그 물레에 또 이렇게이렇게 두르면서 씨 모두 그 껍데기 물레에 씨가 모두 나오게 깔끔하게.)

106012 @ 혹시 이 볼목리 동네에서는 그걸 농사지었던 사람은 어신가마씸?(혹

94) '동메기'는 꽃이 떨어지고 난 뒤 자그마한 열매를 말한다. = '동모레기', '동코레기'

시 이 보목리 동네에서는 그걸 농사지었던 사람은 없을까요?)
106012 #3 그거?(그거?)
106012 @ 멘뉘농사 지었던 사람 엇수과?(면화농사 지었던 사람 없나요?)
106012 #3 엿날 사름덜사 이서낫주 이제 젊은이덜사게 지어저게?(옛날 사람들이야 있어났지 이제 젊은이들이야 지어질까?)
106012 @ 아니, 삼춘네 또래에선 엇엇수과?(아니, 삼촌네 또래에선 없었습니까?)
106012 #3 엇어, 엇어.(없어, 없어.)
106012 @ 엇어?(없어?)
106012 #3 우리가 나이오래 살아부난 이거 그거주. 몰루주, 젊은이덜사 어떵 헌줄 알암서이?(우리가 나이오래 살아버려서 이거 그거지. 모르지, 젊은이들이야 어떻게 한줄 알까?)
106012 @ 경해부난 마씨. 게난 혹시나 옛날 어른 중에 멘뉘농사 지어난 사람 어신가 헤가지고예?(그러니까요. 그러니 혹시나 옛날 어른 중에 면화농사 지어난 사람 없을까 해가지고요?)
106012 #3 하하하하.(하하하하.)
106012 @ 혹시.(혹시.)
106012 #3 헤영케 케주게. 게민 헤영케 소게가 나오라 가.(하얗게 패지. 그러면 하얗게 솜이 나와 가지.)
106012 @ 예.(예.)
106012 #3 영 흔 뒈민.(이렇게 때 되면.)
106012 @ 예.(예.)
106012 #3 미깡 흔 뒈민 타듯, 영 헹 문딱헹 그 각지가 벌어지주게.(밀감 때 되면 따듯, 이렇게 해서 모두해서 그 깍지가 벌어지지.)
106012 @ 예.(예.)
106012 #3 벌어정 ᄒᆞ민 이 소게 영영 뽑으주게 그디 강.(벌어지면 이 솜이 이렇게이렇게 뽑지 거기 가서.)
106012 @ 예.(예.)
106012 #3 뽑아다근에게 그 물레에 영 ᄌᆞ는 곳에 씨 빠불젠 영영 멕이멍 영영 ᄒᆞ민, 씨 나오는 딘 씨 나오곡 소게만 이펜으로 나오곡 ᄒᆞ주게.(뽑아다가 그 물레에 이렇게 잣는 곳에 씨 빼려고 이렇게이렇게 먹이면서 이렇게이렇게 하면, 씨 나오는 데는 씨 나오고 솜만 이편으로 나오고 하지.)

모시

106013 @ 혹시 모시도 헤봣수과?(혹시 모시도 해봤습니까?)
106013 #3 모신 그거 삼, 삼. 삼 갈아근에.(모신 그거 삼, 삼. 삼 갈아서.)
106013 @ 예.(예.)

106013 #3 갈아근에 이제 흔 뒈민 비여당 그 거죽 벳경.(갈아서 이제 때 되면 베어다가 그 거죽 벗겨서.)

106013 @ 예.(예.)

106013 #3 요멘썩 치저근에.(요만큼씩 찢어서.)

106013 @ 예.(예.)

106013 #3 이 영영 영 벗어근에 이거(바지 무릎을 걷으며) 이거.(이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벗어서 이거(바지 무릎을 걷으며) 이거.)

106013 @ 예.(예.)

106013 #3 영영 벗어근에 요멘썩 치저근에 믄 이거 잇주 잇어.(이렇게이렇게 벗어서 요만씩 찌어서 모두 이거 잇지 이어.)

106013 @ 예.(예.)

106013 #3 건 물레로 안 잇엉 손으로 믄 이런디(무릎 위에서) 밀멍.(그건 물레로 안 이어 손으로 모두 이런데(무릎 위에서) 밀면서.)

106013 @ 예.(예.)

106013 #3 영, 질게.(이렇게 길게.)

106013 @ 거 헤봣수과? 모시 허는 거 헤봣수과?(그거 해봤습니까? 모시 하는 거 해봤습니까?)

106013 #3 엿날에 놈 ᄒᆞ는 거 봣주. 하하하.(옛날에 남 하는 거 봤지. 하하하.)

106013 @ 아, 기구나예. 직접 헤보진 아녀고예?(아, 그렇군요. 직접 해보지는 않고요?)

106013 #3 아니게, 욕안 그런 거 헤보젠 아 장난으로 헷주. 우리사 그런 거허젠 헤봐서게.(아니, 철들어서 그런 거 해보려고 아 장난으로 했지. 우리야 그런 거하려고 해봤을까.)

106013 @ 음.(음.)

106015 #3 밧 갈앙. 이만썩 갈앙, 삼 삼 갈앙.(밭 갈아서. 이만큼 갈아서, 삼 삼 갈아서.)

106015 @ 음.(음.)

106013 #3 젠젠ᄒᆞ게시리 치저 놔근에 또 이디 영 옷 걷어근에 이디 밀멍 잇으는 거주게. 이서, 이서.(자잘하게 찢어 놓아서 또 여기 이렇게 옷 걷어서 여기 밀면서 잇는 거지. 이어, 이어.)

106013 @ 잇어. 게난 그거는 모시가 아니고 혹시 삼 아니꽈? 삼?(이어. 그러니 그거는 모시가 아니고 혹시 삼 아닌가요? 삼?)

106013 #3 삼이 모시주게.(삼이 모시지.)

106013 @ 삼베, 삼베. 삼베가 삼이고예? 모시는 다른, 썹 잇잖아예? 그 썹으로 뭰 거고.(삼배, 삼배. 삼배가 삼이고요? 모시는 다른, 잎 있잖아요? 그 잎으로 된 거고.)

106013 #3 모시는 난 몰라, 모시는.(모시는 난 몰라, 모시는.)

삼

106016 @ 삼도 심어낫수과? 제주도에도?(삼도 심어났나요? 제주도에?)

106016 #3 삼?(삼?)

106016 @ 예. 영영 그거 헌 거는 삼은 삼베헤근에 무신 그 영장 때 삼베옷 입고헤낫잖아예?(예. 이렇게 이렇게 그거 한 거는 삼은 삼베해서 무슨 그 장례식 때 삼베옷 입잖아요?)

106016 #3 영장 때 입는 것사게 그거 베주게. 이제 베.(장례식 때 입는 거야 그거 베지. 이제 베.)

106016 @ 거난 삼베.(거난 삼베.)

106016 #3 삼베. 삼으로 헌 것이 아니라.(삼베. 삼으로 한 것이 아니라.)

106016 @ 무신 걸로 헌 거꽈? 게믄. 삼베는?(무슨 걸로 한 겁니까? 그러면. 삼베는?)

106016 #3 그것이 삼벤가? 난 몰라. 삼으로, 것도 경헌 거 담아 붸어. 모시가 삼베 아니라? 경만 헤나난에. 것만 헤나난에.(그것이 삼벤가? 난 몰라. 삼으로, 것도 그런 거 닮아 보여. 모시가 삼베 아니라? 그렇게만 해났었어. 것만 해났었어.)

106016 @ 그 삼?(그 삼?)

106016 #3 삼낭이 막 질주게.(삼나무가 막 길지.)

106016 @ 맞수다.(맞습니다.)

106016 # 그거 막 거죽 벳겨당은에.(그거 막 거죽 벗겨다가.)

106016 @ 거죽 벳겨가지고.(거죽 벗겨가지고.)

106016 #3 요멘씩 치저근에 잇어근에.(요만씩 찢어서 이어서.)

106016 @ 게난.(그러니까.)

106016 #3 그것이 삼벨 거라.(그것이 삼벨 거야.)

106016 @ 기지예? 삼베예?(그렇지요? 삼베죠?)

106016 #3 어.(어.)

106016 @ 거믄 그 삼베 ᄀᆞ튼 경우는 옛날엔 막 그 혹시 삼베 껍질이나 이런 걸로 헤가지고 막 입 헤가지고 사름덜 담베 피우거나는 안 헷수과?(그러면 그 삼베 같은 경우는 옛날엔 막 그 혹시 삼베 껍질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막 잎 해가지고 사람들 담배 피우거나 안 했습니까??)

106016 #3 삼으루?(삼으로?)

106016 @ 예.(예.)

106016 #3 안 헤낫주.(안 해났지.)

106016 @ 안 헤낫수과?(안 했습니까?)

106016 #3 헤낫젠?(했었다고?)

106016 @ 아니 이젠 법적으로 금지 뒈거든마씨? 대마초라고 헤가지고 그 삼에서 나온.(아니 이젠 법적으로 금지 되거든요? 대마초라고 해가지고 그 삼에서 나

온.)

106016 #3 삼에서 나온 거?(삼에서 나온 거?)

106016 @ 삼베 만드는 거 게민.(삼베 만드는 거 그러면.)

106016 #3 삼베도 게 전이, 엿날에도 하영 안헹 기자 ᄒᆞ는 디만 ᄒᆞ끔 ᄒᆞ곡.(삼베도 그래 전에, 옛날에도 많이 안 해서 그저 하는 데만 조금 하고.)

106016 @ 볼목린 안 헤낫수과?(보목린 안 해났나요?)

106016 #3 볼목린 그런 거 갈안 ᄒᆞ끔헤낫주. 저, 섯동네 우리 조케. 섯동네 사름이난.(보목린 그런 거 갈아서 조금해났지. 저, 서쪽동네 우리 조카. 서쪽동네 사람이어서.)

106016 @ 예. 혹시 그거 헷엇던 사름 살아계신 사름 엇수과?(예. 혹시 그거 했었던 사람 살아계신 사람 없습니까?)

106016 #3 살 리가 이서게? 엿날 다 죽어비엇주 엿날 사름이난에 엿날에.(살 리가 있어? 옛날 다 죽어버렸지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에.)

106016 @ 음.(음.)

106016 #3 아주 엿날에, 집도 어신 때주. 이디추룩 집 이신 때 ᄒᆞ주마는 게난 이거 집 우리, 나 씨즙 간 후제 이거 원 집 엇어나서.(아주 옛날에, 집도 없을 때지. 여기처럼 집 있을 때 하지만 그러니 이거 집 우리, 나 시집 간 후에 이거 원, 집 없었어.)

106016 @ 음.(음.)

106016 #3 문딱 ᄒᆞ교도 엇어나곡. 그디 문 ᄒᆞ교 지신디도 문.(모두 학교도 없어나고. 거기 모두 학교 지은 데도 모두.)

106016 @ 예.(예.)

106016 #3 그 아이덜 엿날엔 ᄒᆞ끔ᄒᆞ민 아파근에덜 약도 엇곡 ᄒᆞ민 죽주게.(그 아이들 옛날엔 조금하면 아파서들 약도 없고 하면 죽지.)

106016 @ 맞수다게.(맞습니다.)

106016 #3 죽으민 요만썩 요만썩 묻으난, 문 ᄒᆞᆫ디. 이젠 원 그 땐 우리 두린 땐 게 경 이치룩 집이 비작비작[95] 서서게?(죽으민 요만씩 요만씩 묻으니까, 모두 함께. 이젠 원 그 땐 우리 어린 땐 그렇게 이처럼 집이 '바투바투' 있었나?)

106016 @ 맞수다게.(맞습니다.)

106016 #3 ᄒᆞ나이나 경 이서낫주.(하나둘이나 그렇게 있어났지.)

106016 @ 음.(음.)

도구

106019 @ 혹시 씨아라는 말 이수과? 씨아?(혹시 씨아라는 말 있습니까? 씨아?)

106019 #3 씨아가 뭐인구?(씨아가 뭐이지?)

106019 @ 멘네씨 빨 때 사용허는 도구마씨게.(면화씨 뺄 때 사용하는 도구요.)

95)'비작비작'은 바투바투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집들이 모여서 여기저기 많아진 상태를 말한다.

106019 #3 도구?(도구?)
106019 @ 사용헷던 어떤?(사용했던 어떤?)
106019 #3 도구? 엇어 이젠.(도구? 없어 이젠.)
106019 @ 그거 혹시 알아집니까?(그거 혹시 알아집니까?)
106019 #3 (모른다고 고개 흔듬.)(모른다고 고개 흔듬.)
106020 @ 물레들은 잇수과?(물레들은 있습니까?)
106020 #3 돌려난 거 어디 이실 리가 이서?(돌려난 거 어디 있을리가 있어?)
106020 @ 그때 집에.(그때 집에.)
106020 #3 이제 엿날에 이제 이집엔 문 아저가비언. 저디 저 무시거 놔두난에, 그 엿날 무시거 놔두난 엇어, 문 아저가비어.(이제 옛날에 이제 이집엔 모두 가져가 버렸어. 저기 저 뭐 놔두니까, 그 옛날 뭐 놔두니까 없어, 모두 가져가버려.)
106020 @ 옛날에 물레 거 집에 이서낫수과? 삼춘 집에.(옛날에 물레 그거 집에 있었습니까? 삼촌 집에.)
106020 #3 우리 집, 우리 어머님네 집에게 우리 씨즙가기 전이난 헤나나난게, 씨즙 간 후젠 안혀난.(우리 집, 우리 어머님 네 집에 우리 시집가기 전이어서 해났었어, 시집 간 후에 안 하니까)
106021 @ 베틀 ᄀᆞ튼 것도 다 이서낫수과?(베틀 같은 것도 다 있었습니까?)
106021 #3 어?(어?)
106021 @ 친정에 베틀도 이서낫수과?(친정에 베틀도 있었습니까?)
106021 #3 베클?(베틀?)
106021 @ 예. 베클.(예. 베틀.)
106021 #3 베클덜 엿날에 이서낫주게. 지름클, 베클. 지름 빠는 클도 이서나곡.(베틀들 옛날에 있어났지. 기름틀, 베틀. 지름 빠는 틀도 있어나고.)
106021 @ 아.(아.)
106021 #3 우리두 칙광[96]엔 것도 이 돌아가멍 그 클을 매 집에 안 놩.(우리도 '측광'엔 것도 이 돌아가며 그 틀을 매 집에 안 놓아.)
106021 @ 예.
106021 #3 계혜근에.(계해서.)
106021 @ 예.(예.)
106021 #3 클 ᄒᆞ는 계혜근에 ᄒᆞ민.(틀 하는 계해서 하면.)
106021 @ 예.(예.)
106021 #3 지름 빠는 기계도 혼 일 년 이 집에 ᄒᆞ민, 또 혼 일 년은 저 집이 강 ᄒᆞ곡.(기름 빠는 기계도 한 일 년 이 집에 하면, 또 한 일 년은 저 집에 가서 하고.)
106021 @ 저 집이 강, 음.(저 집에 가서, 음.)
106021 #3 것도 계 혜놔근엔, 지름 빠는 거.(그것도 계해서, 기름 빠는 거.)
106021 @ 지름 계?(기름 계?)

96) '칙광'은 한쪽 구석에 있는 측광을 말한다.

106021 #3 지름클.(기름 틀.)

106021 @ 지름클인데 그 계 이름은 뭐렌 골아낫수과? 계?(기름틀인데 그 계 이름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계?)

106021 #3 계주게, 계.(계지, 계.)

106021 @ 그냥 계렌만 헷수과?(그냥 계라고만 했습니까?)

106021 #3 음. 계 멘들앙. 지름 클.(음. 계 만들어서. 기름틀.)

106021 @ 음.(음.)

106021 #3 지름클. 지름 빠는 거. 경헹 품 받으멍게.(기름틀. 기름 빠는 거. 그렇게 해서 삯 받으면서.)

106021 @ 그때 지름은 주로 어떤 지름 뽑아낫수과?(그때 기름은 주로 어떤 기름 뽑았습니까?)

106021 #3 어떤 지름이라? 꿰지름이여 돔박지름이여, 엿날엔 돔박지름 불르난 머리에 막 불라나지 아녀서?(어떤 기름이라? 참기름이여 동백기름이여, 옛날엔 동백기름 바르니까 머리에 막 발라나지 안 해서?)

106021 @ 맞수다게.(맞습니다.)

106021 #3 게난 엿날에 불라나난 돔박지름도 빠곡, 우리 어머니네 집이두 클, 칙광덜 헤근에.(그러니 옛날에 발라났던 동백기름도 빼고, 우리 어머니네 집에도 틀, 칙광들 해서.)

106021 @ 칙광마씨?(칙광요?)

106021 #3 칙광이엔 혼 건, 혼 집에 클 머치는 칙광이엔 ᄒᆞ주게. 경헤근에 혼 해에 헤나민 다른 해에 웬기고 경허멍 헤낫주.(칙광이라고 한 건 한 집에 틀 맡기는 칙광이엔 하지. 그렇게 해서 한 해에 해나면 다른 해에 옮기고 그렇게 하면서 했었지.)

106021 @ 예.(예.)

106021 #3 클라를 지름클라.(틀을 기름틀.)

바느질

106022 @ 바눙질은 막 계속 헷잖아예?(바느질은 막 계속 했잖아요?)

106022 #3 바눙질은 헤서.(바느질은 해서.)

106022 @ 바눙질 헐 때 바늘은 이 볼목리에선 뭐렌 골아낫수과?(바느질 할 때 바늘은 이 보목리에선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22 #3 바눙[97]이엔 곧지, 엿날부터.('바눙'이라고 말하지, 옛날부터.)

106022 @ 바눙이엔 곧잖아예? 바눙 담는 그릇은 뭐렌 골앗수과?(바늘이라고 말하잖아요? 바늘 담는 그릇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22 #3 바눙쌍지[98].('바눙쌍지'.)

97) '바눙'은 바늘을 말한다.

98) '바눙쌍지'는 '반짇고리'를 말한다.

106022 @ 바눙쌍지?(반짇고리?)

106022 #3 이디선 바눙쌍지엔 하하하하.(여기선 반짇고리라고 하하하.)

106022 @ 경 ᄀᆞᆯ앗지예? 게, 바눙쌍지 속엔 주로 무시거 무시거 들어낫수과?(그렇게 말했지요? 그래, 반짇고리 속엔 주로 뭐 뭐 들어있었습니까?)

106022 #3 무시거나 ᄀᆞ세도 들곡, 씰도 감앙 놓곡. 바눙 감앙은에.(뭐 가위도 들고, 실도 감아서 놓고. 바늘 감아서는.)

106022 @ 다른 건 또 뭐 이섯수과?(다른 건 또 뭐 있었습니까?)

106022 #3 이녁 ᄒᆞ단 행장 그레 놔근에 바눙쌍지에 놓멍 헷주.(이녁 하는 행장 거기에 놔서 반짇고리에 놓으면서 했지.)

106022 @ 맞수다예.(맞습니다.)

106023 @ 바눙질헤근에 주로 무신거 만들어낫수과? 옷이나 뭐나?(바느질해서 주로 뭐 만들었습니까? 옷이나 뭐나?)

106023 #3 옷사 엿날에게 저구리도 멘들국게 이런 몸뻬도 멘들국 바지도 멘들아낫주게. 엿날에 이녁낭으로게.(옷이야 옛날에 저고리도 만들고 이런 일 바지도 만들고, 바지도 만들었지. 옛날에 이녁스스로.)

106023 @ 그믄 바눙질 헐 때 막 여러 종류가 잇잖우꽈예? 무신 아메나 막 뜨는 것도 잇곡, 촘촘허게 뜨는 것도 잇잖아예?(그러면 바느질 할 때 막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무슨 아무렇게나 막 뜨는 것도 있고, 촘촘하게 뜨는 것도 있잖아요?)

106023 #3 즘질이 허는 거?(자잘하게 하는 거?)

106023 @ 예.(예.)

106023 #3 뎅침 박는 거.(온박음질하는 거.)

106023 @ 무신거마씸? 뎅침 박는 거?(뭐라고요? 온박음질하는 거?)

106023 #3 막 영 헹 즘질게시리 막 뎅침을 박주. 요만썩 요만썩이.(막 이렇게 해서 촘촘하게끔 막 온박음질하지. 요만씩 요만씩.)

106023 @ 예.(예.)

106023 #3 경ᄒᆞ민 그것이 뎅침 박는 거엔 ᄀᆞᆫ주게.(그렇게 하면 그것이 온박음질하는 거라고 말하지.)

106023 @ 뎅침 박는 거 잇고 또 무시거 이수과?(온박음질하는 거 있고 또 뭐 있습니까?)

106023 #3 뎅침 박는 거 잇국 거벳긔 더 서?(온박음질하는 거 있고 거밖에 더 있어?)

106023 @ 뎅침 박고 그 다음엔 막.(온박음질하고 그다음에 막.)

106023 #3 즘질게 ᄒᆞ는 것ᄀᆞ라 뎅침 박은 거엔 ᄒᆞ주.(촘촘하게 하는 것보고 온박음질하는 거라고 하지.)

106023 @ 예, 즘질게. 거믄 훌게 허는 건마씨?(예. 촘촘하게. 그러면 굵게 하는 건요?)

106023 #3 훅게 ᄒᆞ는 건 몰라. 그자 그대로.(굵게 하는 건 몰라. 그저 그대로.)

106023 @ 양말 ᄀᆞ튼 것도 옛날엔 다 바눙질 헷잖아예?(양말 같은 것도 옛날엔 다 바느질 했잖아요?)

106023 #3 버선, 버선.(버선, 버선.)

106023 @ 버선에?(버선이요?)

106023 #3 (신은 버선을 보여주며) 이런 거게. 이런 거 믄 멘들아근에. 이녁냥으로.((신은 버선을 보여주며) 이런 거게. 이런 거 모두 만들어서. 이녁대로.)

106023 @ (버선의 부리를 가리키며)요추룩 바눙질 헌 건 뭐렌 ᄀᆞᆯ앗수과? 끝에 헤난 거.((버선의 부리를 가리키며)이처럼 바느질 한 건 뭐라고 말했습니까? 끝에 했던 거.)

106023 #3 에이, 몰라 이런 건.(엥, 몰라 이런 건.)

106023 @ 몰라?(몰라?)

106023 #3 이런 건 ᄀᆞᆫ지 아녀나난.(이런 건 말하지 안 해나서.)

106023 @ 그냥 박음질만 헤나근에예?(그냥 박음질만 했어 서요?.)

106023 #3 이런 거 뎅침 박는 거엔, 줌질이 박는 거엔, 뎅침 박는 거엔.(이런 거 온박음질하는 거라고, 촘촘히 박는 거라고, 온박음질하는 거라고.)

106023 @ 막 홁게 허는 거엔 다른 이름이 엇어나신가마씸?(막 굵게 하는 거에는 다른 이름이 없었나요?)

106023 #3 건 일름 엇어, 몰라도.(건 이름 없어, 몰라도.)

106023 @ 게민예? 이런 바지 ᄀᆞ튼 거 헐 때 요추룩 헤가지고 요추룩 허잖아예?(그러면요? 이런 바지 같은 거 할 때 이처럼 해가지고 이처럼 하잖아요?)

106023 #3 감치는 거?(감치는 거?)

106023 @ 예. 그건 뭐렌 ᄀᆞᆯ앗수과?(예. 그건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23 #3 영영 영영, 기냥 감치는 거엔.(이렇게이렇게 이렇게이렇게, 그냥 감치는 거라고.)

106023 @ 감치는 거엔? 기냥 감친덴 헷수과?(감치는 거엔? 그냥 감친다고 했습니까?)

106023 #3 어. 난 몰라 나 ᄒᆞ는 거난에. 다른 일름사 신디. 감침 박는 걸 뎅침 박는 거 그거주게.(어. 난 몰라 나 하는 거니까. 다른 이름이야 있는지. 감침질하는 건 온박음질하는 거 그거지.)

106023 @ 감침박는 거?(감침질하는 거?)

106023 #3 뎅침 박는 건 줌질이 박는 거고, 홁게 ᄒᆞ는 건 정 호는 거.(온박음질하는 건 촘촘하게 박는 거고, 굵게 하는 건 그렇게 호는 거.)

106023 @ 호는 거? 게난마씸. 그 말이 셍각 안난.(호는 거? 그러니까요. 그 말이 생각 안 나서.)

106023 #3 홁게 박는 건, 호는 거.(굵게 박는 건, 호는 거.)

106023 @ 호는 거예?(호는 거요?)

106023 #3 홁게 박는 건, 호는 거. 뎅침 박는 건 줌질이 박는 거.(굵게 박는 건

호는 거. 온박음질하는 건 촘촘히 박는 거.)

106023 @ 감치는 건?(감치는 건?)

106023 #3 감치는 건 펭펭 영영 감처.(감치는 건 팽팽 이렇게이렇게 감쳐.)

106023 @ 예. 감치는 건 펭펭 감는 거예?(예. 감치는 건 팽팽 감는 거요?)

옷 종류

106024 @ 남자 옷에는 어떤 옷들이 이섯수과? 남자 어른 아이덜 옷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이섯수과?(남자 옷에는 어떤 옷들이 있었습니까? 남자 어른 아이들 옷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106024 #3 무시거게? 엿날에사 바지, 저구리덜 그런 거벳긔 더 이서서?(무슨 거? 옛날에야 바지, 저고리들 그런 거밖에 더 있었어?)

106024 @ 바지, 저구리, 속옷종류도 이서나지 안헷수과?(바지, 저고리, 속옷종류도 이서나지 않았습니까?)

106024 #3 이젠 살마다엔 ᄒᆞ주마는 이?(이젠 속옷이라고 하지만.)

106024 @ 예. 옛날엔?(예. 옛날엔?)

106024 #3 것이, 엿날엔 속옷이엔 헤나신가 원[99]? 속옷이엔, 이제도 속옷이엔 안헴서?(것이, 옛날엔 속옷이라고 해났을까 '원'? 속옷이라고, 이제도 속옷이라고 안 하나?)

106024 @ 예. 이제야 속옷이엔 헙니다마는 옛날에도 기냥?(예. 이제야 속옷이라고 합니다마는 옛날에도 그냥?)

106024 #3 어. 우리도 엿날엔 우리 입는 거 속옷이엔.(어. 우리도 옛날엔 우리 입는 거 속옷이라고.)

106024 @ 속옷이엔 헤낫수과? 다른 말 엇엇수과?(속옷이라고 했습니까? 다른 말 없었습니까?)

106024 #3 어. 다른 말 엇어.(어. 다른 말 없어.)

106024 @ 혼 번 생각헤봅서.(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106024 #3 이제사 일분 말로 살마다여 무신 무시거여. 살마다가 일분 말 아니라?(이제야 일본말로 살마다여 무슨 무슨 거여. 살마다가 일본말 아니라?)

106024 @ 맞수다게. 살마다 잇기 전에 다른 말 엇엇수과? 엇어낫수과?(맞습니다. 살마다 있기 전에 다른 말 없었습니까? 없었습니까?)

106024 #3 쏘곱에 입는 거에나 벳긘 무시거?(속에 입는 거에나 밖에 뭐?)

106025 @ 그믄 여자 옷 종류에는 뭐가 이섯수과?(그러면 여자 옷 종류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106025 #3 여저 옷?(여자 옷?)

106025 @ 예.(예.)

106025 #3 엿날 속옷?(옛날 속옷.)

---

99) '원'은 뜻밖의 일이나 놀라울 때, 언짢은 때 따위에 느꺼워 하는 말이다.

106025 @ 아니, 저고리나 뭐 이런 거.(아니, 저고리나 뭐 이런 거.)

106025 #3 저구리, 바지, 정벵이.(저고리, 바지, 잠방이.)

106025 @ 점벵인 어떤 거꽈?(잠방인 어떤 겁니까?)

106025 #3 정벵인 웨 홀로 헤근에 웨곱으로 헤영 입는 것이 정벵이.(잠방인 외홀으로 해서 홑겹으로 해서 입는 것이 잠방이.)

106025 @ 웨곱?(홑겹?)

106025 #3 웨곱 처.(홑겹 쳐.)

106025 @ 웨곱 처가지고마씨? 웨곱 친다는 말은 어떻게 바느질 허는 거꽈?(홑겹 쳐가지고요? 홑겹 친다는 말은 어떻게 바느질 허는 겁니까?)

106025 #3 바눙질 ᄒᆞ는 것이게, 이추룩 ᄒᆞ는 것이, 이거 안 이런 거 안 어신 것이 웨곱.(바느질 하는 것이, 이처럼 하는 것이, 이거 안, 이런 거 안 없는 것이 홑겹.)

106025 @ 아, 웨곱이구나예.(아, 홑겹이군요.)

106025 #3 웨곱으로 ᄒᆞ는 것이 정벵이, 정벵이.(홑겹으로 하는 것이 잠방이, 잠방이.)

106025 @ 정벵이마씸?(잠방이요?)

106025 #3 어, 남저덜토 정벵이, 적삼.(어, 남자들도 잠방이, 적삼.)

106025 @ 음, 정벵이.(음, 잠방이.)

106025 #3 웨곱으로 ᄒᆞᆫ 거.(홑겹으로 한 거.)

106025 @ 예, 정벵인 웨곱으로 친 거예?(예, 잠방인 홑겹으로 친 거요?)

106025 #3 두 곱으로 친 건 바지.(두 겹으로 친 건 바지.)

106025 @ 두 곱으로 친 건 바지고예? 그믄 옛날에 여자 어른덜 지금은 속에, 브라자렌 헷는디 옛날엔 뭐렌 ᄀᆞᆯ앗수과?(두 겹으로 친 건 바지고요? 그러면 옛날에 여자 어른들 지금은 속에, 부레지어라고 하는데 옛날엔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25 #3 브라지렌 ᄒᆞᆫ 건? 젓막이엔 ᄒᆞ주 뭐렌 ᄀᆞᆯ아?(부레지어라고 하는 건? 젖막이라고 하지 뭐라고 말해?)

106025 @ 젓막이렌 ᄀᆞᆯ앗수과? 그다음엔 요즘에 입는 빤스, 팬티 이건 뭐렌 ᄀᆞᆯ앗수과?(젖막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다음엔 요즘에 입는 팬티, 팬티 이건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25 #3 건 무시거엔 엿날에사 ᄀᆞᆯ아서게? 쏙정벵이나 벳긔 무시거엔 ᄀᆞᆯ아?(건 뭐라고 옛날에야 말했을까? 속잠방이나 밖에 뭐라고 말해?)

106025 @ 쏙정벵이? 쏙정벵이, 기구나.(속잠방이? 속잠방이, 그렇구나.)

106025 #3 쏘곱에 입는 거난에.(속에 입는 거니까.)

106025 @ 그믄 옛날에 월경 오면 월경 막는 거는 뭐렌 ᄀᆞᆯ앗수과?(그러면 옛날에 월경 오면 월경 막는 거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25 #3 허허허 건 난 몰라.(허허허 건 난 몰라.)

106025 @ 그땐 뭘로 헷수과? 그땐.(그땐 뭐로 했습니까? 그땐.)

106025 #3 그땐 뭘로 골아서게? 무시거엔 그건 일름은 몰라.(그땐 뭐라고 말했을까? 뭐라고 그건 이름은 몰라.)

106025 @ 게민 그거를 어떵 마련헷수과?(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106025 #3 어떵 마련헤게? 옷 골아 입음벳긔.(어떻게 마련해? 옷 갈아입는 수밖에.)

106025 @ 옷으로마씸? 어머니가 무신 뭐 미녕이나 뭘로 만들아주진 안헷수과?(옷으로요? 어머니가 무슨 뭐 무명이나 뭔가로 만들어주진 안했습니까?)

106025 #3 만들진 아녀고. 기자덜 엿날에사 무시거 경 커신 입음도 아녀곡, 오래 입음도 아녕 월경이나 온 때 첨, 원, 재기 골아입주. 엿날에사 어디 옷 서근에 재기 골아입어게? 이추룩이.(만들진 안하고. 그저 옛날에야 뭐 그렇게 금방 입음도 안하고, 오래 입음도 안 해서 월경이나 온 때 참, 원, 빨리 갈아입지. 옛날에야 어디 옷 있어서 빨리 갈아입었나? 이처럼.)

106025 @ 게난예.(그러니까요.)

106025 #3 경ᄒᆞ난 엿날에 늬두 일국.(그렇게 하니까 옛날에 이도 일고.)

106025 @ 맞수다.(맞습니다.)

106025 #3 씨도 일국. 경ᄒᆞ는 거, 이제 보난.(서캐도 일고, 그렇게 하는 거, 이제 보니까.)

106025 @ 맞수다. 진짜.(맞습니다. 진짜.)

106025 #3 엿날에 엿날에 옷 어디 서게, 옷.(옛날에 옛날에 옷 어디 있어, 옷.)

106025 @ 잘 씻지도 안허고예?(잘 씻지도 안하고요.)

106025 #3 씻지도 아녀곡 경헨 살앗주.(씻지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았지.)

106025 @ 아, 그때 월경 와실 때 월경을 막는 따로 뭐 이렇게 천이 엇엇수과?(아, 그때 월경 왔을 때 월경을 막는 따로 뭐 이렇게 천이 없었습니까?)

106025 #3 따로 뭐 엇어.(따로 뭐 없어.)

106025 @ 기냥 옷에 묻으민 확 골아입곡 경헷수과?(그냥 옷에 묻으면 확 갈아입고 그렇게 했습니까?)

106025 #3 오게. 경헷주 어떵허여게. 우리게, 엿날에 속옷에 입으민 재기 그날 그날 골아입으민 짝으로.(그래. 그렇게 했지 어떻게 해. 우리, 옛날에 속옷에 입으면 빨리 그날 그날 갈아입는 식으로.)

106025 @ 아, 경헷구나게.(아, 그렇게 했구나.)

106025 #3 우린 경헤신디. 몰라 다른 사름은 하하하 어떵사 헤신디 하하하.(우린 그렇게 했는데. 몰라 다른 사람은 하하하 어떻게나 했는지 하하하.)

106025 @ 빤스나 뭐 입으면 그 우에 또 뭐 입어나지 안헷수과?(팬티나 뭐 입으면 그 위에 또 뭐 입어나지 안했습니까?)

106025 #3 기자 두 개 입는 사름사 입엇주마는 대걸룽 어디 어시난에 엿날에사 우리 처년 때엔 경 골아입을 거 경 서서? 어디 옷은 심광, 아주 엿날이라 부난에.(그저 두 개 입는 사람이야 입었지마는 대충 어디 없으니까 옛날에야 우리 처녀인

때는 그렇게 갈아입을 거 그렇게 있었어? 어디 옷은 있으며, 아주 옛날이라 버려서.)

106025 @ 게난예? 아니 게난 제가 알고 싶은 건?(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106025 #3 이제 ᄉᆞ뭇 ᄆᆞᆫ 그런 거 저런 거 ᄆᆞᆫ ᄉᆞ뭇.(이제 사못 모두 그런 거 저런 거 모두 사못.)

106025 @ 제가 알고 싶은 건 그때 월경 막젠 헤나면 그걸 무시거렌 ᄀᆞᆯ아나신지 그걸 알고 싶언마씨. 분명히 뭔렌 잇긴 이서실 건디.(제가 알고 싶은 건 그때 월경 막으려고 하면 그걸 뭐라고 말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요. 분명히 뭐라고 있기는 있었을 건데.)

106025 #3 그게 몰라.(그게 몰라.)

106025 @ 그걸 몰라예? 삼춘도 기냥 피 묻으민 확 옷만 ᄀᆞᆯ아입어낫수과?(그걸 모르죠? 삼촌도 그냥 피 묻으면 확 옷만 갈아입었습니까?)

106025 #3 오게.(오게.)

106025 @ ᄒᆞ낌 클 때?(조금 클 때?)

106025 #3 자꾸 ᄀᆞᆯ아입엇주게.(자꾸 갈아입었지.)

106025 @ 경헷구나게.(그렇게 했구나.)

106026 @ 아이덜 옷 종류는 어떤 종류가 이섯수과? 이이덜 옷.(아이들 옷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었습니까? 이이들 옷.)

106026 #3 아이덜 옷, 경 이서서게? 이제 ᄀᆞ트민 무시거 아이덜 ᄯᅮ루 허지 안허난.(아이들 옷, 그렇게 있었나? 이제 같으면 뭐 아이들 따로 하지 안하니.)

106027 @ 게민 옷 만들 때 미녕을 만들 거 아니꽈예? 미녕을 만들민 이제 천이 뒐 거 아니꽈예? 그 천 뒈민 그 천 짤라근에 옷 만드는 과정을 ᄒᆞ낌 ᄀᆞᆯ아줍서. 어떵어떵 헤신지.(그러면 옷 만들 때 무명을 만들 거 아닙니까? 무명을 만들면 이제 천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천 되면 그 천 잘라서 옷 만드는 과정을 조금 말해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106027 #3 게메 것도 게메게 버선도 멘들고.(그러게 것도 그러게 버선도 만들고.)

106027 @ 아니 게난 어떵 헨? 천을.(아니, 그러니까 천을 어떻게 해서? 천을.)

106027 #3 기차근에게 이런 거게 본을 기차근에 멘들주.(잘라서 이런 거 본을 잘라서 만들지.)

106027 @ 본이 어디 시민마씨?(본이 어디 있으면?)

106027 #3 본은 엿날엔이, 이젠 이거 놩이라도 본뜨주마는 종이, 종이 영 헤근에 저 이치룩 기려근에.(본은 옛날엔, 이젠 이거 놔서라도 본뜨지만 종이, 종이 이렇게 해서 저 이처럼 그려서.)

106027 @ 예.(예.)

106027 #3 이치룩, 이치룩 ᄒᆞ민 종이 영 헤근에.(이처럼, 이처럼 하면 종이 이렇

게 해서.)

106027 @ 예.(예.)

106027 #3 쳇 번은 종이로 영 헹 기성게 영 헨.(첫 번은 종이로 이렇게 해서 그어서는 이렇게 했지.)

106027 @ 예.(예.)

106027 #3 그거 놔근에 본떠근에 주언게.(그거 놔서 본떠서 기웠지.)

106027 2 아, 기꽈.(아, 그래요?)

106027 #3 응.(응.)

106027 @ 경 헹 안 봥 족아불민 어떵 헤신고예?(그렇게 해서 안 봐서 작아버리면 어떻게 했는지요?)

106027 #3 무시거 족아불민?(뭐 작아버리면?)

106027 @ 이 버선이 족아불민.(이 버선이 작아버리면.)

106027 #3 버선 족은 사름은 족게 ᄒᆞ곡게, ᄒᆞ끔 글로 줄이국 크게 ᄒᆞᆫ 사름은 크게시리 ᄒᆞ곡.(버선 작은 사람은 작게 하고, 조금 그리로 줄이고 크게 한 사람은 크게끔 하고.)

106027 @ 본뜰 땐?(본뜰 땐?)

106027 #3 본뜰 때? 엿날에 종이로. 쳇 번 ᄒᆞᆯ 땐 종이로, 이젠 놈ᄒᆞ는 거 기자.(본뜰 때? 옛날에 종이로. 첫 번 할 땐 종이로, 이젠 남하는 거 기자.)

106027 @ 저고리 ᄀᆞ튼 것도 다 본뜨멍 헷수과?(저고리 같은 것도 다 본뜨면서 했습니까?)

106027 #3 아니, 저구리는.(아니, 저고리는.)

106027 @ 저구린 어떵 만들앗수과?(저고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06027 #3 저구리사게 본 그자 크게 ᄒᆞ젠ᄒᆞ민 크게 ᄒᆞ곡 족게 ᄒᆞ젠ᄒᆞ민 족게 ᄒᆞᆯ 거주게. ᄀᆞ세로 기치민게.(저고리야 본 그저 크게 하려고하면 크게 하고 작게 하려고 하면 작게 할 거주게. 가위로 자르면.)

106027 @ 본떠난 다음엔 그 다음엔 어떵 헷수과?(본떠난 다음엔 그 다음엔 어떻게 했습니까?)

106027 #3 그담엔사게 바눙질 ᄒᆞ주게. 바눙질헹 멘들주게.(그다음에야 바느질하지. 바느질해서 만들지.)

106027 @ 게, 바눙질헐 때, 옷 멘들 때 본 멘들앙 바로 바눙질 들어갓수과? 촘촘ᄒᆞ게 들어갓수과? 뭔가 다른 방법이 엇엇수과?(그래, 바느질할 때, 옷 만들 때 본 만들어서 바로 바느질 들어갔습니까? 촘촘하게 들어갔습니까? 뭔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까?)

106027 #3 옷 ᄒᆞᆫ 거 보멍 헷주게. 옷 ᄒᆞᆫ 거 보멍 그거 보멍 멘들앗주게.(옷 한 거 보면서 했지. 옷 한 거 보면서 그거 보면서 만들었지.)

106027 @ 맨 처음 짤라난 다음에 지금 말로는 시침질 헷덴 허는데 그땐 뭐렌 골아신지 몰르쿠다.(맨 처음 잘라난 다음에 지금 말로는 시침질 했다고 하는데 그땐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06027 #3 무시거?(뭐?)

106027 @ 시침질 헷덴 헤근에 굵게시리 꼬메는 걸 뭐렌 골앗수과?(시침질 했다고 해서 굵게끔 꿰매는 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27 #3 훅게 꼬메는 거?(굵게 꿰매는 거?)

106027 @ 예. 훅게 꼬메난 다음에 그담엔 이렇게 촘촘허게 꼬멧잖아예? 그 훍게 꼬메는 걸 뭐렌 골앗수과?(예. 굵게 꿰매난 다음에 그담엔 이렇게 촘촘하게 꿰맸잖아요? 그 굵게 꿰매는 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27 #3 몰라 건. 훅게 꼬메는 거 족게 꼬메는 거 일름 서신가? 하하하.(몰라 그건. 굵게 꿰매는 거 작게 꿰매는 거 이름 있어나? 하하하.)

106027 @ 그때 그거 옷 멘들 때도 집에서 혼자 멘들앗수과? 사름덜끼리 모여앉앙 만들앗수과?(그때 그거 옷 만들 때도 집에서 혼자 만들었습니까? 사람들끼리 모여앉아서 만들었습니까?)

106027 #3 게, 이녁냥으로도 멘들곡 그거 보멍게 멘들아가멍, 거 보멍.(그래, 이녁대로도 만들고 그거 보면서 만들어가면서, 거 보면서.)

106027 @ 보멍예?(보면서요?)

106027 #3 잘 멘드는 고영 그것이 곱게 멘드는 손이 서근에 고영 멘드는 사름은 고영 멩글곡, 궂게 멩그는 사름은 이녁 손에 뚤랑 이녁 곱게 멘들젠 ᄒᆞ민 곱게 멘들아지질 아녕 곱게 멘드는 사름은 곱게 멘들곡, 사름도 줌상헌[100] 사름만.(잘 만드는 곱게 그것이 곱게 만드는 손이 있어서 곱게 만드는 사람은 곱게 만들고, 궂게 만드는 사람은 이녁 손에 따라서 이녁 곱게 만들려고 하면 곱게 만들어지질 안 해서 곱게 만드는 사름은 곱게 만들고, 사람도 '줌상한' 사람만.)

106027 @ 게난.(그러니까.)

106027 #3 또 기자 들락들락 ᄒᆞ는 사름은 고영 못 멘들곡 경ᄒᆞ는 거.(또 그저 들썩들썩 하는 사람은 곱게 못 만들 그렇게 하는 거.)

106027 @ 게, 삼춘은 곱게 만드는 편이엇수과? 아니믄 기냥?(그래, 삼촌은 곱게 만드는 편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106027 #3 아니, 나도 사각시 옷은 멘들아나서.(아니, 나도 새색시 옷은 만들어났어.)

106027 @ 경헷수과?(그렇게 했습니까?)

106027 #3 어.(어.)

106028 @ 그 새각시 옷 만들 때 이거 뭐렌 골읍니까?(그 새색시 옷 만들 때 이거 뭐라고 말합니까?)

106028 #3 ᄉᆞ미주게 ᄉᆞ미.(소매지 소매.)

106028 @ ᄉᆞ미? 요런 덴 뭐렌 골읍니까?(소매? 요런 데는 뭐라고 말합니까?)

106028 #3 잊어벤 알아지크라 거? 저구리 솜 죽여가멍 저구리 솜.(잊어버려서

100) '줌상ᄒᆞ다'는 사리를 헤아림이 꼼꼼하고 자세하다는 것을 말한다.

알아질까 그거? 저고리 숨 죽여가면서 저고리 숨.)

106028 @ 저구리솜을 죽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꽈?(저고리 숨을 죽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106028 #3 죽이는 거. 영영 뽄 멘들앙, 이디(저고리 배래부분을 가리키며).(죽이는 거. 이렇게이렇게 본 만들어서, 여기(저고리 배래부분을 가리키며.))

106028 @ 예.(예.)

106028 #3 뽄 멘들 듯이 이디 영 죽영.(본 만들 듯이 여기 이렇게 죽여서.)

106028 @ 아, 여길 영 죽여 가는 거예?(아, 여길 이렇게 죽여 가는 거요?)

106028 #3 응.(응.)

106028 @ 그면은 요건 뭐렌 ᄀᆞᆯ앗수과? 요거.(그러면 요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거.)

106028 #3 둑지?(죽지?)

106028 @ 아니, 저구리 헐 때 이렇게 헐 때(깃을 가리키며), 동전 다는 데를?(아니, 저고리 할 때 이렇게 할 때(깃을 가리키며), 동전 다는 데를?)

106028 #3 짓, 짓.(깃, 깃.)

106028 @ 동전 다는 데를 짓이렌 ᄀᆞᆯ앗수과?(동전 다는 데를 깃이라고 말했습니까?)

106028 #3 짓 다음 동전 달지 아녀게?(깃 다음 동전 달지 안 해?)

106028 @ 동전을 떼엇다 붙엿다 허는 거지예?(동전을 떼었다 붙였다 하는 거지요?)

106028 #3 응.(응.)

106028 @ 짓도 떼엇다 붙엿다 허는 거꽈?(깃도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겁니까?)

106028 #3 아니.(아니.)

106028 @ 이 부분을 짓이엔 허는 거지예?(이 부분을 깃이라고 하는 거지요?)

106028 #3 뿔아도 그자 뿔아.(빨아도 그냥 빨아.)

106028 @ 앞에 요기는 뭐렌 ᄀᆞᆯ아낫수과?(앞에 요기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28 #3 무시거?(뭐?)

106028 @ 이 짓 앞이 거.(이 깃 앞에 거.)

106028 #3 곰 말이라?(고름 말이라?)

106028 @ 곰?(고름?)

106028 #3 이런 지랑허게시리?(이런 치렁하게끔.)

106028 @ 지랑 헌 건 곰이고. 영 여매는 디마씨.(치렁한 건 고름이고 이렇게 여미는 데요.)

106028 #3 앞섭, 앞섭.(앞섶, 앞섶.)

106028 @ 섭?(섶?)

106028 #3 저구리 앞 섭.(저고리 앞섶.)

106028 @ 아, 섭.(아, 섶.)

106028 #3 안 앞섭, 받 앞섭. 안트레 드는 건 기지도 족게 멘들주게. 안트레 ᄃᆞ는 건 쪽게 허곡, 벳긔디 ᄃᆞ는 건 홀 넙게 ᄒᆞ곡.(안 앞섶, 밖 앞섭. 안으로 드는 건 기지도 작게 만들지. 안으로 다는 건 작게 하고, 밖에 다는 건 훨씬 넓게 하고.)

106028 @ 예, 넙게 ᄒᆞ고예?(예, 넓게 하고요?)

106028 #3 동전 둘곡, 다음엔.(동전 달고, 다음엔.)

106028 @ 그다음엔 치마 만들잖아예? 치마 만들 때, 옛날에도 지금처럼 치마 속에 끈 이서낫수과?(그다음엔 치마 만들잖아요? 치마 만들 때, 옛날에도 지금처럼 치마 속에 끈 있었습니까?)

106028 #3 엿날에?(옛날에?)

106028 @ 예.(예.)

106028 #3 걸민게 쫄르게 매곡, 경아녀면 말곡 헤낫주.(길면 짧게 매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했었지.)

106028 @ 걸민, 걸다는 말은 무슨 말이꽈?(길면, 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106028 #3 질어, 질어. 너믜 질민.(길어, 길어. 너무 길면.)

106028 @ 질면 끈을 만들앗수과?(길면 끈을 만들었습니까?)

106028 #3 어. 끈도 멘들앙 ᄒᆞ는 사름이 잇곡, 안 멘드는 사름은 안 멘들고.(어. 끈도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안 만드는 사람은 안 만들고.)

106028 @ 치마 감는 요 부분은 뭐렌 ᄀᆞᆯ앗수과?(치마 감는 요 부분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28 #3 허리?(허리?)

106028 @ 건 허리렌 헷수과?(그건 허리라고 했습니까?)

106028 #3 허리.(허리.)

106028 @ 다음엔 이 기장은 뭐렌 ᄀᆞᆯ앗수과?(다음엔 이 기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28 #3 질이옌 ᄀᆞᆫ주 뭐렌 ᄀᆞᆯ아게.(길이엔 말하지 뭐라고 말해.)

106028 @ 그냥 질이?(그냥 길이?)

106028 #3 어. 진 거 쫄른 거.(어. 긴 거 짧은 거.)

106028 @ 다음엔 치마 끝을 영 감아근에 허잖아예?(다음엔 치마 끝을 이렇게 감아서 하잖아요?)

106028 #3 곰?(고름?)

106028 @ 걸 곰이렌 헷수과?(그걸 고름이라고 했습니까?)

106028 #3 치메 곰, 영 졸라메는 거.(치마 고름, 이렇게 졸라매는 거.)

106028 @ 졸라메는 걸 곰이렌 헷수과?(졸라매는 걸 고름이라고 했습니까?)

106028 #3 응, 치메 곰, 저구리 곰.(응, 치마 고름, 저고리 고름.)

106028 @ 게민 이제 바지는마씨? 속에 바지 입엇잖아예?(그러면 이제 바지는요? 속에 바지 입었잖아요?)

106028 #3 바지도게 바지 곰 잇곡게.(바지도 바지 고름 있고.)

106028 @ 바지도 곰 잇고.(바지도 곰 있고.)

106028 #3 응, 엿날엔. 이제난에 고무줄 놔근에 확확 헴주마는 엿날엔 곰 둘아근에 입어낫주.(응, 옛날엔. 이제니까 고무줄 놔서 확확 하지만 옛날엔 고름 달아서 입었지.)

106028 @ 기지예?(그렇지요?)

106028 #3 이젠 고무줄도 이시민 고무줄도 쏘곱에 놩 확 줄영도 입곡.(이젠 고무줄도 있으면 고무줄도 속에 넣어서 확 줄여서도 입고.)

106028 @ 맞수다. 그믄 이제 쏙에 바지를 만들민 바지 요 통을 뭐렌 골앗수과?(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속에 바지를 만들면 바지 요 통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28 #3 몰라.(몰라.)

106028 @ 이 바지 끗은 뭐렌 골앗수과?(이 바지 끝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28 #3 바지 끗이? 끗이엔 곧주 무시거엔?(바지 끝이? 끝이라고 말하지 뭐라고?)

106028 @ 바지 영 메는 것은 이서낫잖아예?(바지 이렇게 매는 것은 있었잖아요?)

106028 #3 남저? 다님?(남자? 대님?)

106028 @ 다님이렌 헷수과?(대님이라고 했습니까?)

106028 #3 엿날에게 영 헤근에게 남저덜은, 이제도 메주게. 한복 입으민 영 헤근에 메는 거주게. 다님.(옛날에 이렇게 해서 남자들은, 이제도 매지. 한복 입으면 이렇게 해서 매는 거지. 대님.)

106028 @ 다님이렌 헷수과?(대님이라고 했습니까?)

106028 #3 응.(응.)

106028 2 그면 이제 버선 신엇잖아예? 버선, 이건 뭐렌 골앗수과?(그러면 이제 버선 신었잖아요? 버선, 이건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28 #3 코지, 코지. 버선 코지.(코, 코. 버선 코.)

106028 @ 이건?(이건?)

106028 #3 이건 몰라. 하하하.(이건 몰라. 하하하.)

106028 @ 버선 코지고.(버선 코고.)

106028 #3 칙위, 칙위. 이건 발 칙이 가는 거난 칙위고.(축, 축. 이건 발뒤꿈치 가는 거니까 축이고.)

106028 @ 이건?(이건?)

106028 #3 코젱이렌 ᄒᆞ주게. 코젱이.(앞부리렌 하지. 앞부리.)

106028 @ 버선 코젱이예? 거믄 요긴 뭐렌 골앗수과?(버선 앞부리고요? 그러면 요기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28 #3 이거? 난 무시거엔 곧지 아녀.(이거? 난 뭐라고 말하지 않아.)

106028 @ 곧지 아녀고예? 여기는 뭐렌 골앗수과?(말하지 않고요? 여기는 여기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28 #3 창, 창.(창, 창.)

106028 @ 버선 창. 이건마씨?(버선 창, 이거는요?)

106028 #3 버선 창. 이것도 무시거엔 안 골아.(버선 창. 이것도 뭐라고 안 말해.)

106028 @ 버선 창, 버선 코지.(버선 창, 버선 코.)

106028 #3 요건 칙위(뒤축을 가리키며).((요건 축(뒤축을 가리키며).)

106028 @ 버선 칙위.(버선 축.)

106029 @ 그다음엔, 옛날에도 단추 이서수과?(그다음엔, 옛날에도 단추 있었습니까?)

106029 #3 단추? 아주 엿날엔, 아주 엿날엔 엇지 아녀신가?(단추? 아주 옛날엔, 아주 옛날엔 없지 안했을까?)

106029 @ 단추가 언제부터 단추 달앗수과?(단추가 언제부터 단추 달았습니까?)

106029 #3 건 몰라. 단추에도 막 종류가 큰 거, 족은 거 잇주게 무신.(건 몰라. 단추에도 막 종류가 큰 거, 작은 거 있지 뭐.)

106029 @ 큰 거, 작은 거예? 단추는 기냥 단추렌 골앗수과? 다른 말 엇엇수과?(큰 거, 작은 거요? 단추는 그냥 단추라고 말했습니까? 다른 말 없었습니까?)

106029 #3 응, 단추.(응, 단추.)

106029 @ 단추는 언제부터 생겨신디 생각 안남수과?(단추는 언제부터 생겼는지 생각 안 납니까?)

106029 #3 건 몰루고.(건 모르고.)

106029 @ 건 몰르고에? 일제 때도 이섯수과?(건 모르고요? 일제 때도 있었습니까?)

106029 #3 일제 때 잇주게. 단추는 전이부터 이서. 거 구제기 깍물루. 엿날엔.(일제 때 있지. 단추는 전에부터 있어. 거 소라 껍데기로. 옛날엔.)

106029 @ 예.(예.)

106029 #3 구제기 알아지지?(소라 알아지지?)

106029 @ 에, 예.(예, 예.)

106029 #3 소라 걸루게, 그거 공장이서게 단출 멘들지 아녀게. 엿날엔.(소라 그걸로, 그거 공장에서 단출 만들지 안 해. 옛날엔.)

106029 @ 아, 구제기 깍물마씨?(아, 소라 껍데기요?)

106029 #3 응, 그런 거 믄 받아다근에.(응, 그런 거 모두 받아서.)

106029 @ 음.(음.)

106029 #3 엿날에 엿날에. 믄 그거 헤근에 육지레 믄 단추 멘들앙 나오주게.(옛날에 옛날에. 모두 그거 해서 육지로 모두 단추 만들어서 나오지.)

106029 @ 아, 그 구제기껍질을 아까 깍물이렌 헷수과?(아, 그 소라껍질을 아까 깍물이라고 했습니까?)

106029 #3 구제기 걱물.(소라 걱물.)

106029 @ 걱물? 깍물?(‘걱물’? ‘깍물’?)

106029 #3 이디선. 이디광 저디광 말이 뜰리주, 서의광.(여기선. 여기랑 저기랑 말이 틀리지, 서쪽이랑.)

106029 @ 게난 볼목리선 뭐렌 골앗수과?(그러니까 보목리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29 #3 구제기 깍물이엔 ᄒᆞ주.(소라 ‘깍물’이라고 하지.)

106029 @ 아, 기구나에? 예, 이제 알앗수다예?(아, 그렇군요? 예, 이제 알았습니다?)

106029 #3 이디 문 써젓주. 써젓어?(여기 모두 써졌지, 써졌어?)

106029 @ 아이구, 아니우다. 몰르난 물어봠수게.(아이고, 아닙니다. 모르니까 물어보잖습니까?)

재단과 염색

106030 @ 그 옷감 손질헐 때 빨래헐 때부터 시작헤가지고 그 옷 만들기 전에 그 미녕이라든가 저 그 무시거꽈, 멩지 ᄀᆞ튼 거 옷 만들기 전에 천을 다룰 때 어떵 헷수과? 처음에 천을 옷 만들기 전에.(그 옷감 손질할 때 빨래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옷 만들기 전에 그 무명이라든가 저 그 뭡니까, 명주 같은 거 옷 만들기 전에 천을 다룰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천을 옷 만들기 전에.)

106030 #3 멩지?(명주?)

106030 @ 예. 멩지, 옷감이 생기잖아예? 옷감을 만들잖아예? 짜근에예?(예. 명주, 옷감이 생기잖아요? 옷감을 만들잖아요? 짜가지고요?)

106030 #3 게메. 짱은에 생멩지로 ᄒᆞ민은 그걸 눼주게 눼여.(그러게. 짜서 생명주로 하면 그걸 누이지 누여.)

106030 @ 눼여근에?(누여서?)

106030 #3 물 데와근에.(물 데워서.)

106030 @ 예.(예.)

106030 #3 거 무시거 제사 놓는디, 제 약간, 엿날엔 이디선 제 ᄒᆞ끔 놩은에 눼영, 거 잘못 눼면은 안 뒈곡.(그거 뭐 재를 넣는데, 재 약간, 옛날엔 여기서는 재 조끔 넣어서 누여, 거 잘못 누이면 안 되고.)

106030 @ 맞수다.(맞습니다.)

106030 #3 잘 눼는 사람 헤사 잘 눼영은에 이제 그 눼영은에게 뿔앙게 그 끕닥ᄒᆞ게 뿔앙은에게.(잘 누이는 사람 해야 잘 누여서 이제 그 누여가지고 빨아서 그 곱게 빨아서는.)

106030 @ 뿔 때 그 뭘로 뿔앗수과?)빨 때 그 뭐로 빨았습니까?)

106030 #3 뉀 거난에게 아무것에라도 뿔앙.(누인 거니까 아무것에라도 빨아.)

106030 @ 뿔아난 다음엔 줄에 걸엇수과?(빨아난 다음엔 줄에 걸었습니까?)

106030 #3 줄에 걸엉 널어근에.(줄에 걸어서 널어서.)

106031 @ 색깔은 안 입현마씨?(색깔은 안 입혔나요?)

106031 #3 색사 이녁 물들이구저ᄒᆞ민 들이국 안 들이구저ᄒᆞ민.(색이야 이녁 물들이고저하면 들이고 안 들이고저하면.)

106031 @ 주로 뭘로 물들영 헷수과?(주로 무엇으로 물들여서 했습니까?)

106031 #3 물레[101]게 물레.('물레' 물감.)

106031 @ 물들일 때 색깔, 색깔?(물들일 때 색깔, 색깔.)

106031 #3 색깔, 게메. 이녁 ᄆᆞ음대로. 엿날에 우리 씨즙가젠ᄒᆞ난, 멩지이불덜ᄆᆞᆫ 헹 갓주게.(색깔, 그러게. 이녁 마음대로. 옛날에 우리 시집가려하니까, 명주이불들 모두 해서 갔지.)

106031 @ 예. 게난 물들일 때 물감은 무시걸로 헷수과?(예. 그러니 물들일 때 물감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106031 #3 물감은 물레 나오난에. 마 우린 사단들이난에 뭐.(물감은 '물레' 나오니까. 마 우린 사다가들이니까 뭐.)

106031 @ 아, ᄑᆞ는 걸로?(아, 파는 걸로?)

106031 #3 어, 이런 물 들이구적ᄒᆞ민 이런 이불꺼죽. 이불꺼죽 그런 물도 들영 가국. 이런 것도 들영 가국.(어, 이런 물 들이고저하면 이런 이불거죽. 이불거죽 그런 물도 들여서 가고. 이런 것도 들여서 가고.)

106031 @ 아, 이런 것도 전부 다 파는 거 사당 헷수과?(아, 이런 것도 전부 다 파는 거 사다가 했습니까?)

106031 #3 엿날에 엿날에.(옛날에 옛날에.)

106031 @ 직접 만들진 아녀고?(직접 만들진 안하고?)

106031 #3 이런 건 만들지 아녀고게 멩지, 엿날엔 대게 씨즙 갈 땐 멩지이불 헹 가주게.(이런 건 만들지 안하고 명주, 옛날엔 대게 시집 갈 땐 명주이불 해서 가지.)

106031 @ 맞수다게.(맞습니다.)

106031 #3 멩지이불.(명주이불.)

106031 @ 예.(예.)

106031 #3 엿날엔 나두 우리 어머님 네 잘 사난에 볼목리서 일등으로 이불 두 챌 헤주구, ᄒᆞᆫ 채썩 헨 가는디.(옛날엔 나도 우리 어머님 네 잘 사니까 보목리서 일등으로 이불 두 챌 해주고, 한 채씩 해서 가는데.)

106031 @ 예.(예.)

106031 #3 두 챌 헤줜. 우리 오라방이 막 군에 뎅경, 과장으로 뎅기난에 ᄆᆞᆫ 관중엔[102] 이불 두 개씩 ᄒᆞᆫ덴 ᄒᆞ멍 나 막뚤이고 잘사난에, 우리 부모덜 가근에 이불 두 개, 난 분심ᄆᆞᆯ란에. 우리 어머닌 멩지 막 물들연 하영 물들연 이런 물들이고, 그 추룩 헌 물들이고 헨 다듬아가난 이거 무사 영 하영 들염숫과 ᄒᆞ난, 우리 큰아덜니 씨즙가난에 이불 두 개 잘 헤주렌 ᄒᆞ난 헤줨네 ᄒᆞ멍 두 개 헤줭게.(두 챌 해주었

101) '물레'는 물감을 말한다. = 물ᄀᆞ음, 물헤, 물ᄀᆞᆷ, 물뤠.

102) '관중'은 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모여 사는 곳을 말한다.

어. 우리 오라버니 막 군에 다녀서, 과장으로 다니니까 모두 '관중'엔 이불 두 개씩 한다고 하면서 나 막내딸이고 잘 사니까, 우리 부모들 가서 이불 두 개, 난 분수없어서. 우리 어머닌 명주 막 물들여서 많이 물들여서 이런 물들이고, 그처럼 한 물들이고 해서 다듬어가니까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들이나요 하니까, 우리 큰아들 너 시집가니까 이불 두 개 잘 해주라고 하니까 해주고 있네 하면서 두 개 해줬지.)

106031 @ 음.(음.)

106031 #3 그다음은 요딧아이 잘 사난 두 개. 쳇 번으로 나가 이불 두 개 헨간, 볼목리서.(그다음은 요기아이 잘 사니까 두 개. 첫 번으로 나가 이불 두 개 해갔어, 보목리서.)

106031 @ 아이고, 경헷구나예? 시집 간 다음에는 멩지 안 만들아봣수과?(아이고, 그랬군요? 시집 간 다음에는 명주 안 만들어봤습니까?)

106031 #3 멩지, 경ᄒᆞ곡 난 원 그런 거 ᄒᆞᆫ엇이 신경 쓰질 안ᄒᆞ주, 막뚤로 ᄉᆞ못 살아나부난.(명주, 그리고 난 원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질 안하지, 막내딸로 사믓 살아나버려서.)

106031 @ 시집가기 전에 어머니 헷던 거엿구나예? 멩지 그 누예베렝이 키우고 헐 때에도예?(시집가기 전에 어머니 했던 거였군요? 명주 그 누에애벌레 키우고 할 때도요?)

106031 #3 나냥으론 안 헤보곡, 어머님이 ᄒᆞ는 거 봣주 원.(나대론 안 해보고, 어머님이 하는 거 봤지 원.)

106031 @ 예. 그러니까 색깔 들일 때 별도로 무신 뭘 따거나 허는 게 아니라.(예. 그러니까 색깔 들일 때 별도로 무슨 뭘 따거나 하는 게 아니라.)

106031 #3 물레가 믄 폴레 뎅기곡 엿날에.(물감이 모두 팔러 다니고 옛날에.)

106031 @ 아, 경헷수과?(아, 그랬습니까?)

106031 #3 응, 푸른 물, 붉은 물, 꼿ᄌᆞ지여 무시거 믄 폴레도 뎅겨나서.(응, 푸른 물, 붉은 물, 꽃자주여 뭐 모두 팔러 다녀서.)

106031 @ 아, 경혜낫구나예?(아, 그렇게 했군요?)

106031 #3 경ᄒᆞ민 그거 이녁 들이구정 이제 ᄒᆞᆫ 거 사근에 들이주게 물을.(그러면 그거 이녁 들이고저 이제 한 거 사가지고 들이지 물을.)

106031 @ 경헷구나.(그랬구나.)

신발

106032 @ 옛날에 신발은 어떵 헹 신어낫수과? 어떤 신발, 신발 종류가 뭐뭐가 이섯수과?(옛날에 신발은 어떻게 해서 신었습니까? 어떤 신발, 신발 종류가 뭐뭐가 있었습니까?)

106032 #3 뭔 신발 신어게? 고무신이여, 엿날에사게.(뭔 신발 신어? 고무신이야, 옛날에.)

106032 @ 고무신 잇기 전엔마씨?(고무신 있기 전은요?)

106032 #3 초신?(짚신.)
106032 @ 예, 초신은 어떵 헹 신엇수과?(예, 짚신은 어떻게 해서 신었습니까?)
106032 #3 초신은게 찍베설 헤다근에.(짚신은 '새끼기' 해다가.)
106032 @ 예.(예.)
106032 #3 영영 빠근에.(이렇게 이렇게 뽑아서.)
106032 @ 예.(예.)
106032 #3 빠근에 신 멘들아낫주게 초신.(뽑아서 신 만들었지 짚신.)
106032 @ 초신 신어낫지예?(짚신 신어났지요?)
106032 #3 응, 엿날에.(응, 옛날에.)
106032 @ 초신은 누게가 만들엇수과?(짚신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106032 #3 엿날에 초신 신어네들 믄 우리 씨집가는 사름두 신어서. 이것 쳇 번은 전쟁 일어나난에 고무신덜이영 흰 것들이영 잇다네, 우리 씨집갈 때.(옛날에 짚신 신어서들 모두 우리 시집가는 사람도 신어서. 이것 첫 번은 전쟁 일어나니까 고무신들하고 흰 것들하고 있다가, 우리 시집갈 때.)
106032 @ 예.(예.)
106032 #3 고무신덜이영 씨집갈 때, 나두 엿날에 해녀로.(고무신들하고 시집갈 때, 나도 옛날에 해녀로.)
106032 @ 예.(예.)
106032 #3 이제 물질을 가와서. 이북 물질.(이제 물질을 다녀왔어. 이북 물질.)
106032 @ 아, 예.(아, 예.)
106032 #3 이디서 베 오란에. 발동기 큰 거 헨에. 남저덜은 저 청진 제라헌 디덜 가는 사름은 가곡. 물질 가겐 헨에 간. 간에 간보난 엿날에 이북이엔 ᄒᆞ멍, 열여답에게.(여기서 배 오니까. 발동기 큰 거 해서. 남자들은 저 청진 온전한 데들 가는 사람은 가고. 물질 가자고 해서 갔어. 가서 가보니까 옛날에 이북이라고 하면서, 열여덟에.)
106032 @ 예.(예.)
106032 #3 이제 열여답 무신거닌? 분시 몰른 이제 ᄒᆞ교 ᄒᆞᆯ 때.(이제 열여덟 뭐니? 분수모른 이제 학교 할 때.)
106032 @ 맞수다.(맞습니다.)
106032 #3 시상 분시 몰란 기자 ᄂᆞᆷ 간덴 ᄒᆞ난 ᄊᆞᆯ ᄒᆞᆫ 가멩이, 보리ᄊᆞᆯ 좁ᄊᆞᆯ 헨 ᄒᆞᆫ 가멩이 무꺼아젼 ᄋᆞᆯ로 베에 큰 거 오난에, 볼목리 사름 하영 가가난에 이제 인솔헹 가가난 좇아간. 그디 간 보난 엿날에도 이북 경헌다 어시 그때 간 보난에 집, 지름 주시 지름 빠나난 납작납작ᄒᆞᆫ 지름 주시에 납작보리ᄊᆞᆯ 서껀 배급을 헴서, 그때부떠.(세상 분수 몰라서 그저 남 간다고 하니까 쌀 한 가마니, 보리쌀 좁쌀 해서 한 가마니 묶어가지고 요리로 배에 큰 거 오니까, 보목리 사람 많이 가니까 이제 인솔해서 가가니까 쫓아갔지. 거기 가서 보니까 옛날에도 이북 그랬다 없이 그때 가서 보니까 집, 기름 찌꺼기 기름 짠 후 납작납작한 기름 찌꺼기에 납작보리 쌀 섞어

배급을 하고 있어, 그때부터.)

106032 @ 아.(아.)

106032 #3 겡 헴선게. 그디 간 물질헨 엿날에 돈 백 원 받안. 엿날이난 백원도 막 하영 벌엇젠 헨에, 백원 벌언 오라나서.(그렇게 하고 있었어. 거기 가서 물질해서 옛날에 돈 백 원 받았어. 옛날이어서 백 원도 매우 많이 벌었다고 해서, 백 원 벌어서 왔었지.)

106032 @ 그 씨집가기 전이꽈?(그 시집가기 전입니까?)

106032 #3 응, 경헨 오란 열아홉에 씨집갓주.(응,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열아홉에 시집갔지.)

106032 @ 아, 경헷구나게.(아, 그랬군요.)

106032 #3 곧 쑤물엔 이제 ᄒᆞ듯 춤, 열여답엔 이북 물질 가오란. 오난에 열아홉엔 씨집보내연.(곧 스물엔 이제 하듯 참, 열여덟엔 이북 물질 가왔어. 오니까 열아홉엔 시집보냈지.)

106032 @ 그 북 갓을 때 거긴 어딥디가? 마을 이름이.(그 북 갔을 때 거긴 어디었습니까? 마을 이름이.)

106032 #3 그디? 그디 저 우리 가오라난 디 태주엔 헌 디도 잇국, 말금이엔 헌 디도 잇국, 물개엔 흔 디도 잇국 마을 일름이, 마을 일름.(거기? 거기 저 우리 다녀왔던 데는 태주엔 한 데도 있고, 말금이라고 한 데도 있고, 물개라고 한 데도 있고 마을 이름이, 마을 이름.)

106032 @ 예.(예.)

106032 #3 그디 춤 강 온 사름덜 ᄀᆞᆫ나 어시 그기 넹멘은 막 맛좋주게. 이제도 테레비에 그디 가 온 사름은 넹멘 맛, 이북 넹멘 맛 좋덴 ᄀᆞᆫ는 게 보민.(거기 참 강 갔다 온 사람들 말 한다 없이 거기 냉면은 매우 맛있어. 이제도 텔레비전에 거기 갔다 온 사람은 냉면 맛, 이북 냉면 맛있다고 말하는 거 보면.)

106032 @ 아.(아.)

106032 #3 테레비에 ᄀᆞᆫ나, 트망트망.(텔레비전에 말한다, 틈틈이.)

106032 @ 맞수다게.(맞습니다.)

106032 #3 요번이도 ᄀᆞᆯ안게.(요번에도 말하더라.)

106032 @ 예.(예.)

106032 #3 이북 넹멘 맛좋덴. 막 넹멘은 맛좋주게. 장이 가민 태주장이여 무시거여 허민. 경헹 오란에 이젠 씨집을 가서, 열아홉에.(이북 냉면 맛있다고. 매우 냉면은 맛있어. 장에 가면 태주장이여 뭐야 하면. 그렇게 해서 와서 이젠 시집을 갔어, 열아홉에.)

106032 @ 그때 열아홉 시집갈 때는 이미 해방 뒛수과?(그때 열아홉 시집 갈 때는 이미 해방 됐습니까?)

106032 #3 해방 안 뒌 때주게. 그때에 오난 전정을 허젠 헴서. 그디서 고무신이영 엿날에 광묵 세루세루[103]헌 거 막 엿날에 세루세루 세주게 기지. 그런 거영 광

묵이영 고무신 신, 것덜이영 잇다네, 전정 일젠 ᄒᆞ난 이디 오란 보난 아무 것도 엇어.(해방 안 된 때지. 그때에 오니까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어. 거기서 고무신이영 옛날에 광목 '세루세루'한 그거 매우 옛날에 세루세루 강하지 천. 그런 거랑 광목이랑 고무신 신, 그것들이랑 있다가, 전쟁 일어나려 하니까 이리 와서 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

106032 @ 음.(음.)

106032 #3 그때부터 그 전정 일젠 문딱 들여놔변에.(그때부터 그 전쟁 일어나려고 모두 들여놔버려서.)

106032 @ 음.(음.)

106032 #3 거난 우린 검은 고무신 신언 씨집갓주게.(그래서 우린 검은 고무신 신어서 시집갔어.)

106032 @ 그때 베 타근에 물질허레 가겐 허멍 그 저기 북한쪽으로 갈 때, 경허당 옛날엔 경허당 막 그추룩 헹덜 여기 처녀덜 막 데령 가가지고 어디 저쪽 중국이니 필리핀이니 막 데령가근에 뭘로 헤부러신디, 다행이우다게.(그때 배 타서 물질하러 가자고 하면서 그 저기 북한쪽으로 갈 때, 그러다가 옛날엔 그러다가 마구 그처럼 해서들 여기 처녀들 막무가내 데려서 가가지고 어디 저쪽 중국이니 필리핀이니 마구 데려가서는 무엇으로 해버렸는데, 다행입니다.)

106032 #3 에에, 그디 막 물질 뎅길 때 그레 막 물질 뎅길 때주.(에에, 그리 막 물질 다닐 때 그리 막 물질 다닐 때지.)

106032 @ 게난예.(그러게요.)

106032 #3 응.(응.)

106032 @ 그때 물질 뎅길 때 베가 일본 베 아니꽈? 일본 사름덜.(그때 물질 다닐 때 배가 일본 배 아닌가요? 일본 사람들.)

106032 #3 아니게, 일분 베 아니게, 이딧 베. 이디 발동기.(아니, 일본 배 아니야, 여기 배. 여기 발동기.)

106032 @ 아는 사름 베마씨?(아는 사람 밴가요?)

106032 #3 갓닥왓닥ᄒᆞ는 사름덜게.(갔다 왔다하는 사람들.)

106032 @ 아.(아.)

106032 #3 그 베에 엿날엔게 경 그추룩 아년 때난게 이디서 베 발동기 혜영 가주게.(그 배에 옛날에는 그렇게 그처럼 안한 때니까 여기서 배 발동기 해서 가거든.)

106032 @ 으음, 게민 이건 다 아는 사름마씨?(으음, 그러면 이건 다 아는 사람인가요?)

106032 #3 아는 사름이주게.(아는 사람이지.)

106032 @ 볼목리 사름 아는 사름이 그 베에다 태워근에 거기 강 물질ᄒᆞ민 다시 데려다 주곡 경헷수과?(보목리 사람 아는 사람이 그 배에다 태워서 거기 가서 물질

103) '세루'는 천이 좋은 무명천를 말한다. =춤세루

하면 다시 데려다 주고 그렇게 했습니까?)

106032 #3 오게. 즘수 어울령 가근에.(그럼. 잠수 어울려서 가서는.)

106032 @ 멧 달쯤 살앗수과?(몇 달쯤 살았습니까?)

106032 #3 ᄉᆞ월에 간 보난이, ᄉᆞ월 보름에 간 보난 그딘 간 보난, 광목으로 짓찻광목.(사월에 가서 보니까, 사월 보름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가서 보니까, 광목으로 짓광목.)

106032 @ 예.(예.)

106032 #3 눼도 아년 거, 광목. 남저덜 풀탁풀탁[104], 얼언 얼언난에.(누이지도 않은 거, 광목. 남자들 '풀탁풀탁', 추워서 추워서는.)

106032 @ 음.(음.)

106032 #3 얼언난에 광목을 ᄉᆞ월 보름에 가두 이제 그 광목 소게 놓는 옷 입어이디. 그딘 가보난 소게 옷 발탁발탁[105] 입언 뎅겸서.(추워서는 광목을 사월 보름에 가도 이제 그 광목 솜 넣은 옷 입어 여기. 거긴 가보니까 솜 옷 '발탁발탁' 입어서 다니고 있어.)

106032 @ 아.(아.)

106032 #3 게난 얼언 물질은 가난, 고무옷 아니 입은 때난에 얼엉 테왁은 요런디 나둬근에, 뜸빡[106] 갓 적정 으하아! 영 ᄒᆞ멍, 노레영. 물이 원체 실랴노난. 으하아! 영 ᄒᆞ멍 나오라 불주게. ᄒᆞᆫ 번 휘엉. 경헤영 ᄒᆞ나 톧으고.(그러니 추워서 물질은 가니까, 고무 옷 아니 입은 때니까 추워서 테왁은 요런 데 나둬서는, '뜸빡' 금방 적셔 으아하! 이렇게 하면서, 놀라서. 물이 원래 시리니까. 으하아! 이렇게 하면서 나와 버리지. 한 번 헤엄처서. 그렇게 해서 하나 뜯고.)

106032 @ 거기 가근에 메역만 톧앗수과?(거기 가서 미역만 뜯었습니까?)

106032 #3 메역 아녀네 기자, 것사 국 끌려 먹젠 메역 헤오레 가오랏주마는 우미, 우미.(미역 안 해서 그저, 그것은 국 끓여 먹으려고 미역 해오러 다녀왔지만 우뭇가사리, 우뭇가사리.)

106032 @ 아, 거기선 우미 뜯엇수과?(아, 거기선 우뭇가사리 뜯었습니까?)

106032 #3 응, 천추, 우미 ᄒᆞᆫ 줌썩 틑언.(응, 우뭇가사리, 우뭇가사리 한 줌씩 뜯었지.)

106032 @ 여기선 우미를 천추렌 헷수과?(여기선 우뭇가사리를 천추라고 했습니까?)

106032 #3 천추.(천추.)

106032 @ 천추 뜯엇수과? 강 뭐 구젱기 잡거나 셍복 잡은 게 아니고마씸?(우뭇가사리 뜯었습니까? 가서 뭐 소라 캐거나 전복 캔 게 아니고요?)

106032 #3 그딘 셍복도 엇고, 구제기도 어신 디주게.(거긴 전복도 없고, 소라도 없는 데거든.)

---

104) '풀탁풀탁'은 품이 크고 거벼워 헐렁한 모습을 표현한 것 같다.
105) '발탁발탁'은 '풀탁풀탁'에 비교해서 사용한 듯하다.
106) '뜸빡'은 너무 추워서 바닷물 속에 얼른 들어갔다 나온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106032 @ 아, 경헷구나예? 음, 그면은 옛날엔 초신 신어나고 초신 말곤 다른 거 엇엇수과?(아, 그랬군요? 음, 그러면 옛날엔 짚신 신었고 짚신 말고는 다른 거 없었습니까?)

106032 #3 아주 엿날에 초신 신어낫주, 아주 엿날에.(아주 옛날에 짚신 신었지, 아주 옛날에.)

106032 @ 게난.(그러니까.)

106032 #3 우리 욱아가난 초신이게 엇엇주게.(우리 자라가니까 짚신이 없었지.)

106032 @ 초신 대신에 하얀 고무신 신엇수과?(짚신 대신에 하얀 고무신 신었습니까?)

106032 #3 헤영헌 고무신도 신어낫주게. 우리 간오라난에 전정일젠 ᄒᆞ난 고무신도 흰 것도 ᄒᆞ나토 엇어네 검은 신 신언.(하얀 고무신도 신었지. 우리 가오니까 전쟁 일어나려 하니까 고무신도 흰 것도 하나도 없어서 검은 신 신었어.)

106032 @ 음.(음.)

106032 #3 우리 씨즙갈 때덜은 검은 고무신 신은 사름, 초신 신엉 가는 사름 경헤서.(우리 시집갈 때들은 검은 고무신 신은 사람, 짚신 신어서 가는 사람 그랬어.)

106032 @ 음.(음.)

106032 #3 전정 일젠 ᄒᆞ난.(전쟁 일어나려고 하니까.)

106034 @ 초신 말고 나무로 뭰 신은 엇엇수과?(짚신 말고 나무로 된 신은 없었습니까?)

106034 #3 엿날엔 남신, 남신 헷주마는 남신은, 남신은 이서낫주마는 신어보질 아년난 엿날에.(옛날엔 나막신, 나막신 했지만 나막신은, 나막신은 있었지만 신어보지는 안하니까 옛날에.)

106033 @ 초신 말고 가죽으로 뭰 신발은 엇엇수과?(짚신 말고 가죽으로 된 신발은 없었습니까?)

106033 #3 이디선 엇어.(여기선 없어.)

106033 @ 여긴 엇어낫수과?(여긴 없었습니까?)

106033 #3 일본서사 가죽으로 문 신어낫주게. 도야지가죽.(일본에서는 가죽으로 모두 신어났지. 돼지가죽.)

106033 @ 음.(음.)

106033 #3 경헨 열아홉에 씨즙간에, 또 이젠 일본 물질을 가 왓주게.(그렇게 해서 열아홉에 시집가서, 또 이젠 일본 물질을 가 왔지.)

106033 @ 삼춘네 오라방네는 남자렌 헤가지고 가죽신 안 신어낫수과?(삼촌네 오라버니 네는 남자라고 해서 가죽신 안 신어났습니까?)

106033 #3 아니.(아니.)

106033 @ 다 초신만.(다 짚신만.)

106033 #3 초신도 신엇다근에, 아주 엿날에 초신도 신엇주. 그 나무긴게 기자 고무신덜 검은 고무신덜 나국 ᄒᆞ난. 그런 거 신엇주.(짚신도 신었다가, 아주 옛날에

짚신도 신었지. 그 나머진 그저 고무신들 검은 고무신들 나고 하니까. 그런 거 신었지.)

106034 @ 남신은 나막신은?(남신은 나막신?)

106034 #3 나막신은 알아저도 신엉 뎅겨보질 아녀난게.(나막신은 알아져도 신어 다녀보지는 안 해서.)

106034 @ 신엉 뎅기는 사람은 이십디가? 일본 사름덜은 안 신엉 뎅깁디가?(신어 다니는 사람은 있었습니까? 일본 사름들은 안 신어서 다녔나요?)

106034 #3 (고개만 젓고.)((고개만 젓고.))

106034 @ 이 동네도 일본 사름덜 이서낫수과?(이 동네도 일본 사름들 있었습니까?)

106034 #3 일분 사름덜? 아니.(일본 사람들? 아니.)

106034 @ 엇어낫구나예?(없었군요.)

106035 @ 초신 만드는 거 본 적 잇수과?(짚신 만드는 거 본 적 있습니까?)

106035 #3 무신걸로 영영게 나룩베설 빠근에 영영 꽈근에.(뭣으로 이렇게이렇게 새꽤기 뽑아서 이렇게이렇게 꽈서.)

106035 @ 나룩베설 꽈근에예?(새꽤기 꽈서요?)

106035 #3 경헤실 거라, 몰라도.(그랬을 거야, 몰라도.)

106036 @ 초신엔 종류가 엇엇수과? 여자들 신 남자들 신발 신는 거 구분 안 뒌 마씸?(짚신에는 종류가 없었습니까? 여자들 신발 남자들 신 신는 거 구분 안 됐나요?)

106036 #3 여저 신 남저 신 헷주게. 이제도 마찬가지. 남저 신 여저 신.(여자 신발 남자 신발 했지. 이제도 마찬가지. 남자 신발 여자 신발.)

모자 등

106037 @ 옛날에 모자는 엇엇지예? 여자들은예? 남자들은 모자 써낫지예? 에구, 너무 오래 헤부렷저? ᄒᆞ낌만 더 허게예? 남자들 모자 써난 거 셍각남수과?(옛날에 모자는 없었지요? 여자들은요? 남자들은 모자 썼었지요? 에구, 너무 오래 해버렸지요? 조금만 더 하게요? 남자들 모자 써난 거 생각납니까?)

106037 #3 몰라.(몰라.)

106037 @ 탕건이나 망건 ᄀᆞ튼 거 어른들 무사 안 써낫수과?(탕건이나 망건 같은 거 어른들 왜 안 썼습니까?)

106037 #3 어른덜 써낫주게. 휘양도 써나고.(어른들 썼었지. 휘양도 썼었고.)

7. 식생활

밥과 국

107001 @ 옛날에 밥헹 먹을 때예, 주로 옛날엔 어떤 밥헹 먹어낫수과?(옛날에 밥해서 먹을 때요, 주로 옛날엔 어떤 밥해서 먹었습니까?)

107001 #3 어떤 밥헤먹어게. 조 갈민 조팝.(어떤 밥해먹어. 조 갈면 조밥.)

107001 @ 조팝예?(조밥요?)

107001 #3 보리쌀 놔근에 좁쏠 놩 헤봉, 조팝 만드는 거벳긔. 보리밥 만드는 거 허주.(보리쌀 넣어서 좁쌀 넣어서 해봐서, 조밥 만드는 거밖에. 보리밥 만드는 것 하지.)

107001 @ 거난.(그러니.)

107001 #3 서꺼근에.(섞어서.)

107001 @ 근데 조팝도 모인 조팝이 잇고 흐린 조팝이 잇지예?(그런데 조밥도 모인 조밥이 잇고 차조밥이 있지요?)

107001 #3 오게.(그럼.)

107001 @ 어떤 조팝 헤먹어낫수과? 주로.(어떤 조밥 해먹어났습니까? 주로.)

107001 #3 아이, 둘게 먹젠 ᄒᆞ민 가당오당 흐린 조팝 헹 먹주이.(아이, 달게 먹으려고 하면 가다오다 차조밥 해서 먹지.)

107001 @ 아, 흐린 조팝이 달구나예.(아, 차조밥이 달구나.)

107001 #3 오게. 아멩헤도 춥쏠이 춥쏠밥이 돌지 안헤냐? 건 춥쏠이난에. 희린 좁쏠이 춥쏠이난에게. 모읜좁쏠은 파삭파삭 ᄒᆞ곡. 맛이 엇주게. 감저 놓곡 조팝헤 근에.(그럼. 아무래도 찹쌀이 찹쌀밥이 달지 않니? 그건 찹쌀이니까. 차조가 찹쌀이니까. 메진 좁쌀은 파삭파삭 하고. 맛이 없지. 고구마 넣고 조밥해서.)

107001 @ 그면은 감저 놓곡 조팝 헤먹고예? 밀이나 보리.(그러면 고구마 넣고 조밥 해먹고요? 밀이나 보리.)

107003 #3 보리쏠 놔근에게 놩 헹 먹주게. 보리쏠에 좁쏠도 놩 먹고게 서꺼근에게.(보리쌀 놔서 넣어 해서 먹지. 보리쌀에 좁쌀도 넣어 먹고 섞어서.)

107003 @ 흐린조팝도 헤 먹고예?(차조밥도 해먹고요?)

107003 #3 흐린조팝은 가당오당 거 춥쏠밥이엔 가당오당 맛좋게 먹을 거주 흐린 조팝은.(차조밥은 가다오다 그거 찹쌀밥이라고 가다오다 맛있게 먹을 거지, 차조밥은.)

107003 @ 검은 좁쌀도 이서낫수과? 검은 좁쏠?(검은 좁쌀도 있었습니까? 검은 좁쌀?)

107003 #3 검은, 희린 좁쏠게. 이제도 잇주게. 이제도 검은 희린좁쏠도 잇곡, 노랑한 것도 잇곡.(검은, 차좁쌀. 이제도 있지. 이제도 검은 좁쌀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107003 @ 모읜조도 잇고예?(메진 조도 있고요?)

107003 #3 응.(응.)

107005 @ 기구나. 그면은 곤밥은 안 헤먹엇수과?(그렇구나. 그러면 흰밥은 안 해먹었습니까?)

107005 #3 무사 곤밥도게, 엿날에사 곤밥 곤쏠이 어뤼난에, 이제는 느나어시 곤밥이주마는이, 엿날엔게 가당오당게 식게 때에 멩질이나 헹 먹엇주 곤밥이 어디서.(왜 흰밥도, 옛날에야 흰밥 흰쌀이 어려워서, 이제는 너나없이 흰밥이지만, 옛날에는 가다오다 제사 때에 명절이나 해서 먹었지, 흰밥이 어디 있어.)

107005 @ 맞수다게.(맞습니다.)

107005 #3 이녁냥 나룩 헤도이, 하영 안허는 따문에.(이녁대로 벼 해도, 많이 안 하는 때문에.)

107005 @ 맞수다게. 나룩은 헤봣수과?(맞습니다. 벼는 해봤습니까?)

107005 #3 나룩도 헤봇주게. 엿날에 싱거도 보고.(벼도 해봤지. 옛날에 심어도 보고.)

107003 @ 보리밥 헤먹을 땐 보리쏠로 헤먹을 때 다른 거 감자도 놓고?(보리밥 해먹을 땐 보리쌀로 해먹을 때 다른 거 고구마도 놓고?)

107003 #3 감자도 놓고, 하영 늴루젠 ᄉᆞ믓, 쏠 늴루젠 ᄉᆞ믓 감자 처 담아놔근에, ᄉᆞ믓 헤불민. 어떤 아이들은 감자 둥그려불멍.(고구마도 넣고, 많이 늘리려고 사믓, 쌀 늘리젠 시믓 고구마 쳐 담아놔서, 사믓 해버리면. 어떤 아이들은 고구마 뒹굴려 버리면서.)

107003 @ 보리쏠만 골라 먹엉예?(보리쌀만 골라 먹어서요?)

107003 #3 응, 보리 좁쏠 밥만 먹어근에. 감저 안 먹젠게.(응, 보리 좁쌀 밥만 먹어서. 고구마 안 먹으려고.)

107004 @ 게난.(그러게.)

107004 #3 에뤼나넨게.(어려우니까.)

107004 @ 게민 보리밥에 감저도 놩 먹고 좁쏠도 놩 먹고 이렇게 헷덴 헤신디예?(그러면 보리밥에 고구마도 넣어 먹고 좁쌀도 넣어 먹고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요?)

107004 #3 오게.(그래.)

107004 @ 그믄 반지기 밥은 뭐꽈? 반지기밥.(그럼 반지기 밥은 뭡니까? 반지기 밥.)

107004 #3 반지기 밥?(반지기 밥?)

107004 @ 예.(예.)

107004 #3 그것이 반지기주게. ᄒᆞ나씩 놓는 거.(그것이 반지기지. 하나씩 놓는 거.)

107004 @ 보리도 놓고, 감자도 놓고. 아니면 보리도 놓고, 보리밥에 곤쏠 놩 먹을 땐 언제엿수과?(보리도 놓고, 감자도 놓고. 아니면 보리도 놓고, 보리밥에 흰쌀 넣어 먹을 땐 언제였습니까?)

107004 #3 것이 반지기라.(그것이 반지기라.)

107005 @ 그것이 반지기라예? 곤쏠 놩 먹을 때. 그다음엔 곤밥, 흰밥은 언제 먹어낫수과? 옛날에.(그것이 반지기요? 흰쌀 넣어 먹을 때. 그다음엔 흰밥, 흰밥은 언제 먹었습니까? 옛날에.)

107005 #3 곤밥?(흰밥?)

107005 @ 예, 곤밥.(예, 흰밥.)

107005 #3 곤밥게 식게 멩질 때나 벳귄게 엿날에사 먹어봐서게. 이젠 느나어시 곤쏠만 먹주마는.(흰밥게 제사 명절 때나 밖에 옛날에야 먹어봤나. 이젠 너나없이 흰쌀만 먹지마는.)

107006 @ 조팝은 주로 조팝.(조밥은 주로 조밥.)

107006 #3 보리쏠에 좁쏠 놔근에.(보리쌀에 좁쌀 넣어서.)

107006 @ 경만 헤낫수과?(그렇게만 했습니까?)

107006 #3 응.(응.)

107006 @ 좁팝만?(조밥만?)

107006 #3 좁팝만 먹구젠ᄒᆞ민 조팝만도 먹엇주게.(조밥만 먹고 싶으면 조밥만도 먹었지.)

107006 @ 게난.(그러니까.)

107006 #3 감저만 처 놩. 불왕 먹젠게 엿날엔 어시난.(고구마만 쳐 넣어서. 불려서 먹으려고 옛날엔 없으니까.)

107006 @ 아, 조팝 헐 때도 감저 놔낫수과?(아, 조밥 할 때도 고구마 넣었습니까?)

107006 #3 응.(응.)

107006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7006 #3 감저 하영 썰어 놩.(고구마 많이 썰어 넣어.)

107007 @ 혹시 팥 놔가지고 밥헤낫수과? 풋밥?(혹시 팥 놔가지고 밥했었습니까? 팥밥?)

107007 #3 풋밥 먹구젠 ᄒᆞ민 이제도 풋밥 풋 놩 먹지 안 헴서?(팥밥 먹고 싶으면 이제도 팥밥 팥 놔서 먹지 안 해?)

107007 @ 그런 식으로예?(그런 식으로요?)

107007 # 응, 엿날에도 놩 먹고.(응, 옛날에도 놔서 먹고.)

107008 @ 근데 혹시 피밥이렌 헨 피로도 밥 헤먹어낫수과?(그런데 혹시 피밥이라고 해서 피로도 밥 해먹었습니까?)

107008 #3 핀? 우린 안힝 먹어봐서, 피밥.(핀? 우린 안 해 먹어봤어, 피밥.)

107008 @ 기꽈?(그래요?)

107009 @ 감저밥은 뭐 감저에 뭐 아까 말씀한 대로 이거저거 서끈 거고예?(고구마 밥은 뭐 고구마에 뭐 아까 말씀한 대로 이거저거 섞은 거고요?)

107010 @ 혹시 놈삐로도 밥 헤낫수과? 놈삐밥, 놈삐 놔근에 밥 헤봣수과?(혹시

무로도 밥 했습니까? 무밥, 무 넣어서 밥 해봤습니까?)

107010 #3 엿날에 숭년 때나 기자 물룻 쏠, 물룻 알아저?(옛날에 흉년 때나 기자 무릇 쌀, 무릇 알아져?)

107010 @ 예, 예.(예, 예.)

107010 #3 밧, 물룻 놩 우린 엇이난에 물룻 파다근에 밥도 헤 먹어봐서. 톨밥도 헨 먹어보고, 고사리밥도 헨 먹어보고, 엿날에.(밭, 무릇 넣어 우린 없으니까 무릇 파다가 밥도 해 먹어봤어. 톳밥도 해서 먹어보고, 고사리밥도 해서 먹어보고, 옛날에.)

107010 @ 예. 맞수다게.(예. 맞습니다.)

107010 #3 어시난, 우린 어신 사람이난 경 헨 먹어나서.(없어서, 우린 없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해서 먹어났어.)

107011 @ 엿날엔 물룻을 뭐렌 골아낫수과?(옛날엔 무릇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107011 #3 물룻이엔 곧주 뭐렌 골아?(무릇이라고 말하지 뭐라고 말해?)

107011 @ 아 다른 말 엇어낫수과?(아 다른 말 없었습니까?)

107011 #3 응, 물룻산디.(응, 무릇인지.)

107011 @ 물룻도 놘 헤먹어나고예?(무릇도 넣어 해먹었고요?)

107011 #3 그것도 솖으믄 막 오래 솖아사 돌아.(그것도 삶으면 막 오래 삶아야 달아.)

107011 @ 아, 물룻은마씸?(아, 무릇은요?)

107011 #3 응, 독헹 못 먹어, 독헌 거난.(응, 독해서 못 먹어, 독한 거여서.)

107012 @ 그 패밥은 뭐꽈? 패밥.(그 패밥은 뭡니까? 패밥.)

107012 #3 패, 바당에 패?(패, 바다에 패?)

107012 @ 예. 패밥.(예. 패밥.)

107012 #3 패밥게. 패 바당에 난 거게. 톨ᄀᆞ치 나민게. 그거 오랑 데와근에 그거 서껑 밥 헤낫주.(패밥. 패 바다에 난 거. 톳같이 나면. 그거 와서 데워서 그거 섞어 밥 했었지.)

107012 @ 아, 패. 바다에 어떤 패라는 풀이 이서낫구나예? 그 패를.(아, 패. 바다에 어떤 패라는 풀이 있었군요? 그 패를.)

107012 #3 응, 납작납작 혼 거.(응, 납작납작 한 거.)

107012 @ 게민 쏠 서꺼가지고마씨? 패밥 할 땐 주로 어떤 쏠 서껑 먹엇수과?(그러면 쌀 섞어서요? 패밥 할 땐 주로 어떤 쌀 섞어서 먹었습니까?)

107012 #3 어떤 쏠게? 그 쏠이 그 쏠이주.(어떤 쌀을? 그 쌀이 그 쌀이지.)

107012 @ 좁쏠이나.(좁쌀이나.)

107012 #3 불롸 먹젠 덜.(불려서 먹으려고 들.)

107012 @ 좁쏠이나 보리쏠이나 서꺼가지고예?(좁쌀이나 보리쌀이나 섞어가지고요?)

107012 #3 어. 좁쏠이영 보리쏠이영 불롸 먹젠게. 엿날에 숭년 뒈어근에 무시거

쳇 번 날 때난 어성.(좁쌀이랑 보리쌀이랑 불려 먹으려고. 옛날에 흉년 돼서 뭐 첫 번 날 때니까 없어서.)

107013 @ 국은 주로 어떤 국 끌령 먹어낫수과?(국은 주로 어떤 국 끌려서 먹었습니까?)

107013 #3 무시거, ᄂᆞ물국도 끌령 먹고게. 메역국도 끌령 먹곡.(뭐, 나물국도 끓여서 먹고. 미역국도 끓여서 먹고.)

107013 @ 예.(예.)

107013 #3 톨 넹국도 헹 먹고. ᄂᆞ물 넹국도 헹 먹고.(톳 냉국도 해서 먹고. 나물 냉국도 해서 먹고.)

107013 @ 아 여름에는 톨넹국, ᄂᆞ물넹국예?(아 여름에는 톳냉국, 나물냉국이요?)

107013 #3 응.(응.)

107013 @ 다음에는 뭐 생선이라든가.(다음에는 뭐 생선이라든가.)

107013 #3 궤기? 궤기국도 끌리주게.(고기? 고기국도 끓이지.)

107013 @ 예. 궤기 놀 땐 주로 무슨 궤기 사용 헷수과?(예. 고기 넣을 땐 주로 무슨 고기 사용 했습니까?)

107013 #3 궤기사게 끌령먹젠 우리 엿날에사 헤서게? 이젠 기자 춤 살아저가난 궤기국도 끌령 먹고.(고기야 끓여먹으려고 우리 옛날에야 했겠어? 이젠 그저 참 살아져가니까 고깃국도 끓여서 먹고.)

107013 @ 아니 바당에 이서도 궤깃국을 못 끌령 먹엇수과?(아니 바다에 있어도 고깃국을 못 끓여먹었습니까?)

107013 #3 바당에서도 게 그자 가당오당 흔 번 끌리주 경.(바다에서도 그저 가다오다 한 번 끓이지 그렇게.)

107015 @ 기구나예? 혹시 콩나물로도 콩나물 집에서 길롸근에 먹어 낫수과?(그렇군요? 혹시 콩나물로도 콩나물 집에서 길러서 먹었습니까?)

107015 #3 국도 끌령먹고. 오게, 엿날엔 경 놧저게. 콩ᄂᆞ물 놘 먹어낫저게.(국도 끓여먹고. 그럼, 옛날엔 그렇게 키웠지. 콩나물 키워 먹었지.)

107015 @ 콩나물은 어떵 만들어낫수과?(콩나물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07015 #3 어떵 만들어게, 고냥 뚤랑 시리, 게 영 영 잇주게?(어떻게 만들어, 구멍 뚫어서 시루, 이렇게 이렇게 있지?)

107015 @ 예, 예.(예, 예.)

107015 #3 그것에게 놩 놔두민게 물주멍 키와근에게 크민 먹언.(그것에게 넣어 놔두면 물주면서 키워서 크면 먹었지.)

107015 @ 콩나물을 게민 키원 헷수과? 콩나물을 질렷덴 헷수과?(콩나물을 그러면 키워서 했습니까? 콩나물을 길렀다고 했습니까?)

107015 #3 키왓덴 헷주. 키와도 뒈고, 질롸도 뒈고.(키웠다고 했지. 키워도 되고, 길러도 되고.)

107015 @ 질롯덴 헷수과? 키왓덴 헷수과?(질롯덴 했습니까? 키왓덴 했습니까?)

107015 #3 키왓덴 안 헤신가? 키왓덴.(키왓덴 안 했는가? 키왓덴.)

107016 @ 그 놈삐로는 무국 끌릴 때 놈삐로는 어떵 국 끌렷수과?(그 무로는 무국 끌릴 때 무로는 어떻게 국 끓였습니까?)

107016 #3 뭐 궤기국에도 놩 끌령. 어시민 가당오당 뒌장쿡에도 흑끔식 놩 끌뢍 먹고. 이녁 자유주 것도.(뭐 고깃국에도 넣어 끓여. 없으면 가다오다 된장국에도 쪼끔씩 넣어 끓여서 먹고. 이녁 자유지 그것도.)

107016 @ 호박입국 끌릴 땐 어떵 끌려낫수과?(호박입국 끓일 땐 어떻게 끓였습니까?)

107016 #3 허허허 호박입국을 어떵 끌려? 물 게 놔근에게 데와가민 궤가민 놔근에게 ᄀᆞ루 놓곡게.(허허허 호박잎 국을 어떻게 끓여? 물 넣어서 데워 가면 끓여 가면 넣어서 가루 놓고.)

107016 @ ᄀᆞ룬 무신 ᄀᆞ루 사용헷수과?(가룬 무슨 가루 사용했습니까?)

107016 #3 밀ᄏᆞ루주게. 밀ᄏᆞ루벳긘 모물코루사 경 그때사. 밀ᄏᆞ루주 호박입국엔 대게사 밀ᄏᆞ루 놩.(밀가루지. 밀가루밖에 메밀가루야 그렇게 그때야. 밀가루지. 호박잎 국엔 대게 밀가루 넣어.)

107016 @ 밀ᄏᆞ루 놩예?(밀가루 놔서요?)

107019 @ 몸국은 아까 여름에.(모자반국은 아까 여름에.)

107019 #3 몰망국?(모자반국?)

107019 @ 몰망국.(모자반국.)

107019 #3 몰망국은 경 아니 끌령, 우린 먹어본 디 엇어. 돗국물 ᄀᆞ튼 거이.(모자반국은 그렇게 아니 끓여, 우린 먹어본 적 없어. 돼지국물 같은 거.)

107019 @ 예, 예.(예, 예.)

107019 #3 도새기 국물 그런 디나 몰망국들 먹어보주.(돼지 국물 그런 데나 모자반들 먹어보지.)

107019 @ 몰망국은 ᄀᆞᆫ는 다른 말 엇수과? 뭐렌 ᄀᆞᆫ는 소리.(모자반국은 말하는는 다른 말 없습니까? 뭐라고 말하는 소리.)

107019 #3 몰망국? 그런 디나 춤 도야지 그런 디 놩 끌령 대룽 먹어봣주.(모자반국? 그런 데나 참 돼지 그런 데 넣어 끓여서 대충 먹어봤지.)

107019 @ 아 톳으로 만드는 톳넹국하고, 톨은 넹국 헹 먹어신디 몰망은 넹국은?(아 톳으로 만드는 톳냉국하고, 톳은 냉국 해서 먹었는데 모자반은 냉국은?)

107019 #3 응, 몰망 넹국은 안 헹 먹어보난.(응, 모자반 냉국은 안 해서 먹어보니까.)

107019 @ 아.(아.)

107019 #3 응, 것도 헹 먹는 거주마는 안 헹 먹어봣주 그건. 몰망넹국은.(응, 것도 해서 먹는 거지만 안 해먹어봤지 그건. 모자반냉국은.)

107020 @ 그믄예 생선, 생선으로 국 끌리는 종류들은 어떤 게 이서수과?(그러

면요 생선, 생선으로 국 끓이는 종류들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107020 #3 생선 국 끌리는 건? 무시거 건 메역도 놓곡, 놈삐도 놓곡.(생선 국 끓이는 건? 뭐 그건 미역도 넣고, 무도 넣고.)

107020 @ 아니 그니깐 생선 종류들이 어떤 거 이서수과?(아니 그러니까 생선 종류들이 어떤 거 있었습니까?)

107020 #3 생선 종루?(생선 종류?)

107020 @ 예. 국 끌리는 종류덜.(예. 국 끓이는 종류들.)

107020 #3 무시거 조기?(뭐 조기?)

107020 @ 조기도 잇고 또?(조기도 있고 또?)

107020 #3 대게 보민 조기광 생성 그런 거 국 끌리주. 다른 건 몰라, 나 원. 다른 궤기는 나 흔엇이 먹어지지 아녀난.(대게 보면 조기랑 옥돔 그런 거 국 끓이지. 다른 건 몰라, 나 원. 다른 고기는 나 별로 먹어지지 안하니까.)

107020 @ 게난 생선 이름덜 무신 거꽈? 아까 조기도 잇고 또?(그러니까 생선 이름들 무슨 겁니까? 아까 조기도 있고 또?)

107020 #3 생성. 올토미?(생선, 옥돔?)

107020 @ 올토미?(옥돔?)

107020 #3 올토미 ᄀᆞ라 생성이렌 ᄀᆞᆫ주.(옥돔 보고 생성이라고 말하지.)

107020 @ 올토미, 게난 우리 볼목리 말로 ᄀᆞᆯ아줘예? 올토미도 잇고.(옥돔, 그러니 우리 보목리 말로 말해주세요? 옥돔도 있고.)

107020 #3 올토미.(옥돔.)

107020 @ 올토미도 잇고 또?(옥돔도 있고 또?)

107020 #3 생성.(생성.)

107020 @ 그다음에 조기도 잇고 또 뭐 이섯수과?(그다음에 조기도 있고 또 뭐 있었습니까?)

107020 #3 각제기덜, 고등어덜, 자리덜 무사 어심사 헤게?(전갱이들, 고등어들, 자리돔들 왜 없기야 해?)

107020 @ 고등어나 자리로는 국 안 끌령 먹엇수과?(고등어나 자리돔으로는 국 안 끓여 먹었습니까?)

107020 #3 무사 안 끌령. 고등어 국은 안 끌려 지주게이.(왜 안 끓여. 고등어 국은 안 끓여지지.)

107020 @ 아, 기꽈?(아, 그러가요?)

107020 #3 아니, 끌리는데 무사 안 먹으랴만 난 끌령 먹어보진 아녓주. 기자 저 저거 헹 먹주.(아니, 끓이는데 왜 안 먹으랴만 난 끓여 먹어보진 안했지. 그저 저 저거 해서 먹지.)

107020 @ 올토미만마씨?(옥돔만이요?)

107020 #3 아니 고등어 ᄀᆞ튼 것도 기자, 지저근에 보깡 그런 건 먹주게. 구엉도 먹곡. 국을 안 끌령 먹어보구렌 허는 거주 난.(아니 고등어 같은 것도 그저, 지져서

볶아서 그런 건 먹지. 구워서도 먹고. 국을 안 끓여서 먹어봤다고 하는 거지 난.)

107020 @ 예.(예.)

107020 #3 고등에 국도 든덴 헨게마는.(고등어 국도 단다고 하더니마는.)

107021 @ 미역국에는 미역으로 끌리는 국에는 어떤 국들이 잇수과? 미역하고 뭐영 서꺼근에 끌렷수과?(미역국에는 미역으로 끓이는 국에는 어떤 국들이 있습니까? 미역하고 뭐하고 섞어서 끓였습니까?)

107021 #3 기자게 넹국도 헹 먹곡 여름에.(그저 냉국도 해서 먹고 여름에.)

107021 @ 예.(예.)

107021 #3 메역넹국도 헹 먹곡, 무청도 먹곡, 메역으로.(미역냉국도 해서 먹고, 무쳐서도 먹고, 미역으로.)

107021 @ 예.(예.)

107021 #3 넹국도 헹 먹곡, 고기에 끌령도 먹곡, 생선도 놩 먹곡.(냉국도 해서 먹고, 고기에 끓여도 먹고, 생선도 넣어서 먹고.)

107021 @ 궤기 무신 궤기마씨?(고기? 무슨 고기를요?)

107021 #3 생성 ᄀᆞ튼 것도 놔근에. 도야지 고기도 끌령먹누렌.(옥돔 같은 것도 넣어서. 돼지고기도 끓여먹는다고.)

107021 @ 예.(예.)

107021 #3 끌리민 맛좋아렌 헨게. 난 도야지 메역 놘 끌령은 난 안 먹어보난.(끓이면 맛있다고 하데. 난 돼지 미역 넣어서 끓여서는 난 안 먹어보니까.)

107021 @ 배추에다가 도야지궤기 놤지예?(배추에다가 돼지고기 놓고 있지요?)

107021 #3 응?(응?)

107021 @ 배춧국에는 ᄂᆞ물국에는 그 도새기궤기?(배춧국에는 나물국에는 그 돼지고기?)

107021 #3 도야지국에는 ᄂᆞ물도 좋고 ᄂᆞᆷ삐도 좋주게.(돼지고기 국에는 나물도 좋고 무도 좋지.)

107021 @ 옛날에는 도야지를 볼목리에서는 뭐렌 ᄀᆞᆯ앗수과?(옛날에는 돼지를 보목리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107021 #3 뒈야지 도새기엔 ᄀᆞᆫ지. 뭐엔 ᄀᆞᆯ아?(뒈야지 도새기라고 말하지. 뭐라고 말해?)

107021 @ 도새기 중에서도 새끼도새기는 뭐렌 ᄀᆞᆯ앗수과?(돼지 중에서도 새끼돼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107021 #3 새끼 도새기엔 ᄀᆞᆫ주.(새끼돼지라고 말하지.)

107021 @ 자릿도새기[107]는 뭐꽈? 자릿도새기.(자릿도새기는 뭡니까? 자릿도새기.)

107021 #3 자릿도새기는 자릿도새기엔도 ᄀᆞᆫ곡.('자릿도새기'는 '자릿도새기'라고

107) '자릿도새기'는 어미젖을 떼었어도 아직 두 마리를 우리에 함께 넣고 기르는 돼지를 말한다.

도 말하고.)
107021 @ 자릿도새기가 새끼도새기꽈?('자릿도새기'가 새끼돼지입니까?)
107021 #3 응, 새끼도새기 ᄀᆞ라 자릿도새기.(응, 새끼돼지 보고 '자릿도새기'.)
107021 @ 막 큰 도새기는 마씨?(매우 큰 돼지는요?)
107021 #3 큰 도새기엔 ᄀᆞᆫ주게.(큰 돼지라고 말하지.)
107021 @ 자릿도새기는 혹시 숫컷이꽈 암컷이꽈?('자릿도새기'는 혹시 숫컷입니까 암컷입니까?)
107021 #3 암커나 숫커나 ᄀᆞ찌 ᄀᆞᆫ주.(암커나 숫커나 같이 말하지.)
107021 @ 예. 새끼는 다 자릿도새기예?(예. 새끼는 다 '자릿도새기'요?)
107021 #3 응, ᄀᆞ찌 ᄀᆞᆫ주게.(응, 같이 말하지.)
107021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7021 #3 암커 수커, ᄀᆞ찌.(암커 수커, 같이.)
107022 @ 여름에 넹국 중에 미역넹국도 잇고?(여름에 냉국 중에 미역냉국도 있고?)
107022 #3 ᄂᆞ물 넹국도 잇고. 톨넹국도 잇주게.(나물 냉국도 있고. 톳냉국도 있지.)
107022 @ 다른 넹국은 뭐이수과?(다른 냉국은 뭐있습니까?)
107022 #3 다른 넹국 몰라. 톨넹국, ᄂᆞ물넹국, 메역넹국, 그런 거주.(다른 냉국 몰라. 톳냉국, 나물냉국, 미역냉국, 그런 거지.)
107022 @ 웨넹국 이런 건 엇엇수과?(오이냉국 이런 건 없었습니까?)
107022 #3 웨넹국도 이서. 웨넹국도 헹 먹주 죽, 여름에.(오이냉국도 있어. 오이냉국도 해 먹지 죽, 여름에.)
107022 @ 여름에예?(여름에요?)
107022 #3 응, 웨넹국 하영 헤 먹주 여름에.(응, 오이냉국 많이 해 먹지 여름에.)
107023 @ 성게, 옛날에 볼목리는 뭐렌 ᄀᆞᆯ앗수과?(성게, 옛날에 보목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107023 #3 성게? 귀.(성게? 귀.)
107023 @ 귀나 이건 국 안 끌려낫수과?(귀나 이건 국 안 끓였습니까?)
107023 #3 무사 안 끌려, 메역 놘 끌렷주.(왜 안 끓여, 미역 넣어서 끓였지.)
107023 @ 메역 놘 끌렷지예? 저 보말이나 ᄀᆞ메긴마씨?(미역 넣어서 끓였지요? 저 보말이나 개울타리고둥은요?)
107023 #3 ᄀᆞ메기도 메역 놘 끌리국.(개울타리고둥도 미역 넣어 끓이고.)
107023 @ 메역 놘 끌리고에?(미역 넣어 끓이고요?)
107023 #3 응.(응.)
107023 @ 너패가 패과?(너패가 팹니까?)
107023 #3 응.(응.)

107023 @ 아, 너패가 패꽈?(아, 너패가 팹니까?)

107023 #3 응.(응.)

107023 @ 아까 패밥은 너패를 애기하는 거꽈?(아까 패밥은 어패를 얘기하는 겁니까?)

107023 #3 오게.(그래.)

107023 @ 아.(아.)

107023 #3 밥도 헹 먹어전, 엿날엔. 솖앙.(밥도 해서 먹을 수 있었지, 옛날엔. 삶아서.)

107023 @ 기구나에?(그렇군요.)

107023 #3 엿날에 숭년인 땐 못 먹는 거 서서게? 엿날엔.(옛날에 흉년인 땐 못 먹는 거 있었나? 옛날엔.)

107023 @ 그 또 무시거꽈? 그 뭐렌 굽니까? 그 하얗게 막 끌리믄 아까 어디 그 북한에 가가지고 뭐 켓덴 헷수과?(그 또 뭡니까? 그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얗게 마구 끓이면 아까 어디 그 북한에 가가지고 뭐 캤다고 했습니까?)

107023 #3 무시거?(뭐?)

107023 @ 북한에 가근에 물질허멍 켄 거. 저 뜯은 거.(북한에 가서 물질하며 캔 거. 저 뜯은 거.)

107023 #3 아, 우미?(아, 우뭇가사리?)

107023 @ 우미로는 국 안 끌령먹엇수과? 여름에.(우무로는 국 안 끓여먹었습니까? 여름에.)

107023 #3 아니. 솖아근에.(아니, 삶아서.)

107023 @ 솖잖아예? 솖으면 우미가 뒈잖아예. 솖아진 그 하양한 투명한 것도 우미렌 헙니까?(삶잖아요? 삶으면 우미가 되잖아요. 삶아진 그 하얀 투명한 것도 우미라고 합니까?)

107023 #3 오게. 막 오래 발레사, 오래발레사 헤영케 헤지민. 물 적정 불르고 물 적정 불르고.(그래. 매우 오래 바래야, 오래 바래야 하얗게 되면. 물 적셔서 바래고 물 적셔 바래고.)

107023 @ 그것도 우미고, 바당에서 캘 때도 우미렌 허고?(그것도 우미고, 바다에서 캘 때도 우미라고 하고?)

107023 #3 천추엔도 곧아박 우미엔도 곧아박, 천춘 일분말 아닌가?(천초라고도 말해봐 우미라고도 말해봐, 천초 일본말 아닌가?)

107023 @ 게메양? 가시리는 뭐꽈?(그러게요? 가시리는 뭡니까?)

107023 #3 가시리는 바당에 돌에 낭. 이제는 이 식당들 하영 헹 물 ᄂᆞ려오는 따문에 이 바당이 오염뒈는 ᄀᆞ라 가시리 벼랑 안나.(가시리는 바다에 돌에 나. 이제는 이 식당들 많이 해서 물 내려오는 때문에 이 바다가 오염되는 모양이라 가시리 별로 안 나.)

107023 @ 가시리하고 우미하곤 다른 것과?(가시리하고 우무하고는 다른 겁니

까?)

107023 #3 응.(응.)

107023 @ 가시리로도 국 끌령 먹어낫수과? 옛날에?(가시리로도 국 끓여 먹었습니까? 옛날에?)

107023 #3 가시리국두 먹넨 ᄒᆞ고나마는 우린 먹어본디도 엇어. 그걸로 ᄆᆞᆫ 풀 멘들아근에 무시거 허주.(가시리국도 먹는다고 하더라만 우린 먹어본 데도 없어. 그걸로 모두 풀 만들어서 뭐 하지.)

107023 @ 아, 풀 멘들어.(아, 풀 만들어.)

107023 #3 발레영.(바래서.)

107023 @ 예?(예?)

107023 #3 발레여근에.(바래여서.)

107023 @ 볼목리에도 가시리를 가시리렌 ᄀᆞᆯ앗수과?(보목리에도 가시리를 가시리라고 맣했습니까?)

107023 #3 응.(응.)

107023 @ 다른 말은 엇엇수과?(다른 말은 없었습니까?)

107023 #3 전이 가시리 벌겅케 이 정월나민 나는 게 이젠 벼랑 엇어.(전에는 가시리 벌겋게 이 정월나면 나는 게 이젠 별로 없어.)

107023 @ 아.(아.)

107023 #3 오염 뒈영.(오염 되어서.)

107023 @ 파래 ᄀᆞ튼 건 엇수과?(파래 같은 건 없습니까?)

107023 #3 파래도 엇어, 바당에.(파래도 없어, 바다에.)

107023 @ 옛날에도 엇어낫수과?(옛날에도 없었습니까?)

107023 #3 이 섬에 가민 파래 신디.(이 섬에 가면 파래 있는데.)

107023 @ 섬에도 가봣수과? 물질허레?(섬에도 가봤습니까? 물질하러?)

107023 #3 지꾸섬, 저 섬에.(지귀도, 저 섬에.)

107023 @ 이 앞 섭섬 마씨?(이 앞 섶섬요?)

107023 #3 응.(응.)

107023 @ 섭섬에도 그 근처에 물질허레 가봣수과?(섶섬에도 그 근처에 물질하러 갔었습니까?)

107023 #3 물질허주게. 그디 휘갓닥 휘오랏닥. 우리, 낭 어시민이.(물질하지. 거기 헤엄쳐 갔다가 헤엄쳐 왔다가. 우리, 나무 없으면.)

107023 @ 예.(예.)

107023 #3 이디 이젠 ᄉᆞ믓 ᄆᆞᆫ 저추룩 저 헤여근에 싱쿠대에 뭐 무시거 놔근에 가스 놔근에 뭐 헴주만, 우리 이제 지쿠섬, 저 섭섬에 가근에 테왁 아저강 휘어.(여기 이제는 시믓 모두 저처럼 저 해서 싱크대에 뭐 뭣 놔서 가스 놔서 뭐 하지만, 우리 이제 지귀도, 저 섶섬에 가서 테왁 가져가서 헤엄쳐.)

107023 @ 예.(예.)

107023 #3 낭 어시민 그디서 문 삼낭 이만씩 무꺼근에 이ᄁᆞ지 휘어오라. 낭 밀려근에. 경 헹 지더낫어 우리. 지들커[108] 어성.(나무 없으면 거기서 모두 삼나무 이만씩 묶어서 여기까지 헤엄쳐 와. 나무 밀려서. 그렇게 해서 지폈어 우리. '지들커' 없어서.)

107023 @ 낭이 베랑 엇어부난에예?(나무가 별로 없어서요?)

107023 #3 제제기 오름에 이제사 소낭들 저거 핫주. 엿날에사 저영 서서게. 젠젠헌 날 때난, 섬의 낭 시민 기자 테왁 아정 물질로 휘어 가근에 ,낭헤근에 이ᄁᆞ지 휘엉 오라, 요디ᄁᆞ지.(제제기 오름에 이제야 소나무들 저거 많지. 옛날에야 저렇게 있었나. 자잘한 거 날 때여서, 섬에 나무 있으면 그저 테왁 가져서 물질로 헤엄쳐 가서, 나무해서 여기까지 헤엄쳐 오지, 요기까지.)

107023 @ 음.(음.)

107023 #3 밀려오랑. 이ᄁᆞ지 밀려오민 이레 기자 저오고. 저당 지더낫주. 오죽 낭덜 어랴나서, 고지덜 강은에 저 나오곡.(밀려오면. 여기까지 밀려오면 이리로 그저 져오고. 져다가 지펴났지. 오죽 나무들 어려워나서, 고지들 가서 져 나오고.)

107023 @ 게민예, 국들 중에서 물훼는 어떤 종류가 이섯수과? 물훼, 자리물훼 말고.(그러면요, 국들 중에서 물회는 어떤 종류가 있었습니까? 물회, 자리물회 말고.)

107023 #3 자리물훼 말곡게 이디 이까도 물훼헹 먹고.(자리물회 말고 여기 오징어도 물회해서 먹고.)

107023 @ 이까? 이까물훼가 잇엇고 또?(오징어? 오징어 물회가 있었고 또?)

107023 #3 바당에 물훼ᄀᆞ라.(바다에 물회보고.)

107023 @ 한치마씨?(한치요?)

107023 #3 한치물훼도 먹고.(한치물회도 먹고.)

107023 @ 한치를 옛날엔 뭐렌 ᄀᆞᆯ앗수과? 볼목리에선.(한치를 옛날엔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목리에선)

107023 #3 난 몰라 건.(난 몰라 그건.)

107023 @ 한치말곤 다른 말 엇엇수과?(한치 말곤 다른 말 없었습니까?)

107023 #3 한치가 이까광 뜰린덴 허멍?(한치가 오징어하곤 다르다고 한다며?)

107023 @ 아, 모르쿠다 난.(아, 난 모르겠습니다.)

107023 #3 뜰린덴.(다르데.)

107023 @ 기꽈? 이까가 오징어꽈?(그래요? 이까가 오징업니까?)

107023 #3 오징에광 한친 뜰린덴 헨게?(오징어랑 한치가 다르다고 하던데?)

107023 @ 예 건 틀립니다게.(예. 건 다릅니다.)

107023 #3 뜰린덴.(다르데.)

107023 @ 아, 게민 오징어를 이까렌 헴수과?(아, 그러면 오징어를 이까라고 했습니까?)

---

108) '지들커'는 장작, 검불 따위의 불을 때는 데 쓰는 재료를 말한다. = 짇을 커, 지들 것, 짇을 거.

107023 #3 응.(응.)

107023 @ 아, 기구나. 한치는 따로 하는 말 엇고예?(아, 그렇구나. 한치는 따로 하는 말 없고요?)

107023 #3 응, 난 ᄀᆞ튼가부덴 허단 보난. 딴덴.(응, 난 같은가보다 하다 보니까. 다른데.)

죽류

107024 @ 그 다음에 죽 ᄀᆞ튼 거 끌령 드셔봣잖아예? 보면은 이제 죽에 종류, 어떤 종류들 잇수과? 죽 종류덜?(그 다음에 죽 같은 거 끓여서 드셔봤지요? 보면 이제 죽의 종류, 어떤 종류들 있습니까? 죽 종류들?)

107024 #3 죽 종류야 풋죽이여, 콩죽이여, 그런 거?(죽 종류야 팥죽이여, 콩죽이여, 그런 거?)

107024 @ 옛날에 막 쏠도 엇고 풋도 엇고, 콩도 어실 때는 따른 죽 엇엇수과?(옛날에 막 쌀도 없고 팥도 없고, 콩도 없을 때는 다른 죽 없었습니까?)

107024 #3 무시거게, 전복죽도 잇곡게.(뭐, 전복죽도 있고.)

107024 @ 아니 막 어실 때 옛날에. 막 먹을 거 어실 때 끌려 먹엇던 죽.(아니 매우 없을 때 옛날에. 전혀 먹을 거 없을 때 끓여 먹었던 죽.)

107024 #3 끌령 먹을 땐 그런 거벳긔 엇어낫주.(끓여 먹을 땐 그런 거밖에 없었지.)

107024 @ 전복죽사 막 비싼 거 아니꽈?(전복죽이야 매우 비싼 거 아닙니까?)

107024 #3 비싼 거.(비싼 거.)

107024 @ 아니 옛날에 쏠도 엇고. 막 보리쏠도 어실 때.(아니 옛날에 쌀도 없고. 뭐 보리쌀도 없을 때.)

107024 #3 그땐게 보리죽도 쑤고 좁쏠도 놘 쓰곡게, 이제도 미음도 아픈 사름덜 먹지 아니여이? 좁쏠미음. 그런 죽도 썽 먹주게. 조축.(그때는 보리죽도 쑤고 좁쌀도 넣어 쓰고, 이제도 미음도 아픈 사람들 먹잖아? 좁쌀미음. 그런 죽도 써서 먹지. 조죽.)

107026 @ 옛날에 조축?(옛날에 조죽?)

107026 #3 좁쏠죽.(좁쌀 죽.)

107026 @ 좁쏠죽? 옛날에 좁쏠죽 헐 때는?(좁쌀죽? 옛날에 좁쌀죽 할 때는?)

107026 #3 응, 깨죽이여 무신 하간 거 건 고급이고.(응, 깨죽이여 무슨 여러 가지 그거 그건 고급이고.)

107024 @ 고급이고, 게난 어실 때 가난헹 어신 사람덜은?(고급이고, 그러니 없을 때 가난해서 없는 사람들은?)

107026 #3 좁쏠놩 미음 딸령 먹곡게.(좁쌀 넣어 미음 달려 먹곤 하지.)

107026 @ 좁쏠 놀 때 좁쏠 말고 다른 거 안놧수과?(좁쌀 넣을 때 좁쌀 말고 다른 거는 안 넣었습니까?)

107024 #3 곤쏠 이시민 곤쏠 놓고 부제나.(흰쌀 있으면 흰쌀 넣고 부자나.)

107024 @ 아니 어실 때. 어신 사름덜은 어떵 헹 '밥 빌어당 죽 쒀먹엇덴 하잖아예? 가난한사람들은 어떤 거? 어떤 죽 끌령 먹엇수과?(아니 없을 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밥 빌어다가 죽 쒀먹는다고 하잖아요? 가난한사람들은 어떤 거? 어떤 죽 끓여서 먹었습니까?)

107024 #3 그런 죽벳긴 더 서게?(그런 죽밖엔 더 있었나?)

107024 @ 보리쏠로 죽 쒀먹을 때도 보리쏠만 놘 죽 끌령 먹엇수과?(보리쌀로 죽 쒀먹을 때도 보리쌀만 넣어 죽 끓여 먹었습니까?)

107024 #3 보리쏠 죽은 우린 먹어본디 어시난.(보리쌀 죽은 우린 먹어본 적 없어서.)

107024 @ 엇고예?(없고요?)

107024 #3 응, 좁쏠죽은 먹어도.(응, 좁쌀죽은 먹어도.)

107026 @ 좁쏠죽은 좁쏠만 놔가지고 아플 때 먹는 거마씨? 흰죽은 뭐꽈?(좁쌀죽은 좁쌀만 놔가지고 아플 때 먹는 거요? 흰죽은 뭡니까?)

107025 #3 흰죽은게 곤쏠로 혼 것이 흰죽이고게.(흰죽은 흰쌀로 한 것이 흰죽이고.)

107026 @ 조축은?(조축은?)

107026 #3 조축은 좁쏠이고.(조축은 좁쌀이고.)

107027 @ 팥죽은 풋이고에?(팥죽은 팥이고요?)

107027 #3 응, 녹딘 녹디죽.(응, 녹둔 녹두죽.)

107027 @ 팥죽은 풋죽이렌 헷지예?(팥죽은 '풋죽'이라고 했지요?)

107028 @ 혹시 콩으로도 죽 끌렷수과?(혹시 콩으로도 죽 끓였습니까?)

107028 #3 콩죽이 하주게. 콩죽이 돌주게.(콩죽이 많지. 콩죽이 달지.)

107028 @ 콩죽은 어떵 쒀수과?(콩죽은 어떻게 쒔습니까?)

107028 #3 어떵 쒀게? 콩 ᄀᆞ루 ᄀᆞᆯ아다근에 쑤엉먹주.(어떻게 쒀? 콩 가루 갈아다가 쒀서 먹지.)

107028 @ 아 그게 콩죽이구나예?(아 그게 콩죽이군요?)

107028 #3 응.(응.)

107029 @ 혹시 옛날 모믈로도?(혹시 옛날 메밀로도?)

107029 #3 모믈축? 모믈축도 먹고. 것 다 고급 아니라?(메밀죽? 메밀죽도 먹고. 것 다 고급 아니야?)

107029 @ 녹디죽도 이섯고예? 녹디 ᄀᆞ튼 경우엔 밧디서 좀 갈아낫지예?(녹두죽도 있었지요? 녹두 같은 경우엔 밭에서 좀 갈아났지요?)

107029 #3 (고개를 끄덕끄덕.)((고개를 끄덕끄덕.))

107030 @ 녹디죽 끓일 땐 녹디만 놧수과?(녹두죽 끓일 땐 녹두만 놨습니까?)

107030 #3 무르데경게 곤쏠 놔사 먹주.(짓무르게 주물러 흰쌀 넣어야 먹지.)

107030 @ 아 기꽈? 무르데긴다[109]는 말은 무시거꽈?(아, 그래요? '무르데긴다'

는 말은 뭡니까?)

107030 #3 그걸 문 영영게.(그걸 모두 이렇게이렇게.)

107030 @ 쏠망마씨?(삶아서요?)

107030 #3 응, 물싹ᄒᆞ게 솖앙.(응, 물씬하게 삶아.)

107030 @ 아, 손으로 무르데겨야 죽이 뒛구나예? 무르데경에?(아, 손으로 짓무르게 주물러야 죽이 됐군요? 짓무르게 주물러요?)

107031 @ 혹시 ᄃᆞᆨ죽은 안 끌려 봣수과?(혹시 닭죽은 안 끓여 봤습니까?)

107031 #3 ᄃᆞᆨ죽?(닭죽?)

107031 @ 예.(예.)

107031 #3 무사 ᄃᆞᆨ죽도 안 끌려게? 엿날에 ᄃᆞᆨ죽도 먹엇주게.(왜 닭죽도 안 끓여? 옛날에 닭죽도 먹었지.)

107031 @ ᄃᆞᆨ은 어디 강 구혜당 먹엇수과?(닭은 어디 가서 구해다가 먹었습니까?)

107031 #3 질뢍, 질뢍.(키워서, 키워서.)

107031 @ 아, 질뢍. 그걸 어떵 잡읍디가?(아, 키워서. 그걸 어떻게 잡았습니까?)

107031 #3 어떵 잡아게. 우린 안 잡아봐서.(어떻게 잡아. 우린 안 잡아봤어.

107033 @ 다른 걸로 예를 들면 바당에서 나오는 걸로는 죽 안 끌려먹어봣수과?(다른 걸로 예를 들면 바다에서 나오는 걸로는 죽 안 끓여먹었습니까?)

107033 #3 ᄀᆞ메기 죽도 썽 먹노렌 ᄀᆞᆯ으난 난 먹어본디는 어시난. 우리 식당에 전이 이디서 우리 손지네 식당 ᄒᆞᆯ 때도게 ᄀᆞ메기죽 썽 먹어보렌 헤도 난 그런 건 안 먹어봐서.(개울타리고둥 죽도 써서 먹느라고 말하니까. 난 먹어본 적은 없으니까. 우리 식당에 전에 여기서 우리 손주 네 식당 할 때도 개울타리고둥죽 써서 먹어보라고 해도 난 그런 건 안 먹어봤어.)

107033 @ 아이고 경헷구나예?(아이고 그랬군요.)

107033 #3 먹으렌 헹 든덴 헤도. 이제도 ᄀᆞ메기죽 써근에 ᄃᆞᆯ덴덜 ᄒᆞ멍, 이디 알력디 선싱이주게.(먹으라고 해서 달다고 해도. 이제도 개울타리고둥죽 써서 달다고들 하면서, 여기 아래 쪽 선생이거든.)

107033 @ 예.(예.)

107033 #3 선싱인디 ᄀᆞ메기죽, ᄀᆞ메기국 메역 놘 경 잘 먹은덴.(선생인데 개울타리고둥죽, 개울타리고둥국 미역 넣어 그렇게 잘 먹는데.)

107033 @ 아 게민 바당에서 나오는 ᄀᆞ메기나 이런 거 안 좋아헴수과? 삼춘은?(아 그러면 바다에서 나오는 개울타리고둥이나 이런 거 안 좋아합니까? 삼촌은?)

107033 #3 아니 안 좋아허질 아녀고, ᄀᆞ메기죽을 안 먹어봐서. 먹으렌 헤도 안 먹어봔.(아니 안 좋아하지 않고, 개울타리고둥죽을 안 먹어봤어. 먹으라고 해도 안 먹어봤지.)

107033 @ ᄀᆞ메기 잡아당 뭘로 헹 드셧수과?(개울타리고둥 잡아다가 뭘 해 드셨

109) '무르데기다'는 짓무르게 주무르다를 말한다. = 무르쥐다, 무르쥐다.

습니까?)

107033 #3 국 끌령. 메역 놩 국 끌령.(국 끓여서. 미역 놔서 국 끓여서.)

107033 @ 국 끌려가지고예? ᄀᆞ메기국 끌릴 땐 어떵 끌립니까?(국 끓여 가지고요? 국 끓일 때는 어떻게 끓입니까?)

107033 #3 어떵 끌려게, ᄀᆞ메기 거 반지롱 게 물 영 헤와낭, 모살이 이서 잇당, ᄀᆞ메기 모살에 살곡 흔 따문, 모살 이러도근에게 무리데경.(어떻게 끓여, 개울타리고둥 그거 깨끗하게 물 이렇게 헹궈서, 모래 있어 이따가, 개울타리고둥 모래에 살고 하는 때문, 모래 이러서 문질러 짓이겨서.)

107033 @ 아, 것도 무리데경예? 경 미역 놔근에예? 간은 뭘로 허고마씨?(아, 그것도 문질러 짓이겨서요? 그렇게 미역 놔서요? 간은 무엇으로 합니까?)

107033 #3 간장도 홀 놔. 장을 홀 놔사 맛싯주.(간장도 조금 넣어. 장을 조금 넣어야 맛있지.)

107033 @ 간장?(간장?)

107033 #3 집이서 듬은 장 놔사 맛잇주. 기자 소금만 놩은 맛엇어. ᄀᆞ메기 국은.(집에서 담근 장 넣어야 맛있지. 그저 소금만 넣어선 맛없어. 개울타리고둥국은.)

107033 @ 아.(아.)

107033 #3 ᄀᆞ메기 국은.(개울타리고둥국은.)

107033 @ 집에서 헌 간장만 놔마씨?(집에서 한 간장만 넣어요?)

107033 #3 딴 거 서껑이라도 놘게. 요세 젊은 사람덜, 우린 미원도 사보질 아녀서 고자.(다름 거 섞어서라도 넣던데. 요새 젊은 사람들, 우린 미원도 사보질 안하고 지금까지.)

107033 @ 음.(음.)

107033 #3 사보질 아녀도 맛소금은 잇당 ᄒᆞ끔씩 사당 잇당 놀디 이시는디 우리 집이 손지도 헹 준거 보민 그런 걸 일절 안 놓고, 허난 맛이 엇어. 장물도 아니 놔.(사보지는 안 해도 맛소금은 있다가 조끔씩 사다가 있다가 놀 데 있는 데는 우리 집에 손주도 해 준거 보면 그런 걸 일절 안 넣고, 하니까 맛이 없어. 간장도 아니 넣어.)

107033 @ 예.(예.)

107033 #3 요세아이들은. 맛이 엇어. 아무 맛도. 헹주민 먹으믄 먹어도 저 소고기 놩 끌령 먹어도 소금만 소금만 놩 맛이 엇어.(요새아이들은. 맛이 없어. 아무 맛도. 해주면 먹으면 먹어도 저 소고기 넣어 끓여 먹어도 소금만, 소금만 넣어 맛이 없어.)

범벅과 수제비

107034 @ 혹시 범벅도 헹 먹어낫수과?(혹시 범벅도 해서 먹었습니까?)

107034 #3 나, 범벅 ᄒᆞ곡말곡.(나, 범벅 하고말고.)

107034 @ 범벅을 어떵?(법벅을 어떻게?)

107034 #3 감저 하영 놔근에 ᄉᆞᆺ 불롸먹젠, 감저 하영 놔근에 모믈ᄀᆞ루 놩은에 저서근에 범벅 멘드랑.(고구마 많이 넣어서 사뭇 불려먹으려, 고구마 많이 넣어서 메밀가루 넣어서 저어가지고 범벅 만들어.)

107034 @ 그건 감자 범벅이꽈. 모믈범벅이꽈?(그건 고구마 범벅입니까. 메밀범벅입니까?)

107034 #3 모믈펌벅이렌도 ᄀᆞᆫ곡, 모물ᄂᆞ민 모물펌벅 밀ᄂᆞ민 밀펌벅.(메밀범벅이라고도 말하고, 메밀 넣으면 메밀범벅 밀 넣으면 밀범벅.)

107034 @ 아, 밀도 놔낫수과?(아, 밀도 넣었습니까?)

107034 #3 밀ᄀᆞ루게 놩은에 범벅ᄒᆞ민 밀펌벅이고 또 모믈ᄀᆞ루 놩 ᄒᆞᆫ건 모믈펌벅이주.(밀가루를 넣어서 범벅하면 밀범벅이고 또 메밀가루 넣어서 한건 메밀범벅이지.)

107034 @ 모물펌벅, 밀펌벅. 또 다른 건 엇수과?(메밀범벅, 밀범벅. 또 다른 건 없습니까?)

107034 #3 다른 건 엇어.(다른 건 없어?)

107034 @ 무신 호박이라든가?(무슨 호박이라던가?)

107034 #3 그런 건 안 헨 먹어 보난. 것도 ᄒᆞ민 먹을 거주 범벅도 먹어볼 거주마는 난 먹어본데 어신 거.(그런 건 안 해 먹어 보니까. 그것도 하면 먹을 거지 범벅도 먹어볼 거지마는 난 먹어본 적 없는 거.)

107034 @ 그냥 하얀 ᄊᆞᆯ이라던가 ᄊᆞᆯᄀᆞ루 ᄀᆞ튼 건 안 헤봣수과?(그냥 하얀 쌀이라든가 쌀가루 같은 건 안 해봤습니까?)

107034 #3 응, 그런 건 죽이나 쓰주.(응, 그런 건 죽이나 쓰지.)

107034 @ 감저범벅허고 모믈펌벅예?(고구마범벅하고 메밀범벅이요?)

107035 @ 수제비를 볼목리에서는 뭐렌 ᄀᆞᆯ앗수과?(수제비를 보목리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107035 #3 저베기?(저베기?)

107035 @ 저베기.(‘저베기’.)

107035 #3 보릿처베기, 밀처베기, 모믈처베기, 이름은 다 따르주게 하하하.(보리수제비, 밀수제비기, 메밀수제비, 이름은 다 다르지 하하하.)

107035 @ 맞아예. 모믈처베기.(맞아요. 메밀수제비.)

107035 #3 밀처베기.(밀수제비.)

107035 @ 밀처베기. 보리처베기?(밀수제비, 보리수제비.)

107035 #3 보릿처베기.(보리수제비.)

107035 @ 보릿처베기, 그다음에 다른 건 엇수과?(보리수제비, 그다음에 다른 건 없습니까?)

107035 #3 엇어. 나 먹어난 것만 ᄀᆞᆯ암주.(없어. 나 먹어난 것만 말하고 있지.)

107036 @ 맞수다, 경허민 뭽니다게. 칼국수 ᄀᆞ튼 건 헤먹엇수과?(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칼국수 같은 건 해먹었습니까?)

107036 #3 칼국순데 밀로도 ᄀᆞ루ᄒᆞ곡게. ᄆᆞ믈로도 칼국ᄒᆞ곡게.(칼국순데 밀로도 가루하고. 메밀로도 칼국수하고.)

107036 @ 아, 예. 칼국예?(아, 예. 칼국수요?)

김치

107037 @ 김치는 김치종류는 어떵어떵 거 이수과?(김치는 김치종류는 어떤 어떤 거 있습니까?)

107037 #3 짐치종륜, 난 나 먹는 거 기자 그거주.(김치종륜, 난 나 먹는 거 그저 그거지.)

107038 @ 보목리에서는 김치를 뭐라고 말합니까?(보목리에서는 김치를 뭐라고 말합니까?)

107038 #3 무시거렌 ᄀᆞᆯ아? 짐치엔 ᄀᆞᆫ주, 짐치.(뭐라고 말해? '짐치'엔 말하지, 짐치.)

107038 @ 짐치예?(짐치예?)

107038 #3 응, 물짐치.(응, 물김치.)

107038 @ 물김치꽈? 물짐치꽈?(물김칩니까? 물짐칩니까?)

107038 #3 물로 ᄒᆞ는 건 물짐치주게 물로 ᄒᆞ는 거.(물로 하는 건 물김치지 물로 하는 거.)

107038 @ 볼목리에선 김치가 아니고 짐치꽈?(보목리에선 김치가 아니고 '짐치'입니까?)

107038 #3 김치, 김치ᄒᆞ난 난 몰라게.(김치, 김치하니까 난 몰라.)

107038 @ 게난 옛날엔 뭐렌 ᄀᆞᆯ앗수과?(그러니까 옛날엔 뭐라고 말했습니까?)

107038 #3 옛날엔 그거주게, 짐치ᄀᆞ라게 거사 뜰려게? 짐치.(옛날엔 그거지, 김치보고 그거야 틀리나? '짐치'.)

107038 @ 맞수다.(맞습니다.)

107038 #3 물짐치 그자 거 배추짐치, ᄂᆞᆷ삐짐치 그거주게.(물김치 그저 거 배추김치, 무김치 그거지.)

107038 @ 배추짐치, ᄂᆞᆷ삐짐치.(배추김치, 무김치.)

107038 @ 혹시 봄에, 봄에 막 뭐 헷던 짐치들은 엇수과? 무사 배추에서?(혹시 봄에, 봄에 바로 그때 뭐 했던 김치들은 없습니까? 왜 배추에서?)

107038 #3 ᄂᆞ믈동 동짐치?(나물동 동김치?)

107038 @ 동짐치꽈 동지짐치꽈?(동김친가요 동지김친가요?)

107038 #3 ᄂᆞ물동짐치, 동짐치엔 ᄀᆞᆫ주게.(나물 동김치, 동김치엔 말하지.)

107038 @ 그다음 동짐치 막 지난다음에는.(그다음 동김치 바로 그때 지난다음에는.)

107038 #3 요세사게 마눙짐치영 다 허난게.(요새야 마늘김치랑 다 하니까.)

107039 @ 그 무씨 막 갈아가지고 무 입 닮은 거 뽑아가지고 하는 그것이 무슨

짐치과?(그 무씨 막 갈아가지고 무 잎 닮은 거 뽑아가지고 하는 그것이 무슨 김치입니까?)

107039 #3 츰ᄂᆞ믈?(열무?)

107039 @ 츰ᄂᆞ믈짐치과?(열무김칩니까?)

107039 #3 응, 츰ᄂᆞ믈짐치, 배치짐치주게.(응, 열무김치, 배추김치지.)

107039 @ 츰ᄂᆞ믈, 열무짐치가 츰ᄂᆞ물짐치잖아예. 물짐치.(열무, 열무김치가 열무김치잖아요. 물김치.)

107040 #3 동짐치주게, 동게.(동김치지, 동으로.)

107041 @ 여기서는 동짐치렌 헷구나예? 동지짐치렌은 안 헷수과? 동을 동지렌은 안 골앗수과?(여기서는 동김치라고 했군요? 동지김치라고는 안 했습니까? 동을 동지라고는 안 말했습니까?)

107041 #3 응.(응.)

107041 @ 아, 볼목리에선 동을 동이렌만 헷구나예?(아, 보목리에서는 동을 동이라고만 했군요?)

107041 #3 응.(응.)

107041 @ 그럼 ᄂᆞ믈동 거꺼 오렌 헷수과? ᄂᆞ물동지 거꺼오렌 헷수과?(그럼 나물 동 꺾어 오라고 했습니까? 나물동지 꺾어오라고 했습니까?)

107041 #3 ᄂᆞ믈동 거꺼오라.(나물동 꺾어오라.)

107041 @ 동지라고 안헷구나.(동지라고 안했구나.)

107041 #3 ᄂᆞ믈동지엔 곧는가?(나물 동지엔 말하는가?)

107041 @ 아니 게난 동지엔 곧는디도.(아니 그러니까 동지엔 말하는 데도.)

107041 #3 막 뜰릴 거라. 저 서읫말ᄒᆞ곡 이딧말 뜰리주게.(매우 다를 거라. 저 동쪽지역 말과 여기 말 다르거든.)

107041 @ 맞수다게, 맞수다게.(맞습니다, 맞습니다.)

107042 @ 무김치는 여기서는 무는 여기서 뭐렌 골앗수과?(무김치는 여기서는 무는 여기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107042 #3 놈삐?(무?)

107042 @ 놈삐로는 주로 언제 김치 담강 먹엇수과? 놈삐김치도 여러 종류가 잇잖아에? 놈삐로도 막 썰어근에 하는 것도 잇고.(무로는 주로 언제 김치 담가서 먹었습니까? 무로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무로도 막 썰어서 하는 것도 있고.)

107042 #3 깍제기 짐치도 허고, 물짐치도 허고게.(깍두기 김치도 하고, 물김치도 하고.)

107042 @ 깍제기짐치는 뭐꽈?(깍제기김치는 뭡니까?)

107042 #3 요만썩 헤근에 네 개씩 존존ᄒᆞ게 썰어놩이.(요만씩 해서 네 개씩 자잘하게 썰어놓아서.)

107042 @ 아, 깍두기. 파짐치도 헤낫지예?(아, 깍두기. 파김치도 했었지요?)

107042 #3 파짐치도 이젠 막 헹먹주게. 우리도 이젠 헹 먹으난에.(파김치도 이

젠 많이 해먹지. 우리도 이젠 해먹으니까.)

107043 @ 꽁마눙으로는 안 헤낫수과?(달래로는 안 해먹었습니까?)

107043 #3 무사 아녀게. 꽁마눙이 어디서? 경.(왜 안 해. 달래가 어디 있어? 그렇게.)

107043 @ 엿날엔 이서낫지예?(옛날엔 있었지요?)

107043 #3 엿날에는 이서낫주마는 이젠 꽁마눙 읏주게 으서. 밧디도 엿날에 미깡낭 안 싱글 때, 꿩마눙이 밧디 농서헤나민 하주마는 이제사 그런 거 서게?(옛날에는 있었지마는 이젠 달래 없지 없어. 밭에도 옛날에 밀감 안심을 때, 달래 밭에 농사 해나면 많지마는 이제야 그런 거 있어?)

107043 @ 무사 어신고예?

107043 #3 산에나 가민 그 내창 엠에 꿩마눙 이신덴 골안게.(산에나 가면 그 내 옆에 달래 있다고 말하던데.)

107043 @ 농약 헤부난 어신가마씨?(농약 해버려서 없는가요?)

107043 #3 그 밧이 이 엿날엔 꿩마눙 나젠ᄒᆞ민 물룻싸리영 막 ᄒᆞ민 ᄂᆞ라불민 그거 노는 디 그거 나주마는게, 이제사 막 나주마는 이제사 미깡낭 심경 검질메민 그런 거 나겔 헴서게, 못나게. 이디가 저, 이디 알력집이 기자 미깡낭 아래 뿌령 내불민 아이들 헤당먹곡, 지네 짐치도 헤당먹곡 이제, 이제.(그 밭이 이 옛날엔 달래 나려고 하면 무릇 뿌리하고 마구 파내면 나라버리면 그거 나는 데 그거 나지마는, 이제야 많이 나지마는 이제야 밀감나무 심어서 김매면 그런 거 나게 하나, 못나게. 여기가 저, 여기 아랫집 그저 밀감나무 아래 뿌려서 내버리면 아이들 해다가 먹고, 자기네 김치도 해다가 먹고 이제, 이제.)

107043 @ 이제?(이제?)

107043 #3 이제 나가주, 봄 나가민.(이제 나가지, 봄 나가면.)

107043 @ 옛날에는 여기서도 보목리에서도 파는 파렌 골앗수과? 파에도 여러 종류가 잇잖아예? 이디 심거정 이신 건 뭐 뭐 잇수과?(옛날에는 여기서도 보목리에서도 파는 파라고 말했습니까? 파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여기 심어져 있는 건 뭐 뭐 있습니까?)

107043 #3 대사니?(마늘?)

107043 @ 대사니.(마늘.)

107043 #3 패마농?(쪽파.)

107040 @ 패마농, 거벳긔 엇주.(쪽파, 그것밖에 없지.)

107043 @ 게민 패마농짐치렌 헷수과? 게믄? 패마농짐치?(그러면 파김치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파김치?)

107043 #3 응.(응.)

107043 @ 패마농짐치 헐 땐 뭐 뭐 놩 헷수과?(파김치 할 땐 뭐 뭐 넣어서 했습니까?)

107043 #3 무시거 놔게? 그자 짐치허는 ᄂᆞ물에 짐치 ᄒᆞ는 거 놩 ᄒᆞ민 뒈주게.

(뭐 넣어? 그저 김치 하는 나물에 김치 하는 거 넣어 하면 되지.)

107045 @ 혹시 갯ᄂᆞ물로는 짐치 안 헤봣수과?(혹시 갓으로는 김치 안 해봤습니까?)

107045 #3 갯ᄂᆞ물로는 우린 안 헤보난에. 먹어보지도 아녀고.(갓으로는 우린 안 해봐서. 먹어보지도 안하고.)

107046 @ 세우린마씨?(부추는요?)

107046 3# 세우리 짐치도 ᄒᆞ주게. 세우리도 어디 경? 갈아사 싯주, 거 어성.(부추김치도 하지. 부추도 어디 그렇게? 갈아야 있지, 거 없어서.)

107046 @ 세우리는예, 우리 우녕에 심으면 쮀끔만 심어도 금새 막 큽디다.(부추는요, 우리 텃밭에 심으면 쪼끔만 심어도 금세 잘 큽디다.)

107046 #3 경헌덴. 이 알력집인 경헤근에 먹어.(그렇게 한대. 이 아랫집은 그렇게 해서 먹어.)

107046 @ 세우리 허당 여기 ᄒᆞ끔.(부추 하다가 여기 조금.)

107046 #3 우린 엇이난에. 그거 하민 느랑 내비사 홀거난에 마눙도 못 심고. 마눙은 그때그때 심것당 메여근엥 짐치도 헤엿당 먹곡 헤부난에. 세우린 그자 내비사 번성헤여근에 막 퍼저근에.(우린 없으니까. 그거 많으면 늘 내버려야 할 거여서 마늘도 못 심고. 마늘은 그때그때 심었다가 매여서 김치도 했다가 먹고 해버려서. 부추 그저 내버려야 번성해서 막 퍼져서.)

107046 @ 이제 저거는 언제 절일거꽈게? 저 ᄂᆞ물은. 오늘 배추 케 온 건 언제 무시거.(이제 저거는 언제 절일 겁니까? 저 나물은. 오늘 배추 캐 온 건 언제 뭐.)

107046 #3 아무 때라도 ᄒᆞ민 어떵헤여?(아무 때라도 하면 어떻게 해?)

107046 @ 아니. 그거 허젠허민 이제 처음에 저거 이제 가근에 켕왓잖아예. 이제 절여서 하는 과정을 쭉 ᄀᆞᆯ아줍서. 노물 켄 온 다음에 어떵헙니까?(아니. 그거 하려고하면 이제 처음에 저거 이제 가서 캐왔잖아요. 이제 절여서 하는 과정을 쭉 말해 주십시오. 나물 캐서 온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07046 #3 소금에 죽영.(소금에 죽여.)

107046 @ 예. 소금에 죽영.(예, 소금에 죽여.)

107046 #3 죽영 싱거우민 그기에 소금 ᄂᆞ멍.(죽여서 싱거우면 거기에 소금 넣으며.)

107046 @ 죽인 다음에?(죽인다음에?)

104046 #3 죽인다음에 무시거게, 죽은다음에 물 맞게.(죽인다음에 뭐, 죽은 다음에 물 맞게.)

104046 @ 한 얼마쯤 잇다가?(한 얼마쯤 있다가?)

104046 #3 무시거게 ᄒᆞ루만 컷다근에 어둬 가건 건젓당, 물 빠지건, 듯날 나근에게 고치영게 생강이여 ᄲᅡ상게 대산이영 문 ᄲᅡ상, 난 다른 양념은 벼랑 안 놔.(뭐 하루만 절였다가 어두워 가면 건졌다가, 물 빠지건, 뒷날 나면 고추랑 생강이랑 빻아서 마늘이랑 모두 빻아서, 난 다른 양념은 별로 안 놔.)

107046 @ 새우젓도 안 넣고?(새우젓도 안 넣고?)

107046 #3 새우젓 논 건 난 먹지도 아녀고.(새우젓 논 건 난 먹지도 안하고.)

107046 @ 예.(예.)

107046 #3 저 무시거 메리치다시다국물 딸려근에 고추 몰아 놔근에.(저 뭐 멸치다시국물 달여서 고추 말아 넣어서.)

107046 @ 아 멸치 끌려근에.(아, 멸치 끓여서.)

107046 #3 응, 며르치다시다.(응, 멸치다시다.)

107046 @ 아, 다시다를.(아, 다시다를.)

107046 #3 메리치도 맛이 어선게, 이디건 어떵산디 맛이 엇어. 엿날 거 닮지 아녕.(멸치도 맛이 없어, 여기 건 어쩐지 맛이 없어. 옛날 거 닮지 않아.)

107046 @ 예.(예.)

107046 #3 메리치 그 시장에덜 프는 것덜 보민덜, 딸리민 엿날엔 맛이 잇는디. 웨국 것사 들어와사신디 원, 딸려 봐도 맛이 엇어.(멸치 그 시장에 들 파는 것들 보면, 달이면 옛날엔 맛이 있는데. 외국거야 들어왔는지 원, 달여 봐도 맛이 없어.)

107046 @ 예.(예.)

107046 #3 이제 우리 저 손지 서울 강 장사 홀 때 보민 메리치 상 온 건 보민 맛이 서. 이디 꺼난.(이제 우리 저 손주 서울 가서 장사 할 때보면 멸치 사온 건보면 맛이 있어. 여기 거니까.)

107046 @ 예, 이디 꺼난예?(예, 여기 거여서요?)

107046 #3 다른 건 웨국 꺼난 그런 가? 시장에 프는 건 멧 번 사당 먹어도 맛이, 딸려 봐도 맛 어시난 나 안 사주, 네껴비엉. 경헌디 서울서 아정 온 건 맛이 이서. 이디 꺼난. 한국 꺼난.(다른 건 외국 거여서 그런 가? 시장에 파는 건 몇 번 사다가 먹어도 맛이, 달여 봐도 맛 없어서 나 안 사지, 버려버려. 그런데 서울서 가져온 건 맛이 있어. 여기 거여서. 한국 거여서.)

107046 @ 예.(예.)

107046 #3 메리치 헤당은에 가의 아정 올 땐 상 오민 그거 빌어당 딸령, 짐치도 홀 땐 ᄒᆞ곡 아년 땐 아녀곡. 난 거 하간 거 자리젓이여 그런 거 난 일절 안 먹어봔.(멸치 해다가 그 아이 가져올 땐 사서 오면 그거 빌어다가 달여, 김치도 할 땐 하고 안할 땐 안 하고. 난 거 여러 가지 거 자리젓이여 그런 거 난 일절 안 먹어봤어.)

107046 @ 놈삐로 짐치 담글 땐 게민 어떵 담급니까?(무로 김치 담글 땐 그러면 어떻게 담급니까?)

107046 #3 놈삐짐치도 그런 양념 놀 거주.(무김치도 그런 양념 넣을 거지.)

107046 @ 그냥 경헤근에?(그냥 그렇게 해서?)

107046 #3 대산이영.(마늘이랑.)

107046 @ 대산이영 버무릴거예? 대산이도 심거근에 그거 말려놧당 썸수과 아니믄 사당 썸수과?(마늘이랑 버무릴 거지요? 마늘도 심어서 그거 말려놓았다가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다가 쓰고 있습니까?)

107046 #3 이거 멧 개 안 ᄒᆞ난. 이거 커 가민 이거 기자 뽑아근에 더러 지도 헹 먹곡 더러만 ᄒᆞ낙석 내빗다근에 대산이사.(이거 몇 개 안 하니까. 이거 커 가면 이거 그냥 뽑아서 더러 장아찌도 해 먹고 더러만 하나씩 내버렸다가 마늘이야.)

107046 @ 근데 젓갈은 좋아하진 안헤도 게도.(그런데 젓갈은 좋아하진 않아도 그래도.)

107046 #3 셍 걸 난 일절 안 먹어지난, 이 새우 논 것도 짐치 안 먹주게.(생 걸 난 일절 안 먹어지니까, 이 새우 넣은 것도 김치 안 먹거든.)

107048 @ 볼목리사람들은 주로 젓갈 뭐뭐 담강 먹읍니까?(보목리 사람들은 주로 젓갈 뭐 뭐 담가서 먹습니까?)

107048 #3 그추룩 헹 먹엄주게.(그렇게 해서 먹고 있지.)

107048 @ 젓갈들 어떤 종류 잇수과?(젓갈들 어떤 종류 있습니까?)

107048 #3 그런 것들 놔근에 세오리여 무시거여 짐치 홀 때.(그런 것들 넣어서 부추여 뭐여 김치 할 때.)

107048 @ 그럼 볼목리에서는 삼춘 어릴 때 젓 어떤, 어떤 젓 담앙 먹읍디가?(그럼 보목리에서는 삼촌 어릴 때 젓 어떤, 어떤 젓 담아서 먹었습니까?)

107048 #3 엿날에사 새우젓이여 하강 거 헹 먹어서게? 멜첫이나 ᄒᆞ곡 자리젓이나 그런 거헹 먹엇주.(옛날에야 새우젓이여 여러 가지 거해서 먹었나? 멸치젓이나 하고 자리젓이나 그런 거해서 먹었지.)

107048 @ 멜젓 자리젓은 담갓수과?(멸치젓 자리젓은 담갔습니까?)

107048 #3 엿날엔 멜이영, 저 베들 하근에 거려불지 않을 때, 이디 바락바락 이제 물기엔 멜이 들어오주.(옛날엔 멸치랑, 저 배들 많아서 거려버리지 않을 때, 여기 많이, 많이 이제 물기에는 멸치가 들어오지.)

107048 @ 예.(예.)

107048 #3 ᄒᆞ민 담을 다와 영.(하면 돌담을 쌓아 이렇게.)

107048 @ 원담마씨?(원요?)

107048 #3 응, 원담을 다우민.(응, 원을 쌓으면.)

107048 @ 예.(예.)

107048 #3 그디 멜 들어오민 족바지로 거려당.(거기 멸치가 들어오면 작은 바가지로 떠다가.)

107048 @ 예.(예.)

107048 #3 젓도 헹 먹곡, 몰리왕도 먹곡.(젓도 해서 먹고, 말려서도 먹고.)

107048 @ 예.(예.)

107048 #3 ᄌᆞ미정, 멜 들엉, 엿날엔 심젠ᄒᆞ민 파닥파닥 뛰민 ᄌᆞ미로 가근에 ᄒᆞ여지민 ᄒᆞ는디, 이젠 바당으로 거려부난 이젠 멜이 들어오람서게, 안 들어오람주.(재미있어, 멸치 들어서, 옛날엔 잡으려면 파닥파닥 뛰면 재미로 가서 해지면 하는데, 이젠 바다에서 잡아 올려버려 이젠 멸치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지.)

107048 @ 맞수다.(맞습니다.)

107048 #3 일절 안 들어와. 우리 엿날에 기자 멜 틀민 ᄌᆞ미로 가근에 그자 집젠 ᄒᆞ민 톡 튀어불고 톡 튀어불고, ᄌᆞ미로 헤 오랑 먹엇주마는, 이젠 멜이 들어오믄 무시거 거리지도 아녀는 거 닮아, 하영 엇어.(일절 안 들어와. 우리 옛날에 그저 멸치 들면 재미로 가서 그저 집으려고 하면 톡 튀어버리고 톡 튀어버리고, 재미로 해 와서 먹었지마는, 이젠 멸치 들어오면 뭐 잡아 올리지도 안 하는 거 닮아, 많이 없어.)

107048 @ 게난예. 거리는 데는 거렴실테주마는.(그러게요. 그물로 잡아 올리는 데는 잡아 올리고 있을 테지만.)

107048 #3 거려도[110] 하영 거리지 아녀이, 엿날ᄀᆞ찌이.('거려도' 많이 '거리지' 안 해. 옛날처럼.)

107049 @ 게난 한 번도 멸젓이나 자리젓 담그는 거 안 담가 봣수과?(그러니까 한 번도 멸치젓이나 자리젓 담그는 거 안 담가 봤습니까?)

107049 #3 아니 자리젓사 담그는 것사게 아니 먹어도 담가봣주마는.(아니 자리젓이야 담그는 거야 아니 먹어도 담가봤지마는.)

107049 @ 자리젓은 담가봣수과. 멜젓도 담가봣수과?(자리젓은 담갔습니까. 멸치젓도 담가봤습니까?)

107050 #3 멜젓도 ᄃᆞᆷ그젠 ᄒᆞ민 ᄃᆞᆷ그지마는게.(멸치젓도 담그려 하면 담그지만.)

107053 @ 자리젓 담글 때 어떵 담금니까?(자리젓 담글 때 어떻게 담급니까?)

107053 #3 어떵 담아게. 이젠 ᄆᆞᆫ 그거 자리 얼마니민 소금이 멧 키로 놓는 거 경헤 ᄃᆞᆷ암주게. 나 안 ᄃᆞᆷ아봐서.(어떻게 담아. 이젠 모두 그거 자리 얼마나 하면 소금이 몇 킬로 넣는 거 그렇게 해서 담그지. 나 안 담아봐서.)

107053 @ 아, 안 담아봣수과?(아, 안 담아봤습니까?)

107053 #3 음, 난 기자 무데기로 ᄃᆞᆷ암주.(음, 난 그저 무더기로 담고 있지.)

107053 @ 무데기로 ᄃᆞᆷ으면 그냥 자리 ᄒᆞᆫ 뒈 사면은?(무더기로 담그면 그냥 자리 한 돼 사면?)

107053 #3 소금, 기자 대걸룽 놔근에 헤봣주.(소금, 기자 대충 넣어서 해봤지.)

107053 @ 아.(아.)

107053 #3 이젠 딱딱 ᄒᆞ게시리 하영 ᄒᆞ는 디는 ᄆᆞᆫ 뜨는 따문에이. 자리 멧 키로민 소금 멧 키로 놘 뜨는 따문에 맞암주게.(이젠 딱딱 하게끔 많이 하는 데는 모두 재는 때문에 이. 자리돔 몇 킬로면 소금 몇 킬로 넣어서 재는 때문에 맞지.)

107053 @ 옛날 자리젓 담아가지고 그냥 실패 안 헤가지고 맛잇게 잘 담가낫수과? 대충담가도?(옛날 자리젓 담아가지고 그냥 실패 안 해가지고 맛있게 잘 담갔습니까? 대충담가도?)

107053 #3 게난 난 그 생걸 안 먹으난 경 하영 ᄃᆞᆷ진 안녀고게 약간.(그러니까 난 그 생 걸 안 먹으니까 그렇게 많이 담지는 안 하고 약간.)

---

110) '거리다'는 자질구레한 물고기 따위를 그물로 잡아 올리는 것을 말한다.

107053 @ 게민 그 아까 그 자리젓은 누게 줍디가?(그러면 그 아까 그 자리젓은 누구 줬나요?)

107053 #3 자리 둠지아녀근에 기자 자리 사다근에, 하영 사지민 소금 버무려근에 누게 먹으렌 줘불곡, 경 아녀민 안ᄒᆞ곡 ᄒᆞ주 자리 안 둠아.(자리젓 담그지 안 해서 그저 자리 사다가, 많이 사지면 소금 버무려서 누구 먹으라고 줘버리곤, 그렇게 안하면 안하곤 하지 자리 안 담가.)

107053 @ 자리로는 뭐헹 드셧수과?(자리로 뭐해서 드셨습니까?)

107053 #3 자리로게 그자 구웡 먹고.(자리돔으로 그저 구워 먹고.)

107053 @ 구엉 먹고?(구어서 먹고?)

107053 #3 보깡도 먹고 허주. 경벳긘 아녀봣주. 자리 사레도 베랑 안 가저. 먹어지지 아녀난.(볶아도 먹고 하지. 그렇게밖에 안 해봤지. 자리돔 사러도 별로 안 가지고. 먹어지지 안 해서.)

107051 @ 혹시 아감젓이라고 알아지쿠과? 아가미로 젓 하는 거.(혹시 아감젓이라고 압니까? 아가미로 젓 하는 거.)

107051 #3 알개미젓?(아감젓?)

107051 @ 알개미젓.(아감젓.)

107051 #3 알개미젓은 안 헤보난에.(아감젓은 안 해보니까.)

107051 @ 알개미젓 담그는 사람도 이십니까?(아감젓 담그는 사람도 있습니까?)

107051 #3 알개미젓들게 그 배설게 알개미아니라?(아감젓 그 창자가 아감젓 아닌가?)

107051 @ 예, 예.(예, 예.)

107051 #3 이디서게 알게미젓이 벼랑 이서게?(여기서 아감젓이 별로 있을까?)

107051 @ 혹시 이 마을에서 막 이런 젓 ᄀᆞ튼 거 담강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엇수과? 혼 번 물어봐서 대답헤 줄 사람.(혹시 이 마을에서 마구 이런 젓 같은 거 담가서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까? 한 번 물어봐서 대답해 줄 사람.)

107051 #3 물 맞게 ᄒᆞ는 사름 무사 엇어게. 실테주.(간 맞게 하는 사람 왜 없어. 있겠지.)

107051 @ 누구 아는 사람 엇수과? 젓 잘 담는 사름?(누구 아는 사람 없습니까? 젓 잘 담는 사람?)

107051 #3 누게사 잘 둠는디 몰라.(누가 잘 담는지 몰라.)

107051 @ 몰라마씸? 알앗수다. 나중에 물어 보게예?(몰라요? 알았습니다. 나중에 물어 볼게요?)

107051 #3 자리 이젠 소금 엄만, 자리 엄만 ᄒᆞ민 확확[111] 알아지난.(자리돔 이젠 소금 얼마, 자리돔 얼마 하면 '확확' 알아지니까.)

107054 @ 예. 볼목리에선 출레[112]가 뭐꽈? 출레.(예. 보목리에서 '출레'가 뭡니

111) '확확'은 '확'인 바람이 한바탕 부는 모양을 반복해 강조된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얼른, 혹은 금방을 뜻한다.

112)'출레'란 밥과 곁들여 먹는 장, 젓 따위의 반찬을 말한다.

까? 출레.)

107054 #3 출레? 출레, 몰라.(출레? 출레, 몰라.)

107054 @ 반찬을 뭐렌 ᄀᆞᆯ암수과?(반찬을 뭐라고 말합니까?)

107054 #3 오, 그것ᄀᆞ라 출레엔 ᄒᆞ주게, 반찬ᄀᆞ라.(그래, 그것보고 '출레'라고 하지, 반찬보고.)

107054 @ 기지에? 게믄 보통.(그렇지요? 그러면 보통.)

107054 #3 엿날식으로 출레주, 하하.(옛날식으로 반찬이지, 하하.)

107054 @ 예, 예. 맞수다. 보통 출레 옛날에 셍각 한 번 헤봅서. 출레 뭐, 뭐 출령 먹엇수과? 출레들.(예, 예. 맞습니다. 보통 반찬 옛날에 생각 한 번 해보십시오. 반찬 뭐, 뭐 차려서 먹었습니까? 반찬들.)

107054 #3 무시거 출레 어성 밥만 먹주, 무시거 어성 ᄀᆞᆯ아낫주게.(뭐 반찬 없어서 밥만 먹지, 뭐 없어 말해났거든.)

107054 @ 보통 어떤 출레 헤낫수과?(보통 어떤 반찬 했었습니까?)

107054 #3 출레가 무시거게 아무거라도 출레 멘들앙 먹으민.(반찬은 무슨 아무거라도 반찬 만들어서 먹으면.)

107054 @ 게도.(그래도.)

107053 #3 반찬도게, 자리두게 지지민 출레렌 ᄒᆞᆯ 거아니라? 먹으민?(반찬도, 자리돔도 지지면 반찬이라고 할 거 아니야? 먹으면?)

107054 @ 맞수다게.(맞습니다.)

107054 #3 경ᄒᆞ듯, 궤기나 아무거라두 출레주게. 밥 하민 출레 적셔사 먹주. 출레 서사 먹주. 밥먹젠ᄒᆞ민 출레 어성 못 먹켄ᄒᆞ멍.(그렇듯, 고기나 아무 거라도 반찬이지. 밥하면 반찬 적셔야 먹지. 반찬 있어야 먹지. 밥먹으려하면 반찬 없어 못 먹겠다고 하면서.)

107054 @ 그럼 보통 우리가 밥상에 오늘도 아침에 밥 드셧잖아예? 밥에 출레 뭐뭐 놔근에 드셧수과? 뭐 뭐 찰려낫수과? 오늘아침 밥상에.(그럼 보통 우리가 밥상에 오늘도 아침에 밥 드셨잖아요? 밥에 반찬 뭐, 뭐 놔서 드셨습니까? 뭐, 뭐 차려났습니까? 오늘아침 밥상에.)

107054 #3 나?(나?)

107054 @ 예.(예.)

107054 #3 조기 지저네, 조기 보까네, 조기 국 끌련 먹고 놈삐놔네.(조기 지저서, 조기 볶아서, 조기 국 끓여 먹고 무 넣어서.)

107054 @ 조기 국 끌령 먹고. 조기 조려근에, 지저근에.(조기 국 끓여 먹고. 조기 조려서, 지져서.)

107054 #3 조기 조령은 안 먹어네. 지정 먹다네 국 끌련 먹어서, 오늘은.(조기 조령은 안 먹었어. 지져서 먹다가 국 끓여 먹었어, 오늘은.)

107054 @ 아, 경 헴구나예?(아, 그렇게 하시는 군요.)

107054 #3 놈삐 헤영케시리 식당에 강 보민, 어떤 디 궤기집이 고기 먹으레 가

보민 헤영케 놈삐 헤영케 헤근에 새콤돌콤 그추룩헹 먹고.(무 하얗게 해서 식당에 가서 보면, 어떤데 고기집에 고기 먹으러 가보면 하얗게 무 하얗게 해서 새콤달콤 그처럼 해서 먹고.)

107054 @ 예, 예.(예, 예.)

107054 #3 나. 하하하하 짐치에 경헨 먹엇주.(나. 하하하하 김치에 그렇게 해서 먹었지.)

107054 @ 오늘 밥에예?(오늘 밥에요?)

107054 #3 , 궤기국에 경헨 먹엇주. 나사 할망이난게 하간[113] 거 출려게?(, 고기국에 그렇게 해서 먹었지. 나야 할머니니까. '하간 거' 찰리나?)

장아찌와 회

107055 @ 그리고 장아찌 그 장아찌 ᄀᆞ튼 경우에 대사니로 뽑아당, 이 그 장아찌 ᄀᆞ튼 거.(그리고 장아찌 그 장아찌 같은 경우에 마늘로 뽑아다가, 이 그 장아찌 같은 거.)

107055 #3 짱에찌도 둠주게.(장아찌도 담지.)

107055 @ 장에찌마씨?(장아찌요?)

107055 #3 대사니이.(마늘.)

107055 @ 예. 장에찌 종류는 뭐, 뭐 담강 드셔봣수과?(예. 장아찌 종류는 뭐, 뭐 담가서 드셨습니까?)

107055 #3 난 경 할망이라부난 경 하간 거 먹지 아니여. 대걸룽 기자 먹어지민 말주. 어디 서 경.(난 그러니까 할머니라서 그렇게 여러 가지 거 먹지 안 해. 대충 그저 먹어지면 말지. 어디 있어 그렇게.)

107055 @ 옛날에 그 집집마다 보민 반치렌 한 거 이서낫잖아예?(옛날에 그 집집마다 보면 파초라고 한 거 있었지요?)

107055 #3 반치 이젠 엇어.(파초 이제는 없어.)

107055 @ 반치로는 장아찌 안 담가 봣수과?(파초로는 장아찌 안 담가 봤습니까?)

107055 #3 반치 싱경 조챠년데 허주게. 반치지도 ᄒᆞ주게, 뿔레기로 끼차근에 이.(파초 심어서 좋지 않는다고 하거든. 파초장아찌도 하지, 뿌리로 잘라서.)

107055 @ 예.(예.)

105055 #3 뿔레기로도 허곡 중간으로도 헤여근에. 이 반치 심근 디가 서? 엿날엔 집집마다 심거도 낫주.(뿌리로도 하고 중간으로도 해서. 이 파초 심은 데가 있어? 옛날엔 집집마다 심어 났지.)

107055 @ 양에로는 안 헤낫수과?(양하는 안 했습니까?)

107055 #3 양엣근으로 막 하간 거 허주게. 이제도, 양엣근 헤다근에 지 둠아근에. 작년인 우리 저디 조케손지 하영 헤다주난 먹엇저마는.(양하간으로 무척이나 여

113) '하간'은 여러 가지. 모든을 말한다.

러 가지 거 하거든. 이제도, 양하간 해다가 장아찌 담았어. 작년엔 우리 저기 조카 손주 많이 해다 주니까 먹었다마는.)

107055 @ 유론 안헷수과?(깻잎으론 안했습니까?)

107055 #3 유사 무사 유썹 죽여근에 느량 먹주. 유 가랑.(깻잎이야 왜 깻잎 절여서 늘 먹지. 깻잎 갈아서.)

107055 @ 믈망 ᄀᆞ튼 걸로는 장아찌 안 담아낫수과?(모자반 같은 걸로는 장아찌 안 담았습니까?)

107055 #3 장아찌? 난 안 담가반. 믈망 이젠 엇어 이디 믈망. 엿날엔 이디 섭섬이 막 섭섬광 이세에 경 먹는 믈망 싯단 이젠 오염 뒈가난 믈망 서? 먹는 믈망 이젠 나지도 안 허여 이젠 바당에. 안 먹는 믈망도 안나 이제. 바당에 아래에 막 감태나 벳긔. 엿날엔 믈망이락 감태락 ᄀᆞᆺ이 미삭 막 톨이락 ᄒᆞ단, 이젠 톨 ᄒᆞᆫᄀᆞ지 엇어 톨 ᄒᆞᆫᄀᆞ지.(장아찌? 난 안 담가봤어. 모자반 이젠 없어 여기 모자반. 옛날엔 여기 섶섬이 바로 그땐 섶섬과 이 사이에 그렇게 먹는 모자반 있다가 이젠 오염 돼가니까 모자반 있어? 먹는 모자반 이젠 나지도 안 해 이젠 바다에. 안 먹는 모자반도 안나 이제. 바다에 아래에 그냥 감태나 밖에. 옛날엔 모자반이랑 감태랑 가에 넘치게 마구 톳이랑 하다가, 이젠 톳 한 꼭지 없어 톳 한 꼭지.)

107056 @ 마눙 장아찌 담글 땐 어떵 담급니까? 대사니로 장아찌 홀 때.(마늘장아찌 담글 땐 어떻게 담급니까? 마늘로 장아찌 할 때.)

107056 #3 장아찌 홀 땐 무시거 듬아게?(장아찌 할 땐 뭐 담가?)

107056 @ 뭐, 뭐 놔근에 헷수과?(뭐, 뭐 넣어서 했습니까?)

107056 #3 마눙으로 헐 때?(마늘로 할 때?)

107056 @ 예.(예.)

107056 @ 마눙으로 헐 때사 무시거 장에 축이멍 말멍게 짐치 ᄒᆞ듯게 노는 거 그거 아니라?(마늘로 할 때야 뭐 간장에 적시듯 말듯 김치 하듯이 넣는 거 그거 아니야?)

107056 @ 간장 끌려근에 하는 거 그거 말고마씨?(간장 끓여서 하는 거 그거 말고요?)

107056 #3 간장 끌령 ᄒᆞ는 건 마눙지 듬을 때?(간장 끓여서 하는 건 마늘장아찌지 담글 때?)

107056 @ 예. 마눙지 담글 때 어떵헙니까?(예. 마늘장아찌지 담글 때 어떻게 합니까?)

107056 #3 대사니?(마늘?)

107056 @ 예, 대사니.(예, 마늘.)

107056 #3 대사니지 듬을 때 경허난 좋안게게.(마늘장아찌 담글 때 그렇게 하니까 좋던데.)

107056 @ 어떵마씸?(어떻게요?)

107056 #3 소곰에 초 ᄒᆞ끔 놔근에이.(소금에 식초 조금 넣어서.)

107056 @ 예.(예.)

107056 #3 미릇이?(미리?)

107056 @ 예.(예.)

107056 #3 여근에 컷다근에 아시날 컷다근에 저믈아갈 땐 건지나 둣날 아칙이 건지나 헷다근에게, 장물도게 꿰앙 식건 홀 놓곡. 경허민 새콤달콤헨게게.(넣어서 담갔다가 전날 컷다가 해질 땐 건지거나 뒷날 아침에 건지거나 했다가, 간장도 끓여서 식으면 조금 넣고. 그러면 새콤달콤하던데.)

107056 @ 아, 소금하고 초 놔근에 둠갓당 건저근에?(아, 소금하고 초 놔서 담갔다 건져서?)

107056 #3 경허민 삼년을 놔둬둬 쉬질 아녀. 초 놩 ᄒᆞ민. 대사니 헤근에 삼년, 이제 물에 저 소곰에 소곰물에 이제 약간 초 놔근에, 컷다근에 건저다근에 저 장물 끌렁 ᄒᆞ끔 서꺼근에 이녁 놀 거 놔근에 ᄒᆞ민. 삼년 나도 쉬지 아녀, 그대로 둘아.(그러면 삼년을 놔둬둬 쉬질 않아. 초 놔서 하면. 마늘 해서 삼년, 이제 물에 저 소금에 소금물에 이제 약간 초 넣어서, 담갔다가 건져서 저 간장 끓여서 조금 섞어서 이녁 넣을 거 넣어서 하면. 삼년 지나도 쉬지 않아, 그대로 달아.)

107056 @ 그 장물은 집에서 담근 뭰장 장물이꽈? 아니믄?(그 장물은 집에서 담근 된장 간장이지요? 아니면?)

107056 #3 아니 ᄑᆞ는 거. 그런 건 ᄑᆞ는 거 ᄃᆞᆫ 거 사당 ᄒᆞ주게.(아니 파는 거. 그런 건파는 거 단 거 사다가 하지.)

107056 @ 초는 무신 걸로 썸수과?(식초는 무슨 걸로 씁니까?)

107056 #3 촌 아무 거라도.(식초는 아무 거라도.)

107056 @ 빙초산마씨?(빙초산이요?)

107056 #3 기자 사과초 사당 ᄒᆞ젠 ᄒᆞ민 하영 놓고, 기자 초 독헌 거 놓젠ᄒᆞ민 ᄒᆞ끔만 놓고게.(기저 사과식초 사다가 하려고 하면 많이 넣고, 그저 식초 독한 거 넣으려면 조금만 넣고.)

107056 @ 아.(아.)

107056 #3 경ᄒᆞ민 삼년을 넹장고에 놔도 쉬질 아녕 그대로 먹어저, 둘아.(그렇게 해서 삼년을 냉장고에 놔도 쉬질 않아 그대로 먹어져, 달아.)

107056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7056 #3 음, 초만 홀 헤봐. 초 놩 죽일 때 죽이민 원 아니 쉬어. 헷해나 삼년 놘 것도 ᄀᆞ뜨고 이년 놘 것도 ᄀᆞ뜨고, 쉬질 아녀 쉬질.(음, 식초만 조금 해봐. 식초 넣어서 절일 때 절이면 절대 아니 쉬어. 햇해나 삼년 된 것도 같고 이년 된 것도 같고, 쉬질 않아 쉬질.)

107056 @ 거난.(그러니까.)

107056 #3 경 아녀민 못 먹주게 쉬영.(그렇게 안하면 못 먹지 쉬어서.)

107057 @ 그리고 또예? 볼목리에서 놀거 안 먹어나부난 모르켄 헤신디. 볼목리에서 주로 어떤 훼들이 잇수과? 무신 자리훼도 잇겟고.(그리고 또요? 보목리에서 날

거 안 먹어버려서 모르겠다고 했는데. 보목리에서 주로 어떤 회들이 있습니까? 무슨 자리회도 있겠고.)

107057 #3 자리훼도 잇곡, 그 무시거 한치훼도 잇주게.(자리회도 잇고, 그 뭐 한치회도 있지.)

107057 @ 물훼 말고.(물회 말고.)

107057 #3 물훼 말고 무시거라?(물회 말고 뭐?)

107057 @ 다른 걸로는 훼 만드는 거 엇수과?(다른 걸로는 회 만드는 거는 없습니까?)

107057 #3 몰라 나는. 먹어나지 아녀난. 한치훼나 자리회 기자 그런 것들. 여름나민 이디 뎅기질 못허난게. 차, 올레 이디 가당 봐봐. 요 올레 벌경케시리 표한 거. 질 빨 거주게. 막 널르게 빨 거라.(몰라 나는. 먹어나지 안 해서. 한치회나 자리회 그저 그런 것들. 여름이면 여기 다니질 못해. 차, 올레 여기 가다가 봐봐. 요 올레 빨갛게 표한 거. 길 뽑을 거거든. 막 넓게 뽑을 거라.)

107057 @ 게난.(그러니까.)

107057 #3 원, 사람 뎅기지 못ᄒᆞ난. 여름 나가민.(원, 사람 다니지 못하니까. 여름 나가면.)

107057 @ 차들 막 자리 사례.(차들 마구 자리돔 사러.)

107057 #3 자리 사레영, 자리훼 먹으레영 원, 게난 차도 시내버스도 저디 세와 여름에.(자리돔 사려고, 자리회 먹으려고 원, 그러니까 차도 시내버스도 저기 세워 여름에.)

107057 @ 예.(예.)

107057 #3 이디 안 오랑. 자리훼 먹을 디 차 세울 디가 어성 아레. 저 아레 봣지이.(여기 안 와서. 자리회 먹을 데 차 세울 데가 없어 아래. 저 아래 봤지.)

107057 @ 예, 예. 겨울엔 자리가 하나도 안남수과?(예, 예. 겨울엔 자리돔이 하나도 안 납니까?)

107057 #3 자린 나도 맛이 엇주게 줄어부난.(자리돔은 나도 맛이 없지 살이 빠져서.)

107057 @ 아, 경헴구나예?(아, 그렇게 하고 있군요?)

107057 #3 줄어부난 자리거리지도 아녀곡 새끼 처근에 팔월인가 구월인가 메틀날 딱 나민 자리 새끼 날 시간엔 금헤근에 자리 거리레도 안가곡 이디서.(살이 빠져서 자리돔 잡지도 안하고 새끼 쳐서 팔월인가 구월인가 몇 날 딱 정하면 자리돔 새끼 날 시간엔 금해서 자리돔 잡으러 안 가고 여기서.)

107057 @ 아, 경헴구나게.(아, 그렇게 하고 있구나.)

107057 #3 응, 자리.(응, 자리돔.)

107058 @ 볼목리에서는 요즘 겨울에 ᄉᆞᆼ키들, 어떤 ᄉᆞᆼ키들 케다근에 반찬 만들어근에.(보목리에서는 요즘 겨울에 채소들, 어떤 채소들 캐다가 반찬 만들어서.)

107058 #3 요세서사 이디서사 무시거 서게? 이디서 ᄂᆞ물 ᄀᆞ튼 거나 데왕 먹곡

마눙 ᄀᆞ튼 거 그런 거주.(요새야 여기서야 뭐 있어? 여기서 나물 같은 거나 데워서 먹고 마늘 같은 거 그런 거주.)

107058 @ 봄에는 주로 생선에는 자리는 자리는 맞아, 여름이고 봄에는 바당에서 나는 거 뭐 엇수과?(봄에는 주로 생선에는 자리돔은 자리돔은 맞아, 여름이고 봄에는 바다에서 나는 거 뭐 없습니까?)

107058 #3 봄부터게 자린 나갈 거주 이제.(봄부터 자리돔 나갈 거지 이제.)

107058 @ 무신 우럭이라든가?(무슨 우럭이라든가?)

107058 #3 이월부떠, 이월부떠.(이월부터, 이월부터.)

107058 @ 그 고사리 꺼끄레는 다녀 점수과?(그 고사리 꺾으러 다녀 지나요?)

107058 #3 나?(나?)

107058 @ 예.(예.)

107058 #3 나, 안 뎅기건지 막 오레여. 누게가 싯거나 줘게. 나 늙은 할망 고사리 꺼끄레. 고사리 엇어도 원 상 먹어근에.(나, 안 다닌지 매우 오래야. 누가 실어나 주나. 나 늙은 할머니 고사리 꺾으러. 고사리 없어도 원 상 먹어서.)

107058 @ 그럼 고사리 반찬은?(그럼 고사리 반찬은?)

107058 #3 어디 고사리 반찬이 서게? 고사리 ᄒᆞᆫ 근에 칠만 원이여 ᄒᆞ는디, 어디 고사리 우리 먹어보느니?(어디 고사리 반찬이 있어? 고사리 한 근에 칠만 원이여 하는데, 어디 고사리 우리 먹어보니?)

107058 @ 아이고, 기구나예?(아이고, 그렇군요?)

107058 #3 이제 우리 멩질ᄒᆞ젠 ᄒᆞ민 어디 강 빌어오나 어떵 헤사켜. 고사리 어성.(이제 우리 명절하려고 하면 어디 가서 빌어서오나 해야겠네. 고사리 없어서.)

107058 @ 기구나예? 음.(그렇군요? 음.)

107058 #3 고사리 꺼끄레 싯거당 주민 다리 아파근에 걷지 못헤도 아장만 그자 ᄒᆞᆫ 줌 강 꺼꺼 오주마는 차 어성. 누게가 싯거다 주지 아년민. 아이 가곤데 막 오레연.(고사리 꺾으러 실어다 주면 다리 아파서 걷지 못해도 앉아서만 그저 한 줌 가서 꺾어 오지마는 차 없어서. 누가 실어다 주지 안하면. 아니 간지가 매우 오래됐어.)

107058 @ 게도 호박 ᄀᆞ튼 건 잇지아녀꽈? 호박 무처근에 먹는 건?(그래도 호박 같은 건 있지 않아요? 호박 무쳐서 먹는 건?)

107058 #3 호박은 호박도 밧 서사 심그는 거주 밧 어시민 싱그지도 못허곡.(호박은 호박도 밭 있어야 심는 거지 밭 없으면 심지도 못하고.)

107058 @ 호박 딴딴헤가지고 그거 호박 가정오면은 드셔지쿠과?(호박 딴딴해가지고 그거 호박 가져오면 드셔지겠습니까?)

107058 #3 에에 호박 먹구정 아녀.(에에 호박 먹고 싶지 않아.)

107058 @ 먹구저 아녀.(먹고 싶지 않아.)

107058 #3 호박 철나사 먹엇주. 이제 지금 호박 철 안 나난 ᄃᆞᆯ지도 안 허주게.(호박 철나야 먹지. 이제 지금 호박 철 안 나서 달지도 안 해.)

107058 @ 고사리 ᄀᆞ튼 거는?(고사리 같은 거는?)

107058 #3 아무 때라도 먹어도.(아무 때라도 먹어도.)

107058 @ 게난예? 저는 워낙 바빠부니깐 누가 주변에서.(그러게요? 저는 워낙 바빠 버려서 누가 주변에서.)

107058 #3 고진 가시민 고사리 저렌 한덴 헨게, 제주시레.(고지에 가면 고사리 저쪽엔 많다고 하는데, 제주시 쪽.)

107058 @ 게, 고사리 저 그냥 말리지 안 헤근에 생고사리 잇잖아예?(그래서, 고사리 저 그냥 말리지 안 해서 생고사리 있잖아요?)

107058 #3 솖은 거? 놀 거.(삶은 거 날 거?)

107058 @ 솖아근에 그것도 보까먹어도 맛좋지 않읍니까?(삶아서 그것도 볶아먹어도 맛있지 않습니까?)

107058 #3 것도 맛좋주게.(것도 맛있지.)

107058 @ 나 다음에 올 때랑 가저올게예.(나 다음에 올 때랑 가져올게요.)

107058 #3 어디시난?(어디서 났는데?)

107058 @ 누구 우리 벗들이 거꺼당 주민 저 넹동실에 막 담아 놓고.(누구 우리 벗들이 꺾어다 주면 저 냉동실에 마구 담아 놓고.)

107058 #3 식계헹 먹주게.(제사해서 먹지.)

107058 @ 저는 그거 헐 저를이 엇어근에예. 아직 식계허는 것도 엇고예. 넹동실에 이시난 다음에 올 때 갖다드리쿠다.(저는 그거 할 겨를이 없어서요. 아직 제사하는 것도 없고요. 냉동실에 있으니까 다음에 올 때 갖다드리겠습니다.)

107058 #3 오게. 어떵ᄒᆞ난 아이고 춤 고마운 말씀이여.(그래. 어떻게 하니까 아이고 참 고마운 말씀이여.)

장 담그기

107059 @ 그리고 뒌장은 올해 지금 담갓수과?(그리고 된장은 올해 지금 담갔습니까?)

107059 #3 올린 안 담가서, 안직은.(올핸 안 담가서, 아직은.)

107059 @ 게, 먹을 거 잇수과?(그래, 먹을 거는 있습니까?)

107059 #3 먹는 거 시난. 난 둘지 아녀도 우리 집잇 아인 산 건 절대 안 먹켄 ᄒᆞ멍 안 먹주게.(먹는 거 있어서. 난 달지 안 해도 우리 집의 아인 파는 건 절대 안 먹겠다고 하면서 안 먹거든.)

107059 @ 게난 뒌장은 작년에 멧 뒈 담갓수과?(그러면 된장은 작년에 몇 되 담갔습니까?)

107059 #3 작년이 멧 뒈 담아게. 메주 서너 개 사, 뒛 개 사당 작년이 둠간.(작년에 몇 되 담가. 메주 서너 개 사, 댓 개 사다가 작년에 담갔지.)

107059 @ 아, 픈는 메주 사다근에?(아, 파는 메주 사다가?)

107059 #3 ᄒᆞᆫ 말 안헹 둠주, 사당.(한 말 안 해서 담지, 사다가.)

107060 @ 메주는 언제쯤 장 담급니까?(메주는 언제쯤 장 담급니까?)

107060 #3 이제 듬아 갈 거주 이제. 묵은해에. 경 아녀민 정월멩질 먹어낭 저레 듬곡, 보름 넘엉 듬곡.(이제 담가 갈 거지 이제. 묵은해에. 그렇게 안하면 정월명절 먹은 후 저기 담고, 보름 넘어서 담고.)

107060 @ 아, 그민 섣달에 담는 거꽈?(아, 그러면 섣달에 담는 겁니까?)

107060 #3 섣둘에 이제 듬을 때주 이제. 이제 듬아도 좋고. 섣달 낭 듬아도 좋고. 그믐날 듬아도 좋고.(섣달에 이제 담을 때지 이제. 이제 담아도 좋고. 섣달 지나서 담아도 좋고. 그믐날 담가도 좋고.)

107061 @ 볼목리에서는 그냥 뒌장만 담금니까? 고추장은 안 담금니까?(보목리에서는 그냥 된장만 담급니까? 고추장은 안 담급니까?)

107061 #3 고치장 요세 듬암서? 상덜 먹엄주.(고추장 요즘 담가? 사서들 먹고 있지.)

107061 @ 안담아 봣수가 흔 번도 삼춘은?(안 담가 봤습니까? 한 번도 삼촌은?)

107061 #3 나, 고추장 안 담아, 매와근에. 안 매운 거 사당 먹주.(나, 고추장 안 담가, 매워서. 안 매운 거 사다가 먹지.)

107061 @ 뒌장 담글 때 간장 걸르게, 뒌장 소곰 놩은에 간장도 뺑 먹엄지예?(된장 담글 때 간장 거르게, 된장 소금 놔서 간장도 뽑아서 먹고 있지요?)

107061 #3 간장 약간 빼베사주 하영 빼민 맛이 엇어.(간장 약간 뽑아버려야 많이 뽑으면 맛이 없어.)

107061 @ 맛이 어성예?(맛이 없지요?)

107061 #3 아무 것도.(아무 것도.)

107062 @ 옛날에는 콩 솖아아낫잖아예? 게 메주는 언제쯤 솖읍니까? 콩 솖는 거.(옛날에는 콩 삶아났지요? 메주는 언제쯤 삶습니까? 콩 삶는 거.)

107062 #3 메주, 기자게 시월 나가민게 새콩 나민 솖아근에게 틔와사 장을 듬주게. 틔움을 오레 걸리주게.(메주, 그저 시월 나가면 새콩 나면 삶아서 틔워야 장을 담지. 틔움이 오래 걸리지.)

107062 @ 틔울 땐 어떵 헹 틔왓수과?(틔울 땐 어떻게 해서 틔웠습니까?)

107062 #3 솖아근에.(삶아서.)

107062 @ 솖으믄 다음에?(삶으면 다음에?)

107062 #3 솖아게, 무시 걸로 뻐상은에 ᄒᆞ나.(삶아, 무슨 걸로 빻아서 하나.)

107062 @ 예.(예.)

107062 #3 또 곱게시리 무시거 고운 것에 담아근에, 깨끗ᄒᆞᆫ 것에 담아근에게 버선 새 거 신엉 볼르나.(또 곱게끔 뭐 고운 것에 담아서, 깨끗한 것에 담아서 버선 새 거 신고 밟으나.)

107062 @ 예.(예.)

106062 #3 물싹 물싹ᄒᆞ게 블르나.(물씬 물씬하게 밟으나.)

106062 @ 예.(예.)

106062 #3 뻐수나.(빻거나.)

106062 @ 예.(예.)

106062 #3 경헤근에게 물에 영영 줴어근에. 틔와근에게 틔와사 장이 먹주. 틔우지 아녀면 장이.(그렇게 해서 물에 이렇게이렇게 쥐어서. 틔워서 틔워야 장을 먹지. 틔우지 안하면 장이.)

107062 @ 틔울 때는 무시거에 담앙 틔웟수가?(틔울 때는 뭐에 담아서 틔웠습니까?)

107062 #3 아무것에라도 돌아멩이라도 틔우국, 아래라도 무시거 상 놔근에게 틔우고.(아무것에라도 달아매서라도 틔우고, 아래라도 뭐 상 놔서 틔우고.)

107062 @ 돌아멜 때는 어떵 무엇에?(달아맬 때는 어떻게 무엇에?)

107062 #3 엿날에는 나룩찍 신 땐 나룩찍으로 헤당은에, 이제도 보민 육진 나룩찍으로 묻 무끄는게이.(옛날에는 볏짚 있을 땐 볏짚으로 하다가, 이제도 보면 육진 볏짚으로 모두 묶어.)

107062 @ 맞수다. 예, 예.(맞습니다. 예, 예.)

107062 #3 경 ᄒᆞ는게 아무 이제 나이룽 넙적넙적 무끄는 걸로 돌아메도 좋곡, 상에 ᄌᆞ곤ᄌᆞ곤 놔근에 저런디 어디 ᄃᆞ신디 놔근에 틔왓주게.(그렇게 하더니 아무 이제 나일론 넙적넙적 묶는 걸로 달아매도 좋고, 상에 차곡차곡 놔서 저런데 어디 따뜻한데 놔서 틔웠지.)

107062 @ 예.(예.)

107062 #3 상에 놩 틔와도 좋곡, 아메나.(상에 놓아서 틔워도 좋고, 아무렇게나.)

107063 @ 장 담글 때 함부로 못하게 하는 건 엇수과? 장 담글 때 영하면 부정 탄다, 뭐 이런 건 엇엇수과?(장 담글 때 함부로 못하게 하는 건 없습니까? 장 담글 때 이렇게 하면 부정 탄다, 뭐 이런 건 없었습니까?)

107063 #3 몰라 원 건.(몰라 원 건.)

107063 @ 혼자 사셔부난예?(혼자 사셔서요?)

107063 #3 아녀보난 건.(안 해보니까 그건.)

떡류

107064 @ 잠깐 저가 아까 이거 허기 전에 물어봣잖아예? 제사 헐 때 떡은 어떤 떡 헤나신가 물어봣잖아 예? 떡의 종류는 어떤, 어떤 떡 만들어 봣수과?(잠깐 저가 아까 이거 하기 전에 물어봤잖아요? 제사 할 때 떡은 어떤 떡 했었는지 물어봤잖아요? 떡의 종류는 어떤, 어떤 떡 만들어 봤습니까?)

107064 #3 시리떡은 어떵 헤여게?(시루떡은 어떻게 해?)

107064 @ 아니, 어떤, 어떤 떡 종류가 뭐, 뭐 이서낫수과?(아니, 어떤, 어떤 떡 종류가 뭐, 뭐 있었습니까?)

107064 #3 친떡. 시리떡이렌 ᄀᆞᆫ주. 솔벤[114]. 절벤[115].(친떡. 시루떡이라고 말하

114) '솔벤'은 반월형의 떡본으로 눌러서 만들어 낸 흰떡을 말한다. = 솔변, 솔펜, 수랑곤떡.

지. ‘솔벤’. ‘절벤’.)

107064 @ 예.(예.)

107064 #3 인절미. 우찍.(인절미, 웃기떡.)

107075 @ 우찍?(웃기떡?)

107075 #3 응, 젤 우에 노는 거 쪼끌락 ᄒᆞᆫ 거.(응, 젤 위에 놓는 거 쪼그마한 거.)

107075 @ 우찍떡은 게민 어떤 떡이과?(웃기떡은 그러면 어떤 떡입니까?)

107075 #3 쭤끄만 ᄒᆞᆫ 거게. 우이 놓는 거. 동글랑ᄒᆞᆫ 거. 엿날엔 조개송편도 허곡 줍아근에.(쪼끄만 한 거. 위에 놓는 거. 동글한 거. 옛날엔 조개송편도 하고 집어서.)

107075 @ 예.(예.)

107075 #3 경허주게. 떡은 멧 가지라.(그렇게 하지. 떡은 몇 가지라.)

107075 @ 우찍은 뭘로 만듭니까?(웃기떡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107075 #3 우찍은 그거 콩ᄀᆞ루로게 솔벤 멘들지 아녀?(웃기떡은 그거 콩가루로게 솔벤 만들지 안 해?)

107075 @ 예, 예.(예, 예.)

107075 #3 솔벤 멘드는 거 준준헌 거 엇어게 동글랑ᄒᆞᆫ 거, 우에 놓는 거.(‘솔벤’ 만드는 거 자잘한 거 있잖아 동글한 거, 위에 놓는 거.)

107075 @ 예, 예.(예, 예.)

107075 #3 그것 ᄀᆞ라 우찍이렌 ᄒᆞ주게.(그것 보고 웃기떡이라고 하지.)

107075 @ 아, 그럼 이건 제사지낼 때 다른 떡 우에다가 올려놤수과?(아, 그럼 이건 제사지낼 때 다른 떡 위에다가 올려놓나요?)

107075 #3 , 경 잘 출리젠 ᄒᆞ민 경 홀 거고. 안 출리젠 ᄒᆞ민 요세들은 기자 저 떡, 식빵도 사당 올리곡 식빵이냐 무시거니 가시드락 떡도 사당 올리곡들 그자 간단시리덜 ᄒᆞ지 아념서게?(, 그렇게 잘 차리려 하면 그렇게 할 거고. 안 차리려 하면 요즘들은 그저 저 떡, 식빵도 사다가 올리고 식빵이냐 뭐니 카스텔라 떡도 사다가 올리고들 그저 간단하게들 하지 안 하나?)

107075 @ 맞수다게.(맞습니다.)

107075 #3 아무 거라도 이녁 ᄒᆞ구적 ᄒᆞᆫ 거.(아무 거라도 이녁 하고 싶은 거.)

107075 @ 게난 엿날.(그러니까 옛날.)

107075 #3 친떡 ᄒᆞ구적 ᄒᆞ민 친떡.(시루딱 하고 싶으면 시루떡.)

107076 @ 게난 엿날 헤난 걸 ᄀᆞᆯ아줍서예? 시루떡은 어떵 만들엇수과?(그러니 옛날 했던 걸 말해주세요? 시루떡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07065 #3 시리떡은 무시거? 시리떡은 친떡이 시리떡이주게.(시루떡은 뭐? 시루떡은 ‘친떡’이 시루떡이지.)

107065 @ 게난 친떡이 시리떡인데 시리떡 만들 때 무신 쏠 어떵 헤근에 그 만

115) ‘절벤’은 절편을 말한다. 둥근 꽃판으로눌러 만든 흰 떡을 말한다. = 곤떡, 벌변.

드는 방법.(그러니까 친떡이 시루떡인데 시루떡 만들 때 무슨 쌀 어떻게 해서 그 만드는 방법.)

107065 #3 쏠게 쏠 컷다근에게 기계 강 ᄀᆞᆯ아오나, 엿날엔 기계 어신 땐 방에예 ᄲᅮ상. 난 씨즙간에, 씨즙 갈 때 엿날에 그날 정월멩질 그믐날이난에, 낼은 정월멩질이고 오늘은 떡 ᄒᆞᆯ 거난 아시날 시집가난, 그믐날 씨즙가난 날ᄀᆞ라 그 머리, 방에 건지 엊지국 ᄒᆞᆫ 사름ᄀᆞ라 ᄲᅮ시렌 ᄒᆞ고 씨즙가난. 게난 못 살암진디사. 거 ᄲᅮ삿주 씨즙가는 날.(쌀 쌀 물에 담갔다가 기계 가서 갈아오거나, 옛날엔 기계 없을 땐 방아에 빻아서. 난 시집가서, 시집 갈 때 옛날에 그날 정월명절 그믐날이어서, 내일은 정월명절이고 오늘은 떡 할 거니까 전날 시집가니, 그믐날 시집가니까 날 보고 그 머리, 방안에 딴 머리 얹히고 한 사람보고 빻으라고 하고 시집가니까. 그러니까 못 살고 있는지. 거 빻았지 시집가는 날.)

107065 @ 예.(예.)

107065 #3 이제 ᄀᆞ뜨민 나 씨즙가근에 그거 ᄲᅮ사근에 나 못살민 말켄 헤근에 안 ᄲᆺ주 ᄲᆺ느냐?(이제 같으면 나 시집가서 그거 빻으라니 나 못살면 싫다 해서 안 빻지 빻나?)

107065 @ 맞수다게.(맞습니다.)

107065 #3 시상 분신ᄆᆞᆯ른 두림이주, 하하하.(세상에 분수모른 어림이지, 하하하.)

107065 @ 게, 방에로 ᄲᅮ사수과?(그래, 방아로 빻았습니까?)

107065 #3 오게. 둣날은 멩질이난.(그래, 뒷날은 명절이어서.)

107065 @ 그 ᄲᅮ수는 걸 방에렌 헷수과?(그 빻는 걸 방아라고 했습니까?)

107065 #3 오게, 방에에 그 널른게 낭게 파근에게 그 방에 멘들앙, ᄀᆞ루 쏠 물 컷당 ᄲᅮ상. 문 체로 썽 즘질게 처네근에게.(그래, 방아에 그 넓은 나무 파서 그 방아 만들어, 가루 쌀 물 담갔다가 빻아. 모두 체로 써서 잘게 쳐내서.)

107065 @ 그다음에 어떵헷수과?(그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107065 #3 물 놔근에게 떡 멘들젠게 헷주게. 첫주게. 친떡도 치고 솔벤도 ᄒᆞ곡 절벤도 멘들곡.(물 넣어서 떡 만들려고 했지. 쪘지. 시루떡도도 찌고 '솔벤'도 하고 절편도 만들고.)

107065 @ 시루에 놘 쪗수과? 친떡 헐 땐?(시루에 넣어서 쪘습니까? 시루떡 할 땐?)

107065 #3 , 이제도 우리 시리가 세 개 서, 저기.(, 이제도 우리 시루가 세 개 있어, 저기.)

107065 @ 아 지금도 이수과?(아 지금도 있습니까?)

107065 #3 시리.(시루.)

107065 @ 시리?(시루?)

107065 #3 엿날 시린 엇고 엿날 시린 빌어단 어디 굿ᄒᆞ는 디 강 벌러부난, 이제 그 알리므리로 ᄒᆞᆫ 시리가 세 개 서. 큰 거, 족은 거.(옛날 시룬 없고 옛날 시룬 빌

어다가 어디 굿하는 데 가서 깨버려서, 이제 그 알루미늄으로 된 시루가 세 개 있어. 큰 거, 작은 거.)

107066 @ 기구나예? 아까 방에로 그거 뭐한 쌀을 송편 만들 때도 썻잖아예? 송편은 어떵 만들엇수과? 그 쌀 갈아근에 찧은 담에.(그렇군요? 아까 방아로 그거 뭐한 쌀을 송편 만들 때도 사용했지요? 송편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 쌀 갈아서 찐 다음에.)

107066 #3 어떵헤게, ᄀᆞ루 ᄀᆞᆯ아다근에게 물 삭삭 궤아근에게 ᄆᆞᆯ아근에.(어떻게 해, 가루 갈아다가 물 삭삭 끓여서 반죽해서.)

107056 @ 예.(예.)

107056 #3 ᄆᆞᆯ앙 이녁 만썩 존존ᄒᆞ게시리 ᄒᆞ여근에 송편 멘들주게.(반죽해서 이녁 만씩 자잘하게 해서 송편 만들지.)

107066 @ 송편 속에 뭐 놧수과?(송편 속에 뭐 넣었습니까?)

107066 #3 ᄑᆞᆺ도 담고, ᄑᆞᆺ 담는 디도 가당오당 잇곡, ᄑᆞᆺ은 붉은 ᄑᆞᆺ은 잘 안 쓰난 이 ᄒᆞ곡게. 그디 사탕도 놓곡, 꿰도 보까근에게 ᄲᅳ사근에 ᄒᆞ끔 노는 디도 잇국, 사탕만 노는 디도 잇곡게. 그 이제 푸른ᄑᆞᆺ게, 녹두도 담앙 ᄒᆞ는 디도 잇주마는 녹디가 빗낭 어디서?(팥도 담고, 팥 담는 데도 가다오다 있고, 팥은 붉은 팥은 잘 안 쓰니까 하고. 거기 사탕도 넣고, 참깨도 볶아서 빻아 조금 넣는 데도 있고, 사탕만 넣는 데도 있고. 그 이제 푸른 팥, 녹두도 담아서 하는 데도 있지만 녹두가 비싸서 어디 있어?)

107066 @ 푸른 ᄑᆞᆺ이 어떤 거꽈?(푸른 팥이 어떤 겁니까?)

107066 #3 저 이 무시거니, 밧디 가라근엥. 잊어빗저 일름, 밥에 놘 먹는 거.(저 그 뭐니, 밭에 갈아서. 잊어버렸어 이름, 밥에 넣어 먹는 거.)

107066 @ 아, 밥에 놩 먹는 거.(아, 밥에 넣어 먹는 거.)

107066 #3 파랑ᄒᆞᆫ ᄑᆞᆺ게.(파란 팥.)

107066 @ 예게, 알아지쿠다.(예, 알아지겠습니다.)

107066 #3 나도 싱거네 먹곡, 저디 밥에 놔도 잊어벰네.(나도 심어서 먹고, 저기 밥에 넣어도 잊어버리네.)

107066 @ 나도 얼른 튼네지 못허쿠다.(나도 얼른 떠올리지 못하겠습니다.)

107066 #3 나도 누게 주난에 밥에 ᄒᆞᆫ 번 먹엇는디.(나도 누가 주니까 밥에 한 번 먹었는데.)

107067 @ 그리고예 빙떡도 헤봣수과?(그리고요 빙떡도 해봤습니까?)

107067 #3 빙떡도 ᄒᆞ주게.(빙떡도 하지.)

107067 @ 빙떡은 어떵 만듭니까?(빙떡은 어떻게 만듭니까?.)

107067 #3 어떵 만들어게? 모믈ᄀᆞ루 사다근에게 물 카근에 것도 잘헤사 허주.(어떻게 만들어? 메밀가루 사다가 물 섞어 것도 잘해야 하지.)

107067 @ 그것도 뜨거운 물이꽈 차가운 물이꽈?(그것도 뜨거운 물입니까 차가운 물입니까?)

107067 #3 언물, 언물 헤근에 지저근에게 놈삐 즘질이 썰어근에게 놔그넹, 그레 놩 물아근에.(찬물, 찬물 해서 지져서 무 잘잘하게 썰어서 놔서, 거기에 놔서 말아.)

107067 @ 그 놈삐는 살망마씨? 쎙 놈삐 썰엉 놉니까?(그 무는 삶아서요? 생 무 넣습니까?)

107067 #3 쎙 놈삐 뒈느냐게 숢아사. 숢아근에 건정 물 빠저사.(생 무 되겠나 삶아야. 삶아서 건져서 물 빠져야.)

107067 @ 놈삐엔 간 안헷수과?(무엔 간 안했습니까?)

107067 #3 소금으로 약간 간 헤사주게.(소금으로 약간 간 해야지.)

107068 @ 그다음엔 상왜떡[116]이 뭐꽈?(그다음엔 '상왜떡'이 뭡니까?)

107068 #3 상왜떡은 밀ᄀᆞ루로게 물앙, 전인 상왜떡 그 피우는 약을 사오는디, 이젠 어디 오람주마는 엇어, 아무디나 그거.('상왜떡'은 밀가루로 반죽해서, 전에는 '상왜떡' 그 피우는 약을 사오는데, 이젠 어디 오고 있지만 없어, 아무데나 그거.)

107068 @ 예.(예.)

107068 #3 경헤근에게 물 놔근에게, 물도 메시근 ᄒᆞ게 데우민 재기 뒈곡, ᄃᆞ사사 그건 ᄃᆞ사사 피는 거. 얼민 안 피어 생전, 겨울엔.(그렇게 해서 물 넣어서, 물도 미지근하게 데우면 빨리 되고, 따뜻해야 그건 따뜻해야 피는 거. 차면 안 피어 생전, 겨울엔.)

107068 @ 예.(예.)

107068 #3 ᄯᅳ신디 놩은 재기 부각ᄒᆞ게 피곡.(따뜻한데 놓으면 빨리 보각하게 피고.)

107068 @ 예.(예.)

107068 #3 그거 놩 물앙 네불민 피민, 이제 칼로 믄 떡 올릴 만썩 기차근에 놔 불민 부각이 ᄒᆞ민 뭣에 놩 치여근에게 ᄒᆞ민 상웨떡이주.(그거 놓아서 반죽해서 내버리면 피면, 이제 칼로 모두 떡 올릴 만큼씩 잘라서 내버리면 보각이 하면 뭣에 넣어서 찌면 '상왜떡'이지.)

107068 @ 예.(예.)

107068 #3 상왜떡 잘 멘들아지는디 난 그건 잘 멘들아지는디, 이젠 그것이 재루가 어디강 ᄑᆞ는 디사. 이제두 여름에는 막걸리 놓민 뒈주게.('상왜떡' 잘 만들어지는데 난 그건 잘 만들어지는데, 이젠 그것이 재료가 어디가야 파는지. 이제도 여름에는 막걸리 넣으면 되지.)

107068 @ 막걸리.(막걸리.)

107068 #3 놓민 막걸리 놓곡 우유 ᄂᆞ뎅 헷자 난 우유 안 먹으난 우유 안 놓주.
107068 @ 예.(넣으면 막걸리 넣고 우유 넣는다고 해도 난 우유 안 먹으니까 우유 안 넣지.)

107068 @ 예.(예.)

---

116) '상왜떡'은 밀가루 따위에 더운 물과 기주를 조금 넣어 되게 반죽하고서 만두 모양으로 만들고는 더운방에 두어서 부풀어 오르게 하여 찐 떡을 말한다. = 삼메떡

107068 #3 막걸리만 놓민 막 피어 여름에.(막걸리만 넣으면 막 피어 여름에.)

107068 @ 겨울엔 막걸리 놔도 안 피고마씨?(겨울엔 막걸리 넣어도 안 피는가요?)

107068 #3 둣게 ᄒᆞ민 피주. 둣게 ᄒᆞ민. 게난 겨울엔 얼엉, 상웨떡은 ᄃᆞ상 피는 따문에 언 땐 잘못 ᄒᆞ당은 안뒈어.(따뜻하게 하면 피지. 따뜻하게 하면. 그러니 겨울엔 얼어서, 상왜떡은 따뜻해야 피는 때문에 언 땐 잘못 하다간 안 돼.)

107068 @ 게민 제사 때는 친떡하고 상웨떡. 상웨떡도 제사에 써수과?(그러면 제사 때는 시루떡하고 '상왜떡'. '상왜떡'도 제사에 썼습니까?)

107068 #3 오게, 씨주게. 여름엔 상왜떡만 만들젠 허젠. 요셋 아이덜은 상왜떡만 ᄒᆞ렌 ᄒᆞ주 여름엔.(그럼, 쓰지. 여름엔 '상왜떡'만 만들려고 하지. 요새 아이들은 '상왜떡'만 하라고 하지 여름엔.)

107069 @ 그럼 제사지낼 땐 떡 뭐, 뭐 헤낫수과?(그럼 제사지낼 땐 떡 뭐, 뭐 했습니까?)

107069 #3 무시거 놔게. 계메, 그추룩 ᄒᆞ주게. 친떡을 치나 상웨떡을 치나 ᄒᆞ민 그레 솔벤[117], 절벤[118] 헤근에게 문 그레 우트레 놘게 제서 지네주게.(뭐 놔. 글쎄, 그처럼 하지. 시루떡을 찌나 '상웨떡'을 찌나 하면 거기에 '솔벤', '절편' 해서 모두 거기 위에 놓아서 제사 지내지.)

107071 @ 그다음엔 설기떡이렌 ᄒᆞᆫ 말도 들어봣수과?(그다음엔 백설기라고 한 말도 들어봤습니까?)

107071 #3 무신 떡?(무슨 떡?)

107071 @ 설기떡.(백설기.)

107071 #3 설기떡? 난 들어본 직 엇인디.(백설기? 난 들어본 적 없는데.)

107072 @ 인절미는 어떤 떡이과?(인절미는 어떤 떡입니까?)

107072 #3 인절미는 게 곤ᄀᆞ루로도 인절미 허곡.(인절미는 흰쌀가루로도 인절미 하고.)

107072 @ 예.(예.)

107072 #3 춥쏠로도게 이제 춥쏠떡이렌 ᄒᆞ멍 ᄉᆞ랑ᄉᆞ랑[119] ᄒᆞ게시리게 뒈민 것도 인절미 뒈곡.(찹쌀로도 이제 찹쌀떡이라고 하며 'ᄉᆞ랑ᄉᆞ랑' 하게 되면 것도 인절미 되고.)

107072 @ 인절미도 집에서 만들어낫수과 옛날엔?(인절미도 집에서 만들어났습니까 옛날엔?)

107072 #3 오게.(그럼.)

107072 @ 인절미는 어떵 만들어낫수과 만들 때?(인절미는 어떻게 만들어났습니까 만들 때?)

107072 #3 아, 칼로 썰민 뒐거주게.(아, 칼로 썰면 될 거지.)

---

117) '솔벤'은 반월형의 떡본으로 눌러서 만들어 낸 흰떡을 말한다. = 솔변, 솔펜, 수랑곤떡.

118) '절벤'은 둥근 꽃판으로 눌로 만든 흰떡을 말한다. = 동고랑곤떡, 절변.

119) 'ᄉᆞ랑ᄉᆞ랑'은 조금 알맞게 긴 듯한 모양을 말한다. = ᄉᆞ람ᄉᆞ람

107072 @ 그 가루를?(그 가루를?)

107072 #3 가루로 처근에게.(가루로 쪄가지고.)

107072 @ 찐 다음엔?(찐 다음엔?)

107072 #3 솔벤ᄀᆞ찌 솔벤추룩 멘들앙. 칼로 키치민 인절미고게.('솔벤'같이 '솔벤'처럼 만들어서. 칼로 자르면 인절미고.)

107073 @ 절편은 뭐꽈 절편?(절편은 뭡니까 절편?)

107073 #3 제펜[120]은 그거이, 엿날엔 그 영장나민 아세 제펜 ᄒᆞ주게 제펜.('제펜'은 그거. 옛날엔 그 영장나면 아예 '제펜' 하거든 '제펜'.)

107073 @ 예.(예.)

107073 #3 대썹 놓멍게.(대나무 잎 놓으며.)

107073 @ 예.(예.)

107073 #3 징게징게 대썹을 놔.(층층이 대나무 잎을 놔.)

107073 @ 예.(예.)

107073 #3 ᄒᆞᆫ 징게 놓민 대썹 헤다근에 ᄌᆞ근ᄌᆞ근 놓곡. 우린 경허민 엿날엔 어신 때낭에 곤솔덜 어신 때난 그 대썹 놔근에, 영영 저 부뜨카부덴.(한 층 놓으면 대나무 잎 해다가 차근차근 놓고. 우린 그렇게 하면 옛날엔 없을 때여서 흰쌀들 없을 때여서 그 대나무 잎 놔서, 이렇게이렇게 저 붙을까봐서.)

107073 @ 예, 예.(예, 예.)

107073 #3 마주 부뜨카부덴 그거 떼민, 그것덜 먹젠. 부뜬 거 할라먹젠 하하하.(마주 붙을까봐 그거 떼면, 그것들 먹으려고. 붙은 거 핥아먹으려고 하하하.)

107073 @ 대썹에 부튼 거마씸?(대나무 잎에 붙은 거요?)

107073 #3 부뜬 거 할라먹젠, 아주 엿날.(붙은 거 핥아먹으려고, 아주 옛날.)

107073 @ 예.(예.)

107073 #3 경 헤나서, 서로 ᄃᆞ트멍들 하하하.(그렇게 했었어, 서로 다투면서들 하하하.)

107073 @ 아. 그게 제펜 만드는 거구나예?(아. 그게 절편 만드는 거군요?)

107073 #3 그거 얄룹게시리 ᄒᆞᆫ건 제펜이주게.(그거 얇게끔 한건 절편이지.)

107074 @ 예, 예.(예, 예.)

107074 #3 얄룹게시리.(얇게끔.)

107074 @ 게민 솔벤은 뭐꽈?(그러면 '솔벤'은 뭡니까?)

107074 #3 ᄉᆞᆯ진 건 솔벤.(굵은 건 '솔벤'.)

107074 @ 아, ᄉᆞᆯ지게 ᄒᆞᆫ 건.(아, 굵게 한 건.)

107074 #3 ᄉᆞᆯ진 건 친떡, ᄉᆞᆯ지게 ᄒᆞᆫ 건 친떡이고 얄룹게 ᄒᆞᆫ 건 젤펜.(굵은 건 시루떡, 굵게 한 건 시루떡이고 얇게 한 건 절편.)

107074 @ 솔벤은 뭐꽈?('솔벤'은 뭡니까?)

107074 #3 솔벤은게 영 세 가꾸 나게 안헤여?(솔벤은 이렇게 세 각이 나게 안

120) '제펜'은 쌀가루에 팥소 따위로 켜를 앉혀 찐 시루떡을 말한다. = 지펜.

해?)

107074 @ 세모나게마씨? 세 가꾸 나게?(세모나게요? 세 각 나게?)

107074 #3 응, 세 가꾼가? 양편이 끗 잇곡게 넙짝ᄒᆞ게 헤근에게.(응, 세 각인가? 양편에 꼭짓점 잇고 넙적하게 해서.)

107074 @ 아, 그게 솔벤이구나예? 솔벤 찔 땐 뭐 놔근에 헙니까?(아, 그게 '솔벤'이군요? '솔벤' 찔 땐 뭐 놓아서 헙니까?)

107074 #3 엿날엔 솔벤 칠 때게 그 저 소낭.(옛날엔 '솔벤' 찔 때는 그 저 소나무.)

107074 @ 소낭 썹?(솔잎?)

107074 #3 응, 소낭 솔빗 뽑아다근에 반찌룩ᄒᆞ게 솖앙, 싯어ᄃᆞ근에.(응, 소나무 솔잎 뽑아다가 반반하게 삶아서, 씻은 다음에.)

107074 @ 소낭 썹을 솔빗이렌 헷수과?(소나무 잎을 솔빗이라고 했습니까?)

107074 #3 부트카부덴 경ᄒᆞ는 거주.(붙을까봐 그러는 거지.)

107074 @ 아, 아.(아, 아.)

107074 #3 부터근에 떡 내지 못허카부덴 징게징게 부터불카부덴 세세에 놔근에.(붙어서 떡 꺼내지 못할까봐 층게 층게 붙어 버릴까봐 사이사이에 놔서.)

107074 @ 예 예.(예, 예.)

107074 #3 그 치는 거주.(그 찌는 거지.)

107075 @ 웃기떡이 뭔지 알아지쿠과?(웃기떡이 뭔지 알겠습니까?)

107075 #3 우찍, 우찍.(우찍, 우찍.)

107075 @ 예, 우찌떡.(예, 웃기떡.)

107075 #3 우찍은게, 솔벤ᄀᆞ찌 젠젠ᄒᆞ게 동글랑허게 ᄒᆞ는 거.(웃기떡은, '솔벤'같이 잔잔하게 동그랗게 하는 거.)

107075 @ 아, 아.(아, 아.)

107075 #3 젠젠허게 젤 우이 놓난 우찍이라.(잔잔하게 제일 위에 놓으니까 웃기떡이라.)

107075 @ 아, 우찍떡.(아, 웃기떡.)

107075 #3 젤벤 놓곡 솔벤 놓곡 인절미 놓곡 다 헤놩 젤 우에 노는 건 우찍이엔 ᄒᆞ는 거.(절변 놓고 솔벤 놓고 인절미 놓고 다 해 놓은 다음 제일 위에 놓는 건 웃기떡이라고 하는 거.)

107075 @ 아, 우찍떡. 이게 그거구나 우찌떡.(아, 웃기떡. 이게 그거구나 웃기떡.)

106076 @ 그다음엔 그 본향당[121]이나 이렇게 갈 때 떡 헹 가잖아예?(그다음엔 그 '본향당'이나 이렇게 갈 때 떡 해서 가잖아요?)

107076 #3 돌레떡[122]?('돌레떡'?)

---

121) '본향당'은 본향本鄕 즉 마을의 여러 가지 일을 관장하는 신神을 모신 당堂을 말한다.
122) '돌레떡'은 메밀이나 좁쌀가루 따위로 쟁반만큼 크고 둥그렇게 만든 떡을 말한다.

107076 @ 예, 그게 돌레떡이과?(예, 그게 돌레떡입니까?)

107076 #3 응, 돌레떡.(응, 돌레떡.)

107076 @ 돌레떡 말곤 다른 떡은 안헷수과?(돌레떡 말고 다른 떡은 안했습니까?)

107076 #3 안 헹갓주게. 돌레떡헹 갓주. 당[123]에 갈 때.(안 해서 갔지. 돌레떡 해서 갔지. 당에 갈 때.)

107076 @ 당에 갈 때예?(당에 갈 때요?)

107076 #3 돌레떡, 이제덜은 ᄒᆞ지도 아녀곡 감서 요센. 젊은 사람들.(돌레떡, 이제는 하지도 안하고 가지 요사인. 젊은 사람들.)

107076 @ 돌레떡은 어떵 생긴거꽈?(돌레떡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107076 #3 동글랑허게시리게 ᄀᆞ루 뽀사다근에 물 삭삭 궤와근에, 영영 긔어근에, 동글랑ᄒᆞ게 멘들민 돌레떡이주게.(동그랗게 가루 빻아다가 물 삭삭 끓여서, 이렇게, 이렇게 끓여서, 동그랗게 만들면 돌레떡이지.)

107077 @ 아, 기꽈? 굿 헐 때마씸?(아, 그래요? 굿 할 때요?)

107077 #3 굿헐 때도 그거.(굿할 때도 그거.)

107077 @ 굿헐 때도 돌레떡예?(굿할 때도 돌레떡이요?)

107077 #3 응.(응.)

107077 @ 다데[124]는 뭐꽈? 다데? 다데떡도 알아지쿠과?('다데'는 뭡니까? 다데? 다데떡도 알겠습니까?)

107077 #3 건 몰라.(건 몰라.)

107078 @ 그다음에 볼목리에서만 특별하게 만드는 떡 같은 건 엇수과?(그다음에 보목리에서만 특별하게 만드는 떡 같은 건 없습니까?)

107078 #3 엇주게.(없지.)

소와 고물

107079 @ 떡에 인절미하면 인절미 밖에 뭐 묻히는 거 잇잖아예? 뭘 묻혀서 인절미 만들엇수과?(떡에 인절미하면 인절미 겉에 뭐 묻히는 거 있잖아요? 뭘 묻혀서 인절미 만들었습니까?)

107079 #3 인절미 무시거 묻혀?(인절미 뭐 묻혀?)

107079 @ 콩가루 묻히고 하잖아예? 여기선 뭐 묻혀낫수과?(콩가루 묻히고 하잖아요? 여기선 뭐 묻혔습니까?)

107079 #3 콩ᄀᆞ루도 묻히곡게 풋도 묻히곡게.(콩가루도 묻히고 팥도 묻히고.)

107079 @ 안 묻힐 땐 엇수과?(안 묻힐 땐 없습니까?)

107079 #3 인절미영 ᄒᆞ민 인절미두게.(인절미하면 인절미도.)

107079 @ 음.(음,)

---

123) '당堂'은 마을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일을 수호해 주는 신神이 항상 거처하는 장소를 말한다.
124) '다데'는 당에 갈 때 제물로 바치는 동글납작한 떡을 말한다. = 다데떡, 당다데.

107079 #3 그 콩ᄀᆞ루 ᄀᆞ튼 거 묻히고.(그 콩가루 같은 거 묻히고.)

107070 @ 그 송편 ᄀᆞ튼 거 만들 때?(그 송편 같은 것 만들 때?)

107079 #3 ᄀᆞ루도 묻히곡.(가루도 묻히고.)

107080 @ 아까 송편이나 이런 거 만들 때 그 속에다가 뭐 놔낫수과?(아까 송편이나 이런 것 만들 때 그 속에다가 뭐 넣었습니까?)

107080 #3 속에게 그거게 곧지 안헴서? 사탕도 놓곡, 깨도 놓는 사름 놓곡, 보리콩 이전이 잊어벳저. 보리콩을 잊어비언 튼네지 못헤젓저. 보리콩 ᄑᆞ랑헌 거 잇쟈녀게?(속에 그거 말하지 안하나? 사탕도 넣고, 깨도 넣는 사람 넣고, 완두 이전에 잊어버렸던. 완두를 잊어버려 떠올리지 못했었네. 완두 파란 것 있잖아?)

107080 @ 맞수다게.(맞습니다.)

107080 #3 그거 니랑 ᄆᆞᆫ지는 사름이 잊어비언. 보리콩이엔 곧지 못현, 하하하.(그거 늘 만지는 사람이 잊어버렸어. 완두라고 말하지 못했네, 하하하.)

107080 @ 맞수다. 보리콩 놔가지고예?(맞습니다. 완두 넣어가지고요?)

107080 #3 응, 보리콩.(응, 완두.)

107080 @ 아까 말씀드렷단 거 인절미 ᄀᆞ튼 건 팥가루도 놓고, 팥 솖앙 헷지예? 팥 솖앙 그것도 허고. 그다음에 콩가루로도 하고 다른 건 엇수과?(아까 말씀드렸던 것 인절미 같은 건 팥가루도 넣고, 팥 삶아서 했지요? 팥 삶아서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콩가루로도 하고 다른 건 없습니까?)

107080 #3 콩ᄀᆞ루 무시거게. 사탕 ᄀᆞ튼 거 놓구젠 허민 놓고.(콩가루 뭐. 설탕 같은 거 넣고 싶으면 넣고.)

107080 @ 밖에, 밖에 인절미, 인절미 영 보면 뭐 이렇게 칠하는 거.(겉에, 겉에 인절미, 인절미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칠하는 거.)

107080 #3 (아 인절미 칠하는 거?)

107080 @ 고물, 고물.(고물, 고물.)

107080 #3 그건 그거벳긔 어실거라게. 칠ᄒᆞ는게 흰ᄀᆞ루도 치롸는게 흰ᄀᆞ루.(그건 그거밖에 없을 거야. 칠하던데 흰 가루도 칠하던데 흰 가루.)

107080 @ 흰 ᄀᆞ루?(흰 가루?)

107080 #3 무신 ᄀᆞ루산디.(무슨 가룬지.)

107080 @ 게메, 요즘 나오는 거예?(그러게, 요즘 나오는 거요?)

107080 #3 갈근ᄀᆞ루도 이시민 칠 홀 거라. 갈근ᄀᆞ루 알아저?(전분가루도 있으면 칠 할 거야. 전분가루 알아?)

107080 @ 갈근마씨? 알아지쿠다게.(전분요? 압니다.)

107080 #3 고구마로 멘든. 그것도 칠하민 좋주, 인절미에 춥쏠인절미에.(고구마로 만든. 그것도 칠하면 좋지, 인절미에 찹쌀인절미에.)

107080 @ 맞수다게.(맞습니다.)

107080 #3 우리도 어디 실거라. 갈근ᄀᆞ루 ᄒᆞ끔 실 거라 어디.(우리도 어디 있을 거야. 전분가루 조끔 있을 거야 어디.)

108081 @ 우리가 떡 만들 때, 삼춘 떡 만들 때 뭐 부정 타믄 안뒌덴 제사떡이나, 장에 갈 때 떡 헐 때 뭔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뭔 엇엇수과?(우리가 떡 만들 때, 삼촌 떡 만들 때 뭐 부정 타면 안 된다고 제사떡이나, 장에 갈 때 떡 할 때 뭔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뭔 없었습니까?)

107081 #3 떡 헐 때 어디 가지 못하는 거?(떡 할 때 어디 가지 못하는 거?)

107081 @ 아니.(아니.)

107081 #3 부정 타카부덴?(부정 탈까봐?)

107081 @ 예. 뭐 ᄒᆞ는 거 엇수과?(예. 뭐 없었습니까?)

107081 #3 ᄉᆞᆺ 메는 거?(금줄 매는 거?)

107081 @ 예.(예.)

107081 #3 노꼿 꽈근에게, 찍으로 노곳 꽈근에게 부정 ᄒᆞ카부덴게, 나그네 촛젠 ᄒᆞ민 부정 ᄒᆞ카부덴 올레 메는데게 그거 말인가?(노끈 꽈서, 짚으로 노끈 꽈서는 부정 할까봐, 나그네 찾으려면 부정 할까봐 올레 매는데 그거 말인가?)

107081 @ 예, 예.(예, 예.)

107081 #3 저 미깡낭썹 ᄃᆞᆯ아메곡.(저 귤나무 잎 달아매고.)

107081 @ 그걸 뭐렌 ᄀᆞᆯ읍니까?(그럴 뭐라고 말합니까?)

107081 #3 ᄉᆞᆯ[125], ᄉᆞᆯ. ᄉᆞᆯ 메어.(금줄, 금줄. 금줄 매어.)

107081 @3 ᄉᆞᆯ?(금줄?)

107081 #3 ᄉᆞᆯ 멘 디 들어가지 말렌ᄒᆞ주. 영 메영. 나그네 촛젠, ᄂᆞᆷ.(금줄 맨 데 들어가지 말라하지. 이렇게 매어서. 나그네 찾으려면, 남.)

107081 @ ᄂᆞᆷ 못 오게예?(남 못 오게요?)

107081 #3 응, 멘 디 들어가지 말라 ᄉᆞᆯ 멘 디 경 ᄀᆞᆯ앗주게.(응, 맨 데 들어가지 말라 금줄 맨 데, 그렇게 말했지.)

107081 @ 그건 이제 제사떡이나 이렇게 헐 때 아무나 못 오게 하는 그런 뜻이꽈?(그건 이제 제사떡이나 이렇게 할 때 아무나 못 오게 하는 그런 뜻입니까?)

107081 #3 제사 때야 무슨 어떻게 하나. 나그네나 심방 찾을 때나 그런 거 매지.

107081 @ 아, 심방 ᄎᆞ질 때?(아, 심방 찾을 때.)

107081 #3 제서홀 때사 무시거 가곡오곡 사름덜토 오라시민 떡도 주국 먹으렌 주국.(제사할 때야 뭐 오가고 사람들도 왔으면 떡도 주고 먹으라고 주고.)

107081 @ 맞수다게.(맞습니다.)

107081 #3 ᄉᆞᆯ메믄 그거 나그네 촛앙 이녁 정성 홀 따문에 사람 들어오지 말렌 허는 거주.(금줄 매면 그거 나그네 찾아서 이녁 정성 할 때문에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거지.)

107081 @ 굿 같은 거 하젠하믄예?(굿 같은 것 하려면요?)

107081 #3 , 굿이나 집이나 나그네 촛으나. 요센 ᄉᆞᆯ 메는 디도 벼랑 엇나마는.(,

125) ‘ᄉᆞᆯ’은 ‘ᄉᆞᆺ’을 화자가 달리 발음한 듯하다.

굿이나 집이나 나그네 찾으나. 요사이엔 금줄 매는 데도 별로 없다마는.)

107081 @예.(예.)

107081 #3 가당오당 잇주. 이녁 정성이엔 헤근에 ᄒᆞ는 디도 잇주게. 영장 ᄒᆞ는 사름덜 들어 오카부덴게, 영장밧디 뎅겨오는 사름덜 들어오카부덴 부정 ᄒᆞ카부덴 경 ᄒᆞ는 거.(가다오다 있지. 이녁 정성이라고 해서 하는 데도 있지. 영장 하는 사람들 들어 올까봐, 장례식에 다녀오는 사람들 들어 올까봐 부정 할까봐서 그렇게 하는 거.)

107081 @ 그 나그네를 들인다 라는 건 그 심방을 들인다는 말잇꽈?(그 나그네를 들인다, 라는 건 그 무당을 들인다는 말입니까?)

107081 #3 , 나그네.(, 나그네.)

107081 @ 아이고, 고생헷수다.(아이고, 고생했습니다.)

107081 #3 고생헴서? 나사 멘도롱 헌 디 앚앙 무시거 고생이라? 난 메날 노는 사름이난. 일 아녀는 사름이난 기자 메날 누워만 살곡 누는 사름이난 일 아녀난게 늙어부난.(고생한다고? 나야 매지근한 데 앉아서 뭐 고생이야? 난 매일 노는 사름이니까. 일 안하는 사람이니까 그저 매일 누워만 살고 눕는 사람이니까 일 안하니까 늙어버려서.)

107081 @ 경헤도예, 잘도예 하나도 안 늙어 보염수다게.(그래도요, 매우 하나도 안 늙어 보입니다.)

8. 주생활

구조

108001 @ 혹시 옛날 초집 같은 거 지엇던 경험 이수과?(혹시 옛날 초가집 같은 거 지었던 경험 있습니까?)

108001 #6 응.(응.)

108002 @ 경허민 이제 거기 들어가 보게에? 초집 지을 때 초집 말고 볼목리는 어떤, 어떤 집들이 이섯수과?(그러면 이제 거기 들어가 볼까요? 초가집 지을 때 초가집 말고 보목리는 어떤, 어떤 집들이 있었습니까?)

108002 #7 초집 말앙 쑤레뜨집?(초가집 말고 슬레이트집?)

108002 #6 아, 그건 말앙. 쓰레뜨집은 막 요 얼마 전 까지고. 초집 그전에 무시거 헐 거 무신 그런 뭐?(아, 그건 말고. 슬레이트집은 막 요 얼마 전 까지고. 초가집 그전에 뭐 할 거 뭐 그런 뭐?)

108002 @ 거의 다 초집이엇지예?(거의 다 초가집이었지요?)

108002 #6 거의 다 초집이주.(거의 다 초가집이지.)

108002 #7 초집은? 할머니네 집은게 아방이 지섯젠 아녓수과? 초집 지실 때 무시거게 나무로게 집 지엇주.(초가집은? 할머니네 집은 아버지가 지었다고 안했습니

까? 초가집 지을 때 뭐 나무로 집 지었지.)

108001 #6 우리 아버지도 목수라나니까.(우리 아버지도 목수였으니까.)

108001 @ 거믄 초집 지을 때 멘 처음 기반 다끌 때부터 ᄒᆞ끔 ᄀᆞᆯ아줍서.(그러면 초가집 지을 때 맨 처음 기반 다질 때부터 조금 말해주세요.)

108001 #6 기반 다끌 때?(기반 다질 때?)

108001 @ 예. 처음 시작헐 때부터.(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108001 #6 터 골라근에.(터 골라서.)

108001 @ 예, 집 터 골라근에.(예, 집 터 골라서.)

108001 #6 저 나무 기둥 세워. 이렇게 영 짤라근에 ᄒᆞᆫ 세 사름이민 세 사름, 네 사름이민 네 사름 심게. 서로 영 손잡게시리 만들어근에.(저 나무 기둥 세워.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한 세 사람이면 세 사람, 네 사람이면 네 사람 잡을 수 있게. 서로 이렇게 손잡게끔 만들어서.)

108001 @ 예.(예.)

108001 #6 게민 이젠 방에 이젠 소리허멍 박아지는 거라, 탄탄하게.(그러면 이제는 방에 이제는 소리하면서 박아주는 거라, 탄탄하게.)

108001 @ 예.(예.)

108001 #6 왜 그러냐, 그것도 잇고, 거기 엿날에는 땅 지신이 잇다고 헤가지고, 그 지신을 거 이제 신으로 못허게시리 뭐하게시리 그것도 ᄒᆞᆫ 가지 방법이주게.(왜 그러냐면, 그것도 있고, 거기 옛날에는 땅 지신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지신을 거 이제 신으로 못하게끔 뭐하게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

108001 @ 예.(예.)

108001 #6 노래 부르멍, 땅 이제 그 팍팍 달귀달귀[126] 허는 것이.(노래 부르면서, 땅 이제 그 팍팍 '달귀달귀' 하는 것이.)

108001 2 달귀달귀마씸?(달귀달귀요?)

108001 #6 어, 어.(어, 어.)

108001 #7 귀신 달루는 거.(귀신 다루는 것.)

108001 #6 게난에 그 땅에 지신이 신이 그걸 우리가 이디 집을 지실거니까 노레지 말라고 허는 방법이나 마찬가지.(그러니까 그 땅에 지신이 신이 그걸 우리가 여기 집을 지을 거니까 놀라지 말라고 하는 방법이나 마찬가지.)

108001 @ 게, 그 달룰 때에 말을 당귀당귀 허멍 헷수과?(그래, 그 다룰 때에 말을 당귀당귀 하면서 했습니까?)

108001 #6 달귀달귀.(달귀달귀.)

108001 @ 달귀달귀?(달귀달귀?)

108001 #6 어. 나가 우리 이제 셍각ᄒᆞ민 그 귀신이 아마 이 땅에 지신이라는 게 귀신이 잇단 그런 것, 뜻일테주.(어. 내가 우리 이제 생각하면 그 귀신이 아마 이

126) '달귀달귀'는 노동요 달귀짛는 소리의 한 구절이다. "달귀짛는 소리'는 집터를 단단히 다지면서 부르는 민요를 말한다. = 달구 소리, 달구짛는 소리, 달귀 소리, 달귀짛는 소리

땅에 지신이라는 게 귀신이 있단 그런 것, 뜻일 테지.)

108001 @ 기냥 단순히 어 달귀 허멍 헷수과?(그냥 단순히 어 달귀 하면서 했습니까?)

108001 #6 어 달귀 혼 사름이 이제 선소리 ᄒᆞ민은 또 탕 치면서 ᄀᆞ찌 따라근에 달구고.(어 달귀 한 사람이 이제 선소리 하면 또 탕 치면서 같이 따라서 달구고.)

108001 @ 혼 번 딱 혼 곡조만 헤줍서.(한 번 딱 한 곡조만 해주세요.)

108001 #6 아, 게난에, 뭐가 선창ᄒᆞ민은 ᄀᆞ치 따라근에 ᄒᆞ는 거주게.(아, 그러니까, 뭐가 선창하면 같이 따라서 하는 거지.)

108001 @ 아, 게난 그걸 어떵 헤낫수과? 어허 달기를 혼 번 헤봅서. 어떵 헤나 신지.(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어허 달기를 한 번 해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108001 #6 선창으로 어허 달기 ᄒᆞ면은, 또 따라서 그 사람이 또 어허 달기ᄒᆞ면서 ᄀᆞ찌 또 보면서허고.(선창으로 어허 달기하면, 또 따라서 그 사람이 또 어허 달기하면서 같이 또 보면서하고.)

108001 #7 혼자ᄒᆞ면은 네중에 막 ᄒᆞ주게.(혼자하면 나중에 막 하지.)

108001 #6 그것도 ᄒᆞ젠ᄒᆞ면은 술을 먹어야 뒈여.(그것도 하려고하면 술을 먹어야 돼.)

108001 @ 하하하.(하하하.)

108001 #6 술 혼 잔썩 먹어야 힘이 나근에 소리도 나오곡.(술 한 잔씩 먹어야 힘이 나서 소리도 나오고.)

108001 @ 그 나무는 어느 정도 굵은 거엿수과?(그 나무는 어느 정도 굵은 거였습니까?)

108001 #6 나무? 요정도 될 거라(두 팔로 한 아름).(나무? 요정도 될 거라(두 팔로 한 아름).)

108001 @ 한 세 사람 장정이 들를 만큼예?(한 세 사람 장정이 들 만큼이요?)

108001 #6 응, 두 사름은 힘센 사람허고, 보통 세 사름.(응, 두 사람은 힘센 사람하고, 보통 세 사람.)

108001 @ 세 사름에?(세 사람이요?)

108001 #7 다슷사름도 ᄒᆞ곡.(다섯 사람도 하고.)

108001 #6 응, 응. 게난 그건 막 뭐민 막 기분 좋앙들 ᄋᆞ라이 소리 막 크게 네우민은 그게 땅을 막 탄탄허게 지울지멍[127] 그 소리를 허주게.(응, 응. 그러니까 그건 매우 뭐 하면 매우 기분 좋아서들 여럿이 소리 막 크게 내면 그게 땅을 막 탄탄하게 '지울지멍' 그 소리를 하거든.)

108001 @ 예.(예.)

108001 #6 게민 거기 잇는 신이 그딜 이추룩 헤근에 집을 지신다는 그런 뜻에

127) '지울지멍'은 '지울이다'즉 '기울이다'에서 기울이면서를 뜻한다. 여기서는 '달구질하다'를 말하는 것 같다.

서 아마 그 노래 불르멍 그 헌 모양이라.(그러면 거기 있는 신이 그 곳을 이처럼 해서 집을 짓는다는 그런 뜻에서 아마 그 노래 부르면서 그 한 모양이라.)

108001 @ 예, 경헤난 다음엔마씨?(예, 그렇게 한 다음은요?)

108001 #6 긍헤난 다음에 이제는 그 뭐냐민 나무로 헤가지고 이젠 아래 돌 받침 귓돌.(그렇게 해난 다음에 이제는 그 뭐냐면 나무로 해가지고 이젠 아래 돌 받침 귓돌.)

108001 @ 예.(예.)

108001 #6 게난 귀여, 귀여. 예를 들어 이거 집이면은 이거 돌 ᄒᆞ나 놓곡, 요 중간에도 ᄒᆞ나 놓곡 영 헤근에.(그러니까 귀퉁이에, 귀퉁이에. 예를 들어 이거 집이면 이거 돌 하나 놓고, 요 중간에도 하나 놓고 이렇게 해서.)

108001 @ 예.(예.)

108001 #6 요디도 놔근에, 네 밧디 다 돌아가멍 이제 기둥 세울 디를 돌로 까끄는 거라.(요기도 놔서, 네 군데 다 돌아가면서 이제 기둥 세울 데를 돌로 깎는 거라.)

108001 @ 예.(예.)

108001 #6 경헤근에 그걸 이제 팡 묻엉. 돌 우에 나무를 심는 저 기둥을 그디 허여.(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파서 묻어. 돌 위에 나무를 심는 저 기둥을 그 곳에 해.)

108001 @ 기둥도 엿날엔 기둥이렌 ᄀᆞᆯ앗수과? 다른 말 엇수과?(기둥도 옛날엔 기둥이렌 말했습니까? 다른 말 없습니까?)

108001 #6 지둥이렌 헷지 지둥.(기둥이라고 했지 기둥.)

108001 @ 지둥 세와근에예?(기둥 세워서요?)

108001 #6 지둥, 지둥. 지둥 세와근에, 무신 저 구들 뭐여 ᄋᆞ라 가지 퉤기 ᄀᆞ뜬 거, 퉤기는 뭐렌 허냐면 이런 디 그 ᄒᆞ면은 준준허게 나무 께여근에 영영 잇주게 이.(기둥, 기둥. 기둥 세워서, 무슨 저 구들 뭐야 여러 가지 설외 같은 거, 설외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데 그 하면 자잘하게 나무 깨서 이렇게이렇게 잇거든.)

108001 @ 예.(예.)

108001 #6 흑을 개어근에 이제 세멘 이추룩 개벡ᄒᆞ는 거라이.(흑을 개어서 이제 시멘트 이처럼 외 위에 흙질하는 거야.)

108001 @ 뭘로마씨?(무엇으로요?)

108001 #6 흑으로, 찰흑으로.(흙으로, 찰흙으로.)

108001 @ 옛날엔 찰흑을 뭐렌 ᄀᆞᆯ앗수과?(옛날엔 찰흙을 뭐라 말했습니까?)

108001 #6 츤혁, 츤혁.(츤혁, 츤혁.)

108001 @ 츤혁예?(츤혁이요?)

108001 #6 츤혁. 츤혁엔 헤. 가근에 그걸 또 이, 막 멀리 가근에, 예를 들어 우리 보목리 동쪽에 가민 제제기오름 이서이.(츤혁. 츤혁이라고 해. 가서는 그걸 또 이, 매우 멀리 가서, 예를 들어 우리 보목리 동쪽에 가면 '제제기오름' 있어.)

108001 @ 예.(예.)

108001#6 그디가 그 흑이 막 좋아, 찰 저.(거기가 그 흙이 막 좋아, 찰 져.)

108001 @ 예.(예.)

108001 #6 이 찝, 찝을 잘게 썰어근에 그걸 버무려근에 무레근에 막 달리는 거라, 붋아.(이 짚, 짚을 잘게 썰어서 그걸 버무려서 짓물러서 막 다루는 거야, 밟아.)

108001 @ 예.(예.)

108001 #6 경헤근에 이만씩 헤근에 더거레기[128] 앗당 부리데기멍[129], 사름덜이 동네 집을 지은덴 허민은 이 동넷 어른들이 와근에 막 ᄀᆞ찌 그 도와주주게.(그렇게 해서 이만씩 해서 '더거레기' 가져다가 '부리데기멍', 사람들 이 동네 집을 짓는다고 하면 이 동네 어른들이 와서 막 같이 그 도와주거든.)

108001 @ 예.(예.)

108001 #6 경헤근에 낭 영 옆이 호는 거.(그렇게 해서 나무 이렇게 옆에 엮는 거.)

108001 @ 골아봅서. 그 다음엔 어떵 헷수과?(말해보세요. 그 다음엔 어떻게 했습니까?)

108001 #6 서실[130]허곡 그 다음엔 뭐 헤근에 뭐 헤지민은 이제는 또 흑질하는 날.(서실하고 그 다음엔 뭐 해서 뭐 해지면 이제는 또 흙질하는 날.)

108001 @ 예, 흑질 ᄒᆞ는 날.(예, 흙질하는 날.)

108001 #6 이, 집 우에.(이, 집 위에.)

108001 @ 예.(예.)

108001 #7 게, 상향식 헤나사 흑질홀 거주게.(그래, 상향식 해나야 흙질할 거지.)

108001 #6 상향식은?(상향식은?)

108001 #7 아, 상ᄆᆞ룰[131] 올려놔사 서실ᄒᆞ곡 헤근에 흑질 아녀꽈?(아, '상ᄆᆞ루'를 올려놔야 서실하고 해서 흙질 아닙니까?)

108001 #6 아, 그건 상ᄆᆞ루 .(아, 그건 상ᄆᆞ루.)

108001 #7 ᄎᆞ레.(차례.)

108001 #6 상향식은 그건 네중이고, 상향식 상향식 헤도 이제는 요 얼마 전ᄁᆞ지는 상향식에 글 다 쓰곡 헷는디. 그전에는 이 공부덜을 안 헤ᄂᆞ니까 글 쓸 줄을 몰랏주게.(상향식은 그건 나중이고, 상향식, 상향식 해도 이제는 요 얼마 전까지는 상향식에 글 다 쓰고 했는데. 그전에는 이 공부들을 안 해놓으니까 글 쓸 줄을 몰랐지.)

108001 #7 상ᄆᆞ루만 올렷주게.('상ᄆᆞ루'만 올렸지.)

108001 #6 상향식은 상ᄆᆞ루 올릴 때민은 무슨 선소리를 헤낫는디 거 잘몰라. 경

128) '더거레기'는 덜컥 혹은 덥석 흙덩이를 두 손으로 쥐는 그 상태를 말하는 듯하다.
129) '부리데기멍'은 '부리다' 즉 흙덩이들을 한 곳에 쏟아놓는 그 상태를 말하는 듯하다.
130) '서실'은 지붕을 이기 위해 서까래 위에 가로로 걸치는 나뭇가지. = 서슬, 서슬목.
131) '상ᄆᆞ루'는 용마루의 가장 높은 곳을 말한다. = 상ᄆᆞ르, 상ᄆᆞᄅᆞ.

헤근에 둑도 올리곡. 둑 ᄀᆞ튼 것도 올령.(상향식은 상ᄆᆞ루 올릴 때면 무슨 선소리를 했었는데 거 잘 몰라. 그렇게 해서 닭도 올리고. 닭 같은 것도 올려서.)

108001 @ 게민 그땐 이미 기둥은 다 세워진 거?(그러면 그땐 이미 기둥은 다 세워진 거?)

108001 #6 응, 다 세워진 거.(응, 다 세워진 거.)

108001 @ 서실 다 헷다는 건 이미 벽이 다 뒛다는 거꽈?('서실' 다 했다는 건 이미 벽이 다 됐다는 겁니까?)

108001 #6 어, 벽이 다 ᄆᆞᆫ.(어, 벽이 다 모두.)

108001 @ 게민 그 벽헐 땐 어떵헷수과? 벽은? 바닥은 어떵 헤심광.(그러면 그 벽할 땐 어떻게 했습니까? 벽은? 바닥은 어떻게 했으며.)

108001 #6 바닥, 기자 흑으로 메왓주게, 흑으로.(바닥, 그저 흙으로 매웠지, 흙으로.)

108001 @ 그 굴목[132] 지드는 것도 안행마씨?(그 '굴목' 때는 것도 안 해서요?)

108001 #6 굴목 짓는 거 돌만 영 놔근에. 아, 게난 그 우에 서실이영 뭐영 우에 ᄆᆞᆫ딱 다 헤난 다음에.('굴목' 때는 거 돌만 이렇게 놔서. 아, 그러니까 그 위에 '서실'하고 뭐하고 위에 모두 다 하고난 다음에.)

108001 @ 아!(아!)

108001 #6 그 다 헤난 다음엔 이제 그 안네 흑질을 허니까, 메칠을 그 안네 불을 때는 거라.(그 다 하고난 다음엔 이제 그 안에 흙질을 하니까, 며칠을 그 안에 불을 때는 거야.)

108001 @ 예.(예.)

108001 #6 그자 그 흑을 말릴랴고.(그저 그 흙을 말리려고.)

108001 @ 그냥 이 바닥에?(그냥 이 바닥에?)

108001 #6 바닥에는 ᄎᆞ츰ᄎᆞ츰 살멍 저 다 만들지 안 헤도 한쪽 구석에, 이제 그 예를 들어 찝 ᄀᆞ튼 거 푹싹이 끌아근에.(바닥에는 차츰차츰 살면서 저 다 만들지 안 해도 한쪽 구석에, 이제 그 예를 들어 짚 같은 거 폭삭하게 깔아서.)

108001 @ 예.(예.)

108001 #6 기자 거기서 줌자는 거라.(그저 거기서 잠자는 거야.)

108001 #7 멍석도 끌앙 자곡.(멍석도 깔아서 자고.)

108001 #6 게근에 그것이 당년에 ᄒᆞᆫ 번에 그 집을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ᄒᆞᆫ 몇 년 두고두고 그 집은 멘들주게.(그래서 그것이 당년에 한 번에 그 집을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몇 년 두고두고 그 집은 만들거든.)

108001 @ 아.(아.)

108001 @ 게민 그 불을 땔 땐 이제 부엌에서 아궁이도 이서야 될 거 아니꽈예?(그러면 그 불을 땔 땐 이제 부엌에서 아궁이도 이서야 될 거 아닙니까?)

108001 #6 어.(어.)

---

132) '굴목'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아궁이 바깥 부분을 말한다. = 굴묵.

108001 @ 그믄 불을 때면 그 불기운은 어디 갈 거꽈?(그러면 불을 때면 그 불기운은 어디 갈 겁니까?)

108001 #7 그 아궁이 어시 옛날엔. 돌 영 세 개 놓곡 이디 놔근에 솟에 ᄂᆞ민 불치 뒤터레 내치곡 불치. 아궁이는 내중에사.(그 아궁이 없이 옛날엔. 돌 이렇게 세 개 놓고 여기 놓아서 솥에 놓으면 재 뒤쪽으로 내치고 재. 아궁이는 나중에야.)

108001 #6 그거는 내중에 그 불, 방에 들어오게시리 만드는 건 요 근래사. 우리가 알리로는 막 우리 욱은 후에 그거 만들고.(그거는 나중에 그 불, 방에 들어오게끔 만드는 건 요 근래야. 우리가 알기로는 매우 우리 성숙한 후에 그거 만들고.)

108001 @ 아.(아.)

108001 #6 막 옛날에 우리 족을 때는 돌 영 놔근에 부엌이렌 헤도 돌 영 앚정, 솟 영 놓게시리 헤근에, 솟 멜사지지 않게시리 ᄀᆞ치, ᄀᆞ치 헤여.(매우 옛날에 우리 작을 때는 돌 이렇게 놔서 부엌이라고 해도 돌 이렇게 안쳐, 솥 이렇게 놓게끔 해서, 솥 찌그러지지 않게끔 같이, 같이 해.)

108001 @ 예.(예.)

108001 #6 밥허는 여기는 젤 큰 솟은 두 말 띠기렌 허여. 솟은 무신 크게 콩 숢을 때나 크게 헐 때 ᄒᆞ곡.(밥하는 여기는 제일 큰 솥은 두 마지기 해. 솥은 무슨 크게 콩 삶을 때나 크게 할 때 하고.)

108001 @ 예.(예.)

108001 #6 다음은 밥솟, 국솟, 반찬은 냄비.(다음은 밥솥, 국솥, 반찬은 냄비.)

108001 @ 게민 그 솟 불 때면 그 불기운들은?(그러면 그 솥 불 때면 그 불기운들은?)

108001 #6 아무 것도 엇어. 없이, 솟 두에.(아무 것도 없어. 없이, 솥 뒤에.)

108001 @ 게민 집안에 연기 꽉 찰 거 아니꽈?(그러면 집안에 연기 꽉 찰 거 아닙니까?)

108001 #6 , 꽉 찰 거, 문 더꺼. 게난 솟을 어떻게 아찌냐 ᄒᆞ면, 요런 구석에 요렇게 삼각형 ᄒᆞ민은 두에 불솜아나면 불씨를 두터레 밀리는 거라.(, 꽉 찰 거, 문 닫아. 그러니까 솥을 어떻게 앉히는지 하면, 요런 구석에 요렇게 삼각형 하면 뒤에 불 때나면 불씨를 뒤쪽으로 밀리는 거야.)

108001 @ 예.(예.)

108001 #6 불치를 이디 모양 나도야 그 불치로 밧디 가근에 농사 그거에 씨 버무리멍 또 밧디 가근에 씨뿌려근에 그걸로 ᄒᆞ곡, 불치로만.(재를 여기 모아서 나둬야 그 재로 밭에 가서 농사 그거에 씨 버무리며 또 밭에 가서 씨 뿌려서 그걸로 하고, 재로만.)

108001 @ 맞수다. 저는 어떵 셍각헤시냐면예, 이제 그 불 때기 전에 집을 몰린덴 허난, 불 때면 그 불기운이 막 여기 온돌에 들어강 뜻뜻헐 줄 알아신디.(맞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그 불 때기 전에 집을 말린다고 하니까, 불 때면 그 불기운이 막 여기 온돌에 들어가서 따뜻할 줄 알았는데.)

108001 #6 아니, 아니. 그추룩 안 헤난.(아니, 아니. 그처럼 안 했어.)

108001 #7 그건 내중에. 온돌흔 건 내중.(그건 나중에. 온돌한 건 나중.)

108001 @ 아, 나중에꽈.(아, 나중입니까?)

108001 #6 엿날엔 그추룩 뚯뚯허게 허여, 어느 저르예.(옛날에 그처럼 따뜻하게 해, 어느 겨를에.)

108001 @ 게난 어떵 추웡 살아신고예?(그러니까 어떻게 추워서 살았을까요?)

108001 #6 그렇게 춥게 살아서. 겨난에 방에 자는디도 저 조칙은 저 까다로와. 파삭파삭 끄시까시[133]ᄒᆞ고.(그렇게 춥게 살았어. 그러니 방에 자는데도 저 조짚은 저 까다로워. 파삭파삭 끄시까시하고.)

108001 @ 예.(예.)

108001 #6 젤 푹삭흔 것이 뭐냐 ᄒᆞ면 보리찍. 그다음은 벼. 나룩찍. 그거는 겐디 그것도 ᄒᆞ끔 영영 저 두드려 나민은 폭삭하주게.(제일 폭삭한 것이 뭐냐 하면 보리짚, 그다음은 볏짚. 그거는 그런데 그것도 조끔 저 두드리고 나면 폭삭하지.)

108001 @ 예.(예.)

108001 #6 게민 그걸 아래 끌아. 그 우에 이불 끌아 ,경 헹 거기서 자는 거라.(그러면 그걸 아래 깔아. 그 위에 이불 깔아,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자는 거야.)

108001 @ 예.(예.)

108001 #7 아주 엿날게.(아주 옛날에.)

108001 #6 게난, 이 사람이 모기랑 ᄀᆞ찌덜 자는 거라.(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기랑 같이 자는 거야.)

108001 @ 그면은 그 지붕은 게믄, 지붕은 어떵 일엇수과? 이제 벽이랑 다할 거 아니꽈예? 허면 위에 건 어떵 헷수과?(그러면 그 지붕은 그러면, 지붕은 어떻게 이었습니까? 이제 벽이랑 다할 거 아닙니까? 하면 위에 건 어떻게 했습니까?)

108001 #7 낭 걸청, 서리 걸청.(나무 걸쳐서, 서까래 걸쳐서.)

108001 #6 우예?(위에?)

108001 @ 예.(예.)

108001 #6 서리렌 헤근에 서리 걸처근에, 그 우에 또 나무로 헤근에 문 엮으는 거라. 흑 ᄒᆞ민은 개벽[134]ᄒᆞ민은 떨어지지 안허게시리.(서까래라고 해서 서까래 걸쳐서, 그 위에 또 나무로 해서 모두 엮는 거야. 흙 하면 '개벽'하면 떨어지지 안하게끔.)

108001 @ 예.(예.)

108001 #6 게영, 고망이 요만씩 헤근에 세지 안케시리 막 이어. 게난 사름덜이 뭐ᄒᆞ젠 좀 여끄젠ᄒᆞ민 이 찍으로 새끼 꼬아근에 옛날에 알기쉽게 말ᄒᆞ민은 가마니 짜듯.(그렇게 해서, 구멍이 요만씩 해서 새지 않게 마구 이어. 그러니 사람들이 뭐 하려고 좀 엮으려하면 이 짚으로 새끼 꼬아서 옛날에 알기 쉽게 말하면 가마니 짜

133) '끄시까시'는 살에 닿아서 깔끄러워 따끔거리고 까칠까칠한 느낌을 표현한 듯하다.
134) '개벽'은 외椳 위의 흙질을 말한다. = 개벡, 안벡.

듯.)

108001 @ 예, 예.(예, 예.)

108001 #6 그렇게 사름덜이 그 서리 올린덴 ᄒᆞ면은 흑질 ᄒᆞᆫ덴 ᄒᆞ민.(그렇게 사람들이 그 서까래 올린다고 하면 흙질 한다고 하면.)

108001 @ 예.(예.)

108001 #6 이 동넷어른덜이 예를 들어 보목리 ᄒᆞᆫ 거의 반쯤은 와근에, 와근에 막 도와줘.(이 동네어른들이 예를 들어 보목리 한 거의 반쯤은 와서, 와서 막 도와줘.)

108001 #7 여저들은 물 저다근에.(여자들은 물 져다가.)

108001 #6 게난에 흑질 ᄒᆞ젠ᄒᆞ민은 여기를 올리젠 ᄒᆞ민은 엿날에 저 동 동네가민은 그 우물.(그러니 흙질 하려하면 여기를 올리려고 하면 옛날에 저 동 동네가면 그 우물.)

108001 @ 예.(예.)

108001 #6 사름덜이 ᄒᆞᆫ 이삼십 명들 와근에 물덜 저당, 허벅으로 헤근에.(사람들이 한 이삼십 명들 와서 물들 져다가, 허벅으로 해서.)

108001 #7 삼십 명이라? 오십 명은 ᄒᆞ주.(삼십 명이라? 오십 명은 하지.)

108001 #6 음. 허벅으로 허당 물들 저당 비와근에, 쉐들 ᄆᆞᆯ헤근에 끌어다근에 흑을 ᄇᆞᆯ르는 거라.(음. 허벅으로 하다가 물들 져다가 부어서, 소들 말해다가 끌어다가 흙을 바르는 거라.)

108001 @ 예.(예.)

108001 #6 그추룩 헤근에 뒈쓰멍 막 ᄇᆞᆯ르곡 헤근에 흑질 ᄒᆞ곡. 게난 집 ᄒᆞ나 짓젠ᄒᆞ민은 사람이 뭐 참 많이 들주. 아주 큰 대사일 모냥으로.(그처럼 해서 뒤집으면서 마구 밟고 해서 흙질 하고. 그러니까 집한 채 지으려면 사람이 뭐 참 많이 필요하지. 아주 큰 대사 모양으로.)

108001 @ 게난 그 내창에 우물이 이섯잖아예?(그러니까 그 내에 우물이 이섯잖아예?)

108001 #6 정술내[135].('정술내'.)

108001 @ 정술내가 무신 하천 전기공사 하멍 막아부렷덴, 하멍예?(정술내가 무슨 하천 전기공사 하면서 막아버렸다고, 하면서요?

108001 #6 어, 어.(어, 어.)

108001 @ 정술내 막을 때는 집집마다 수도가 생긴 이후꽈?(정술내 막을 때는 집집마다 수도가 생긴 이훕니까?)

108001 #6 , 어. 어 어.(, 어. 어 어.)

108001 @ 겐디 정술내는 솟아나는 물이엿수과?(그런데 정술내는 솟아나는 물이였습니까?)

108001 #6 어. 막 솟아나는 물이엇주.(어. 막 솟아나는 물이었지.)

---

135) '정술내'는 보목동 중심을 흐르는 내로 보목동 1121~3번지에서 보목동 571번지까지를 말한다.

108001 @ 용천수엿구나예?(용천수였군요.)

108001 #6 언제라도, 가뭄 타는 것이 아니라.(언제라도, 가뭄 타는 것이 아니라.)

108001 @ 겐디 무사 막아부러신고예?(그런데 왜 막아버렸을까요?)

108001 #6 어?(어?)

108001 @ 무사 막아부러신고예?(왜 막아버렸을까요?)

108001 #6 아, 수도 나고 허니깐덜게 그 내치기. 그전에는 내치기 전에는 이 둥그렇게 헤가지고, 내처도 그 내치는 물이 그 속들에 들어가게시리 못허게시리 크게 헤놧는디.(아, 수도 나고 하니까 그 내치기, 그전에는 내치기 전에는 이 둥그렇게 해가지고, 내쳐도 그 내치는 물이 그 속들에 들어가게 못하게 크게 해놨는데.)

108001 @ 예.(예.)

108001 #6 내가 커가고 이제 나중에 물덜 수도덜 이제 차츰차츰 걸어가난게.(내가 커가고 이제 나중에 물들 수도들 이제 차츰차츰 설치해가니까.)

108001 #7 하수구덜 막 파불곡 하수구덜.(하수구들 막 파버리고 하수구들.)

108001 #6 이제 공동수도여 뭐헤가난 이제 그걸 메와부럿주게.(이제 공동수도여 뭐해가니까 이제 그걸 메워버렸지.)

108001 #7 지하수 파붸가난게 지하수.(지하수 파버려 가니까 지하수.)

108001 #6 게난 우에서 지하수 뭐 허게 헤가니깐 그 물줄기가 다 죽어부럿주.(그러니까 위에서 지하수 뭐하게 해가니까 그 물줄기가 다 죽어버렸지.)

108001 @ 아, 아.(아, 아.)

108001 #7 그 정술내 오는 물줄기가 지하수로 다 둥겨부난게.(그 정술내 오는 물줄기가 지하수로 다 당겨버리니까.)

108001 @ 음.(음.)

108001 #7 정술내 오는 게 막아저비여.(정술내 오는 게 막아져버려서.)

108001 #6 그 전에는 이 볼목리 다리 잇는 그 조곰 내려가민은 그 끄지도, 그 나무 밑으로 이 물이 팍팍 솟아낫주게, 생수가.(그 전에는 이 보목리 다리 있는 그 조금 내려가면 그 까지도, 그 나무 밑으로 이 물이 팍팍 솟아낫거든, 생수가.)

108001 #7 그 하요 그디로 가는 다리, 그 젓긋디난에.(그 하효 거기로 가는 다리, 그 근처니까.)

108001 #6 포구로 가는 디, 포구로 가는 디.(포구로 가는 데, 포구로 가는 데.)

108001 #7 그 정술내 물 보목리 그 물, 정술내 물 다 먹어 사난에 다 알주게.(그 '정술내' 물 보목리 그 물, '정술내' 물 다 먹어 살아서 다 알지.)

108001 #6 보목리 사름 그 물 아마 백 프로 먹엇주게.(보목리 사람 그 물 아마 백 프로 먹었지.)

108001 @ 예.(예.)

108001 #7 그디벳긔 어시난게 정술내 ᄒᆞ나난.(거기밖에 없으니까 '정술내' 하나니까.)

108001 #6 우리도 그 당시는 나도 어릴 때주마는 춤 요 손지만도 족을 때 대바지[136] 요만이 흔 거, 병보다 쪼곰 큰 거, 경헤근에 영 헹 저근에, 어멍아방네 밧디 가불민 물 저오라 ᄒᆞ민 그거 가근에 물 저다근에 나두곡 ᄒᆞ여나서.(우리도 그 당시는 나도 어릴 때지만 참 요 손지만큼 작을 때 '대바지' 요만큼 한 거, 병보다 쪼끔 큰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져서, 어머니 아버지네 밭에 가버리면 물 져 와라 하면 그거 가서는 물 져다가 나두고 해났어.)

108001 @ 게민 그 집에 그 벽을 쌓을 때라든가 우에 지붕 할 때라든가 이럴 때는 정술내 강 사람들이 다 물을 다 질어당 주는 거 아니꽈예?(그러면 그 집에 그 벽을 쌓을 때라든가 위에 지붕 할 때라든가 이럴 때는 '정술내' 가서 사람들이 다 물을 다 길어다가 주는 거 아닙니까?)

108001 #6 . 어, 어어.(. 어, 어어.)

108001 @ 물 질엉오민, 물 질엉 온 다음에 그면은 지붕에다가 멘 처음에는 서리 걸치고 서실[137] 허고.(물 길어오면, 물 길어 온 다음에 그러면 지붕에다가 맨 처음에는 서까래 걸치고 '서실' 하고.)

108001 #6 서실허고 흑 떨어지지 안 허게시리. 그다음은 흑질ᄒᆞ곡.(서실하고 흙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다음은 흙질하고.)

108001 @ 흑질ᄒᆞ곡.(흙질하고.)

108001 #6 오. 그다음엔 저 묵은 집 튿어나민은 기신새[138]렌 ᄒᆞᆫ 것이 이서, 기신새.(그래. 그다음엔 저 묵은 집 뜯어나면 묵은 띠라고 한 것이 있어, 묵은 띠.)

108001 #7 기신새로 더꺼.('묵은 띠'로 덮어.)

108001 #6 기신새, 기신세로 처음에 덮어.(묵은 띠, 묵은 띠로 처음에 덮어.)

108001 @ 아 묵은 기신새마씨?(아 묵은 묵은띠요?)

108001 #6 어. 집 지어나민 속에 묵은 거.(어. 집 지어나면 속에 묵은 거.)

108001 @ 무사마씨? 새 걸 안 헹?(왜지요? 새 걸 안 해서?)

108001 # 6 아, 새거 아녀.(아, 새 거 안 해.)

108001 #7 흑게, 흑 부뜨게시리.(흙, 흙 붙게끔.)

108001 @ 아, 흙 부뜨라고.(아, 흙 붙으라고.)

108001 #6 딱 달라부뜨게시리. 경헤야 흑 떨어지지도 아녀곡 그기 딱 달라부떠근에 뭐ᄒᆞ곡.(딱 달라붙게끔. 그렇게 해야 흙 떨어지지도 안하고 거기 딱 달라붙어서 뭐하고.)

108001 #7 기신새 더꺼.(묵은 띠 덮어)

108001 @ 그다음엔마씨.(그다음은요?)

108001 #6 그다음엔 제라헌 새.(그다음엔 제대로 된 띠.)

108001 #7 기신새 더꺼낭 새로 이는 거.(묵은 띠 덮어나서 새로 이는 거.)

---

136) '대바지'는 모양이 둥그스름하여서 가운데 배는 불룩하고 위아래는 졸아지되 위의 아가리는 아주 좁게 된, 물을 길어 나르는 작은 동이를 말한다, = 대배기, 대베기.

137) '서슬'은 지붕을 이기 위해 서까래 위에 가로로 걸치는 나뭇가지. = 서슬목

138) '기신새'란 초가지붕을 덮었던 묵은 띠를 말한다. = 그신새,

108001 #6 새로 이는 거. 게난 그 흑질허는 날은 사람이 뭐 최하 아멩헤도 백 명 이상이주.(새로 이는 거. 그러니까 그 흙질하는 날은 사람이 뭐 최하 아무래도 백 명 이상이지.)

108001 #7 백 명 더 뒈주.(백 명 더 되지.)

108001 @ 그날 호루에 다 헤버리는 거구나예?(그날 하루에 모두 해버리는 거군요?)

108001 #7 흑질 ᄒᆞ는 날은 다 오곡.(흙질 하는 날은 모두 오고.)

108001 #6 , 흑질 허는 날 그 뭐 헤근에 빨리 안헤근에 더꺼불지 않으민 비오민 믄 또 헤아지주게. 비 맞아불민 안 뒈여.(, 흙질 하는 날 그 뭐 해서 빨리 안 해서 덮지 않으면 비오면 모두 또 헹궈지거든. 비 맞아버리면 안 돼.)

108001 @ 그민 기신새 놓면 기신새 위에 바로 새 새를 헤붑니까?(그러면 묵은 띠 놓으면 묵은 띠 위에 바로 새 새를 해버립니까?)

108001 #6 어, 어. 아니 게난 기신새 우에 다른 잡풀들 이시면은 그거 또 나도 뒈곡. 게난 젤 우에가 새. 비 막는 거.((어, 어. 아니 그러니까 묵은띠 위에 다른 잡풀들 있으면 그거 또 나도 되고. 그러니까 제일 위쪽에 띠. 비 막는 거.)

108001 @ 집 다 짓이민 다 짓엇 땐 뭐 잔치라도 헤낫수과?(집 다 지으면 다 지었다고 뭐 잔치라도 했습니까?)

108001 #7 허주게. 이사허는 날.(하지. 이사하는 날.)

108001 #6 이사허는 날은 뭐 잔치가 크게 허주.(이사하는 날은 뭐 잔치가 크게 하지.)

108001 @ 맞아. 그러면은예? 그 집을 ᄒᆞ나 짓잖아예? 짓게 되면 그 집만 지으는 게 아니라.(맞아. 그러면요? 그 집을 하나 짓잖아요? 짓게 되면 그 집만 짓는 게 아니라.)

108003 #6 안팟거레.(안채와 바깥채.)

108003 @ 안팟거레 짓잖아예?(안채와 바깥채를 짓잖아요?)

108003 #7 어.(어.)

108003 @ 안커리도 밖거리도 그런 식으로 짓는 거 아니꽈예?(안채도 바깥채도 그런 식으로 짓는 거 아닙니까?)

108003 #6 어.(어.)

108003 @ 그다음에 모커리라는 것도 잇수과?(그다음에 곁채라는 것도 있습니까?)

108003 #6 모커리가? 볼목리는 모커리라는 것은 잘 엇어서.(곁채가? 보목리는 곁채라는 것은 잘 없었어.)

108003 @ 볼목린 모커린 엇고예?(보목린 곁채가 없고요?)

108003 #6 어.(어.)

108003 #7 모커리집은 엿날 호섭이네 집이.(곁채는 옛날 호섭이네 집이.)

108003 #6 예, 예. 우리 볼목리는 모커리가 대부분 그런 집 엇어.(예, 예. 우리

보목리는 곁채가 대부분 그런 집 없어.)

108003 #7 모커리가 무시거고?(곁채가 뭐지?)

108003 #6 저, 예를 들민 이문간게.(저, 예를 들면 문간채.)

108003 #7 아.(아.)

108003 #6 이문간식으로 들어오는 디. 게민 쉐도 그디 강 쉐 메어.(문간채식으로 들어오는 데. 그러면 소도 거기 가서 소 매어.)

108003 #7 아, 맞아. 그디가 모커리.(아, 맞아. 거기가 문간채.)

108012 @ 집을 짓으면 문들은 만들 거잖아예? 문들 만들민 들어오는 문은 영 열앗당 닫잖아예. 그런 문 이름은 뭐렌 골앗수과?(집을 지으면 문들은 만들 거잖아요? 문들 만들면 들어오는 문은 이렇게 열었다가 닫잖아요. 그런 문 이름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108012 #6 대문.(대문.)

108012 @ 그다음엔?(그다음엔?)

108012 #7 셋문[139].('셋문'.)

108012 @ 셋문은?(셋문은?)

108012 #7 중간 문.(중간 문.)

108012 #6 대문은 젤 큰문이고 셋문은 이추룩 쪼꼴락헌 대문 옆이.(대문은 제일 큰문이고 셋문은 이처럼 조그마한 대문 옆의.)

108012 @ 대문 옆에 주로 어딜 들어가는 거꽈? 셋문으로.(대문 옆에 주로 어딜 들어가는 겁니까? 셋문으로.)

108012 #6 셋문? 것도 걸로 들어가는 디. 보통 그 문은 저 이 대문은 예를 들어 근에 저 비바람이나 많이 뭐 헐 땐 대문 안 열곡.(셋문? 것도 거기로 들어가는 데. 보통 그 문은 저 이 대문은 예를 들어서 저 비바람이나 많이 뭐 할 땐 대문 안 열고.)

108012 @ 예.(예.)

108012 #6 거 저 샛문으로 쪼꼴락헌 거 글로 헤근에 사람 왓다갓다 헤엿주.(거 저 셋문으로 조마한 것 거기로 해서 사람 왔다 갔다 했었지.)

108010 @ 옛날에 볼몰리 부엌은 참 뭐렌 골앗수과? 부엌 보고.(옛날에 보몰리 부엌은 참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엌 보고.)

108010 #7 정제.(정제.)

108012 @ 정제문도 따로 이섯수과?(부엌문도 따로 있었습니까?)

108012 #6 어, 따로. 정제가는 문 잇곡, 상방 가는 문이 따로 잇곡.(어, 따로. 부엌 가는 문 있고, 대청 가는 문이 따로 있고.)

108012 @ 상방 가는 문이 대문이꽈?(대청 가는 문이 대문입니까?)

108012 #6 어.(어.)

---

139) '셋문'은 부엌과 마루 사이에 있는 문을 말한다. 여기서는 대문 옆에 있는 작은 출입문을 의미한다.

108012 #7 상방이난게, 상방.(대청이니깐, 대청.)

108012 @ 그다음 문은 뭐렌 ᄀᆞᆯ앗수과? 창문 비슷하게 방마다 문이 이섯잖아예. 그건 무신 문이렌 헷수과?(그다음 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문 비슷하게 방마다 문이 있었잖아요. 그건 무슨 문이라고 했습니까?)

108012 #7 것도 기자 문은 문이주게, 창문.(것도 그저 문은 문이지, 창문.)

108012 #6 아니, 아니. 무신 ᄀᆞᆫ는 ᄀᆞᆯ아난 말이 이실 거라.(아니, 아니. 무슨 말하는 말했던 말이 있을 거야.)

108012 @ 이제 집을 지을 때 그게 이섯기도 없엇을 수도 잇엇는데 신발 벗어가지고 바로 대문을 연 게 아니라, 대문허고 신발 벗는 사이에 뭐 열기 전에 뭐 이서나지 안헷수과?(이제 집을 지을 때 그게 있을 수도 없었을 수도 있었는데 신발 벗어가지고 바로 대문을 연 게 아니라, 대문하고 신발 벗는 사이에 뭐 열기 전에 뭐 있어나지 안했습니까?)

108008 #7 에 에, 이딘 그런 거 엇어. 마리, 마리 놔근에게 벳긋디. 상방 벳긋디 마리.(에 에, 여긴 그런 거 없어. 마루, 마루 놔서 밖에. 대청 밖에 마루.)

108008 @ 마리 놩예?(마루 놓아서요?)

108008 #6 마리 영 ᄒᆞᆫ 거 그 마리아래 신 놓앗주게. 그때사 신이 뭐 ᄋᆞ라배 이서게, 초신도 신엇당. 그자 무시거 초신 조리 삼아 신국, 초신 삼앙 신국.(마루 이렇게 한 것 그 마루아래 신 놓았지. 그때야 신이 뭐 여러 켤레 있어, 짚신도 신었다가. 그저 뭐 짚신 조리 삼아서 신고, 짚신 삼아서 신고.)

108008 @ 조리도 신어낫수과?(조리도 신어났습니까?)

108008 #6 , 조리도 하영 신엉. 우리 학교 뎅길 때, 비오는 날은 조리 하영 삼앗다근에 날 좋은날 신엉 가고게.(, 조리도 많이 신었지. 우리 학교 다닐 때, 비오는 날은 조리 많이 삼았다가 날 좋은날 신어서 가고.)

108008 @ 조리는 게믄 뭘로 만들어낫수과?(조리는 그러면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108008 #6 찝, 찝으로.(짚, 짚으로.)

108008 @ 아. 조리도 찍으로 만들엇수과?(아. 조리도 짚으로 만들었습니까?)

108008 #7 찍으로.(짚으로.)

108008 #6 저 엿날 초신 삼는 식으로 초신은 게도 고급이라.(저 옛날 짚신 삼는 식으로 짚신은 그래도 고급이라.)

108008 #7 초신은 고급.(짚신은 고급.)

108008 @ 초신도 신어신디 조리도 찍으로 만들언예?(짚신도 신었는데 조리도 짚으로 만들었어요?)

108008 #7 어, 찍으로 만들안.(어, 짚으로 만들었지.)

108008 @ 두 개다 찍으로 만들아신게예?(두 개다 짚으로 만들었네요?)

108008 #6 이 조리는, 찝신 다른 거는 그 무시거 그거는 신사라. 그런 거 막 서트멍 만들아서. 신사라.(이 조리는, 짚신 다른 거는 그 뭐 그거는 신사야. 그런 거

막 섞으면서 만들었지. 신서란.)

108008 #7 나막신은 나무로 만든 거.(나막신은 나무로 만든 거.)

108008 @ 나막신도 신어낫수과?(나막신도 신었습니까?)

108008 #6 우린 신어나지 아녀도 하영들 영감들은 신어낫주. 게다도 신어나곡.(우린 신어나지 안 해도 많이들 영감들은 신어났지. 게다도 신어나고.)

108008 @ 혹시 가죽 ᄀᆞ튼 걸로는 신 안 만들어 신엇수과?(혹시 가죽 같은 걸로는 신 안 만들어 신었습니까?)

108008 # 6가죽은 아녀고 쎙고무신, 내중에 신 처음 날 때 쎙고무신, 쎙고무혜근에 그자 신 멘들안.(가죽은 안 했고 생고무신, 나중에 신 처음 날 때 생고무신, 생고무해서 그저 신 만들어.)

108008 @ 생고무로 혜근에 직접 신을 만들언마씨?(생고무로 해서 직접 신을 만들었습니까?)

108008 #6 어, 어. 게엥 또 무신 것도 모양도 벨로주게. 쎙으로 기자 쎙고무로 혜근에 신 멘들아근에 멘드는디, 것도 보목리서 만든 것이 아니라 것도 어디 타리에서 어디서 멘든덴 ᄒᆞ민은 ᄒᆞᆫ 참 강 주문헷당 ᄒᆞᆫ 달이민 ᄒᆞᆫ 달, 보름이민 보름 그사이에 주문헤사 것도 멘들아줘..(어, 어. 그렇게 해서 또 무슨 것도 모양도 별로지. 생으로 그저 생고무로 해서 신 만들어서 만드는데, 것도 보목리서 만든 것이 아니라 것도 어디 타리에서 어디서 만든다고 하면 한 참 가서 주문했다가 한 달이면 한 달, 보름이민 보름 그사이에 주문해야 것도 만들어줘.)

108008 @ 게민 밭에서 일할 때 뭐 신엉 헷수과?(그러면 밭에서 일할 때 뭐 신어서 했습니까?)

108008 #6 저 찝신게, 초신.(저 짚신, 짚신.)

108008 @ 초신 신엉예? 바당에 갈 때도마씨?(짚신 신어서요? 바다에 갈 때도요?)

108008 #6 바당에?(바다예?)

108008 #6 바당에도 그 당시엔 초신.(바다에도 그 당시엔 짚신.)

108008 #7 다 초신이주게. 고무신은 그건 양반.(모두 짚신이지. 고무신은 그건 양반.)

108008 #6 고무신 난 덴 요 근래고.(고무신 나온 땐 요 근래고.)

108008 #7 씨집이 오젠 헤도 초신 신엇주게.(시집오려고 해도 짚신 신었지.)

108004 @ 삼 칸 집이렌 한 것도 잇수과?(삼 칸 집이라고 한 것도 있었습니까?)

108004 #6 삼 칸 집?(삼 칸 집?)

108004 @ 예.(예.)

108004 #6 오, 삼 칸 ᄉᆞ 칸 집 잇주게.(그래, 삼 칸 사 칸 집 있지)

108004 @ 보통은?(보통은?)

108004 #6 보통 삼칸집인디?(보통은 삼 칸 집인데?)

108004 @ 예.(예.)

108004 #6 ᄉᆞ 칸 집은 막 커.(사 칸 집은 막 커.)

108004 @ 아, 그믄 삼칸집 짓젠허믄 처음에 다 바닥 허잖아예? 그 구분을 어떵 두어낫수과?(아, 그러면 삼 칸 집 지으려하면 처음에 다 바닥 하잖아요? 그 구분을 어떻게 두었습니까?)

108004 #6 구분을 ᄉᆞ칸집 ᄒᆞ젠 하믄?(구분을 사 칸 집 하려고 하면?)

108004 #7 우리 이 집이 삼 칸 집이렌 허주게. 여디 영 헹 ᄒᆞ나. 상방 영 헹 ᄒᆞ나, 저 방 두 개 방 영 헹 ᄒᆞ나. 것이 삼칸집.(우리 이 집이 삼 칸 집이라고 하거든. 여기 이렇게 해서 하나. 대청 이렇게 해서 하나, 저 방 두 개 방 이렇게 해서 하나. 그것이 삼 칸 집.)

108004 @ 삼 칸 집은 방이 잇고 마루 잇고 부엌 잇고?(삼 칸 집은 방이 있고 마루 있고 부엌 있고?)

108004 #6 저 부엌 들어가는 문 잇고, 마루 들어가는 문 잇고, 또 이쪽에 방, 구들 들어가는 문 잇고.(저 부엌 들어가는 문 잇고, 마루 들어가는 문 있고, 또 이쪽에 방, 구들 들어가는 문 있고.)

108004 @ 거난 그 삼 칸 집은 집을 다 짓어난 다음에 칸 놓앗수과?(그러니까 그 삼 칸 집은 집을 다 지어난 다음에 칸 놓았습니까?)

108004 #7 아니, 아니 짓일 때 만들주게.(아니, 아니 지을 때 만들지.)

108004 @ 아 짓을 때 경 만듭니까?(아 지을 때 그렇게 만듭니까?)

108004 #6 건축을 딱, 나무를 만들어근에.(건축을 딱, 나무를 만들어서.)

108004 @ 삼 칸 집에 중간 막는 건 나무로 헷수과?(삼 칸 집에 중간 막는 건 나무로 했습니까?)

108004 #6 다 나무주.(다 나무지.)

108004 @ 벳긔디만 그 흑이랑. 그 촐흑?(바깥에만 그 흙이랑. 그 찰흙?)

108004 #6 촌흑, 촌흑.(찰흙, 찰흙.)

108004 @ 촌흑 하다가?(찰흙 해다가?)

108004 #6 그걸 꿰어근에 그거 한 덩어리 돌아가멍은 한 덩어리 흑 딱 놔.(그걸 꿰어서 그거 한 덩어리 돌아가며 한 덩어리 흙 탁 놓아.)

108004 @ 예.(예.)

108004 #6 그다음은 돌멩이 돌 앗당 그레 딱 놓고.(그다음은 돌멩이 돌 가져다가 그곳에 탁 놓고.)

108004 @ 예.(예.)

108004 #6 경헤근에 ᄎᆞ츰ᄎᆞ츰 쌓아가는 거주게, 쭉 돌아가멍.(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쌓아가는 거지, 쭉 돌아가면서.)

108004 @ 예.(예.)

108004 #6 집 돌아가멍. 게민은 거기 허민은 집이 막 뜻사.(집 돌아가며. 그러면 거기 하면 집이 막 따뜻해.)

108004 @ 아, 맞아마씸.(아, 맞습니다.)

108004 #6 흑으로만 허니까.(흙으로만 하니까.)

108004 @ 맞아, 경헷저에?(맞아, 그랬지요?)

108004 #6 이제는 공구리로만 이렇게 ᄒᆞ주마는 옛날에는 나무로 헤근에 문 여꺼근에 헤나민 흑질 헤낭, 또 바깟드로 흑 꿰어근에, 이젠 흑 ᄒᆞᆫ 덩어리 놓곡 그담엔 또 돌 ᄒᆞᆫ 덩어리 놓고, 영 헤근에, 그걸 쭉 싸는 거라 돌아가멍 다, 문만 넹겨동.(이제는 콘크리트로만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나무로 해서 모두 엮어서 해나면 흙질 한 후, 또 바깥에서 흙 꿰어서, 이젠 흙 한 덩어리 놓고 그다음엔 또 돌 한 덩어리 놓고, 이렇게 해서, 그걸 쭉 쌓는 거라 돌아가며 다, 문만 남겨놓고.)

108004 @ 문만 넹겨동.(문만 남겨놓고.)

108004 #6 사람 뎅기는 문만 넹겨도근에 돌아가멍 다 헤불민은, 겨울에는 ᄃᆞᆺ곡 여름에는 씨원ᄒᆞ고. 우에도 다 흑으로 헤부니까.(사람 다니는 문만 남겨놓고 돌아가면서 다 해버리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위에도 다 흙으로 해버리니까.)

108004 @ 맞수다. 별도로 뭐 창문 ᄀᆞ튼 거 안 만들잖아에?(맞습니다. 별도로 뭐 창문 같은 건 안 만들잖아요?)

108004 #6 어.(어.)

108004 @ 앞에만 허난에?(앞에만 하니까요?)

108004 #6 게고 문도 이 창오지. 옛날에 허면 토지[140].(그리고 문도 이 창호지. 옛날에 하면 '토지'.)

108004 @ 예.(예.)

108004 #6 그런 걸로만 ᄇᆞᆯ라근에 . 유리란 건 엇어. 유리란 건 사람보젠 요멘이만 헤근에 멘들주게. 사름덜 갓다왓다 ᄒᆞ는 거 보젠. 사각으로 요멘이.(그런 걸로만 발라서. 유리란 건 없어. 유리란 건, 사람 보려고 요만큼만 해서 만들지. 사람들 갔다왔다하는 거 보려고. 사각으로 요만큼.)

108004 @ 그건 뭐렌 ᄀᆞᆯ앗수과?(그건 뭐라고 하였습니까?)

108004 #6 그것이 무시거렌, 일름이 엇어.(그것이 뭐라는 이름이 없어.)

108005 @ 아까 집 짓젠허면 맨 처음에 흑 두들기고 막 헷잖아예?(아까 집 지으려하면 맨 처음에 흙 두들기고 막 했잖아요?)

108005 #6 어.(어.)

108005 @ 그러면 주춧돌이란 거는 어디다 쓰는거꽈?(그러면 주춧돌이란 거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108005 #6 주춧돌? 기둥?(주춧돌? 기둥?)

108005 @ 기둥?(기둥?)

108005 #6 기둥아래 돌.(기둥아래 돌.)

108005 @ 기둥아래.(기둥아래.)

108005 #6 어.(어.)

---

140) '토지'는 제주도에서 생산된 종이를 말한다.

108005 @ 걸 여기는 뭐렌 돌 이름을 뭐렌 ᄀᆞᆯ앗수과?(그걸 여기는 뭐라고 돌 이름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108005 #6 주춧돌.(주춧돌.)

108005 @ 주춧돌을 다른 말론 또 안 헤봔마씨?(주춧돌을 다른 말로는 또 안 해봤나요?)

108005 #6 귓돌이렌 헤시냐? 귓돌?(귓돌이렌 했지? 귓돌?)

108005 #7 귓돌.(주춧돌.)

108005 #6 귓돌, 귓돌.(주춧돌, 주춧돌.)

108005 @ 귓돌, 예. 영 돌아가멍 놓는 거예?(주춧돌, 예. 이렇게 돌아가면서 놓는 거요?)

108005 #6 어. 귓돌, 귓돌. 귀역마다 놓는 돌이니까. 게난 웨 귓돌을 허냐하면. 나무 기둥 놓민은 그대로 흑 아래로 기둥을 세와불민 나무가 빨리 썩어불주게.(어. 주춧돌, 주춧돌. 모서리마다 놓는 돌이니까. 그러니까 왜 주춧돌을 하냐면. 나무 기둥 놓으면 그대로 흙 아래로 기둥을 세워버리면 나무가 빨리 썩어버리거든.)

108005 @ 예.(예.)

108005 #6 그 돌 우에 기둥을 허민은 비오나 습기차지 않으니깐 그 나무는 빨리 썩지 아녀는 거라.(그 돌 위에 기둥을 하면 비와도 습기 차지 않으니까 그 나무는 빨리 썩지 안하는 거라.)

108005 @ 아.(아.)

108005 #6 기둥은 다 귓돌에 놓는 거라.(기둥은 다 주춧돌에 놓는 거라.)

108005 @ 그때 기둥은 다 무신 나무로 썻수과?(그때 기둥은 다 무슨 나무로 사용했습니까?)

108005 #6보통 소나물 거라 이디. 소나무가 많이 썻주. 옛날에는 참나무덜토 많이 써서, 참나무.(보통 소나물 거야 여기. 소나무가 많이 사용했지. 옛날에는 참나무들도 많이 사용했어, 참나무.)

108005 @ 참나무는 뭐렌 ᄀᆞᆯ앗수과?(참나무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108005 #6 나무 종류들이 많에놓난 잘 몰라.(나무 종류들이 많아놓으니까 잘 몰라.)

108005 @ 게도 기둥을 무신 낭으로 헤사신지.(그래도 기둥을 무슨 나무로 했었는지.)

108005 #6 아이고 그때는 귀둥 ᄀᆞ튼 거 세울 디는 소나무 ᄀᆞ튼 건 막 옛날에는 소낭이엔 흔 건 안 써나서.(아이고 그때는 기둥 같은 거 세울 데는 소나무 같은 건 매우 옛날에는 소나무라고 한 건 안 사용했어.)

108005 #7 신우낀 이제사 난 거?(편백나무는 이제야 난 거?)

108005 #6 어, 건 신우끼엔 흔 건 산에 강은에 헤오는 거고. 저, 쿠상낭 ᄀᆞ튼, 아니 그 또 한라산에 확, 나무덜이 좋아노난에.(어, 그건 편백나무라고 한 건 산에 가서 해오는 거고. 저, 구상나무 같은, 아니 그 또 한라산에 확, 나무들이 좋아놓으

니까.)

108005 @ 예.(예.)

108005 #6 문 한라산에 강 베아다근에 헤ᄂᆞ니까?(모두 한라산에 가서 베다가 해놓으니까?)

108005 @ 보는 뭐꽈? 보, 보. 집지슬 때, 보.(보는 뭡니까? 보, 보. 집지을 때, 보.)

108005 #7 보가 무시거라. 무신 초상날 때 복 입는 거?(보가 뭐지. 무슨 초상날 때 복 입는 거?)

108005 @ 아니 보. 집지슬 때 사용하는 보.(아니 보. 집지을 때 사용하는 보.)

108005 #7 집지실 때 보가 무시 거라?(집지을 때 보가 뭐지?)

108005 @ 주춧돌 잇고, 기둥이 잇고, 보가 잇고, 도리가 잇덴 하는디예.(주춧돌 있고, 기둥이 있고, 보가 있고, 도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108005 #6 포? 포?(포? 포?)

108005 @ 포꽈? 포는 뭐꽈?(보요? 보는 뭐지요?)

108005 #6 포, 이런 거는 이 나무 이 집 요사이 요사이에.(보, 이런 거는 이 나무 이 집 요사이 요사이에.)

108005 @ 예.(예.)

108005 #6 우에 영 그 뭐 허는 거. 이 우트레 또 기둥이, 나무든 무시 것들 뭐 막 허주게?(위에 이렇게 그 뭐 하는 거. 이 위에 또 기둥이, 나무든 무슨 것들 뭐 막 하거든?)

108005 @ 예.(예.)

108005 #6 포엔 헌 거는 젤 단단하게 저 들어가는 게 포라.(보엔 한 거는 제일 단단하게 저 들어가는 게 보야.)

108005 @ 예.(예.)

108005 #6 예를 들민은 마루로 이 사이에.(예를 들면 마루로 이 사이에.)

108005 @ 예, 예.(예, 예)

108005 #6 또 이렇게 젤 가운데 마룻방에서 포가 그 나무가 들어가는 거라.(또 이렇게 제일 가운데 마룻방에서 보가 그 나무가 들어가는 거라.)

108005 @ 거면은 그거를 요디하고 요디하고 이 사이에 연결시키는 거마씨?(그러면 그거를 요기하고, 요기하고 이 사이에 연결시키는 건가요?)

108005 #6 어, 연결시키는 거.(어, 연결시키는 거.)

108005 @ 그 포위에다가 아까 작은 낭으로 뭐하는 거?(그 보위에다가 아까 작은 나무로 뭐하는 거?)

108005 #6 어.(어.)

108005 @ 기구나게.(그렇구나.)

108005 #6 게난 포엔 헌 거는 그 집이서 젤 중요한 그, 집 멜라지지 아녀게시리 젤 단단하게 허는 것이.(그러니까 보라고 하는 거는 그 집에서 제일 중요한 그, 집

무너지지 않게끔 제일 단단하게 하는 것이.)

108005 @ 그것도 낭으로 헷수과?(그것도 나무로 했습니까?)

108005 #6 , 그 나무가 젤 중요헌 것이주게.(, 그 나무가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

108005 @ 혹시 그 낭이 뭐엿는지 모르쿠과?(혹시 그 나무가 뭐였는지 모르겠습니까?)

108005 #6 나무? 일름은 막 여러 가지 종류가 이서부난 그걸 잘 몰라.(나무? 이름은 매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그걸 잘 몰라.)

108005 @ 도리[141]는 뭐꽈? 도리.('도리'는 뭡니까? '도리'.)

108005 #6 도리?('도리'?)

108005 #7 도리도 그 뭐시기엔 곧나어시 골아라. 아방 무시거 헐 때 도리가 어쩌구 어쩌구 허멍.('도리'도 그 뭐라고 말 할 나위 없이 말해. 아버지 뭐 할 때 도리가 어쩌구 어쩌구 하면서.)

108005 #6 ᄀᆞ만시라, 도리 도리 말.(가만있어라 '도리', '도리' 말.)

108005 #7 그땐 이런 집이 아니난 그 다 초집 지실 때주? 도리.(그땐 이런 집이 아니어서 그 다 초가집 지을 때지? 도리.)

108005 #6 그건 목수가 잘 아는디. 아 도리렌 헌 거 어디 뭐허긴 알아낫져마는.(그건 목수가 잘 아는데. 아 도리라고 한 거 어디 뭐하긴 알았었다만.)

108005 @ 볼목리 말로는 그걸 또 다른 말로 허는 거 엇수과?(보목리 말로는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는 거 없습니까?)

108005 #6 어 아니, 도리.(어 아니, '도리'.)

108005 #7 집에 대헌 건 다 ᄀᆞ틀 테주. 그건 몰르큰게 도리.(집에 대한 건 다 같을 테지. 그건 모르겠는데 '도리'.)

108005 #6 이 볼목리는 그 언어가 이 차등이 잇는 것이 아니라 거의가 평등헌 편이주게.(이 보목리는 그 언어가 이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가 평등한 편이지.)

108005 @ 서까래는 뭘로 어떵 헷수과?(서까래는 뭐로 어떻게 했습니까?)

108005 #7 서까래?(서까래?)

108005 @ 서까래.(서까래.)

108005 #7 서까래?(서까래?)

108005 @ 예.(예.)

108005 #7 것도 집에 대한 거?(것도 집에 대한 거?)

108005 @ 예.(예.)

108005 #6 다 집에 대한 거.(다 집에 대한 거.)

108005 #7 서까래, 난 몰라 거. 우리 아바님안틔 잘 들으시민 무시거 ᄒᆞ주마는, 무시거 이 것 저 것. 영 홀 줄 알아시민.(서까래, 난 몰라 거. 우리 아버님에게 잘

141) '도리'는 기둥과 기둥 위에 건너 얹는 나무를 말한다.

들었으면 뭐 하지마는, 뭐 이 것 저 것. 이렇게 할 줄 알았으면.)

108005 #6 우리 아버지가 살아시민 그런 건 춤, 목수 헤나난 뭐 헤나난 알주마는, 우리 막 어린 때라부난 거 알아지크라? 저기 이제 이 서쪽에 잇는 집이.(우리 아버지가 살았으면 그런 건 참, 목수 했었어 뭐 해났기에 알지만, 우리 막 어린 때여서 거 알아지겠나? 저기 이제 이 서쪽에 있는 집.)

108005 @ 예.(예.)

108005 #6 그 해방 막 되는 해에 집을 지은 집인데, 저 이네 그 집을 튿어비엇주마는 바로 해방되던 해에 우리 아부지가 집을 지어네 헷는디. 좋은 집 짓는덴 헨에 지어난디.(그 해방 막 되는 해에 집을 지은 집인데, 저 이내 그 집을 뜯어버렸지만 바로 해방되던 해에 우리 아버지가 집을 지어가지고 했는데. 좋은 집 짓는다고 해서 지었는데.)

108005 @ 서까래가 뭐냐믄예? 집을 짓잖아예? 게믄 이게 벽이잖아예? 그믄 지붕에서 벽 밖으로 이렇게 나온 부분 잇잖아예?(서까래가 뭔가 하면요?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이게 벽이잖아요? 그러면 지붕에서 벽 밖으로 이렇게 나온 부분 있잖아요?)

108005 #6 그거는 서리. 서리게. 길게 나온 거.(그거는 서리. 서리게. 길게 나온 거.)

108005 @ 그 서리는 아까 준준헌 나무로 헷덴 헌거꽈?(그 서리는 아까 자잘한 나무로 했다고 한 겁니까?)

108005 #6 아니, 아니. 이만썩 술진 거.(아니, 아니. 이만씩 굵은 거.)

108005 #7 서실[142]하는 것이 즘진 거.('서실'하는 것이 잔 거.)

108005 @ 아, 서실.(아, 서실.)

108005 #6 서실ᄒᆞ는 것이 낭 께어근에, 서실이 준준허게 낭 께어근에 흑 세지 않게시리 이제 가마니 짜듯 그렇게 여껴 오는 거라.(서실하는 것이 나무 쪼개어서, 서실이 자잘하게 나무 쪼개어서 흙 새지 않게끔 이제 가마니 짜듯 그렇게 엮어 오는 거야.)

108005 #7 서린 술진 거라.(서까랜 굵은 거라.)

108005 @ 술진 거?(굵은 거?)

108005 #6 어.(어.)

108005 @ 게난 안에 놓는 건 포렌하며, 밖으로 넘어 가는 건 서리.(그러니까 안에 놓는 건 보, 밖으로 넘어 가는 건 서까래.)

108005 #6 서리, 어 어 어 서리.(서까래, 어 어 어 서까래.)

108005 #7 준 걸로 여끈 것이 서실.(잔 걸로 엮은 것이 서실.)

108005 @ 게난 그 포 우에 서리 우에 서실을 논 거라예?(그러니까 그 보 위에 서까래 위에 서실을 노은 거군요?)

108005 #7 서실 다음 흑질 하하하.(서실 다음 흙질 하하하.)

142) '서실'은 지붕을 이기 위해 서까래 위에 가로로 걸치는 나뭇가지를 말한다. = 서슬목

108005 #6 포가 젤 먼저 집 지실 때 젤 중요헌 것이 포라.(보가 제일 먼저 집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보라.)

108005 @ 예.(예.)

108005 #6 그 우에 서리 걸치곡 그 우에 서실허곡, 흑 올라가고, 이제 기신새 올라가곡, 새가 올라가곡 ᄒᆞ는 거라.(그 위에 서까래 걸치고 그 위에 서실하고, 흙 올라가고, 이제 묵은 띠 올라가고, 새 띠가 올라가고 하는 거라.)

108005 @ 아, 이젠 뒛수다, 이젠 뒛수다.(아, 이젠 됐습니다, 이젠 됐습니다.)

108005 #7 하하하 하영 여꺼점신게.(하하하 많이 엮어지고 있네.)

108005 @ 집짓어짐직허우다.(집지어질듯합니다.)

108005 #6,7 하하하하.(하하하하.)

108005 #6 건축가 뒈큰게.(건축가 되겠네.)

108006 @ 아까 그 웨에 산자, 인방, 반자틀이 지금까지 말 헌 그거엿구나게예? 그다음에는 삼 칸 하게 되면 큰방하나, 족은방 하나, 족은방에 부텅 부엌이 잇고예?(아까 그 외에 산자, 인방, 반자틀이 지금까지 말 한 그거였네요? 그다음에는 삼 칸 하게 되면 큰방하나, 작은방 하나, 작은방에 붙어서 부엌이 있고요?)

108006 #6 어, 어어.(어, 어어.)

108006 @ 그다음에 마루 잇고예?(그다음에 마루 있고요?)

108006 #6 게, 삼칸방이렌 헌거는 구들 ᄒᆞ나 암팡. 암팡이렌 헌거는 곡식들 놓는 디. 그다음은 마루, 그다음은 부엌, 그다음은 족은방.(그래, 삼 칸 방이라고 한 거는 구들 하나 고방. 고방이라고 한 거는 곡식들 놓는 데. 그다음은 마루, 그다음은 부엌, 그다음은 작은방.)

108006 #7 찻방.(찻방.)

108006 #6 찻방이렌 흔 건 엇어낫주게.(찻방이렌 한 건 없어났지.)

108006 @ 부엌 정지.(부엌 정지.)

108006 #7 정제.(정제.)

108006 #6 정지가 아니고 정제.(정지가 아니고 정제.)

108007 @ 예. 그다음엔 시렁은 큰방에나 작은방에나 다 시렁 잇고예?(예. 그다음엔 벽장은 큰방에나 작은방에나 다 벽장 있고요?)

108007 #6 어. 이불 개여 놓는 디.(어. 이불 개어 놓는 데.)

108007 @ 아 시렁 잇구나예? 벽장도 따로 만들어낫수과?(아 벽장 있군요? 벽장도 따로 만들어났습니까?)

108007 #7 시렁 이서. 그 아래 솟 안찌고.(벽장 있어. 그 아래 솥 얹히고.)

108007 @ 벽장도 따로 만들아낫수과?(벽장도 따로 만들어났습니까?)

108007 #6 벽장[143]? 아니 벽장은 따로 아년. 시렁, 거의가 시렁.(벽장? 아니 벽장은 따로 안 했어. 벽장, 거의가 벽장.)

108007 @ 궤는 시집올 때 헤고예?(궤는 시집올 때 하고요?)

143) '벽장' 여기서 벽장은 문이 있는 벽장을 말하고 '시렁'은 벽장인데 문이 없는 벽장을 의미한다.

108007 #6 , 궤 헤근에 시렁에 아저다놓고.(, 궤 해서 벽장에 가져다놓고.)

108007 @ 지금도 잇수과?(지금도 있습니까?)

108007 #7 저기 궤 이서. 여기 궤 이서 영 문 열민.(저기 궤 있어. 여기 궤 있어 이렇게 문 열면.)

108007 #6 우리 집사름 시집올 때 헤온 거. 흔 오륙십년 뒈서.(우리 집사람 시집올 때 해온 거. 한 오륙십년 됐어.)

108007 #7 시집올 때 아저온 게 이서.(시집올 때 가져온 게 있어.)

108007 @ 시집올 때 헤온 이불은 엇수과?(시집올 때 해온 이불은 없습니까?)

108007 #6 아, 이제 이불은 엇고, 요 젤 궤 ᄒᆞ나 이서.(아, 이제 이불은 없고, 요 젤 궤하나 있어.)

108007 @ 옛날에 이불을 시렁에 놧수과, 따로 놓는데 놧수과?(옛날에 이불을 벽장에 놨습니까, 따로 놓는데 놨습니까?)

108007 #7 어, 시렁. 시렁에도 젤 뭐 고급으로 허는 디는 무시거 헝겊 이런 식으로 카텐 멘들아근에 영 막 막으는 거.(어, 벽장. 벽장에도 젤 뭐 고급으로 하는 데는 뭐 헝겊 이런 식으로 커튼 만들어서 이렇게 막 막는 거.)

108007 @ 이 집은 게난 지은 지 몇 년 뒛수과?(이 집은 그러니까 지은 지 몇 년 됐습니까?)

108007 #6 이거? 칠십사 년 뒈언.(이거? 칠십사 년 됐어.)

108007 @ 이집 짓을 땐 게민 그 뭐 안 놧수과? 온돌 안 놧수과?(이집 지을 땐 그러면 그 뭐 안 놓았습니까? 온돌 안 놓았습니까?)

108007 #7 무사 아니 놔? 이 시렁 아래가, 무사게 이건 제라허게 헷주. 이 시렁 아래가 부엌이라 놧주.(왜 아니 놔? 이 벽장 아래가, 왜 이건 온전하게 했지. 이 벽장 아래가 부엌이라 놓았지.)

108007 @ 아, 게민 불 때민 요기가. 게민 요긴 뭐렌 골앗수과? 뚯뚯헌 따뜻한 디를.(아, 그러면 불 때면 요기가. 그러면 요기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따뜻한, 따뜻한 데를.)

108007 #6 아, 저기 무시거 뚯뚯헌 디가 저 안목?(아, 저기 뭐 따뜻한 데가 저 아랫목?)

108007 #7 무시거 안목?(뭐 아랫목?)

108007 #6 젤게 불 들어오는 디가 멘도롱헌 디가?(매지근한 데가 매지근한 데가?)

108007 #7 굴뚝 저 연기 들어오는 디가?(굴뚝 저 연기 들어오는 데가?)

108007 #6 아니, 불 절로 때민은 젤 먼저 뜻시는 디레가?(아니, 불 저곳에서 때면 제일 먼저 따뜻해지는 곳이?)

108007 #7 저기, 저 안내게 기자.(저기, 저 안쪽에 그저.)

108007 #6 안내 젓 티.(안쪽 저 곳.)

108007 @ 뭐렌 골읍디가?(뭐라고 말했습니까?)

108007 #6 안목, 안목.(아랫목, 아랫목.)

108007 #7 안목인지 둣목인지 무시거렌 ᄀᆞ라? 구덜에 멘ᄃᆞ롱ᄒᆞ다[144] 허민 거뿐이주.(아랫목인지 윗목인지 뭐라고 말해? 구들에 매지근하면 그것뿐이지.)

108007 #6 이 안트레 안지라 허주게.(이 안쪽에 앉으라고 하지.)

108007 #7 어, 어.(어, 어.)

108007 @ 이 안터레 안지라 헐 때 아랫목, 윗목 해가지고 사용 뒀는데예?(이 안쪽으로 앉으라고 할 때 아랫목, 윗목 해가지고 사용 됐는데요?)

108007 #6 어.(어.)

108007 @ 여기서는 볼목리에서는 뭐렌 ᄀᆞᆯ앗수과?(여기서는 보목리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108007 #6 안터레라, 그런 거 어시 기자.(안쪽으로라, 그런 거 없이 그저.)

108007 @ 안터레예?(안쪽으로요?)

108007 #7 안터레 아지라.(안쪽으로 앉아라.)

108007 #6 멘ᄃᆞ롱헌 요듸 아지라, 영 헷주게.(매지근한 요기 앉아라, 이렇게 했거든.)

108007 @ 예.(예.)

108007 #6 멘도롱ᄒᆞᆫ 디 안티레 아지라.(매지근한 데 안쪽에 앉아라.)

108008 @ 그 마루를 만들 때 옛날엔 찝만 깔앙 살앗땐 허고, 이제 따뜻하게시리 온돌 할 때부터는 이제 그 마루는 불이 안 들어갓잖아예?(그 마루를 만들 때 옛날엔 짚만 깔아서 살았다고 하고, 이제 따뜻하게 온돌 할 때부터는 이제 그 마루는 불이 안 들어갔잖아요?)

108008 #6 안 들어간.(안 들어갔지.)

108008 @ 마루는 주로 뭘로 만들엇수과?(마루는 주로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108008 #6 마루?(마루?)

108008 #7 나무.(나무.)

108008 #6 아이, 그때도 나무 널판인디, 그 나무 저 이 톱으로 ᄋᆞ라 사름 그, 널착이렌 허주게 널착.(아니, 그때도 나무 널판인데, 그 나무 저 이 톱으로 여러 사람 그, 널짝이라고 하거든 널짝.)

18008 @ 예.(예.)

108008 #7 널짝.(널짝.)

108008 #6 널짝을 그 나무를 쪼개근에 판자를 멘들젠 ᄒᆞ민은, 그거 마루 ᄒᆞᆫ 마루 놓젠ᄒᆞ민은 ᄒᆞᆫ 멧 년 이서도 그 마루를 못놔.(널짝을 그 나무를 쪼개서 판자를 만들려고 하면, 그거 마루 한 마루 놓으려고 하면 한 몇 년 있어도 그 마루를 못놔.)

108008 @ 아, 게민 마루 놓기 전에는 어떵 헷수과?(아, 그러면 마루 놓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144) '멘도롱ᄒᆞ다'는 매지근하다이다. 물이나 방바닥 따위가 조금 따뜻한 느낌을 말한다.

108008 #7 찍 끌앙 살앗주게.(짚 깔아서 살았지.)

108008 #6 거 기자 찍 끌앙 거기서 기자 자. 갓다 왓다 자. 경허당 거 버물민 네중 걷워도근에 다른 거 끌고. 일 년에 흔 번씩.(거 그저 짚 깔아서 거기서 그저 자. 갔다 왔다 자. 그러다가 거 더러워지면 나중 걷어두고 다른 거 깔고. 일 년에 한 번씩.)

108008 @ 보리찍으로예?(보릿짚으로요?)

108008 #6 아니, 아니 나룩찍.(아니, 아니 볏짚.)

108008 @ 나룩찍으로?(볏짚으로?)

108008 @ 부섭이란 말은 뭐꽈?(아궁이란 말은 뭡니까?)

108008 #7 부섭?(아궁이?)

108008 @ 예.(예.)

108008 #7 부섭은 불 주는 거게. 정제나 상방에.(아궁이는 불 주는 곳이지. 부엌이나 대청에.)

108008 #6 요만이 돌 놔근에.(요만큼 돌 놓아서.)

108008 #7 놓아근에 불 살르는 거.(놓아서 불 때는 거.)

108008 #6 정제에 요만이 헌 돌로 영 헤근에 이제 저 가리는 거라. 게난 거기서 나무헤근에 불 때멍 저 불 추는 거주게.(부엌에 요만큼 한 돌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저 가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나무해서 불 때며 저 불 쬐는 거지.)

108008 #7 것이 부섭.(그것이 아궁이.)

108008 @ 아, 음.(아, 음.)

108008 #6 옛날에는 화로 ᄀᆞ튼 것도 내중에 막 나고.(옛날에는 화로 같은 것도 나중에 막 나고.)

108008 @ 예.(예.)

108008 #6 그거 나기 이전에는 부섭이엔 허주게. 낭 때근에 거기서 불 추멍헤근에 보통 부섭에서 불 살르민 이 불 막 나무 때나근에 망울 지우잖아이?(그거 나기 이전에는 아궁이라고 했거든. 나무 때서 거기서 불 쬐면서 보통 아궁이에서 불 때면 이 불 막 나무 때난 뒤 불 망울 만들어지잖아?)

108008 @ 예, 예.(예, 예.)

108008 게민 그기 그 멘ᄃᆞ롱 헌 디를 떠나지 아녕 그 옆에 돌아가멍 줌을 자는 거라.(그러면 거기 그 조금 따뜻한 데를 떠나지 않고 그 옆에 돌아가면서 잠을 자는 거야.)

108008 @ 아.(아.)

108008 #7 부섭에 발 걸청.(아궁이에 발 걸쳐서.)

108008 #6 옛날엔 멩주, 미녕으로 만든 이불을 걸처근에 아이들이영 뭐 식구들 많으민 그디 ᄌᆞ근ᄌᆞ근 영 돌아가멍덜 다 자주게.(옛날엔 명주, 면으로 만든 이불을 걸쳐서 아이들하고 뭐 식구들 많으면 거기 차례차례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자거든.)

108008 @ 아.(아.)

108008 #6 요 구석에 욜로 자곡 또 욜로 구석에 욜로 자곡, 또 요 구석에 욜로 자곡 아이고.(요 구석에 요리로 자고 또 요리로 구석에 요리로 자고, 또 요 구석에 요리로 자고 아이고.)

108008 #7 우리 아방[145]은 팔 남매난에 하하하.(우리 '아버지'는 팔 남매니까 하하하.)

108008 @ 예.(예.)

108009 @ 혹시 암팡이 고방이꽈?(혹시 암팡이 고방입니까?)

108009 #7 어, 암팡이 고팡.(암팡이 고방.)

108009 @ 아 게민 여기서는 암팡이렌 헷구나예. 그럼 거기에는 암팡에는 어떤 것들을 놧수과?(아 그러면 여기서는 암팡이라고 했군요. 그럼 거기에는 암팡에는 어떤 것들을 놨습니까?)

108009 #6 거기? 쌀.(거기? 쌀.)

108009 #7 보리도 놓고 보통 곡식만 놓는 거.(보리도 놓고 보통 곡식만 놓는 거.)

108009 #6 거 문 장만 헤근에, 이제 먹을 수 잇는 것덜 다 거.(거 모두 장만 해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것들 다 거.)

108009 @ 안칠성[146]이 뭐꽈?(안'칠성'이 뭡니까?)

108009 #6 칠성? 허허허허. 거 저 그 위허는 건디.(칠성? 허허허허. 거 저 그 위하는 건데.)

108009 @ 예.(예.)

108009 #6 그 신이주게 신 모시는 디.(그 신이지 신 모시는 데.)

108009 @ 아 그걸 암팡에다 놔낫수과?(아 그걸 고방에다 놔났습니까?)

108009 #6 어, 암팡.(어, 고방.)

108009 #7 쏠 항 우에.(쌀 항아리 위에.)

108009 #6 쏠 젤 큰 항에.(쌀 제일 큰 항에.)

108009 #7 큰 항에, 칠성 항은 그건 비우지 아네여.(큰 항에, 칠성 항은 그건 비우지 안 해.)

108009 #6 쏠을 언제나 놔둬야 뒈.(쌀을 언제나 넣어둬야 돼.)

108009 #7 쏠이나 보리나 기자 새 거 나오민 그거 헤동 또 다른 거.(쌀이나 보리나 그저 새 것 나오면 그거 해놓고 또 다른 거.)

108009 #6 제서 때는 만약에 집이 제서ᄒᆞ게 뒈민 그디 따로 그 항에 앗당 올려.(제사 때는 만약에 집이 제사하게 되면 거기 따로 그 항에 가져다가 올려.)

108009 #7 그 우에 밥 앗당 올려.(그 위에 가져다가 올려.)

108009 @ 밥을마씨?(밥을요?)

108009 #7 밥이영 떡이여.(밥이야 떡이야.)

---

145) '아방'은 아버지를 말한다. 여기서는 화자의 남편을 지칭한다.

146) '칠성'은 부富를 관장하는 신神으로, 뱀을 말한다. '안칠성'과 '밧칠성'이 있다.

108009 #6 다, 제서 헤난 거.(모두, 제사 했던 거.)

108009 @ 아 그거 다 올리는 그걸 안칠성이렌 헷수과?(아 그거 다 올리는 그걸 안칠성이라고 했습니까?)

108009 #6 어, 칠성항.(어, 칠성항.)

108009 #7 집 주인 암팡주인.(집 주인 고방주인.)

108009 @ 그 암팡주인을 칠성이렌 헷수과?(그 고방주인을 칠성이라고 했습니까?)

108009 #7 , 칠성.(, 칠성.)

108009 @ 아, 칠성.(아, 칠성.)

108009 #7 그 문전은 대문ᄀᆞ랑 문전. 문전제 지내는 건 문전, 안칠성은 암팡에 저 지커는 거.(그 문전은 대문보고 문전. 문전 제 지내는 건 문전, 안칠성은 고방에 저 지키는 거.)

108009 #6 그디 그 안네 거는 부인들이 헤여. 남자들은 안가.(거기 그 안에 그것은 부인들이 해. 남자들은 안가.)

108009 #7 그디 제서 올려난 거는 올레벳긔디 나가도 아녀곡.(거기 제사 올려난 거는 올레밖에 나가지도 안하고.)

108009 @ 게민 그디 건 누게가 먹읍니까?(그러면 거기 건 누가 먹습니까?)

108009 #7 집안 식구들. 문벳긔디 안 나가.(집안 식구들. 문밖에 안 나가.)

108009 #6 식구들만. 식구 웨에는 주도 아녀곡.(식구들만. 식구 외에는 주지도 안하고.)

108009 #7 누게 주도 아녀곡, 칠성에 암팡 지커는 질서.(누구 주지도 안하고, 칠성에 고방 지키는 질서.)

108009 @ 아, 경헹 항아리에 쏠 담앙 그 우에다가 떡이영 뭐영 놔가지고예?(아, 그렇게 해서 항아리에 쌀 담아서 그 위에다가 떡이랑 뭐랑 놔가지고요?)

108009 #6 젤 큰 항 우에.(젤 큰 항 위에.)

108009 #7 쪼끔씩 헤영 밥 ᄒᆞᆫ 그릇 ᄒᆞ곡 체소 헤영 ᄒᆞ곡 헹.(쪼끔씩 해서 밥 한 그릇 하고 채소 해서 하고 해.)

108009 @ 게 그걸 메날 헷수과?(게 그걸 매일 했습니까?)

108009 #7 어?(어?)

108009 @ 메날 ᄒᆞ는 거마씸?(매일 하는 건가요?)

108009 #6 아니, 아니. 제서지낼 때.(아니, 아니. 제사지낼 때.)

108009 @ 아, 제서지낼 때만.(아, 제사지낼 때만.)

108009 #6 멩질 때나.(명절 때나.)

108009 #7 제사ᄒᆞᆯ 때. 또 이 안택ᄒᆞᆯ 때.(제사할 때. 또 이 안택할 때.)

108009 #6 지금도 ᄒᆞᆯ 거라.(지금도 할 거라.)

108009 @ 지금도에?(지금도요?)

108009 #6 음.(음.)

108009 #7 믿지 아녀는 사름은.(믿지 안하는 사름은.)

108009 @ 게민 창곰[147]은 뭐꽈? 창곰?(그러면 '창곰'은 뭡니까? 창곰.)

108009 #7 어?(어?)

108009 @ 창곰.(창곰.)

108009 #7 창곰은 몰르켜.(창곰은 모르겠네.)

108009 @ 여기는 칠성항예?(여기는 칠성항요?)

108009 #7 항아리레도 놧당, 어떤 집은 학고짝[148]도 놧당 그 빈 찬 안 놔.(항아리에도 넣었다가, 어떤 집은 나무상자에도 넣었다가 그 빈 상태로는 안 놓아.)

108009 @ 음.(음.)

108009 #6 뭔 집도 볼목리는 그런 거 잘 엇는디. 그 무사게 아이 저 당신네 집에 뭐 잇잖아 그 나무로 짠.(무슨 집도 보목리는 그런 거 잘 없는데. 그 왜 아니 저 당신네 집에 뭐 있잖아 그 나무로 짠.)

108009 #7 두지?(두지?)

108009 #6 두지, 두지.(두지, 두지.)

108009 @ 두지?(두지?)

108009 #6 두지 우에게 그거 무사게 거 안네 놔근에게.(두지 위에 그거 왜 그거 안에 넣어서는.)

108009 #7 에,에. 우리 두지 그 벳긔디, 우리 이실 땐 벳긔디 놩 이섯수다.(에, 에. 우리 두지 그 밖에, 우리 있을 땐 밖에 놓아 있었습니다.)

108009 #6 음.(음.)

108009 #7 거 헹 보리 두 섬도.(그거해서 보리 두 섬도.)

108009 #6 오게. 그 쏠 하영 들어강.(그래. 그 쌀 많이 들어가.)

108009 #7 섬, 삼십 말.(섬, 삼십 말.)

108009 #6 우리 집인 문 도라무깡.(우리 집엔 모두 드럼통.)

108010 @ 나중엔 도라무깡이지예?(나중엔 드럼통이지요?)

108010 #6 어, 도라무깡 헤다근에 막 쏠 하영 놔지는 거엔 헤근에 그거 도라무깡 어디 강 구헤다근에, 거 구허젠 ᄒᆞ민 막 힘들어낫주.(어, 드럼통 해다가 매우 쌀 많이 넣어지는 거라고 해서 그거 드럼통 어디 가서 구해다가, 거 구하려 하면 무척 힘들어났지.)

108010 @ 옛날에 정제엔 뭐, 뭐 이섯수과?(옛날에 부엌에는 뭐, 뭐 있었습니까?)

108010 #6 물항.(물항.)

108010 @ 물항 잇고.(물항 있고.)

108010 #6 또 살레 잇고.(또 찬장 있고.)

108010 @ 살레 잇고, 그 다음엔 뭐 이섯수과?(찬장 있고, 그 다음엔 뭐 있었습

147) '창곰'은 밝게 하려고 바람벽에 뚫어낸 구멍을 말한다. = 창굼, 창꼼,

148) '학고짝'은 나무상자를 말한다. 상자를 뜻하는 일본어 '학고'와 널짝의 '짝'을 합성해서 표현한 듯하다.

니까?)

108010 #6 그다음? 솟덜.(그다음? 솥들.)

108010 #7 솟덜 놧주게. 이디도 솟 세 개 아자놧주게. 이디 아자놧주, 온돌에.(솥들 놓았지. 여기도 솥 세 개 얹혀놓았지. 여기 얹혀놓았지, 온돌에.)

108010 @ 찻방?(찻방?)

108010 #6 찻방은 그 부엌 옆에 별도로. 찻방 잇는 디가 드물어나서.(찻방은 그 부엌 옆에 별도로. 찻방 있는 데가 드물어났어.)

108010 @ 기지예? 식사할 때 게믄 어디서 식사 헤낫수과?(그렇지요? 식사할 때 그러면 어디서 식사 했었습니까?)

108010 #6 식사헐 때 보통 부엌에서.(식사할 때 보통 부엌에서.)

108010 @ 그냥 정제에서예?(그냥 부엌에서요?)

108010 #6 어, 정제예서.(어, 부엌에서.)

108010 @ 식구들 다예?(삭구들 다요?)

108010 #6 어, 어.(어, 어.)

108010 @ 정제는 다 앉으게 뒈낫수과?(정제는 다 앉게 되었습니까?)

108010 #6 응.(응.)

108010 @ 불때가지고 하믄 바닥은 뭐라나신디마씨?(불때가지고 하면 바닥은 뭐였는데요?)

108010 #7 땅.(땅.)

108010 #6 바닥? 땅. 헉, 땅.(바다? 땅. 흙, 땅.)

108010 @ 막 눌러진 흑예?(막 눌러진 흙이요?)

108010 #6 응.(응.)

108010 @ 그믄 거기그냥 앉앙 먹는 거?(그러면 거기그냥 앉아서 먹는 거?)

108010 #6 응, 무시거 끌앙. 무시거 찍 ᄀᆞ튼 거.(응, 뭐 깔아서. 뭐 짚 같은 거.)

108010 #7 아, 이녁 만씩 안 거려근에, 이만한 양푼이에. 숟가락은 다 놓는 거.(아, 이녁 만씩 안 거려서, 이만한 양푼에. 숟가락은 다 놓는 거.)

108010 #6 겐디 부인들은 이 방석 저 이 무신거 새 줄 꼬아근에 헤난 그걸로 헤근에 초가집 이러나믄은.(그런데 부인들은 이 방석 저 이 뭐 띠 줄 했던 그걸로 해서 초가집 이어나면.)

108010 #7 초가집 일어난 줄 잇자녀?(초가집 이어난 줄 있잖아?)

108010 #6 그거 잘라 논 거 그걸로 헤근에 이젠 방석을 만드는 거라.(그거 잘라 논 거 그걸로 해서 이제는 방석을 만드는 거라.)

108010 @ 예.(예.)

108010 #7 줄방석.(줄방석.)

108010 #6 게믄 부인들은 그걸 끌앙 앉저근에 ᄀᆞ치 밥 먹어. 남자들은 안네 앉고.(그러면 부인들은 그걸 꼬아서 앉아서 같이 밥 먹어. 남자들은 안에 앉고.)

108010 @ 이걸 줄방석이렌 ᄀᆞᆯ앗수과?(이걸 줄방석이라고 말했습니까?)

108010 #6 응, 줄방석.(응, 줄방석.)

108010 @ 음.(음.)

108010 #7 새로, 짐 촘 무끄는 줄 놔근에게.(띠로, 짐 참 묶는 줄 놓아서.)

108010 #6 집 일젠ᄒᆞ민게 이제 줄 놔근에게 그거 불려나지 아녀게 꽉 붓뜰어 메는 거 줄.(집 이려고 하면 이제 줄 놓아서 그거 불려나지 안하게 꼭 붙들어 매는 거 줄.)

108010 #7 그거 끄껭이 짤라분 걸로 줄방석 만들아난. 나 잘 만들아 진다, 그 방석은 하하하.(그거 끝부분 잘라버린 걸로 줄방석 만들어났어. 나 잘 만들어 진다, 그 방석은 하하하.)

108011 @ 그 다음엔 문을 만들 때는 문설주가 이섯잖아예? 문설주.(그 다음엔 문을 만들 때는 문설주가 있었잖아요? 문설주.)

108011 #7 문설주가 무시거라?(문설주가 뭐지?)

108011 @ 문얼굴, 문지방.(문얼굴, 문지방.)

108011 #6 응, 문지방사 그 뭐 마루 이추룩 지둥 하는 걸 말허는 거.(응, 문지방사 그 뭐 마루 이처럼 기둥 하는 걸 말하는 거.)

108011 #7 문지팡?(문지방?)

108011 @ 그걸 문지팡이렌 헷수과?(그걸 '문지팡'이라고 했습니까?)

108011 #6 응, 문지팡.(응, 문지방.)

108011 @ 그다음엔 저기 옛날에 밖에 마루가 엇엇덴 헤도?(그다음엔 저기 옛날에 밖에 마루가 있었다고 해도?)

108011 #6 세멘으로 헷주게. 세멘.(시멘트로 했지, 시멘트.)

108011 @ 아, 세멘?(아, 시멘트.)

108011 #6 그자 땅.(그저 땅.)

108011 @ 그자 땅이꽈?(그저 땅입니까?)

108011 #6 응.(응.)

108011 @ 그자 땅에다가 초신 벗어근에 올라왓수과?(그저 땅에다가 짚신 벗어서 올라왔습니까?)

108011 #6 응, 그자 올라와.(응, 그저 올라오지.)

108011 @ 뭐 큰 돌이나 그런 건 엇엇수과?(뭐 큰 돌이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108011 #6 아니 무시거 놀 디도 이섯주게. 돌도, 팡[149].(아니 뭐 놓을 데도 있었지. 돌도, '팡'.)

108011 @ 그 팡이. 돌팡이 이름 엇수과?(그 '팡'이. '돌팡'이 이름 없습니까?)

108011 #6 그 이름 몰라. 거 이름은 건 모르고. 팡만이, 기자 팡 불랑 올라오라, 헤근에.(그 이름 몰라. 그거 이름은 그건 모르고. '팡'만, 그저 '팡' 밟아서 올라오라, 해서.)

149) '팡'은 말을 타고 내리거나 짐을 지고 부리거나 할 적에 대臺가 되게끔 놓인 넓적한 큰 돌 따위를 말한다.

108011 @ 혹시 디딜팡이라는 건?(혹시 부춛돌이라는 건?)

108011 #6 아, 그건 저 벤소에 화장실.(아, 그건 저 변소에 화장실.)

108011 #7 두들팡은 도새기 질르는데 엿날에 똥 싸는 거 불랑 사는 것이 두들팡.(부춛돌은 돼지 기르는데 옛날에 똥 싸는 거 밟아서 서는 것이 부춛돌.)

108011 @ 아, 그게 디딜팡이꽈?(아, 그게 부춛돌입니까?)

108011 #6 어.(어.)

108012 @ 건 또 나중에 질문할게예?(그건 또 나중에 질문할게요.)

108012 #7 두들팡.(부춛돌.)

108012 @ 아까 문은 대문 이섯고 소문 이섯고.(아까 문은 대문 있었고 소문 있었고.)

108012 #6 아, 옆에 셋문.(아, 옆에 샛문.)

108012 #7 셋문, 소문이 아니고 셋문. 대문 셋문.(샛문, 소문이 아니고 샛문. 대문 샛문.)

108012 @ 지게문은 뭐꽈? 지게문.(지게문은 뭡니까? 지게문.)

108012 #7 지게문, 그거 지게문도 이서낫주게. 지게문 것ᄀᆞ라 어느 편ᄀᆞ라 지게문이렌 헤신고? 지겟문이렌도 ᄀᆞᆯ아낫수다.(지게문, 그거 지게문도 있었지. 지게문 것보고 어느 편보고 지게문이이라고 했지? 지게문이라고도 말해났습니다.)

108012 #6 지게문, 지게문이?(지게문, 지게문?)

108012 #7 검은여[150] 할망네 집이 지겟문, 정제로 삼방드레 가는 것이 지겟문이라. 정제광 삼방에 문이 잇주게, 지겟문.('검은여' 할머니네 집이 지게문, 부엌에서 대청으로 가는 것이 지게문이라. 부엌과 대청에 문이 있지, 지게문.)

108012 @ 예.(예.)

108012 #7 것이 지겟문.(그것이 지게문.)

108012 @ 삼방이 마루렌헷지예?(대청이 마루라고 했지요?)

108012 #6 응, 마루고라 삼방. 삼방에 가라. 삼방에 걸라.(응, 마루보고 '삼방'. 대청에 가라. 대청에 걸어라.)

108012 #7 삼방에 걸라. 지겟문이 그거라 젓, 정제광 삼방들에 가는 디.(대청에 걸어라. 지게문이 그거라 저, 부엌과 대청에 가는 데.)

108012 @ 여긴 보니까 뙤창문이니 지게문이니 상기둥이니, 이런 말들이 이신디예? 뙤창문, 이런 말 안 들어봣수과?(여기 보니까 뙤창문이니 지게문이니 상기둥이니,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뙤창문, 이런 말 안 들어봤습니까?)

108012 #6 뙤창문?(뙤창문.)

108012 @ 예. 밑, 뙤창문. 모르문 그냥 넘어가고예?(예. 밑, 뙤창문. 모르면 그냥 넘어갈 게요?)

108012 @ 그담엔 창 바를 땐 아까 흑질이렌 헷수과?(그담엔 창 바를 땐 아까

150) '검은여'는 보목동과 토평동 경계에 있는 검고 긴 바위를 말한다. 긴 다리를 뜻하는 'ᄃᆞ릿줄'이라고도 불린다. 'ᄃᆞ리'는 다리橋脚를 뜻한다.

흙질이라고 했습니까?)

108012 #6 어, 흑질.(어, 흙질.)

108012 @ 창에 바르는 창호지를 흑질?(창에 바르는 창호지를 흙질?)

108012 #6 아니, 창호지 볼르는 거? (아니, 창호지 바르는 거?)

108012 @ 예, 예.(예, 예.)

108012 #7 볼르는 것 ᄀᆞ라 무시거엔 ᄀᆞ라라 마는. 문 볼르는 것사 문 볼르는 거주.(바르는 것보고 뭐라고 말해라 마는. 문 바르는 거야 문 바르는 거지.)

108012 @ 종이 이름.(종이 이름.)

108012 #6 창오지, 토지[151].(창호지, '토지'.)

108012 @ 아, 토지 토지.(아, '토지' '토지'.)

108012 #6 창오지는 고급이고 토지, 토지.(창호지는 고급이고 '토지', '토지'.)

108012 @ 토지렌 헷구나예?('토지'라고 했군요.)

108013 @호령창[152]이란 말은 무슨 창을 얘기 허는 거꽈? 호령창, 서귀포 지역에서 썻덴허는데.('호령창'이란 말은 무슨 창을 얘기 하는 겁니까? '호령창', 서귀포 지역에서 썼다고 하는데.)

108013 #6 호령창?('호령창'?)

108013 @ 예.(예.)

108013 #6 몰라, 호령창이렌 흔 게.(몰라, '호령창'이렌 흔 게.)

108013 #7 호령창? 들어보지 아녓저, 호령창이 무시거꽈?('호령창'? 들어보지 않았어, 호령창이 뭔가요?)

108014 @ 굴묵[153]에 대헤근에 말헤주십서.('굴묵'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108014 #7 건, 방 때는 거 굴묵.(그건, 방 때는 거 '굴묵'.)

108014 @ 방 때는 건데 굴묵은 부엌이 아니라?(방 때는 건데 '굴묵'은 부엌이 아니라?)

108014 #6 부엌.(부엌.)

108014 #7 부엌? 굴묵이사게 방 벳긔띠.(부엌? '굴묵'이야 방 바깥에.)

108014 #6 굴묵은 부엌에서 때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이 저, 불 들어오게시리 요렇게 저, 영 벳긔들로 헤근에 영 돌아근에 바깥에서 불 때어.('굴묵'은 부엌에서 때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이 저, 불 들어오게끔 요렇게 저, 영 바깥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바깥에서 불 때.)

108014 @ 밖에서예?(밖에서요?)

108014 #6 응.(응.)

108014 #7 안터레 굴목 짓주게. 몬지락[154] 헤근에. 보릿ᄀᆞ시락 뒈밋다근에.(안

151) '토지'는 제주에서 만드는 종이를 말한다.

152) '호령창'은 마루방인 '상방'의 큰 대문 옆에 시설한 조그만 창을 말한다. 판문으로 만들어 졌다. 표선, 서귀포, 중문지역에서 사용했다.

153)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아궁이 바깥 부분을 말한다.

154) '몬지락'은 먼지를 말한다. 여기서는 검부러기 따위를 통틀어 표현한 듯하다.

쪽으로 ‘굴묵’ 짓지. ‘몬지락’ 해서. 보리까끄라기 쌓았다가.)

108014 @ 보릿ᄀᆞ시락으로예?(보리까끄라기로요?)

108014 #7 응, 보릿ᄀᆞ시락으로 굴묵 짇어.(응, 보리까끄라기로 ‘굴묵’ 때지.)

108014 #6 낭부시레기 ᄀᆞ튼 거, 막 저 부엌에서 불 때지 못헐 거, 막 부시레기로 잡탕 그런 걸로 헤.(나무부스러기 같은 거, 막 저 부엌에서 불 때지 못할 거, 막 부스러기로 잡탕 그런 걸로 해.)

108014 @ 예.(예.)

108014 #6 옛날에는 소똥, 물똥 줏어당 물롸근에 그런 걸로 이제 막 줄로 밀르는 거라. 게민 바끝에서 불부치민은 ᄎᆞ츰ᄎᆞ츰.(옛날에는 소똥, 말똥 주어다가 말려서 그런 걸로 이제 막 부지깽이로 밀리는 거라. 그러면 바깥에서 불붙이면 차츰차츰.)

108014 #7 불그네[155], 굴묵 짓는 거.(고무래, ‘굴묵’ 때는 거.)

108014 @ 굴묵짓는 걸 불그네렌 헷수과?(‘굴묵’ 때는 걸 ‘불그네’라고 했습니까?)

108014 #6 , 문 타나민 그걸 막 긁엉 동기주게. 꺼내영 문 꺼내비어 문 꺼내비사 다음 차기에 또.(, 모두 타면 그걸 막 긁어서 당기지. 꺼내서 모두 꺼내버려 모두 꺼내버려야 다음 차기에 또.)

108014 #7 당그넨[156] 날레[157] 젓는 거.(고무랜 ‘날레’ 젓는 거.)

108014 @ 당그네마씨?(고무래요?)

108014 #7 날레 알아져?(고무래 알아?)

108014 @ 몰르쿠다.(모르겠습니다.)

108014 #7 곡식을 너는 것 ᄀᆞ라 날레.(곡식을 너는 것 보고 고무래.)

108014 #6 멍석에 널어근에 저 뭐 영 돌아뎅기멍 저시는 거.(멍석에 널어서 저 뭐 이렇게 돌아다니며 젓는 거.)

108014 #7 당그네, 불그네, 날레엔 흔 건 보리나 조나 아무거라도 곡석 헤드리는 건 멍석에 너는 것 ᄀᆞ라 날레.(고무래, 고무래, ‘날레’라고 한 건 보리나 조나 아무것이라도 곡식 해드리는 건 멍석에 너는 것보고 ‘날레’.)

108014 @ 예.(예.)

108014 #7 날레 널라.(‘날레’ 널라.)

108014 @ 아, 날레 널라.(아, ‘날레’ 널라.)

108014 #7 춤, 몰른 말 하주. 요셋아이덜 이런 거 ᄒᆞ나도 몰라.(참, 모른 말 많지. 요새아이들 이런 거 하나도 몰라.)

108014 #6 ᄀᆞᆯ아도 몰라. 제주 사투리 이제나 거주. 저 동서르레 가민 이상헌 말

155) ‘불그네’는 고무래종류 중 ‘불당그레’를 말한다. 당그네에 비교하면 손잡이가 짧고 그네 끝에 톱니가 없다. 아궁이의 재를 끌어낼 때 사용한다.

156) ‘당그네’는 고무래종류의 하나다. ‘불당그레’에 비교하면 손잡이가 길고 그네 끝에 톱니가 있다. 곡식을 널거나 모을 때 사용한다. = 날레.

157) ‘날레’는 볕을 쐬기 위하여 멍석에 널어놓은 곡식을 말한다.

하영 골으메.(말해도 몰라. 제주 사투리 이제나 그거지. 저 동서쪽으로 가면 이상한 말 많이 말해.)

108014 #7 이제도 하영 골아. ᄀᆞ튼 말이라도 막 언어가 틀려.(이제도 많이 얘기해. 같은 말이라도 막 언어가 달라.)

108015 @ 아. 혹시 풍체라는 말 들어봣수과?(아. 혹시 차양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108015 #6 풍체? .(차양? .)

108015 @ 풍체는 뭐꽈?(차양은 뭡니까?)

108015 #6 이, 예를 들어근에 여기 저 비를 많이 들이껴 가민은.(이, 예를 들어서 여기 저 비를 많이 들이쳐 가면.)

108015 @ 예, 예.(예, 예.)

108015 #6 별도로 이젠 나무를 이렇게 저 만드는 거라.(별도로 이젠 나무를 이렇게 저 만드는 거야.)

108015 @ 예.(예.)

108015 #6 멘드라근에 그 우에 저 비를 많이 오나 눈이 많이 오나 뭐ᄒᆞ민은 이걸 멘들아근에 그걸 비가 들어치지 못하게시리 영 작대기로 바타다근에.(만들어서 그 위에 저 비를 많이 오나 눈이 많이 오나 뭐하면 이걸 만들어서 그걸 비가 들이치지 못하게끔 이렇게 작대기로 밭아서.)

108015 @ 예.(예.)

108015 #6 날 존 때는 작대기로 갓당 이렇게 세우고.(날 좋은 때는 작대기로 갖다가 이렇게 세우고.)

108015 @ 아.(아.)

108015 #6 또 그렇게 비와근에 뭐헐 땐 그거 치와도근에, 이젠 그레 치와불고. 이레 문 주창들에 딱 부떠불주게.(또 그렇게 비가 와서 뭐할 땐 그거 치워서, 이젠 그리로 치워버리고. 이쪽으로 문 주창들에 딱 붙어버리지.)

108015 @ 아.(아.)

108015 #6 게민 비가와도 글로 이레 비 들어오지 안 헤근에 글로 맞으멍 비를 저레.(그러면 비가와도 거기로 이쪽에 비 들어오지 안 해서 거기에 맞으면서 비를 저쪽으로.)

108015 @ 그걸 무신 체렌 헤서마씨?(그걸 무슨 체라고 했다고요?)

108015 #6 분체.(차양.)

108015 @ 분체?(차양?)

108015 #6 에, 에.(예, 예.)

108015 @ 풍체? 분체?(‘풍체’? ‘분체’?)

108015 #6 푼체, 푼.(‘푼체’, 푼.)

108015 @ 푼?(푼.)

108015 #6 확실한건 모르고 푼체, 푼체 헤나난 몰라. 이디, 이디 장화할망네 푼

체 들앙.(확실한건 모르고 차양, 차양 했었어 몰라. 여기, 여기 장화할머니네 차양 달아서.)

108015 #7 그디 푼체 잘 써. 영 올레 펜드레.(거기 차양 잘 써. 영 올레 쪽으로.)

108015 #6 거, 할망게 양칩 할망게. 거 푼체 멩심허라 허주게. 거 얕은 집이 초가집이는, 막 얕아 불민은 조금 키 큰사름은 뎅기멍 막 머리 뚜드려 불곡, 게난 들어갈 땐 푼체 멩심헹 들어가라 경 ᄒᆞ멍게.(거, 할머니 양씨 집 할머니. 그거 차양 조심하라 했지. 거 얕은 집에 초가집에는, 막 얕아 버리면 조금 키 큰 사람은 다니며 막 머리 뚜드려 버리고, 그러니까 들어갈 땐 차양 명심해서 들어가라 그렇게 하면서.)

108016 @ 물팡[158]은 뭐꽈?('물팡'은 뭡니까?)

108016 #6 응, 물팡도 잇곡.(응, '물팡'도 있고.)

108016 #7 허벅 부리는 디.(허벅 내려놓는 데.)

108016 #6 허벅 물 질어나민 허벅 그디 놓곡.(허벅 물 길어나면 허벅 거기 놓고.)

108016 #7 물구덕[159] 부리는 디. 부리는 팡, 물팡.('물구덕' 내려놓는 데. 내려놓는 대, '물팡'.)

108016 #6 허벅덜 놓는 디.(허벅들 놓는 데.)

108016 #7 두들팡이여, 물팡이여. 두둘팡은 알아점서?(부춘돌이여, '물팡'이여. 부춘돌은 아나?)

108016 @ 두들팡은 뭐꽈?(부춘돌은 뭡니까?)

108016 #6 두들팡은 ᄀᆞ싸 ᄀᆞ지 아녀샤? 벤소 거. 화장실게 거, 앉아근에 똥 싸는.(부춘돌은 아까 말하지 않았나? 변소 거. 화장실 거, 앉아서 똥 싸는.)

108016 @ 여기 볼목리도 돗통[160]이렌 헷수과?(여기 보목리도 '돗통'이라고 했습니까?)

108016 #6 응, 돗통.(응, 돼지우리)

108016 @ 돗통예? 영 두 개 놔근에 그게 두들팡이꽈?(돼지우리요? 이렇게 두개 놓아서 그게 부춘돌입니까?)

108016 #6 어, 어 어. 나무 놔근에 그게 두들팡.(어, 어 어. 나무 놔서 그게 부춘돌.)

108016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8016 #7 두둘팡.(부춘돌.)

108017 @ 그다음엔 올렌데예?(그다음엔 올렌데요?)

108017 #6 올레.(올레.)

---

158) '물팡'은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를 올려놓아 두는 대臺를 말한다.

159) '물구덕'은 물동이를 넣고 지어 다니게 된 대로 만든 조금 큰 바구니를 말한다.

160) '돗통'이란 돼지우리를 말한다. 여기서는 돼지우리와 대소변을 보는 변소를 포함한다. =통지, 통시.

108017 @ 상품명 올레도 잇잖아예?(상품명 올레도 있잖아요?)

108017 #6 어.(어.)

108017 @ 여긴 이 집도 영 올레 잇잖아예?(여긴 이 집도 이렇게 올레 있잖아요?)

108017 #6 어, 어 어. 올레길 알아저.(어, 어 어. 올레길 알아.)

108017 @ 근디 올레도 이렇게 요렇게 뒈와지멍 이신디다가 무사 경헷수과?(그런데 올레도 이렇게 요렇게 꼬여지며 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108017 #6 그거는게 놈의 밧 이서노니까 그 이 쪼고만 허게, 길게 그 밧 옆에, 이디 안네 와근에 집 짓젠허민 그 밧임제안틔 강 쪼곰만 풀아주렌 헤근에 조곰씩 헤근에게.(그거는 남의 밭 있어놓으니까 그 이 조그만 하게, 길게 그 밭 옆에, 여기 안에 와서 집 지으려하면 그 밭주인에게 가서 조금만 팔아달라고 해서 조금씩 해서.)

108017 #7 살젠ᄒᆞ민 다 겅헷주.(살려고 하면 다 그랬지.)

108017 @ 아, 경헷구나예.(아, 그랬군요.)

108017 #6 이녁 밧디 와근에게 살젠 헤민은게, 옛날 이제 과수원에 가젠헤민 이녁 밧디 들어가젠 ᄒᆞ민 길 팔아줘야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이녁 밭에 와서 살려고 하면, 옛날 이제 과수원에 가려하면 이녁 밭에 들어가려고 하면 길 팔아줘야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108017 @ 근데 옛날에 무조건 집을 짓게 뒈면 길가에 안지어가지고 ᄒᆞ끔 들어강 지엇잖아예?(그런데 옛날에 무조건 집을 짓게 되면 길가에 안지어가지고 조금 들어가서 지었잖아요?)

108017 #6 건 조용허게.(그건 조용하게.)

108017 @ 조용ᄒᆞ젠?(조용하려고?)

108017 #6 어, 옛날에는 조용한데가 제일.(어, 옛날에는 조용한데가 제일.)

108017 @ 아, 조용히 살젠허난?(아, 조용히 살려고 하니까?)

108017 #6 겐디 이 엿날에는 이 큰 길가에는 저 이 집을 짓는 게 경 원허질 안헤낫주게.(그런데 이 옛날에는 이 큰 길가에는 저 이 집을 짓는 게 그렇게 원하지 안 해났지.)

108017 @ 게, 무사 경헤신고예?(그래, 왜 그랬는지요?)

108017 #6 시끄럽다고.(시끄럽다고.)

108017 @ 시끄럽다고?(시끄럽다고?)

108017 #6 또 도둑도 잘 들주게.(또 도둑도 잘 들지.)

108017 @ 어떤 사람들은 도둑 들지 말게, 이렇게 허민은 집안이 다 안 보이잖아예?(어떤 사람들은 도둑 들지 말게, 이렇게 하면 집안이 다 안 보이잖아요?)

108017 #6 어.(어.)

108017 @ 골목으로 와버리면?(골목으로 와버리면?)

108017 #6 음.(음.)

108017 @ 이문간 대신 대문대신에 올레를 영 ᄒᆞ끔 이렇게 꼬부라지게 햇덴 말도 잇고예? 경헤부난 옛날 어른들은 어떤 생각으로 그런 식으로 헤신고 헤가지고예?(이문간 대신 대문대신에 올레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꼬부라지게 했다던 말도 있고요? 그래버려서 옛날 어른들은 어떤 생각으로 그런 식으로 했는지 해서요?)

108017 #6 옛날에는이, 그 집을 짓젠 ᄒᆞ민은 무엇보다도 이 터, 집 방향 앉아가지고.(옛날에는, 그 집을 지으려 하면 무엇보다도이 터, 집 방향 앉아가지고.)

108017 @ 예.(예.)

108017 #6 터를 좋은 산 앗젠 ᄒᆞ민은 터 보레 돌아다니주게. 산자리가 좋다 나쁘다 그런 식으로.(터를 좋은 산 가지려고 하면 터 보러 돌아다니지. 산자리가 좋다 나쁘다 그런 식으로.)

108017 @ 예.(예.)

108017 #6 경헤서 집을 지어낫주게.(그렇게 해서 집을 지어났지.)

108017 @ 예.(예.)

108017 #6 겐디, 옛날에는 예를 들어근에 우리도 이거이 우리 하르부지네 살단 집인디, 할무니가 살단 집인데 저쪽으로 살아낫는디, 그 터가 좋덴 헤근에, 사람이 이 집을 지으민 여기가 좋다 산터 모냥으로,(그런데,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거 우리 할아버지네 살단 집인데, 할머니가 살단 집인데 저쪽으로 살아났는데, 그 터가 좋다고 해서, 사람이 이 집을 지으면 여기가 좋다 산 터 모양으로,)

108017 @ 예, 예.(예, 예.)

108017 #6 산자리가 좋다, 이런 식으로게.(산자리가 좋다, 이런 식으로.)

108017 @ 예.(예.)

108017 #6 집 자리가 좋다 헹 그걸 찾앙 들어가는 거라.(집 자리가 좋다고 해서 그걸 찾아서 들어가는 거야.)

108017 @ 아, 경헤근에.(아, 그렇게 해가지고.)

108017 #6 게난 집 자리 안지는 것도 요즘은 큰 대도로 옆에가 땅값도 잘 가고 그렇게 허는디, 옛날에는 그게 아니여.(그러니 집 자리 안는 것도 요즘은 큰 대도로 옆에가 땅값도 잘 가고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야.)

108017 @ 기지예.(그렇지요?)

108017 #6 응, 자리 보멍 오는 거. 자리 봐가지고. 게난 막 들어가고 하는 거주게.(응, 자리 보면서 오는 거. 자리 봐가지고. 그러니 막 들어가고 하는 거지.)

108017 @ 자리를 보면 그 자리까지?(자리를 보면 그 자리까지?)

108017 #6 게서 막 들어가고 허는 거주게.(그래서 막 들어가고 하는 거지.)

108017 @ 들어가젠 하민 골목이 막 족앗구나예? 놈의 땅 사오젠 허민예?(들어가려 하면 골목이 막 작았군요? 남의 땅 사오려 하면요?)

108017 # 어.(어.)

108017 @ 아, 그런 것도 이섯구나예?(아, 그런 것도 있었군요?)

108017 #6 예를 들엉 골목길 안네도 집 자리가 좋으난 다 완, 이디 ᄉᆞᄆᆞᆺ 문 집

들 촞안 집들 지은 거라.(예를 들어 골목길 안에도 집 자리가 좋으니까 다 왔지, 여기 사믓 모두 집들 찾아서 집들 지은 거야.)

108017 @ 아, 경헷구나예?(아, 그렇게 했군요?)

108017 #6 게난 이 노인당 옆에 거기는 옛날에 그 어린애들 죽으민 무덤이 하영 이서. 이제도 그기 그 땅은 누게 사질 안헤여.(그러니 이 노인당 옆에 거기는 옛날에 그 어린애들 죽으면 무덤이 많이 있어. 이제도 거기 그 땅은 누가 사질 안해.)

108017 @ 아.(아.)

108017 #6 집을 안 지어 거긴.(집을 안 지어 거긴.)

108017 @ 안 지엉예?(안 지어요?)

108017 #6 어. 집 자리가 거긴 안 좋으난. 추접허덴 헤근에. 좋은 자리 아니엔 헤근에 집을 안 지어.(어. 집 자리가 거긴 안 좋으니까. 추접하다고 해서. 좋은 자리 아니라고 해서 집을 안 지어.)

108017 #7 경허고 그디 집 지신 사름덜은 좋지도 아녀고 이제도 사는 거 엇어.(그렇게 하고 거기 집 지은 사름들은 좋지도 안하고 이제도 사는 거 없어.)

108018 @ 그 어떤 집 같은 경우엔 문간채가 잇잖아예? 문간챈가 이문간이렌 헤신가마씸?(그 어떤 집 같은 경우엔 문간채가 있잖아요? 문간챈가 이문간이라고 했나요?)

108019 #6 응, 이문간.(응, 문간채.)

108019 @ 여기도 그 저기 뒈지우리, 돗통 이섯잖아예? 돗통은 어떤 구조로 돗통에 들어잇는 것들은 뭐가 들어이서낫수과?(여기도 그 저기 돼지우리, 돼지우리 있었잖아요? 돼지우리는 어떤 구조로 돼지우리에 들어있는 것들은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108019 #6 돗도구리[161], 도새기, 도새기 누웡 자는 집.('돗도구리', 도새기, 도새기 누웡 자는 집.)

108019 @ 그걸 뭐렌 골아낫수과? 도새기 누웡자는 집을.(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돼지 누워서 자는 집을.)

108019 #6 도세기집? 돗통집. 돗통집 잘허라.(돼지 집? 돼지우리 집. 돼지우리 집 잘하라.)

108019 @ 돗통엔 돗도구리고예. 돗도구리꽈, 돗도고리꽈?(돼지우리에는 '돗도구리'고요. '돗도구리'입니까, '돗도고리'입니까?)

108019 #6 돗도구리. 돗도구리.('돗도구리'. '돗도구리'.)

108019 @ 돗도구리예? 먹던 음식이나 이런 거 쏟아주잖아예. 그걸 우린 뭐 준덴 헤낫수과?('돗도구리'요? 먹던 음식이나 이런 거 쏟아주잖아요. 그걸 우린 뭐 준다고 했습니까?)

161) '돗도구리'는 돼지에게 먹이를 넣어주기 위해서 돌을 둥글넓적하게 파서 만든 돌그릇을 말한다. =돗도고리

108019 #7 도새기 것 주라 헷주게.(돼지 먹이 줘라 했지.)

108019 2 도새기 것?(돼지 먹이?)

108019 #6 도새기 것 주언다? 어, 도새기 것.(돼지 먹이 주었니? 어, 돼지 먹이.)

108019 #7 겅허난 이제도 어이구 야네 것도 잘 먹엄저, ᄒᆞ민 나 도새기꽈? ᄒᆞ멍 하하하.(그러니까 이제도 어이구 얘네 먹이도 잘 먹네, 하면 나 돼집니까? 하면서 하하하.)

108019 @ 혹시 그 돗통 ᄀᆞ튼 경우에 돗통을 짓게 뒈면 방향이라든가, 부정타지 말렌 헤근에 뭐 뛰어 넘어라 라든가 그런 거 이섯수과? 돗통 뛰어넘기 ᄀᆞ튼 거 이섯수과?(혹시 그 돼지우리 같은 경우에 돼지우리 짓게 되면 방향이라든가, 부정 타지 말라고 해서 뭐 뛰어 넘어라 라든가 그런 거 있었습니까? 돼지우리 뛰어넘기 같은 거 있었습니까?)

108019 #6 뛰어넘기? 도새기가?(뛰어넘기? 돼지가?)

108019 @ 아니.(아니.)

108019 #6 사람?(사람?)

108019 @ 예.(예.)

108019 #6 아니, 그런 건 엇고. 여하튼 도새기 저, 돗통 방향이 막 가려근에 짓으렌 허주게. 아무디나 짓는 게 아니라.(아니, 그런 건 없고. 여하튼 돼지 저, 돼지우리 방향을 막 가려서 지으라고 하지. 아무데나 짓는 게 아니라.)

108019 @ 보통 어느 쪽에 집 중심에서 어느 쪽에 짓어낫수과?(보통 어느 쪽에 집 중심에서 어느 쪽에 지었습니까?)

108019 #6 집 뒤쪽으론 절대 못가.(집 뒤쪽으론 절대 못가.)

108019 @ 아.(아.)

108019 #6 또 바로 앞이도 안뒈고.(또 바로 앞에도 안 되고.)

108019 @ 앞이도 안 뒈고예?(앞에도 안 되고요?)

108019 #6 게난에 보통 보민은 서쪽도 잘 안가고 동쪽이. 서쪽이나 동쪽이나 방향 잘 봥 도새기 질루지. 것도 아무나 방향이 뭐허는 게 아니라.(그러니까 보통 보면 서쪽도 잘 안가고 동쪽에. 서쪽이나 동쪽이나 방향 잘 봐서 돼지 기르지. 것도 아무나 방향이 뭐하는 게 아니라.)

108019 #7 사름 ᄀᆞ트민 이것이 집이 저레 돌아앉으난에, 집 돌아아진 우쪽으론 안가.(사름 같으면 이것이 집이 저리로 돌아앉으니까, 집 돌아앉은 위쪽으론 안가.)

108019 #6 겐디 그것도.(그런데 그것도.)

108019 @ 영 돌아안지면?(이렇게 돌아앉으면?)

108019 #7 우론 안 가. 왼쪽으로 가는 거주.(위로는 안 가. 왼쪽으로 가는 거주.)

108019 #6 우쪽으론 집 두쪽으론 안가. 앞쪽으론 옆으로. 두우로도 직통으로도 안가고.(위쪽으론 집 뒤쪽으론 안가. 앞쪽으론 옆으로. 뒤로도 직통으로도 안가고.)

108019 #7 우이로도 안 가곡 직통으로도 안 가곡, 그난에 약한 디로 서쪽에. 위로도 안 가고 직통으로도 안 가고, 그러니까 약한 디로 서쪽에.)

108019 @ 무사 경헤신고예?(왜 그렇게 했을까요?)

108019 #6 것도 몰르주. 것도 뭐 거도 게난에 집에 방향에 따라가지고 아마 뭐가 잘 확실한 건 모르주마는 나도 이런 아멩헤도 집의 위치가 그디 아지민 안 좋은 뭐니깐 그렇게 허는 거주게.(그것도 모르지. 그것도 뭐 그것도 그러니까 집에 방향에 따라가지고 아마 뭐가 잘 확실한 건 모르지만 나도 이런 아무래도 집의 위치가 거기 앉으면 안 좋은 뭐니깐 그렇게 하는 거지.)

108019 #7 우리 집인 영 돌아안지난에 돗통은 저 쪽에.(우리 집은 이렇게 돌아앉으니까 돼지우리는 저 쪽에.)

108019 #6 겐디 그 돗통을 만들 때 그 지관, 지관이 와근에 문 ᄀᆞᆯ아주주게.(그런데 그 돼지우리를 만들 때 그 지관, 지관이 와서 모두 말해주지.)

108019 @ 아, 돗통이.(아, 돼지우리.)

108019 #6 어, 돗통, 돗통이랑 방향은 어느 쪽에 영 어디 강 멘들라, 그디 가민 안 좋다, 무시거 허주게.(어, 돼지우리, 돼지우리랑 방향은 어느 쪽에 이렇게 어디 가서 만들어라, 거기 가면 안 좋다, 뭐 하지.)

108019 #7 어드레 돌아아장 소벤대벤 멋 ᄒᆞᆯ 땐 돌아아지라.(어디에 돌아앉아 소변대변 뭐 할 땐 돌아앉으라.)

108019 @ 음.(음.)

108019 #6 확실히 못허민 또 옛날에 저 무시거니 점지레, 점지레 가근에, 우리 이만저만 허는디 우리 집을 짓으는디 돗통을 어디레 어느 방향으로 아지쿠양? 허민, 심방, 점쟁이들이 그 방향을 딱 ᄀᆞᆯ아줘. 만약 우리 ᄆᆞᆷ대로 돗통을 멘들아근에 ᄒᆞ민은 무신 탈나민은 아이고 우리 어디 돗통 허민은, 점지레 가민은 돗통 어디 지섯구나양? 허민은 예, 허민은 아이고 그디 그 쌀방이여, 무시거여, 막 ᄀᆞᆮ주게.(확실히 못하면 또 옛날에 저 뭐지 점 보러, 점 보러 가서, 우리 이만저만 하는데 우리 집을 짓는데 돼지우리를 어디에 어느 방향으로 앉힐까요? 하면, 무당, 점쟁이들이 그 방향을 딱 말해줘. 만약 우리 마음대로 돼지우리를 만들어서 하면 무슨 탈나면 아이고 우리 어디 돼지우리 하면, 점 보러 가면 돼지우리 어디 지었구나? 하면 예, 하면 아이고 거기 그 살 방향이여, 뭐여, 막 말하지.)

108019 @ 아.(아.)

108019 #6 어, 경헨에 그디를 짓이민 사름이 어떵ᄒᆞ고, 사람이 빨리 죽곡, 동티나곡 허니까 그런 거 방향을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니엔 헤근에 방향을 ᄀᆞᆯ아주주게.(어, 그렇게 해서 거기를 지으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사람이 빨리 죽고, 동티나고 허니까 그런 거 방향을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방향을 말해주지.)

108019 @ 가시담이 뭐꽈? 가시담, 사름 다치지 못허게시리.(가시 돌담이 뭡니까? 가시 돌담, 사람 다치지 못하게끔.)

108019 #6 아 가싯땀? 쉐 안들게시리. 사름 다치지 못허게시리.(아 가시 돌담?

소 안들게끔. 사람 다치지 못하게끔.)

108019 @ 거믄, 돗통 옆에다가 가시담을 쌓앗수과?(그러면, 돼지우리 옆에다가 가시 돌담을 쌓았습니까?)

108019 #6 아니. 어, 그거는 저 도새기영 사나운 뒈지들은 돌 다왕 나두민 막 입으로 클어도근에 도망 가불 거주게. 게난 그걸 이 주뎅이로 가시 막 찔러불게시리 가시낭드레 강 돌로 나무덜 박아근에 돌담 쌓안 또 그거 바깟들로 그거 또 멘들아근에 그 가시를 싸는 거라 도망가지 못하게시리.(아니. 어, 그거는 저 돼지랑 사나운 돼지들은 돌담 쌓아서 나두면 막 입으로 헝클어서 도망 가버릴 거지. 그러니 그걸 이 주둥이로 가시 막 찔러버리게끔 가시나무에 가서 돌로 나무를 박아서 돌담 쌓아 또 그거 바깥으로 그거 또 만들어서 그 가시를 싸는 거라 도망가지 못하게끔.)

108019 @ 그 가시는 어떤 가시낭 이름은 뭐엿수과?(그 가시는 어떤 가시나무 이름은 뭐였습니까?)

108019 #6 가시? 저 귓가시낭.(가시? 저 꾸지뽕나무.)

108019 @ 귓가시낭마씨?(꾸지뽕나무요?)

108019 #6 귓가시낭 가시 이만썩 헌 것덜 옛날에. 이젠 귓가시가 비싸는 모양이라. 어룬 모양이라. 약재에 쓰젠 ᄒᆞ민은.(꾸지뽕나무 가시 이만씩 한 것들 옛날에. 이젠 꾸지뽕나무가 비싼 모양이야. 어려운 모양이야. 약재에 쓰려고 하면.)

108019 @ 아, 게민 귓가시낭이 저 꾸지뽕인가?(아, 그러면 귓가시낭이 저 꾸지뽕나무인가?)

108019 #6 ?(?)

108019 @ 꾸지뽕.(꾸지뽕나무.)

108019 #6 몰라. 꾸지뽕이엔 헤신가?(몰라. 꾸지뽕나무엔 했는가?)

108019 @ 혹시 뿔리가 황금색 노랑 거?(혹시 뿌리가 황금색 노랑 거?)

108019 #6 어 맞아. 그것이 이제는 그 나무가 엇어 원. 문 약으로 풀아부니깐 이제는 그 낭 ᄒᆞ나 구ᄒᆞ젠 ᄒᆞ민은 멧 십만 원 줘도 없어.(어 맞아. 그것이 이제는 그 나무가 없어 원. 모두 약으로 팔아버리니까 이제는 그 나무 하나 구하려 하면 몇 십만 원 줘도 없어.)

108019 @ 아 돗통 옆에는 귓가시낭 심어낫수과?(아 돼지우리 옆에는 꾸지뽕나무 심었습니까?)

108019 #6 응, 하낫주 그 낭들이. 요디만 나가도 문 밋밋 이서낫주. 게민 바당에 가근에 ᄀᆞ메기 잡앙 오다근에 그 귓가시낭 귓가시 꺼껑 와근에 ᄀᆞ메기 ᄋᆞ라낫주.(응, 많았지 그 나무들이. 요기만 나가도 모두 넘치게 있어났지. 그러면 바다에 가서 개울타리고둥 잡아서 오다가 그 꾸지뽕나무가시 꺾어 와서 개울타리고둥 열어났지.)

108019 @ 귓가시로예?(꾸지뽕나무가시로요?)

108019 #6 아, 이제는 그 나무가 그렇게 힘들어.(아, 이제는 그 나무가 그렇게 힘들어.)

108019 #7 저, 서레 가민 이서.(저, 서쪽으로 가면 있어.)

108019 #6 엇어. 그 나무가 이제 돈이 멧 십만 원 가는 줄 아나?(없어. 그 나무가 이제 돈이 몇 십만 원 가는 줄 아나?)

108019 #7 그 이십년 전이 마눙 메레 갈 때 이서난 거난.(그 이십년 전에 마늘 뽑으러 갈 때 있었던 거니까.)

108019 #6 뿌리가 노랑 ᄒᆞ주게.(뿌리가 노랑 하지.)

108019 #7 예게, 노랑허여.(예. 노랑 해.)

108019 @ 맞수다.(맞수다.)

108019 #6 이 요번이도 아잔 그 진우회장네영 아잔 그 말 ᄀᆞᆯ으멍이? 그 낭이 볼목리 어디 ᄒᆞ나 이신 모냥이라. 그난 곱전, 알민 파 가불카부덴이? 메날 그거 원[162].(이 요번에도 앉아서 그 진우회장네 하고 앉아서 그 말, 말하며? 그 나무가 보목리 어디 하나 있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숨겨서, 알면 파서 가버릴까 봐? 매일 그거 '원'.)

108019 #7 아이구 세상에 원.(아이구 세상에 '원'.)

108019 #6 그 약이 그 암 ᄀᆞ튼 거 무신 거 그런 거 그 딸령 먹으민 그렇게 좋덴.(그 약이 그 암 같은 거 무슨 거 그런 거 그 달려서 먹으면 그렇게 좋대.)

108019 #7 귓가시낭.(꾸지뽕나무.)

108019 @ 그 돗통에다가 놓는 돌 이름이 두들팡?(그 돼지우리에 놓는 돌 이름이 부춘돌?)

108019 6# , 두들팡.(, 부춘돌.)

108019 @ 두둘팡예?(부춘돌이요?)

108019 #6 돌 쭉 긴 것덜 잇거 놓고.(돌 쭉 긴 것들 엮어 놓고.)

108019 #7 멘짝ᄒᆞᆫ 것덜.(평평한 것들.)

108021 @ 그다음에는 그 누가 이렇게 와 가면 지금 돗통에 잇덴 헤가지고 신호를 보내낫잖아예? 그건 어떵 헤낫수과?(그다음에는 그 누가 이렇게 와 가면 지금 돼지우리에 있다고 해서 신호를 보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108021 #6 돗통?(돼지우리?)

108019 @ 예.(예.)

108019 #6 아잇, 저 오민은게 저 돗통이 어딧수과? 영 ᄒᆞ주게. 게민 어디잇젠 가르처 주는 거.(아잇, 저 오면 저 돼지우리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그러면 어디 있다고 가리켜주는 거.)

108021 @ 아니, 저 돗통에 강 일보는데 누가 와 가면 뭐렌 ᄀᆞᆯ아마씨? 기냥 나 여기 잇저, 안 헤근에 뭔가 신호를 보내실 거 아니꽈예?(아니, 저 돼지우리에 가서 일보는데 누가 와 가면 뭐라고 말하지요? 그냥 나 여기 있어, 안 해서 뭔가 신호를 보냈을 거 아닙니까?)

108021 #6 아 무시거 사람 잇저, 무시거 잇저 영 허주.(아 뭐 사람 있어, 뭐 있

162)'원'은 뜻밖의 일에나 놀라울 때, 언짢을 때 따위에 느꺼워 하는 말이다.

어 이렇게 하지.)

108021 #7 경 바쁘게 가는 디가 서? 어디? 몰라 하하하.(그렇게 바쁘게 가는 데가 있어? 어디? 몰라 하하하.)

108021 #6 겨곡 저 사름 안 붸게시리 가마니 뛔기고, 저 무시거 멘들아근에 나무 영 세워근에 가리게시리 멘들어놧주게.(그리고 저 사람 안 보이게끔 가마니 떼기고, 저 뭐 만들어서 나무 이렇게 세워서 가리게끔 만들어났지.)

108021 @ 기지예? 그걸 이름을 뭐렌 헨지 모르고예?(그렇지요? 그걸 이름을 뭐라고 한지 모르고요?)

108021 #7 몰라, 건.(몰라 그건.)

108021 @ 옛날엔 돗통에 저 지금이야 화장실에 휴지 잇주마는 옛날엔 뭐 이서낫수과?(옛날엔 돼지우리에 저 지금이야 화장실에 휴지 있지만 옛날엔 뭐 있었습니까?)

108021 #7 보리찍.(보릿짚.)

108021 #6 보리찝, 조찝.(보릿짚, 조짚.)

108021 #7 조찍으론 아녀서.(조짚으론 안 했어.)

108021 #6 조찍으로 아이구 그 똥꼬망 ᄉᆞ뭇 보리찍도 ᄒᆞ곡.(조짚으로 아이구 그 똥구멍 사뭇 보릿짚도 하고.)

108021 #7 조찍으론 아녓수다게. 우린 산듸찍으로.(조짚으론 안했습니다. 우린 밭볏짚으로.)

108021 #6 보리찍도 ᄒᆞ곡 나룩찍도 어시민 그걸로 헤낫주게.(보릿짚도 하고 밭볏짚도 없으면 그걸로 했었지.)

108021 @ 그걸 화장실에 쌓아놔마씨?(그걸 화장실에 쌓아놔요?)

108021 #6 , 영 옆에 무끈 차, 지들팡 옆에 세왕 네불주게. 게민 앉아근에 대변 다 봐나민 그거 영 빠근에 영 꼬부려근에 영 쓸어낫주. 하하하하.(, 이렇게 옆에 묶은 채, 부춘돌 옆에 세워서 내버리지. 그러면 앉아서 대변 다 봐나면 그거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쓸어났지, 하하하하.)

108021 #6 조찍으로 ᄒᆞ민 또꼬망 긁어비영. 하하하.(조짚으로 하면 똥구멍 긁어버려, 하하하.)

108021 #7 아이, 조찍으론 안 헷수다게.(아이, 조짚으론 안 했습니다.)

108021 #6 조칩으론 그거 안 허여, 어시니깐 ᄒᆞ주.(조짚으론 그거 안 해, 없으니까 하지.)

108021 @ 보리찍이나 조찍으로 한덴 헤도 게민 설사 ᄀᆞ튼 거 나믄 어떵 헷수과?(보릿짚이나 조짚으로 한다고 해도 그러면 설사 같은 거 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108021 #7 어떵 헤게, 그걸로 문딱 허주게.(어떻게 해, 그걸로 모두 하지.)

108021 #6 설사 나고 무시거 ᄒᆞ민은 옷 다 벗엉 문 빨곡.(설사 나고 뭐 하면 옷 다 벗어서 모두 빨고.)

108022 @ 그민 이젠 돗통에서 넘어 가보게예?(그러면 이젠 돼지우리에서 넘어 가보게요?)

108022 #6 어.(어.)

108022 @ 옛날엔 헛간 이서낫잖아예?(옛날엔 헛간 있었잖아요?)

108022 #7 어, 헛간.(어, 헛간.)

108022 @ 옛날엔 헛간을 뭐렌 골앗수과 여기선.(옛날엔 헛간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선.)

108022 #7 헛간? 무시거라 헛간은 헛간이주.(헛간? 뭐라 헛간은 헛간이지.)

108022 #6 무시거렌 골아나긴 헤서.(뭐라고 말해나기는 했어.)

108022 #7 그건 몰르키여.(그건 모르겠네.)

108022 #6 거 무시거엔 골아나긴 헷저만은 오레가난 잊어비언 골아지크라?(그거 뭐라고 말해나긴 했다만 오래가니까 잊어버려서 말해지겠나?)

108022 @ 잊어불지말앙 고민 헤봅서양? 나중에 물어볼게예?(잊어버리지 말고 고민 해보세요? 나중에 물어볼 게요?)

108023 @ 주로 쉐나, 쉐 키웟겟주마는예? 웨양간을 뭐렌 골앗수과?(주로 소나, 소 키웠겠지요? 외양간을 뭐라 말했습니까?)

108023 #7 쉐왕.(외양간.)

108023 @ 쉐왕이엔예?(외양간요?)

108023 #7 쉐왕에 가라.(외양간에 가라.)

108023 #6 쉐멧는 디가 또루, 집 짓어낫시네.(소매는 데가 따로, 집 지었었네.)

108023 #7 쉐메는 디게 요디게 요 동카름에.(소매는 데가 요기. 요 동쪽동네에.)

108023 #6 거 뭐 확실히 모르는 건 쪽지에 적으민 나, 노인회관에 놀멍 거 뭐 헌 사름들신디 들민은 재미지게 골거라.(거 뭐 확실히 모르는 건 쪽지에 적으면 나, 노인회관에 놀면서 거 뭐 한 사람들에게 들어보면 재미있게 말할 거야.)

108023 @ 맞아예?(맞아요.)

108023 #6 음.(음.)

108024 @ 그다음엔 장항아리 놓아난 디를 뭐렌 골앗수과?(그다음엔 장항아리 놓아난 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108024 #6 어?(어?)

108024 @ 장항아리 놓아난 디.(장항아리 놓아난 데.)

108024 #6 장항 놓는 디?(장항 놓는 데?)

108024 @ 예.(예.)

108024 #6 장독.(장독.)

108024 #7 장독은 이제사 나온 말이주. 장항 놓는 디 무시거렌 안 골앗주. 기자 두에 장항 이신 디여, 무시거여.(장독은 이제야 나온 말이지. 장항 놓는 데 뭐라고 안 말했지. 그저 뒤에 장항 있는 데야, 뭐야.)

108024 #6 아니, 것도 다 무시거 골아나실 거라. 거 노인정에 강 회장네영 안지

면은 엿날 말들 골으멍 막 웃어나긴 헤난디. 잘덜 아는디.(아니, 그것도 다 뭐 말해 났을 거야. 거 노인정에 가서 회장 네랑 앉으면 옛날 말들 말하며 막 웃어나긴 했는데. 잘들 아는데.)

108024 #7 장항 놓는 디 몰르키여.(장항 놓는 데 모르겠네.)

108024 @ 저가 별표 영 헤놧당 어른덜 막 하영 모영 이실 때 나중에 가가지고 다시 여쭤보쿠다. 여쭤봐가지고 하게예.(저가 별표 이렇게 해놨다가 어른들 매우 많이 모여 있을 때 나중에 가가지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봐서 해요.)

108024 #6 응.(응.)

108024 #6 겐디 저끄디 영 이서시민은 술 먹으멍 노인들 아장 놀 때는, 뭐헌 어른덜 아지민은 옛날 그 허는 말들 골아가민은 게난 다 나오게 마련이주게이.(그런데 곁에 이렇게 있었으면 술 먹으면서 노인들 앉아서 놀 때는, 뭐한 어른들 앉으면 옛날 그 하는 말들 말해가면 그러니까 다 나오게 마련이지.)

108024 @ 게난 언제?(그러니까 언제?)

108024 #6 아니, 요즘도 메날 아장덜 술덜 먹곡 헤근에 뭐 장난말들도 곧곡 뭐 허곡 경 허는디.(아니, 요즘도 매일 앉아서들 술들 먹고 해서 뭐 장난말들도 말하고 뭐하고 그렇게 하는데.)

108024 @ 예.(예.)

108024 #6 아지민 허긴 헐 말들이 하영 나오긴 나올 거라.(앉으면 하긴 할 말들이 많이 나오긴 나올 거야.)

108024 @ 게난예?(그러게요?)

108024 #6 겐디 그 시간을 보통 오전에는 잘 아뇨고 오후에 왕덜 노는디.(그런데 그 시간을 보통 오전에는 잘 안 오고 오후에 와서 노는데.)

108024 @ 예.(예.)

108024 #6 게, 어떤 때는 술덜 먹엉 뭐헐 때는 잘 오곡 어떨 때는 안 오곡 허주게.(그래, 어떤 때는 술들 먹어서 뭐할 때는 잘 오고 어떨 때는 안 오고하지.)

108024 @ 예.(예.)

108024 #6 게난 메날 모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게 문제주게.(그러니까 매일 모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게 문제지.)

108024 @ 모여질 때 제가 와질 지도 모르고예?(모여질 때 제가 올수 있을 지도 모르고요?)

108024 #6 에, 글쎄 말이여.(에, 글쎄 말이야.)

108025 @ 그다음엔 춤항[163]이렌 헌말 헤낫수과?(그다음엔 '춤항'이렌 한 말 했었습니까?)

108025 #6 어?(어?)

108025 @ 춤항.('춤항')

108025 #7 춤 바트는 항?(춤 받는 항?)

163) '춤항'은 '춤'을 타고 내려온 이슬 따위를 받아 담는 항아리를 말한다.

108025 @ 예.(예.)

108025 #6 춤? 저 비올 때.(‘춤’? 저 비올 때.)

108025 @ 비올 때 물 받으는 거.(비올 때 물 받는 것.)

108025 #6 으, 으.(으, 으.)

108025 @ 그걸 춤항이렌 헷수과?(그걸 ‘춤항’이라고 했습니까?)

108025 #7 저 비올 때?(저 비올 때?)

108025 @ 예.(예.)

108025 #7 큰 나무에 새, 새 영 헹 영 무꺼근에 나무에 돌아메영.(큰 나무에 띠, 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서 나무에 달아매어.)

108025 @ 그거 무슨 나무에 돌아메낫수과?(그거 무슨 나무에 달아맸습니까?)

108025 #6 돔박나무에. 젤 깨끗헌 것이 돔박나무.(동백나무에. 제일 깨끗한 것이 동백나무.)

108025 @ 예, 맞아. 돔박나무에예?(예, 맞아. 동백나무에요?)

108025 #6 나무에 얼싸헤근에 무끄주게. 비가 이렇게 내리민 나무로 쭐쭐 내리는 거라. 게민 그 물을 항들에 ᄂᆞ려가주게.(나무에 둘러싸서 묶지. 비가 이렇게 내리면 나무로 줄줄 내리는 거야. 그러면 그 물을 항들에 내려가지.)

108025 @ 그걸 볼목리에서는 뭐렌 골앗수과?(그걸 보목리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108025 #7 볼목리에서? 춤 밭으라.(보목리에서? ‘춤’ 받아라.)

108025 @ 춤 받으라마씨?(‘춤’ 받으라고요?)

108025 #6 춤 받으라.(‘춤 받으라.)

108025 #7 정술내[164] 물 못 저오민 춤 받앗당 먹주게 그거.(‘정술내’ 물 못 길고 오면 ‘춤’ 받았다가 먹지 그거.)

108025 @ 춤 받으는 항아리를 춤항?(춤 받는 항아리를 ‘춤항’?)

108025 #7 춤항.(‘춤항’.)

108025 @ 아! 이거 언젠간 학교에서 베워나긴 헷거든예?(아! 이거 언젠간 학교에서 배워나긴 했거든요?)

108025 #7 거벳긔 춤항이 서?(거밖에 ‘춤항’이 있어?)

108025 @ 이거 언젠간 학교에서 베워나긴 헷거든예?(이거 언젠간 학교에서 배워나긴 했거든요?)

108025 #7 춤 받으라 춤항.(‘춤’ 받으라 ‘춤항’.)

초가 지붕이기

108026 @ 그다음엔 아까 초가지붕, 이제 기신새 올린 다음에 이제 새촐, 새허당 헷덴 헷잖아예?(그다음엔 아까 초가지붕, 이제 묵은 띠 올린 다음에 이제 새 띠, 띠

164) ‘정술내’는 보목리 마을 가운데 있는 내를 말한다. 보목동 중심을 흐르는 내로 보목동 1121~3번지에서 보목동 571번지까지를 말한다.

하다가 했다고 했잖아요?)

108026 #6 겐디 그 저 기신새가 족으민은?(그런데 그 저 묵은 띠가 작으면?)

108026 @ 예.(예.)

108026 #6 보리찍도 올려근에 그 조금 두둑히 놓주게이?(보릿짚도 올려서 그 조금 두둑하게 놓지?)

108026 @ 예.(예.)

108026 #6 게난, 나룩찍도허곡 보리찍도 허곡, 조찍도 올리곡 허주게. 게난, 그런 거 기신새가 놓다근에, 집을 경사지게 해야 비가 내릴 거 아니?(그러니까, 밭볏짚도하고 보릿짚도 하고, 조짚도 올리고 하지. 그러니까, 그런 거 묵은 띠가 놓다가, 집을 경사지게 해야 비가 내릴 거 아니?)

108026 @ 예.(예.)

108026 #6 게난, 가슨사리엔 쪼곰썩허고, 우트레 갈수록 뚜껍게 놓주. 경허민은 재료가 모자리민 이제 그것도 갖다놓곡, 저것도 갖다놓곡 메꾸는 거라.(그러니까, 가장자리에는 쪼금씩하고, 위로 갈수록 두껍게 놓지. 그러면 재료가 모자라면 이제 그것도 갖다놓고, 저것도 갖다놓고 메꾸는 거라.)

108026 @ 경허난 지붕이 영 뒈는 구나예?(그렇게 하니까 지붕이 이렇게 되는 군요?)

108026 #6 둥그렇게 비가 오민은 내리게크름 만드는 거주게.(둥그렇게 비가 오면 내리게끔 만드는 거지.)

108026 @ 예.(예.)

108026 #6 게난 기신세가 흑에 달라붙으는 그런 뭣도 것도 잇주마는,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근에, 찝 기신새가 채 덜 썩은 거.(그러니까 묵은 띠가 흙에 달라붙는 그런 무엇도 것도 있지만,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서, 짚 묵은 띠가 채 덜 썩은 거.)

108026 @ 예.(예.)

108026 #6 찝이 속에서 파내면은 덜 썩은 것들이 나오주게. 그런 것들은 무껏다근에 이 집을 만약 뭐 헌덴 ᄒᆞ민은 집 지을 사름덜 그걸 가근에 믄 저, ᄀᆞ치 일헤근에 집이 갓당 나두는 거라.(짚이 속에서 파내면 덜 썩은 것들이 나오지. 그런 것들은 묶었다가 이 집을 만약 뭐 한다고 하면 집 지을 사람들 그걸 가서 모두 져, 같이 일해서 집에 갔다가 나두는 거야.)

108026 @ 이제 그추룩 헤가지고 그거 몇 년에 한번 찝을 갈아낫수과?(이제 그처럼 해가지고 그거 몇 년에 한번 짚을 갈았습니까?)

108026 #6 보통이? 이 년에 ᄒᆞᆫ 번, 일 년에 ᄒᆞᆫ 번.(보통? 이 년에 한 번, 일 년에 한 번.)

108026 #7 일 년에 ᄒᆞᆫ 번.(일 년에 ᄒᆞᆫ 번.)

108026 #6 어, 일 년에 ᄒᆞᆫ 번씩 헤사. 이제 막 길어사 이년에 ᄒᆞᆫ 번. 기자 일 년에 ᄒᆞᆫ 번.(어, 일 년에 한 번씩 해야. 이제 막 길어야 이 년에 한 번. 그저 일 년에

한 번.)

108026 @ 게면 그 항상 집을 그 새로 새 바꿀 때 마다 속에 이신 기신새는 꺼내불고?(그러면 그 항상 집을 그 새로 띠 바꿀 때 마다 속에 있는 묵은 띠는 꺼내버리고?)

108026 #6 아니, 아니. 안 꺼네여. 꺼네민 안 뒈여. 이만큼 뚜껍게.(아니, 아니. 안 꺼내. 꺼내면 안 돼. 이만큼 두껍게.)

108026 @ 게믄 새로 새 바꿀 때도 계속 그대로 둡니까?(그러면 새로 띠 바꿀 때도 계속 그대로 둡니까?)

108026 #7 응, 경허당 집 틀어불 경우에.(응, 그렇게 하다가 집 뜯어버릴 경우에.)

108026 @ 새로 새를 바꿀 때도 그냥 둡니까?(새로 띠를 바꿀 때도 그냥 둡니까?)

108026 #7 너무 많여 가민은 짚을 걷어불기도 허여.(너무 많아 가면 짚을 걷어버리기도 해.)

108026 @ 게민 걷어불기 전에 새로 이을 땐 이신지붕에다가 또 올리고.(그러면 걷어버리기 전에 새로 이을 땐 있는 지붕에다가 또 올리고.)

108026 #6 응, 또 올리곡.(응, 또 올리고.)

108026 @ 경허당 너무 많아지민 더러 걷어버리는데 속에 꺼 걷는 건 아니고예?(그러다가 너무 많아지면 더러 걷어버리는데 속에 거 걷는 건 아니고요?)

108026 #6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8026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8026 #6 응, 응. 속에 꺼 건드려 가민은 집이 병나비어 안 뒈여.(응, 응. 속에 거 건드려 가면 집이 병나버려 안 돼.)

108026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8026 #6 물이 스며들어.(물이 스며들어.)

108026 #7 굼벵이 일국 하하하.(굼벵이 일고 하하하.)

108027 @ 각단[165]은 무시거꽈?('각단'은 뭡니까?)

108027 #6 줄 놓는 거.(줄 놓는 거.)

108027 #7 새 쫄른 거, 새 쫄른 거. 새는 길고.(띠 짧은 거, 띠 짧은 거. 띠는 길고.)

108027 @ 예.(예.)

108027 #7 쯔른 건 각단.(짧은 건 '각단'.)

108027 @ 아.(아.)

108027 #6 새 긴 거는 집 우에 더프고 쫄른 거는 줄 이 집 이 무끄는 줄게, 줄.(띠 긴 거는 집 위에 덮고 짧은 거는 줄 이 집 이 묶는 줄, 줄.)

108027 #7 줄 놓는 거.(줄 놓는 거.)

165) '각단'은 굵은 줄을 드리는 데 쓰는 짧은 띠를 말한다.

108027 @ 무끄는 거.(묶는 거.)

108027 #6 그 각단으로 줄 멘드는 거. 각단으로 놓는 거.(그 '각단'으로 줄 만드는 거. '각단'으로 놓는 거.)

108028 @ 그러면 집 줄은 뭐렌 걸읍니까?(그러면 집 줄은 뭐라고 말합니까?)

108028 #7 줄게, 기자 줄.(줄, 그저 줄.)

108028 @ 줄? 그냥 줄이렌 헙니까?(줄? 그냥 줄이라고 합니까?)

108028 #7 집 일 땐 기자 줄 노라.(집 이을 땐 그저 줄 노라.)

108028 #6 줄 노라, 줄 노레가게.(줄 놓으라, 줄 놓으러가자.)

108028 @ 긴 줄을 무신거렌 헤낫수과?(긴 줄을 뭐라고 했습니까?)

108028 #7 호렝이[166]. 그 영 영.(호렝이. 그 이렇게 이렇게.)

108028 #6 아니, 그거는 저 멘드는 거고.(아니, 그거는 저 만드는 것이고.)

108028 @ 호렝이로 줄 놀 때 , 이제 긴 줄이 잇고 짧은 줄이 잇잖아예?('호렝이'로 줄 놀 때, 이제 긴 줄이 있고 짧은 줄이 있잖아요?)

108028 #6 어, 어.(어, 어.)

108028 @ 그, 긴 줄을 뭐렌 걸앗수과?(그, 긴 줄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108028 #7 건, 기자 건 쫄른 줄.(그건, 그저 그건 짧은 줄.)

108028 #6 아니, 아니. 상ᄆᆞ르[167] 저, 무신 줄 무신 줄 걸아나실 거라.(아니, 아니. '상ᄆᆞ르' 저, 무슨 줄 무슨 줄 말했을 거야.)

108028 #7 긴 줄은 상ᄆᆞ르에 놓곡게 쫄른 줄은.(긴 줄은 '상ᄆᆞ르'에 놓고 짧은 줄은.)

108028 #6 아이 게메, 일름 이서.(아이 그러게, 이름 있어.)

108028 #7 긴 줄은 영 길루.(긴 줄은 이렇게 길로.)

108028 #6 오게, 기여.(그래, 그래.)

108028 #7 쫄른 줄은 ᄀᆞ루.(짧은 줄은 가로.)

108028 #6 아, 게메 그건 아는디이? 줄이 무신 줄 올리라, 무신 줄 올리라 헤낫주게.(아, 그러게 그건 아는데? 줄이 무슨 줄 올려라, 무슨 줄 올려라 했었지.)

108028 #7 아, 긴 줄 올리라 쫄른 줄 올리라, 난 몰라.(아, 긴 줄 올려라, 짧은 줄 오려라, 난 몰라.)

108028 @ 긴, 옛날에 길다라는 말 써낫수과 진 줄이렌 헤낫수과?(긴, 옛날에 '길다'라는 말 썼습니까? 진 줄이라고 했습니까?)

108028 #7 진, 진.(진, 진.)

108028 @ 진 줄?(진 줄?)

108028 #6 진 줄, 진 줄.(진 줄, 진 줄.)

108028 @ 진?(진?)

108028 #7 진, 진 진 헌 거. 진 진 헌 거.(진, 진 진 한 거. 진 진 한 거.)

---

166) '호렝이'는 집줄 따위를 뒤트는 기구를 말한다. = 호롱이, 훼롱, 훼롱이, 줄, 참바.

167) '상ᄆᆞ르'는 용마루에서 가장 높은 곳을 말한다. = 상ᄆᆞ를, 상ᄆᆞᄅᆞ.

108028 @ 짧은 건?(짧은 건?)

108028 #7 쫄른 줄.(짧은 줄.)

108028 @ 쫄른 줄예?(짧은 줄이요?)

108028 #6 어, 쫄른 줄. 쫄른 줄 올리라, 진 줄 올리라. 진 거, 진 진헌 거.(어, 짧은 줄. 짧은 줄 올려라, 긴 줄 올려라. 긴 거, 긴 긴한 거.)

108028 @ 영 영 허는 건 호렝이고예?(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 '호렝이'고요?)

108028 #6 어, 어.(어, 어.)

108028 #7 거, 뒤치는 건 몰르키여.(거, 뒤치는 건 모르겠어.)

108028 @ 뒤치는 건 뭐렌 헤낫수과?(뒤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108028 #7 것이 몰르키여.(그것이 모르겠어.)

108028 @ 뒤치기[168]렌 헤신디예. 여기선 뭐렌 골아신고예?('뒤치기'라고 했는데요. 여기선 뭐라고 말했을까요?)

108028 #7 뭐 이서. 뭐엔 골아서.(뭐 있어. 뭐라고 말했어.)

108028 #6 거, 영 삼각형 된 거 잇주게. 게민 그거 영 두이서도 호렝허고, 앞이서도 영 꽈멍.(그거, 이렇게 삼각형 된 거 있지. 그러면 그거 이렇게 뒤에서도 '호렝'하고, 앞에서도 이렇게 꼬으면서.)

108030 @ 게민예 평고대는 뭐꽈?(그러면 평고대는 뭡니까?)

108030 #6 평고대? 집 우에 젤 우에를 말하는 거 아닌가?(평고대? 집 위에 제일 위를 말하는 거 아닌가?)

108030 @ 대나무나 긴 막뎅이나, 그런 철사나 그런 걸로 쓰는 거렌 헤신디다가, 평고대가 지붕 일 때 쓰는 건데 뭐꽈?(대나무나 긴 막대나, 그런 철사나 그런 걸로 쓰는 거라고 했는데, 평고대가 지붕 일 때 쓰는 건데 뭡니까?)

108030 #6 집, 집 저 그 상ᄆᆞ르 젤 진진허게시리 저 헐 때 저 서실[169] 낭 서실, 서실헐 때 말 허는 거 아닌가?(집, 집 저 그 '상ᄆᆞ르' 제일 길게 저 할 때 저 '서실' 나무 '서실', '서실'할 때 말 하는 거 아닌가?)

108030 #7 서리 걸칠 때 허는 거 아니꽈?('서리' 걸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108030 @ 서리 걸칠 때마씸? 아니믄 서실헐 때?('서리' 걸칠 때요? 아니면 '서실'할 때?)

108030 #6 서실헐 때, 서실헐 때.('서실'할 때, '서실'할 때.)

108030 @ 서실 헐 때예? 서실 헐 때 쓰는 나무는 뭘로 헷수과?('서실' 할 때요? '서실' 할 때 쓰는 나무는 뭐로 했습니까?)

108030 #6 나무?(나무?)

108030 @ 예.(예.)

108030 #6 대나무 보통 대나무로 헷주, 썩지 잘 아녀고.(대나무 보통 대나무로 했지, 썩지 잘 안하고.)

---

168) '뒤치기'는 두 가닥의 집줄을 하나로 만들 때, 뒤에서 돌리는 기구를 말한다.

169) '서실'은 지붕을 이기 위해 서까래 위에 가로로 걸치는 나뭇가지를 말한다. = 서슬

108030 @ 아, 기꽈? 게민 서실 헐 때 맞수다. 대나무인 거보난.(아, 그래요? 그러면 '서실' 할 때 맞습니다. 대나무인 거보니까.)

108030 #6 대나무 엇어서 다른 나무 헷주. 보통 대나무덜로 많이 헷주게.(대나무 없어서 다른 나무 했지. 보통 대나무들로 많이 했지.)

108030 @ 음.(음.)

108030 #6 겐디 ,그거는 께민은 넙작넙작허주게. 게민, 또 우에 뭐 헐 때 서실 이어갈 때 막 편안헤여. 썩지도 아녀곡.(그런데, 그거는 쪼개면 넓적넓적하지. 그러면, 또 위에 뭐 할 때 '서실' 이어갈 때 막 편해. 썩지도 안하고.)

108030 @ 집줄 맬 때 그 집 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멧수과?(집줄 맬 때 그 집 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맸습니까?)

108030 #6 요 앞이서부터 저 두에.(요 앞에서부터 저 뒤에.)

108030 @ 그 앞에서 맬 때 뭐에 멧수과?(그 앞에서 맬 때 뭐에 맸습니까?)

108030 #6 멩담[170], 영 낭이 잇주게.('멩두암', 이렇게 나무가 있지.)

108030 #7 줄 매는 거 멩담, 서실목에.(줄 매는 거 평고대, '서실목'에.)

108030 #6 서실에 영 ᄒᆞ나썩 박아. 쭉 허게.('서실'에 이렇게 하나씩 박아. 쭉 하게.)

108030 @ 아, 서실에.(아, 서실에.)

108030 #7 서실목엔가 서리목엔가.('서실목'엔가 '서리목'엔가.)

108030 #6 서실, 서실.('서실', '서실'.)

108030 #7 멩담, 하하하 나도 알아저.(평고대, 하하하 나도 알아.)

108030 @ 서실 끝을 멩담이렌 헷수과?('서실' 끝을 '평고대'라고 했습니까?)

108030 #6 , 그것이 멩담. 줄 매는 것이 멩담. 줄 매는 것이, 졸라매는 디가.(, 그것이 평고대. 줄 매는 것이 평고대. 줄 매는 것이, 졸라매는 데가.)

108030 #7 줄을 매는 디가 멩담.(줄을 매는 디가 평고대.)

108030 @ 앞의 멩담, 두에 멩담?(앞의 평고대, 뒤에 평고대?)

108030 #6 어, 어 어. 동서로 돌아가멍 다 허주게 그건.(어, 어 어. 동서로 돌아가면서 다 하지 그건.)

108030 @ 아, 아.(아, 아.)

108030 #6 다 무끄는 거니까. 우에 무꺼야 뒈여.(다 묶는 거니까. 위에 묶어야 돼.)

108032 @ 게민, 그 집줄 다 매다근에 줄이 남을 거 아니꽈예?(그러면, 그 집줄 다 매다가 줄이 남을 거 아닙니까?)

108032 #6 응.(응.)

109030 @ 남으면 아까 그 정제방석도 만들고?(남으면 아까 그 부엌방석도 만들고?)

---

170) '멩담'은 멩두암의 지역 발음인 듯하다. 멩두암은 '거왕'을 말하며 처마 끝 서까래 아래에 이엉을 누르는 줄을 묶기 위한 장대를 말한다. = 멩두암, 벵두암.

109030 #6 방석도 만들고.(방석도 만들고.)

109030 @ 그다음 또 뭐헷수과?(그다음 또 뭐했습니까?)

108032 #6 아, 그자 나뒷당 또 필요헐 때 저 보리밧디.(아, 그저 뒀다가 또 필요할 때 저 보리밭에.)

108032 @ 예.(예.)

108032 #6 보리 거돠드릴 때 노롬지 눌 누러근에 ᄇᆞ름불리지 아녀게시리 그것도 영 헹 걸처근에, 양쪽으로 돌 돌아매근에 풀리지 아녀게시리.(보리 거둬드릴 때 낟가리 눌눌어서 바람불리지 않게끔 그것도 이렇게 해서 걸쳐서, 양쪽으로 돌 매달아서 풀리지 않게끔.)

108032 @ 아, 거기도 쓰고예?(아, 거기도 쓰고요?)

108032 #6 어, 그런 거 많이 썻주.(어, 그런 거 많이 썼지.)

108032 #7 줄을 하영 놔뒷주게. 세영 놓주게 줄두. 지붕이 꺼 세어근에.(줄을 많이 놓아두었지. 세어 놓지 줄도. 지붕에 것 세어서.)

108032 #6 어, 멧 개. 여유로 멘들엉 역불 놧두주게.(어, 몇 개. 여유로 만들어서 일부러 나두지.)

108032 @ 새는 어디강 구헤낫수과?(띠는 어디 가서 구했습니까?)

108032 #6 새? 자기 밧디들 다 잇주게, 새밧디.(띠? 자기 밭에 다 있지, 띠밭에.)

108032 @ 새를 갈앙마씨?(띠를 갈아서요?)

108032 #6 에, 게곡 사오기도 허곡.(예, 그리고 사오기도 하고.)

108032 @ 사오기도 허고.(사오기도 하고.)

108032 #7 옛날엔게 과수원 어실 때난 다 새밧디주게,(옛날엔 과수원 없을 때어서 다 띠밭이지.)

108032 #6 이, 옛날에는 보목리 쪽으론 새밧이 저 족주마는 이 토평 쪽으로는

거의가 그 지형이 넓으니까 그레는 ᄆᆞᆫ 새밧이주게.(이, 옛날에는 보목리 쪽으론 띠밭이 저 작지마는 이 토평 쪽으로는 거의가 그 지형이 넓으니까 그쪽에는 모두 띠밭이지.)

108032 #7 새 모두아다근에도 허곡.(띠 모아다가도 하고.)

108032 #6 각단[171]이나 새.('각단'이나 띠.)

연장

108033 @ 집 지슬 때 사용하는 연장들이 이서나지 아녀시쿠과예?(집 지을 때 사용하는 연장들이 있었잖습니까?)

108033 #6 연장?(연장?)

108033 @ 예. 집지슬 때 사용뒈는 연장예.(예. 집지을 때 사용되는 연장이요.)

108033 #6 목수 연장들이주.(목수 연장들이지.)

171) '각단'은 굵은 줄을 드리는 데 쓰는 짧은 띠를 말한다.

108033 @ 목수 연장들이잖아예? 행장들인데? 그 집지슬 때 톱은 어떤 톱을 썻수과?(목수 연장들이잖아요? 행장들인데? 그 집지을 때 톱은 어떤 톱을 썼습니까?)

108033 #6 톱?(톱?)

108033 @ 예.(예.)

108033 #7 거두[172]여, 베루여.('거도'여, 벼루여.)

108034 #6 거, 톱도 막 여러 가지 라.(거, 톱도 매우 여러 가지 라.)

108034 #7 톱이 읃라 가지주게. 자귀여, 귀자귀여.(톱이 여러 가지지. 자귀여, 귀자귀여.)

108034 #6 뭘 오리는 톱이 따로 잇고 이 즌즌한 나무 짜르는 거 잇곡. 톱 이름도 막 읃라 가지라.(뭘 오리는 톱이 따로 잇고 이 자질한 나무 자르는 거 있고. 톱 이름도 막 여러 가지야.)

108034 @ 게, 이름들을 아는 대로 굴아줍서.(그래, 이름들을 아는 대로 말해주세요.)

108034 #6 우리 목수 아니난 잘 몰르크라.(우리 목수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

108034 @ 하나도 모르쿠과?(하나도 모르겠습니까?)

108034 #7 자귀도 잇국, 하하하.(자귀도 있고, 하하하.)

108034 #6 자귀, 데페, 베루, 데페는 나무 영영 얄룹게 멘짝허게 가끄는 게 데페고, 자귀는 또 이 영영 거 큰 거 놀로 막 요만허게, 자귀 우리 집이 호나 잇주마는, 저 귀자기엔 흔 거는, 나무 베어오민은 사근에 이렇게 사 돌아서 큰 거 영 네모나게시리 영 착착 줄 놔근에 티와근에 손으로 쫙 가저 그걸로 깍가나민 나중에 데페는 멘짝허게 허는 거고.(자귀, 대패, 벼루, 대패는 나무 이렇게이렇게 얇게 매끈하게 깎는 게 대패고, 자귀는 또 이 이렇게이렇게 거 큰 것 날로 막 요만하게, 자귀 우리 집이 하나 있지만, 저 귀자기라고 한 거는, 나무 베어오면 서서 이렇게 서서 큰 거 이렇게 네모나게끔 이렇게 착착 줄 놓아서 띄워서 손으로 쫙 가져 그걸로 깎으면 나중에 대패는 매끈하게 하는 것이고.)

108035 @ 못 뽑는 건 뭐렌 굴앗수과?(못 뽑는 건 뭐라고 말했습니까?)

108035 #6 어?(어?)

108035 @ 못을 뽑는 거.(못을 뽑는 거.)

108035 #6 못빼기.(배척.)

108035 @ 그냥 못빼기마씨?(그냥 못빼기마씨?)

108035 #6 응.(응.)

108035 @ 배척이렌 말은 안 썻수과?(배척이렌 말은 안 썼습니까?)

108035 #6 배척이?(배척이?)

108036 @ 자, 이렇게 줄 그때는 뭘 어떵헷수과?(자, 이렇게 줄 그때는 뭘 어떻게 했습니까?)

108036 #6 먹통.(먹통.)

---

172) '거두'는 '거도'이다. 자루를 한쪽에만 박아 잡아당겨 켜는 톱을 말한다.

108036 @ 먹통, 먹줄마씨?(먹통, 먹줄이요?)

108036 #6 어.(어.)

108036 @ 그냥 먹통 먹줄이렌 헷수과?(그냥 먹통 먹줄이이라고 했습니까?)

108036 #6 어. 먹통, 먹통 아저오라.(어. 먹통, 먹통 가져와라.)

108036 @ 길이 재는 걸 먹통이여, 먹줄이여, 헷수과?(길이 재는 걸 먹통이야, 먹줄이야, 라고 했습니까?)

108036 #6 어. 그걸 나무로 파근에 그딜 이 솜 ᄀᆞ튼 거 놓아근에, 그디 먹 ᄀᆞᆯ아근에 물을 그디 비왕 나두는 거라. 게민 속으로 줄을, 실을 끈으로 헤근에 이 속으로 헤근에 쫙 뎅겨가민, 꾹 누뜰민 그 먹이 씰에다 부뜨주게.(어. 그걸 나무로 파서 거길 이 솜 같은 거 넣어서, 거기 먹 갈아서 물을 거기 비워 나두는 거야. 그러면 속으로 줄을, 실을 끈으로 해서 이 속으로 해서 쫙 당겨 가면, 꾹 누르면 그 먹이 실에다 붙지.)

108036 @ 무처 지민?(묻혀 지면?)

108036 #6 게민 저기 가근에 어디 꼿으라 ᄒᆞ민, 그걸 심어근에, 그걸 탁 텡구리민은 까만 걸로 탁 텡그려지주게.(그러면 저기 가서 어디 꼿이라 하면, 그걸 잡아서, 그걸 탁 튕기면 까만 걸로 탁 튕겨지지.)

108036 #7 경헹 먹통.(그렇게 해서 먹통.)

108036 @ 흑손이란 것도 이섯수과?(흙손이란 것도 있었습니까?)

108036 #6 응, 흑손. 흑질홀 때, 영 개벽헐 때 나무로.(응, 흙손. 흙질할 때, 이렇게 개벽할 때 나무로.)

108036 @ 예.(예.)

108035 #6 나무로 길게 그 이제 그 무시거 사깡들 허는 거 이서.(나무로 길게 그 이제 그 뭐 미장이들 하는 거 있어.)

108035 #7 나도 잊어빗저.(나도 잊어버렸어.)

108035 #6 그 나무로 멘든 흑손.(그 나무로 만든 흙손.)

108036 @ 흑받기는 뭐꽈?(흙받기는 뭡니까?)

108036 #6 어?(어?)

108036 @ 흑받기.(흙받기.)

108036 #6 응, 흑 발르는 거.(응, 흙 바르는 거.)

108036 @ 흑 받는 받기.(흙 받는 받기.)

108036 #6 아, 받는 널착, 널착이 거 무시거엔 일름을 잘 몰르켜.(아, 받는 널짝, 널짝이 거 뭐라고 이름을 잘 모르겠어.)

108036 #7 우녁 집이 잘 알건디. 목시난 들으민 이거 무시것고 저거 무시것고.(윗집이 잘 알건데. 목수니까 들면 이게 무엇이고 저게 무엇인지.)

108036 #6 아, 것도 옛날이엔 잊어빗저.(아, 것도 옛날이라고 잊어버렸어)

108036 @ 게민 혼 번 목수 그분예? 그분 혼 번 만나게 좀 헤줍서.(그러면 한 번 목수 그분이요? 그분 한 번 만나게 좀 해주세요.)

108036 #6 그 장화 잘 알 건가?(그 장화 잘 알 건가?)
108036 #7 아, 목신 걸 몰릅니까? 옛날 목시 아니난 요새 젊은 사름은 몰라.(아, 목수인 걸 모릅니까? 옛날 목수 아니어서 요새 젊은 사름은 몰라.)
108036 #6 여기 바로 우리 우녁 집 큰 목시여마는.(여기 바로 우리 윗집 큰 목수인데.)
108036 @ 성함이 어떵 뒘수과?(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108036 #6 이 장화.(이 장화.)
108036 @ 연세가 어떵 뒌마씸?(연세가 어떻게 되지요?)
108036 #6 지금?(지금?)
108036 @ 예.(예.)
108036 #6 혼 오십.(한 오십.)
108036 @ 목시는 그믄 옛날 도구 이름은 바꾸지 안 헤신가예?(목수는 그러면 옛날 도구 이름은 바꾸지 안 했을까요?)
108036 #7 하영 바꽛주.(많이 바꿨지.)
108036 #6 하영 바꽛주. 게도 잘 알 거라. 이제 혼 거의 육십 뒈지 안 헴신가?(많이 바꿨지. 그래도 잘 알 거야. 이제 한 거의 육십 되지 안 하나?)
108036 #7 육십 안 넘엄신가?(육십 안 넘었을까?)
108036 @ 육십 넘으민 연장 옛날 일름은 알 거 담수다예.(육십 넘으면 연장 옛날 이름은 알 것 같네요.)
108036 #6 어.(어.)

9. 신앙

109001 @ 지금 어디 교회나 뭐 다념수과?(지금 어디 교회나 뭐 다니고 있나요?)
109001 #6 아, 아니. 아직은 어디 안 다녀. 우리 아덜덜은 성당.(아, 아니. 아직은 어디 안 다녀. 우리 아들들은 성당.)
109001 @ 부처님도 안 믿고마씸?(부처님도 안 믿고요?)
109001 #6 어?(어?)
109001 #7 나?(나?)
109001 @ 예.(예.)
109001 #6 무사 열열헌 신도.(왜 열정적인 신도.)
109001 #7 나, 절간에 다니주.(나, 절간에 다니지.)
109001 #6 우리 아덜덜이 성당에 뎅겨.(우리 아들들은 성당에 다녀.)
109001 @ 어느 성당마씸?(어느 성당에요?)
109001 #6 아덜덜 여기 안 사난에, 막냉이만 제주시에 성당에 뎅기고.(아들들

여기 안 살아서, 막내만 제주시 성당에 다니고.)

109001 @ 게믄예? 삼춘네 집에서 모시는 신은 엇수과?(그러면요? 삼촌네는 집에서 모시는 신은 없습니까?)

109001 #6 신?(신?)

109001 @ 예.(예.)

109001 #6 에, 엇어.(예, 없어.)

109001 @ 엇수과? 옛날에는 신덜 막 집에 ᄒᆞ나씩.(없습니까? 옛날에는 신들 막 집에 하나씩.)

109001 #6 어, 어. 집에덜 이서나서. 도체비구신이여, 뭣덜 막 모셔낫주게.(어, 어. 집에 있어났어. 도깨비귀신이여, 뭣들 막 모셔났지.)

109001 #7 어디 도체비구신이여?(어디 도깨비귀신이여?)

109001 #6 우린 안 헤나도.(우리는 안 해나도.)

109001 #7 아, 아아아.(아, 아아아.)

109001 #6 아, 이 무신 거 창남이네 그 이디덜은 벨도로 거 무신 저 무시거 주뎅이 이렇게 씌와근에 뭐 경ᄒᆞ고 헤엇지아녀게?(아, 이 무슨 그거 창남이네 그 여기들 별도로 거 무슨 저 뭐 주둥이 이렇게 씌워서 뭐 그렇게 하고 하지 않았어?)

109001 @ 그거 어떤 어떤 것들이 이섯수과? 그 아까 창남이렌 사름이 믿는 건 무신 신마씸?(그거 어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 아까 창남이라고 한 사람이 믿는 건 무슨 신이요?)

109001 #6 그 사름은 죽어부난에 엇고, 그 집안에 남저들은 다 죽어부난 여저ᄒᆞᆫ 사름벳긔 엇어.(그 사람은 죽어버려서 없고, 그 집안에 남자들은 다 죽어버려서 여자 한 사람밖에 없어.)

109001 @ 혹시 그 신 일름 모르쿠과?(혹시 그 신 이름 모르겠습니까?)

109001 #6 몰라. 그 옛날에 그 뭐 조체비구신 모신다, 조체비구신 모신다.(몰라. 그 옛날에 그 뭐 도깨비귀신 모신다, 도깨비귀신 모신다.)

109001 @ 조체비마씸?(도깨비요?)

109001 #6 어.(어.)

109001 #7 도체빈가, 조체빈가? 창남이도 그런 뭐 싯수과? 주지?(도깨빈가, 도깨빈가? 창남이도 그런 뭐 있습니까? 두지?)

109001 #6 오게. 다 그 집 잇주.(오게. 다 그 집 있지.)

109001 #7 창남이네.(창남이네.)

109001 #6 창남이네나 은경이네나 저디.(창남이네나 은경이네나 저기.)

109001 #7 그딘 성당에 다니난에 다 아사비수게.(거긴 성당에 다니니까 다 치워버렸어요.)

109001 #6 아, 거난 엿날에 그디 다 모셔낫주게. 엿날에 다 모셔나서.(아, 그러니까 옛날에 거기 다 모셔났지. 옛날에 다 모셔났어.)

109001 @ 옛날에 가신, 집에 잇는 신으로 도체비구신 또 뭐가 잇수과? 혹시 들

어난 거 엇수과?(옛날에 가신, 집에 있는 신으로 도깨비귀신 또 뭐가 있습니까? 혹시 들어난 것 없습니까?)

109001 #7 일월이엔도 곧곡 도체비구신이엔도 골으난 무신.(일월이라고도 말하고 도깨비귀신이라고도 말하니까 뭐.)

109001 @ 일허레마씸?(일하러요?)

109001 #7 일월.(일월.)

109001 @ 일월?(일월?)

109001 #6 일월이엔, 일월.(일월이라고, 일월.)

109001 #7 일월 또 또 무시것도 잇잖니어게? 아 우리, 허허 일월.(일월 또 또 뭣도 있잖아? 아 우리, 허허 일월.)

109001 #6 그런 신 일월은 본디 뭐 다 아는 일월.(그런 신 일월은 원래 뭐 다 아는 일월.)

109001 @ 음.(음.)

109001 #7 우리 집은 엇고 그런 거.(우리 집은 없고 그런 거.)

109001 @ 석규형님네도 웃동네 그 가난에 그 두에 모셔낫시녜.(석규형님네도 윗동네 그 가니까 그 뒤에 모셔났네.)

109001 #7 예게, 이수궤. 그런 거.(예, 있습니다. 그런 거.)

109001 @ 그건 뭐렌 골앗수과?(그건 뭐라고 말했습니까?)

109001 #6 주둥이 이렇게 멘들아근에 뭐 제사 넘어나민 그디 강 막 뭐 주곡. 다 경허주.(주둥이 이렇게 만들어서 뭐 제사 넘어나면 거기 가서 마구 뭐 주고. 다 그렇게 하지.)

109001 #7 경헌덴 허주게. 제사 넘어나민이 아니라.(그렇게 한다고 하지. 제사 넘어나면 아니라.)

109001 @ 구신 이름은 모르고?(귀신 이름은 모르고?)

109001 #6 아, 거 몰라 거 누게 진우형님 잘 알거라. 권당집이난에.(아, 거 몰라 거 누구 진우형님 잘 알거야. 권당집이니까.)

109001 @ 흔 번 물어봐주십서에.(한 번 물어봐주십시오.)

109001 #6 어. 나 흔 번 그거 들어방 나두켜.(어. 나 한 번 그거 들어봐서 놔둘게.)

109002 @ 그다음엔 성주로 다른 거 모시는 거 안 봣수과?(그다음엔 성주로 다른 거 모시는 거 안 봤습니까?)

109002 #7 집 성주?(집 성주?)

109002 @ 예.(예.)

109002 #7 엇다.(없다.)

109002 @ 엇어난마씸?(없었어요?)

109003 @ 문전제 허잖아예?(문전제사 하잖아요?)

109003 #6 어.(어.)

109003 @ 문전제 허시지예?(문전제사 하시지요?)
109003 #6 어.(어.)
109003 @ 문전신은 뭐렌 헙니까?(문전신은 뭐라고 합니까?)
109003 #7 문전은 기자 문전이렌 곧주.(문전은 그저 문전이라고 말하지.)
109003 #6 문전제.(문전제사.)
109003 @ 기자 문전신? 다른 이름은 엇고예?(그저 문전신? 다른 이름은 없고요?)
109003 #6 어.(어.)
109004 @ 조왕은 뭐꽈?(조왕은 뭡니까?)
109004 #7 조왕은 부엌.(조왕은 부엌.)
109004 @ 정제? 그믄 여기서는 조앙신을 또 다른 말로 허는 건 엇수과?(부엌? 그러면 여기서는 조왕신을 또 다른 말로 허는 건 없습니까?)
109004 #7 조왕신은 다른 말로 엇어. 기자 조왕이주. 정제는 조앙. 건 집이 저 일 년에 흔 번 집이 시님 올 때.(조왕신은 다른 말로 없어. 그저 조왕이지. 부엌은 조왕. 그건 집에 저 일 년에 한 번 집에 스님 올 때.)
109004 #6 빌레 올 때.(빌려고 올 때.)
109004 #7 고사지낼 때 기자 흔 번 조왕 쓰는 거.(고사지낼 때 기자 한 번 조왕 쓰는 것.)
109004 @ 조왕 쓴덴 헙니까?(조왕 쓴다고 합니까?)
109004 #7 조왕에 기자 모시는 거.(조왕에 그저 모시는 거.)
109004 #6 조왕에 신 모시는 거. 거기도 조왕에도 신이 이시니까.(조왕에 신 모시는 것. 거기도 조왕에도 신이 있으니까.)
109004 #7 그거게, 불나지 말렌 허는 거.(그거지, 불나지 말라고 하는 거.)
109004 @ 아, 불나지 말렌예?(아, 불나지 말라고요?)
109005 #7 암팡에 노는 칠성은 지키는 거.(고방에 놓는 칠성은 지키는 거.)
109005 @ 칠성은 암팡신이꽈? 아까 얘기헌 거.(칠성은 고방신입니까? 아까 얘기한 거.)
109005 #6 저, 길똥이 아방네 잘 뎅기는 거 무시거니?(저, 길똥이 아버지네 잘 다니는 거 뭐니?)
109005 #7 길똥이 아방 잘 뎅기는 거 무시거?(길똥이 아버지 잘 다니는 거 뭐?)
109005 #6 저, 집이 흔 번씩 오지 아념서?(저, 집에 한 번씩 오지 않아?)
109005 #7 게메. 거 조왕제 ᄒᆞ레 다념주.(그러게. 거 조왕제 하러 다니고 있지.)
109005 #6 조왕제?(조왕제?)
109005 #7 으.(으.)
109004 #6 이, 조왕제렌 헌 거는 그 집에 화재예방이주게.(이, 조왕제라는 건 그 집에 화재예방이지.)
109004 @ 화재예?(화재요?)

109004 #6 화재 나지 못허게 기자 나지 마트르허게시리 예방 제를 지내는 것이주게.(화재 나지 못하게 그저 나지 말게끔 예방 제를 지내는 것이지.)

109004 @ 불 솜앙 밥허난예?(불 때서 밥하니까요?)

109004 #6 응, 게난에 옛날에는 그 초집이라ᄂᆞ니까 쪼곰ᄒᆞ민 불티가 올라가지고 그 초집덜은 그 바깟더레 나믄 글로 헤근에 불나는 확률이 많주게. 게난에 그걸 조심허라는 신의, 그 나지 못허게시리 비는 거주, 신에게. 응, 조왕제.(응,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초가집이어서 쪼금하면 불티가 올라가지고 그 초가집들은 그 바깥으로 나오면 거기로 해서 불나는 확률이 많지. 그러니 그걸 조심하라는 신의, 그 나지 못하게끔 비는 거지, 신에게. 응, 조왕제.)

109004 #7 문전 헤나민게 말제 ᄒᆞ는 게 조왕제주게.(문전 하고나면 나중 하는 게 조왕제지.)

109004 @ 오늘 고생하셔수다. 여기까지 허쿠다예.(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지요.)

109004 #6 어, 예 예 예.(어, 예 예 예.)

10. 세시풍속

정월

110001 @ 보목리에서 멩질 ᄀᆞ튼 거 지낼 때,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지냇는지 여쭤보겟습니다예. 좀 잇으면 정월 이잖아예? 일월 일일 정월멩질에는 어떤 식으로 멩질을 지냇습니까? 마을 자체에서 따로 지내는 거 잇는지 그런 걸 ᄒᆞᆫ 번 얘기헤주십시오. 정월멩질.(보목리에서 명절 같은 거 지낼 때,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지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좀 있으면 정월이잖아요? 일월 일일 정월명절에는 어떤 식으로 명절을 지냈습니까? 마을 자체에서 따로 지내는 거 있는지 그런 걸 한 번 얘기해주십시오. 정월명절.)

110001 #1 개인 집에서 지내는 거?(개인 집에서 지내는 거?)

110001 @ 예. 집에서 어떻게 지냄수과?(예. 집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110001 #1 옛날에는 여기 이 양력으로 쭉 헤왓는데 멧 십 년 전부터는 이 마을에는 양력으로 허는 사름은 엇고 전부 음력으로 ᄒᆞ고 이십주게.(옛날에는 여기 이 양력으로 쭉 해왔는데 몇 십 년 전부터는 이 마을에는 양력으로 하는 사람은 없고 전부 음력으로 하고 있지요.)

110001 @ 예.(예.)

110001 #1 가정 집집마다 새벽에 거 족은가지라고 헤서 족은아들 네 집에서부터 멩질헤 가지고 종손 집 ᄁᆞ지 ᄌᆞ츰ᄌᆞ츰 모여서 마지막에는 종손 집이서 끗나. 저녁 때 쯤 뒈서.(가정 집집마다 새벽에 거 작은가지라고 해서 작은아들 네 집에서부터 명절해가지고 종손 집 까지 차츰차츰 모여서 마지막에는 종손 집에서 끝나. 저

녁 때 쯤 돼서.)

110001 @ 마을 자체에서 그날 특별나게 허는 건 엇고예?(마을 자체에서 그날 특별나게 하는 건 없고요?)

110001 #1 마을자체에 허는 건 벨로 엇고.(마을자체에 하는 건 별로 없고.)

110002 @ 엇고예? 명절이 지난 다음에 정월대보름에 대헤서 혹시 그날 뚜루 행사하는 건 엇수과?(없고요? 명절이 지난 다음에 정월대보름에 대해서 혹시 그날 따로 행사하는 건 없습니까?)

110002 #1 정월대보름날 행사하고 하는 건 엇엇고, 멩질 지나민 흔 보름동안에는 요즘은 뭐 세배도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데.(정월대보름날 행사하고 하는 건 없었고, 명절 지나면 한 보름동안에는 요즘은 뭐 세배도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데.)

110002 @ 예.(예.)

110002 #1 옛날에는 보름까지도 다 헷주게. 먼데 같은 디는.(옛날에는 보름까지도 다 했지. 먼데 같은 데는.)

110002 @ 예.(예.)

110002 #1 그런 거벳긔는 특별헌건 엇언.(그런 거밖에는 특별한건 없어.)

110003 @ 그러면 대보름 멩질기간 전에나 멩질 중에나 아니믄 지나서 대보름 그 사이에 방사와 액막이에 대헤가지고 말헤주십시오.(그러면 대보름 명절기간 전에나 명절 중에나 아니면 지나서 대보름 그 사이에 방사와 액막이에 대해가지고 말해주십시오.)

110003 #1 액막이 ᄀᆞ튼 거는 가정집에서 ᄒᆞ는 거?(액막이 같은 거는 가정집에서 하는 거?)

110003 @ 네.(네.)

110003 #1 가정집에서 하는 거는 옛날에는 그것도 많이 헷는데, 바다 쪽으로 가서 하는 사람도 잇고.(가정집에서 하는 거는 옛날에는 그것도 많이 했는데, 바다 쪽으로 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110003 @ 예.(예.)

110003 #1 가정에서 무당을 들어서 허는 가정에서는 토신제 들엿주게.(가정에서 무당을 들여서 하는 가정에서는 토신제 들였지.)

110003 @ 예.(예.)

110003 #1 거의 다 가정에서는 토신제는 지어나십주게.(거의 다 가정에서는 토신제는 지어났습지요.)

110003 @ 토신제는 어떻게 지냇수과? 어느 날? 며칠에?(토신제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어느 날? 며칠에?)

110003 #1 토신제는 보통 정월달만 뒈민은 가정마다 날을 봐서.(토신제는 보통 정월달만 되면 가정마다 날을 봐서.)

110003 @ 예.(예.)

110003 #1 저 가정 그 집 주인의 생기를 맞는 날짜를 봐서 잡주게. 집 뒤에 ᄀᆞ

튼 디서 깨끗한 장소를 택헤서 지네어.(저 가정 그 집 주인의 생기를 맞는 날짜를 봐서 잡지. 집 뒤에 같은 데서 깨끗한 장소를 택해서 지내.)

110004 @ 그다음 여기는 볼목리에서 그런 것도 잇지만, 바다 마을이라서 그런 것도 잇지만 포제에 대헤서 말씀헤주십서.(그다음 여기는 보목리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바다 마을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포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110004 #1 포제는 옛날부터 헤왓고 지금도 허고 이십주.(포제는 옛날부터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지요.)

110004 @ 예.(예.)

110004 #1 일 년에 흔 번하는데, 보통 정월달 들민은 날짜를 봐삽주게.(일 년에 한 번하는데, 보통 정월달 들면 날짜를 봤습지요.)

110004 @ 예.(예.)

110004 #1 정해일이라고 뒈지날을 택허주게.(정해일이라고 돼지날을 택하지.)

110004 @ 아, 정해날.(아, 정해날.)

110004 #1 정자하고 해자. 글자 딱 정일로 해로 맞이할 때는 정일. 그다음에 해일허는디. 가급적이면 정월달 첫 정일, 뒈지날. 그날에 만약에 마을에다가 장 선다 헷다가 허미느 또 연기허고.(정자하고 해자. 글자 딱 정일로 해로 맞이할 때는 정일. 그다음에 해일하는데. 가급적이면 정월달 첫 정일, 돼지날. 그날에 만약에 마을에다가 장 선다 했다하면 또 연기하고.)

110004 @ 예.(예.)

110004 #1 그 날짜를 보고 하기 때문에. 금요일도 저번달에 헤얄 건디, 날짜가 나쁘다 보니까 또 이월 달로 넘어갈 수도 이십주게.(그 날짜를 보고 하기 때문에. 금요일도 지난달에 해야 할 건데, 날짜가 나쁘다 보니까 또 이월 달로 넘어갈 수도 있습지요.)

110004 @ 예.(예.)

110004 #1 제관들은 흔 십팔 명 정도, 마을회에서 선정헙니다.(제관들은 한 십팔 명 정도, 마을회에서 선정합니다.)

110004 @ 마을 주민들이마씨?(마을 주민들이요?)

110004 #1 마을회에서.(마을회에서.)

110004 @ 예.(예.)

110004 #1 마을회에서 선정허민은 옛날에는 또 저 성씨별로.(마을회에서 선정하면 옛날에는 또 저 성씨별로.)

110004 @ 예.(예.)

110004 #1 자기네 집안에서 제관을 내놀랴고 서로 헙주게.(자기네 집안에서 제관을 내놀려고 서로 합지요.)

110004 @ 아.(아.)

110004 #1 자기네 집안에서 가문의 위세가 당당하다 헤서 막 제관을 높은 제관을 헐라고 허고. 또 이제 성씨가 족은 사름덜은 제관하기가 힘들엇고.(자기네 집안

에서 가문의 위세가 당당하다 해서 막 제관을 높은 제관을 하려고 하고. 또 이제 성씨가 작은 사람들은 제관하기가 힘들었고.)

110004 @ 아.(아.)

110004 #1 만약에 저 여기서 말허믄 각시 두 개 헌사름은 제관을 못헙주게.(만약에 저 여기서 말하면 각시 두 개 한사람은 제관을 못합지요.)

110004 @ 아, 예.(아, 예.)

110004 #1 옛날에는 완전 그 원칙대로 회칙이 경헤부난 안 뒈고. 옛날에는 한 오일 동안 합숙헤서 제청이라고 헤서 흔 집을 택헙주게. 게서 거기서 흔 요즘은 삼일 ᄒᆞ는데 삼일 집이도 일찍 못나오고 거기서 공동생활을 홉주.(옛날에는 완전 그 원칙대로 회칙이 그렇게 해버려서 안 되고. 옛날에는 한 오일 동안 합숙해서 제청이라고 해서 한 집을 택합지요. 그래서 거기서 한 요즘은 삼일 하는데 삼일 집에도 일찍 못나오고 거기서 공동생활을 합지요.)

110004 @ 아.(아.)

110004 #1 거기서 제 지내는 연습도ᄒᆞ고 헤서 마지막 날에는 제단이라고 이십주. 거기서 제 지내십주.(거기서 제 지내는 연습도하고 해서 마지막 날에는 제단이라고 있습지요. 거기서 제 지냈습지요.)

110004 @ 제단은 어딧과?(제단은 어딘가요?)

110004 #1 제단은 여기는 그런 말이 잇는데 배 없는 곳, 옆에 산이 이성 묘.(제단은 여기는 그런 말이 잇는데 배 없는 곳, 옆에 묘가 있어 묘.)

110004 @ 아니 그거 그냥 옛날 우리 보목리 말로 헤줍서.(아니 그거 그냥 옛날 우리 보목리 말로 해주세요.)

110004 #1 우리는 그래서 그런 장소를 깨끗한 장솝주게. 옛날에는 저 오름에 같은 높은데 조용허고 깨끗헌 곳에 헷다는데, 옛날부터 얼마 전부터 헷는지는 모르고 지금도 제단이라고 따로 만들어 이십주. 거기서 새벡이 가서 제사를 지넵주.(우리는 그래서 그런 장소를 깨끗한 장솝지요. 옛날에는 저 오름에 같은 높은데 조용하고 깨끗한 곳에 했다는데, 옛날부터 얼마 전부터 했는지는 모르고 지금도 제단이라고 따로 만들어 있습지요. 거기서 새벽에 가서 제사를 지냅지요.)

110004 @ 아, 경헷구나예? 그 제사를 지낼 때, 포제를 지낼 때 방법 잇잖아예? 포제 주변에 금줄을 친다든가, 아니면 다른데 같은 경우는 붉은 흑을 뿌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건 엇엇수과?(아, 그랬군요? 그 제사를 지낼 때, 포제를 지낼 때 방법 있잖아요? 포제 주변에 금줄을 친다든가, 아니면 다른데 같은 경우는 붉은 흙을 뿌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건 없었습니까?)

110004 #1 여기는 포제를 지내젠허믄은.(여기선 포제를 지내려하면.)

110004 @ 예.(예.)

110004 #1 보목리에 여기 저 먹는 물이 세 군데벳긔 어십주게.(보목리에 여기 저 먹는 물이 세 군데밖에 없습지요.)

110004 @ 예.(예.)

110004 #1 게민 세군데를 당시 흔 이틀 동안은 물 길레 못 다니게헤.(그러면 세 군데를 당시 한 이틀 동안은 물 길러 못 다니게 해.)

110004 @ 아.(아.)

110004 #1 깨끗허게 거기 저 새끼를 줄을 매여서 물을 먹지 못허도록 이렇게 그 물 깨끗헌 걸로 제사를 지내는 걸로.(깨끗하게 거기 저 금줄을 줄을 매여서 물을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 물 깨끗한 걸로 제사를 지내는 걸로.)

110004 @ 세 군데가 어디어디꽈?(세 군데가 어디어딥니까?)

110004 #1 세긍설내[173](세경물내)허고 족은갠[174]데 주로 정술내[175] 물이라고헤서 거기는 딱 보민 거기를 새끼로 봉헤서 출입을 못하도록 헷주. 물을 깨긋허게 허기위헤서.('세긍설내'(세경물내)허고 족은갠데 주로 정술내 물이라고해서 거기는 딱 보면 거기를 금줄로 봉해서 출입을 못하도록 했지.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110005 @ 안택[176]이란 말이 잇는데 어떤 거꽈?('안택'이란 말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110005 #1 안택은 잘 모르켜.(안택은 잘 모르겠어.)

110005 @ 기구나예?(그렇군요?)

110005 #1 에.(예.)

110006 @ 그다음엔 정월에 이제 그 보리밧 밟기가 이서신디예? 여기도 경헷수과?(그다음엔 정월에 이제 그 보리밭 밟기가 있었는데요? 여기도 그렇게 했습니까?)

110006 #1 보리밟기는 여기는 요즘엔 보리를 안 허니깐 허는데 옛날에는 보리를 많이 헤십주게.(보리밟기는 여기는 요즘엔 보리를 안 하니까 하는데 옛날에는 보리를 많이 했습지요.)

110006 @ 예, 예. 옛날에.(예, 예. 옛날에.)

110006 #1 많이 헐 때는 보리를 밟아야 웃자라지도 아녀고 보리가 잘 뭰다고 헤서 보리를 밟앗는데, 그 어릴 때 학셍 때도 학교에서덜토 막 그 보리밥기렌 헤영 봉사홉주게.(많이 할 때는 보리를 밟아야 웃자라지도 안하고 보리가 잘 된다고 해서 보리를 밟았는데, 그 어릴 때 학생 때도 학교에서도 막 그 보리밟기라고 해서 봉사합지요.)

110006 @ 예.(예.)

110006 #1 여기서는 겨울에는 상강지민은 땅이 부삭허게 뭐 흡주게. 땅을 딴딴허게 밟아야 뿌리발주가 잘뒈고 보리가 웃자라지도 안허고 결실이 잘뭰다 헤서 보리밥기허고, 또 이 가름헌디 보리밧이 잇는 데는 옛날 어른들은 아이들 연을 만들아줘서.(여기서는 겨울에는 상강지면 땅이 보삭하게 뭐 합지요. 땅을 딴딴하게 밟아

173) '세긍설내'는 보목동 절오름 옆 근처인 보목동 260번지에 있는 샘을 말한다. '세경물'이라고도 한다.

174) '족은개'는 보목동 서쪽 바닷가로 길게 뻗은 동산을 말하며 보목동 남쪽 해안으로 보목동 600~3번지 부근을 말한다.

175) '정술내'는 보목동 중심을 흐르는 내로 보목동 1121~3번지에서 보목동 571번지까지를 말한다.

176) '안택'은 집안에 탈이 없도록 무당이나 맹인을 불러 가신들을 위로하는 일을 말한다.

야 뿌리발주가 잘되고 보리가 웃자라지도 안하고 결실이 잘된다 해서 보리밟기하고, 또 이 평평한데 보리밭이 있는 데는 옛날 어른들은 아이들 연을 만들어줘서.)

110006 @ 예.(예.)

110006 #1 그 밧 안네서 연을 날리도록 보리를 막 밟도록.(그 밭 안에서 연을 날리도록 보리를 막 밟도록.)

110006 @ 아.(아.)

110006 #1 아이들이 놀면서 보리를 밟도록 헤서 그땐 아주 크게 즐경 헤십주게.(아이들이 놀면서 보리를 밟도록 헤서 그땐 아주 크게 즐겨서 했습지요.)

110007 @ 볼목리에도 걸궁이라는 것이 이섯수과?(보목리에도 걸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110007 #1 걸궁은 옛날에는 정월달이 뒈서 자체에서 이집이영 저집이영 모여서 자기네들이 만들아가지고 집집마다 돌면서 돈도 받고 이런 식으로 헷는데 근래에는 안합니다.(걸립은 옛날에는 정월달이 돼서 자체에서 이집이랑 저 집이랑 모여서 자기네들이 만들어가지고 집집마다 돌면서 돈도 받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근래에는 안합니다.)

110007 @ 옛날에 옛날엔 그걸 어떤 식으로 집집마다 돌면서 뭘 그집에 돌면은 돈을 주는 거마씸?(옛날에 옛날엔 그걸 어떤 식으로 집집마다 돌면서 뭘 그 집에 돌면 돈을 주는 거요?)

110007 #1 어. 그런 걸로 만들아서 만약에 부잣집이민 그 부잣집이 가서 그 가정을 위헤서 빌어 주민은 그걸 내가지고 성의를 표시하고.(어. 그런 걸로 만들어서 만약에 부잣집이면 그 부잣집에 가서 그 가정을 위해서 빌어주면 그걸 내서 성의를 표시하고.)

110007 @ 예.(예.)

110007 #1 그 뭐 재미로 이런 식으로 헤나십주.(그 뭐 재미로 이런 식으로 했습지요.)

110008 @ 입춘, 우수, 그때는 어떵헷수과? 입춘 때는 특별한 거 이섯수과?(입춘, 우수,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입춘 때는 특별한 거 있었습니까?)

110008 #1 에, 입춘허민은 주로 그 저 딴 집에 놀래덜 안 갑주게. 특히나 여자들은 절대 못 가서.(예, 입춘하면 주로 그 저 딴 집에 놀러들 안 갑지요. 특히나 여자들은 절대 못 갔어.)

110008 @ 예.(예.)

110008 #1 게서 만약에 그 옆의 집에 뭐 빌러가려고 헤도 먼 올레서 불러서 빌려달라고 허던지. 여자는 남의 집에 들어가민은 검질 하영 난다고 헤서 일절 그. 남자는 입춘 날 그 남의 집에 가민은 잘 차려서 대헤주엇다 허주.(그래서 만약에 그 옆집에 뭐 빌러가려고 해도 먼 올레서 불러서 빌려달라고 하던지. 여자는 남의 집에 들어가면 김 많이 난다고 해서 일절 그. 남자는 입춘 날 그 남의 집에 가면 잘 차려서 대해주었다 하지.)

110008 @ 입춘 지낭 우수엔?(입춘 지나서 우수엔?)

110008 #1 우수 ᄀᆞ튼 건 벨 뭐 행사는 엇엇고.(우수 같은 건 별 뭐 행사는 없었고.)

2월

110009 @ 이월에 보면 영등할망[177]이렌 헤서 영등굿[178]이라든가 제를 지낸다든지 엇엇수과?(이월에 보면 '영등할망'이라고 해서 '영등굿'이라든가 제를 지낸다든지 없었습니까?)

110009 #1 거 영등할망이 온다허면 오고와서, 정월 열사흘 날에 저 고향에도 다녀오고 허는데 흔 메칠 머물다가 아마 갈 적에는 바닷가에 뭐 할머니 왓다 갓다 헤서 조개껍질이 뭐 껍데기만 남아 잇는 게 흔적이 나타난다 그런 말도 잇고, 영등할망이 온다 간다 그런 말은 헤낫주.(거 '영등할망'이 온다하면 오고와서, 정월 열사흘 날에 저 고향에도 다녀오고 하는데 한 며칠 머물다가 아마 갈 적에는 바닷가에 뭐 할머니 오갔다 해서 조개껍질이 뭐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게 흔적이 나타난다는 그런 말도 있고, '영등할망'이 오간다는 그런 말은 해났지.)

110009 @ 특별하게 영등제를 지낸다던가 그런 건 없엇고예?(특별하게 '영등제를' 지낸다든가 그런 건 없었고요?)

110009 #1 영등제, 마을에서는 안하고 본향[179]다니는 정도로.('영등제', 마을에서는 안하고 '본향'다니는 정도로.)

110010 @ 경칩이나 춘분에 대헤서는 뭐한 건 엇엇수과?(경칩이나 춘분에 대헤서는 뭐한 건 없었습니까?)

110010 #1 엇어, 난.(없어, 난.)

110010 @ 경칩이나 춘분에 뭐 농사를 준비한다거나 그런 건 엇엇수과?(경칩이나 춘분에 뭐 농사를 준비한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110010 #1 모르겟네.(모르겠네.)

3월

110011 @ 삼월에 와가지고 한식이 이서신디 한식 때는 뭐 엇엇수과?(삼월에 와가지고 한식이 있었는데 한식 때는 뭐 없었습니까?)

110011 #1 옛날에는 한식에도 멩질처럼 지냇다는데 근래에는 그런 거 엇어지고.(옛날에는 한식에도 명절처럼 지냈다는데 근래에는 그런 거 없어지고.)

110011 @ 옛날에 혹시나 한식에 뭐헤낫수과?(옛날에 혹시나 한식에 뭐해났습니까?)

---

177) '영등할망'은 영등신, 음력 2월 1일에 입도入道하여 2월 15일에 나간다고 하는 신의 이름을 말한다.

178) '영등굿'은 영등신을 맞이하여 치르는 당굿을 말한다.

179) '본향'은 보목동에 있는 본향당인 '조노궤당'을 말한다. 명칭의 유래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조노궤당'은 생산과 물고物故, 호적, 육아를 담당하는 '당신堂神'을 모신 곳이다.

110011 #1 우리 땐 엇고.(우리 땐 없고.)

110012 @ 청명이나 곡우 땐 어떵 헷수과? 삼월에 너머와 가지고.(청명이나 곡우 땐 어떻게 했습니까? 삼월에 너머와 가지고.)

110012 #1 청명 때는 산에도 가서 제사도하고.(청명 때는 묘에도 가서 제사도하고.)

110012 @ 곡우는 엇수과? 청명 다음에 오는 곡우는마씨? 매달마다 절기가 두 개씩 잇잖아예?(곡우는 없습니까? 청명 다음에 오는 곡우는요? 매달마다 절기가 두 개씩 있잖아요?)

110012 #1 어.(어.)

110012 @ 곡우에 대헤서 들어본 거는 엇수과?(곡우에 대해서 들어본 거는 없습니까?)

110012 #1 그거는 엇고.(그거는 없고.)

4월

110013 @ 사월에 오면 초파일이 신디 초파일 때 뭐헌 거 엇엇수과?(사월에 오면 초파일이 있는데 초파일 때 뭐한 거 없었습니까?)

110013 #1 초파일에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크게 행사를 허는데 안다니는 사름은 아직까지는 별로 셍각이 안난.(초파일에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크게 행사를 하는데 안다니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별로 생각이 안 나.)

110013 @ 초파일에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떤 뭘 헤섯수과? 삼춘은 뭐 안 헌다헤도 다른 사름들은 뭐헌 거 엇엇수과?(초파일에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떤 뭘 했습니까? 삼촌은 뭐 안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뭐한 거 없었습니까?)

110013 #1 초파일에는 절에 다니는 사람 웨론 별로 뭐허는 게 엇어.(초파일에는 절에 다니는 사람 외엔 별로 뭐하는 게 없어.)

110013 @ 초파일에 혹시 절에 가본신적은 엇수과?(초파일에 혹시 절에 가본신적은 없습니까?)

110013 #1 절엔 아직까지 못 가봔.(절엔 아직까지 못 가봤어.)

110014 @ 어릴 때도 안 가봔예?(어릴 때도 안 가보고요?)

110014 #1 에.(예.)

110014 @ 절기로는 사월에 가면 입하하고 소만이렌 헌 거 이신디에? 그땐 뭐 특별헌 거 안 헤낫수과?(절기로는 사월에 가면 입하하고 소만이라고 한 거 있는데요? 그땐 뭐 특별한 거 안 했습니까?)

110014 #1 그런 것도 벨로 엇어십주.(그런 것도 별로 없었습지요.)

110014 @ 엇엇고예?(없었고요?)

5월

110015 @ 오월에는 단오가 이신디예? 오월 단오 날은 혹시 뭐헤난 거 엇수과?

(오월에는 단오가 있는데요? 오월 단오 날은 혹시 뭐 했던 거 없습니까?)

110015 #1 단오는 우리가정에는 멩질 뭐 안 지냇는데.(단오는 우리가정에는 명절 뭐 안 지냈는데.)

110015 @ 예.(예.)

110015 #1 그 추석, 정월멩질허고 추석허고, 단오멩질허고 글레까지 지네는 집이 이섯어요 글레.(그 추석, 정월명절하고 추석하고, 단오명절하고 근래까지 지내는 집이 있었어요 근래.)

110015 @ 뭘 헨마씨? 단오 때는 다른 멩질처럼 제 지넬 준비를 하거나 제를 지네거나 경 헨마씸 다른 집에선?(뭘 했나요? 단오 때는 다른 명절처럼 제지낼 준비를 하거나 제를 지내거나 그렇게 했나요 다른 집에선?)

110015 #1 저 나중에ᄁᆞ지 멧 군데는 추석 때처럼 마찬가지 제사를 지내십주.(저 나중에까지 몇 군데는 추석 때처럼 마찬가지 제사를 지냈습죠.)

110015 @ 경헷구나예?(그랬군요?)

110015 #1 예.(예.)

110015 @ 혹시 옛날에 단오를 지냇던 분 살아계신 분 잇수과?(혹시 옛날에 단오를 지냈던 분 살아계신 분 있습니까?)

110015 #1 지금 살아 잇는 사름은 엇어.(지금 살아 있는 사람은 없어.)

110015 @ 어릴 때 기억이구나예?(어릴 때 기억이군요?)

110015 #1 에.(예.)

110016 @ 오월에는 절기로는 망종하고 하지가 이신디예? 그때도 뭐 농사준비를 헌다든지 이런 거 엇엇수과?(오월에는 절기로는 망종하고 하지가 있는데요? 그때도 뭐 농사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거 없었습니까?)

110016 #1 망종에는 뭐 농사준비를 씨 뿌리고 한다고 허는데, 절기에 크게 구애받지는 안네.(망종에는 뭐 농사준비를 씨 뿌리고 한다고 하는데, 절기에 크게 구애받지는 않아.)

110016 @ 안 헤낫지예? 경헷구나예?(안 했지요? 그랬군요?)

6월

110017 @ 유월에 오면 특별나게 ᄃᆞᆨ 잡아먹는 날이라든가 이런 날이 이서나신디예? 그땐 어떵 헷수과?(유월에 오면 특별나게 닭 잡아먹는 날이라든가 이런 날이 있었는데요? 그땐 어떻게 했습니까?)

110017 #1 옛날에는 그거는 가정마다 크게 셍각헤가지고 요센말로 ᄃᆞᆨ 잡아먹는 건 꼭 거의 다헤서, 헤서.(옛날에는 그거는 가정마다 크게 생각해가지고 요새말로 닭 잡아먹는 건 꼭 거의 다해서, 했어.)

110017 @ 아, 기구나예? ᄃᆞᆨ 잡아 먹젠허면 지금에야 시장만 가도 닭고기를 팔잖아예? 옛날에는 ᄃᆞᆨ을 어떵 준비헷수과?(아, 그렇군요? 닭 잡아먹으려면 지금에야 시장만 가도 닭고기를 팔잖아요? 옛날에는 닭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110017 #1 옛날에는 독 파는데도 벨로 엇엇지마는 가정에서 길롸서.(옛날에는 닭 파는데도 별로 없었지만 가정에서 길러서.)

110017 @ 독은 잡아 봣수과?(닭은 잡아봤습니까?)

110017 #1 에.(예.)

110017 @ 아, 경헷구나예?(아, 그랬군요?)

110017 #1 독 잡아먹는 거는 웬만헌 가정에는 다혜.(닭 잡아먹는 거는 웬만한 가정에는 다해.)

110018 @ 경헷구나예? 삼복에 대헤 말씀헤주십서?(그랬군요? 삼복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110018 #1 초복, 말복인데. 큰 무슨 그런 행사는 뭐 엇엇고.(초복, 말복인데. 큰 무슨 그런 행사는 뭐 없었고.)

110018 @ 초복 중복 말복 이때 독을 잡앙먹은 것꽈? 유월 이십 날?(초복 중복 말복 이때 닭을 잡아먹은 겁니까? 유월 이십 날?)

110018 #1 보통 유월 쑤무날이 날이 독 잡아먹는 날이라고 헤서, 독 잡아서 먹기도 허고 독 엿을 만들어서 독 엿을 만들어서 먹기도 허고.(보통 유월 스무날이 날이 닭 잡아먹는 날이라고 해서, 닭 잡아서 먹기도 하고 닭 엿을 만들어서 닭 엿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110018 @ 예.(예.)

110018 #1 특별히 초복이렌 허면은 요즘덜 뭐 초복헤서허는데 이달에는 그 뭣은 없어서.(특별히 초복이이라고 하면 요즘들 뭐 초복해서하는데 이달에는 그 뭣은 없어서.)

110019 @ 유월에 소서, 대서가 이신디예? 그 소서 대서는 어떵 지넷수과?(유월에 소서, 대서가 있는데요? 그 소서 대서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110019 #1 것도 벨로 뭣 엇인디.(것도 별로 뭣 없는데.)

110019 @ 이 소서 대서 혹시 아까 소복 중복 이거랑 ᄀᆞ튼 이야기꽈?(이 소서 대서 혹시 아까 소복 중복 이거랑 같은 이야기입니까?)

110019 #1 소서, 대서는 그때가 제일 더울 때라부니까인데, 거 뭐 여기 백중물이라고 헤서, 지금도 허고 잇지마는 옛날에 대서 때는 물놀이가고.(소서, 대서는 그때가 제일 더울 때여서, 거 뭐 여기 백중물이라고 해서, 지금도 하고 있지마는 옛날에 대서 때는 물놀이가고.)

7월

110020 @ 백중은 언제를 얘기한 거꽈?(백중은 언제를 얘기한 겁니까?)

110020 #1 음력 칠 월 십오일인가?(음력 칠 월 십오일인가?)

110020 @ 소서, 대서 이 절기는 양력으로 된 거잖아예?(소서, 대서 이 절기는 양력으로 된 거잖아요?)

110020 #1 응.(응.)

110020 @ 백중이니 중복, 말복은 음력을 말하는 거잖아예?(백중이니 중복, 말복은 음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110020 #1 응.(응.)

110020 @ 칠월에 와서는 칠월칠석이 잇잖아예? 칠월칠석에 특별허게시리 헌 건 엇엇수과?(칠월에 와서는 칠월칠석이 있잖아요? 칠월칠석에 특별하게 한 건 없었습니까?)

110020 #1 칠석, 벨로 일반 뭐는 없고 절에 다니는 사름은 칠석불공이다 뭐허는 거 같던데?(칠석, 별로 일반 뭐는 없고 절에 다니는 사람은 칠석불공이다 뭐하는 거 같던데?)

110020 @ 뭐 젊은이 들이 시집장게 안간 그때 당시에 칠월칠석에 얘기들이 나오거나, 그런 건 엇엇수과?(뭐 젊은이 들이 시집장가 안 간 그때 당시에 칠월칠석에 얘기들이 나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110020 #1 그런 건 엇엇고.(그런 건 없었고.)

110021 @ 아, 경헷구나예? 아까 그 백중은 보니까 칠월에 들어신게예? 음력 칠월에.(아, 그랬군요? 아까 그 백중은 보니까 칠월에 들어있네요? 음력 칠월에.)

110021 #1 응.(응.)

110021 @ 백중 때는 특별하게 뭘 헤낫수과?(백중 때는 특별하게 뭘 했습니까?)

110021 #1 백중 때는 보민은 그 나룩을 허민은, 나룩농서를 지으면은 찝을 사러 논에 가서 농사결실 잘헤달라고 고사도 지네고.(백중 때는 보면 그 벼를 하면, 벼농사를 지으면 짚을 사러 논에 가서 농사결실 잘해달라고 고사도 지내고.)

110021 @ 음.(음.)

110021 #1 또 백중날에 또 물 맞이레도 옛날에도 가서 물 떨어지는데 가서 물 맞고 허는데, 병이 낫는다 헤서 많이 참여헷주게 옛날에는. 의학도 발달 안 뒐 때고 허니까.(또 백중날에 또 물 맞으러 옛날에도 가서 물 떨어지는데 가서 물 맞고 하는데, 병이 낫는다고 해서 많이 참여했지 옛날에는. 의학도 발달 안 될 때고 하니까.)

110021 @ 볼목리에서는 물 맞으레 어디 가난마씸?(보목리에서는 물 맞으러 어디 갔나요?)

110021 #1 요 보통 소정방[180]이렌 헤서 거문여[181]라고 이서, 물 나는데.(요 보통 '소정방'이라고 해서 '거문여'라고 있어, 물 나는데.)

110021 @ 소정방예? 정방폭포[182]?('소정방'요? '정방폭포'?)

110021 #1 이쪽 칼호텔 옆에.(이쪽 칼호텔 옆에.)

110021 @ 거기도 보목동에 속하잖아예?(거기도 보목동에 속하잖아요?)

110021 #1 거기는 행정적으로는 영천동인디 거기다가 소정방가기 전에 천제를

180) '소정방'은 서귀포시 정방폭폭에 서쪽에 있는 작은 폭포를 말한다.

181) '거문여'는 보목동과 토평동 경계에 있는 검고 긴 바위를 말한다. 긴 다리를 뜻하는 'ᄃᆞ릿줄'이라고도 불린다.

182) '정방폭포'는 서귀포시에 있는 폭포로 폭포가 바로 바다로 떨어지는 곳이다. 중국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려고 사신을 보냈다는 전설로 유명하다.

지넬라면은 군듯물[183]이라고 헤서 깨끗한 물 가서, 저 군인덜이 지네다가 이제 그곳이 이십주게, 지금도.(거기는 행정적으로는 영천동인데 거기다가 '소정방'가기 전에 천제를 지내려면 '군듯물'이라고 해서 깨끗한 물에 가서, 저 군인들이 지내다가 이제 그곳이 있습지요, 지금도.)

110021 @ 군듯물은 정술내 말고 칼호텔 근처 소정방쪽에 이섯던거꽈?('군듯물'은 '정술내' 말고 칼호텔 근처 '소정방'쪽에 있었던 겁니까?)

110021 #1 어. 소정방 가기 전에.(어. 소정방 가기 전에.)

110021 @ 아, 아.(아, 아.)

110021 #1 여기도 ᄒᆞ주마는 서부사람들은 그기 물을 떠다가 세수 깨끗허게 헤서 옛날엔 춤, 천제 지낼 때도 거기 물 떠다가 허여.(여기도 하지만 서부사람들은 거기 물을 떠다가 세수 깨끗하게 해서 옛날엔 참, 천제 지낼 때도 거기 물 떠다가 해.)

110021 @ 그 물은 아직도 잇수과?(그 물은 아직도 있습니까?)

110021 #1 에, 지금도 잇어요.(예, 지금도 있어요.)

110021 @ 정술내는 메꿔부럿덴 말씀하시길레, 아, 경헷구나예? 음.('정술내'는 메꿔버렸다고 말씀하시기에, 아, 그랬군요? 음.)

110021 @ 백중 때 뭐 음식을 특별허게 뭐 헤먹엇다거나 그런 건 엇엇수과?(백중 때 뭐 음식을 특별하게 뭐 해먹었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110021 #1 뭐 귀헐 때는 뭐먹는 거 엇엇고.(뭐 귀할 때는 뭐먹는 거 없었고.)

110021 @ 그다음엔 여기는 또 저쪽에 모살밧이라고 이섯다고 하더라고예? 축항 포구 잇는 쪽에 모살밧이 잇덴 헨게마는 혹시 지금도 이수과?(그다음엔 여기는 또 저쪽에 모래밭이라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축항 포구 있는 쪽에 모래밭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도 있습니까?)

110021 #1 지금은 모살은 다 엇어저불고, 옛날에는 포구 옆에 모살 이서십주. 거기서 모살묻힘이라고 헤서 모살 파서 누워서 얼굴만 내놔서 뭐야 그 몸에.(지금은 모래는 다 없어져버리고, 옛날에는 포구 옆에 모래 있었습죠. 거기서 모래 묻힘이라고 해서 모래 파서 누워서 얼굴만 내놔서 뭐야 그 몸에.)

110021 @ 모살찜할 때 그거는 건강에 뭐가 좋앙은에 모살로 경헤낫수과?(모래찜할 때 그거는 건강에 뭐가 좋아서 모래로 그렇게 했습니까?)

110021 #1 지금도 모살 묻힘이라든가 모살뜸이렌 허는디 옛날엔 그런 거 ᄀᆞ라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건 몰루주마는 우리가 봣주게 어릴 때도, 요즘은 그런 게 엇어 여기도 엇고.(지금도 모래 묻힘이라든가 모래 뜸이라고 하는데 옛날엔 그런 거 보고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건 모르지만 우리가 봤지 어릴 때도, 요즘은 그런 게 없어 여기도 없고.)

110021 @ 백중 때 가서 물맞이헐 때 물 맞으면 어디에 좋다든가 물 맞으난 뭐

183) '군듯물'은 보목동과 토평동 경계에 인접한 서쪽 해상으로 거문여 위쪽이며 토평동 435번지 부근을 말한다. '군도물', '군도수'라고 부르기도 한다.

가 어디가 좋아라헌 말은 엇엇수과?(백중 때 가서 물맞이할 때 물 맞으면 어디에 좋다든가 물 맞으니까 뭐가 어디가 좋아 한 말은 없었습니까?)

110021 #1 그때는 보통 그자 그 관절이라든지, 머리아픈사람은 여기다가 마다리를 뒤집어써서 떨어지는 물 맞고 허민은 또 보통 가면은 식사 ᄀᆞ튼 것도 저 다른 밥 ᄀᆞ튼 거 안 ᄒᆞ고 죽 썬 가야 물 맞는 효과 잇덴 헤서. 신경통 ᄀᆞ튼 거.(그때는 보통 그저 그 관절이라든지, 머리아픈사람은 여기다가 마대를 뒤집어써서 떨어지는 물 맞고 하면 또 보통 가면 식사 같은 것도 저 다른 밥 같은 거 안 하고 죽 써서 가야 물 맞는 효과 있다고 했어. 신경통 같은 거.)

110024 @ 입추하고 처서가 이신디예? 입추 때는?(입추하고 처서가 있는데요? 입추 때는?)

110024 #1 입추?(입추?)

110024 @ 예, 예. 가을에 들어서는.(예, 예. 가을에 들어서는.)

110024 #1 입추는 벨로 뭐 행사가 없고 처서는 아까 백중물 맞이레 가고 백중이나 마찬가지주.(입추는 별로 뭐 행사가 없고 처서는 아까 백중물 맞으러 가고 백중이나 마찬가지지.)

110024 # 마찬가지로예?(마찬가지로요?)

8월

110025 @ 팔월에 들어가지고는 벌초 ᄀᆞ튼 것도 헷엇잖아예? 벌초는 어느 날 어떵 날 잡앙 어떵헷수과?(팔월에 들어가지고는 벌초 같은 것도 했었잖아요? 벌초는 어느 날 어떻게 날 잡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110025 #1 벌초는 백로가 팔월 절인디 백로를 중심으로 헤서 기점으로 헤서 전후에 가정마다 방상[184]이민 방상마다 날짜를 정헙주게.(벌초는 백로가 팔월 절인데 백로를 중심으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전후에 가정마다 '방상'이민 방상마다 날짜를 정합지요.)

110025 @ 예.(예.)

110025 #1 일요일 피하고, 멧 째 일요일ᄒᆞ자, 헤서 가구마다 틀렷는데 보통 팔월절이렌 허민은 백롭주게.(일요일 피하고, 몇 째 일요일하자, 해서 가구마다 달랐는데 보통 팔월 절이라고 하면 백롭지요.)

110025 @ 예.(예.)

110025 #1 백로 전후헤서 벌초를 보통.(백로 전후해서 벌초를 보통.)

110026 @ 벌초가 끝나고 그다음에는 추석 팔월 명절이 오잖아예? 팔월 추석 때는 어떵 지넷수과?(벌초가 끝나고 그다음에는 추석 팔월 명절이 오잖아요? 팔월 추석 때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110026 #1 팔월멩질? 팔월멩질도 마찬가지 정월 멩질이랑 마찬가지 가족들끼리 자기네 방상별로 하는디.(팔월명절? 팔월명절도 마찬가지 정월명절이랑 마찬가지

184) '방상'은 일가붙이 집안을 말한다.

가족들끼리 자기네 '방상'별로 하는데.)

110026 @ 예.(예.)

110026 #1 아까축으로 알까지[185]라고 알까진 츰, 족은아들부터 종손 집까지 모여서, 마지막엔 종손집이서. 이제 종손 집에서 젤 웃어른 모시는 거니까 에, 거기서 끗나는 것입주.(아까처럼 '알가지'라고 알가지 참, 작은아들부터 종손 집까지 모여서, 마지막엔 종손집이서. 이제 종손 집에서 제일 웃어른 모시는 거니까 에, 거기서 끝나는 것입지요.)

110026 @ 그럼 삼춘네는 멩질 시작할 때 처음에 멧 시에 시작헹 마지막 종손집 가면 몇 시쯤 됏수과?(그럼 삼촌네는 명절 시작할 때 처음에 몇 시에 시작해서 마지막 종손 집 가면 몇 시쯤 됐습니까?)

110026 #1 요즘은 모다 그 뭐야 그 옛날에는 방상이 체음 헌다민 불 켜서 까지도 헷는데 요즘 다 나눠서허는 때문에 파별로.(요즘은 모두 그 뭐야 그 옛날에는 '방상'이 처음 한다면 불 켜서 까지도 했는데 요즘 다 나눠서하는 때문에 파별로.)

110026 @ 예.(예.)

110026 #1 거의 흔 두세시민 거의 끗나는 거주.(거의 한 두세 시면 거의 끝나는 거지.)

110026 @ 보목리 같은 경우에 한씨가 가장 많잖아예? 한씨 집안도 방상이 다 모이면 오후 흔 두세 시믄 끗낫수과?(보목리 같은 경우에 한씨가 가장 많잖아요? 한씨 집안도 방상이 다 모이면 오후 한 두세 시면 끝났습니까?)

110026 #1 한씨도 여기 파가 아들에 또 아들에 갈라지고 그러면은 또 몇 십 개 뒈니까.(한씨도 여기 파가 아들에 또 아들에 갈라지고 그러면 또 몇 십 개 되니까.)

110026 @ 아.(아.)

110026 #1 딱 하나가할 수 이십주게. 게난 뭣 집집마다허게, 하게 뒈니깐.(딱 하나가할 수 있습지요. 그러니 무엇 집집마다하게, 하게 되니까.)

110026 @ 옛날에도 경 다 파들 갈랑헷수과?(옛날에도 그렇게 다 파들 갈라서 했습니까?)

110026 #1 아니, 아니. 옛날에는 좀 범위가 컷는데 요즘에 와서는 더 좀 방상들 줄여서 가족이면 가족단위로 형제는 ᄀᆞ치 허는데 육촌이면 육촌, 팔촌이면 팔촌, 따로.(아니, 아니. 옛날에는 좀 범위가 컸는데 요즘에 와서는 더 좀 '방상'들 줄여서 가족이면 가족단위로 형제는 같이 하는데 육촌이면 육촌, 팔촌이면 팔촌, 따로.)

110026 @ 그럼 옛날에는 삼춘넨 어릴 땐 세배를 몇 집 가낫수과?(그럼 옛날에는 삼촌네는 어릴 땐 세배를 몇 집 갔습니까?)

110026 #1 어?(어?)

110026 @ 정월 때?(정월 때?)

110026 #1 보통 다슷 군데.(보통 다섯 군데.)

185) '알가지'는 족은가지. 친족의 근본에서 작은 아들로 갈라져 나온 갈래를 말한다. '알까지'는 화자가 '알가지'를 된소리로 발음한 것이다.

110026 @ 팔월멩질허고 정월멩질 땐 달라가지고 팔월명질 땐 먹엉만 오면 뒈지만은 정월명질 땐 아이들한테 세배를 다허거나 받거나 헤야 뒈잖아예?(팔월명절하고 정월명절 땐 달라가지고 팔월명절 땐 먹어서만 오면 되지만 정월명절 땐 아이들한테 세배를 다하거나 받거나 해야 되잖아요?)

110026 #1 어.(어.)

110026 @ 그렇게 하다보민 시간이 더 걸릴 거 아니꽈예? 경허민 그때는 정월멩질 때는 몇 시쯤에 끗나낫수과?(그렇게 하다보면 시간이 더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정월명절 때는 몇 시쯤에 끝났습니까?)

110026 #1 정월멩질 때는 시간이 그런 무엇이 좀 걸리지만 특히나 여기는 세배, 그 멩질 끗나민은 요세는 그런 거 줄어들엇는데 동네 전부 세배를 다녀십주게.(정월명절 때는 시간이 그런 무엇이 좀 걸리지만 특히나 여기는 세배, 그 명절 끝나면 요새는 그런 거 줄어들었는데 동네 전부 세배를 다녔습지요.)

110026 @ 예.(예.)

110026 #1 이웃어른들한테, 이제는 마을회에서 합동으로 헤부는데 옛날에는 한복입어가지고 이 골목 저 골목 가민 한 집에 가민 어떤 디는 줄지어 삿다가, 세배헤가지고, 나오면 들어가고 헷서요. 부락 그 큰 행사처럼 헤왓는데 요즘은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허기 때문에, 아주 특별나게 동네어른 아니면 간소헤낫지.(이웃어른들한테, 이제는 마을회에서 합동으로 해버리는데 옛날에는 한복입어가지고 이 골목 저 골목 가면 한 집에 가면 어떤 데는 줄지어 섰다가, 세배해가지고 나오면 들어가고 했어요. 부락 그 큰 행사처럼 해왔는데 요즘은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하는 때문에, 아주 특별나게 동네어른 아니면 간소했지.)

110026 @ 정월 세배할 때 막 어릴 때 기억으로 결혼허기 전에예? 세배를 하게 되면 그때당시에도 세뱃돈 줘수과?(정월 세배할 때 막 어릴 때 기억으로 결혼하기 전에요? 세배를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도 세뱃돈 줬습니까?)

110026 #1 옛날에는 세뱃돈 받아보도 아녀고.(옛날에는 세뱃돈 받아보지도 안하고.)

110026 @ 요즘 들엉 손지들이나 아니면 누가 왓을 때 세뱃돈 얼마정도 준비헴수과?(요즘 들어 손주들이나 아니면 누가 왔을 때 세뱃돈 얼마정도 준비하나요?)

110026 #1 집집마다 뭐 그 보게뚜 사정에 틀리주마는 우리는 중학생 얼마, 고등학생 얼마, 대학생 얼마 헤.(집집마다 뭐 그 주머니 사정에 틀리지만 우리는 중학생 얼마, 고등학생 얼마, 대학생 얼마 해.)

110026 @ 경헹, 삼춘은 얼마정도 준비헴수과?(그렇게 해서, 삼촌은 얼마정도 준비하나요?)

110026 #1 대학생 오 만원, 고등학생 삼 만원 이런 식으루.(대학생 오 만원, 고등학생 삼 만원 이런 식으로.)

110027 @ 아이고, 경헴구나예. 그다음엔 팔월멩질 제 지내서 종순 집에서 마지막 제를 지낸다고 헷는데 혹시 백로라든가 추분에 대헤서 말헤주십서. 벌초할 때가

백로엿수과?(아이고, 그렇게 하고 있군요. 그다음엔 팔월명절 제 지내서 종순 집에서 마지막 제를 지낸다고 했는데 혹시 백로라든가 추분에 대헤서 말해주십시오. 벌초할 때가 백로였습니까?)

110027 #1 벌초? 벌초는 개인벌초허고 아까 식으로 제사도 마지막에 큰 종손 집에 허는 식으로 젤 웃어른, 입도는 입도, 입향이면 입향, 웃어른 묘가 젤 마지막에 모둠벌초라고, 모둠벌초라고 츰, 큰 범위 내에서 하는 묘젤 ᄒᆞ고. 또 벌초헐 때는 제주도는 특이한 거주마는 육지 같은 출타헷던 분들 전부모아서 벌초하는 전통적으로 허는 거고. 아주 큰 행사주게 제주도에서는.(벌초? 벌초는 개인벌초하고 아까 식으로 제사도 마지막에 큰 종손 집에 하는 식으로 젤 웃어른, 입도는 입도, 입향이면 입향, 웃어른 묘가 젤 마지막에 모둠벌초라고, 모둠벌초라고 참, 큰 범위 내에서 하는 묘제를 하고. 또 벌초할 때는 제주도는 특이한 거지만 육지 같은 출타했던 분들 전부모아서 벌초하는 전통적으로 하는 거고. 아주 큰 행사지 제주도에서는.)

110027 @ 여기서는예?(여기서는요?)

110027 #1 어.(어.)

110027 @ 뭐 추분에 대헤서는 특별허게 허는 거 엇고예?(뭐 추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하는 거 없고요?)

110027 #1 응, 뭐 추분에는 특별한 행사는 엇고.(응, 뭐 추분에는 특별한 행사는 없고.)

9월

110028 @ 그다음 구월에 와가지고는 그, 상강이 이서신디예? 상강 때는 뭘 헷수과?(그다음 구월에 와서는 그, 상강이 있는데요? 상강 때는 뭘 했습니까?)

110028 #1 상강일에는 벨로 뭘 허는 거 엇고.(상강에는 별로 뭘 하는 거 없고.)

110028 @ 농사지어가지고 나룩 빌 때 나룩이 언제 베엇수과?(농사지어가지고 벼 빌 때 벼가 언제 베었습니까?)

110028 #1 나룩은 뭐 상강일 전에 빈다고 허는가? 그런 말이 잇는데?(나룩은 뭐 상강일 전에 빈다고 하는가? 그런 말이 있는데?)

110028 @ 것도 그냥 익는 대로 알아근에 비언예?(것도 그냥 익는 대로 알아서 비었나요?)

110028 #1 상강이라고 특별하게 허는 건 없는 거 ᄀᆞ튼디?(상강이라고 특별하게 하는 건 없는 거 같은데?)

110028 @ 예.(예.)

10월

110029 @ 시월에 와서는 입동이 잇고 소설이 이신디 그때는 뭐 볼목리에서는?(시월에 와서는 입동이 있고 소설이 있는데 그때는 뭐 보목리에서는?)

110029 #1 것도 뭐 벨로 아녀고.(것도 뭐 별로 안 하고.)

110029 @ 입동이나 소설 땐 볼몽리는 이렇게 보니까 잘도 따듯하더라고예? 다른데 비교헤 가지고예? 그때 입동이면 날씬 좀 어떵헷수과?(입동이나 소설 땐 보목리는 이렇게 보니까 잘도 따듯하더라고요? 다른데 비교해 가지고요? 그때 입동이면 날씬 좀 어땠습니까?)

110029 #1 입동이라고 여기는 따듯하니까 입동이라고 느껴보질 못헷주 우리 마을엔.(입동이라고 여기는 따듯하니까 입동이라고 느껴보질 못했지 우리 마을엔.)

110029 @ 기지예? 소설에도 눈이 와본 적은 엇고예?(그렇지요? 소설에도 눈이 와본 적은 없고요?)

110029 #1 응.(응.)

11월

110030 @ 그럼 십일월에 와가지고는 이제 동짓날이 이신디예? 동짓날은 어떵헹 지넷수과?(그럼 십일월에 와가지고 이제 동짓날이 있는데요? 동짓날은 어떻게 해서 지냈습니까?)

110030 #1 동짓날엔 뭐 엿날에도 뭐 풋죽을 쒀 먹엇다고 헤서 춤, 액운을 막는다고 헤서 가정에서 허는 데도 잇고, 안 허는 데도 잇고.(동짓날엔 뭐 옛날에도 뭐 팥죽을 쒀 먹었다고 해서 참, 액운을 막는다고 해서 가정에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110030 @ 음.(음.)

110030 #1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110031 @ 납평 날에 대헤서 혹시 들어낫수과?(납평 날에 대해서 혹시 들었습니까?)

110031 #1 납평 날이 아까 유월쑤무 날 독 잡아먹는 식으로 엿을 만들고.(납평 날이 아까 유월 스무 날 닭 잡아먹는 식으로 엿을 만들고.)

110031 @ 아, 그때도예?(아, 그때도요?)

110031 #1 보통 엿을 만들어 납평날은.(보통 엿을 만들어 납평 날은.)

110031 @ 독으로예?(닭으로요?)

110031 #1 에.(예.)

110031 @ 무사 엿을 만들어신고예?(왜 엿을 만들었을까요?)

110031 #1 에?(예?)

110031 @ 무사 그때를 기준으로 헤가지고 엿을 만들어먹어신고예?(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엿을 만들어먹었을까요?)

110031 #1 납평 날이라고 헤서 그때 꼭 골라서 엿을 만들어 먹는 것이 풍습으로 그렇게 헤왓기 따문.(납평 날이라고 해서 그때 꼭 골라서 엿을 만들어 먹는 것이 풍습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

110031 @ 음.(음.)

110032 @ 그다음에는 십일월에 와서는 대설이 이신디예? 대설 땐 눈 왓수과?(그다음에는 십일월에 와서는 대설이 있는데요? 대설 땐 눈 왔습니까?)

110032 #1 대설 때도 여긴 뭐 일 년에 하루 이틀밖에 안 오니까.(대설 때도 여긴 뭐 일 년에 하루 이틀밖에 안 오니까.)

110032 @ 맞아예.(맞아요.)

12월

110033 @ 그다음에 십이월 뒈면 양력으로는 뭐 일월 말이라던가? 이월 말쯤 뒐 건데 신구간[186]이 끼어이서예?(그다음에 십이월 되면 양력으로는 뭐 일월 말이라던가? 이월 말쯤 될 건데 '신구간'이 끼어있어요?)

110033 #1 에.(예.)

110033 @ 신구간이 옛날에도 지금처럼 양력으로 헷수과?('신구간'이 옛날에도 지금처럼 양력으로 했습니까?)

110033 #1 아년, 음력으로 헷주.(아니, 음력으로 했지.)

110033 @ 지금 보면 신구간이 입춘 전.(지금 보면 '신구간'이 입춘 전.)

110033 #1 입춘 전 오일, 입춘 전 칠일. 아, 입춘 전 삼일, 입춘 전 칠일인가?(입춘 전 오일, 입춘 전 칠일. 아, 입춘 전 삼일, 입춘 전 칠일인가?)

110033 @ 혹시 신구간에 이사혜보셧수과?(혹시 '신구간'에 이사해보셨습니까?)

110033 #1 신구간에 이사는 안 혜봣는디. 신구간들면은 가정이 모든 집수리 ᄀᆞ튼 거라던지.('신구간'에 이사는 안 해봤는데. '신구간' 들면 가정이 모든 집수리 같은 거라든지.)

110033 @ 예.(예.)

110033 #1 솟덕 하나도 보통 때는 함부로 만지지 못헤여.(봇돌 하나도 보통 때는 함부로 만지지 못해.)

110033 @ 예.(예.)

110033 #1 동티나카부덴.(동티 날까봐.)

110033 @ 예.(예.)

110033 #1 신구간에는 그런 것도 만들고. 돗통에 담 하나를 하든지.('신구간'에는 그런 것도 만들고. 돼지우리에 담 하나를 하든지.)

110033 @ 뭐라고마씸?(뭐라고요?)

110033 #1 돗통에 담 ᄒᆞ나 클어저도 지들팡 ᄒᆞ나 고칠라 헤도 아무 때나 고치지 못헤 동티난다고 헤서. 액운이 온다고 헤서 함부로 못헤서 똑 신구간에 집 수리 하던지 이사 허던지.(돼지우리에 돌담 하나 헝클어져도 지들팡 하나 고치려 해도 아무 때나 고치지 못해. 동티난다고 해서. 액운이 온다고 해서 함부로 못해서 꼭 '신구간'에 집수리 하던지 이사 하던지.)

186) '신구간'은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주도 세시풍속 중 음력 정월 초순경을 전후하여 집안의 신들이 천상으로 올라가 비어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 때 이사를 하거나 집 안팎 수리를 한다.

110033 @ 음.(음.)

110033 #1 그땐 뭐 귀신이 없다고 그런 때에 신구간 헤노니까.(그땐 뭐 귀신이 없다고 그런 때에 '신구간' 하니까.)

110033 @ 예.(예.)

110033 #1 그게 퀭장히 그거는 지금도 생각하는 뭣이 이서서.(그게 굉장히 그거는 지금도 생각하는 뭐가 있어서.)

110033 @ 그 이사 갈 때 신구간 때 이사 안 헤보셧다고 그렛잖아예? 이집은 결혼 헹 얼마 만에 집 마련헷덴 헷수과?(그 이사 갈 때 신구간 때 이사 안 해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집은 결혼 해서 얼마 만에 집 마련했다고 했습니까?)

110033 #1 십칠 넌.(십칠 년.)

110033 @ 그때도 신구간 때 살림 들이고 경헨마씸?(그때도 신구간 때 살림 들이고 그랬나요?)

110033 #1 아니 경 안헤난.(아니 그렇게 안 해났어.)

110035 @ 이사 갈 때 보면 그 맨 먼저, 한꺼번에 이제사 막 한꺼번에 차에 실렁 갓지만 옛날엔 이사 가젠 허민 맨 먼저 뭐부터 갖다놓고 하는 거 이런 거 엇엇수과?(이사 갈 때 보면 그 맨 먼저, 한꺼번에 이제야 막 한꺼번에 차에 실어 갔지만 옛날엔 이사 가려하면 맨 먼저 뭐부터 갖다놓고 하는 거 이런 거 없었습니까?)

110035 #1 옛날에는 저 헤먹을 거 솟단지, 솟단지가 젤 먼저가요.(옛날에는 저 해먹을 거 솥단지, 솥단지가 젤 먼저가요.)

110035 @ 아, 솟단지 먼저 들여놓고?(아, 솥단지 먼저 들여놓고?)

110035 #1 어, 어.(어, 어.)

110035 #1 그담엔 이불을 가저간다던지.(그담엔 이불을 가져간다든지.)

110035 @ 무사 경헤신고예?(왜 그랬을까요?)

110035 #1 건, 건 솟단지 가저가야 어떵 솟덕도 놓고, 준비할 것이 이서야지.(그건, 그건 솥단지 가져가야 어떻게 봇돌도 놓고, 준비할 것이 있어야지.)

110035 @ 뭔가 어떤 다른 이유가 이서서 그런 건 아니고마씸?(뭔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110035 #1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 생활허기, 그것이 먼저가야 편리허게 뒈니까 헤지 아년가?(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 생활하기, 그것이 먼저가야 편리하게 되니까 하지 않은가?)

110034 @ 게메양. 이사 갈 땐 집은 어떻게 구하는지 그런 건 엇엇수과? 이제사 부동산이면 다 나오주마는.(그러게요. 이사 갈 땐 집은 어떻게 구하는지 그런 건 없었습니까? 이제야 부동산이면 다 나오지만.)

110034 #1 이제사 그러는디 옛날에는 남의 집에 빌어가는 이사는 그다지 많지 아녀고 집 지어서 갈 때가 많앗고.(이제야 그러는데 옛날에는 남의 집에 빌어가는 이사는 그다지 많지 않고 집 지어서 갈 때가 많았고.)

110036 @ 그 집알이는 어떵헤신고예? 어떵 헷수과? 집알이.(그 집알이는 어떻

게 했나요? 어떻게 했습니까? 집알이.)

110036 #1 집들이할 때?(집들이할 때?)

110036 @ 예.(예.)

110037 #1 요즘은 뭐 집들이 헐 때는 뭐 차려서 음식도 대접허고 뭐 또 여기서는 또 옛날에는 그렇게 안허고 그 중간에는 성냥 ᄀᆞ튼 거, 그 집안이 부흥하도록 키는 성냥, 또 초 ᄀᆞ튼 거 가저가는데 요즘은 것도 엇고.(요즘은 뭐 집들이 할 때는 뭐 차려서 음식도 대접하고 뭐 또 여기서는 또 옛날에는 그렇게 안하고 그 중간에는 성냥 같은 거, 그 집안이 부흥하도록 켜는 성냥, 또 초 같은 거 가져가는데 요즘은 것도 없고.)

110037 @ 엇고예?(없고요?)

110038 @ 소한 대한 잇고, 계절에 들어저이신디예? 소한 대한헐 때 언제가 더 추워수과?(소한 대한 있고, 계절에 들어져있는데요? 소한 대한할 때 언제가 더 추웠습니까?)

110038 #1 언제?(언제?)

110038 @ 예. 추울 때. 소한, 대한 중.(예. 추울 때. 소한, 대한 중.)

110036 #1 젤 추울 땐데 소한은 뭐, 대한은 대한에 나갈 때 춪지 말라고 그런 말이 잇습주게.(제일 추울 땐데 소한은 뭐, 대한은 대한에 나갈 때 찾지 말라고 그런 말이 있습지요.).)

110036 @ 무사 경헤신고예?(왜 그랬을까요?)

110036 #1 그러니까 추울 때 나가니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셍각헤. 그러니깐 대한 때는 가급적이면 집을 나가지 말라고 헤여, 옛날부터. 대한에 나간 사람은 찾지 말라는 거라. 어디가도 죽을 거로 봥.(그러니까 추울 때 나가니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해. 그러니깐 대한 때는 가급적이면 집을 나가지 말라고 해여, 옛날부터. 대한에 나간 사람은 찾지 말라는 거야. 어디가도 죽을 거로 봐서.)

110036 @ 아! 볼목리에 그런 말이 이서낫구나예?(아! 보목리에 그런 말이 있었군요?)

110036 #1 옛날부터 대한에는 나간사름 춪일 셍각 말라, 이렇게 헌 말이 잇는데 기냥 추울 때 나가민 돌아오지 못헐 것이다 허는 이런 셍각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거 같다.(옛날부터 대한에는 나간사람 찾을 생각 마라, 이렇게 한 말이 있는데 그냥 추울 때 나가면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거 같아.)

11. 놀이

111001 @ 놀이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볼목리에선 아이들은 어떤 놀이를 하멍 지내수과?(놀이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보목리에선 아이들은 어떤 놀이를 하면서 지냈습니까?)

111001 #1 놀이?(놀이?)

111001 @ 예.(예.)

111001 #1 놀이야, 팽이, 자치기, 또 공기, 또 딱지치기, 땅뺏기 요추룩, 여저들은 고무줄.(놀이야, 팽이, 자치기, 또 공기, 또 딱지치기, 땅뺏기 이처럼, 여자들은 고무줄.)

연

111002 @ 이제 놀이에 대해서 여쭤보쿠다예. 연날리기 할 때 혹시 연에는 어떤 종류가 이서신지 기억남수과?(이제 놀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연날리기 할 때 혹시 연에는 어떤 종류가 있었는지 기억납니까?)

111002 #1 연에는 옛날에 뭐가 이시니, 옛날에 사각표로 헌 거.(연에는 옛날에 뭐가 있니, 옛날에 사각표로 한 거.)

111002 @ 방패연마씨?(방패연요?)

111002 #1 방패연 이섯고, 가오리연.(방패연 있었고, 가오리연.)

111002 @ 예.(예.)

111002 #1 여기는 보통 두 가지 연. 가오리연허고 방패연.(여기는 보통 두 가지 연. 가오리연하고 방패연.)

111002 @ 옛날에도 그냥 가오리연, 방패연이렌 골앗수과?(옛날에도 그냥 가오리연, 방패연이렌 말했습니까?)

111002 #1 에, 에. 게난 여기는 보통 두 가지벳긔 아년.(예, 예. 그러니까 여기는 보통 두 가지밖에 안했어.)

111003 @ 그때 연 만들 때 연줄은 뭘로 헷수과?(그때 연 만들 때 연줄은 뭐로 했습니까?)

111003 #1 엿날 우리 저 미녕씰로.(옛날 우리 저 무명실로.)

111003 @ 아, 미녕씰로마씨?(아, 무명실로요?)

111003 #1 어.(어.)

111003 @ 그 신서란, 신사라렌 헤가지고 그런 것들은 사용 안 헤낫수과?(그 신서란, 신사라라고 해서 그런 것들은 사용 안 했습니까?)

111003 #1 아, 신사라?(아, 신서란?)

111003 @ 예.(예.)

111003 #1 신사라? 신사라로 아년 옛날에 그거 미녕씰로.(신서란? 신서란으로 안 했어 옛날에 그거 무명실로.)

111003 @ 미녕씰로? 그럼 연 날릴 때 연을 만들고 날리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헤섯수과?(무명실로? 그럼 연 날릴 때 연을 만들고 날리고 그런 걸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했습니까?)

111003 #1 연 만들 때?(연 만들 때?)

111003 @ 예. 연 만들고 날릴 때 사용뒈는 도구허고, 도구랑, 씰은 미녕씰이렌

허고예? 연 날릴 때 필요한 도구들이 뭐 뭐엿수과?(예. 연 만들고 날릴 때 사용되는 도구하고, 도구랑, 실은 무명실이라고 하고요? 연 날릴 때 필요한 도구들이 뭐 뭐였습니까?)

111003 #1 옛날에 연 만들젠게 낭덜 허젠허민 대나무, 창호지, 실 또 연줄 감는 거.(옛날에 연 만들려고 나무들 하려고 하면 대나무, 창호지, 실 또 연줄 감는 거.)

111003 @ 그 감는 걸 그걸 뭐렌 골아낫수과?(그 감는 걸 그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111003 #1 글쎄 그거는.(글쎄 그거는.)

111004 @ 혹시 연 날릴 때 씰 감는 거를 뭐렌 골아난지 기억남수과?(혹시 연 날릴 때 실 감는 거를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납니까?)

111004 # 엿날 씰은 이 저 대로 헤근에, 현재 식으로 이런 기계식으로 돌리지 않고, 대로헤서 찝신 놓시 ᄒᆞ는 거 잇잖아게. 저 제주도말로 뭐라? 저 씰을 감는다 이거야.(옛날 실은 이 저 대나무로 해서, 현재 식으로 이런 기계식으로 돌리지 않고, 대나무로 해서 짚신 놓듯이 하는 거 있잖아. 저 제주도말로 뭐라? 저 실을 감는다 이거야.)

111004 @ 그 씰 감을 때 그 씰을 잘 풀리거나 감기 위해서 어떤 그 방법이 필요헷수과?(그 실 감을 때 그 실을 잘 풀리거나 감기 위해서 어떤 그 방법이 필요했습니까?)

111004 #1 근데 그 바다에 고기 나끄는 식으로 이렇게 감아서 쭉 ᄂᆞ민은, 도르민 이렇게 쭉 나가고 땡길 땐 영영 감는 것이 이서. 영 잡으민은 바람에 쭉 나가고 감을 때는 이렇게 저 저 뭐야, 물레모냥으로.(그런데 그 바다에 고기 낚는 식으로 이렇게 감아서 쭉 놓으면, 달리면 이렇게 쭉 나가고 당길 땐 이렇게이렇게 감는 것이 있어. 이렇게 잡으면 바람에 쭉 나가고 감을 때는 이렇게 저 저 뭐야, 물레 모양으로.)

111004 @ 그걸 혹시 뭐라고 헤신지 기억 안 남신가마씸?(그걸 혹시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나요?)

111004 #1 그거 이름은 잘 모르켜, 잊어부런.(그거 이름은 잘 모르겠어, 잊어버려서.)

111004 @ 벌이라는 말 들어봣수과? 벌이?(벌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벌이?)

111004 #1 벌이? 벌이 연벌이렌 헤가지고 연 저 연술을 가저가지고 네 밧디면 네 밧디 메다는 거, 그걸 벌이.(벌이? 벌이 연 벌이라고 해서 연 저 연술을 가져가지고 네 곳이면 네 곳 매어다는 거, 그걸 벌이.)

111004 @ 이걸 표준어로 얼레라고 허주마씸.(이걸 표준어로 얼레라고 하거든요.)

111004 #1 음, 얼레, 얼레.(음, 얼레, 얼레.)

111004 @ 여기선 뭐렌 골아신지 모르쿠과?(여기선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습니까?)

111004 #1 얼레.(얼레.)

111004 @ 여기서도 얼레렌 골앗수과?(여기서도 얼레라고 말했습니까?)

111004 #1 응, 얼레.(응, 얼레.)

111004 @ 아, 경헷구나예?(아, 그랬군요.)

111004 #1 얼레가 맞아.(얼레가 맞아.)

111004 @ 그럼 개미는 뭐꽈?(그럼 개미는 뭡니까?)

111004 #1 어? 개미?(어? 개미?)

111004 @ 예. 보면은 연을 만들 때 연대, 벌이, 얼레, 실, 개미라고 헷는데 개미는 뭘 얘기하는 건고예?(예. 보면 연을 만들 때 연대, 벌이, 얼레, 실, 개미라고 했는데 개미는 뭘 얘기하는 건가요?)

111004 #1 개민? 그건 잘 모르겟는데.(개민? 그건 잘 모르겠는데.)

111005 @ 연싸움할 때 연싸움 헤봣수과?(연싸움할 때 연싸움 해봤습니까?)

111005 #1 음.(음.)

111005 @ 이겨난마씨? 연싸움헐 때 어떤 장면을 이기는 거라고 하고 젓다는 건 어떵헹 젓다 헷수과?(이겨났나요? 연싸움할 때 어떤 장면을 이기는 거라고 하고 졌다는 건 어떻게 해서 졌다했습니까?)

111005 #1 연싸움은 둘이가 연을 날리면은 부딪처서 잘라지는 건, 지는 사람인디 그 당시에는 이길라고 실에다가 저 사기그릇.(연싸움은 둘이가 연을 날리면 부딪쳐서 잘라지는 건, 지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이기려고 실에다가 저 사기그릇.)

111005 @ 예.(예.)

111005 #1 사기그릇을 막 ᄀᆞ루로 만들아서 풀 실에다 묻혀서, 이게로 긁어저서 다른 사람 거 잘라저불게시리 이길라고 서로, 사기그릇 가루 풀로 묻혀가지고 마찰뒈서 짤라지게 그런 식으로 헤서 이길라고 헷어. 연싸움을 그렇게 헤서 연싸움.(사기그릇을 막 가루로 만들어서 풀 실에다 묻혀서, 이것으로 긁어져서 다른 사람 거 잘라져버리게 이기려고 서로, 사기그릇 가루 풀로 묻혀가지고 마찰돼서 잘라지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기려고 했어. 연싸움을 그렇게 했어 연싸움.)

111005 @ 사기그릇을 그 가루로 만들 때 그 그릇은 어디서 나서 헨마씸?(사기그릇을 그 가루로 만들 때 그 그릇은 어디서 나서 했나요?)

111005 #1 장태 ᄀᆞ튼 거 께진 거 옹기, 옹기 께진 것들 막 삐저서 그 마찰로 헤서 짤라지게.(장태 같은 거 깨진 거 옹기, 옹기 깨진 것들 막 빻아서 그 마찰로 해서 잘라지게.)

111005 @ 옹기를 여기서는 뭐렌 골앗수과?(옹기를 여기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111005 #1 옹기.(옹기.)

111005 @ 그냥 옹기렌 골앗수과? 옛날에도마씸?(그냥 옹기라고 말했습니까? 옛날에도요?)

111005 #1 어, 어.(어, 어.)

111005 @ 아까말씀하신 장태는 뭐꽈?(아까말씀하신 장태는 뭡니까?)

111005 #1 옹기는 통틀어서 옹기고, 장태, 항, 대바지[187], 허벅.(옹기는 통틀어서 옹기고, 장태, 항, '대바지', 허벅.)

111006 @ 연날리기에서 연 만들거나 날릴 때 어렷을 때 특별한 기억 하나만 골아줍서.(연날리기에서 연 만들거나 날릴 때 어렸을 때 특별한 기억 하나만 말해주세요.)

111006 #1 여기서는 젤 그 저 연 날리다가 그 높은 동산에서 아까 애기헷던 보리밭에서 짤라지면은 찾아볼 수가 없자녀게.(여기서는 제일 그 저 연 날리다가 그 높은 동산에서 아까 애기했던 보리밭에서 잘라지면 찾아볼 수가 없잖아.)

111006 @ 예.(예.)

111006 #1 그러니까 그런 때는 완전 그것이 완전 금년 운이 목적달성이 뒛다는 식으로 막 기분 좋게. 일러버리니까 섭섭한 마음에 헷는 진 몰라도.(그러니까 그런 때는 완전 그것이 완전 금년 운이 목적달성이 됐다는 식으로 막 기분 좋게. 잃어버리니까 섭섭한 마음에 했는지는 몰라도.)

111006 @ 예.(예.)

111006 #1 자기가 운이 좋은 해이다 생각을 헷주.(자기가 운이 좋은 해이다 생각을 했지.)

111006 @ 그때 누구랑 부떠가지고 그때 기억하나만 골아줍서.(그때 누구랑 붙어가지고 그때 기억하나만 말해주세요.)

111006 #1 옛날 그때 벗덜토 없지마는 그 당시에는 뭐 어린 때니까 아이들 뭐 한 두 사람 하는 게 아니거든, 여러 사람이 ᄀᆞ찌덜 날리고.(옛날 그때 벗들도 없지마는 그 당시에는 뭐 어린 때니까 아이들 뭐 한 두 사람 하는 게 아니거든, 여러 사람이 같이 날리고.)

111006 @ 최종적으로 부떳던 벗, 생각나는 사람 엇수과?(최종적으로 붙었던 벗,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111006 #1 모르지. 이제 벗, 이실 수도 엇고.(모르지. 이제 벗, 있을 수도 없고.)

제기차기

111007 @ 남자아이들이 주로 즐겻겟지만 재기차기가 잇엇잖아예? 아까 말씀하신대로예? 재기는 어떵 만들고 그 재기에서 사용뒈는 재료는 뭐 이섯수과?(남자아이들이 주로 즐겼겠지만 재기차기가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요? 재기는 어떻게 만들고 그 재기에서 사용되는 재료는 뭐 있었습니까?)

111007 #1 재기는 그 문 발르는 창호지.(재기는 그 문 바르는 창호지.)

111007 @ 예.(예.)

111007 #1 창오지에다가 요즘 쒜돈. 엽전. 요즘 말하면 쒜돈, 옛날에 구멍 뚤러

187) '대바지'는 모양이 둥그스름하여서 가운 데 배는 불룩하고 위아래는 졸아지되 위의 아가리는 아주 좁게 된, 물을 길어 나르는 작은 동이를 말한다. = 대베기, 대배기.

진, 하나면 하나 두 개 놔서 무꺼서 저 찢어서 무꺼서 여기 쩨여서 엽전을 놔서 무꺼서 재기를 만들어.(창호지에다가 요즘 쇠돈. 엽전. 요즘 말하면 쇠돈, 옛날에 구멍 뚤린, 하나면 하나 두 개 놔서 묶어서 저 찢어서 묶어서 여기 찢어서 엽전을 놔서 묶어서 재기를 만들어.)

111008 @ 경헷구나예?(그랬군요.)

111008 @ 재기차기에도 보면 여러 종류가 잇잖아예? 한 발차기도 잇고예?(재기차기에도 보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한 발차기도 있고요?)

111008 #1 어.(어.)

111008 @ 어떤, 어떤 종류들이 이섯수과?(어떤, 어떤 종류들이 있었습니까?)

111008 #1 흔발차기허고 양발차기가 보통.(한발차기하고 양발차기가 보통.)

111008 @ 예.(예.)

111008 #1 또 멀리차기도 ᄒᆞ고.(또 멀리차기도 하고.)

111008 @ 멀리차기가 멀리 찬다는 거꽈? 저 쪽으로 찬다는 거꽈?(멀리차기가 멀리 찬다는 겁니까? 저 쪽으로 찬다는 겁니까?)

111008 #1 어.(어.)

111008 @ 아, 상대방이 받을 수 잇게?(아, 상대방이 받을 수 있게.)

111008 #1 어.(어.)

111008 @ 아니면 누가 더 먼 디 차기꽈?(아니면 누가 더 먼 데 차깁니까?)

111008 #1 어, 어. 경헤.(어, 어. 그렇게 해.)

111008 @ 재기차기에서 올리기하고 물기가 잇는데 건 어떤 식이엿수과?(재기차기에서 올리기하고 물기가 있는데 그건 어떤 식이였습니까?)

111008 #1 올리기?(올리기.)

111008 @ 예.(예.)

111008 #1 올리기 허고.(올리기 하고.)

111008 @ 물기.(물기.)

111008 #1 그런 건 모르고. 재기차기는 요즘 베드민턴 모양으로 여기서 탁 차민 저기서 탁 여기서 차고 못 차는 사름이 지는 거고, 그런 것도 이섯고, 한다리차기, 양다리차기 이섯고.(그런 건 모르고. 재기차기는 요즘 베드민트 모양으로 여기서 탁 차민 저기서 탁 여기서 차고 못 차는 사람이 지는 거고, 그런 것도 있었고, 한다리차기, 양다리차기 있었고.)

111009 @ 한발차기나 양발차기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승부를 가리는 거꽈? 이기고 지는 것은 어떤 식으로 결정헨마씨?(한발차기나 양발차기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승부를 가리는 겁니까? 이기고 지는 것은 어떤 식으로 결정했나요?)

111009 #1 ᄋᆞ라 번 차는 사름이 이기고.(여러 번 차는 사람이 이기고.)

111009 @ 여러 번?(여러 번.)

111009 #1 흔 발로 ᄋᆞ라 번 차는 사름이 이기고.(한 발로 여러 번 차는 사람이 이기고.)

111009 @ 가장 많이 찻던 게 몇 번 정도 찻던 거 ᄀᆞ트꽈? 삼춘은?(가장 많이 찼던 게 몇 번 정도 찼던 거 같습니까? 삼촌은?)

111009 #1 그건 뭐 말할 순 엇고 지금.(그건 뭐 말할 수 없고 지금.)

111009 @ 흔 백 개나 ᄒᆞ는 사름도 이서난마씸?(한 백 개나 하는 사람도 있었나요?)

111009 #1 백 개까지 차는 사람 이섯어요.(백 개까지 차는 사람 있었어요.)

111009 @ 삼춘은 경 안헤낫수과?(삼촌은 그렇게 안했습니까?)

111009 #1 아, 우린 그 정돈 못허고.(아, 우린 그 정돈 못하고.)

111010 @ 혹시 재기차기 하다가 뭔가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든가 그런 건 엇엇수과?(혹시 재기차기 하다가 뭔가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든가 그런 건 없었습니까?)

111010 #1 그런 건 엇고, 재기차긴 재미지긴 ᄒᆞ 거주.(그런 건 없고, 재기차긴 재미있기는 한 거지.)

111010 @ 이기면 이긴 편이 뭐 헌다든가, 진편이 뭘 낸다든가 그런 건 엇어난마씸? 그런 것도 이서나실 거라예?(이기면 이긴 편이 뭐 한다든가, 진편이 뭘 낸다든가 그런 건 없었나요? 그런 것도 이었겠지요?)

111010 #1 그 당시에는 내기 식도 물론 헷겟는데 잘 기억이 안 나.(그 당시에는 내기 식도 물론 했겠는데 잘 기억이 안 나.)

자치기

111011 @ 자치기는 어떤 종류가 이섯수과?(자치기는 어떤 종류가 있었습니까?)

111011 #1 자치기는 그 이름은 그 자치기 보면 그냥 받는 자치기가 잇고, 또 구멍 파서 놔서 춤, 이때 말로 케푸려서[188], 또 던저서 구멍드레 던저서 가까운데 잇으면 또 때려서, 세 번이나 두 번 때려서 멀리 보내서, 자로 그걸로 재서 때리는 자치기로, 이렇게 재서 많이 나가는 게 이기는 걸로.(자치기는 그 이름은 그 자치기 보면 그냥 받는 자치기가 있고, 또 구멍 파서 놔서 참, 이때 말로 '케푸려서', 또 던져서 구멍으로 던져서 가까운데 있으면 또 때려서, 세 번이나 두 번 때려서 멀리 보내서, 자로 그걸로 재서 때리는 자치기로, 이렇게 재서 많이 나가는 게 이기는 걸로.)

111011 @ 그럼 여기서도 이기고 지면,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뭔가, 저가 어렷을 때 보면 여기 때리게 저기 때리게 허는 것도 이섯잖아예? 여긴 어떵 헷수과?(그럼 여기서도 이기고 지면,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뭔가, 저가 어렸을 때 보면 여기 때리기 저기 때리기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여긴 어떻게 했습니까?)

111011 #1 그런 건도 이섯주마는 내기로 안 허고 재미로 헷주.(그런 건도 있었지만 내기로 안 하고 재미로 했지.)

111011 @ 재미로요?(재미로요?)

111012 @ 자치기 할 때 자치기에 사용되는 도구는 어떤 식으로 준비헷수과?(자

188) '케푸리다'는 뭉치거나 모아 있는 물체를 헤집어 이리저리 흩어지게 하다를 말한다. = 케우리다

치기 할 때 자치기에 사용되는 도구는 어떤 식으로 준비했습니까?)

111012 #1 자치기는 무슨 나무니까 나무로 굳은 걸로 흔 오십 쎈치 정도, ᄀᆞ튼 나무 두 개가 필요해.(자치기는 무슨 나무니까 나무로 굳은 걸로 한 오십 센티 정도, 같은 나무 두 개가 필요해.)

111012 @ 두 개가 같은 크기로 준비헷수과?(두 개가 같은 크기로 준비했습니까?)

111012 #1 아니, 하나는 족은 거. 나가는 거.(아니, 하나는 작은 거. 나가는 거.)

111012 @ 그런 낭들은 어디 가근에 구헨마씸?(그런 나무들은 어디 가서 구했나요?)

111012 #1 나무? 무신 나무?(나무? 무슨 나무?)

111012 @ 자치기 헐 때 자. 어디 강 무신 나무로 준비헤낫수과?(자치기 할 때 자. 어디 가서 무신 나무로 준비했습니까?)

111012 #1 아까 자치기 헤난 나무?(아까 자치기 했던 나무?)

111012 @ 그난 그 나무들이 우리 주변에 흔히 보면 뭐 소나무도 잇고 무신 나무도 이신디.(그러니까 그 나무들이 우리 주변에 흔히 보면 뭐 소나무도 있고 무슨 나무도 있는데.)

111012 #1 몰라. 죽어근에 곧은 나무하니깐.(몰라. 죽어서 곧은 나무하니까.)

111012 @ 옛날에 뽁땅나무라고 있엇는데.(옛날에 예덕나무라고 있었는데.)

111012 #1 꼬불꼬불 한 건 안 되니깐. 곧은 걸로.(꼬불꼬불 한 건 안 되니까. 곧은 걸로.)

111014 @ 자치기 하면서 특별한 추억 ᄀᆞ튼 건 엇수과?(자치기 하면서 특별한 추억 같은 건 없습니까?)

111014 #1 자치기 허면서 추억은 엇고, 우리 어릴 때 어릴 때는 저 저쪽에서 초등학교 다녓는데, 학교 끗나서 가다가 중간에서 자치기 헤놓면은 해 지는 질 모르게 헷주.(자치기 허면서 추억은 없고, 우리 어릴 때 어릴 때는 저 저쪽에서 초등학교 다녔는데, 학교 끝나서 가다가 중간에서 자치기 하면 해 지는 질 모르게 했지.)

말타기

111015 @ 놀이에서 말타기도 잇는데, 말타기는 어떤 놀이를 얘기하는 거꽈?(놀이에서 말타기도 있는데, 말타기는 어떤 놀이를 얘기하는 겁니까?)

111015 #1 말타기는 이렇게 이렇게 굽어서 연결뒈서 저 뛰어가멍 말 타는 건디.(말타기는 이렇게 이렇게 굽어서 연결되어 저 뛰어가면서 말 타는 건데.)

111016 @ 말타기는 죽은말타기도 잇고, 생말타기도 잇더라고예?(말타기는 죽은말타기도 있고, 생말타기도 있더라고요?)

111016 #1 이거는 굽은말타긴디.(이거는 굽은말타기인데.)

111016 @ 예.(예.)

111016 #1 굽은 말을 타서 탁 손잡아 지프면서 탁 탈수도 잇고.(굽은 말을 타서

탁 손잡아 짚으면서 탁 탈수도 있고.)

111016 @ 예.(예.)

111016 #1 기냥 타버리면 말이 뭐야 저 끈어저불던지 짤라저불던지 뎃싸저불던지 허면은 진 거.(그냥 타버리면 말이 뭐야 저 끊어지든지 잘라져버리든지 뒤집어지든지 하면 진 거.)

111017 @ 건 굽은말타기구나예? 그럼 생말타기라던지 죽은말타기는?(그건 굽은말타기군요? 그럼 생말타기라든지 죽은말타기는?)

111017 #1 그런 건 엇어. 여기는 주로 굽은말타기.(그런 건 없어. 여기는 주로 굽은말타기.)

111018 @ 기구나예? 대말타기라는 말도 이서예? 대말타기.(그렇군요? 대말타기라는 말도 있어요? 대말타기.)

111018 #1 대말타기? 건 모르고.(대말타기? 그건 모르고.)

111019 @ 말타기하멍 특별한 추억 ᄀᆞ튼 건 엇수과?(말타기하며 특별한 추억 같은 건 없습니까?)

111019 #1 추억은 뭐 옛날 헤던 거 때문에 지금은 모르고.(추억은 뭐 옛날 했던 거 때문에 지금은 모르고.)

구슬치기

111020 @ 구슬치기가 이신디예? 구술치기에서 구슬은 그땐 어떵 준비헷수과?(구슬치기가 있는데요? 구술치기에서 구슬은 그땐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111020 #1 야튼 구술은 유리구술인디?(하여튼 구술은 유리 구술인데?)

111020 @ 예.(예.)

111020 #1 구술로 헤서 이렇게 헤서 맞추고.(구술로 해서 이렇게 해서 맞추고.)

111020 @ 옛날에도 그 오래전에도 구술이 이서난마씸?(옛날에도 그 오래전에도 구술이 있었나요?)

111020 #1 야튼 구술이 이서서, 그 때.(하여튼 구술이 있었어, 그 때.)

111020 @ 그 구술은 어디 강 어떵 구헤신고예?(그 구술은 어디 가서 어떻게 구했을까요?)

111020 #1 글쎄, 그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구슬치기를 헌 기억은 나요.(글쎄, 그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구슬치기를 한 기억은 나요.)

111021 @ 구술치기 헌 기억은 나고예? 구슬치기 헐 때 보면 어떤, 어떤 종류가 이섯수과?(구술치기 한 기억은 나고요? 구슬치기 할 때 보면 어떤, 어떤 종류가 있었습니까?)

111021 #1 구술치기는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자 이렇게 헤서 마치는 거 허고.(구술치기는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저 이렇게 해서 마치는 거 하고.)

111022 @ 마치는 거 허고 그 다음마씨? 구멍치기라는 거라든가?(마치는 거 하고 그 다음은요? 구멍치기라는 거라든가?)

111022 #1 고냥치기.(고냥치기.)

111022 @ 고냥치기?(구멍치기?)

111022 #1 쒜돈, 돈 크기로 헤서 쒜돈. 돈 크기로 구멍을 파서, 낙이 잇고, 여기 선을 그려서.(쇠돈, 돈 크기로 해서 쇠돈. 돈 크기로 구멍을 파서, 낙이 있고, 여기 선을 그려서.)

111022 @ 예.(예.)

111022 #1 먼디서 그 구멍에 들어가민은 저 얼마, 또 낙 헤버리믄 무효.(먼 데서 그 구멍에 들어가면 저 얼마, 또 낙 해버리면 무효.)

111022 @ 음.(음.)

111022 #1 또 거기 멧 개민 멧 개 던저서 멧 개가 가까이가민 이기는 거. 또 그건 구멍치기 잇고.(또 거기 몇 개면 몇 개 던져서 몇 개가 가까이가면 이기는 거. 또 그건 구멍치기 있고.)

111022 @ 예.(예.)

111022 #1 동그라미 그려서 그 안에 몇 개가 떤지느냐, 그 것에 두 가지.(동그라미 그려서 그 안에 몇 개가 던지느냐, 그 것에 두 가지.)

111022 @ 아까 구멍을 고냥치기렌 헷수과?(아까 구멍을 고냥치기라고 했습니까?)

111022 #1 구멍이 고냥.(구멍이 고냥.)

111023 @ 고냥치기예?(고망치기요?)

111023 #1 에.(예.)

111023 @ 가급적이면 옛날 그 말로 골아주십서예? 고냥치기가 잇고 또 원치기는 아까 그 동그라미 헤가지고 허는 거고예?(가급적이면 옛날 그 말로 말해주세요? 구멍치기가 있고 또 원치기는 아까 그 동그라미 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111023 #1 음.(음.)

111024 @ 벽치기는 뭐꽈? 벽치기.(벽치기는 뭡니까? 벽치기.)

111024 #1 벽치기는 벽에다가 돈 잡아 던져서 멀리 가는 거 잇곡, 또 상대방에 돈 옆이 가서 가가민 따먹는 그런 거 잇고.(벽치기는 벽에다가 돈 잡아 던져서 멀리 가는 거 있고, 또 상대방의 돈 옆에 가서 다가가면 따먹는 그런 거 있고.)

111024 @ 그걸 돈으로는 안 헹 구슬로는 안헷수과?(그걸 돈으로는 안 해서 구슬로는 안했습니까?)

111024 #1 구술은? 돈 어실 땐 구슬로도 허고게.(구술은? 돈 없을 땐 구슬로도 하고.)

111024 @ 아, 경헷구나예? 그다음엔 눈치기 또는 눈알치기는 어떤 거꽈?(아, 그랬군요? 그다음엔 눈치기 또는 눈알치기는 어떤 겁니까?)

111024 #1 음?(음?)

111024 @ 구술로 허는 눈치기, 눈알치기.(구술로 하는 눈치기, 눈알치기.)

111024 #1 그런 거 잘 몰으크라.(그런 거 잘 모르겠어.)

111024 @ 혹시 이런 거 아니꽈? 여기다 구술 놓고 딱 맞추는 그런 거 엇엇수과?(혹시 이런 거 아닌가요? 여기다 구술 놓고 딱 맞추는 그런 거 없었습니까?)

111024 #1 그런 것도 이서낫지.(그런 것도 있었지.)

111024 @ 옛날에 구슬을 구슬이라고 헷수과? 여기서도?(옛날에 구슬을 구슬이라고 했습니까? 여기서도?)

111024 #1 , 구술이렌, 해방 후에 나와실거여.(, 구술이라고, 해방 후에 나왔을 거야.)

111025 @ 눈알치기나 삼각치기는 엇엇수과?(눈알치기나 삼각치기는 없었습니까?)

111025 #1 어선.(없어.)

111027 @ 구슬치기하면서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건 엇수과?(구슬치기하면서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건 없습니까?)

111027 #1 구술치기는 우린 안헤반.(구술치기는 우린 안 해봤어.)

111027 @ 해방 후에 구술이 잇덴허민 이미 다 커부럿잖아예? 구술치기 하기에는예? 해방 전에 어렷을 때 일제 시대 때 헷던 놀이들은 어떤 것들 이섯수과?(해방 후에 구술이 있다고 해도 이미 다 커버렸잖아요? 구술치기 하기에는? 해방 전에 어렸을 때 일제강점기 때 했던 놀이들은 어떤 것들 있었습니까?)

111027 #1 아까 헷던 거, 다 일제 시대 때 헤난 거.(아까 했던 거, 다 일제강점기 때 했던 거.)

111027 @ 일제 시대 헤난 거예?(일제강점기 했던 거요?)

딱지치기

111028 @ 딱지치기를 아까 빠짱치기렌 헷수과?(딱지치기를 아까 빠짱치기라고 했습니까?)

111028 #1 에. 빠짱치기.(예. 딱지치기.)

111028 @ 빠짱은 어떵 준비헷수과?(딱지는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111028 #1 빠짱치기는 헌책 가지고 골연곽이라고 헤서 그런 거로 만들아서 그렇게 뒌거여.(딱지치기는 헌책 가지고 판지라고 해서 그런 걸로 만들어서 그렇게 된 거야.)

111028 @ 일제 시대 때 같은 경우엔 사실 그런 골연곽도 구하기 어렵지 안헤신가마씸?(일제강점기 때 같은 경우엔 사실 그런 판지도 구하기 어렵지 안 했습니까?)

111028 #1 힘들지.(힘들지.)

111028 @ 책도 준비허기 어렵지예?(책도 준비허기 어렵지요?)

111028 #1 근데 보통 신문지나 책 ᄇᆞ려서.(근데 보통 신문지나 책 찢어서.)

111028 @ 그때 당시 신문지도 이섯수과? 일제시댄데도?(그때 당시 신문지도 있었습니까? 일제 시댄데도?)

111028 #1 신문지도 이섯주마는 보통 책으로 많이 헤낫주.(신문지도 있었지만 보통 책으로 많이 했었지.)

111028 @ 책으로?(책으로?)

111028 #1 못 쓰는 책으로 많이들 헷주. 책뚜껑으로도 만들고.(못 쓰는 책으로 많이들 했지. 책뚜껑으로도 만들고.)

111029 @ 딱지치기에는 어떤 종류들이 이섯수과?(딱지치기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었습니까?)

111029 #1 딱지치기는 뭐 때서 뒤집히믄.(딱지치기는 뭐 때서 뒤집히면.)

111029 @ 그것벳긔 엇엇수과?(그것밖에 없었습니까?)

111029 #1 주로 그거주.(바로 그거지.)

111029 @ 그 빠짱에도 종류가 이섯잖아예?(그 딱지에도 종류가 있잖아요?)

111029 #1 빠짱도 아까 그 얘기허는 종이로 만드는 것도 잇고, 그 딱지도 잇고.(딱지도 아까 그 얘기하는 종이로 만드는 것도 있고, 그 딱지도 있고.)

111029 @ 예.(예.)

111029 #1 또 골연꽉으로 헤서 동굴락허게 기냥 한 장으로 책뚜껑 같은 거 두꺼운 걸로 헤서 기냥 딱지치기하는 두 가지.(또 판지로 해서 동그랗게 그냥 한 장으로 책뚜껑 같은 거 두꺼운 걸로 해서 그냥 딱지치기하는 두 가지.)

111030 @ 근데 딱지를 만들 때도 보면 한 면만 뒈기도 하고 양쪽면으로 딱지가 보이게 하고 하는 것도 잇지 않으꽈?(근데 딱지를 만들 때도 보면 한 면만 되기도 하고 양쪽 면으로 딱지가 보이게 하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111030 #1 그것이 저 종이로 헤서 만드는 것이 일로일로 오그리고 절로 오그리고 헤서 만드는 그 딱지가 잇고.(그것이 저 종이로 해서 만드는 것이 이리 이리 접고 저리로 접고 해서 만드는 그 딱지가 있고.)

111030 @ 예.(예.)

111030 #1 아까보민 이런 쵁뚜껑 ᄀᆞ튼 걸로 이추룩 뚜꺼운 거.(아까 보면 이런 책뚜껑 같은 걸로 이처럼 두꺼운 거.)

111030 @ 예.(예.)

111030 #1 뚜꺼운 걸로 동글락하게 헤서 요 요 빠장으로 이 것도 잇고.(두꺼운 걸로 동그랗게 해서 요 요 딱지로 이것도 있고.)

111030 @ 아, 안이 잇구나. 짤라서 쓰면 뒈고예?(아, 안이 있구나. 잘라서 쓰면 되고요?)

111030 #1 게서 이건 탁 때려서 뒤집으면 먹는 거. 딱지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그래서 이건 탁 때려서 뒤집으면 먹는 거. 딱지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111030 @ 예.(예.)

111030 #1 아까 그 종이로 접는 건 이디 꾸부렷당 저디 꾸부렷당 안팟이 없어 그건.(아까 그 종이로 접는 건 여기 접었다가 저기 접었다가 안팎이 없어 그건.)

111031 @ 빠짱치기 할 때 특별하게 제밋엇던 거 엇수과?(딱지치기 할 때 특별하게 재미있었던 거 없습니까?)

111031 #1 빠짱치기 허멍 제미잇는 거야 이익은 엇어도 많이 따면 기분이 좋은 겁주.(딱지치기 하면서 재미있는 거야 이익은 없어도 많이 따면 기분이 좋은 것입죠.)

111031 @ 게 삼춘은 많이 딴 편에 속헤낫수과 멘날 밋지는 편에 속헤낫수과?(게 삼촌은 많이 딴 편에 속했습니까, 매일 잃는 편에 속했습니까?)

111031 #1 아이고, 땃다가 밋지기도 허고.(아이고, 땄다가 밑지기도 하고.)

111031 @ 경헤낫수과? 그때 헷던 기억들은 나지예?(그랬습니까? 그때 했던 기억들은 나지요?)

111031 #1 응, 많이 헷서요. 우리.(응, 많이 했어요. 우리.)

숨바꼭질

111032 @ 남자어른들도 숨바꼭질 ᄀᆞ튼 것도 헤낫수과? 옛날 숨바꼭질을 뭐렌 골아수과? 여기서는.(남자어른들도 숨바꼭질 같은 것도 했습니까? 옛날 숨바꼭질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서는.)

111032 #1 곱을락. 남자들도 허긴 헤서.('곱을락'. 남자들도 하긴 했어.)

111033 @ 곱을락 헐 때 그 술래를 뭐렌 ᄀᆞᆯ아수과?(숨바꼭질 할 때 그 술래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111033 #1 술래를 보통 워니[189]렌 헤낫주. 워니가 일본말.(술래를 보통 '워니'라고 했었지. '워니'가 일본말.)

111033 @ 워니가 일본말이꽈? 게민 워니라는 뜻이 일본말로 뭐라낫수과?('워니'가 일본말인가요? 그러면 '워니'라는 뜻이 일본말로 뭐였습니까?)

111033 #1 그 뜻이 모르주게. 워니렌 헌 뜻이 눈 곱아근에 ᄒᆞ나 둘 셋 쑤무개ᄁᆞ지 세어근에 다 끗나민 촞이레 간단 말이어.(그 뜻을 모르지. 술래라고 한 뜻이 눈 감아서 하나 둘 셋 스무 개까지 세서 다 끝나면 찾으러 간단 말이야.)

111033 @ 그때 워니가 눈감아서 셋던 말이 하나 둘 셋 말고 또 다른 말 이섯수과?(그때 술래가 눈감아서 세던 말이 하나 둘 셋 말고 또 다른 말 있습니까?)

111033 #1 다른 말은 엇고 하나 둘 셋 시간 재는 거주게.(다른 말은 없고 하나 둘 셋 시간 재는 거지.)

111033 @ 아니 우리 때는 무궁화 꽃이 피엇습니다, 이런 거 이섯주게마씸.(아니 우리 때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거 있었거든요.)

111033 #1 아, 그건 후예고 그거는 해방 후에 헷지게.(아, 그건 후고 그거는 해방 후에 했지.)

111033 @ 그전에는 숫자만 세나고예?(그전에는 숫자만 세고요?)

111033 #1 응, 그 전에는 쑤무 개민 쑤무 개, 서른 개민 서른 개. 그 동안에 곱는 거. 무궁화 꽃이 피엇습니다ᄒᆞ멍 곱으멍 헌 건 해방 후에.(응, 그 전에는 스무 개민 스무 개, 서른 개민 서른 개. 그 동안에 숨는 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하면서 숨으면서 한 건 해방 후에.)

111033 @ 그러게에. 일제 때는 ᄒᆞ나 둘 허멍 헤난 거예?(그러게요. 일제 때는 하나 둘 하면서 했던 거요?)

111033 #1 응.(응.)

111033 @ 하나, 둘, 셋, 넷 헐 때 허는 거 쑤무 개 ᄁᆞ지 ᄀᆞᆯ아줍서.(하나, 둘, 셋, 넷 할 때 하는 거 스무 개 까지 말해주세요.)

111033 #1 ᄒᆞ나, 둘, 셋, 넷 다슷, ᄋᆞ솟, 일곱, ᄋᆞ답, 아홉, 열. 열 개 셀 동안에 빨리 강 숨으렌. 곱아야주, 그다음부터 열 개 센 후에는 워니가 촞으레 다녀야 뒈.(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 셀 동안에 빨리 가서 숨으라고. 숨어야지, 그다음부터 열 개 센 후에는 술래가 찾으러 다녀야 돼.)

실뜨기

111036 @ 실뜨기도 잇는데 이것도 남자들도 헤낫지예?(실뜨기도 있는데 이것도 남자들도 했었지요?)

111036 #1 씰뜨기도 보통 여자들이 하는데 남자도 허기도 헤서.(실뜨기도 보통

189) '워니'는 일본어 술래를 뜻하는 鬼를 말한다. '오니'를 '워니'로 발음한 것 같다.

여자들이 하는데 남자도 하긴 했어.)

111036 @ 남자도 헷지예? 그때 실뜨기 할 때 실은 어떤 종류엿수과?(남자도 했지요? 그때 실뜨기 할 때 실은 어떤 종류였습니까?)

111036 #1 씰뜨기 미녕씰이주.(실뜨기 무명실이지.)

111036 @ 미녕씰? 옛날엔 씰 귀헤부난 미녕씰 그냥 잘라당 써도 뭐렌 안 골안마씸?(무명실? 옛날엔 실 귀해서 무명실 그냥 잘라다가 써도 뭐라고 안 말했나요?)

111036 #1 야튼 그 정도는 미녕실로.(하여튼 그 정도는 무명실로.)

111037 @ 미녕씰로? 실뜨기 할 때는 보통 손가락 중 어느 손가락 많이 써수과?(무명실로? 실뜨기 할 때는 보통 손가락 중 어느 손가락 많이 썼습니까?)

111037 #1 주로 엄지손가락허고 새끼 손가락 영 헤서 요렇게 허고 요렇게 ᄒᆞ면서 ᄒᆞ는 건디 보통은 요 두 손가락으로 주로 이용 허고.(주로 엄지손가락하고 새끼손가락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서 하는 건데 보통은 요 두 손가락으로 주로 이용 하고.)

111038 @ 그러면 옛날에는 이걸 들이손가락이라고 얘기하긴 헷는데 엄지손가락하고 집게손가락, 엄지는 그냥 엄지렌 골앗수과?(그러면 옛날에는 이걸 들이손가락이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엄지손가락하고 집게손가락, 엄지는 그냥 엄지라고 말했습니까?)

111038 #1 어, 엄지손가락.(어, 엄지손가락.)

111038 @ 이거(검지를 가리키며))는 뭐엔 헷수과?(이거(검지를 가리키며))는 뭐라고 했습니까?)

111038 #1 거는 뭐렌 골아난지 모르고, 이거는 새끼손가락이렌하고.(그거는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고, 이거는 새끼손가락이라고 하고.)

111038 @ 실뜨기에서 새끼손가락은 어떤 역할을 헷수과?(실뜨기에서 새끼손가락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111038 #1 이거는 저거나 마찬가진디이, 이거 걸르민은 다른 상대방이 요고 요 사이다가 두 개를 가지고 뒤집어서 쭉 하다 다른 모양 나오민, 요거를 걸려다가 모양을 자꾸 바꾸게 하고, 그거를 못하는 사람이 지는 사름이주.(이거는 저거나 마찬가진데, 이거 걸리면 다른 상대방이 요고 요 사이에다가 두 개를 가지고 뒤집어서 쭉 하다 다른 모양 나오면, 요거를 걸려다가 모양을 자꾸 바꾸게 하고, 그거를 못하는 사람이 지는 사름이지.)

111038 @ 그럼 나중에 실뜨기를 삼춘 오셧을 때 ᄒᆞᆫ 번 헤보쿠다마는, 실뜨기에 대해서 뭔가 특별하게시리 기억나는 건 엇수과? 예를 들면 어렷을 때지만 남자 아이들과 여자아이들도 잇지만,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랑 같이 헤본적은 엇수과?(그럼 나중에 실뜨기를 삼촌 오셨을 때 한 번 해보겠습니다만, 실뜨기에 대해서 뭔가 특별하게 기억나는 건 없습니까? 예를 들면 어렸을 때지만 남자 아이들과 여자아이들도 있지만,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랑 같이 해본적은 없습니까?)

111038 #1 씰뜨기?(실뜨기?)

111038 @ 예.(예.)

111038 #1 씰뜨기덜도 혜 봣긋지.(실뜨기들도 혜 봤겠지.)

111038 @ ᄀᆞ찌?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 ᄀᆞ찌?(같이?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 같이?)

111038 #1 어.(어.)

111038 @ 그렇게 헐 때 특별나게 아, 난 야이가 좋으니깐 야이랑 실뜨기 헌다든가 이런 추억 ᄀᆞ튼 건 엇수과?(그렇게 할 때 특별나게 아, 난 이 애가 좋으니까 애랑 실뜨기 한다든가 이런 추억 같은 건 없습니까?)

111038 #1 아 그런 셍각으로 한 적은 엇이고.(아 그런 생각으로 한 적은 없었고.)

공기놀이

111041 @ 공기놀이 말씀하셧잖아예? 공기놀이도 남자어른들도 헤낫수과?(공기놀이 말씀하셨잖아요? 공기놀이도 남자어른들도 했었습니까?)

111041 #1 남자덜은 공기는 안 허고 주로 여자들.(남자들은 공기는 안 하고 주로 여자들.)

111041 @ 어떤 걸로 공기놀이 헤신지 기억남수과?(어떤 걸로 공기놀이 했는지 기억납니까?)

111041 #1 공기는 바당 가서 똑 닮은 돌로 그 저 눈깔사탕 모양으로 크기도 일정허고 동그란 거만 줏어다가허고.(공기는 바다 가서 꼭 닮은 돌로 그 저 눈깔사탕 모양으로 크기도 일정하고 동그란 거만 주어다가하고.)

111041 @ 그 작은 돌을 뭐렌 ᄀᆞᆯ아낫수과?(그 작은 돌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111041 #1 공기.(공기.)

111041 @ 공기?(공기?)

111041 #1 어, 공깃돌(어, 공깃돌.)

111041 @ 공기놀이에 대헤서 여자아이들 하는 거 보면서 기억나는 건 엇어마씸?(공기놀이에 대해서 여자아이들 하는 거 보면서 기억나는 건 없습니까?)

111041 #1 별로 기억이 나는 건 엇어. 여자들이 많이 허여.(별로 기억이 나는 건 없어. 여자들이 많이 해.)

111041 @ 여자들 막 하는 거 관심이성 보진 안 혜봔마씸?(여자들 막 하는 거 관심 있어 보기는 안 해봤나요?)

111041 #1 구경혜봣주게.(구경해봤지.)

111043 @ 구경할 때 특별하게 추억 ᄀᆞ튼 건 엇수과?(구경할 때 특별하게 추억 같은 건 없습니까?)

111043 #1 엇어.(없어.)

111043 @ 아니 막 헐 때 만일에 어린 마음에라도 좋아하는 여자 이서실거 아니꽈예?(아니 막 할 때 만일에 어린 마음에라도 좋아하는 여자 있었을 거 아닌가요?)

111043 #1 엇어.(없어.)

111043 @ 그런 것도 엇수과?(그런 것도 없습니까?)

고누

111044 @ 그다음에 고누놀이라고 알아지쿠과? 사금파리로 하는 거.(그다음에 고누놀이라고 아십니까? 사금파리로 하는 거.)

111044 #1 몰라.(몰라.)

111044 @ 사금파리가 먼지 알아지쿠과?(사금파리가 먼지 알겠습니까?)

111044 #1 모르겟는데.(모르겠는데.)

111044 @ 병이나 사기그릇 쪼가리 잇잖아예? 쪼가리로 허는 거주마씸.(병이나 사기그릇 쪼가리 있잖아요? 쪼가리로 하는 겁니다.)

111044 #1 몰라.(몰라.)

111044 @ 땅에 그어가지고 선 그어서 헷던 거, 기억 안나멘마씸?(땅에 그어가지고 선 그어서 했던 거, 기억 안 나나요?)

111044 #1 안 나.(안 나.)

111044 @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이렇게 선이 잇잖아예? 선이 이시민 사금파리 조각을 줏어다가 이렇게 하는 거 요렇게 하는 거.(어떤 거냐면 이렇게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선이 있으면 사금파리 조각을 주어다가 이렇게 하는 거 요렇게 하는 거.)

111044 #1 땅 따먹는 거. 땅치기.(땅 따먹는 거. 땅뺏기.)

땅뺏기

111049 #1 땅치기, 땅따먹기.(땅뺏기, 땅따먹기.)

111049 @ 땅따먹기를 할 때 사용 되는 아까 어떤 데는 사금파리, 유리조각.(땅따먹기를 할 때 사용 되는 아까 어떤 데는 사금파리, 유리조각.)

111049 #1 사기로 납작헌 거 멘들아가지고 돌 줏어가지고 뎅겨가지고 선 딱 그어가지고 저쪽 땅, 이쪽 땅 멘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디 가민 들어간 곳에 자기 땅 멘드는 거야.(사기로 납작한 거 만들어가지고 돌 주어가지고 당겨가지고 선 딱 그어가지고 저쪽 땅, 이쪽 땅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여기 가면 들어간 곳에 자기 땅 만드는 거야.)

111049 @ 그거 혹시 남자도 헤낫수과?(그거 혹시 남자도 했습니까?)

111049 #1 예게. 그거 뭐 남자 여자 엇어.(예, 그거 뭐 남자 여자 없어.)

111050 @ 땅따먹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긴 사람, 진 사람을 구분헤마씸?(땅따먹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긴 사람, 진 사람을 구분합니까?)

111051 #1 원을 그려서 여기는 자기편이고, 저쪽 편에서 이걸 가저. 치면은 맞뜨젠허민은 이걸로 하나씩 차지헤 가는 거여 땅을.(원을 그려서 여기는 자기편이고, 저쪽 편에서 이걸 가져. 치면 맞붙으려면 이걸로 하나씩 차지해 가는 거야 땅을.)

111051 @ 예.(예.)

111051 #1 또 이기민 이걸로 또 이렇게 따고, 게 많이 딴 편이 이기는 거.(또 이기면 이걸로 또 이렇게 따고, 그래 많이 딴 편이 이기는 거.)

111052 @ 그때 땅 따먹을 때 주로 놀이하는 공간이 어디서 헷수과? 그 땅을,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아, 옛날엔 마당이 흑이라시난.(그때 땅 따먹을 때 주로 놀이하는 공간이 어디서 했습니까? 그 땅을,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아, 옛날엔 마당이 흙이라서.)

111052 #1 주로 마당허고. 주로 질레서 헷수다, 질레서.(주로 마당하고. 주로 길에서 했습니다, 길에서.)

111052 @ 옛날엔 차도 안 다녓고예?(옛날엔 차도 안 다녔고요?)

윷놀이

111053 @ 윷놀이 하셔낫잖아예? 주로 언제 헤낫수과?(윷놀이 하셨잖아요? 주로 언제 했습니까?)

111053 #1 윷놀이는 뭐 아무 때도 허구제허면 허는디. 그 요즘은 저 장작 윷을 허는데.(윷놀이는 뭐 아무 때도 하고 싶으면 하는데. 그 요즘은 저 장작윷을 하는데.)

111053 @ 장작윷?(장작윷?)

111053 #1 장작윷.(장작윷)

111053 #1 크게 헤가지고.(크게 해가지고.)

111053 @ 아.(아.)

111053 #1 이만씩 한 거, 지금 우리 지방에는 족은 거.(이만씩 한 거, 지금 우리 지방에는 작은 거.)

111053 @ 족은 거예?(작은 거요?)

111053 #1 어, 족은 거.(어, 작은 거.)

111053 @ 그 족은 윷놀이 나무 조각들을 뭐렌 골아낫수과?(그 작은 윷놀이 나무 조각들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111053 #1 넉동베기[190].('넉동베기'.)

111054 @ 넉동베기예? 윷놀이 헐 땐 무슨 나무를 어떻게 준비헨마씸?('넉동베기'요? 윷놀이 할 땐 무슨 나무를 어떻게 준비했나요?)

111054 #1 가까운데서 아무 나무나 하는데 요만큼 한 이 센치 정도 자른 거니까 저 굵기가 가는 거 잘라서.(가까운데서 아무 나무나 하는데 요만큼 한 이 센티 정도 자른 거니까 저 굵기가 가는 거 잘라서.)

111054 #1 예.(예.)

111054 #1 네 개가 뒈야 하니까 굵기가 가는 걸로 하는데 주로 던저서 껍데기 잘 안 벳겨지는 나무.(네 개가 돼야 하니까 굵기가 가는 걸로 하는데 주로 던져서 껍데기 잘 안 벗겨지는 나무.)

---

190) '넉동베기'는 넉 동이 다 나여 이기는 윷놀이를 말한다. = 넉동네기, 넉둑베기.

111054 @ 예.(예.)

111054 #1 나무 수액이 올라서 던저서 껍데기 벗겨지면 안 뒈니깐 주로 껍데기 안 벗겨지는 나무로 헤서 주로 멘들어.(나무 수액이 올라서 던져서 껍데기 벗겨지면 안 되니깐 주로 껍데기 안 벗겨지는 나무로 해서 주로 만들어.)

111054 @ 껍데기 안 벗겨지는 나무가 혹시 무슨 나무인지 기억남수과?(껍데기 안 벗겨지는 나무가 혹시 무슨 나무인지 기억납니까?)

111054 #1 아이, 그 계절마다 틀린데 주로 여기는 동백나무로 많이 허는디.(아니, 그 계절마다 다른데 주로 여기는 동백나무로 많이 하는데.)

111054 @ 동백나무는 옛날에 뭐렌 골앗수과?(동백나무는 옛날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111054 #1 돔박나무. 동박낭.(동백나무, 동백나무.)

111054 @ 돔박낭이고예? 윤노리나무라는 나무는 안 들어봣수과?(동백나무고요? 윤노리나무라는 나무는 안 들어봤습니까?)

111054 #1 윤노리?(윤노리?)

111054 @ 예, 윤노리나무.(예, 윤노리나무.)

111054 #1 윤노리가 아니고 윤누리나무[191].(윤노리가 아니고 '윤누리나무'.)

111054 @ 예, 윤누리나무.(예, '윤누리나무'.)

111054 #1 어. 윤누리나무는 여기 잇는 나무가 아니고 저기 산에.(어, 윤노리나무는 여기 있는 나무가 아니고 저기 산에.)

111054 @ 예.(예.)

111054 #1 윤누리나무라고 막 질긴 나문디, 몰루주. 그전에는 그런 나무 산에 강 헷는지 몰라도, 그 이름이 윤누리나무 이서요. 산에 부떠 사는디 여기는 엇어요.(윤노리나무라고 막 질긴 나문데, 모르지. 그전에는 그런 나무 산에 가서 했는지 몰라도, 그 이름이 윤노리나무 있어요. 산에 부떠 사는디 여기는 엇어요.)

111054 @ 엇고예? 혹시 산에 갔을 때 윤누리나무, 어떤 게 윤누리나문지 알아지겠습니까?(없고요? 혹시 산에 갔을 때 윤노리나무, 어떤 게 윤노리나문지 알겠습니까?)

111054 #1 잘, 잘, 아니 몰라. 말만 들엇지.(잘, 잘, 아니 몰라. 말만 들었지.)

111055 @ 경헷구나예? 윷놀이를 할 때 아까 넉둥베기를 할 때 종지, 종지에 어떵?(그렇군요? 윷놀이를 할 때 아까 '넉둥베기'를 할 때 종지, 종지에 어떻게?)

111055 #1 종제기.(종제기.)

111055 @ 종제기에 놩 헷덴 헷잖아예?(종제기에 넣어서 했디고 했잖아요?)

111055 #1 장 종제기 이렇게 헤서 사기그릇.(장 종지 이렇게 해서 사기그릇.)

111055 @ 아, 장종제기.(아, 장 종지.)

111055 #1 어. 원래 큰일 때 장 놓는 거. 뭐 혼 저, 이제로 말ᄒᆞ면, 혼 저 혼 홉도 안 된 거, 장종제기로.(어. 원래 큰일 때 장 놓는 거. 뭐 한 저, 이제로 말하면,

191) '윤누리나무'는 윤노리나무를 말한다.

한 저 한 홉도 안 된 거, 장 종지로.)

111055 @ 예. 아, 장종제기에 놔가지고 넉둥베기를 놔가지고?(예. 아, 장 종지에 놔가지고 윷를 놔가지고?)

111055 #1 어, 흔들어서 던저서.(어, 흔들어서 던져서.)

111055 @ 던지는 거예?(던지는 거요?)

111055 @ 그 던질 때 윷판은 어떵 준비헷수과?(그 던질 때 윷판은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111055 #1 윷판은 땅에다가 그려서.(윷판은 땅에다가 그려서.)

111055 @ 땅에다 그련마씨예? 경 헷구나예?(땅에다 그려서요? 그렇게 했군요?)

111056 @ 그다음에는 혹시 넉둥베기 헐 때도 어떤 종류가 이섯수과?(그다음에는 혹시 윷놀이 할 때도 어떤 종류가 있었습니까?)

111056 #1 넉둑이 종류는 아까 굴은 장작윷도 잇고 족은 것도 잇고.(윷 종류는 아까 말한 장작윷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111056 @ 족은 건 뭐렌 굴앗수과?(작은 건 뭐라고 말했습니까?)

111056 #1 저 넉둥베기라고만 하지.(저 '넉둥베기'라고만 하지.)

111056 @ 족은 것도 넉둥베기, 큰 것도 넉둥베기마씨?(족은 것도 '넉둥베기', 큰 것도 '넉둥베기'요?)

111056 #1 큰 거는 근래야 육지서 들어온 거니까, 우리 땐 그런 거 엇엇서.(큰 거는 근래야 육지서 들어온 거니까, 우리 땐 그런 거 없었어.)

111056 @ 아, 경헷구나예?(아, 그랬군요?)

111056 #1 지금도 제주도선 행사할 때나 허지.(지금도 제주도선 행사할 때나 하지.)

111057 @ 넉둥베기 할 때 이기고 진 거는 어떵 헤난마씸?(윷놀이 할 때 이기고 진거는 어떻게 했었나요?)

111057 #1 네 개 나민은, 물 네 개 먼저 나불민. 경허당 그 저 넉떼기 판은 땅에도 하고 멍석에서 홀 때는 멍석에다 그령 판.(네 개 나면, 말 네 개 먼저 나버리면. 그렇게 하다가 그 저 윷판은 땅에도 하고 멍석에서 할 때는 멍석에다 그려서 판.)

111057 @ 그려가지고예? 멍석에다 그릴 때 뭘로 그 선을 그엇수과?(그려가지고요? 멍석에다 그릴 때 뭐로 그 선을 그었습니까?)

111057 #1 숫으로.(숯으로.)

111057 @ 아, 숫으로 헷구나예? 물은 뭘로 썻수과?(아, 숯으로 했군요? 말은 무엇으로 썼습니까?)

111057 #1 돌도 ᄒᆞ곡, 남도 ᄒᆞ곡. 물짝지라고 헤서 구젱기 딱지도 ᄒᆞ고, 쌍방에 틀린 거 만 ᄒᆞ면 뒈니까. ᄒᆞᆫ 쪽에 돌, ᄒᆞᆫ 쪽엔 남, 네 개씩.(돌도 하고, 나무도 하고. '말짝지'라고 해서 소라껍질도 하고, 쌍방에 다른 거 만 하면 되니까. 한 쪽에 돌, 한 쪽엔 나무, 네 개씩.)

111057 @ 넉둥베기는 아이들도 하지만 어른이 뭰 다음에도 헷엇잖아예? 거면 그 승부를 가른 다음에 뭐 먹을락을 한다든가 아니면 돈을 준다든가 이런 건 어떤 식으로 헨마씸?('넉둥베기'는 아이들도 하지만 어른이 된 다음에도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승부를 가른 다음에 뭐 먹기 내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돈을 준다든가 이런 건 어떤 식으로 했나요?)

111057 #1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기해서 뭐 술내기를 하던지, 돈내기도 헤서.(옛날이나 지금이나 내기해서 뭐 술내기를 하든지, 돈내기도 했어.)

111057 @ 해방 전에도예?(해방 전에요?)

111057 #1 아니 해방 전엔 돈내기 안 허고. 근래에는 돈내기 허는데.(아니 해방 전엔 돈내기 안 하고. 근래에는 돈내기 하는데.)

111057 @ 해방 전에는 그 승부를 어떵 이기고 지고 난 다음 그냥 그걸로 끗난 마씸?(해방 전에는 그 승부를 어떻게 이기고 지고 난 다음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111057 #1 그 당시는 돈도 엇고 하니깐. 뭐 조끔 잇긴 잇겟지.(그 당시는 돈도 없고 하니까. 뭐 조끔 있긴 있겠지.)

111057 @ 그게 뭐여신고예? 뭔가?(그게 뭐였지요? 뭔가?)

111057 #1 금품, 뭐 돈이나 주진 안헤실 거고, 놀이 자체로써 재미이성 허고.(금품, 뭐 돈이나 주진 안 했을 거고, 놀이 자체로써 재미있어 하고.)

111057 @ 맞아. 놀이 자체로 재미이성예?(맞아. 놀이 자체로 재미있어서요?)

팽이치기

111059 @ 그다음엔 펭이치기가 이신디예? 펭인 어떵 준비헷수과?(그다음엔 팽이치기가 있는데요? 팽인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111059 #1 펭이는 나무를 짤라서 만든 거지.(팽이는 나무를 잘라서 만든 거지.)

111061 @ 그 나무는 어떤 나무로 헷수과?(그 나무는 어떤 나무로 했습니까?)

111061 #1 나무는 여기서는 보통 돔박나무.(나무는 여기서는 보통 동백나무.)

111061 @ 돔박나무예?(동백나무요?)

111061 #1 에. 돔박나무 많이 헷지. 가까우니까.(예. 동백나무 많이 했지. 가까우니까.)

111061 @ 옛날에는 나무라는 말은 거의 안 쓰고 낭이렌 헷지예?(옛날에는 나무라는 말은 거의 안 쓰고 낭이라고 했지요?)

111061 #1 낭. 돔박낭. 폭낭도 뒈고.(나무. 동백나무. 팽나무도 되고.)

111062 @ 폭낭도예? 펭이에 사용되는 나무는 좀 무거운 나무헤야 뒈잖아예?(팽나무도요? 팽이에 사용되는 나무는 좀 무거운 나무해야 되잖아요?)

111062 #1 에.(예.)

111062 @ 동박낭이나 폭낭?(동백나무나 팽나무?)

111062 #1 에, 맞아요.(에, 맞아요.)

111062 @ 그다음에 펭이를 잘 돌게하기 위헤가지고 어떤 식으로 헷수과?(그다

음에 팽이를 잘 돌게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111062 #1 펭이를 잘 돌게하기 위헤서는 아래.(팽이를 잘 돌게하기 위해서 아래.)

111062 @ 예.(예.)

111062 #1 뾰쪽 나온 디 못을 박아요, 못을.(뾰쪽 나온 데 못을 박아요, 못을.)

111062 @ 아!(아!)

111062 #1 못을 아레 뾰쪽허게 그레사 잘 도니까.(못을 아래 뾰쪽하게 그래야 잘 도니까.)

111062 @ 예, 예.(예, 예.)

111062 #1 오래, 펭이 좀 써 가면은 펭이가 다여불면은 못 못을 꺼꾸러 박으민은 오래써도 다이지 아녀니깐 그걸 이용헤서.(오래, 팽이 좀 써 가면 팽이가 닳아버리면 못 못을 거꾸로 박으면 오래 써도 닳지 않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111063 @ 아, 경헷구나예? 그러면 그 펭이체는 뭘로 준비헷수과?(아, 그랬군요? 그러면 그 팽이채는 뭐로 준비했습니까?)

111063 #1 펭이체는게 노꼿으로 허다근에게, 펭이체는게 헝겊으로.(팽이채는 노끈으로 하자가, 팽이채는 헝겊으로.)

111063 @ 노꼿은 뭘로 준비헷수과?(노끈은 뭐로 준비했습니까?)

111063 #1 노꼿은 그때 배 닮은 거 이섯주게, 씰로 짠 거.(노끈은 그때 바 닮은 거 있었지, 실로 짠 거.)

111063 @ 노꼿은 재료가 뭐꽈? 씰로 짠 거마씸?(노끈은 재료가 뭔가요? 실로 짠 거요?)

111063 #1 응, 씰로 짠 거. 노꼿은 씰로 짠 것이 노꼿이고.(응, 실로 짠 거. 노끈은 실로 짠 것이 노끈이고.)

111063 @ 옛날엔 웨 노꼿하면 새나 이걸로 한 게 노꼿이엇잖아예? 근데 펭이에서 사용하는 건 씰로 짠 거마씸?(옛날엔 왜 노끈하면 띠나 이걸로 한 게 노끈이었잖아요? 그런데 팽이에서 사용하는 건 실로 짠 거요?)

111063 #1 응, 씰로 짜난.(응, 실로 짰었어.)

111063 @ 그 씰은 무슨 씰로 헷수과?(그 실은 무슨 실로 했습니까?)

111063 #1 보통 옛날에는 뭐 미녕씰.(보통 옛날에는 뭐 무명실.)

111064 @ 펭이 싸움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꽈?(팽이 싸움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111064 #1 펭이싸움사 부닥처서 넘어지는 것이 지는 거지.(팽이싸움이야 부닥쳐서 넘어지는 것이 지는 거지.)

111064 @ 펭이가 넘어지는 것이예?(팽이가 넘어지는 것이요?)

111064 #1 펭이끼리 부닥처서 둥굴어나가는 것이 지는 거.(팽이끼리 부닥쳐서 뒹굴어나가는 것이 지는 거.)

111064 @ 그 펭이를 준비할 때는, 그러면 만일에 펭이가 크면 작은펭이랑 부트

민 당연히 큰 펭이가 세니까 작은 펭이가 넘어가거나 이러진 않아마씸? 펭이의 크기가 일정헤야 뒌다든지 이런 조건은 엇엇수과?(그 팽이를 준비할 때는, 그러면 만일에 팽이가 크면 작은 팽이랑 붙으면 당연히 큰 팽이가 세니까 작은 팽이가 넘어가거나 이러진 않아요? 팽이의 크기가 일정해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은 없었습니까?)

111064 #1 그런 거는 엇엇던 거 ᄀᆞ튼데, 펭이는 보통 만들면은 굵은 것도 잇고, 또 높은 거 긴 거, 높이나 뭐나 규정이 없는 거기 때문에 돌기시작허민 높은 것이 더 힘이 세다 이거야. 그런 딱 규정이란 없고.(그런 것은 없었던 거 같은데, 팽이는 보통 만들면 굵은 것도 있고, 또 높은 거 긴 거, 높이나 뭐나 규정이 없는 거기 때문에 돌기시작하면 높은 것이 더 힘이 세다 이거야. 그런 정확한 규정이란 없고.)

111064 @ 아, 엇고.(아, 없고.)

굴렁쇠

111066 @ 그다음에는 굴렁쇠렌 헌 건디예? 굴려가면서 하는 거 이섯잖아예? 어떤 거냐면 동그랗게 쉐를 구부려가지 , 쭉 몰면서 가는 거. 굴렁쉐라고 허는디 여기서는 뭐렌 ᄀᆞᆯ아신지 모르쿠과?(그다음에는 굴렁쇠라고 한 건데요? 굴려가면서 하는 거 있었잖아요? 어떤 거냐면 동그랗게 쇠를 구부려가지고 , 쭉 몰면서 가는 거. 굴렁쇠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습니까?)

111066 #1 굴렁쉐는 자전거 바꾸 돌리는 거?(굴렁쇠는 자전거 바퀴 돌리는 거?)

111066 @ 예, 그런 거 비슷한 건데.(예, 그런 거 비슷한 건데.)

111066 #1 그걸 뭐라고 ᄒᆞ는고?(그걸 뭐라고 하지?)

111067 @ 그것도 돌리기 헤낫잖아예? 그걸 뭐렌 헷는지 모르쿠과?(그것도 돌리기 했었지요? 그걸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까?)

111067 #1 그것이 많이 여기도 헷는데.(그것이 많이 여기도 했는데.)

111067 @ 헷지예?(했지요?)

111067 #1 그 동그랑헌 쒜에다가 자전거 바꾸 식으로 이렇게 헤서 만들어가지고 쒜를 이렇게 오구려서 글로헤서 쭉 ᄒᆞ게 돌아뎅기멍 허는 거.(그 동그란 쇠에다가 자전거 바퀴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쇠를 이렇게 구부려서 거기로 해서 쭉 하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

111067 @ 예, 예. 맞수다.(예, 예. 맞습니다.)

111067 #1 거, 기여 기여 ᄒᆞ멍 돌아낫는디. 거 이름을 잘 몰르켜.(거, 그래 그래 하면서 돌아다녔는데. 거 이름을 잘 모르겠네.)

111067 @ 잘 모르쿠과? 뭐라고 헤낫는지?(잘 모르겠습니까? 뭐라고 했는지?)

111067 #1 응.(응.)

111067 @ 그거는 뭘로 준비헷수과?(그거는 뭐로 준비했습니까?)

111067 #1 그때는 보통 뭐냐하면 바게쓰 도당 바게쓰.(그때는 보통 뭐냐면 양동이 양철 양동이.)

111067 @ 예.(예.)

111067 #1 도당 바게쓰 바의에 놔서 똥그랑 하게, 요만헌 ᄀᆞ는 철사.(양철 양동이 가장자리에 놔서 동그랗게, 요만한 가는 철사.)

111067 @ 예.(예.)

111067 #1 철사 그런 걸로 헤서 와마와시[192]라고 헤서 저, 요만한 나무다가 쒜 박아서 이렇게 오그려서 둥그려서, 걸로 경주허고.(철사 그런 걸로 해서 '와마쇠'라고 해서 저, 요만한 나무에다 쇠 박아서 이렇게 오그려서 둥그렇게 해서, 그걸로 경주하고.)

111067 @ 예 맛수다. 게민 그 바게쓰를 짤라네근에 헤마씸?(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양동이를 잘라서 하나요?)

111068 #1 아니 보통 헌 거를 게아니면 철사 ᄀᆞ튼 거를 꾸부려서도 ᄒᆞ고.(아니 보통 헌 거를 그렇지 않으면 철사 같은 거를 꾸부려서도 하고.)

111068 @ 예.(예.)

111068 #1 나중에는 자전거가 많이, 해방 후엔디.(나중에는 자전거가 많이, 해방 후인데.)

111068 @ 예.(예.)

111068 #1 해방 후에는 학교 뎅길 땐디, 우리 동네 사름은 안 헨디, 저 법환리[193] ᄀᆞ튼 데서는 서귀국민ᄒᆞᆨ교ᄁᆞ지 멧 키로 뒌디도.(해방 후에는 학교 뎅다닐 땐데, 우리 동네 사람은 안 했는데, 저 '법환리' 같은 데서는 서귀포초등학교 까지 몇 키로 된 데도.)

111068 @ 예.(예.)

111068 #1 차도 엇일 때니깐 자전거 바쿠.(차도 없을 때니까 자전거 바퀴.)

111068 @ 예, 바퀴쒜로.(예, 바퀴쇠로.)

111068 #1 다이아 떼불고, 요거가지고 쒜로헤서, 그 궁걸이헤서. 요거는 웨냐면 이거는 빠르단 말이우다. 그거를 따라 가면은 아이덜이 지각을 안 헤여.(타이어 떼버리고, 요것가지고 쇠로해서, 그 굴렁대해서. 요거는 왜냐면 이거는 빠르단 말입니다. 그거를 따라 가면 아이들이 지각을 안 해.)

111068 @ 예.(예.)

111068 #1 그 때문에 법환잇 아이덜은 그거를 둥구려서 서귀포국민학교를 올 때도 그거 헹 오고 갈 때도 그거 헹 가고.(그 때문에 법환동의 아이들은 그거를 굴려서 서귀포초등학교를 올 때도 그거 해서 오고 갈 때도 그거 해서 가고.)

111068 @ 아!(아!)

111068 #1 해방 후에도 굉장히 많이 헷어서.(해방 후에도 굉장히 많이 했어.)

111068 @ 그거 이름을 뭐라고 헤신지?(그거 이름을 뭐라고 했는지?)

111068 #1 일본말로는 와마와시라고 허는디.(일본말로는 와마와시라고 하는데.)

---

192) '아마와시'는 일본어 '와마와시'를 말한 것 같다. 와마와시는 굴렁쇠 굴리기를 말한다.
193) '법환리'는 서귀포시 법환동으로 마을 이름을 말한다.

111068 @ 우리말로는?(우리말로는?)

111068 #1 와마와시는 것은 둥그런 쒜를 둥굴다고 헤서 와마와시라 ᄒᆞ는디.(굴렁쇠 굴리기는 그것은 둥그런 쇠를 둥글다고 해서 굴렁쇠 굴리기라 하는데.)

111068 @ 우리 표준어론 굴렁쇠라고 허는디예?(우리 표준어론 굴렁쇠라고 하는데요?)

111068 #1 아, 굴렁쒜가 맞는 말이어.(아, 굴렁쇠가 맞는 말이야.)

(깡)통차기

111069 @ 그다음엔 깡통 차기라는 것이 잇지예?(그다음엔 깡통 차기라는 것이 있지요?)

111069 #1 에.(에,)

111069 @ 깡통 차기도 헤낫지예?(깡통 차기도 했지요?)

111069 #1 깡통 차기도 쪼끔 헤나서.(깡통 차기도 조금 했었어.)

111069 @ 그 깡통 차기는 어떵 준비헙니까?(그 깡통 차기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111070 #1 깡통도 옛날에 힘들엇주마는 깡통에 그 족은 돌 매달아놔서 소리 나게시리 헤서, 발로차서 저 멀리차고, 그런 식으로 헤난 거 ᄀᆞ튼데 많이 안 헤서.(깡통도 옛날에 힘들었지만 깡통에 그 작은 돌 매달아서 소리 나게끔 해서, 발로차서 저 멀리차고, 그런 식으로 해난 거 같은데 많이 안 했어.)

111070 @ 많이 안 헨예?(많이 안 해요?)

111070 #1 에.(예.)

111070 @ 깡통이 엇어근에 많이 안헤신가마씸?(깡통이 없어서 많이 안 했을까요?)

111071 #1 응, 깡통도 귀헷고.(응, 깡통도 귀했고.)

111071 @ 그 멀리 차면 그게 이기는 거고예?(그 멀리 차면 그게 이기는 거고요?)

111071 #1 에.(예.)

111071 @ 그거에 대한 큰 기억들은 엇고예?(그거에 대한 큰 기억들은 없고요?)

111017 #1 에.(예.)

뻥이치기

111072 @ 그 다음엔예? 뻥이치기라는 게 잇지예? 여기는 뻥이를 뭐렌 ᄀᆞᆯ앗수과?(그 다음은요? 삘기라는 게 있지요? 여기는 삘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111072 #1 여기도 뻥이.(여기도 삘기.)

111072 @ 뻥이 치기도 그냥 뻥이치기고예?(삘기 치기도 그냥 삘기치기고요?)

111072 #1 에.(예.)

111072 @ 뻥이치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저수과?(삘기치기는 어떤 식으로 이루

어졌습니까?)

111072 #1 뻥이치기는 상대 둘이가 하는 건데.(삘기치기는 상대 둘이가 하는 건데.)

111072 @ 예.(예.)

111072 #1 뻥이를 잡아서 처음에 몇 개씩 내놔가지고.(삘기를 잡아서 처음에 몇 개씩 내놓아가지고.)

111072 @ 예.(예.)

111072 #1 요걸 잡아서 이렇게 뿌리면은 삼각형이 나와.(요걸 잡아서 이렇게 뿌리면 삼각형이 나와.)

111072 @ 예.(예.)

111072 #1 삼각형이 크게나오면 여기 심어당 많이 집어놓면은 따먹는 거고.(삼각형이 크게나오면 여기 집어다가 많이 집어넣으면 따먹는 거고.)

111072 @ 예.(예.)

111072 #1 삼각형이 족아버리면 서너 개벳긔 못허민 서너 개벳긔 못 따먹는 거고.(삼각형이 작아버리면 서너 개밖에 못하면 서너 개밖에 못 따먹는 거고.)

111073 @ 그면은 만약에 서너 개를 삼각형 안에 어떵 허는 거마씸?(그러면 만약에 서너 개를 삼각형 안에 어떻게 하는 건가요?)

111073 #1 여케 많이 잡으면은 여기 몇 개씩 내노면은 요걸 가정 잡아서 싹 뿌리면은, 그기서가 이렇게 헤서 삼각형이 크면은, 저 자기 걸로 헤서 요디 건드렁은 안뒈고.(이렇게 많이 잡으면 여기 몇 개씩 내어놓으면 요걸 가져서 잡아서 싹 뿌리면, 거기서가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크면, 저 자기 걸로 해서 요기 건드려서는 안되고.)

111073 @ 예.(예.)

111073 #1 딱 거기서가 안네 땅에다가 건드리면은 자기가 것을 따먹고.(딱 거기서가 안쪽에 땅에다가 건드리면 자기가 그것을 따 먹고.)

111073 @ 그믄은 그걸 상대방이 건드리지 아녕 그 세모 안에 집어넌 거만큼 숫자를?(그러면 그걸 상대방이 건드리지 안하고 그 세모 안에 집어넣은 것만큼 숫자를?)

111073 #1 에. 일레 들어가면서 찍은 거만큼 이 숫자만큼 상대방이 받아와야 뒈.(예. 이리로 들어가면서 찍은 거만큼 이 숫자만큼 상대방이 받아와야 돼.)

111073 @ 아, 기구나예? 그 혹시 뻥이치기 할 때 뻥이는 어디 강 여기 볼목리선 어디 강 뽑아왓수과?(아, 그렇군요? 그 혹시 삘기치기 할 때 삘기는 어디 가서 여기 보목리에선 어디 가서 뽑아왔습니까?)

111073 #1 옛날에는 새왓덜 많으니까, 봄에 나민 새 뿔리 나오는 것이 뻥인디.(옛날에는 띠밭들 많으니까, 봄에 나면 띠 뿌리 나오는 것이 삘긴데.)

111073 @ 새에서 나오는 게 뻥이꽈?(띠에서 나오는 게 삘기입니까?)

111073 #1 새 저 띠, 띠.(띠 저 띠, 띠.)

111073 @ 띠, 띠.(띠, 띠.)

111073 #1 것에 나오는 게 뻥이니까.(그것에서 나오는 게 뻘기니까.)

111073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11073 #1 것에서 뽑아서 학교 갓다 올 때 베고프민은 뻥이 뽑아서 속에 하얀 거 그게 저 먹고, 뻥이.(그것에서 뽑아서 학교 갔다 올 때 배고프면 뻘기 뽑아서 속에 하얀 거 그게 저 먹고, 뻘기.)

111074 @ 맞수다. 뻥이치기는 하면서 특별하게 기억나는 건 엇수과?(맞수다. 뻘기치기는 하면서 특별하게 기억나는 건 없습니까?)

111074 #1 뻥이치기는 별로 기억나는 건 엇고.(뻘기치기는 별로 기억나는 건 없고)

고무줄놀이

111075 @ 고무줄놀이가 이신디예. 여자 고무줄놀이 할 때 해방 전에도 고무줄놀이가 이섯수과?(고무줄놀이가 있는데요. 여자 고무줄놀이 할 때 해방 전에도 고무줄놀이가 있었습니까?)

111075 #1 해방 전에는 별로 없고. 해방 후에가 많이 는 거 ᄀᆞ타.(해방 전에는 별로 없고. 해방 후에가 많이 늘어난 거 같아.)

111075 @ 고무줄은 어떵 준비 헤나신고예?(고무줄은 어떻게 준비 했습니까?)

111075 #1 옛날에는 고무줄 엇이 귀헷는디이, 이튼 뭐 검은 고무줄로.(옛날에는 고무줄 없어 귀했는데, 하여튼 뭐 검은 고무줄로.)

111075 @ 어디 강 사와근에마씸? 아니면 다른 걸로 고무줄을 만들아신가예?(어디 가서 사와서요? 아니면 다른 걸로 고무줄을 만들었나요?)

111075 #1 그 당시는 사오던지, 고무줄파는 디 이서신지는 모르겟는데.(그 당시는 사오던지, 고무줄 파는 데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111076 @ 고무줄놀이 동작 같은 것들은 혹시 봣던 거 기억남수과?(고무줄놀이 동작 같은 것들은 혹시 봤던 거 기억납니까?)

111076 #1 동작 ᄀᆞ튼 것들은 뭐 여자들은 발로 감앗다가 풀엇다가 허는 거.(동작 같은 것들은 뭐 여자들은 발로 감았다가 풀었다가 하는 거.)

111077 @ 감앗닥 풀엇닥 하는 거예? 그때 혹시 불럿던 노래들 혹시?(감았다가 풀었다가 하는 거요? 그때 혹시 불렀던 노래들 혹시?)

111077 #1 불럿던 기억 안 나고.(불렀던 기억 안 나고.)

111077 @ 이거는 나중에 여자삼춘이 오민 물어보쿠다예?(이거는 나중에 여자삼촌이 오면 물어 볼게요?)

줄넘기

111078 @ 그다음 줄넘기도 잇잖아예? 줄넘기는 이것도 여자도 남자도 다 헤난 거잖아예? 줄넘기할 때는 어떤 종류가 이수과? 줄넘기 할 때는? 옛날 줄넘기를 뭐

렌 글앗수과?(그다음 줄넘기도 있잖아요? 줄넘기는 이것도 여자도 남자도 다 했던 거잖아요? 줄넘기할 때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줄넘기할 때는? 옛날 줄넘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111078 #1 줄넘기주.(줄넘기지.)

111078 @ 혹시 베뛸락이렌 안 헤낫수과?(혹시 '베뛸락'이라고 안 했습니까?)

111078 #1 베뛸락 맞아.('베뛸락' 맞아.)

111078 @ 기지예? 베뛸락이잖아예? 베뛸락 할 때 그 베는 뭘로 준비헷수과?(그렇지요? '베뛸락'이잖아요? 줄넘기 할 때 그 바는 뭐로 준비했습니까?)

111078 #1 베? 그 당시 주로 찍베는 아닐 거고, 베뛸락은 개인 혼자 허는 베뛸락도 잇고.(바? 그 당시 주로 짚바는 아닐 거고, 줄넘기는 개인 혼자 하는 줄넘기도 있고.)

111078 @ 예.(예.)

111078 #1 여러 사름이 헤서 양쪽에 잡아서 흔드는 베뛸락도 헷는디.(여러 사람이 해서 양쪽에 잡아서 흔드는 줄넘기도 했는데.)

111078 @ 예.(예.)

111078 #1 어, 하튼 좀 무거운 베로 헷는디 확실히 제로는 몰르겟네.(어, 하여튼 좀 무거운 바로 했는데 확실히 재료는 모르겠네.)

111078 @ 배뛸락도 보면 혼자 하는 것도 잇고, 혼자 하는 건 숫자 많이 헤야 하는 거잖아예? 여럿이 할 때도 보면 줄줄이 한 사람 뛰엉 넘어가고, 한 사람 뛰엉 넘어가고, 하는 것도 잇고.(줄넘기도 보면 혼자 하는 것도 있고, 혼자 하는 건 숫자 많이 해야 하는 거잖아요? 여럿이 할 때도 보면 줄줄이 한사람 뛰어서 넘어가고, 한사람 뛰어서 넘어가고, 하는 것도 있고.)

111078 #1 에.(예.)

111078 @ 여러 사람이 같이 뛰어가는 것도 잇고.(여러 사람이 같이 뛰어가는 것도 있고.)

111078 #1 에.(예.)

111078 @ 또 한 사람은 일로 넘어가고 절로 오고하는 하는 것도 잇잖아예? 그거 혹시 이름들 엇엇수과?(또 한 사람은 이리로 넘어가고 저리로 오고하는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혹시 이름들 없었습니까?)

111078 #1 이름은 이서실 건디 잘 기억이 안나이.(이름은 있었을 건데 잘 기억이 안나.)

111078 @ 기억 안나예? 것도 나중에 한 번 여자삼춘 오면 여쭤볼게예?(기억 안나요? 것도 나중에 한 번 여자삼촌 오면 여쭤볼게요?)

그네뛰기

111080 @ 여기선 그네를 어디서? 그네 이서낫수과?(여기선 그네를 어디서? 그네 있었습니까?)

111080 #1 여기서는 그네는 잘 안 타봐서.(여기서는 그네는 잘 안 타봤어.)

111080 @ 안 타봔예?. 어디 강 그네를 메여놓거나 헌 것도 안 봐보고예?(안 타봤어요? 어디 가서 그네를 매놓거나 한 것도 안 봐보고요?)

111080 # 가끔 여름 ᄀᆞ튼 디 낭아레, 그늘진 낭아레헤서 타기도 헷는데 더러는 많이 허지는 아년 거 ᄀᆞ타.(가끔 여름 같은 데 나무아래, 그늘진 나무아래해서 타기도 했는데 더러는 많이 하지는 안 한 거 같아.)

한다리인다리

111082 @ 그다음엔 한다리인다리라는 그 놀이 알아지쿠과?(그다음엔 한다리인다리라는 그 놀이 알겠습니까?)

111082 #1 에.(예.)

111082 @ 근디 여기서는 뭐렌 ᄀᆞᆯ앗수과?(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111082 #1 여기도 혼다리인다리.(여기도 한다리인다리.)

111082 @ 혼다리인다리렌 ᄀᆞᆯ앗수과?(한다리인다리라고 말했습니까?)

111082 #1 혼다리인다린디 혼다리두다린디 여기 다리 가운데 두두리면서 영영 허는 거.(한다리인다린지 한다리두다린지 여기 다리 가운데 두드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111082 @ 예, 예. 아, 그거 헤낫구나예? 남자어른들도 아이 때 이거 헤낫수가?(예, 예. 아, 그거 했었군요? 남자어른들도 아이 때 이거 했었습니까?)

111082 #1 에.(예.)

111082 @ 같이들 앉아가지고예?(같이 들 앉아가지고요?)

111082 #1 에.(예.)

111082 @ 혹시 혼다리두다리 놀이 할 때 어떤 노래 불러나신지 기억남수과?(혹시 한다리인다리 놀이 할 때 어떤 노래 불러났는지 기억납니까?)

111083 #1 혼 다리 두 다리 개천개 뭐 난 기억이 안나.(한 다리 두 다리 개천개 뭐 난 기억이 안나.)

111084 @ 혼다리두다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이기고 지고 결정 나낫수과?(한다리 두 다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이기고 지고 결정 났었습니까?)

111084 #1 그 노래, 나 생각인디, 노래 딱 끗나민 딱 헤당뒌 사름이 그 다리 뒌 사름이 지는 거.(그 노래, 나 생각인데, 노래 딱 끝나면 딱 해당된 사람이 그 다리 된 사람이 지는 거.)

111084 @ 지는 거구나예? 아, 그게 혼다리인다리 그거엿구나예? 예, 알앗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들은 고무줄, 줄넘기, 그네뛰기, 한다리두다리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여자삼춘 오면 확인헤 볼게예.(지는 거군요? 아, 그게 혼다리인다리 그거였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들은 고무줄, 줄넘기, 그네뛰기, 한다리인다리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여자삼촌 오면 확인해 볼게요.)

12. 민간요법

113001 @ 민간요법에 대헤서 질문하겟습니다예. 아까도 말씀드렷다시피 어, 옛날엔 병원에 가지 못헷지만 막 나삿잖아예? 만일에 지금 벰 물어시문 죽을병으로 셍각할 텐데도 낫는 거처럼예. 그렇게 헷을 때 우리가 기계충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렇게 머리 밀어불엇잖아예?(민간요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옛날엔 병원에 가지 못했지만 막 나았잖아요? 만일에 지금 뱀 물었으면 죽을병으로 생각할 텐데도 낫는 것처럼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기계충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렇게 머리카락 밀어버렸잖아요?)

113001 #1 이발충.(기계총.)

113001 @ 아, 그게 이발충이구나 그게. 이발충이렌 헤낫구나예? 이발충일 경우엔 어떵 헹 이겨넷수과? 어떵 치료헷수과?(아, 그게 기계총이구나 그게, '이발충'이라고 했군요? 기계총일 경우엔 어떻게 해서 이겨냈습니까?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113001 #1 치료?(치료?)

113001 @ 예.(예.)

113001 #1 치료는 벨로 뭣, 거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치료는 별로 뭣, 거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13001 #2 이발충엔 무신거 기름, 비만지기름 빼어근에 그거 블랏젠 말 들어진 거 닮다.(기계총에는 뭐 기름, 피마자기름 뽑아서 그거 발랐다는 말 들었던 거 닮다.)

113001 @ 아이들은 그거 안 걸려봇수과? 비만지기름마씨? 비만지기름이 뭔고? 혹시 비자나문가마씸?(아이들은 그거 안 걸려봤습니까? 피마자기름이요? 피마자기름이 뭐지? 혹시 비자나문가요?)

113001 #2 아니, 아니. 나무 길쭉하고 이파리 영 갈래로 흔 삼 갈래로 갈라지곡 거기 열메가 올아.(아니, 아니. 나무 길쭉하고 이파리 이렇게 갈래로 한 삼 갈래로 갈라지고 거기 열매가 열어.)

113001 #1 피만지라고 할건디, 표준말로.(피마자라고 할 건데, 표준말로.)

113001 @ 피마자인가?(피마자인가?)

113001 #1 피마지열메 잇는 거. 그니까 그거 기름인디이?(아주까리 있는 거. 그러니까 그거 기름인데?)

113001 #2 익으민은 이렇게 께저근에 땅콩식으로 나와, 열메가.(익으면은 이렇게 깨져서 땅콩처럼 나와, 열매가.)

113001 아, 예.(아, 예.)

113001 #2 게민 그걸 그땐 기름 짜는 디도 어시난?(그러면 그걸 그땐 기름 짜는 데도 없으니까?)

113001 2 예.(예.)

113001 #2 무슨 양푼 ᄀᆞ뜬 것에 ᄲᅳ상 놔근에, 그걸 막 짜근에, 그 기름은 호끔

데피는 식으로 양푼에 놓민 데와지주게 그거 ᄲᅳ상 놓민.(무슨 양푼 같은 것에 빻아 놔서, 그걸 막 짜서, 그 기름은 조금 데우는 식으로 양푼에 놓으면 데워지지 그거 빻아 놓으면.)

113001 @ 예.(예.)

113001 #2 겨민, 무시것에 가제 ᄀᆞ뜬 것에 짜근에 그걸 ᄇᆞᆯ른 거 닮아.(그러면, 무엇에 가제 같은 것에 짜서 그걸 바른 거 닮아.)

113001 @ 아 경헷구나예? 비만지기름으로예?(아 그랬군요? 피마자기름으로요?)

독창

113002 @ 그다음엔 독창이렌 헤가지고 머리에 둥글둥글 하게시리 헤저가지고 굵은 점이 생기면서 막 머리털이 빠지는 그런 병이 이서낫어예? 독창이렌 헷수다. 여기선 뭐렌 ᄀᆞᆯ아신디 모르쿠다 그건?(그다음엔 독창이라 해가지고 머리에 둥글둥글 하게 해가지고 굵은 점이 생기면서 막 머리털이 빠지는 그런 병이 있었어요? 독창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선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113002 #2 건 들어본 예가?(그건 들어본 예가?)

113002 #1 들어보질 아네서.(들어보질 안 해서.)

113002 @ 기꽈? 그 일종의 탈모증은 아닌데, 일단은 그런 거는 그믄 안 들어보고예?(그래요? 그 일종의 탈모증은 아닌데, 일단은 그런 거는 그러면 안 들어 보고요?)

비듬

113003 @ 그다음에 비듬을 그땐 빈뎅이렌 헨덴 헷잖아예. 그 비듬은 어떵헹 치료헷수과?(그다음에 비듬을 그땐 '빈뎅이'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 비듬은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113003 #2 빈뎅이 하영 일민 머리 끔는 건, 옛날에 비누 어시난 찰흑, 츤역이렌 헷주게. 그거 가근에 그 이신디 강 어디, 뭐헤근에 그것 강 봉가당 그걸로 머리 깜곡, 그거 비누로 써시난.(비듬 많이 일면 머리 감는 건, 옛날에 비누 없어서 찰흙, 찰흙이라고 했지. 그거 가서 그 있는데 가서 어디, 뭐해서 그것 가서 주어다가 그걸로 머리 감고, 그거 비누로 썼으니까.)

113003 @ 경헤시난예. 경헷구나예?(그랬군요, 그랬군요.)

버짐

113004 @ 그다음에는 버짐은 어떵헷수과? 버짐은 옛날에 뭐렌 ᄀᆞᆯ앗수과?

113004 #1 것도 버짐.(그다음에는 버짐은 어떻게 했습니까? 버짐은 옛날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113004 #1 것도 버짐.(것도 버짐.)

113004 #2 기냥 버짐.(그냥 버짐.)

113004 @ 그 버짐은 어떵헹 그거 나삿수과?(그 버짐은 어떻게 해서 그거 나았습니까?)

113004 #2 버짐에도 비만지지름 볼른 거 닮아.(버짐에도 피마자기름 바른 거 닮아.)

113004 @ 버짐에도 예?(버짐도요?)

113004 #2 버짐에도.(버짐에도.)

113004 @ 우리 어릴 때 저도 막 버짐 나면 어머니가 달팽이 잇지예?(버짐에도 피마자기름 바른 거 닮아.)

113004 #2 달팽이로도 문질러도 뒈고.(달팽이로도 문질러도 되고.)

113004 @ 경헤난에 나중엔 그거 달팽이 끈적끈적한 거 떼젠하면 막 울고 헷던 기억이 나거든마씸. 어릴 때 저도.(그렇게 하니까 나중엔 그거 달팽이 끈적끈적한 거 떼려하면 막 울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릴 때 저도.)

113004 #2 돌팽이 묻힌 것도 이서서양?(달팽이 묻힌 것도 있었지요?)

113004 #1 돌팽이 묻혔덴 헌 뭐도 이서.(달팽이 묻혔다고 한 뭐도 있어.)

113004 #2 그땐 초약이렌 헌건 무시거 벨로 어선, 뭐헌 거 닮아도 비만지 지름헨에 하영 고쳇주.(그땐 초약이라고 한 건 뭐 별로 없어, 뭐한 거 닮아도 피마자 기름해서 많이 고쳤지.)

113004 #1 비만지 지름을 이용을 많이 헤. 요즘 말허는 식중독, 체 헌 거 체 헐 때.(피마자기름을 이용을 많이 해. 요즘 말하는 식중독, 체 한 거 체 할 때.)

113004 @ 예.(예.)

113004 #1 그 때도 비만지 먹으민은, 식중독 요즘에 말허는 식중독도.(그 때도 피마자 먹으면, 식중독 요즘에 말하는 식중독도.)

113004 @ 아, 식중독도 그거 먹엉예?(아, 식중독도 그거 먹어서요?)

113004 #2 그것이 막 많이 이용헤서.(그것이 매우 많이 이용했어.)

113004 @ 혹시 요즘엔 비만지라는 거 어디 못 봅니까? 어디신 거?(혹시 요즘엔 비만지라는 거 어디 못 봅니까? 어디 있는 거?)

113004 #2 못 봐양.(못 봐.)

113004 #1 요즘 잘 안보여.(요즘 잘 안보여.)

113004 @ 혹시나 그거를 어디 다니다강이라도 보이면 골아줍서. 일단 걸 찍어야 뒐 거난.(혹시나 그거를 어디 다니다가도 보이면 말해주십시오. 일단 그걸 찍어야 될 거니.)

113004 #1 피마자엔 허는가? 것도 뭔가 뭐시엔 헷는데?(피마자라고 하는가? 것도 뭔가 뭐엔 했는데?)

113004 @ 피마자인가? 잎이 영 헌 거 보민 피마자 닮은디.(피마자인가? 잎이 이렇게 한 거 보면 피마자 닮은데.)

113004 #2 잎이 여러 개도 안 나고.(잎이 여러 개도 안 나고.)

113004 @ 예.(예.)
113004 #2 영영 나민.(이렇게 이렇게 하면.)
113004 @ 예.(예.)
113004 #2 이파리 ᄒᆞ나가 욜로 뎅구리민.(이파리 하나가 요리로 뒤집으면.)
113004 @ 예.(예.)
113004 #2 요른 만치로 세 갈레로 영 갈라진 거.(요런 만큼 세 갈레로 이렇게 갈라진 거.)
113004 @ 예.(예.)
113004 #2 영 이것이 상 뭐민 일루 갈라지곡 일루 갈라지곡. 또 다슷 개로도 갈라질 수 잇고 허난.(이렇게 이것이 서서 뭐하면 일이로 갈라지고 이리로 갈라지고. 또 다섯 개로도 갈라질 수 있고 하니까.)
113004 #1 그건, 가지고 열매는 똑 땅콩모양으로 속에 알맹이 있고.
113004 @ 예.(예.)
113004 #1 우에는 털 식으로.(위에는 털 식으로.)
113004 @ 그 열메는 매끌매끌 헌 것과?(그 열매는 매끌매끌한 겁니까?)
113004 #1 에, 꼭 땅콩.(예, 꼭 땅콩.)
113004 @ 땅콩처럼예?(땅콩처럼요?)
113004 #2 까만 까만 까무룽 헌 뭐에 줄 이서, 열메가.(까만 까만 까무스름한 뭐에 줄 있어, 열매가.)
113004 #1 털 닮은 털 닮은 것도 잇고.(털 닮은 털 닮은 것도 있고.)
113004 @ 잇당 것도 한 번 찾아봐야 뒈쿠다예?(있다가 것도 한 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113004 #2 털은 영 뭐에 연디서 ᄒᆞ곡, 까지민 그 땅콩 닮은 거만.(털은 영 뭐에 연데서 하고, 까지면 그 땅콩 닮은 거만.)
113004 @ 매끈매끈한 거요?

여드름

113006 @ 그다음은 옛날 막 여드름 난건 어떵헤신고예? 여드름들 난 건.(그다음은 옛날 막 여드름 난건 어떻게 했을까요? 여드름들 난 건.)
113006 #1 여드름 난건 뭐 치료한 건 뭐시.(여드름 난건 뭐 치료한 건 뭐냐.)
113006 #2 여드름 난 건 기냥 네비영 어떵어떵 헷주. 그때 무신 여드름 난거 약 허곡 어느 저르예.(여드름 난 건 그냥 내버려 어떻게어떻게 했지. 그때 무슨 여드름 난거 약 하고 어느 겨를에.)
113006 @ 막 여드름만 난, 막 특별나게 여드름 막 많이 난 아이들 이섯지예? 그때 당시에도.(막 여드름만 난, 막 특별나게 여드름 매우 많이 난 아이들 있었지요? 그때 당시에도.)
113006 #1 옛날에는 그 여드름도 별로 엇어서.(옛날에는 그 여드름도 별로 없

었어.)
113006 #2 옛날에는 그다지 엇어서.(옛날에는 그다지 없었어.)
113006 @ 경헷구나예?(그랬군요?)

기미

113007 @ 그다음엔 기미는 어떵 헷수과? 기미. 기미가 셍기면.(그다음엔 기미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미. 기미가 생기면.)
113007 #2 옛날에는 기미가 셍겨도 기냥 살앗주게. 나추룩게.(옛날에는 기미가 생겨도 그냥 살았지. 나처럼.)
113007 @ 기미 안 셍기게 하젠 뭐 막 하진 안헷수과?(기미 안 생기게 하려고 뭐 막 하지는 안했습니까?)
113007 #2 아이고게, 그땐 무신 화장품이 이서 무시거가 이서.(아이고, 그땐 무슨 화장품이 있어 뭐가 있어.)
113006 @ 게난.(그러니까.)

주근깨

113008 @ 주근깨는마씸?(주근깨는요?)
113008 #2 주근깨도 기미랑 기냥 ᄀᆞ찌.(주근깨도 기미랑 그냥 같이.)

사마귀

113009 @ 사마귀 낫을 땐 어떵 헤낫수과?(사마귀 났을 땐 어떻게 했습니까?)
113009 #2 사막 날 때도 기냥 네불고, 말축, 이런 디 손에나 어디 말축 나민 멩지씰로 감아근에 그거 ᄒᆞ나, 젤 문저 난거 감앙 떨어치민 준 건 털어진다 헤낫주.(사마귀 날 때도 그냥 내버리고, 사마귀, 이런 데 손에나 어디 사마귀 나면 명주실로 감아서 그거 하나, 제일 먼저 난 거 감아서 떨어지면 잔 건 떨어진다 했었지.)
113009 @ 멩지씰로예?(명주실로요?)
113009 #2 어.(어.)
113009 #1 거 말축,(그거 사마귀.)
113009 @ 말축, 사마귀, 게난예.(사마귀, 사마귀, 그러니까.)
113009 #1 또 영장 나갈 때 가서 빗자루로 이거 가저가렌 헹 이거 씰엉.(또 영장 나갈 때 가서 빗자루로 이거 가져가라고 해서 이거 쓸어서.)
113009 @ 맞아 씰엇덴 헷잖아예? 근데 그게 참.(맞아 쓸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참.)

다래끼

113010 @ 그다음엔 다래끼 날 땐 어떵헷수과?(그다음엔 다래끼 날 땐 어떻게 했습니까?)

113010 #2 다래끼 날 땐 할망덜 발창에 글 써주곡.(다래끼 날 땐 할머니들 발바닥에 글 써주고.)

113010 @ 천평지평[194] 그거마씨?('천평지평' 그거요?)

113010 #1 응, 천평지평 쓰곡, 돗통담 가근에 뒤집고.(응, '천평지평' 쓰고, 돼지우리에 가서 뒤집고.)

113010 @ 돗통담 가근에 뒤집어마씸?(돼지우리에 가서 뒤집어요?)

113010 #1 담을 뒤집어. 방법[195]으로.(담을 뒤집어. 방법으로.)

113010 #2 옛날엔 뒈지 질르는 영 건 디 허민, 거 돗통담을 해떠올 때 영 벳 발른디 거 강 탁 뒤집어 놔불민.(옛날엔 돼지 기르는 이렇게 걸린 데 하면, 거 돼지우리 돌담을 해떠올 때 이렇게 볕바른 데 그거 가서 탁 뒤집어 놓아버리면.)

113010 #1 거 방시로.(그거 '방쉬'로.)

113010 #2 하하하.(하하하.)

눈 충혈

113011 @ 그다음엔 눈에 막 눈에 먼지나 뭐 껴근에 벌겋게 충혈 뒈거나 아니면 눈병 같은 거 낫을 때 눈 충혈뒌 건 어떵 치료헷수과?(그다음엔 눈에 막 눈에 먼지나 뭐 껴서 벌겋게 충혈 되거나 아니면 눈병 같은 거 났을 때 눈 충혈된 건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113011 #2 그때 눈에 약이 이섯수과? 엇엇주.(그때 눈에 약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지.)

113011 @ 애기들 어떵헙디가? 애기들 눈 아팡 와실 때.(애기들 어떻게 했습니까? 애기들 눈 아파 왔을 때.)

113011 #2 애기들은 눈 아프나 만약에 무시거 눈에 들어가나 허민 애기 젓멕이는 젓 놔근에, 어른들은 구완허곡, 애기들은 세로 영 뭐 헤주곡.(애기들은 눈 아프나 만약에 뭐 눈에 들어가나 하면 애기 젖먹이는 젖 넣어서, 어른들은 치료하고, 애기들은 혀로 이렇게 뭐 해주고.)

충치

113012 @ 그다음엔 애기들 막 충치먹어근에 이빨 아팡 헤가믄, 치통, 이빨 아팡 헤가민 어떵헷수과? 이빨 아플 때.(그다음엔 애기들 막 충치 생겨서 이빨 아파해 가면, 치통, 이빨 아파해 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빨 아플 때.)

113012 #1 아이들은 어떵헤도, 어른들은 그저 속 헤근에 연기도 빨고 헤봣는디.(아이들은 어떻게 해도, 어른들은 그저 쑥 해서 연기도 빨고 해봤는데.)

113012 @ 쑥 구워가지고요?

113012 #1 에.(에.)

---

194) '천평지평'은 눈에 다래끼가 났을 때 발바닥에 천평지평天坪地坪을 쓰면 낫는다고 했던 민간요법을 말한다.

195) '방법'은 비밀스런 방법으로 사악함을 물리치는 일을 말한다. =방세, 방쉬

113012 #2 아이들 헐 땐, 물 물어불라, 물 물어불라 헤실거라.(아이들 할 땐, 물 물어버려라, 물 물어버려라 했을 거야.)

113012 @ 물, 물 물어불라.(물, 물 물어버려라.)

혓바늘

113013 @ 그 막 그 혓바늘, 세까시 돋아실 땐 어떵헤낫수과?(그 막 그 혓바늘, 혓바늘 돋았을 땐 어떻게 했습니까?)

113013 #2 세까시 돋아실 땐 할망덜, 이제 ᄀᆞ트민 정구지.(혓바늘 돋았을 땐 할머니들, 이제 같으면 부추.)

113013 @ 예, 예 예.(예, 예 예.)

113013 #2 그걸 막 뭐헤근에.(그걸 막 뭐 해서.)

113013 @ 예.(예,)

113013 #2 꿀에, 꿀 헤근에 막 손가락으로 영영 감앙꿀에, 손가락으로 문 따까근에 헤낫주.(꿀에, 꿀 해서 막 손가락으로 이렇게이렇게 감아서, 손가락으로 모두 닦아서 해났지.)

113013 @ 그걸 여기서는 그걸 정구지렌 헤낫수과?(그걸 여기서는 그걸 부추라고 했습니까?)

113013 #1, 2 세우리.(부추.)

113013 @ 세우리렌 헷지예? 세우리.(부추라고 했지요? 부추.)

113013 #1 또 꿀, 청도 불르곡.(또 꿀, 꿀도 바르고.)

113013 @ 꿀은 또 청이렌 헷고예?(꿀은 또 '청'이라고 했고요?)

113013 #2 응.(응.)

천연두

113014 @ 그다음엔 그 지금 사라젓다고는 헤도 옛날에는 이섯덴 하거든마씸? 그 마마마씨게. 천연두, 마마 걸렷을 때, 마마 걸린 건 안 봐낫수과?(그다음엔 그 지금 사라졌다고는 해도 옛날에는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 마만데요. 천연두, 마마 걸렸을 때, 마마 걸린 건 안 봤습니까?)

113014 #1 마마, 우리는 저 무시거 저 홍역을 주로 허지. 마마는.(마마, 우리는 저 뭐 저 홍역을 주로 하지. 마마는.)

113014 @ 기지예? 그때도 마마는 엇어젓구나예.(그렇지요? 그때도 마마는 없어졌군요.)

홍역

113015 @ 그럼 홍역 걸렷을 때 어떵헷수과?(그럼 홍역 걸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113015 #2 홍역 걸렷을 땐 무시거 뭐 ᄀᆞ만 네불곡, 누게 왕 무시거렌 ᄀᆞᆯ아불카

부덴 어디 아이 둘앙 나가지도 아녀곡.(홍역 걸렸을 땐 뭐 뭐 가만 내버리고, 누가 와서 뭐라고 말해 버릴까봐 어디 아이 데려서 나가지도 안하고.)

113015 @ 예, 집이 사람 들어오지도 못허게 허곡.(예, 집에 사람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113015 @ 그다음엔 아이안티 어떵 헤줫수과?(그다음엔 아이에게 어떻게 해주었습니까?)

113015 #2 아이안틔 기냥 자연히 나뒷당 나시민 걸로 끗 헤불주, 어떵 헤줄 수가 이서?(아이에게 그냥 자연히 놔뒀다가 나으면 그걸로 끝 해버리지, 어떻게 해줄 수가 있어?)

113015 @ 기지예? 혹시 이 동네에 홍역 걸려난 다음에 뭐 다리라던가 팔에 뭐 셍긴 아인 어신가마씨?(그렇지요? 혹시 이 동네에 홍역 걸려난 다음에 뭐 다리라던가 팔에 뭐 생긴 아인 없었나요?)

113015 #2 엇어, 엇어.(없어, 없어.)

학질

113016 @ 그다음에 학질예? 모기에 물렷을 때 걸리는 거예? 학질 걸렷을 땐 어떵헷수과? 학질 걸령 뭐 죽엇다라든가 막 많이 아팟덴 한 소리 안 들어봣수과?(그다음에 학질이요? 모기에 물렸을 때 걸리는 거요? 학질 걸렸을 땐 어떻게 했습니까? 학질 걸려서 뭐 죽었다든가 매우 많이 앓았다고 한 소리 안 들어봤습니까?)

113016 #1 여긴 학질 관계는 건 별로 없엇고.(여긴 학질 관계는 건 별로 없었고.)

113016 #2 들어본 예 어신게.(들어본 예 없어.)

113016 @ 눼염 걸려난 건마씸?(뇌염 걸려난 건요?)

113016 #1 눼염은 근래 와서 눼염, 눼염하지. 옛날엔 눼염 이신지도 몰랏고.(뇌염은 근래 와서 뇌염, 뇌염하지. 옛날엔 뇌염 있는지도 몰랐고.)

113016 @ 게난 옛날에는 눼염 뭐렌 골아낫신지 몰르쿠과? 옛날엔?(그러니까 옛날에는 뇌염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습니까? 옛날엔?)

113016 #2 아이들 홍역 걸린 건 무시거렌 골아낫신고.(아이들 홍역 걸린 건 뭐라고 말했는지.)

113016 @ 그럼 옛날에 여름에 모기 물령 학질 걸려도 이게 학질인지 뭔지 몰랑 넘어 강, 살아나거나 죽어도 홀 수 어시고 경헤나신지도 몰라예?(그럼 옛날에 여름에 모기 물려서 학질 걸려도 이게 학질인지 뭔지 몰라 넘어가서, 살아나거나 죽어도 할 수 없고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볼거리

113017 @ 혹시 볼거리는 아이들 걸렷던 건 기억 나지예? 아니 혹시 본인이 걸려난 건 엇수과? 요기 막 딱딱하게 굳어근에 막 열나멍 아프는 거.(혹시 볼거리는

아이들 걸렸던 건 기억나지요? 아니 혹시 본인이 걸려난 건 없습니까? 요기 막 딱딱하게 굳어서 막 열나면서 아픈 거.)

113017 #2 엇어, 엇어.(없어, 없어.)

113017 #1 그런 것도 엇엇고.(그런 것도 없었고.)

113017 @ 혹시 동네에 경 걸렷을 때 어떵헤나신지 모르쿠과?(혹시 동네에 그렇게 걸렸을 때 어떻게 했었는지 모르겠습니까?)

113017 #1 것도 잘 엇엇고.(것도 잘 없었고.)

113017 #2 나력이렌 헤나지 아녓수과?(나력이라고 했었지 않았습니까?)

113017 @ 아, 나력. 나력.(아, 나력 나력.)

113017 #2 나력, 이런 귓등에나 이런 모가지에 뭐 난거.(나력, 이런 귓등에나 이런 모가지에 뭐 난거.)

113017 @ 예, 맞수다. 그걸 어떵 치료 헤나신고예?(예,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치료 했었나요?)

113017 #2 그건 그땐 뭐 초약을 부찌나 헹, 막 이걸 뽑아내젠 신경써넨.(그건 그땐 뭐 초약을 붙이거나 해서, 막 이걸 뽑아내려고 신경 썼어.)

113017 @ 초약이민 어떤 초약을 부쳇수과?(초약이민 어떤 초약을 붙였습니까?)

113017 #2 고약 ᄀᆞ튼 거.(고약 같은 거.)

113017 @ 고약? 그건 약국에 강 사당마씨?(고약? 그건 약국에 가서 사다가요?)

113017 #2 응.(응.)

113017 @ 옛날에도 이서낫수과?(옛날에도 있었습니까?)

113017 #2 사당도 허곡, 또 소낭에.(사다가도 하고, 또 소나무에.)

113017 @ 예.(예.)

113017 #2 송진. 송진 따근에.(송진 따서.)

113017 @ 예.(예.)

113017 #2 그거 막 불에 영영 허멍 떡을 만들어.(그거 막 불에 이렇게이렇게 하면서 떡을 만들어.)

113017 @ 예.(예.)

113017 #2 그것도 부쩌나고.(그것도 붙여나고.)

113017 @ 아, 아.(아, 아.)

113017 #2 구진 허물에 그거 송진 부쩌나고.(구진 허물에 그거 송진 붙여나고.)

목거리

113018 @ 혹시 그믄 그게 목걸이라는 병은 아니엇수과?(혹시 그러면 그게 목거리라는 병은 아니었습니까?)

113018 #1 목걸이가 나력인가? 잘 안들어봐서. 보통 나력 나력 헷는데.(목거리가 나력인가? 잘 안 들어봐서. 보통 나력나력 했는데.)

113018 @ 목걸이가 나력인가마씸? 저는 예 목걸이라는 말이 잘. 나력이 목걸이

하고, 볼거리 하고. 나력 걸렷을 때 아까 애기한 식으로 저기 뭘 헤난거꽈?(목거리가 나력인가요? 저는 예 목거리라는 말이 잘. 나력이 목거리하고, 볼거리 하고. 나력 걸렸을 때 아까 애기한 식으로 저기 뭘 했던 겁니까?)

113018 #2 응.(응.)

113018 @ 나력이라는 거는.(나력이라는 거는.)

113018 #2 나력은 그때 고약들 구진 허물에 부찌난 것도 구진 허물이다 헨 부쩌난 거 알아져.(나력은 그때 고약들 궂은 허물에 붙였던 것도 궂은 허물이다 해서 붙여난 거 알아.)

113018 @ 나력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병명이 이신게예. 나력이라는 건. 뭔가 막 결핵균이 볼록볼록 헤근에 염증 생경 곪아 터졋덴 나왓거든마씸. 아, 그러면 나력은 볼거리하고, 목걸이하고, 아니 또 다른 질병이다예. 나력은예? 그때는 송진헷다는 거잖아예?(나력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병명이 있네요. 나력이라는 건. 뭔가 막 결핵균이 볼록볼록 해서 염증 생겨 곪아 터졌다고 나왔거든요. 아, 그러면 나력은 볼거리하고, 목거리하고, 아니 또 다른 질병이네요. 나력은요? 그때는 송진 했다는 거잖아요?)

땀띠

113019 @ 그다음엔 땀띠 낫을 땐 어떵헷수과?(그다음엔 땀띠 났을 땐 어떻게 했습니까?)

113019 #1 뚬떼기?(땀띠?)

113019 @ 맞아. 건 뚬떼기렌 헤나서예? 뚬떼기 낫을 땐 어떵 헤낫수과?(맞아. 건 '뚬떼기'라고 했었지요? 땀띠 났을 땐 어떻게 했습니까?)

113019 #2 뚬떼기 낫을 때도 어린이들 그 땐 그루후제주마는 저, 분이엔 헤근에.(담띠 났을 때도 어린이들 그 땐 그 이후지만 저, 분이라고 해서.)

113019 @ 예.(예.)

113019 #2 분, 요만한 통에 분.(분, 요만한 통에 분.)

113019 #1 지금도 분이주게.(지금도 분이지.)

113019 @ 그 분은 나중에 나온 거 같고예? 분 나기 전에 삼춘네 어릴 땐 어떵헷수과?(그 분은 나중에 나온 거 같고요? 분 나오기 전에 삼촌네 어릴 땐 어떻게 했습니까?)

113019 #2 우리 어릴 땐 뚬떼기 난거 구완헤 줄 사름도 엇고 몰르고, 우리 아이들 키울 땐, 뚬떼기, 분헨에 불라난 거 고자 이서. 허허허.(우리 어릴 땐 땀띠 난거 치료해 줄 사람도 없고 모르고, 우리 아이들 키울 땐, 땀띠, 분해다가 발라난 거 아직도 있어. 허허허.)

113019 @ 경헷구나예? 웬만한 건 바당에 가근에 몸 곰아불고예?(그랬군요? 웬만한 건 바다에 가서 멱을 감아버리고요?)

113019 #2 몸 곰아불고. 춤물에 가근에 몸 곰고.(멱 감아버리고. 민물에 가서 멱

감고.)

부스럼

113020 @ 허물. 부스럼 날 땐 어떵헷수과? 허물 같은 거 낫을 땐?(허물. 부스럼 날 땐 어떻게 했습니까? 허물 같은 거 났을 땐?)

113020 #2 허물 나도 마찬가지로게. 막 나쁜 허물 낫젠헤민 고약헤당 부찌곡.(허물 나도 마찬가지로. 막 궂은 허물 났다고 하면 고약 해다가 붙이고.)

113020 @ 아까 송진으로 하듯이예?(아까 송진으로 하듯이요?)

113020 #2 어, 송진으로도 허고. 송진보단 고약이 하영 썻주.(어, 송진으로도 하고. 송진보단 고약이 많이 썼지.)

113020 @ 고약이 아이들 태어낫을 때는 써도. 삼춘네 애길 때도 고약 이섯수과? 어릴 때도?(고약이 아이들 태어낫을 때는 써도. 삼촌네 애길 때도 고약 있었습니까? 어릴 때도?)

113020 #2 우리 어릴 때도 이서서양?(우리 어릴 때도 있었지요?)

113020 #1 어. 고약이라고 이서서.(어. 고약이라고 있었어.)

113020 @ 그건 일제 때 이서낫구나예? 일젠데예? 혹시 그문 고약 종류 이름이 뭐엿는지 혹시 기억남수과? 일제 때?(그건 일제 때 있었군요? 일제강점긴데요? 혹시 그러면 고약 종류 이름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일제강점기 때?)

113020 #1 그것도 기억도 안 나고.(그것도 기억도 안 나고.)

113020 #2 문 우린 고약으로 알아네 쓴 거뿐.(모두 우린 고약으로 알아서 쓴 거뿐.)

113020 #1 고약은 여기 저 촌에 지금으로 말하민 한의사처럼 헌 사람이 이섯는디, 그 사람이 무신 그 재료가 뭐 뭔지도 모르고, 까맣게 헤서 이렇게 떡처럼 만들아서 종이에 헤서 부찌고 헷는디, 경헨 그 고약으로만 헤서.(고약은 여기 저 촌에 지금으로 말하면 한의사처럼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무슨 그 재료가 뭐 뭔지도 모르고, 까맣게 해서 이렇게 떡처럼 만들어서 종이에 해서 붙이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 고약으로만 했어.)

113020 @ 그냥 고약으로만, 아, 경헷구나예.(그냥 고약으로만, 아, 그렇게 했군요.)

헌데

113021 @ 그다음엔 헌 데, 헌 데. 쓰러져가지고 상처 같은 거 나잖아예? 경 헐어불잖아예, 살이예? 그땐 어떵헷수과? 아이들 무릎이나 이런데 막 까저근에 왓을 때.(그다음엔 헌 데. 헌 데, 쓰러져가지고 상처 같은 거 나잖아요? 그렇게 헐어버리잖아요, 살이요? 그땐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들 무릎이나 이런데 막 까져서 왔을 때.)

113021 #1 상처 난 거?(상처 난 거?)

113021 #2 상처 난 거 치로방법이 알아지크라?(상처 난 거 치료방법이 알아지겠나?)

113021 @ 어딘가 막 씨러저근에 막 여기 막 피나고 막 긁어먹고 헤근에.(어딘가 마구 쓰러져서 막 여기 막 피나고 막 긁히고 해서.)

113021 #1 그 상처 치료 ᄀᆞ튼 거 별로 뭐.(그 상처 치료 같은 거 별로 뭐.)

113021 #2 우리 아이들 클 때ᄁᆞ장은 옥도정끼, 아까징끼여 헷주마는 우리 대에는 몰르크라.(우리 아이들 클 때까지는 옥도징크, 요오드징크여 했지만 우리 대에는 모르겠어.)

113021 #1 옛날에는 츰는 거벳긔 약이 별로 없으니깐. 견디는 거지 뭐.(옛날에는 참는 거밖에 약이 별로 없으니깐. 견디는 거지 뭐.)

113021 @ 게난예, 하이고 참 하하. 게난에.(그러게요, 하이고 참 하하. 그러게요.)

종기

113022 @ 종기 날 땐 어떵헷수과? 종기 날 땐.(종기 날 땐 어떻게 했습니까? 종기 날 땐.)

113022 #2 종지 난 땐 고약 부찌는 거.(종기 난 땐 고약 붙이는 거.)

113022 @ 고약 부치는 거. 영 떼근에, 아 그 까망 거 그거예?(고약 붙이는 거. 이렇게 떼서, 아 그 까만 거 그거요?)

113022 #2 , 그거 부찌민, 곪앙 터지민, 물 질질 헤가민 존 거 허허.(, 그거 붙이면, 곪아서 터지면, 물 질질해 가면 나은 거 허허.)

113022 @ 기지예?(그렇지요?)

습종

113023 @ 그문 그 혹시 허물 중에서도 막 진물 나는 거 잇잖아예? 습하게시리 막 나고 할 때. 건 어떵 헷수과? 다리 ᄀᆞ튼 디 나는 허물마씨게.(그러면 그 혹시 허물 중에서도 막 진물 나는 거 있잖아요? 습하게 막 나고 할 때. 건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 같은 데 나는 허물.)

113023 #2 진물 나는 거.(진물 나는 거.)

113023 @ 특히 그 살찐 사람안틔게 막 나고 하는 건데.(특히 그 살찐 사람에게 막 나고 하는 건데.)

113023 #2 다리에 나도, 고약으로 부쩡 안 터저 가민, 엿날에 영 칼질로 헤근에 하르방 영 쩨여근에 뭐 하는 하르방들 이서낫주마는.(다리에 나도, 고약으로 붙여서 안 터져 가면, 옛날에 이렇게 칼질로 해서 할아버지 이렇게 째서 뭐 하는 할아버지들 있었지만.)

113023 @ 그 쩨면은 쩬 자리엔 뭐 헤나신고예?(그 째면 짼 자리엔 뭐 했을까요?)

113023 #2 쩬 자린 기냥 네불민 그냥 좋아근에.(쨘 자린 그냥 내버리면 그냥 나아서.)

113023 @ 그냥 고름만 다 빼네근에마씸?(그냥 고름만 다 빼내서요?)

113023 #2 응.(응.)

113023 @ 아이고 맞아. 겅헤도 다 살고.(아이고 맞아. 그렇게 해도 다 살고.)

생손앓이

113024 @ 그다음엔 셍손앓이렌 헤가지고 손가락 끝에 막 알리다근에 곪아서 터지믄, 셍손앓이, 여기는 뭐렌 골아신지 모르쿠다마는.(그다음엔 생손앓이라 해가지고 손가락 끝에 막 아리다가 곪아서 터지면, 생손앓이, 여기는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13024 #1,2 셍손앓이, 마찬가지로.(생손앓이, 마찬가지로.)

113024 @ 옛날에 셍손앓이렌 헷수과? 그땐 어떵 헤낫수과? 그건 잘도 아프고.(옛날에 생손앓이라고 했습니까? 그땐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잘도 아프고.)

113024 #2 셍손 알령, 우리 대엔 셍손알령 헤근에 뭐 헤가민 애기베젠 헴쩌, 무시거 헴쩌 헤봐도 고찌는 방법은 몰르크라. 고찌는 방법은.(생손 아려, 우리 대엔 생손 아려서 해서 뭐 해가면 애기 가지려 한다, 뭐 한다 해봐도 고치는 방법은 모르겠어. 고치는 방법은.)

113024 @ 그냥 그냥 견뎌넹예?(그냥 그냥 견뎌내서요?)

113024 #2 응, 셍손 알려가민 무신 일나젠헴쩌.(응, 생손 아려 가면 무슨 일 나려한다.)

두드러기

113025 @ 아까 그 땀띠 말고 두드러기 잇잖아예? 예를 든다면 저 같은 경우는 고등어 먹으민 막 두드러기 난, 고등어를 못 먹거든마씨. 그럴 때 두드러기 낫을 땐 어떵 치료 헷수과?(아까 그 땀띠 말고 두드러기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저 같은 경우는 고등어 먹으면 막 두드러기 나서, 고등어를 못 먹거든요. 그럴 때 두드러기 났을 땐 어떻게 치료 했습니까?)

113025 #2 두드러기는 소금물헨에 박박 문데연 헤나신가? 것도 몰르큰게. 두드레기 난 무신 약을 이시나 무시거 헐 뭐가 아니난.(두드러기는 소금물해서 박박 문질러서 했었나? 것도 모르겠어. 두드러기 난 무슨 약을 있었나 뭐 할 뭐가 아니니.)

113025 @ 계메, 저 우리 집에서는 저가 두드러기 잘나고 하면 소금 잇잖아예? 그 소금을 입에 놩 ᄒᆞ끔 삼키라 하민 그 짠 걸, 막 죽어지멍 막 소금 구워주면 구워준 소금헤근에 쭤금씩 삼키멍 헤낫거든마씨. 지금 셍각헤보니까 체헷던 거 가테예? 체하고 고등어가 안 맞으고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먹어나고 헤나신디. 두드러기 낫을 때 막 아이가 막 힘들어하고 이런 때 엇어낫수과?(그러니까, 저 우리 집에서는 저가 두드러기 잘나고 하면 소금 있잖아요? 그 소금을 입에 넣어서 조금

삼켜라 하면 그 짠 걸, 막 죽어지며 막 소금 구워주면 구워준 소금해서 쪼금씩 삼키면서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체했던 거 같아요? 체하고 고등어가 안 맞고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먹어나고 했는데. 두드러기 났을 때 막 아이가 막 힘들어하고 이런 때 없었습니까?)

113025 #1 그런 건 엇어서.(그런 건 없었어.)

113025 #2 그럴 땐 엇어. 봐난 거 담진 안허고.(그럴 땐 없어. 봤던 거 같진 안 하고.)

113025 @ 음.(음.)

113025 #2 우리 이디 할머니 이실 때 두드러기 나가민 소금헤근에 껌은 험벅에 싸근에 ᄒᆞ끔 뜻뜻허게 그걸로 영영 밀렌 헤난 거 닮아.(우리 여기 할머니 있을 때 두드러기 나가면 소금해서 검은 헝겊에 싸서 조금 따뜻하게 그걸로 이렇게이렇게 밀라고 해난 거 닮아.)

113025 @ 아, 맞아. 경헤낫지예?(아, 맞아. 그렇게 했었지요?)

113025 #2 이제추룩 ᄒᆞ쏠 아파가민 엄살을 헤지카게, 막 아팡 어떵어떵 허당보민 좋곡 헷주게.(지금처럼 조금 아파가면 엄살을 할 수 있나, 막 아파서 어찌어찌 하다보면 낫고 했지.)

113025 @ 맞수다.(맞습니다.)

113025 #2 약이 이서서 병원이 이서서?(약이 있어 병원이 있어?)

경기

113027 @ 아, 근데 경기도, 아이들 키우멍 두 분 안 헤나고예? 두 분 어릴 때 경기 헷덴 말 안 들어봣수과?(아, 그런데 경기도, 아이들 키우면서 두 분 안 해나고요? 두 분 어릴 때 경기 했다던 말 안 들어봤습니까?)

113027 #1 안 들어봔.(안 들어봤어.)

113027 @ 혹시 주변에 경기하는 아이 없었나요?

113027 #2 몰르큰게, 놈의 집이사.(모르겠네, 남의 집이야.)

113027 @ 혹시 안 들어낫수과? 경기헤난 거는 마을마다 좀 달라서 이건 좀 특별히 조사를 하고 싶어가지고예? 경기하는 건.(혹시 안 들어봤습니까? 경기했던 거는 마을마다 좀 달라서 이건 좀 특별히 조사를 하고 싶어가지고요? 경기하는 건.)

113027 #2정기가 아니고 역은 사람이주마는 이제는 좋앗주마는 간질이렌 헤낫주 간질.(경기가 아니고 성숙한 사람이지만 이제는 좋았지만 간질이라고 했었지 간질.)

113027 @ 간질, 그 경기심해가민 간질이렌 헤낫구나예?(간질, 그 경기심해가면 간질이라고 했었군요?)

113027 #2 음, 몰라게.(음, 몰라.)

113027 #1 정기가 간질이주.(정기가 간질이지.)

113027 #2 간질이엔 헤서이제.(간질이라고 해서이제.)

113027 #1 한참 잇당 자빠지고.(한참 있다 자빠지고.)

113027 #2 사람들 많이 가민 원 무쪼껀 누워불고, 자빠저불고.(사람들 많이 가면 원 무조건 누워버리고, 자빠져버리고.)

113027 @ 지금도 경합니까?(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113027 #2 (아니 지금은 고찌고. 다 고완헤서 이제. 00이나 저디 00이 각시나.(아니 지금은 치료하고. 다 완치해서 이제. 00이나 저기 00이 각시나.)

113027 #1 00이 네나.(00이 네나.)

113027 #2 건 죽어분 사름은 골을 필오 엇수다.(그건 죽어버린 사람은 말할 필요 없습니다.)

113027 @ 아, 이게 정끼라고 헷다고예?(아, 이게 경기라고 했다고요?)

113027 #2 응.(응.)

113027 @ 정끼 날 때 사실 이 간질일 수도 잇지만 간질이 아닐 수도 잇거든마씨. 예를 들어 아이들 막 어릴 때 열나가민 막 정끼하잖아예? 그거를 그렇게 헤서 키운 사람 어실 건가마씨? 애기들 막 고열 나가면 하잖아예?(경기 날 때 사실 이 간질일 수도 있지만 간질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이들 막 어릴 때 열나가면 막 경기하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해서 키운 사람 없을 건가요? 애기들 막 고열 나가면 하잖아요?)

1130271 #1 정끼 걸리민 뭐 이런 데로 피 뻰다, 이런 말도 이서신디이.(경기 걸리면 뭐 이런 데로 피 뺀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113027 @ 피 뻰덴? 그 간질 하다가 구한뒌 사람은, 그 사람은 혹시 뭘 먹엇다든가 이런 건 모르지예? 그 분 혹시 나중에 연락처 골아줍서예? 요거는 쪼금 저 조사 더 헤야.(피 뺀다고? 그 간질 하다가 완치된 사람은, 그 사람은 혹시 뭘 먹었다든가 이런 건 모르지요? 그 분 혹시 나중에 연락처 말해주세요? 요거는 쪼금 저 조사 더 해야.)

113027 #2 가근에 간질 헤낫덴 허민 골아준덴?(가서 간질 해났다고 하면 말해준대?)

113027 @ 아, 웨냐면 민간요법이 사실은 상당히 유용한데도 모르고 그냥 현대의학에만 의존해서 막 사람들이 더 힘들 수 잇거든예?(아, 왜냐면 민간요법이 사실은 상당히 유용한데도 모르고 그냥 현대의학에만 의존해서 막 사람들이 더 힘들 수 있거든요?)

113027 #2 게난 옛날엔 그 간질 하는 사람, 매나 옥빰이나 옥빰 아니꽈?(그러니까 옛날엔 그 간질 하는 사람, 매나 올빼미나 올빼미 아닌가요?)

113027 @ 올빼미, 예 옥빰 옥빰.(올빼미, 예. 올빼미 올빼미.)

113027 #2 그거 헤근에 어떵사 헴신디 그거 약헹 먹으민 고완헷젠 한 사람도 잇주게.(그거 해서 어떻게야 했는지 그거 약해서 먹으면 완치 했다고 한 사람도 있지.)

113027 @ 아, 그렇구나예.(아, 그렇군요.)

113027 #2 매가 옥빰 아니꽈?(매가 올빼미는 아닙니까?)

113027 #1 아니.(아니.)

113027 #2 매나 옥빰이나 두 가지 헤근에 것도 약으로 덜 헨 먹엇젠 헌 말 들어나신디게.(매나 올뺌이나 두 가지 해서 것도 약으로 들 해서 먹었다고 한 말 들어났는데.)

113027 @ 음, 그지예?(음, 그렇지요?)

화상

113028 @ 화상 입엇을 땐 어떵 헷수과? 화상 입엇을 땐? 물에 데거나 불에 데거나 헷을 때.(화상 입엇을 땐 어떻게 했습니까? 화상 입었을 땐? 물에 데거나 불에 데거나 했을 때.)

113028 #2 화상 입을 때 어떵 헌줄 알아지크라?(화상 입을 때 어떻게 한줄 알아지겠나?)

113028 #1 화상 입어도 별로 그 당시엔 중간에는 술도 바르고 헷는디, 우리 어릴 때도 술 ᄀᆞ튼 거 불르고.(화상 입어도 별로 그 당시엔 중간에는 술도 바르고 했는데, 우리 어릴 때도 술 같은 거 바르고.)

113028 @ 술 만마씨? 뒌장 같은 거 발라낫덴 하는 소린 안 들어봣수과?(술 만요? 된장 같은 거 발라났다고 하는 소린 안 들어봤습니까?)

113028 #1 화상 한 디는 뒌장 아녀. 뒌장은 개 문 디 ᄀᆞ뜬 디, 또 뒌장으로, 뒌장도 약으로 많이 쓰긴 썻는데.(화상 입은 데는 된장 안해. 된장은 개 문 데 같은데, 또 된장으로, 된장도 약으로 많이 쓰긴 썼는데.)

113028 @ 물에 덴 때 불에 덴 때, 혹시 주변에서 그런 혹시 겉으로 막 흉터 잇고 한 사람 엇어마씨?(물에 덴 때 불에 덴 때, 혹시 주변에서 그런 혹시 겉으로 막 흉터 있고 한 사람 없나요?)

113028 #2 응, 엇어 엇어. 안씨 잇주마는 가인 무신.(응, 없어 없어. 안씨 있지만 그인 무슨.)

113028 @ 아 화상 입어가지고 흉터 이신 채 사는 사람 잇수과? 지금 이 볼목리에?(아 화상 입어가지고 흉터 있는 채 사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이 보목리에?)

113028 #2 음.(음.)

113028 @ 연세가 어떵쯤 뒛수가?(연세가 어떻게 얼마나 됐습니까?)

113028 #2 이른, 칠십.(이른, 칠십.)

113028 #1 누게?(누구?)

113028 #2 안씨.(안씨.)

113028 #1 안씨? 안씨 간질 헤나서?(안씨? 안씨 간질 했었어?)

113028 @ 아니, 화상, 화상.(아니, 화상, 화상.)

113028 #2 아니게 화상.(아니 화상.)

113028 #1 아, 화상.(아, 화상.)

113028 @ 아니, 몸에 물이나 불에 데 가지고.(아니, 몸에 물이나 불에 데 가지고.)

113028 #1 건 실수헨에 죽으카부덴 허난 살앗주게.(그건 실수해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니까 살았지.)

113028 @ 그땐 어떵 치료 헤나신고예?(그땐 어떻게 치료 했는지요?)

113028 #1 병원 간에.(병원 가서.)

113028 @ 아, 병원 간.(아, 병원 가서.)

113028 #2 그건 옛날이 아니고 근래에.(그건 옛날이 아니고 근래에.)

113028 @ 아, 경헷구나예.(아, 그랬군요.)

동상

113029 @ 그담엔 그럼 동상 걸렷을 땐 어떵헷수과?(그담엔 그럼 동상 걸렸을 땐 어떻게 했나요?)

113029 #1 동상?(동상?)

113029 @ 예. 동상 걸렷을 때?(예. 동상 걸렸을 때?)

113029 #2 동상 걸령 뭐허민 가지.(동상 걸려서 뭐하면 가지.)

113029 @ 가지예?(가지요?)

113029 #2 이제 가지낭 그거 눈 맞기 전에 뽑아근에 막 딸려근에 발 담그곡 허렌 헤나신디.(이제 가지나무 그거 눈 맞기 전에 뽑아서 막 달려서 발 담그고 하라고 했었는데.)

113029 @ 가지낭으로예.(가지나무로요.)

113029 #2 응, 눈 안 맞인 때 뽑아근에.(응, 눈 안 맞은 때 뽑아서.)

113029 #1 또, 콩 구덕에 담아서 발, 콩에다가 발 넣어서.(또, 콩 구덕에 넣어서 발, 콩에다가 발 넣어서.)

113029 @ 셍콩마씨?(생콩이요?)

113029 #1 응, 셍콩.(응, 생콩.)

113029 @ 콩을 찌거나 뭐 하지 않고?(콩을 찌거나 뭐 하지 않고?)

113029 #2 아니, 아니 안 익여.(아니, 아니 안 익혀.)

113029 #1 셍콩에다가 이 저 이 저 바구니에 놔근에 발. 잘리에, 잘리에 발 집어 놔근에. 주로 그걸 많이 헷어.(생콩에다가 이 저 이 저 바구니에 담아서 발. 자루에, 자루에 발 집어넣어서. 주로 그걸 많이 했어.)

113029 #2 바구니에 노거나 옛날에 잘리에 기자 논차, 발 집어놔근에 멧 시간씩. 그거허곡 가지낭 허곡.(바구니에 담거나 옛날에 자루에 그저 담은 채, 발 집어넣어 몇 시간씩. 그거 하고 가지나무 하고.)

113029 #1 발 고사실 때.(발 동상에 걸렸을 때.)

감기

113030 @ 감기 걸렷을 땐 어떵헷수과? 아이들 막. 아니면 삼춘네 어렷을 때 감기 걸렷을 때.(감기 걸렸을 땐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들 매우. 아니면 삼촌네 어렸을 때 감기 걸렸을 때.)

113030 #1 감기 걸렷을 때, 그때도 어릴 때지만은 뎅우지 ᄀᆞ튼 거 달려주주.(감기 걸렸을 때, 그때도 어릴 때지만 유자 같은 거 달려주지.)

113030 @ 아 댕유지예. 댕유지 놘 딸릴 때는 뭐 안 놩 댕유지만 헷수과?(아 유자요. 유자 넣어 다릴 때는 뭐 안 넣어 유자만 했습니까?)

113030 #1 아니. 옛날엔 뭐 아무것도 엇고.(아니. 옛날엔 뭐 아무것도 없고.)

113030 @ 그럼 댕유지가 지금이야 나지만 봄에나 여름 가을엔 없잖아나예? 그땐 어떵 헷수과? 댕유지를 항상 집에 놔둬신가마씨 웬만하면?(그럼 유자가 지금이야 나지만 봄에나 여름 가을엔 없잖아요? 그땐 어떻게 했습니까? 유자를 항상 집에 놔뒀나요? 웬만하면?)

113030 #1 그땐 뎅우지덜이 하난 이 철 넘어가민 낭에 꺼 떨어저.(그땐 유자들이 많아서 이 철 넘어가면 나무에 거 떨어져.)

113030 @ 예.(예.)

113030 #2 겨민 그거 낭에 거 주서다근에 단지에 헤영 놔두주게.(그러면 그거 나무에 거 주워서 단지에 해서 넣어두지.)

113030 @ 단지에 놔둣당 아파가민 거 달련 먹엇구나예?(단지에 넣어두었다가 아파가면 거 달련 먹었군요?)

기침

113031 @ 그다음엔 기침 심하면, 감기에 기침도 잇겟고 마른기침도 잇겟고, 그런 기침병 걸린 사람도 잇겟고, 그런 기침에는 어떵 헷수과? 기침이 막 심헤가면.(그다음엔 기침 심하면, 감기의 기침도 있겠고 마른기침도 있겠고, 그런 기침병 걸린 사람도 있겠고, 그런 기침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침이 막 심해가면.)

113031 #2 기침 심헤도 기침약이다 헌건 기억이 안 남서.(기침 심해도 기침약이다 한건 기억이 안 나.)

113031 @ 뭐 풀뿌리 같은 거 끌령 먹거나 파뿌리 같은 거 안 먹고예?(뭐 풀뿌리 같은 거 끓여서 먹거나 파뿌리 같은 거 안 먹고요?)

113031 #2 할망들 쪽파에 뿌리ᄁᆞ지 헤놓고 모물 ᄊᆞᆷ아근에 죽 썽 먹으렌은 헤낫주.(할머니들 쪽파에 뿌리까지 해 넣고 메밀 삶아서 죽 써서 먹으라고 했었지.)

113031 @ 먹으렌예? 기침 헤가믄예?(먹으라고요? 기침 해가면요?)

113031 #2 감기 걸려근에.(감기 걸려서.)

113031 #1 먹낭 기름도 헤근에 먹으렌 헤낫주 마는 옛날에.(동백나무 기름도 해서 먹으라고 했었지만 옛날에.)

113031 #2 돔박기름.(동백기름.)

113031 @ 돔박기름예?(동백기름이요?)

113031 #2, 돔박기름, 돔박기름은 이제덜토 먹는 사름은 먹어.(동백기름, 동백기름은 이제도 먹는 사람은 먹어.)

113031 @ 게난, 맞수다게.(그러게요, 맞습니다.)

딸꾹질

113032 @ 딸꾹질헤나민 어떵 헷수과? 딸꾹질, 특히 애기들은 딸꾹질 멈추질 안 허잖아예?(딸꾹질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딸꾹질, 특히 애기들은 딸꾹질 멈추질 안 하잖아요?)

113032 #2 딸꾹질헤가민 무시거 혼자 도둑질 헤먹어시넨 허멍 물 먹어불라 물 먹어불라 헤낫주.(딸꾹질해가면 뭐 혼자 도둑질 해먹었냐고 하면서 물 먹어버려라 물 먹어버려라 했었지.)

113032 @ 애기 땐마씸? 물애기 땐.(애기 때는요? 갓난아기 때)

113032 #2 애기 때는 젓 멕여불고.(애기 때는 젖 먹여버리고.)

113032 @ 아 맞다. 나도 경헷수다.(아 맞다. 나도 그랬습니다.)

113032 #1, 2, @ 하하 허허, 맞아.(하하 허허, 맞아.)

113032 #2 애기 땐 젓 멕이곡 어른덜은 한 창 잇당 떨구지헤가민 어디 강 혼자 뭐 도둑질 헹 먹어시닌 물 먹어불라 헤나서.(애기 땐 젓 먹이고 어른들은 한 참 있다가 딸꾹질해가면 어디 가서 혼자 뭐 도둑질해서 먹었냐며 물 먹어버려라 했어.)

코피

113033 @ 그다음에 코피가 막 심한 아이들 잇잖아예? 코피 날 땐 어떵 헤신고예?(그다음에 코피가 막 심한 아이들 있잖아요? 코피 날 땐 어떻게 했나요?)

113033 #2 코피 날 땐 영 헹 고개 잦혀근에 여기ᄁᆞ지 심어주곡, 뭐하당 멈추곡, 약은 헌 거 담지 아녀. 코피 난에 막 심할 땐 흔 십오 년 전이ᄁᆞ장은 문어.(코피 날 땐 이렇게 해서 고개 젖혀서 여기까지 눌러주고, 뭐하다가 멈추고, 약은 한 거 담지 안 해. 코피 나서 막 심할 땐 한 십오 년 전에까지는 문어.)

113033 @ 예.(예.)

113033 #2 속에 꺼멍헌 먹통.(속에 까만 먹통.)

113033 #2 그거 쌂아근에, 문어차 ᄊᆞᆲ앙, 그거 차 빼영 먹으렌 헤낫주게.(그거 삶아서, 문어 채 삶아서, 그거 채 빼내서 먹으라고 했었지.)

113033 @ 아, 코피 날 때는.(아, 코피 날 때는.)

113033 #2 어, 코피가 자주 나는 딘.(어, 코피가 자주 나는 데는.)

113033 @ 음, 기구나.(음, 그렇구나.)

가래

113034 @ 그다음엔 가래 같은 거 막 글그랑 글그랑 꼇을 땐 어떵헷수과? 애기

들.(그다음엔 가래 같은 거 막 갈그랑갈그랑 꼈을 땐 어떻게 했습니까? 애기들.)

113034 #2 애기들 무신 약초가 이서서?(애기들 무슨 약초가 있었어?)

113034 #1 특별한 것이 엇어서.(특별한 것이 없었어.)

113034 @ 막 담베 피우는 어른들, 막 가래 끼고 할 땐 건 어떵 헤근에 그걸 이겨내신고예?(많은 담배 피우는 어른들, 막 가래 끼고 할 땐 건 어떻게 해서 그걸 이겨냈을까요?)

113034 #1 담베 피우는.(담배 피우는.)

113034 @ 삼춘은 담베 안 피우시지예?(삼춘은 담배 안 피우시지요?)

113034 #1 옛날은 뭐 약도 엇엇고.(옛날은 뭐 약도 없었고.)

가래톳

113035 @ 아, 그 가래톳이렌 헤가지고 허벅다리하고 사타구니 사이에 그 부어가지고는 막 켕켱 걷기 힘들어하는 그런 질병 이서낫거든마씨? 여기서는 뭐렌 골아신지 모르쿠다만은. 질병이름으로 가래톳인데, 여기 막 아파가지고 멍울 저근에 막 걷지 못하고 하는 거 본 적 엇수과?(아, 그 가래톳이라고 해서 허벅다리하고 사타구니 사이에 그 부어가지고는 매우 당겨 걷기 힘들어하는 그런 질병 있거든요? 여기서는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병이름으로 가래톳인데, 여기 막 아파가지고 멍울 져서 막 걷지 못하고 하는 거 본 적 없습니까?)

113035 #1 멍얼 사근에 걷지 못허는 사름은 이서나신디.(멍울 서서 걷지 못하는 사람은 있었는데.)

113035 @ 예, 예 예.(예, 예 예.)

113035 # 요런 디?(이런 데?)

113035 @ 예, 예. 그땐 어떵 치료헤신고예?(예, 예. 그땐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113035 #1 것도 치료방법이 기억이 안 나. 멍얼도 요런 디다가 움직이는 디 멍얼 상 걷지 못헹영 경헤난.(그것도 치료방법이 기억이 안 나. 멍울도 요런 데다 움직이는 데 멍울 서서 걷지 못해서 그렇게 했었어.)

113035 @ 예, 예.(예, 예.)

113035 #2 경헤난 건 이서나신디 약을.(그렇게 했던 건 있었는데 약을.)

113035 #1 그런 경우는 가끔 우리도 헤 봣는디 치료 관계는 뭣 어떻게 몰라.(그런 경우는 가끔 우리도 해 봤는데 치료 관계는 무엇 어떻게 모르겠어)

113035 @ 그냥 네불엉 나산마씨?(그냥 내버려서 나았나요?)

113035 #1 약치료 뭐는 엇엇던 거 ᄀᆞ따. 멍울은 많이들 헤서.(약치료 뭐는 없었던 것 같아. 멍울은 많이들 했어.)

113035 #2 그때 어딜로 침 놔근에 그거 멍얼 산 딜로 침 놔근에 뭐헤나신가? 이디 저, 큰집이 삼춘네 웨할망 누게네 인복이네 올레에 살 때에 침 맞이레 뎅겨난 건 알아지는디?(그때 어디로 침 놔서 그거 멍울 선 데로 침 놔서 뭐했었나? 여기

저, 큰집의 삼촌네 외할머니네 누구네 인복이네 올레에 살 때에 침 맞으러 다녀난 건 알겠는데?)

113035 @ 음.(음.)

113035 #2 다리 저려근에.(다리 저려서.)

설사

113036 @ 설사 날 땐 어떵헷수과? 아이들 막 심행 화장실 왓다갓다 하거나 설사 날 때?(설사 날 땐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들 막 심해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하거나 설사 날 때?)

113036 #2 설사 나도 특별히 무신 약 뭐가 어신 거 닮은디?(설사 나도 특별히 무슨 약 뭐가 없는 거 닮은데?)

113036 @ 설사 날 때 뭔가 특별히 헹 멕인 건 엇어낫수과?(설사 날 때 뭔가 특별히 해서 먹인 건 없었습니까?)

112036 #1 설사 날 때 벨로 특별나게 약을 쓴 거 같진 않은디?(설사 날 때 별로 특별나게 약을 쓴 거 같진 않은데?)

113036 #2 계란허고 사이다.(계란하고 사이다.)

113036 #1 옛날에사 사이다 엇어난디.(옛날에야 사이다 없었는데.)

113036 #2 우리 뭐엔 헷주마는 우리아이덜 키울 땐 사이다도 엇엇주.(우리 뭐엔 했지만 우리아이들 키울 땐 사이다도 없었지.)

113036 @ 게난예.(그러게요.)

113036 #2 사까린 정도 이섯주.(사카린정도 있었지.)

113036 @ 계란마씸? 계란?(계란이요? 계란?)

113036 #2 독새기.(계란.)

113036 @ 계란 ᄉᆞᆲ앙마씨?(계란 삶아서요?)

113036 #2 아니, 독새기 그 노른자만 헤영 사이다에 그 멕일 때도 혼, 거의 혼 십오 년 넘어서.(아니, 계란 그 노른자만 해서 사이다에 그 먹일 때도 한, 거의 한 십오 년 넘어서.)

113036 @ 음. 우린 어릴 땐 호박을 죽 쒀서 줫던 거 기억나거든예?(음. 우린 어릴 땐 호박을 죽 쒀서 줬던 거 기억나거든요?)

113036 #2 호박 죽 쒕?(호박죽 쒀서?)

113036 @ 호박만 쩌가지고.(호박만 쪄가지고.)

113036 #2 쩌근에?(쪄서?)

113036 @ 예. 경헷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예.(예. 그렇게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113036 #2 하튼 뭐 먹으민 멈췃다하는 걸 기억 안 남신게.(하여튼 뭐 먹으면 멈췄다하는 걸 기억 안 나네.)

113036 @ 분명 설사 나긴 나나실거라예?(분명 설사 나긴 났겠지요?)

113036 #2 응, 나가 애기덜 키울 때 설사나민 우리 어머닌 어디 가네 나가 무시 거 잘못 먹엇덴. 젓 멕일 땐.(응, 나가 애기들 키울 때 설사나면 우리 어머닌 어디 가서 나가 무시 거 잘못 먹었다고. 젖 먹일 땐.)

113036 @ 음.(음.)

113036 #2 애기 똥 퍼렁허게 싸민, 나가 무신 풀ᄂᆞ물을 먹으나 어떵 헷젠허멍 ᄀᆞᆯ아나도 무시걸로 고안 헌 건 몰르큰게.(애기 똥 퍼렁하게 싸면, 나가 무신 풀나물을 먹으나 어떻게 했다하면서 말했어도 뭐로 치료 한 건 모르겠네.)

113036 @ 삼춘네 어릴 때는 설사 안 나낫수과?(삼촌네 어릴 때는 설사 안 났었나요?)

113036 #2 설사 안 나난.(설사 안 났었어.)

이질

113037 @ 그다음 혹시 이질 같은 거 걸렷덴 소리 안 들어봇수과?(그다음 혹시 이질 같은 거 걸렸다는 소리 안 들어봤습니까?)

113037 #2 이질 걸렷덴도 아녀보고. 이질에 대한 약도 몰르고.(이질 걸렸다고도 안 해보고. 이질에 대한 약도 모르고.)

113037 @ 이질은예? 웨냐면 저 십여 년 전쯤에 남원 지역에 초등학교에 이질 막 걸련덜 병원에 집단으로 입원헤나고 헤낫거든마씸. 그 옛날에도 하긴 헤나실건디예?(이질은요? 왜냐면 저 십여 년 전쯤에 남원 지역에 초등학교에 이질 많이 걸려서들 병원에 집단으로 입원해나고 했거든요. 그 옛날에도 하긴 했을 건데요?)

113037 #1 뭐 이질이라고 헤도 뭐 이질이 무슨 병인지도 몰랏고.(뭐 이질이라고 해도 뭐 이질이 무슨 병인지도 몰랐고.)

113037 @ 게난, 계속 설사를 하는데 막 피똥 싸고 하는 게 이질이잖아예? 그냥 설사가 아니라. 그런 병을 주변에서 걸린 걸 본적이 없으시다는 거잖아예?(그러니까, 계속 설사를 하는데 막 피똥 싸고 하는 게 이질이잖아요? 그냥 설사가 아니라. 그런 병을 주변에서 걸린 걸 본적이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체했을 때

113039 @ 그다음에 체 헷을 땐 어떵헤낫수과?(그다음에 체했을 땐 어떻게 했습니까?)

113039 #2 체헷을 땐 손ᄀᆞ락 따는 거.(체했을 땐 손가락 따는 거.)

113039 @ 손가락 따는 거마씸?(손가락 따는 거요?)

113039 #2 어.(어.)

113039 @ 직접 따줫수과 아니면 어떵 헷수과?(직접 따주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113039 #2 손가락 기냥 실 감아근에.(손가락 그냥 실 감아서.)

113039 @ 예.(예.)

113039 #2 옆에 사람이 헤주주게. 본인냥으로 못허고.(옆에 사람이 해주지. 본인대로 못하고.)

113039 @ 손가락 어디 부분마씨?(손가락 어디 부분요?)

113039 #2 이거, 이거.(이거, 이거.)

113039 @ 엄지부분예? 엄지에서 손가락 등에예?(엄지부분요? 엄지에서 손가락 등에요?)

113039 #2 영 허민 여기 씰 감으민 여기, 겨민 체한 건 피가 새카망케 싹 나와.(이렇게 하면 여기 실 감으면 여기, 그러면 체 한건 피가 새까맣게 쓱 나와.)

113039 @ 게민 진짜 나읍디가?(그러면 진짜 나았나요?)

113039 #2 응.(응.)

곽란

113038 @ 그다음에는 그 갑자기 막 위가 아파가지고 위경련 일어나서 막 못 견디는 거 잇잖아예? 그걸 곽란이라고 하는데, 토사곽란이라고 헤서 토하고 아니면 뭐 막 위아파가지고 갑자기 막 뒹굴고 하는데 곽란이란 거 나실 때 그런 건 어떵 치료 헤나신고예?(그다음에는 그 갑자기 막 위가 아파가지고 위경련 일어나서 매우 못 견디는 거 있잖아요? 그걸 토사곽란이라고 하는데, 토사곽란이라고 해서 토하고 아니면 뭐 매우 위아파가지고 갑자기 막 뒹굴고 하는데 토사곽란이란 거 났을 때 그런 건 어떻게 치료 했나요?)

113038 #2 베꼽 돌려. 베꼽을 손가락에 영 헤근에 멧 번. 일로 멧 번. 일로 멧 번.(배꼽 돌려. 배꼽을 손가락에 이렇게 해서 몇 번. 이리로 몇 번. 이리로 몇 번.)

113038 @ 아, 그렇게 헹 따로 멕이는 건 엇고예?(아, 그렇게 해서 따로 먹이는 건 없고요?)

113038 #1 또 또 또 뭐니 저 대사니.(또 또 또 뭐니 저 마늘.)

113038 @ 예.(예.)

113038 #1 대사니 뻐사근에 물 저 멕이고. 곽란이홀 때.(마늘 빻아서 물 저 먹이고. 곽란할 때.)

112038 @ 아!(아!)

베인 데

113040 @ 그다음엔 칼로 베이기도 하고, 옛날엔 억세로 베이고, 베엿을 땐 어떵 헷수과? 칼로 뭐 썰당 칼로 손 베면?(그다음엔 칼로 베이기도 하고, 옛날엔 억새로 베이고, 베었을 땐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뭐 썰다가 칼로 손 베이면?)

113040 #2 게, 베엇을 땐 속 헤당 허나, 담베 헤단 처매나.(그래, 베었을 땐 쑥 해다가 하나, 담배 해다가 처매나.)

113040 @ 아 담베가루를 뗑마씨?(아 담배가루를 떼서요?)

113040 #2 그때는 입담베덜 농서 헐 때난 그걸 입 흑나 뜯아다근에 이걸로 감

던지.(그때는 잎담배들 농사할 때니까 그걸 입 하나 뜯어다가 이걸로 감던지.)

113040 #1 속, 속, 속이 으라가지 많이 썻지.(쑥, 쑥 쑥이 여러 가지 많이 썼지.)

113040 @ 예. 속이 많이 써서예. 맞아예.(예. 쑥이 많이 썼어요. 맞아요.)

모기에 물린 때

113041 @ 모기에 물릴 땐 어떵 헤낫수과?(모기에 물릴 땐 어떻게 했습니까?)

113041 #1 모기물릴 땐 꿈 불르붐벳긔 무신, 하하하.(모기물릴 땐 침 바르는 것 밖에, 하하하.)

113041 @ 기지예? 하하하.(그렇지요? 하하하.)

뱀 물린 때

113042 @ 벰 물릴 땐 탁 털어근에 땅에 떨어지기 전에 흑을 확, 접아근에 먹어분 거예?(벰 물릴 땐 탁 털어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흙을 확, 집어서 먹어버린 거요?)

113042 #1 벰은 딱 물멘은 또 놧다가 다시 왕 무는 때문에.(뱀은 딱 물면 또 놓았다가 다시 와서 물기 때문에.)

113042 @ 아, 아.(아, 아.)

113042 #1 그 순간에 빨리.(그 순간에 빨리.)

113042 #2 흑을 접아 먹어베사. 벰보다.(흙을 집어 먹어버려야.)

113042 #1 그 말은 빨리 피하라는 소린디. 벰 보다 더 빨리 흑 물어사 다시 안 물도록.(그 말은 빨리 피하라는 소린데. 뱀 보다 더 빨리 흙 물어야 다시 안 물도록.)

113042 @ 음.(음.)

113042 #1 그런 식으로 헤서 벰 한 번 딱 물면 빨리 흑을 먹으라 허는 그런.(그런 식으로 해서 뱀 한 번 딱 물면 빨리 흑을 먹어라 하는 그런.)

113042 #2 정신적으로 빨리 피허라 허는 거주게.(정신적으로 빨리 피하라 하는 거지.)

113042 @ 삼춘은 그냥 나삿주마는 다른 사람들은 낫지 못헤가지고 벰 물린 자국에 뭘 한다던가. 웨 우리 어릴 땐 벰 물리민 벰 물린 데서 입으로 빨아근에 독 빤덴 헷잖아예? 여기선 어떵 헤신고예?(삼촌은 그냥 나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낫지 못해서 뱀 물린 자국에 뭘 한다던가. 왜 우리 어릴 땐 뱀 물리면 뱀 물린 데서 입으로 빨아서 독 뺀다고 하잖아요? 여기선 어떻게 했나요?)

113042 #1 여기서도 그런 거 뭐시기 헤서. 독 올르민 세로 빨아불어.(여기서도 그런 거 뭐 해서. 독 오르면 혀로 빨아버려.)

113042 # 2 심하게 물엉은 베염이 도망가불민 그 사람을 눕혀근에 이런 다리 ᄀᆞ튼 디 물민 딴 사람이 막 엎어정 그 독을 빼주주게.(심하게 물리면 뱀이 도망 가버리면 그 사람을 눕혀서 이런 다리 같은 데 물면 다른 사람이 막 엎드려서 그 독

을 빼주지.)

113042 @ 그렇게 하면 무신 약초라든가 뭐헹 처멧덴 소리 안 들어봣수과?(그렇게 하면 무슨 약초라던가 뭐해서 처맸다는 소리 안 들어봤습니까?)

113042 #1 약초로, 벰 문 데 약초 헤난 건 우린 기억이 안나. 주로 빠는 것이.(약초로, 뱀 문 데 약초 했던 건 우린 기억이 안나. 주로 빠는 것이.)

113042 @ 혹시 벰 물령 죽엇덴 헌 소리는 안 들어봣수과?(혹시 뱀 물려서 죽었다고 한 소리는 안 들었습니까?)

113042 #2 옛날은 엇엇어. 이 글래 벌초 강 독사 물령죽엇저 하는 방송은 나오는디. 본적은 엇고.(옛날은 없었어. 이 글래 벌초 가서 독사 물려죽었다 하는 방송은 나오는데. 본적은 없고.)

113042 @ 여기 볼목리에선 엇엇고예?(여기 보목리에선 없었고요?)

벌에 쏘인 때

113043 @ 아까 벌에 쏘일 땐 어떵 헷수과?(아까 벌에 쏘일 땐 어떻게 했습니까?)

113043 #1 벌?(벌?)

113043 @ 예.(예.)

113043 #1 벌 허민 뭐 새 그 당시 새, 들에 가민 새 씹어가지고 글로 문대고.(벌 하면 뭐 띠 그 당시 띠, 들에 가면 띠 씹어가지고 그걸로 문지르고.)

113043 @ 새 씹어가지고예?(띠 씹어가지고요?)

113043 #1 에.(예.)

113043 @ 문대고. 오줌 싸서 묻히고예? 그거 말곤 다른 건 엇엇수과?(문지르고. 오줌 싸서 묻히고요? 그거 말곤 다른 건 없었습니까?)

113043 #1 오줌 싸고. 오줌 싸고 새 씹어서 걸로 막 문대고.(오줌 싸고. 오줌 싸고 띠 씹어서 그걸로 막 문지르고.)

113043 #2 새 씹엉 문댄 건 기억나도 오줌 쌍 불른 건 기억 안 남저.(띠 씹어서 문지른 건 기억나도 오줌 싸서 바른 건 기억 안 난다.)

113043 #1 난 오줌 쌍, 손대어서 오줌 싸낫다고 이쪽 손.(난 오줌 싸서, 손대어서 오줌 쌌다고 이쪽 손.)

113043 @ 오줌에 담갓덴 허고.(오줌에 담갔다고 하고.)

옻 오른 때

110044 @ 아까 칠, 옻올랏덴 말, 여기선 뭐 올렷덴 골앗수과?(아까 칠, 옻올랐다는 말, 여기선 뭐 올랐다고 말했습니까?)

110044 #2 칠 올랏젠.('칠'올랐다.)

110044 @ 칠올랏덴 헷잖아예? 그 땐 아까 소아쿨[196].(옻올랐다고 했잖아요? 그

196) '소아쿨'은 '송악'을 말한다. 지역이나 발화자에 따라 '쿨'은 '꿀'로도 발음되는데 주로 줄기 또는

땐 아까 '송악'.)

110044 #1, 2 담쟁이.(담쟁이.)

110044 @ 아깐 뭐 부체순?(아까는 뭐 부처손.)

110044 #2 부체순.(부처손.)

110044 @ 부체순이나 담쟁이로 그거를 태워가지고 연기를 쏘으든가? 아까 삶아근에 뭐 담그고예? 옻올를 때예?(부처손이나 담쟁이로 그거를 태워가지고 연기를 쏘든가? 아까 삶아서 뭐 담그고요? 옻오를 때요?)

멍든 때

113045 @ 그다음엔 멍들 땐 어떵 헷수과? 어디 크게 헹 시커멍허게 멍들 때?(그다음엔 멍들 땐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 크게 해서 시커멓게 멍들 때?)

113045 #1 독새기로 궁구려근에 독새기로 까망 거 대근에 멍든 거 까만데 타박상 입은 거 독세기로 궁구려서.(달걀로 굴려서 달걀로 까만 거 대근에 멍든 거 까만데 타박상 입은 거 달걀로 굴려서.)

110044 #2 건 이제도 허난.(그건 이제도 하니까.)

말을 더듬을 때

113046 @ 그다음엔 가끔 아이들 커가면서 다 그런 건 아닌데 애들이 뭐하면 말더듬는 경우들이 잇거든마씨.(그다음엔 가끔 아이들 커가면서 다 그런 건 아닌데 애들이 뭐하면 말더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113046 #2 말 더듬는 거?(말 더듬는 거?)

113046 @ 예. 더듬어근에 막 커갈 때 고치기도 하고 못 고처서 계속 말할 때 무신, 쳌이면, 체...쳌 가...가저 와수게, 이런 식으로 할 때 치료는 어떤 식으로 헤나신지 알아지쿠과?(예. 더듬어서 막 커갈 때 고치기도 하고 못 고쳐서 계속 말할 때 무슨, 책이면, 체...쳌 가...가져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치료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알겠습니까?)

113046 #1 치료는 뚜렷한 건 기억 안 나고. 그거 춘세멕혓덴[197]은 허는디, 아이들 추룩.(치료는 뚜렷한 건 기억 안 나고. 그거 '춘세멕혓덴'은 하는데, 아이들 처럼.)

113046 @ 춘세멕혓다?('춘세멕혔다'?)

113046 #1 말 빨리 못헤서 드드드드, 벨다른 특별한 약은 없는 거 같고, 기억이 안 나고.(말 빨리 못해서 드드드드, 별다른 특별한 약은 없는 거 같고, 기억이 안 나고.)

113046 @ 그 혹시 말더듬엇던 사람이라든가 말더듬엇던 아이를 키운 부모 혹시 우리 주변에 잇수과?(그 혹시 말더듬었던 사람이라든가 말더듬었던 아이를 키운 부

풀을 의미한다.

197) '춘세멕히다'는 충치멕히다를 잘못 발음한 듯하다. 몹시 혼이 난 일을 당하여 속셈을 잃어버림을 말한다. =억바치다(제보자, 한춘화).

모 혹시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113046 #1 무시거 원 그런 뭣이 엇어난 거 ᄀᆞ타.(뭐 원 그런 무엇이 없었던 것 같아.)

110044 @ 게, 옛날에, 옛날에 헷엇던 사람. 혹은 헷던 아이를 키운 사람.(그래, 옛날에, 옛날에 했었던 사람. 혹은 했던 아이를 키운 사람.)

110044 #1 거 기억이 안 나네.(거 기억이 안 나네.)

허리 삐였을 때

113047 @ 허리 같은 거 삐엇을 땐 어떵 헴수과? 허리 같은 거 삐엇을 때. 우리 허리 삔 걸 뭐렌 골앗수과?(허리 같은 거 삐었을 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리 같은 거 삐었을 때. 우리 허리 삔 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113047 #2 허리 거껏젠.(허리 꺾어졌다고.)

113047 @ 허리 거꺼지민 어떵 합니까?(허리 꺾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113047 #2 어떵 헤여? 그냥 네불민 어떵어떵 좋아불주 허허.(어떻게 해? 그냥 놔두면 어찌어찌 좋아버리지 허허.)

113047 #1 아니 무시거 차메멍도 헤나실건디.(아니 뭐 처매면서도 했을 텐데.)

113047 #2 저슬살이.(으아리.)

113047 #1 응, 저슬살이.(응, 으아리.)

113047 @ 저슬살이라는?(으아리라는?)

113047 #1 풀, 풀. 줄거리라 것도. 경허고 무시거꽈? 산에 나는 거. 길죽길죽 헨에. 이디서 이선, 말제 파멍 헌 거. 저슬살이 말고.(풀, 풀. 줄거리라 것도. 그렇게 하고 뭐지요? 산에 나는 거. 길쭉길쭉 해서. 여기서 있어서, 나중에 파면서 한 거. 으아리 말고.)

113047 @ 칙마씨? 칙?(칡이요? 칡?)

113047 #1 요즘 약초?(요즘 약초?)

113047 #2 약초가 아니고 그때 허리 아픈 때 그것도 헤근에 헤나지 않아신가? 요전에.(약초가 아니고 그때 허리 아픈 때 그것도 해서 했었지 않았나? 요전에.)

113047 #1 주로 저슬살이주.(주로 으아리지.)

113047 @ 저슬살이는 어떤 식물이꽈?(으아리는 어떤 식물입니까?)

113047 #1 그것도 담 염으로 줄거리.(그것도 돌담 옆으로 줄거리.)

113047 #2 그것도 저거 식으로 줄거리 담 쭉 이서. 그건 꽃 피민 하얀 거.(그것도 저거 식으로 줄거리 돌담 쭉 있어. 그건 꽃 피면 하얀 거.)

113047 @ 아, 혹시 하눌타리 얘기 헴신가? 열매 똥그랗게.(아, 혹시 하눌타리 얘기 하나? 열매 똥그랗게.)

113047 #2 열매 안 올아.(열매 안 열어.)

113047 @ 아, 안 열어. 꽃은 하얗게 피고예? 저슬살이예?(아, 안 열어. 꽃은 하얗게 피고요? 으아리요?)

113047 #2 꽃 펴도 열맨 못 봐서.(꽃 펴도 열맨 못 봤어.)

113047 #1 저슬살이 헤근에 붙이멍 허고.(으아리 해서 붙이면서 하고.)

113047 #2 그거 헤당 쩌근에 껌은 헝겊에 소금허곡 그거허곡 ᄀᆞ찌 쩌근에, 허리, 깔아근에 눕도 허곡, 이렇게 울려근에 ᄒᆞ낌 좋텐 헌 사람도 잇주.(그거 해다가 쪄서 검은 헝겊에 소금하고 그거하고 같이 쪄서, 허리, 깔아서 눕기도 하고, 이렇게 우려서 조금 좋다고 한 사람도 있지.)

발목 삐엇을 때

113048 @ 그럼 발목 같은 거 삐엇을 땐마씨? 발목 같은 건 잘 삐잖아예?(그럼 발목 같은 거 삐었을 때는요? 발목 같은 건 잘 삐잖아요?)

113048 #2 그것도 별로 약 헌 기억이 안 나는데.(그것도 별로 약 한 기억이 안 나는데.)

113048 #1 발목 같은데 삘 때는 치자.(발목 같은데 삘 때는 치자.)

113048 @ 치자를?(치자를?)

113048 #2 치자, 요런 거. 그거 이제도 저 약국에 한약방엔 이실 거라. 겐디 그걸 뭐 헤근에 까근에.(치자, 요런 거. 그거 이제도 저 약국에 한약방엔 있을 거야. 그런데 그걸 뭐 해서 까서.)

113048 @ 치자열매마씨?(치자열매요?)

113048 #2 응, 열매 까근에 그 노란 거 이런 디 험벅헤근에 그거 소금 놓곡 ᄲᅳ사근에. 그거 처메나서.(응, 열매 까서 그 노란 거 이런 디 천해서 그거 소금 넣고 빨아서. 그거 처매났어.)

113048 @ 치자열매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하얀 꽃 피는 그 향기가 강한 그 치자 얘기하는 거지예?(치자열매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하얀 꽃 피는 그 향기가 강한 그 치자 얘기하는 거지요?)

113048 #2 응.(응.)

113048 @ 음.(음.)

113048 #1 치자 막 ᄲᅳ사근에.(치자 마구 빨아서.)

귀에 물이 들어갔을 때

113049 @ 그다음에 여기는 볼목리는 바당이난 사람들 막 바당에 강 아이들 몸도 많이 ᄀᆞᆷ고 헤실건디. 물들엇을 땐 어떵 헷수과? 귀에 물 들엇을 땐?(그다음에 여기는 보목리는 바다니까 사람들 마구 바다에 가서 아이들 몸도 많이 수영하고 했을 건데. 물들었을 땐 어떻게 했나요? 귀에 물이 들었을 땐?)

113049 #1 귀에 물들엇을 때는 ᄯᅳ뜻헌 멧돌에 귀 대면은 빠지던지.(귀에 물들었을 때는 따뜻한 맷돌에 귀 대면 빠지든지.)

113049 @ 예.(예.)

113049 #1 주로 그거, 바당에서는 그거.(주로 그거, 바다에서는 그거.)

113049 @ 바당이면 무신 돌마씨?(바에서면 무슨 돌인가요?)

113049 #2 멘짝헌 멧돌.(미끈한 맷돌.)

113049 @ 멘짝헌 돌을 여기선 멧돌이렌 헷수과?(미끈한 돌을 여기선 맷돌이라고 했습니까?)

113049 #1 멧돌 저 헷빛나민 따뜻허민 영 귀에다 대면은 속에 들어간 물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 주로 그렇게.(맷돌 저 햇빛나면 따뜻하면 이렇게 귀에다 대면 속에 들어간 물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 주로 그렇게.)

113049 @ 물에 들 땐 게믄 혹시나 귀에 물 들카부덴이라든가 헤영 귀에 뭐 헷수과?(물에 들 땐 그러면 혹시나 귀에 물 들까봐 해서 귀에 뭐 했습니까?)

113049 #1 속, 속.(쑥, 쑥.)

113049 @ 속?(쑥?)

113049 #2 옛날엔 속 막고 이젠 다 막는 사람들이, 밀, 밀이엔 헤근에 하얀 거 막 끈덕끈덕 헌 거 잇주게.(옛날엔 쑥 막고 이젠 다 막는 사람들이, 밀, 밀이라고 해서 하얀 거 막 끈덕끈덕 한 거 있지.)

113049 #1 밀, 밀?(밀, 밀?)

113049 #2 응.(응.)

113049 #1 저 꿀 빼난 거 찌꺼기.(저 꿀 빼난 거 찌꺼기.)

113049 @ 아, 밀랍?(아, 밀랍.)

113049 #1 어, 밀랍, 밀랍.(어, 밀랍, 밀랍.)

113048 #2 또 그거 허단에. 중간에 또 그거 미처 정리 못헌 사름은 껌.(또 그거 하다가. 중간에 또 그거 미처 정리 못한 사람은 껌.)

113048 @ 껌?(껌?)

113048 #2 이제도 껌도 하는 사람도 잇서.(이제도 껌도 하는 사람도 있어.)

113048 #1 옛날엔 보통 물질 갈라민 가다가 속덜 튿앙 막 이렇게 부벼서 귀막아서. 옛날엔 그것을 많이 헤서.(옛날엔 보통 물질 가려면 가다가 쑥들 뜯어서 마구 이렇게 비벼서 귀 막았어. 옛날엔 그것을 많이 했어.)

113048 @ 음.(음.)

무좀

113050 @ 그다음에 그 발에 무좀 걸렷을 땐 어떵 치료헷수과?(그다음에 그 발에 무좀 걸렸을 땐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113050 #1 몰라.(몰라.)

113050 #2 기억이 안 나멘.(기억이 안 나.)

113050 @ 무좀, 군대 같은 거 갓다 오민 막 무좀 걸리고 안 헤낫수과?(무좀, 군대 같은 거 갔다 오면 막 무좀 걸리고 안 했습니까?)

113050 #1 무좀 뭐하민은 옛날 한약으로만 뭐 헹 기억이 나야는디? 요즘 최근 무좀도 많이 안 걸렷고 옛날엔 초신신고, 요즘처럼 다 이렇게 할 때 아니라노니까.

무좀이 덜 걸렷주마는 지어낸 약은 어떻게 헷는지 기억이 안나.(무좀 뭐하면 옛날 한약으로만 뭐 해서 기억이 나야는데? 요즘 최근 무좀도 많이 안 걸렸고 옛날엔 짚신신고, 요즘처럼 다 이렇게 할 때 아니어서. 무좀이 덜 걸렸지만 지어낸 약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나.)

113050 @ 음.(음.)

113050 #2 군대 강 억화들 신곡 헹 무좀 걸리는 사람도 이서신디, 당신은 안 걸련? 허허허.(군대 가서 군화들 신고 해서 무좀 걸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당신은 안 걸렸어? 허허허.)

113050 @ 집에 와근에 뭐 안 혜주엇수과?(집에 와서 뭐 안 해주었습니까?)

113050 #2 군대 갓다 와네 헤도, 결혼 헷주마는 그런 거 저런 거 엇어. 기억 어신게.(군대 갔다 와서 해도, 결혼 했지만 그런 거 저런 거 없어. 기억 없는데.)

113050 @ 그 혹시 동네 무좀 막 심하게 걸령 고생하는 사람 엇고예?(그 혹시 동네 무좀 막 심하게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 없고요?)

113050 #2 엇어, 엇어.(없어, 없어.)

113050 #1 기억이 안나요.(기억이 안나요.)

습진

113051 @ 그다음엔 무좀 말고 습진 같은 거 걸렷을 때마씬?(그다음엔 무좀 말고 습진 같은 거 걸렸을 때는요?)

113051 #2 습진? 습진 걸려근에 뭐헤도 특별헌 약 써난 거, 기억이 안남서.(습진? 습진 걸려서 뭐해도 특별한 약 썼던 거, 기억이 안 나네.)

113051 @ 음, 뭔가 끓여가지고 발 담그고 이런 것도 엇엇고마씸?(음, 뭔가 끓여가지고 발 담그고 이런 것도 없었고요?)

113051 #2 음, 그땐 식초가 엇엇주게.(음, 그땐 식초가 없었지.)

113051 @ 게난예.(그러게요.)

113051 #2 또 이젠 식초헤근에, 뭐 몇 번에 놔곡 정로환 ᄀᆞ튼 거 뭐 헤근에 발 담그렌 헷주마는 그땐 엇어서.(또 이젠 식초해서, 뭐 몇 번에 넣고 정로환 같은 거 뭐 해서 발 담그라고 했지만 그땐 없었어.)

113051 #1하여튼 소금물 데와서 발을 씻던지 그런 방법벳긔는 별로 엇어.(하여튼 소금물 데워서 발을 씻던지 그런 방법밖에는 별로 없어.)

113051 #2 주로 소금으로 약이 습진 ᄀᆞ튼 거. 경헌 거 닮아.(주로 소금으로 약이 습진 같은 거. 그렇게 한 거 닮아.)

113051 @ 습진을 볼목리 말로 뭐렌 곧진 안 헤낫수과?(습진을 보목리 말로 뭐라고 말하지는 안 했습니까?)

113051 #2 습진.(습진.)

113051 @ 그냥 발에 습진 헷덴?(그냥 발에 습진 했다고?)

까치눈

113052 @ 혹시 까치눈이라고 헤서, 까치눈이라고 헤서, 발가락 사이에 이렇게 갈라지멍 생기는 거 잇잖아예? 그건 뭐렌 골앗수과? 여기선.(혹시 까치눈이라고 해서, 까치눈이라고 해서, 발가락 사이에 이렇게 갈라지면서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선.)

113052 #2 발에 무시거 쩨어정허민, 무시거 어떵 뒈엇저 골아낫인디? 무시거엔 골아낫인지 몰르고.(발에 뭐 째져서하면, 뭐 어떻게 되었다고 말해났는데? 뭐라고 말해났는지는 모르고.)

113052 @ 예.(예.)

113052 #2 그거 허민, 옛날에 머리에 늬. 늬 잡앙 거기 노렌 헤낫주.(그거 하면, 옛날에 머리에 이. 이 잡아서 거기 놓으라고 해났어.)

113052 @ 아, 이 잡아가지고마씨?(아, 이 잡아가지고요?)

113052 #2 응, 머리에 아이들 옛날에는 늬도 하영 일어낫주. 늬, 늬.(응, 머리에 아이들 옛날에는 이도 많이 일어났지. 이, 이.)

113052 @ 예.(예.)

113052 #2 이주마는, 옛날엔 늬엔 골아낫주게.(이지만, 옛날엔 '늬'라고 말해났지.)

113052 @ 늬 잡앙 거기에 놔예?(이 잡아서 거기에 놓아요?)

113052 #2 응.(응.)

113052 @ 거믄 그거 늬가 그거를 빨아 먹어불 건가마씨?(그러면 그거 이가 그거를 빨아 먹어버릴 건가요?)

113052 #2 어떵사 헤신지 경허민 좋암젠 골아난.(어떻게야 했는지 그렇게 하면 좋아진다고 말해났어.)

113052 @ 살아 잇는 거예? 죽영 놓는 게 아니라.(살아 있는 거요? 죽여서 놓는 게 아니라.)

113052 #2 응, 응. 발 눈텃젠 허주.(응, 응. 발 눈텄다고 하지.)

113052 @ 눈텃젠예? 눈텃젠.(눈텄다고요? 눈텄다고.)

113052 #2 아이고 이 발 발ᄀᆞ레기에 눈텃저, 경헤나서.(아이고 이 발 발가락에 눈텄네, 그렇게 했었어.)

113052 @ 음.(음.)

113052 #2 요런 요런 발 ᄆᆞ디에.(요런 요런 발가락 마디에.)

113052 @ 맞수다.(맞습니다.)

113052 #2 이런디 굼이에 영 벌러지민.(이런데 틈에 이렇게 벌어지면.)

113052 @ 예, 예.(예, 예.)

113052 #2 발 눈터빗저 영 헤영. 경헹 막 아팡. 경ᄒᆞ민 머리에 늬 잡아근에 이런 디 놩, 험벅 헤근에 감앙 내불민 좋아나고, 건 기억남신게.(발 눈터버렸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막 아파. 그러면 머리의 이 잡아서 이런 데 놓아, 천해서 감

아서 내버리면 좋아나고, 그건 기억나네.)

113052 @ 하하하 기구나예.(하하하 그렇군요.)

이밖에 알고 있는 민간요법

113053 @ 그다음엔 저가 그 여쭤보지 못한 것들 혹시나 다른 민간요법들 특별하게시리 기억나는 거 이시민 골아줍서?(그다음엔 저가 그 여쭤보지 못한 것들 혹시나 다른 민간요법들 특별하게 기억나는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113053 #1 슷, 그 웨에 별다르게시리 기억 안 나는데.(슷, 그 외에 별다르게 기억 안 나는데.)

113053 @ 막 특별나게시리 아이가 막 아프민 잘 안 낫고 헤가면 어디 강 막 빌거나 그런 건 안 헤봔마씨? 교회 다녀부난? 안 헤낫수과?(막 특별나게 아이가 매우 아프면 잘 안 났고 해가면 어디 가서 막 빌거나 그런 건 안 해봤습니까? 교회 다녀버려서? 안 해났습니까?)

113053 #1 나무에서 떨어진 사람 같은 데는, 좀 기절헌 사람은 오줌 싸서 직시 멕이는 거는 이서서.(나무에서 떨어진 사람 같은 데는, 좀 기절한 사람은 오줌 싸서 즉시 먹이는 거는 있었서.)

113053 @ 그걸? 나무에서?(그걸? 나무에서?)

113053 #1 나무 올라갓다 떨어저서 기절한 그런 사람은 저 뜨거운 오줌 싸면서 곧 멕이면은 낫는다고 헤서.(나무 올라갔다 떨어져서 기절한 그런 사람은 저 뜨거운 오줌 싸면서 곧 먹이면 낫는다고 했어.)

113053 @ 뜨거운 오줌 누구 오줌을마씨?(뜨거운 오줌 누구 오줌을요?)

113053 #1,2 아무라도.(아무라도.)

113053 @ 금방 오줌을 싸면 뜨거우니까 바로 멕여예? 오줌을예? 기절한 걸.(금방 오줌을 싸면 뜨거우니까 바로 먹여요? 오줌을요? 기절한 걸.)

113053 #2 옛날에는 폭[198] 타먹으레 나무 올랏당 나무 뿌러지민, 바닥으로 떨어지민은 기절허다시피 헌 사람은 위급헐 때는 아무라도 오줌 싸서 멕여서.(옛날에는 '폭' 타먹으러 나무 올랐다가 나무 부러지면, 바닥으로 떨어지면 기절하다시피 한 사람은 위급할 때는 아무라도 오줌 싸서 먹였어.)

113053 @ 또 다른 건마씨? 다른 건 엇엇수과?(또 다른 건요? 다른 건 없었습니까?)

113053 #1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113053 @ 혹시 물에 들 때 들당 막 숨차가지고 뭐 기절하거나 이런 건 엇엇수과? 사람들?(혹시 물에 들 때 들다가 막 숨차가지고 뭐 기절하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사람들?)

113053 #2 해녀들 기절헤근에 뭐헤근에 곳들에 다 옮경 헌 기억은 엇고.(해녀들 기절해서 뭐 해서 뭍에 다 옮겨서 한 기억은 없고.)

198) '폭'은 팽나무 열매를 말한다.

13. 경험담, 속담, 금기어 듣기

114001 @ 아까 두 분이 그런 일은 없엇다고 헷는데, 그 죽을 뻔헷던 사건들, 뭐 열이 막 심헤가지고는 아이고 죽어신가 헤신디 살아나고 한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엇지예?(아까 두 분이 그런 일은 없었다고 했는데, 그 죽을 뻔했던 사건들, 뭐 열이 매우 심해가지고는 아이고 죽었나했는데 살아나고 한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지요?)

114001 #2 기억 엇어.(기억 없어.)

114001 @ 아이들도 그추룩 한 번도 안 헤보고예?(아이들도 그처럼 한 번도 안 해보고요?)

114001 #1 에.(예.)

114001 @ 음, 혹시 이 동네에서 아이, 가이 죽엇당 살아낫저 소리 헤 본, 한 사람 어신가마씸?(음, 혹시 이 동네에서 아이, 그 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소리 해 본, 한 사람 없었나요?)

114001 #1 죽을 뻔헷다 살아난 사름도 엇고.(죽을 뻔했다 살아난 사람도 없고.)

114001 #2 없어, 없어.(없어, 없어.)

114002 @ 여긴 도깨비를 뭐렌 골앗덴 헷수과?(여긴 도깨비를 뭐라고 말했다고 했습니까?)

114002 #1 조체비.(도깨비.)

114002 #2 도체비.(도깨비.)

114002 @ 도체비를 만낫던 그때 경험을 얘기 좀 헤줍서. 삼춘부터.(도깨비를 만났던 그때 경험을 얘기 좀 해주세요. 삼촌부터.)

114002 #2 난 도체비를 만난 건 웨냐면.(난 도깨비를 만난 건 왜냐면.)

114002 @ 몇 살 때 헤가지고예?(몇 살 때 해가지고요?)

114002 #2 나, 흔 열세 살.(나, 한 열세 살.)

114002 @ 예.(예.)

114002 #2 그때에 우리 집 웨갓칩 종순 칩이 제사 먹으레 간 오는디.(그때에 우리 집 외갓집 종순 집에 제사 먹으러 갔다 오는데.)

114002 @ 예.(예.)

114002 #2 그 목에 오난 막 무서운 기가 나서.(그 목에 오니까 매우 무서운 기가 났어.)

114002 @ 어디쯤 올 때마씸?(어디쯤 올 때요?)

114002 #2 요 근방인디. 막 무서운 디 나니까 이렇게 보난에 파아랑 불, 처음엔.(요 근방인데. 막 무서운 데 나오니까 이렇게 보니까 파란 불, 처음엔.)

114002 @ 예.(예.)

114002 #2 파란불이 이렇게 허난 도께비 생각도 안 허고.(파란불이 이렇게 하니까 도깨비 생각도 안 하고.)

114002 @ 예.(예.)

114002 #2 견디, 나가 다가와 가난에 그것이 빨강불로 변헨에 싹 싹 두 번을 띡 띡 넘어간에 저만큼 간디, 나가 또 그 옆에 오난 싹 사라전 어선.(그런데, 나가 다가가 가니까 그것이 빨강불로 변해서 싹 싹 두 번을 띡 띡 넘어가서 저만큼 갔는데, 나가 또 그 옆에 오니까 싹 사라져서 없어.)

114002 @ 음. 그믄 그때 겁난 어떵헷수과?(음. 그러면 그때 겁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114002 #2 경허난 우리 웨갓댁이 바로 이 우녁집이랏주게. 게난 이디 와짐 말아짐 몰르게 완에. 할므니안티 할므니, 나 도체비불 봔. 허난 에이, 거렁청 헌 소리 경허멍 골아난 거 기억나멘.(그렇게 하자 우리 외가댁이 바로 이 윗집이었지. 그러니까 여기 왔는지 말았는지 모르게 왔어. 할머니에게 할머니, 나 도깨비불 봤어, 하니까 에이, 허황된 소리. 그렇게 하면서 말했었던 거 기억나.)

114002 @ 삼춘은마씨?(삼촌은요?)

114002 #1 조체비는 보통 장마 때.(도깨비는 보통 장마 때.)

114002 @ 아, 예 예.(아, 예 예.)

114002 #1 오월 장마 때, 이제사보난 저 오름인데 밤이 어디 강 오는데 조체비불이 하나로 덩어리 뒛다가.(오월 장마 때, 이제야보니까 저 오름인데 밤에 어디 가 오는데 도깨비불이 하나로 덩어리 됐다가.)

114002 @ 예.(예.)

114002 #1 쫙, 이제 불꽃놀이 허는 식으로 쫙 퍼젓다가 딱 엇어젓다가.(쫙, 이제 불꽃놀이 하는 식으로 쫙 퍼졌다가 딱 없어졌다가.)

114002 @ 예.(예.)

114002 #1 똑 사람을 홀리는 식으로.(꼭 사람을 홀리는 식으로.)

114002 @ 예.(예.)

114002 #1 또 어느 정도 오민 턱 나타나. 하나로 나타낫다가 퍼젓다가. 꼭 사람을 유인허는 거 식으로 헤서.(또 어느 정도 오민 턱 나타나. 하나로 나타났다가 퍼졌다가. 꼭 사람을 유인하는 것 식으로 해서.)

114002 @ 예.(예.)

114002 #1 여기 보민 아주 거 저 고목이라던지, 막 거 옛날 나무.(여기 보면 아주 그거 저 고목이라든지, 막 그거 옛날 나무.)

114002 @ 예.(예.)

114002 #1 무서운 디. 똑 그런 디 가민 그것이 나타난다고.(무서운 데. 꼭 그런 데 가면 그것이 나타난다고.)

114002 @ 예.(예.)

114002 #2 무서운, 우리가 무섭다 허민 벌써 이 뭐 거 약헤지민.(무서운, 우리가 무섭다하면 벌써 이 뭐 그거 약해지면.)

114002 #1 한 사람이면 궹장히 무서울 건디. 뭐 여러 사름, 혼자만 보는 것이 아니고.(한 사람이면 굉장히 무서울 건데. 뭐 여러 사람, 혼자만 보는 것이 아니고.)

114002 @ 예.(예.)

114002 #1 다른 사름도 다 보는 거여.(다른 사람도 다 보는 거야.)

114002 @ 예.(예.)

114002 #1 그것이 신기헌다는 것이 요즘 말허는 과학적인 뭐는 아닌디, 똑 불꽃놀이허는 거여. 하늘에 팍 퍼젓다가 엇어젓다가 또 오다보민 또 나타나가지고 젤 위험한 무서운 곳에 가민 싹 엇어저불어.(그것이 신기하다는 것이 요즘 말하는 과학적인 뭐는 아닌데, 꼭 불꽃 놀이하는 거야. 하늘에 팍 퍼졌다가 없어졌다가 또 오다보면 또 나타나가지고 제일 위험한 무서운 곳에 가면 싹 없어져버려.)

114002 @ 예.(예.)

114002 #1 게난 그것이 옛날에 그디 현장에 가보민 그 뭣 사금바치라고 저 옹기 께진 거.(그러니까 그것이 옛날에 거기 현장에 가보면 그 뭣 사금파리라고 저 옹기 깨진 거.)

114002 @ 예.(예.)

114002 #1 그런 걸로 헤서 불빛이 자연적으로 낫다고 그런 말들은 옛날에 헤낫는디, 그런 것들은 못보고. 하튼 그 도체비불 본 거는 사실이라. 혼자는 첨, 오월장마는 무서워서.(그런 걸로 헤서 불빛이 자연적으로 났다고 그런 말들은 옛날에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못보고. 하여튼 그 도깨비불 본 거는 사실이야. 혼자는 참, 오월장마는 무서워서.)

114002 #2 난 본 자리는 옛날 ᄆᆞᆯᄀᆞ랑.(난 본 자리는 옛날 연자매.)

114002 @ 예.(예.)

114002 #2 그거 알력짝도 잇고 우녁짝도 이서낫주게.(그거 아래쪽도 있고 위쪽도 있었지.)

114002 @ 예.(예.)

114002 #2 경ᄒᆞ고, ᄆᆞᆯᄀᆞ랑 동짝엔 막 고목 이서나서. 게난 기냥 밤이 뎅길 땐 아, 여기 무섭다는 셍각이 드는 디라.(그렇고, 연자매 동쪽엔 막 고목 있었어. 그러니 밤에 다닐 땐 아, 여기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데야.)

114002 @ 예.(예.)

114002 #2 경헌디 혼자 제사 먹으레 그땐 열두 시에 허난에 웨갓댁에서 종순칩이 가렌허난 간에, 혼자 오단에 아이구 완에 할므니, 할므니 나, 도체비불 봔. 허난에 거렁청헌 소리헴덴 욕만 들어낫주게.(그랬는데 혼자 제사 먹으러 그땐 열두 시에 하니까 외가댁에서 종순집에 가라고하니까 가서, 혼자 오다가 아이고 와서 할머니, 할머니 나, 도깨비불 봤어. 하니까 허황된 소리한다고 욕만 들었지.)

114002 @ 예.(예.)

114003 @ 그담엔예, 이 동네에도 옛날에 애기들안틔 멕이젠 막 업적으로 수박 참웨는 안 갈아도 멕이젠 갈아가지고 식구들끼리 먹거나 안 헤낫수과?(그다음에는, 이 동네에도 옛날에 애기들에게 먹이려고 막 업적으로 수박 참외는 안 갈아도 먹이려고 갈아서 식구들끼리 먹거나 안 했습니까?)

114003 #1 먹는 거?(먹는 거?)
114003 @ 예. 수박이나 참웨.(예. 수박이나 참외.)
114003 #1 아, 저 무시거 서리?(아, 저 뭐 서리?)
114003 2 예.(예.)
114003 #1 도둑질헤 먹는 거?(도둑질해 먹는 거?)
114003 @ 예. 혹시나 수박서리 헌 적이 이신가 헤가지고.(예. 혹시나 수박서리 한 적이 있나 해서.)
114003 #1 옛날에 어린 땐 많이 헷주.(옛날에 어린 때 많이 했지.)
114003 @ 어디 강마씨? 수박 어디 갈아저시믄?(어디 가서요? 수박 어디 갈아있으면?)
114003 #2 놈의 밧디. 히히히.(남의 밭에.)
114003 #1 놈 밧디 아니고 이 학교 갓당, 근래에까지 중간에, 고등학교 다닐 때도.(남 밭이 아니고 이 학교 갔다가, 근래에까지 중간에, 고등학교 다닐 때도.)
114003 @ 예.(예.)
114003 #1 고등학교 다닐 때도 학교 갓다 오다가 수박 간 밧디 가서, 사람이 엇이민 들어가서 첨, 주인이 둘리민 도망와서 숨엉 헤나고.(고등학교 다닐 때도 학교 갔다 오다가 수박 간 밭에 가서, 사람이 없으면 들어가서 참, 주인이 쫓으면 도망와서 숨었었고.)
114003 @ 예.(예.)
114003 #1 어릴 때는 동네 밤이덜 모이면은 저 하르버지 수박 가서 몰레가서 수박 따당 먹고, 놈의 또 이제는 밀감이 많은데 옛날엔 뎅우지, 멧 곤데 어시난 귀헌 걸로 봐서 것도 가서 밤이 가서 도둑질 헤다가 먹곡 헨.(어릴 때는 동네 밤에 모이면 저 할아버지 수박 가서 몰래가서 수박 따다가 먹고, 남의 또 이제는 밀감이 많은데 옛날엔 유자, 몇 군데 없으니까 귀한 걸로 봐서 것도 가서 밤에 가서 도둑질 해다가 먹고 했지.)
114003 @ 볼목리 지역에도 수박 간 디가 이서낫수과?(보목리 지역에도 수박 간 데가 있었습니까?)
114003 #1 한두 사름 하르브지, 한두 사름 그 저 영업으로 헌 건디.(한두 사람 할아버지, 한두 사람 그 저 영업으로 한 건데.)
114003 @ 아, 이서낫구나예?(아, 있었군요?)
114003 #1 장난으로 어린 때 가서 그자 그 주인 하르브지가 저기 잇으면 모르게 담 넘어가서 타서.(장난으로 어린 때 가서 그저 그 주인 할아버지가 저기 있으면 모르게 담 넘어가서 땄어)
114003 @ 음.(음.)
114003 #2 싸멧질 잘 헌 사름덜. 총각 때 덜은.(개구쟁이 짓 잘 한 사람들. 총각 때 들은.)
114003 #1 댓 사름 가서 도둑질헹 와불곡.(댓 사람 가서 도둑질해서 와버리고.

114003 @ 음.(음.)

114003 #1 고등학교 삼학년. 군대 갓다 온 때꽈? 하하하.(고등학교 삼학년. 군대 갔다 온 때지요? 하하하.)

114003 #2 나뿐이 아니고 젊은 때 아녀본 사름이 엇어.(나뿐이 아니고 젊은 때 안 해본 사람이 없어.)

114003 @ 그런 거 말고 댕유지나 수박 말고 다는 건 안 헤봣수과?(그런 거 말고 유자나 수박 말고 다는 건 안 해봤습니까?)

114003 #1 다른 건 놈의 뒈지도 거려단 잡아먹어보고.(다른 거는 남의 돼지도 걸려다가 잡아먹어보고.)

114003 @ 아! 살아있는 뒈지를마씸?(아! 살아있는 돼지를요?)

114003 #1 에, 하하하하.(예, 하하하하.)

114003 #2 하하하하.(하하하하.)

114003 @ 들키믄 어떵 헙니까?(들키면 어떻게 합니까?)

114003 #2 들키지 아녓주게.(들키지 안했지.)

114003 #1 들키진 안헷주마는.(들키지는 안했지만.)

114003 @ 게도 잊어먹은 사름쭘은 ᄉᆞ뭇 촞젠허지 안헤시카에?(그래도 잊어먹은 사람은 사뭇 찾으려고 않았을까요?)

114003 #1 일러먹은 사람 듯날 그, 이 동네에서 잡아먹은 게 아니고 다른 부락, 이웃부락 가서.(잃어버린 사람 뒷날 그, 이 동네에서 잡아먹은 게 아니고 다른 부락, 이웃부락 가서.)

114003 @ 예.(예.)

114003 #1 이웃부락에서 쭉 돗통을 촞아봐서 알맞인 거. 너믜 커도 안 뒈고 족아도 안 뒈고 알맞인 거 이시민 전깃줄로 전홧줄로 모가지 걸련에 뚜러메와서.(이웃부락에서 쭉 돼지우리를 찾아봐서 알맞은 거. 너무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알맞은 거 있으면 전깃줄로 전홧줄로 모가지 걸려서 둘러메 와서.)

114003 @ 그 막 엄청 소리 질르지 아녕니까?(그 막 엄청 소리 지르지 안합니까?)

114003 #1 아니, 확 헤서 뚜러메어, 아니 요령이 전과가 많아노니까 소리가 안 나. 켁켁거려, 뚜러멩은에.(아니, 확 해서 둘러메어, 아니 요령이 전과가 많아놓으니까 소리가 안 나. 캑캑거려, 둘러메어서.)

114003 #2 하하하 전과자가 잇고, 이 하르방[199]은 망보는 사름으로 가고. 하하하.(하하하 전과자가 있고, 이 '하르방'은 망보는 사람으로 가고. 하하하.)

114003 #1 하튼 그런 뭐 안 혀본 사름 멧 없서.(하여튼 그런 뭐 안 해본 사람 몇 없어.)

114003 #2 옛날엔 태권도 뭐 허난 기자 망보당 사람 오민 잡아 처불젠 망보는 사람으로 하르방은 하하하하.(옛날엔 태권도 뭐 하니까 그저 망보다가 사람 오면 잡

199) '하르방'은 할아버지를 말한다. 여기서는 발화자의 남편을 말한다.

아 치려고 망보는 사람으로 '하르방'은 하하하하.)

114003 @ 그믄 그게?(그러면 그게.)

114003 #2 결혼 헨에 그 말 골아부난 난 어이고, 도독놈안틔 씨집 와젓구나 경 헷주.(결혼해서 그 말 말해버려서 난, 어이고 도둑놈에게 시집 왔구나, 그렇게 했지.)

114003 @ 옛날 그믄 그 도새기, 도새기렌 헷수과 도야지렌 헷수과?(옛날 그러면 그 돼지, '도새기'라고 했습니까, '도야지'라고 했습니까?)

114003 #1 도새기.(돼지.)

114003 @ 도새기궤기렌 헷수과 도야지궤기렌 헷수과?('도새기'고기라고 했습니까, '도야지'고기라고 했습니까?)

114003 #1 도새기궤기.('도새기'고기.)

114003 @ 옛날엔 도새기 서리를 뭐렌 골앗수과?(옛날에는 돼지 서리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114003 #1 도새기 뭐 도새기 도독질이주 뭐.(돼지 뭐 돼지 도둑질이지 뭐.)

114003 @ 도새기 도독질 허레가게, 이렇게? 하하하, 경헷구나예?(돼지 도둑질 하러가자, 이렇게? 하하하, 그렇게 했군요?)

114004 @ 볼목리에서 처녀들만 총각들만 놀앗던 특별한 경험 엇수과?(보목리에서 처녀들만 총각들만 놀았던 특별한 경험 없습니까?)

114004 #1 특별한 뭐는 뭐?(특별한 뭐는 뭐?)

114004 @ 그믄 도새기 그거 도독질 헤다가 어떤 식으로 잡앙와근에 어떻게 뭘 헹 그 마지막 먹는, 누구랑 같이 먹고 하는 그 과정까지 얘기 좀 헤줘봅서.(그러면 돼지 그거 도둑질 해다가 어떤 식으로 잡아와서 어떻게 뭘 해서 그 마지막 먹는, 누구랑 같이 먹고 하는 그 과정까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114004 #1 도새기 강 걸렁 오면은 잡아서 한 오륙 명이 헷는디.(돼지 가서 거려 오면 잡아서 한 오륙 명이 했는데.)

114004 @ 예.(예.)

114004 #1 여러 명이 도독질헌 거니까 마음 놓고 먹지 못허고 허니까.(여러 명이 도둑질한 거니까 마음 놓고 먹지 못하고 하니까.)

114004 @ 예.(예.)

114004 #1 그 잡아서 내부 ᄀᆞ튼 거 먹고, 삶아서 먹다가 둣날은 다 못 먹으민 혹시 껄릴 거로 봐서 던저부리는 거주. 먹지 못허니까.(그 잡아서 내장 같은 거 먹고, 삶아서 먹다가 뒷날은 다 못 먹으면 혹시 걸릴 거로 봐서 던져버리는 거지. 먹지 못하니까.)

114004 @ 아!(아!)

114004 #1 논에 일허레 가다가 논에 가저강 저, 요즘 말허민 푸대에 담아가근에 뎃겨버리고, 다 먹지 못허니까.(논에 일하러 가다가 논에 가져가서 저, 요즘 말하면 자루에 담아가서 던져버리고, 다 먹지 못하니까.)

114004 @ 예.(예.)

114004 #1 장난으로 제미로 헌 거지. 게민 얼마 먹도 못허곡 기자. 그 둣날은 껄기면은 자기네가 뭐헐 거로 알앙 의식헤가지고 마다리에 담아다가 던저버리는 거지.(장난으로 재미로 한 거지. 그러면 얼마 먹지도 못하고 그저. 그 뒷날은 걸리면 자기네가 뭐할 거로 알아서 의식해가지고 자루에 담아다가 던져버리는 거지.)

114004 @ 게난, 쓺앙 먹엇수과? 구엉 먹엇수과?(그러니까, 삶아서 먹었습니까? 구워서 먹었습니까?)

114004 #1 쓺아서.(삶아서.)

114004 @ 쓺앙 먹젠허민 솟도 잇서야 뒈고 겅허잖아예?(삶아서 먹으려하면 솥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114004 #1 아니, 집이서 집이서.(아니, 집에서 집에서.)

114004 @ 아, 집에서, 누군가의 집에서.(아, 집에서, 누군가의 집에서.)

114004 #1 에.(예.)

114004 @ 그 집에서 쓺앙 먹젠허민 부모나 누구 보지 안헤마씸?(그 집에서 삶아먹으려면 부모나 누구 보지 안 해요?)

114004 #1 부모허고도 안 살 때고, 부부, 아내, 부부만 이실 때.(부모하고도 안 살 때고, 부부, 아내, 부부만 있을 때.)

114004 @ 아, 젊은 부부가 잇고 이제 결혼하지 않은 총각들도 이시민 이제 겅헤근에.(아, 젊은 부부가 있고 이제 결혼하지 않은 총각들도 있으면 이제 그렇게 해서.)

114004 #1 ᄀᆞ찌 어울렁 뎅기니까.(같이 어울려 다니니까.)

114004 @ 음, 음.(음, 음.)

114004 #1 그런 데를 택헤서.(그런 데를 택해서.)

114004 @ 음.(음.)

114004 #1 또 조용한 데.(또 조용한 데.)

114004 #2 어제 이디 왓단 사름.(어제 여기 왔단 사람.)

114004 @ 그 모자 쓴 분마씸?(그 모자 쓴 분이요?)

114004 #2 응, 그 사름네 집에서 잡아 먹언. 하하하하.(응, 그 사람 집에서 잡아 먹었어. 하하하하.)

114004 @ 그 어른은 지금 부인 살아계셔마씸?(그 어른은 지금 부인 살아계셔요?)

114004 #2 아니, 엇어.(아니, 없어.)

114004 @ 그 어른 같은 경우에 만일에 도새기를 쓺잖아예? 먹당 남으민 계속 쓺아먹으민 뭘 건디 무사 뎃겨부러?(그 어른 같은 경우에 만일에 돼지를 삶잖아요? 먹다가 남으면 계속 삶아먹으면 될 건데 왜 던져버려?)

114004 #2 그땐 부인 산 때. 그루후제 죽어빗주.(그땐 부인 산 때. 그 후 죽어버렸지.)

114004 @ 게난 살앗을 때.(그러니까 살았을 때.)

114004 #2 껄리카부덴.(들킬까봐.)

114004 #1 그 웨냐하면 거시기냐 껄리카부덴.(그 왜냐하면 거시기 들킬까봐서.)

114004 @ 음.(음.)

114004 #1 게서 그 우리가 이웃부락 가면 올 적에 우린 경혼디, 호윈디, 혹시 주인이 따러오는가 헤서.(그래서 그 우리가 이웃부락 가면 올 적에 우린 경호인데 호위인데, 혹시 주인이 따러오는가 해서.)

114004 @ 예.(예.)

114004 #1 앞에 맨 사름 앞에다가 흔 오십 메타 앞이 가서 사름이 오는가 가는가 신호허면은 엽드레 숨고. 우리는 두에서 주인 따라오면 기냥 밀어불던지 사정을 하던지 그런 책임 분담헤가지고.(앞에 맨 사람 앞에다가 한 오십 미터 앞에 가서 사람이 오나? 가나? 신호하면 옆으로 숨고. 우리는 뒤에서 주인 따라오면 그냥 밀어버리던지 사정을 하던지 그런 책임 분담해가지고.)

114004 @ 아.(아.)

114004 #1 게서 그 고기 먹당 놔두민 혹시 거 근거로 헤서 그 껄리카부덴 고기를 먹는 즉시 고기를 던저부러.(그래서 그 고기 먹다가 놔두면 혹시 거 근거로 해서 그 들킬까봐 고기를 먹는 즉시 고기를 던져버려.)

114004 @ 주로 이웃마을 하면 어느 마을 강 훔처와수과?(주로 이웃마을 하면 어느 마을 가서 훔쳐왔습니까?)

114004 #1 보통 가까운 디 토평.(보통 가까운 데 토평.)

114004 #2 토평, 상효나 이런 가까운 디.(토평, 상효나 이런 가까운 데.)

114004 @ 토평, 상효나 이런 디 가가지고예?(토평, 상효나 이런 데 가서요?)

114004 #2 토평이주, 그때예.(토평이지 그때.)

114004 @ 그믄 그때 직접 마을에 와가지고 도새기 잊어먹엇덴 헤가지고 춧이레 다닙니까?(그러면 그때 직접 마을에 와가지고 돼지 잃어버렸다고 해가지고 찾으러 다닙니까?)

114004 #1,2 아니.(아니.)

114004 @ 그런 일 없는데도 불구허고 이제 혹시나 들키카부덴 겅헷다는 거잖아예?(그런 일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혹시나 들킬까봐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114004 #1 겐디 그 후에 글로 그 집으로 가다보면은 결국 아는 사름네 집이여.(그런데 그 후에 그리로 그 집으로 가다보면 결국 아는 사람 집이야.)

114004 #2 하하하하.(하하하하.)

114004 #1 밤에니까 누군지 몰랏는데 군대 잇을 때 ᄀᆞ찌 잇던 사름네 그 집이 그 사름네 도새기여.(밤에니까 누군지 몰랐는데 군대 있을 때 같이 있던 사람네 그 집의 그 사람네 돼지야.)

114004 @ 예.(예.)

114004 #1 게난 그 뭐 뭐 양심상 얘기도 못허곡.(그러니 그 뭐 뭐 양심상 얘기

도 못하고.)

114004 @ 그때당시가 고등학생 때마씸? 아니면 총각 때?(그때당시가 고등학생 땐가요? 아니면 총각 때?)

114004 #1 아니, 저 군대 갓다 온 때.(아니, 저 군대 갔다 온 때.)

114004 @ 아, 군대 갓다 온 후에 그믄 한 이십대 중반 청년이어시쿠다예?(아, 군대 갔다 온 후에 그러면 한 이십대 중반 청년이었겠어요?)

114004 #1 어. ᄒᆞᆫ 이십대 후반.(어. 한 이십대 후반.)

114004 @ 그때 그믄 결혼 안 헷을 때꽈? 삼춘은?(그때 그러면 결혼 안 했을 땝니까? 삼촌은?)

114004 #1 어, 결혼 안 헌 때.(어, 결혼 안 한 때.)

114004 @ 아, 경헷구나예? 결혼 헤시믄 ᄒᆞ끔 갈라당 먹어실 건디예?(아, 그랬군요? 결혼 했으면 조금 나눠다가 먹었을 건데요?)

114004 #2 난, 결혼헤시민.(난, 결혼했으면.)

114004 #1 경혼 결혼헤신가?(경호는 결혼 했나?)

114004 #2 경혼 결혼 헌 때우다. 헨에 처갓칩에 논일허레 가멍 아저강 뎃겨벳젠 헷수게.(경혼 결혼 한 때지요. 해서 처갓집에 논일하러 가면서 가져가서 던져버렸다고 했어요.)

114005 @ 그 다음엔 속담 ᄒᆞ나 이섯덴 하셧잖아예? 볼목리서만 그 전헤저 내려오는 속담 같은 거 뭐잇수과?(그 다음엔 속담 하나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보목리서만 그 전해져 내려오는 속담 같은 거 뭐가 있습니까?)

114005 볼목리서만 특별난 속담 엇어. 없는 거 ᄀᆞ튼데?(보목리서만 특별난 속담 없어. 없는 거 같은데?)

114005 @ 금허는 거는마씸? 어, 제사 때는 영 허면 안 뒌다, 뭐 이런 거. 애기 나가지고 백일 전에 누가 오면 안 뒌다, 이런 어떤 그런 말도 엇어마씸? 금허는 거?(금하는 거는요? 어, 제사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애기 나서 백일 전에 누가 오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그런 말도 없었나요? 금하는 거?)

114005 #1 금허는 거는 보통 가정에서 토신제를 지내는디 정월 초ᄒᆞ룰 날에, 그때는 올레다가 ᄉᆞᆺ 매가지고 저 새끼 꼬아서 새끼 웬 노 꼬아서 밀감 남 이파리 꼽아서 오 일이면 오 일 동안 못 다니도록 정성 드리는 거.(금하는 거는 보통 가정에서 토신제를 지내는데 정월 초하루 날에, 그때는 올레에다 금줄 매가지고 저 새끼 꼬아서 금줄 왼 새끼 꼬아서 밀감 나무 이파리 꽂아서 오 일이면 오 일 동안 못 다니도록 정성 드리는 거.)

114005 @ 말로 표현하면 뭐렌 ᄀᆞᆯ아낫수과?(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114005 #1 그냥 거 ᄉᆞᆺ 맨다는 거.(그냥 거 새끼 맨다는 거.)

114005 #2 ᄉᆞᆺ 매영 정성 허는 거.(새끼 매서 치성 하는 거.)

114005 @ ᄉᆞᆺ 매면 가믄 안 뒌다는 거?(새끼 매면 가면 안 된다는 거?)

114005 #1 ᄉᆞᆺ 매면은 이 집안에 무신 일이 잇구나 헤서, 일절 가면 안 뒈어.(새

끼 매면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구나, 해서 일절 가면 안 돼.)

114005 @ 그거를 뭔가 말로 표현 뒈는 뭔가 잇을 건디예?(그거를 뭔가 말로 표현 되는 뭔가 있을 건데요?)

114005 #1 아, 난 더 생각이 안 나는데?(아, 난 더 생각이 안 나는데?)

114006 @ 그다음엔 그 일제 시대 나서 자랏잖아예? 일제 시대 그 때 삶하고 지금 현재 아이들이 다 커버린 지금 현재 삶하고 비교헷을 때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은 뭐렌 생각헴수과? 아까 얘기한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달라젓지만 다른 것들?(그다음엔 그 일제강점기에 나서 자랐잖아요? 일제강점기 그 때 삶하고 지금 현재 아이들이 다 커버린 지금 현재 삶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얘기한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달라졌지만 다른 것들?)

114005 #2 일제 시대허고 달라진 건 우리 삶도 달라젓주게.(일제강점기하고 달라진 건 우리 삶도 달라졌지.)

114005 @ 어떤 식으로 달라졌습니까?

114005 #2 옛날엔 뭐 허젠 헤도 돈도 엇고.(옛날엔 뭐 하려고 해도 돈도 없고.)

114005 @ 예.(예.)

114005 #2 예를 들어근에 밧디강 농사허젠헤도 기멩[200] 살 돈도 엇곡 경허난.(예를 들어서 밭에 가서 농사지으려고 해도 '기명' 살 돈도 없고 그러니까.)

114005 @ 기멩이 멋꽈?('기멩'이 뭡니까?)

114005 #1 연장, 연장.(연장, 연장.)

114005 #2 골게 사는, 연장.(호미 사는 연장.)

114005 @ 아, 예.(아, 예.)

114005 #2 호미든 궹이든 그런 것도 엇곡.(낫이든 괭이든 그런 것도 없고.)

114005 @ 음.(음.)

114005 #2 옛날에 돗걸름 밧 ᄒᆞ젱 ᄒᆞ민 쉐영, 구루마여.(옛날에 돼지거름 밭 하려고 하면 소하고, 수레여.)

114005 @ 예.(예.)

114005 #2 그런 거 ᄒᆞ나 어시 살고, 이젠 구루마 쉐 ᄒᆞ나 엇어도 자동차가 잇고.(그런 거 하나 없이 살고, 이젠 소 한 마리 없어도 자동차가 있고.)

114005 @ 예.(예.)

114005 #2 뭐 허난, 돗걸름 밧 안 허난.(뭐 하니까, 돼지거름 밭 안 하니까.)

114005 @ 음.(음.)

114005 #2 그런 거 저런 거 얼마나 달라저서게, 달라진 건.(그런 거 저런 거 얼마나 달라졌어, 달라진 건.)

114005 @ 달라젓을 때 그 때 삶이 막 고달프꽈? 지금의 삶이 고달프꽈?(달라졌

200) '기멩'은 '기명' 즉 살림살이에 쓰는 그릇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여기서 발화자는 밭농사에 쓰이는 연장 등을 통틀어 말하고 있다.

을 때 그 때 삶이 막 고달픕니까? 지금의 삶이 고달픕니까?)

114005 #2 그때 삶이 고달팟주게.(그 때 삶이 고달팠지.)

114005 @ 고달팟지예? 근데 문제는 사람들하고 관계 잇잖아예?(고달팠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하고 관계있잖아요?)

114005 #2 응.(응.)

114005 @ 저는 그런 관경을 보지 못하고 컷기 때문에 저가 볼목리에서 이 제주어 조사를 하면서 저 가 깨달은 건, 예를 든다면 영장 나거나 집을 짓거나 이렇게 헷을 때.(저는 그런 관경을 보지 못하고 컸기 때문에 저가 보목리에서 이 제주어 조사를 하면서 저 가 깨달은 건, 예를 든다면 장사 나거나 집은 짓거나 이렇게 했을 때.)

114005 #2 응.(응.)

114005 @ 다들 부주로, 부주할 게 어시난 다들 여자 분들은 항아리에 물 질어당 일을 할 수 잇게끔 헤줫다고 하드라고예?(다들 부주로, 부주할 게 없으니까 다들 여자 분들은 항아리에 물 길어다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114005 #1 어.(어.)

114005 @ 그때는 뭔가 사람들하고의 인간관계가 아주 잘 이루어진 거잖아에? 집 하나할 때도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헤주어시난예? 이젠 그런 게 전혀 없잖아에? 이런 거는 어떻게 셍각헴수과?(그때는 뭔가 사람들하고의 인간관계가 아주 잘 이루어진 거잖아요? 집 한 채할 때도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해주었으니까요? 이젠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4005 #1 옛날 그 당시는 셍활이 어려울 때니까 모두는 서로 힘을 도와줘야하기 때문에 이 저 큰 일 때도.(옛날 그 당시는 생활이 어려울 때니까 모두는 서로 힘을 도와줘야하기 때문에 이 저 큰 일 때도.)

114005 @ 예.(예.)

114005 #1 부주할 돈도 엇고 하니까 예전에 동네 분덜은 물허벅에 물 질어다가 큰 일 때민 물도 질어다 주멍 걸로 부지허고.(부주할 돈도 없고 하니까 예전에 동네 분들은 물허벅에 물 길어다가 큰 일 때면 물도 길어다 주면서 그걸로 부지하고.)

114005 @ 예.(예.)

114005 #1 또 방상덜은 큰일 때 뒈믄 뭐 제물 떡으로 허고.(또 일가친척들은 큰일 때 되면 뭐 제물 떡으로 하고.)

114005 @ 음.(음.)

114005 #1 또 어떤 사름은 쏠 부지도 헷지만.(또 어떤 사람은 쌀 부주도 했지만.)

114005 #2 쏠 두 뒈.(쌀 두 되.)

114005 #1 어, ᄒᆞ곤 헷는데 결국은 그 장사 때 수고헌 먼 도감이라던지 이런 그 정시라던지 헌 사름덜은 이 공정[201]이라고 헤서.(어, 하곤 했는데 결국은 그 장사

201) '공정'은 장사를 지낼 때 그 역사에 특별히 수고한 사람에게 그 대가로 보내는 떡을 말한다.

때 수고한 먼 도감이라든지 이런 그 지관이라든지 한 사람들은 이 '공정'이라고 해서.)

114005 #2 떡.(떡.)

114005 @ 음.(음.)

114005 #1 보통 제물 떡들은 떡으로, 뒈지 흔 다리썩 헤서 그런 걸로 헤앗고.(보통 제물 떡들은 떡으로, 돼지 한 다리씩 해서 그런 걸로 해주고.)

114005 @ 게, 지금은 안 헴잖아예?(그래, 지금은 안 하잖아요?)

114005 #1 에.(예.)

114005 @ 안 헤버렷을 때 지금의 삶이 더 좋으꽈, 아니면 그 때 그나마 공정도 주고 헐 때 그 삶이 더 좋다고 셍각이 들엄수과?(안 해버렸을 때 지금의 삶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그 때 그나마 '공정'도 주고 할 때 그 삶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까?)

114005 #1 인심이라던지 모든 거는 그 당시가 나은디.(인심이라든지 모든 거는 그 당시가 나은데.)

114005 @ 예.(예.)

114005 #1 이전처럼 빡빡허진 않은데.(이전처럼 빡빡하진 않은데.)

114005 @ 예.(예.)

114005 #1 셍활이 곤란헤 놓으니까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화합이 잘 뒛다는 셍각이 들고.(생활이 곤란해 놓으니까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화합이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

114005 @ 예.(예.)

114005 #1 이제는 물질이 잘 뒈다 보니까 개인 이기주의, 자기만 잘 살면 뒈겟다허멍 놈의야 잘 살든 말든 자기만 잘 살면 뒌다는 그런 사정이 헤놓니까.(이제는 물질이 잘 되다 보니까 개인이기주의, 자기만 잘 살면 되겠다하며 남이야 잘 살든 말든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사정이 해놓으니까.)

114005 @ 예.(예.)

114005 #1 마음 적으로는 지금 현재가 사회적인 것은 나쁜 것 ᄀᆞ타.(마음 적으로는 지금 현재가 사회적인 것은 나쁜 것 같아.)

114005 @ 지금이마씨?(지금이요?)

114005 #1 에.(예.)

114005 #1 옛날엔 첨 인심이 좋고, 문제는 곤란헤서.(옛날엔 참 인심이 좋고, 문제는 가난해서.)

114005 @ 음.(음.)

114005 #1 첨 거, 때 굶을 때라놓니까 안 도와줄 수 없는 사회가 그렇게 뒈엇고.(참 거, 때 굶을 때이니까 안 도와줄 수 없는 사회가 그렇게 되었고.)

114005 @ 음. 삼춘은 어떵 셍각들엄수과? 지금이 사는 게 더 펜허고 낫수꽈? 아니믄?(음. 삼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이 사는 게 더 편하고 낫습니까? 아니

면?)

114005 #2 개인으론 펜헌디.(개인으로는 편한데.)

114005 @ 예.(예.)

114005 #2 예를 들엉 주변 사름덜이 아, 나 베불르민 놈 베고픈 줄 몰른다는 식이라 이제.(예를 들어 주변 사름들이 아, 나 배부르면 남 배고픈 줄 모른다는 식이야 이제.)

114005 @ 예.(예.)

114005 #2 옛날에는 나가 베부러도 놈 베고팜구나, 허는 배려가 이신디.(옛날에는 나가 배불러도 남 배고프겠구나, 하는 배려가 있는데.)

114005 @ 음.(음.)

114005 #2 이제는 그런 것이 엇어.(이제는 그런 것이 없어.)

114005 @ 게난. 아, 맞아예, 알앗습니다예.(그러니까. 아, 맞아요, 알았습니다.)

연구 참여자

이름	소속과 전공	분야	참여 구분
박찬식	제주학연구센터	역사학	연구 책임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국어학(제주도방언)	교열 및 감수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총괄, 제주시 도련1동 표선면 표선리
김미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조천읍 선흘1리
김선희	제주대학교 강사	고전문학(제주무속)	구좌읍 송당리
김승연	박사과정 수료	한국학(제주무속)	성산읍 고성리
허영선	제주대학교 강사	한국학(제주역사)	표선면 표선리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남원읍 남원리
최연미	돋을양지책드르	국문학	서귀포시 보목동
김성용	귀일중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안덕면 동광리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한경면 고산리
안민희	민요패 소리왓	한국학(제주민요)	한림읍 월령리
현혜림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	국어국문학	연구보조

2017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7

발행인 박찬식
발행일 2017년 12월
발행처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이도1동) 3층
전화: (064) 726-5623, 팩스: (064) 747-6140
누리집: www.jst.re.kr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